PLENARY SESSION

基調演說

수중출수 유물로 본 동북아 해역의 문화교류 / **李貴永**(国立海洋文化財研究所 所長)

수중출수 유물로 본 동북아 해역의 문화교류

李貴永(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1. 들어가는 글

주지하다시피 인류의 문명은 상호 교류를 통하여 질적, 양적 발전을 거듭한다. 때문에 교류는 인류문명 발전의 원동력이며, 촉매제가 된다. 교류는 인적, 물적인 교류를 동반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水路 즉 강이나 바닷길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류는 대량수송이 가능한 까닭으로 그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삼국시대 백제의 경우 지방의 유력세력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곧 금동관이나 금동식리가 출토된 지역으로서, 경기 화성, 강원 원주, 충남의 천안, 공주, 부여, 연기, 서산, 전북의 익산, 고창, 전남의 나주, 고흥지역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로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삼국시대 서해안의 문화는 수로교통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과 그 만큼 해상을 통한 문화의 교류가 중요했다는 반증이다.

해상 문화교류의 흔적은 문헌자료나 현지 조사로도 드러나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는 수중출수 유물로 확인된다. 한국 수중에서 출수된 유물은 300여 곳 넘게 신고가 들어와 있으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탐사를 진행하여 그 실체를 확인해 나가고 있다.

이들 지역은 주로 서해안 일대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고려의 개경이나, 조선의 서울이 국토의 중서부에 위치해 있어 이들 지역으로의 물자수송이 많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침몰된 유물이 잘 보존될 수 있는 환경 즉, 수심이 상대적으로 낮고, 뻘층이 발달되어 있는 서해의 지형적 요인이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 보탠다면 호남지역의 생산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이 높았다는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의 수중발굴은 국가에서 전담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이다. 1976년 신안선 발굴이 시작되어 9년간 11차례에 걸친 수중발굴이 이루어졌다. 당시 발굴을 담당했던 문화재관리국을 거쳐 현재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발전한 한국의 수중발굴은 지난 해까지 25곳의 해저 유적에서 통일신라시대 선박 1척, 고려시대 선박 10척, 조선시대 선박 1척 등 12척의 한국 선박과 외국 선박 2척 등 총 14척의 고선박과 10만 여점 이르는 수중유물을 발굴하였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이들 한국 수중발굴 유적과 출수 유물을 개괄하고, 동북아 해역의 항로, 교류 물품의 종류, 발신처(자)와 수신처(자) 등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명의 교류 규명함에 있어 실증적인 증거가 되는 당대의 수중출수 유물을 통해 당시 문화교류의 일면을 살펴보고, 동북아 해역, 그 중에서도 한국의 서해에서 이루어진 문화 교류상을 조금이나마 밝혀보고자 한다.

2. 한국 수중발굴 유적과 출수유물[1)]

1) 통일신라

■ 인천 옹진군 영흥도선 수중발굴

국적/시대 : 통일신라, 8~9세기
유적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섬업벌 해저
발굴 시기 : 2012년 ~ 2013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섬업벌 해역에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수중 발굴조사를 시행하여 도자기 870여 점을 발굴하고, 고선박 1척을 인양하였다.

특히 발굴선체는 저판과 彎曲從通材(저판과 외판을 연결하는 L자형 부재)를 연결하는 데 사용한 長槊(바닥판과 바닥판을 연결하는 긴 나무못)이 기존의 고려 시대 발굴 선박에서 저판을 관통하는 것과 달리, 경주 안압지선과 유사하게 밖으로 노출되어 연결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영흥도선은 고선박 중 그 시기가 가장 앞서는 양식으로 우리나라 해양사와 선박사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선체 내부에서는 청자가 단 1점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陶器 6점과 철제 솥 12점, 동제 용기 1점, 사슴뿔 2점이 확인되었다. 12점의 철제 솥들은 겹겹이 쌓아 선적된 화물의 형태로 발견되었으며, 모두 다리가 없는 가마솥으로 통일신라시대 쇠솥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결과 채취한 시료의 연대가 모두 8~9세기경으로 분석되었다. 또 청자가 선체 내부에서 1점도 확인되지 않은 점, 선체 내부에 적재되었던 철제 솥의 형태, 도기병에 시문된 파상집선문 등은 고려 시대 이전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영흥도선은 통일신라시대의 선박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2) 고려

(1) 11세기 : 군산 십이동파도선

■ 군산 십이동파도선 수중발굴

국적/시대 : 고려, 11세기
유적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해저
발굴 시기 : 2003년 ~ 2004년

당시 국립해양유물전시관(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이전 기관명칭)은 2003~2004년 전북 군산시 옥도면 군산항 서쪽 30km 해역 십이동파도 근해에서 어로작업 중 신고된 고려청자 매몰해역에 대한 수중발굴조사를 실시하여 8,000여점의 수중유물을 발굴하였다.
인양된 유물의 대부분인 고려청자들은 모두 순청자 계통에 속하는 상감청자 이전 시기의 것들이 발굴되었다. 발굴된 청자에 대하여 연구결과 전남 해남군 산이면 진산리 가마터에서

1) 이 부분은 필자가 대표로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2016년 개최한 <대한민국 수중발굴 40년> 특별전 도록의 유적설명 내용을 유적의 연대에 따라 정리하여 거의 고침 없이 전제하였습니다. 도록에는 유적, 유물의 사진 등이 실려 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굴된 청자와 비슷하며, 시대는 11세기 후반 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발굴과정에서 청자 주변에 채워진 완충 재료들이 수습됨으로써 지금까지 막연하게 추측되었던 도자기 포장방법을 밝힐 수 있었다. 완충 재료는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나무, 짚, 갈대를 사용하였다.

인양된 선체는 갑판 등 상부가 남아 있지 않았으나, 평저형의 저판과 彎曲縱通材를 비롯한 저판 연결용 長槫, 외판지지재 加龍을 갖춘 구조선이었다. 인양 유물 중 이물비우, 닻돌, 닻줄은 이제까지 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선박관련 자료였다. 인양 선박의 시기는 11세기경으로 추정되며, 고려시대의 韓船 발달과정과 선체구조를 비교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2) 12세기 : 완도 어두리 완도선, 태안 대섬 태안선, 태안 원안해역, 안산 대부도 2호선, 군산 야미도

■ 완도 어두리 '완도선' 수중발굴

국적/시대 : 고려, 12세기
유적 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 해저
발굴 시기 : 1983년~1984년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 앞 바다에서 키조개를 잡던 어부들이 고려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몇 점의 그릇을 건져 올림으로써, 완도해저유물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완도해저유물 발굴조사단이 구성되고, 1983년 12월과 1984년 3~5월에 걸쳐 발굴이 이루어져 12세기 전중반의 고려시대 배 한 척과 도자기 등 3만여 점의 유물이 출수되었다. 학자 따라서는 11세기 후반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유물이 매장된 곳과 어두지섬 사이에는 암초가 형성되어 밀물 때는 물속에 잠기지만 썰물 때는 위 부분만 약간 드러나기 때문에 항해하기에 매우 위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물의 흐름은 2~3노트로 혼탁한 물 때문에 수중조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개펄 속에 묻힌 자기는 비교적 보존상태가 좋았지만, 배는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선체의 인양은 해체 방식으로 하였다. 10톤으로 추정되는 완도선은 평저선으로 도자기를 비롯해 30,701점의 유물이 실려 있었다. 청자 30,645점, 잡유병 26점, 토제품 2점, 철제품 18점, 목제품 9점, 석제품 1점 등이다. 청자는 해남 진산리산 녹청자류로서 지방관청과 사찰 등에 납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침몰선은 현재까지 수중에서 발견된 다른 선박들이 북쪽으로 향하던 것에 비해 남해안을 따라 동향하던 선박이었다는 특징이 있다.

■ 태안 대섬 '태안선' 수중발굴

국적/시대 : 고려, 1131년
유적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대섬 해저
발굴 시기 : 2007년~2008년

태안 대섬 앞바다 수중발굴은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안흥항 근해에서 주꾸미 잡이를 하던 어부의 그물에 고려청자 한 점이 걸려 나오면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단에 의하여 2007년부터 2년간 수중발굴이 진행되었다. 태안 대섬 앞

바다 수중발굴로 인하여 태안 보존처리소가 탄생하였으며 인근 마도 앞바다 발굴로 이어지는 수중문화재 발굴의 르네상스를 구가한 역사적 발굴이었다.

태안 대섬 수중발굴에서는 목간, 청자바루, 청자연꽃무늬대접, 청자두꺼비모양벼루, 청자사자 모양향로 등 2만 여점의 고려시대 유물이 출수되었다. 태안 대섬에서 출수된 고려시대 최초의 목간에서는 발신지를 알 수 있는 '耽津(지금의 강진)', 수취인을 알 수 있는 '崔大卿, '在京隊正仁守(개경에 있는 대정이란 관직의 인수)' 등 중요한 명문자료가 출수되었다.

이 목간의 판독으로 인하여 태안 대섬 앞바다 수중발굴 유물은 12세기 전중반 고려시대 강진에서 출발하여 수도인 개경으로 가던 중 침몰된 청자운반선으로 판명되었다.

■ 태안 원안해역 수중발굴

국적/시대 : 고려
유적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원안해수욕장
발굴 시기 : 2010년

해녀가 작업 중 발견한 청자를 신고함으로 알려진 원안해역에서는 220점의 고려청자가 발견되었다. 청자는 대부분이 순청자이며 기형은 대접, 접시, 뚜껑, 유병, 잔 등이 있다. 이들은 한 선박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되나 유물집중 매장처를 찾지는 못하였다

■ 안산 대부도 2호선 발굴

국적/시대 : 고려, 12세기
유적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방아머리 해수욕장 인근해역
발굴 시기 : 2015년 6월

대부도 2호선은 2014년 11월 낙지잡이를 하던 어민에 의해 발견 신고된 고려시대 고선박이다. 대부도에서는 2006년에도 고려시대 선박이 발굴된 바 있어 대부도 2호선으로 명명하였다.

이 배는 방아머리 해수욕장 인근의 潮間帶에 위치하여 밀물 때는 바닷물 속에 잠기고 썰물 때만 선체 일부분이 노출되는 상태였다. 발굴조사 결과, 50여 점의 도자기들과 청동 숟가락, 청동 그릇, 목제 빗, 감씨 등 다양한 종류의 유물이 출수되었다.

선박은 바닥면을 이루는 저판이 지금까지 발견된 사례가 없는 4열 구조이며, 돛대 구멍이 저판 중앙부 2개의 열에 각각 하나씩 만들어져 있다. 선박의 잔존길이는 약 9.2m, 최대 폭은 2.9m가량으로, 기존에 발견된 고려 선박에 비해 크기가 작고 날렵한 형태를 지닌 것이 특징이다. 대부도 2호선은 선박의 구조와 선체 내부에서 수습된 도자기들을 통해 12세기 후반 경의 고려 시대 선박으로 추정하고 있다.

■ 군산 야미도 수중발굴

국적/시대 : 고려, 12세기
유적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해저
발굴 시기 : 2006년~2009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는 2006~2009년까지 새만금 개발지구 내해 '야미도' 해역에 대한 수중발굴을 실시하였다. 4년에 걸쳐 3차례 수중발굴 조사된 새만금 내해지역 1차, 2차 수

중발굴은 제보에 의한 학술발굴이었으며, 3차 수중발굴은 새만금 개발지구 친환경 부지조성에 대한 국책 발굴이었다.

야미도 수중발굴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 인양한 유물은 총 4,547점이다. 대부분 12세기 조질 청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선박은 발견되지 않았다. 발굴된 청자는 민수용으로 품질이 낮으며 완도 어두리 해저 청자와 비교될 만한 것들이다.

(3) 12~13세기 : 진도 명량대첩로 인근해역, 군산 비안도, 안산 대부도 1호선

■ 진도 명량대첩로(오류리) 인근해역 수중발굴

국적/시대 : 삼국, 고려, 조선
유적 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오류리 해저
발굴 시기 : 2012년~2016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전라남도 진도군 명량대첩로 해역에서 2012~2017년, 연차적으로 수중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자기와 총통, 닻돌, 동전 등 600여 점의 유물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수중유적은 북서쪽으로 4Km에 울돌목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울돌목은 강한 물살로 인하여 선박의 항해가 어려웠으므로 예로부터 우리나라 4대 險阻處라 불렸다. 이런 강한 조류 때문에 해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났으며 많은 선박들이 이 해역에 수장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명량대첩로 해역에서 발굴된 유물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고려청자이다. 대부분 12~14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조사구간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기존에 발굴되었던 유물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기형들이나 문양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청자로는 기린·오리·원앙 모양의 향로뚜껑, 삼족향로, 병, 호 등을 들 수 있다. 발굴유물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임진왜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小小勝字銃筒 3점과 그리고 石丸이 다수 출수되었다.

소소승자총통은 조선시대에 사용한 개인용 화기로 발굴조사 이전까지 실물뿐 아니라 문헌에서도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특히 표면에 새겨진 명문으로 제작시기, 무게, 제작자 등을 알 수 있다.

■ 군산 비안도 수중발굴

국적/시대 : 고려, 12~13세기
유적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해저
발굴 시기 : 2002년~2003년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에 대한 수중발굴조사는 2002년 4월 소라잡이 하던 어부의 신고로, 비안도 동방 1km 해역에 다량의 고려청자가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이다. 이에 문화재청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현지조사 및 긴급탐사를 실시하였다.

긴급탐사 결과 신고지역 부근에 다량의 도자기가 매장되어 있고, 유물이 매장된 해역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지형의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유물이 노출되었음이 밝혀졌다.

인양된 유물은 고려시대 청자상감국화문합과 청자상감국화문잔을 비롯한 2,900여 점의 고려청자(12~13세기)가 인양되어 도자기 발전과정을 밝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 안산 대부도 1호선 발굴

국적/시대 : 고려, 12~13세기
유적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해안 갯벌
발굴 시기 : 2006년

안산 대부도 1호선 발굴 조사는 2006년 조개를 채취하던 마을 주민이 갯벌위에 선체 잔해로 보이는 목재 편들을 발견 신고하면서 이루어졌다. 신고를 받고 동 해역에 대한 긴급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선체가 그 동안 공백상태로 남아 있던 고려시대 중반기 전통한선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하고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잔존 대부도선의 저판은 중앙저판이 우측면 저판과 맞대어 결구된 3열형태의 고려시대 선박이다. 유실된 저판을 조합하면 저판은 총 5편이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잔존 저판의 규모는 길이 662cm, 너비 140cm, 두께 25cm 정도이다. 선수와 선미의 연결부위는 유실되어 남아있지 않으나 중앙저판에 돛대받침이 시설되어 있다. 돛대 받침은 중앙 저판재에 시설되어 있으며 가로 25cm, 세로7.7cm, 깊이 7cm의 사각 구멍이다.

외판은 저판과 결구된 우현측 1단이 잔존한 상태이다. 2개의 판재를 연결하여 상면외측에 'L'자 형태의 턱을 따고 상단 외판을 받아 붙이는 이음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유실이 심하다. 크기는 길이 570cm, 너비 330cm, 두께 15~20cm이다.

선체를 제외한 수습된 유물은 거의 없지만, 선체 발굴 조사결과 선체는 12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 완도선 보다는 발달된 구조로 판단되며 시대는 약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초에 해당하는 고려시대 선박으로 비정할 수 있어 선박사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4) 13세기 : 보령 원산도, 태안 마도 1호선, 태안 마도 2호선, 태안 마도 3호선, 목포 달리도선

■ 보령 원산도 수중발굴

국적/시대 : 고려, 13세기 전반
유적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해저
발굴 시기 : 2004년~2005년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해역에서 실시된 발굴조사는 원산도 근해에서 고려시대 청자편이 다량으로 발견 신고되어 2004~2005년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선체의 흔적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원산도 해역은 고대로부터 해상 교통로로 주변에 암초가 형성되어 있어 고선박의 침몰이 잦았던 지역이다. 또한 아산지구 방조제 공사가 완료된 1979년 이후 유속이 급격히 바뀌면서 해저에 매장되었던 도자기 파편들이 노출되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해저면은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갯벌층을 이루고 서북쪽으로 암초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발굴조사지역은 청자파편이 갯벌에 넓게 분포하고 있고, 도자기 파편은 표층에서 10~20cm 정도의 깊이에 패각류와 함께 매몰되어 있었으며 유물 집중 매장처는 확인할 수 없었다.

조사를 통하여 수습한 도자기 편들은 1,000여점으로 매병, 대접, 접시, 완, 향로, 잔탁, 약봉, 연적, 의자 등 왕실과 최상류층을 위해 13세기 전반(12세기 후반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강진에서 제작된 최상급의 비색청자들로서 완형일 경우 국보 또는 보물급 수준의 작품들이

다. 발굴된 청자는 문양이 없거나 음각과 양인각으로 문양을 새긴 순청자가 대부분이며 간략하면서 단아한 무늬의 상감청자가 일부 있어 순청자와 상감청자가 함께 사용되었던 전성기 비색청자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 태안 마도 1호선 수중발굴

국적/시대 : 고려, 1208년
유적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마도 해저
발굴 시기 : 2009년~2010년

마도 1호선이 발굴된 태안 마도 앞바다는 예로부터 難行梁이라고 불리던 지역으로 짙은 안개, 암초, 급 조류로 인하여 난파선이 많이 발생하던 해역이며 역사적으로도 서울로 가기 위한 중간 기착지 역할을 했던 곳이다.

2009년부터 2년간 진행된 태안 마도 1호선 수중발굴에서는 도자기뿐만 아니라 청자류, 건어물류, 곡물류, 도기류, 죽공예품이 출수되었다.

마도 1호선에서 출수된 목간과 죽찰의 해석을 통하여, 1207년 겨울에서 1208년 초에 걸쳐 해남·나주·장흥에서 화물을 싣고 개경으로 이동하는 중에 태안군 마도 해역에서 침몰하였음이 밝혀졌다. 수신인은 개경에 있는 大將軍 金純永, 別將 權克平, 同正 宋壽梧 등으로 무신정권기의 관료들 이름이 정확히 적혀 있었다.

출수된 도자기류는 약 1,000여점이다. 수중발굴 역사상 한국유물로는 처음으로 干支名 목간과 죽찰이 출수되어 출항연대, 발신인, 수신인, 화물종류 등을 알 수 있는 획기적인 발견이 되었다.

■ 태안 마도 2호선 수중발굴

국적/시대 : 고려, 1213년
유적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마도 해저
발굴 시기 : 2010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태안군 근흥면 마도 앞바다 마도2호선에 대한 수중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마도2호선은 수중발굴 역사상 수중에서 출수유물에 대한 정밀 실측을 시도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선박에 실린 화물표에는 발송지와 수취인, 화물종류, 수량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수취인 중 이극서(李克胥)와 유대경(庾大卿) 등 시대적 인물을 통하여 마도2호선이 1200년을 전후한 시기의 선박임을 알 수 있다.

또 마도2호선은 현재의 전라북도 고창군 일대인 高敞縣, 茂松縣, 長沙縣, 高阜郡에서 거둬들인 쌀, 콩, 누룩, 메주, 젓갈류 등을 싣고 개경으로 향하던 곡물 운반선이었음이 밝혀졌다.

마도2호선에서는 고려청자 140점과 시루 등 도기 63점도 발굴되었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최상급 매병 2점으로 죽찰이 매달려 있는 채로 발굴되었다. 죽찰 판독결과 매병은 重房(고려시대 무신정권 최고회의 합좌기관)의 하급무반 吳文富가 수취인이었으며, 꿀과 참기름을 담고 있었다. 또한 매병을 당시 사람들은 <樽>이라고 불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2점의 매병과 죽찰은 보물로 지정되었다.

■ 태안 마도 3호선 수중발굴

국적/시대 : 고려, 1265년~1268년
유적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마도 해저
발굴 시기 : 2011년

2011년 5월부터 10월까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마도 앞바다에서 고려시대 난파선 마도 3호선 수중발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35점의 화물표, 도기호, 청자, 청동용기를 포함 다수의 곡물류와 동물 뼈 등을 발굴했다. 마도3호선의 발굴은 육상 발굴 기법을 수중에 도입하여 단계별로 맥락에 의한 촬영, 실측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던 발굴로서 의미가 있다.

출수된 목간 연구를 통하여 마도3호선은 1265~1268년 사이 침몰한 선박으로 밝혀졌다. 발송지는 전라남도 여수를 포함한 남부 해안이며, 최종 목적지는 당시 고려의 임시수도였던 강화도였다. 화물의 수취인은 최고 권력자인 金俊을 비롯하여 重房, 三別抄 등 무인세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실렸던 화물은 전복, 홍합 등 고급 어패류와 말린 상어, 布, 곡물이다.

마도3호선은 江都 시기 정치·경제적인 사회 현상 뿐만 아니라 먹거리, 놀이문화, 생활용품 사용방법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던 타임캡슐이라고 할 수 있다.

■ 목포 달리도선 발굴

국적/시대 : 고려, 13~14세기
유적 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충무동 달리도 갯벌
발굴 시기 : 1995년

1989년 6월경 전남 목포시 충무동 달리도 북쪽에 위치한 속칭 '지픈골' 앞 해변에서 낙지잡이를 하던 어부에 의해 개펄에 노출된 매몰 선체 및 유물 일부가 발견되어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1994년 2월 매몰선 주변에서 접시와 청동숟가락을 포함한 다량의 도자기편이 수습되었다.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조사단을 구성하여, 1995년 6월 8일부터 7월 29일 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침몰선은 바닷물이 들어오는 만조 시에는 잠기고, 干潮시에 물이 빠지면서 선체의 일부가 드러날 정도로 개펄에 얕게 묻혀 있었다. 발굴결과 선체 내부에 유물은 없었으나, 선체와 함께 부식된 밧줄이 출수되었다.

인양 선체에 대한 연대 추정은 동반 유물이 없어 정확한 추정이 어려워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등 과학적 분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에 의하면, 달리도선의 연대 범위는 BP 730±57로 보정연대는 1210~1400년간(확률 95%)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시대는 고려시대 후기인 13~14세기경의 선박으로 보인다. 이 선박은 완도선 보다 2~3세기 후에 제작된 것으로, 선체의 모양이나 형태는 커다란 차이점이 없지만 훨씬 정교해지고 기술적으로 세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14세기 : 신안 안좌도선, 무안 도리포

■ 신안 '안좌도선' 발굴

국적/시대 : 고려, 14세기
유적 위치 : 전남 신안군 안좌도 금산리 해안 갯벌
발굴 시기 : 2005년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금산리 해변에서 2005년 2월 현지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고려시대 전통한선 1척과 고려청자 등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발굴조사 지역은 목포시 남서쪽 24km 지점에 위치한 전남 신안군 안좌면 금산리 해역으로 잔존 선체는 3개의 저판재를 갖춘 고려시대 전통 한선이며 우현 외판 7단과 좌현 외판 2단이 남아 있었다. 잔존 선체는 길이 14.70m, 폭 4.53m, 깊이 1.40m로 발굴된 한선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이외에 선체내부에서 고려청자 잔, 소접시가 출수되었는데 상감청자 쇠퇴기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유물로 안좌선이 14세기 중·후반의 선박임을 밝히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었다.

선체는 남북방향으로 가라 앉아 있으며, 저판과 외판, 선미부 고물비우, 멍에와 가룡 등을 인양하였으며, 좌현외판 3단 이상과 갑판 부분은 남아있지 않았다. 발굴 유물은 선체편 30여 편, 도자기 2점, 가공된 목재편, 원통목, 밧줄, 돌판, 숫돌, 도기편 등이다.

마지막으로 시대편년을 밝히는 자료로 청자국화문잔과 청자소접시가 인양되었는데, 선체의 구조가 기존 발굴된 달리도선(14세기)과 유사한 점이 많고 선박에 동반된 도자기가 상감청자 쇠퇴기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대편년은 대략 14세기 후기에 해당하는 고려시대 선박으로 판단되었다.

■ 무안 도리포 수중발굴

국적/시대 : 고려, 14세기
유적 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해저
발굴 시기 : 1995년～1996년

1995년 10월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도리포 앞 바다에서 청자대접 등 120여 점의 유물이 인양 신고 되었다. 문화재관리국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예비조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해군「충무공 해전발굴단」의 도움을 받아서 수중발굴을 진행하였다.

발굴 현장은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도리포 북쪽 약 3㎞ 지점의 해역으로 함평군과 영광군을 접하고 있으며, 신안군의 어이도 및 전장포 지역이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1995년 10월 12일부터 1995년 10월 27일 까지 16일간, 해군「충무공 해전발굴단」의 협조하에, 문화재관리국『도리포 해저발굴조사단』이 1차 조사를 실시하여 청자대접 364점, 접시 45점, 완 40점, 발 1점, 잔 1점, 잔대 1점 등 총 449점의 유물을 인양하였다.

2차, 3차 조사는 1996.5.15~6.13, 1996.10.25~11.13까지 실시되었는데, 이는 1차 조사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와 선체 매몰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주로 작업을 실시였다. 하지만 선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청자대접 등 190점을 인양하였다.

무안 도리포에서 인양된 도자기는 주로 13~14세기 경,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에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3) 조선, 15세기 : 태안 마도 4호선

■ 태안 마도 4호선 수중발굴

국적/시대 : 조선, 1417~1425년
유적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마도해저
발굴 시기 : 2015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15년 충남 태안군 마도 해역에서 마도4호선 수중발굴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선체의 잔존 규모는 길이 13m, 폭 5m이며 '廣興倉'명 목간, '內贍'명 분청사기 등 총 300여 점의 유물이 출수되었으며 유물과 선박 구조 등을 통해 조선 시대 조운선임을 확인하였다.

선박 내부에서는 목간 60여 점도 함께 출수되었다. 목간 대부분에는 발신처인 나주와 수신처인 광흥창을 뜻하는 羅(丷)州廣興倉이 적혀있었으며, 이는 전라남도 나주 榮山倉에서 거둬들인 세곡 또는 공납품을 관리의 녹봉을 관리하던 조선 시대 국가 기관인 광흥창으로 옮기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출수된 분청사기 대접과 접시는 140여 점으로 그 중 3점에 '內贍'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는 조선 시대 궁궐에 물품을 관리하던 內贍寺를 의미하는데 '내섬'을 분청사기에 새기기 시작한 때는 관청의 명칭을 표기하도록 하는 1417년(태종 17) 이후로 알려졌다. 따라서 출수된 도자기는 15세기 초반 제작 양식으로 판단되었다.

출수된 목간과 분청사기 등의 유물들은 조선 시대 초기 공납제도의 모습과 당시 공물의 운송방식인 조운에 대해 최초 확인된 실증 자료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4) 중국 : 제주 신창리, 태안 마도해역, 진도 벽파리 '진도선', 신안 방축리 신안선

■ 제주 신창리 수중발굴

국적/시대 : 중국 / 원, 12~13세기
유적 위치 :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신창리 해저
발굴 시기 : 1980년, 1983년, 1996년

문화재청과 제주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을 실시하여 12~13세기 금제장신구류, 중국 도자기 등이 출수되었다.

■ 태안 마도해역 출수 중국 도자기

국적/시대 : 중국 12~13세기
유적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마도 해저
발굴 시기 : 2009~2012년

태안 마도 앞바다에서 2009년부터 4년간 실시한 광역 해저 탐사 과정에서 출수된 중국 도자기들은 166점으로 그간 우리나라 해저에서 중국도자기가 출수된 신안선 수중발굴이후 처음 있는 성과이다. 마도 출수 중국 도자기들은 대부분 송·원대 중국 福建省 閩江유역의 요지에서 제작된 것들로서 12~13세기 麗宋貿易의 결과로서 해석된다.

宋 徽宗 연간 중국 강남의 보타도에서 출발하여 고려개경까지 여정을 기록한 북송 사신 서긍의 宣和奉使高麗圖經에서도 마도 앞바다의 험난함과 중간 기착지로서 태안 馬島 安興亭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한 것만 보아도 마도 앞바다는 거친 바다를 건너기 위한 사신선, 무역선의 중요 기착지였음을 알 수 있다.

마도 출수 중국 도자기는 대부분 남송 대 복건성 泉州, 福州 중심의 상단에 의하여 거래되거나 사용되어진 도자기로서 생산 요장별로는 閩江 수계의 閩淸義窯 생산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같은 수계의 建窯, 茶洋窯, 福淸窯, 晋江 수계의 磁竈窯 생산품도 있다. 이외에도 龍泉窯, 越州窯, 宜興窯, 景德鎭窯, 磁州窯 계통의 도자기들이 소량 출수되었다.

태안 마도 앞바다 출수 중국 도자기 중 일부는 굽 안 바닥에 묵서가 나타나는데 묵서의 내용은 고려에 온 중국 송·원 시기 무역 상인들의 성인 楊·陳·林·張·鄭·徐 등과 상단을 의미하는 綱·綱司가 주를 이룬다. 이처럼 굽 안바닥에 묵서명이 씌여진 도자기는 일본 하카다(博多) 유적에서도 출수되고 있다.

■ 진도 벽파리 '진도선' 발굴

국적/시대 : 13~14세기 중국 원 또는 일본
유적 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 수로 갯벌
발굴 시기 : 1991년~1992년

1991~1992년까지 전남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의 수로 간석지에서 발굴된 통나무로 중국, 또는 일본 배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선체는 녹나무로 건조하였는데, 중국 남부지방에서 많이 자생하는 나무이다. 선체의 제작 시기는 대체로 13~14세기로 추정되며, 선수쪽 보수공에서 발견된 동전 8점 중에 政和通寶(송휘종 宋徽宗, 1111~1117)와 주변에서 수습된 도자기 편들이 11~14세기의 연대를 보이고 있지만, 선형에 있어서는 일본 선박의 형태도 보이고 있다.

船材, 桐油灰의 石灰를 시료로 분석한 방사선탄소연대측정 결과 보정연대가 1260~1380년으로 나왔다. 진도 통나무배는 그 국적, 운영주체,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신안 방축리 신안선 수중발굴

국적/시대 : 중국 원(元), 1323년
유적 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해저
발굴 시기 : 1976년~1984년 총 11차례

1975년 8월 전남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앞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던 어부의 그물에 청자매병 등 6점의 유물이 건져 올려진 것을 계기로 신안해저발굴이 시작되었다. 발굴 현장은 신안군 증도에서 4㎞떨어진 곳으로 북위 35°1′15″, 동경 126°5′6″이다. 현장의 수심은 평균 20m정도이며 조석에 따라 약 4m의 수심 변화가 있다.

신안해저발굴은 우리나라 수중고고학의 장을 열었으며, 1976년부터 1984년까지 9년 10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수중발굴이었다. 동원된 잠수사가 연 9,896명, 연 잠수시간 3,474시간으로서 시계가 좋지 않고 조류가 빠른 열악한 조건 아래서 해군 해난구조대 역사상 최장기간 투입된 지원이었다.

발굴은 설치한 부표를 중심으로 조사범위를 9,600㎡(120mx80m)로 획정하여 외부에서 중심부로 인양작업을 실시하였다. 수중 작업은 잠수사를 2인 1개조로 편성한 뒤 부표 줄을 타고 내려가 해저 면에 도착하여 유물분포를 조사하고 인양하였다.

조사 결과 선체의 현존 길이는 28.4m, 너비는 6.6m로 밝혀졌으며, 갑판이상은 해충에 의해 완전히 부식되어 형태가 남아 있지 않았다. 인양된 선체 편은 720여 편으로 당시의 선체 원형을 복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되었다. 발굴된 유물은 총 23,502점에 이르는데, 이 유물들은 7개의 격벽으로 나누어진 선체주변에서 인양되었다. 이와 같이 2만여 점의 출수 유물은 당시 동북아 해상운송의 규모를 말해 주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교류의 증거를 제시해 준다. 이 외에도 동전 28톤, 자단목 1,017본 등이 함께 인양되었다.

이와 함께 신안선 발굴 문화재의 보존처리와 전시를 위하여 국립광주박물관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전신인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밖에도 벽파리와 명량대첩로 등 진도 해역에서 송원대 소량의 도자기가 출수되었으며, 2018년 신안 대둔도 해저 탐사에서도 12~13세기의 남송대 도자기 70여점이 수습되기도 하였다.

3. 수중출수 유물을 통해 본 동북아 해역의 항로

위에서 1976년 신안선 발굴에서부터 최근까지 실시된 수중발굴 유적과 유물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2017년까지 25곳의 해저 유적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져 14척의 침몰선을 발견하였다. 통일신라시대 선박 1척, 고려시대 선박 10척, 조선시대 선박 1척 등 12척과 외국 선박 2척 등의 고선박이 그것이다. 또 이들 발굴에서 10만 여점에 이르는 유물이 출수되었는데 이들을 발굴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현황(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제공)

구분	유적명	연도	발굴 기관	성과
1	신안 신안선	1976~84	문화재관리국, 해군합동	14C 중국 무역선 1척, 동전 28ton, 도자기 등 23,000여점
2	제주 신창리	1980,1983, 1996	문화재관리국, 제주대학교박물관	12~13C 금제장신구류, 중국 도자기 등
3	태안반도	1981~87	문화재관리국, 해군합동	고려청자 40여점, 조선백자 등 14~17C 유물
4	완도 어두리 완도선	1983~84	문화재관리국	12C 고려선박 1척, 도자기 3만여점, 선원생활용품
5	진도 벽파리 진도선	1991~92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3~14C 통나무배 1척
6	무안 도리포	1995~96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해군합동	14C 고려상감청자 638점
7	목포 달리도선	1995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3~14C 고려선박 1척
8	군산 비안도	2002~03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해군합동	12~13C 고려청자 등 2,939점
9	군산 십이동파도선	2003~04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C 고려선박 1척, 고려청자 등 8,122점
10	보령 원산도	2004~05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3C 청자향로편 등
11	신안 안좌도선	2005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4C 고려선박 1척, 상감청자 등 4 점
12	군산 야미도	2006~09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C 고려청자 4,547 점
13	안산 대부도선	2006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13C 선체편 일괄수습
14	태안 태안선	2007~08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C 고려선박 1척, 고려청자 등 25,043 점
15	태안 馬島1호선(1,2차)	2008~1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09.4.6 기관명 변경)	13C 고려선박 1척, 고려청자 등 940 점
16	태안 마도2호선(3차)	2009~1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3C 고려선박 1척,고려청자 등 974 점
17	태안 원안해수욕장 해역	201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2~13C 고려청자 531 점
18	태안 마도3호선(4차)	201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3C 고려청자 등 336 점
19	태안 마도해역(5차)	2011~1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려청자 등 667 점
20	인천 영흥도선	2010,12~1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선박 1척, 고려청자 등 723 점
21	태안 마도해역(6차)	201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려청자, 백자 등 289점
22	태안 마도4호선(7차)	201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5C 조운선, 분청사기 등 400점
23	안산 대부도2호선	201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선박 1척, 고려청자 등 76점
24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4차)	2012~17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려청자, 총통 등 693점
25	태안 당암포 해역	2017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려청자 등

이들 수중 발굴 현장을 지도에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이 지도에서 보는대로 발굴 현장은 주로 서해안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단지 수중발굴이 이들 해역만을 대상으로 인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이들 해역지역에서 발견 신고된 건수가 많았기 때문이며, 이는 곧 이들 해역에서의 수로교통이 그만큼 활발했다는 반증이다.

이들 확인된 14척의 고선박 중 일본이 목적지였던 신안선도 있다. 이를 제외한 12척의 한국 고선박들은 그 출수품들로 보아, 해남에서 남해를 따라 동쪽으로 항해하던 완도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해연안을 따라 개경 등지의 북쪽방향으로 항해하던 것들로 여겨지고 있다.

그림 2
1. 新安 防築里, 2. 濟州 新昌里 水中發掘
3. 泰安半島, 4. 莞島 漁頭里, 5. 珍島 碧波里, 6. 木浦 達里島, 7. 務安 道里浦, 8. 群山 飛雁島, 9. 群山 十二東波島, 10. 新安 安佐島, 11. 保寧 元山島, 12. 群山 夜味島, 13. 安山 大阜島, 14. 泰安, 15~17. 泰安 馬島 1,2,3號船, 18. 泰安 元安, 19. 仁川 靈興島船, 20. 泰安 馬島, 4號水中發掘(6次)

항해를 위해서는 선박을 이용하게 되는데, 동력선이 나오기 이전에는 전통적으로는 해류, 조류, 바람 등을 활용하여 항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동아시아에서는 필리핀 북부에서 발생하는 쿠로시오 해류가 주목되는데 이 해류에 의해 동-서간의 문물·역사 이동이 크게 진흥되었다는 점이 중시된다.

동아시아 고려에서도 계절풍을 이용하여 교류한 기록들이 보이고 있다. 고려 당시 북송의 서긍은 중국에서 고려로 출발할 때는 남풍을 이용하고, 중국으로 귀국할 때는 북풍에 의하여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또 『고려사』의 송상들의 내왕 기록을 보면, 대개 음력 7·8월에 남서계절풍을 이용해서 많이 들어왔고, 돌아 갈 때는 11월 이후의 북서계절풍을 기다려 회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이 이용한 항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삼국시대 이후 개발되어, 당시에는 널리 활용되던 항로로 보인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고려시대 1,223년에 송나라의 사신 서긍이 고려를 다녀갈 때 이용했던 항로이다. 당시 서긍은 한국에 도착하여 흑산- 죽도- 고섬섬- 고군산도- 대청서- 화상도- 우심서- 섭공서- 소청서- 자연도- 급수문- 합굴- 분수령- 예성강 등을 통해 개경에 도착하였는데 이 항로를 보면 한국의 서남해로 들어와 서해 연안을 따라 개경으로 올라가는 항로임을 알 수 있다. 이들 항로와 수중발굴 유적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국의 신당서에 의하면 산동반도 북부(등주)에서 대사도·구흠도- 노철산수도- 요동반도 선단(마석산)- 대련만구- 요동반도 연안을 거쳐 한국의 압록강·대동강- 황해도 초도·풍천- 교동도- 덕적도- 당은포(경기 남양)를 잇는 서해 연안항로가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항로를 비롯하여 역사적으로 다양한 항로들이 이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 항로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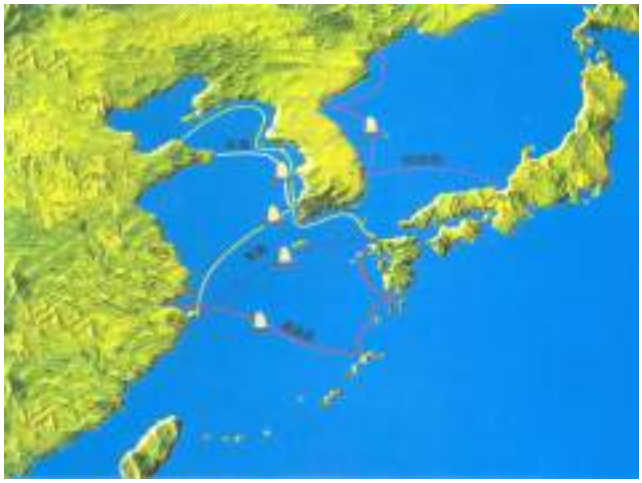


그림 3. 동북아시아 해역의 항로

표 4 동북아해역의 항로(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김병근 작성내용 인용)

항로	이동 경로
서해 연안항로 (『신당서』)	산동반도북부(등주)-대사도·구흠도-노철산수도-요동반도 선단(마석산)-대련만구-요동반도 연안-압록강·대동강-황해도 초도·풍천-교동도-덕적도-당은포(경기 남양)
서해 횡단항로	산동반도(성산)-덕적군도-황해도 첨단부-서해연안항로(옹진)-흑산도-제주도-대마도-북구주
	중국 남북부 연안-산동반도(1개 항로 택일)-황해사단-벽란도-개경
서남해사단항로 (동중국해 사단항로)	중국 남부(명주)-주산열도-서남해 사단-흑산도-서해연안 항로-벽란도-개경
서긍의 항로 『선화봉사 고려도경』	명주-정해현-호두산-백수양-황수양-흑수양-협계산-흑산-죽도-고섬섬-고군산도-대청서-화상도-우심서-섭공서-소청서-자연도-급수문-합굴-분수령-예성강
한·일 항로	○ 개경-서해연안항로-대마도-구주 ○ 나진·청진·원산·함흥-복정 등 일본 본주
중·일 항로	중국 남부(명주)-주산렬도-동중국해 사단-오도열도-구주 하카다
	중국 남부(명주)-유구열도-오도열도-구주 하카다(博多)
신안선 항로	경원-정해현-백수양-황수양-흑수양-협계산-흑산 - 안 증도 해역 침몰
	경원-정해현-동중국해 사단-오도열도-구주 하카다 목적지 항로이탈 신안 증도 해역 침몰

4. 수중유물을 통해 본 문물의 종류

동복아시아 해역을 통해 교류된 문물은 침몰선에 실렸던 화물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사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중국의 선박들에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행해진 무역을 살펴보자. 신안선을 예를 들면,

신안선은 1975년 어부의 매장문화재 신고를 계기로 1976~84년 9년에 걸쳐 11차례의 수중발굴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중국 선박 1척과 도자기 등 23,500여 점 유물이 발견되었고 발굴지역의 지명을 따서 '新安船'으로 명명되었다.

이 배는 34m(추정) 규모의 대형 무역선으로서, 중세 동아시아 해양실크로드 무역품 상황을 심층적으로 살필 수 있는 도자기, 금속제, 목제, 석제, 유리, 식물류 등과 28톤의 동전, 1,017본의 자단목 등 다양한 물품들이 실려 있었다. 출항지, 국적, 연대, 貨主, 직명, 지명, 해상운송 규모, 경제적 교류 상황 등 당시 동북아시아 무역의 모습과 문화교류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국가별로는 고려청자 등 8점의 고려유물, 나막신(下駄)·칼코(刀環)등 20여점의 일본유물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송원대 물품이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도자기는 21,000여점인데 중국 송원대유물이 대부분이다. 14세기 전반 중국 浙江省과 江西省을 중심으로 생산된 것으로 龍泉窯와 景德鎭窯 제작품이 가장 많고 이 밖에도 定窯·鈞窯·建窯·吉州窯 계통의 것도 실려 있었다.

도자기의 종류는 청자·청백자·백자류가 많고, 흑유·균유류와 소량의 토기류도 있다. 도자기의 경우 길이 50~70cm, 폭 40~60cm, 높이 40~60cm 정도의 나무상자에 10~20개씩 포개어 끈으로 묶어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씩 담아 적재하였다. 배 밑바닥에는 자단목을 깔고 그 위에 28톤(약 8백만 개 이상)의 동전을 적재하였다.

마도해역 출수 중국 도자기는 閩江 수계의 閩淸義窯 생산품이 많고, 같은 수계의 建窯, 茶洋窯, 福淸窯 그리고 晋江 수계의 자조요(磁竈窯) 생산품도 있다. 이외에도 龍泉窯, 越州窯, 宜興窯, 景德鎭窯, 磁州窯 계통의 도자기도 소량 있다.

대부분 남송 대 복건성 泉州, 福州 중심의 상단에 의하여 거래되거나 사용되어진 도자기이다. 굽 안 바닥에 쓰인 묵서에는 중국 송·원 시기 무역 상인들의 성인 楊·陳·林·張·鄭·徐 등과 상단을 의미하는 綱·綱司 등이 쓰인 것들이 있어 무역에 참여한 상인들과 상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굽 안바닥에 묵서명이 씌여진 도자기가 일본 하카다(博多) 유적에서도 출수되고 있어 한국 동북아해역을 통해 중국-한국-일본으로의 무역이 이루어진 정황을 살필 수 있다.

2) 한국 내의 화물 운송

서해를 항해하던 배들은 무엇을 실어 날랐을까? 앞서 신안선을 살펴보았는데 국제 무역선의 경우에는 도자기, 향료 등 그 시대의 진귀한 외래 물품들을 무역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내의 경우에는 국가의 공물이나, 민수용의 여러 물품들이 운송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통일신라 8~9세기 배로 추정되는 영흥도선에는 도기, 동제 용기와 사슴뿔 등이 실려 있었고, 특히 12점의 철제 솥이 겹겹이 선적되어 있었는데 당시에는 솥이 중요 화물의 하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후 고려, 조선시대의 선박들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수량의 도자기가 확인된다. 완도선 청자 30,645점을 비롯하여 태안 대섬 출수 청자바루, 청자두꺼비모양벼루 등 청자류 2만여점 등의 고려시대 것들과 '內贍'명 분청사기 3점 등을 포함 분청사기 대접과 접시 140여점이 실려 있던 조선시대의 마도 4호선 것들이 그 것이다. 도자기류를 비롯하여 앞서 언급한 솥, 청동그릇, 시루 등 각종의 용기류들은 당시의 중요한 화물의 하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이외에도 지역 특산품들인 곡물류, 어패류 등이 서해를 통해 수송되었다. 마도 2호선에서 발굴된 쌀, 콩, 누룩, 메주, 젓갈류 등은 전북 고창군 일대인 高敞縣, 茂松縣, 長沙縣, 高阜郡 등에서 거둬어 개경으로 향하던 지역 특산품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배에서 출수된, 죽찰이 달린 최상급 매병(당시 기명은 樽) 2점은 죽찰 판독결과 重房의 하급무반 吳文富에게 보내는 꿀과 참기름을 담은 樽(매병)으로 밝혀져 크게 주목을 받았다. 또 마도 3호에서도 다수의 곡물류와 동물 뼈 등을 발굴됐는데, 화물은 전복, 홍합 등 고급 어패류와 말린 상어 등이었고, 布와 곡물 등도 실려 있었다.

조선시대 조운선으로 판단되는 마도 4호선 내부에서는 60여 점의 목간이 함께 발견되었는데, 목간 대부분에는 발신처인 나주와 수신처인 광흥창을 뜻하는 羅(亽)州廣興倉이 기록되어 있어 羅州의 榮山倉에서 廣興倉으로 세곡을 옮기던 배로 판단되었다.

수중 발굴에서는 도자기류가 압도적으로 발굴되어 있으나 이는 썩지 않는 재질의 특성상 나타난 현상이고, 더 많은 화물로서 마도 4호선과 같이 곡물들이 운송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 태조 4년(1395)부터 세조 1년(1455)까지 60여 년간, 바로 이 배 마도 4호선이 발견된 안흥량 일대에서 부서지거나 침몰한 선박이 200여척, 인명피해 1,200여명, 세곡 1만 6천여섬 등의 피해가 기록되어 있을 정도이니 그 규모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5. 발신자(처)와 수신처(처)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경상도, 전라도 지역의 조운선이 서울로 가기 위해 서해를 항해하다 침몰한 기록들이 다수 보이고 있다. 이들 선박 이외에도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배들이 동북아해역을 오갔고 이를 통해 문명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어떤 학자들은 이 지역을 서양의 지중해와 비교하기도 한다.

항해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있게 마련인데, 이들은 앞의 표에서 밝힌 항로들을 통해서도 일정부분 짐작할 수 있다. 또 신안선의 경우 '至治三年六月三日'銘 등 300여점의 목간, '慶元路'銘의 청동저울추 등을 통해 볼 때, 중국 浙江省 寧波港에서 1323년 4월 22일부터 6월 초까지 화물을 싣고 일본 하카다(博多)로 향하던 배로서, 교토 東福寺 등의 절이나 신사에 보낼 화물을 선적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배가 원래 고려를 경유지로 하여 항해를 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렇지만 마도 등지에서 출수된 명문이 있는 중국의 도자기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중국의 상단들이 고려를 거쳐 중국-고려-일본을 잇는 국제무역에 종사 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다.

한국 수중 발굴에서 가장 많은 수량이 출수되고 있는 도자기들은 강진 용운리요, 강진 사당리요 등 강진지역 생산품이 다수이고, 일부 부안요, 해남 신덕리요 등에서 생산된 것도 있다. 이들은 모두 개경 등의 북쪽을 향하여 서해를 항해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완도 완도선 출수품은 민수용 또는 관청 납품을 위해 제작된 해남 진산리 생산품으로 보이는데, 이 배는 앞 서 언급했듯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동쪽으로 항해한 청자 운반선이다.

또 태안 대섬에서 출수된 고려시대 목간에서는 '耽津(지금의 강진)', '崔大卿', '在京隊正仁守 등의 명문이 있어 지금의 강진에서 개경에 사는 인물들에게 물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마도 1호선 출수 목간을 보면 1213년 개경에 있는 大將軍 金純永, 別將 權克平, 同正 宋壽梧 등으로 무신정권기의 고급 관료들에게 물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1265~1268년 출항한 것으로 보이는 마도 3호선의 화물들은, 목간으로 볼 때 전남 여수 등 남부 해안지역에서 당시 고려의 임시 수도였던 강화도로 보낸 화물로서, 수취인은 최고 권력자인 金俊을 비롯하여 重房, 三別抄 등 무인세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사적 물품의 수송 이외에도 국가의 조운 운송으로 보이는 것도 있다. 고려시대 배로는 마도 2호선이 그러한데, 이 배는 현재의 전북 고창군 일대인 高敞縣, 茂松縣, 長沙縣, 高阜郡에서 거둬들인 쌀, 콩, 누룩, 메주, 젓갈류 등을 싣고 개경으로 향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공물만 실은 것은 아닌 듯 이 배에 실려 있던, 重房의 하급무반 吳文富에게 보내는 꿀과 참기름을 담은 樽도 실려 있었다.

또 출수 유물 중 유일하게 조선시대의 조운선으로 확인되는 마도 4호선은 함께 출수된 60여 점의 목간 대부분에 발신처 羅(亽)州(나주), 수신처 廣興倉(광흥창)이 표기되어 있다. 이들은 나주 榮山倉에서 세곡을 실어 조선시대에 관리의 녹봉을 관리하던 국가 기관인 광흥창으로 보낸 것으로 판단된다. 또 출수된 분청사기 대접·접시 140여 점 중 3점에 '內贍'명이 있어 궁궐에서 물품을 관리하던 內贍寺로 보낸 도자기임을 알 수 있다.

6. 나가며

이상으로 수중 출수 유물을 통하여 동북아 해역에서 이루어진 문화의 교류상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한국의 수중발굴은 1976년 신안선 수중발굴 이후 2017년까지 40여 년 동안 25곳에서 이루어졌다. 한국 선박 12척 외국 선박 2척 등 총 14척의 고선박을 발굴하였으며, 10만여 점의 유물을 출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마도해역의 중국제 도자기, 신안선(추정길이 35m)의 200여 톤에 달하는 23,000여점의 무역품과 그 중 2만여 점의 도자기 등을 통해 14세기 당시, 무역항과 무역의 규모, 상단의 존재 등과 중국(영파 등지)- 한국(서해, 남해)- 일본(하카다)를 잇는 국제무역의 일면을 살필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강진 사당리·용운리, 부안, 해남 진산리·신덕리 등지 도요지에서 생산된 도자기와 여수지방, 나주지방, 고창지방 등지에서 실은 각종의 쌀, 콩 등의 곡물, 누룩, 메주, 젓갈류 등의 특산품, 마른상어, 전복, 홍합 등의 어류, 패류 등 각종 물품 들이 개경, 강도, 서울 등 당시의 고려와 조선의 수도를 목적지로 하여 수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수신자는 공물인 경우 광흥창, 내섬시와 같은 국가의 관청이었지만, 사적 화물인 경우에는 당시 개경이나 임시 수도인 강도에 거주하던 유력자들에게 보내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중방의 하급무반 오문부에게 꿀과 참기름과 같은 고급물품이 보내진 경우도 있었다.

이 들로 볼 때 한국 서해는 유럽의 지중해에 비유될 만큼 동북아 해상교통의 요충지로서 이곳을 통해 국제무역, 국내 화물의 운송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Section 1

東北亜 海域

Paradigm Reshaping Of Maritime Sociology:
Based On Bourdieu's Practice Theory / Dong Zhen

중국'해강(海疆)'을 둘러싼 분쟁 / 曺世鉉

근대 동북아해역의 노동 이동과 랴오둥 반도의 해항도시 / 權京仙

『航海献酬録』에 나타난 일본과 조선 학사의 중국인식 / 朴賢基

오키나와의 젠더 표상과 공간 재편 / 趙正民

東シナ海を還流する海流による日·中·韓三国の文化交流について / 村川逸朗

동북아해역 출세어(出世魚) 및 어획물의 명칭에 관한 연구 / 梁敏鎬

포츠머스 회담(1905)이 동북아해양질서에 미친 영향 / 李學洙

근대 일본제(日本製) 신한어(新漢語)의 보급 양상을 통한
동북아해역의 지식교류 연구 / 孔美熙

PARADIGM RESHAPING OF MARITIME SOCIOLOGY: BASED ON BOURDIEU`S PRACTICE THEORY

Dong Zhen, Cui Yinji & Guo Yue
Dalian Maritime University
China

MARITIME SOCIOLOGY`S FIRST QUESTION

※ FIRST QUESTION:
How could Maritime Sociology be an independent Researching Area?

→ Premises to be clean & clear:

(I) Question Domain: What to research?

(II) Fundamental Theory: On which to research?

(III) Researching Paradigm: How to research?

※ Progress of Chinese scholars: (2004-2018)

(I) √ (Practice between Human & Sea)

Lacking of (II) & (III)

FUNDAMENTAL THEORY OF MARITIME SOCIOLOGY

(II) Source of Fundamental Theory?

Original: Necessary to invent wheels again?

Implied: Which kind & which level?

※ Attempts of Chinese scholars:

a. Theory of Maritime Society (Poverty of Concepts)

b. Theory of Maritime Practice (Lacking of contents)

c. Environmental Sociology (Partly valid)

d. Cultural Sociology (Partly valid)

e. Epoche fundamental problem (Not a real way)

FUNDAMENTAL THEORY OF MARITIME SOCIOLOGY

※ My View?

Fundamental Theory = Maritime Practice embedded in particular history & society

∴ Theoretical Source: Bourdieu`s Practice Theory of Field-Capital-Habitus

※ Bourdieu: Legacy of Marx

Marx on Practice: Mainly in his works:

Theses on Feuerbach & German Ideology

MARX ON PRACTICE

※ Marx`s View:

(1) Practice concerns about Human Being and thus is generative, social & historical.

(2) Practice consists Human`s social life.

(3) Practice is able to be recognized by Positive Science.

(4) Practice embeds in specific social history, and generates from social historical activity of former Human.

(5) Practice interacts with enviro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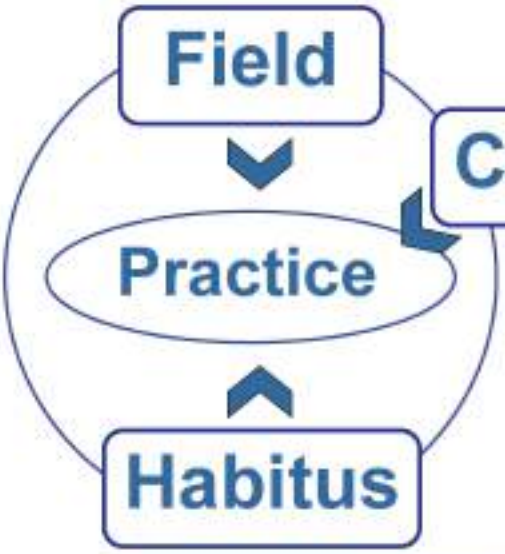
BOURDIEU ON PRACTICE

※ Bourdieu`s Practice Theory based on Marx

[?] How to recognize Practice just from practice activity itself?

Marx	Bourdieu
Practice Environment	"Field"(Social Space & Game Rule)
Activity of former Human	"Habitus"(Legitimacy generated from history)
Capital (Economical)	Capital (Symbolized)
Practice as generative, social & historical human activity	Practice as Dynamic Process that Human`s Power relations change in Field and Habitus, under the change of Capital configuration.

BOURDIEU ON PRACTICE



BOURDIEU ON PRACTICE

※ Bourdieu`s View:

(1) Practice turns to be activity which would be discrete, ambiguous, uncertain but with probable possibility.

(2) Practice thus get rid of "neutral" theoretical logics and behaves as Practice Sense.

(3) Practice solves opposition between logics of theoretical & practice, social physics & social phenomenology, methodology & theory.

(4) Practice thus offers operatable guides.

MARITIME SOCIOLOGY UNDER BOURDIEU`S VIEW

※ Basic Position: Ocean as a practical Field

∴ Basic concerns:

(1) Ocean as Field of Human`s maritime practice

(2) Ocean as particular practical space

(3) Specific Game Rule on the sea

(4) Specific Habitus of maritime practice

(5) Capital configuration & Power relation transformations of maritime practice

(6) Historical changes of maritime practice

A PRACTICE-ORIENTED RESEARCH PARADIGM

(III) Paradigm: How to research?

※ Basic logic for social science: y=f (x)

Which would ocean be? y? x? f?

※ Former researching paradigm:

(1) Ocean as y: Ocean is affected by humanbeing.

※ New paradigm:

(2) Ocean as x: Ocean affects human`s practice.

(3) Go beyond opposition:

A Zigzag Researching Paradigm

A PRACTICE-ORIENTED RESEARCH PARADIGM

※ Covariation between Ocean & Human Practice

* with different spe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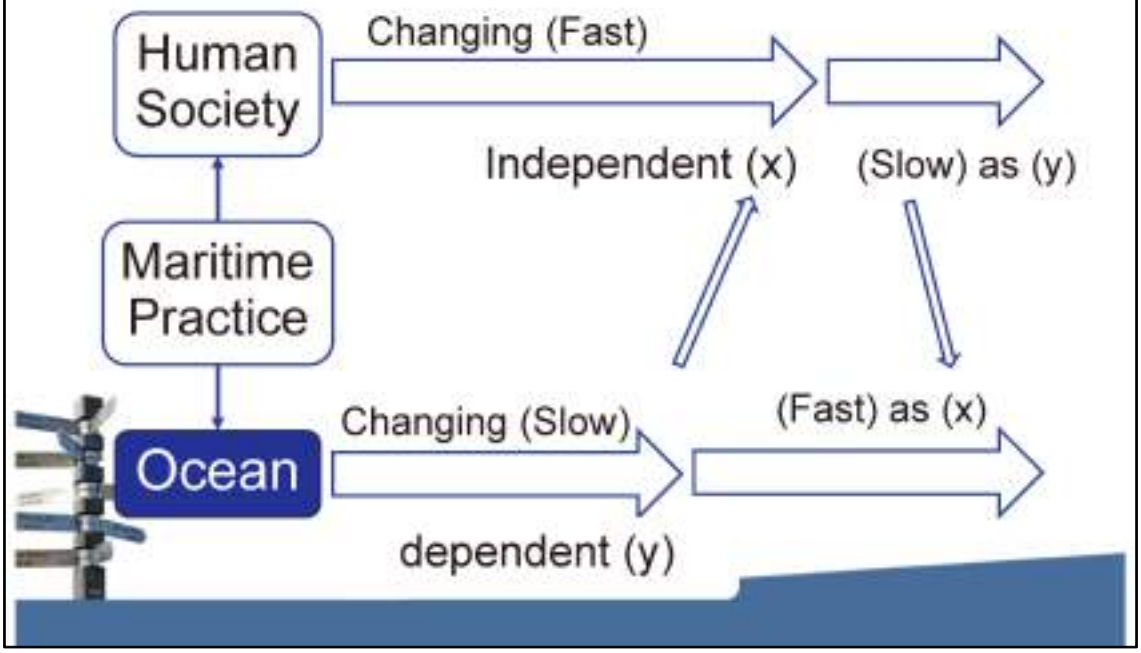
Human → Ocean (Fast)

Ocean → Human (Slow)

[?] Corresponding influence of the difference?

※ This should be a new research paradigm of maritime sociology.

A PRACTICE-ORIENTED RESEARCH PARADIGM



SUMMARY

(1) Maritime Sociology focuses on the inter-active relation between Ocean & Human Practice.

(2) Practice should be taken under Bourdieu`s view, which behaves as activity shaped by Field, Habitus and Capital.

(3) Ocean here behaves as a special Field.

(4) We should take Zigzag Researching Paradigm, switch between the dimension of Human → Ocean & Ocean →Human.

THANK YOU!

【 Abstract 】

Paradigm Reshaping of Maritime Sociology: Based on Bourdieu's Practice Theory

Dong Zhen, Cui Yinji, Guo Yue(Dalian: Dalian Maritime University, China)

Abstract: Since 2004, Maritime Sociology turned to be a new researching sphere of Sociology in China. It was defined as a kind of Sociology focuses on interactive activity between Ocean and Human Being, but the fundamental researching paradigm of Maritime Sociology still lacks to clear clarification. This paper takes a theoretic path of Marx-Bourdieu to build a Maritime Practice Paradigm for Maritime Sociology, which takes human's maritime activity as practice embedded in the environment of Field, Habitus and Capital. We thus concern that Maritime Sociology's researching paradigm should not only follow the basic logic of social science, seeking for a causal relationship of y=f(x) to simply take the factor of Ocean as an independent (x) or dependent (y) towards Human's practice, but also treat the factor of Ocean among the situation of practice, taking a Zigzag way to notice the different ways that Ocean and Human himself suffers changes and transformation during the process of practice. This would give Maritime Sociology something special to further and enrich our research.

Key Words: Maritime Sociology; Practice; Bourdieu; Researching Paradigm

중국'해강(海疆)'을 둘러싼 분쟁

조세현(부경대학교 사학과)

1. 해강(海疆)의 유래

21세기 동아시아지역의 평화공존 여부는 해양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해양분쟁 때문일 것이라는 예측조차 있다. 그래서인지 중국학계는 해양관련 국제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그 역사적 근거를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해강'(혹은 해양강역(海洋疆域))[2]에 관한 연구가 활발한 것은 댜오위다오(釣魚島)열서(=센카구(尖閣)열도), 남중국해(南中國海)제도 및 타이완(臺灣)문제 등 해양영유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애국주의적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강사연구를 하는 것이 중국학계의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해강이란 개념은 한국학계에서는 별로 쓰지 않는 용어이며, 해강범주는 중국학계에서조차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우선 전근대와 현재의 개념규정부터 다르다. 전통적으로 영해(領海)와 유사한 말로는 내양(內洋)이 있었으나 그 의미에 차이가 있었고, 오히려 영해보다 폭넓은 해강이라는 통치영역에 좀 더 관심이 있었던 듯하다. 전통시대에는 해양을 국가영토의 영역에 넣지 않았지만 해강이란 이름으로 모호하게나마 인식했는데, 이때 해강이란 주로 연해지역의 영토를 말하였다. 게다가 해강은 정확한 뜻을 가진 명사는 아니어서 어떤 경우에는 연해육지를 가리키고, 어떤 경우에는 육지와 접한 해역을 가리켰다. 해강은 해역과 유사한 말이기도 하다. 명대 이후부터 해강이란 단어는 고유명사로 자리 잡았는데, 왜구의 침략이 잦아지면서 해강이란 용어가 굳어진 듯 보인다. 청말 해방(海防)논쟁에서 서북육지변강과 동남연해해강의 관계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오늘날 중국학계의 해강개념에 대한 대표적인 견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야오광(張耀光)은 해강을 주권국가의 영해이자 연해국가의 해양국경이라고 비교적 간단하게 정의한다. 마따쩡(馬大正)은 해강경계는 육강(陸疆)에 비해 복잡한데 대체로 대륙해안선에서 영해기선 사이를 해강이라고 하며 국가의 내해로 법률상 영토와 완전히 같다고 보았다. 아울러 영해기선 이외에 국가가 관리하는 해역과 도서를 포함한다고 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해강 중 가장 큰 도서는 타이완(臺灣)과 하이난(海南)인데, 현재 중국은 이 두 섬을 각각 독립된 성으로 인식한다. 현대 국제해양법상 해양영토는 비교적 분명하지만 역사상 해강범주는 규정하기가 까다롭다. 장웨이(張煒)는 해강을 행정구역의 관점에서 보아 전근대시기 해강의 경우 연해지역 정도로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해강은 일찍부터 존재했는데 해안선이나 해안대의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구역개념이었다. 해안선 이내의 연해지구와 육지

2) '邊疆'이란 중국용어는 '邊境' 혹은 '邊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나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언제부터인가 국내학계에서는 변강을 외래어로 인정해 일반적으로 쓰는 듯하다. '海疆'이라는 용어 역시 '海洋疆域' 혹은 '沿海疆域'의 줄임말로 해양변경 혹은 해양변방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나 다소 상이하다. 여기서는 그냥 쓰기로 한다.

에 가까이 있는 도서로 구성된 이른바 연해강역(沿海疆域)을 의미했다는 것이다.[3)]

최근 해강사연구의 대표인물인 리궈창(李國强)에 따르면 해강경계를 규정하는 것은 우선 기존 육지위주의 관념으로 해양을 판단하는 인식을 버리고 마땅히 해양을 주체로 삼아 해강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면서, 중국해강은 세 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했다. 첫째, 중국영해와 연결된 육지로 해안선 부분이다. 둘째, 중국이 주권과 관할권을 가진 해역이다. 셋째, 주변국가와 해상에서 명확하게 나누어진 경계선이다. 이 세 가지가 모여 중국해강을 구성하는데, 역사적으로 동남해강사와 남부해강사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4)]

해강사는 해양사와 비교하면 중국변강사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다. 해강사는 해양강역의 형성 발전과 변천의 역사로, 역사적으로 해양정책, 해양제도, 해양관할, 해양관리, 해양개발 등을 다룬다. 해강사나 해양사는 해양역사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강사가 해양사에 비해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문제를 다루고 역사와 현실을 결합하거나 역사사실과 법률규칙을 결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특히 해양사가 국제적인 특징을 띠며 세계범위의 해양지역 역사를 다룬다면, 해강사는 중국역사학의 특수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해강사란 용어는 다른 역사학분야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리궈창은 해강사는 사실상 '중국해강사'라면서, 중국해강사는 국제해양사는 물론 중국육지강역과 해양강역의 역사문제들을 연관시켜 학술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5)]

덧붙이자면 한국학계에서 변강(邊疆)을 학술용어로 받아들인 바에는 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육강과 해강이란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더욱 적절한 용어가 있다면 대체가능할 것이다.

2. 해강을 둘러싼 분쟁

1983년 중국사회과학원 내에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을 만든 사건은 해강사연구가 활성화되는 중요한 계기였다. 중국변강사의 일부분인 해강사가 이 연구센터를 매개로 조직을 갖추었는데, 여기서는 역대 해강정책과 해양사상사, 역대 해방연구, 역대 해상실크로드와 해상무역연구, 역대 해강강역사 등을 다루었다. 특히 해강강역사 연구의 경우 하이난사, 타이완사, 홍콩사, 마카오사 등을 포괄했으며, 해강주제사 연구로는 남중국해제도 역사연구, 북부만(北部灣=통킹만) 역사연구, 댜오위다오 역사 및 중국-류큐관계 연구 등을 포함하였다.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은 2014년 10월에 중국변강연구소(中國邊疆研究所)로 개명한 후 더욱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해강사 개설서로는 장웨이(張煒)·팡쿤(方堃) 주편의 『중국해강통사(中國海疆通史)』가 대표적이다. 『중국해강통사』는 중국변강통사총서(中國邊疆通史叢書) 7부작 가운데 한 권으로 상고시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중국해강역사의 발전맥락을 여덟 장으로 나누어 정리했는데, 명·청시대의 해강과 해방문제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여하였다. 연해강역의 지리연혁에서 출발해 중국역대 연해강역의 변천을 서술하였다. 본문에서는 해양어업, 염업, 항해교통, 연해와

3) 張耀光, 『中國邊疆地理(海疆)』(科學出版社, 2001年); 馬大正, 『中國邊疆經略史』(中州古籍出版社, 2000年); 張煒, 「中國海疆史研究幾個基本問題之我見」(『中國邊疆史地研究』, 2001年6月) 등 참고.

4) 李國强, 「關於海疆史研究的幾點認識」(『史學集刊』, 2014年第1期); 劉俊珂, 「海洋疆域及其相關概念的理論探討」(『昆明學院學報』, 2016年第4期).

5) 李國强, 「關於海洋史與海疆史學術界定的思考」(『中國邊疆史地研究』, 2016年第2期); 「中國海疆史話語體系構建的思考」(『中國邊疆史地研究』, 2015年第4期).

내륙의 무역 및 해외무역, 해관 등 경제문제부터 사회발전사, 중외관계사, 해상전쟁사 등 여러 방면의 문제를 기술하였다. 이 책의 여덟 장 가운데 제7장과 제8장이 근대부분으로 현대시기는 다루지 않았으며, 책의 저자 네 명 모두 군인출신 연구자라는 특징이 있다.[6] 이들의 해강사연구는 애국주의에 호소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소통과 공존의 시각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을 받을 여지가 있다. 그밖에도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은 흑룡강교육출판사와 공동으로 변강사관련 연구서를 다수 출판하였다.[7]

(1) 댜오위다오(釣魚島)분쟁

근대시기 영해의 탄생에 따라 오늘날 중국의 해강분쟁은 주로 두 곳에서 벌어진다. 하나는 동중국해를 대표하는 댜오위다오분쟁이며, 다른 하나는 남중국해를 대표하는 남중국해제도분쟁이다.

중국에서는 동중국해문제의 대표사례로 댜오위다오 및 부속도서를 들고 있다. 댜오위다오열서(=센카구열도)는 타이완의 부속 도서로 아무리 늦어도 명대에는 중국의 영토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한다. 청일전쟁의 결과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을 체결해 타이완을 일본에 할양하면서 댜오위다오열서도 함께 일본에 병합했다는 것이다. 1945년 일본이 항복했을 때, 댜오위다오는 마땅히 타이완과 함께 중국에 반환되어야 했으나, 일본은 도리어 그 도서들에 대한 주권을 주장함으로써 분쟁의 발단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전에 댜오위다오는 주인 없는 땅이었고,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이 주인 없는 땅을 선점했기 때문에 국제법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대응했다. 게다가 이 섬들과 암초는 일본의 각의를 통해 얻은 일본의 부속도서로 타이완 할양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1970년대 미국이 일본에 댜오위다오 관할권을 넘긴 후 중국어민들이 댜오위다오 부근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여러 차례 일본해경과 갈등을 일으켰다. 중국정부와 민간단체의 항의도 끊이지 않았다. 요컨대 역사적으로 댜오위다오분쟁은 “이 섬은 옛날부터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라는 주장과 “이 섬은 1895년 일본이 발견한 무주지이기 때문에 일본의 합법적인 영토”라는 주장의 충돌이다.

댜오위다오분쟁은 동북아의 화약고로 불렸으며, 오랫동안 충돌가능성이 높은 해역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0년 9월 7일 댜오위다오부근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중국어선을 단속하면서 촉발된 양국 간의 갈등이 유명하다. 비록 외교적 협의를 거쳐 중국어선 선장을 석방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유사한 충돌은 반복되었다. 2012년 9월 일본정부가 댜오위다오에 대한 국유화조치를 단행하자, 이에 반발하여 중국정부는 중국 해양순시선의 지속적 배치와 순찰 및 첫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의 실전배치로 맞섰다. 이 때 중일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양국관계가 급격히 냉각되었다. 중국과 일본의 해양에서 물리적 충돌은 영토분쟁이 더 이상 육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현재로서는 댜오위다오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

6) 張煒・方堃, 『中國邊疆通史叢書: 中國海疆通史』(中州古籍出版社, 2003年).

7) 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에서 출판한 海疆史관련 연구서를 열거하면, 呂一燃 주편의 『南海諸島: 地理・歷史・主權』(黑龍江教育出版社, 1992年)과 『中國海疆歷史與現狀研究』(黑龍江教育出版社, 1995年), 安京의 『中國海疆史綱』(黑龍江教育出版社, 1999年), 李國强의 『南中國海研究: 歷史與現狀』(黑龍江教育出版社, 2003年) 등이 있다.

(2) 남중국해분쟁

남중국해는 중국에서 보통 난하이(南海)라고 부르며, 이 해역 여러 도서에 대한 연구는 중국해강사 연구의 주요 부분을 이룬다. 남중국해제도는 난사군도(南沙群島, Spratly Islands), 둥사군도(東沙群島, Pratas Islands), 중사군도(中沙群島, Macclesfield Reef), 시사군도(西沙群島, Paracel Islands) 등을 포함한다. 남중국해제도의 북부는 중국의 동남연해와 하이난도 및 타이완과 접하고, 동부는 필리핀의 여러 섬들과 인접하며, 남부는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와 인접하고, 서부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동해안부터 베트남 연해와 통킹만에 이르는 해역이다. 따라서 둥사군도는 중국과 타이완, 중사군도는 중국과 필리핀, 시사군도는 중국과 베트남, 난사군도는 중국과 타이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간에 영유권 분쟁이 벌어졌다.

근래 들어 필리핀과 베트남 등이 남중국해제도 주권과 관련해 국제법상 권리를 주장하고 해상군사 활동을 강화하면서 남중국해갈등이 고조되었다. 예를 들어, 2012년 필리핀이 황얀다오(黃岩島)해역에서 고기잡이하던 중국어민을 체포하자 중국경비정과 필리핀군함 간에 장기간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다. 필리핀은 중국과의 해양분쟁을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하여 2016년 7월 12일 자국에게 매우 유리한 판결을 얻었으나 중국을 이를 완강하게 부정했다. 중국과 베트남 간에는 과거 북부만 해양경계를 놓고 오랜 갈등이 있었으며, 지금도 시사군도와 난사군도의 여러 섬을 놓고 귀속논쟁이 진행 중이다. 베트남은 남중국해분쟁에서 중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다.

중국 측은 남중국해문제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본다. 미국이 세계전략중심을 동아시아로 이동시켜 남중국해문제에 개입하면서 국제여론의 중심에 섰다는 것이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난하이함대를 증강하고 산샤(三沙)시를 건립하는 등 난사군도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였다. 현 상황에 변화가 오지 않으면 남중국해 분쟁은 우발적인 충돌이나 국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3) 기타: 타이완, 오키나와, 이어도문제

중국대륙은 홍콩(1997년)과 마카오(1999년)의 귀속 후 타이완의 조국귀속을 중국 대통일의 최종목표로 삼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 귀속문제가 한 때 해강연구의 한축을 이루었듯이 타이완통일문제 역시 대륙의 입장에서는 해강강역의 하나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동시에 중국은 해강문제에 대해 타이완정부에 형제의 입장에서 동일한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대륙학계는 중국은 대륙국가에 그치지 않고 해양국가이기도 하다면서 해양중국의 대표사례로 타이완을 포섭하여 타이완역사를 중국지방사의 일부분으로 흡수하려 한다. 이에 반해 타이완학계는 중국은 대륙형 문화여서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반면, 타이완은 해양형 문화여서 변화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문화라고 타이완역사의 특징을 강조한다. 이런 관점차이는 타이완의 역사 전반에 걸쳐 상이한 해석을 낳고 있는데, 타이완 내 통일파와 독립파 사이에서도 유사한 논쟁이 일어났다. 타이완역사는 대륙의 중원중심이 아니라 반드시 해양국가의 시각을 첨부해야만 비로소 전모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육강위주의 연구에서 벗어나 해강에 관한 연구를 강화한다.

중국을 둘러싼 동아시아 영토영해분쟁이 고조되면서 최근 중국학계에서는 오키나와가 일본 땅임을 인정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과거 중국의 조공국이던 류큐왕국이란 사실을 강조하며 은근히 중국의 영토라는 암시를 주고 있다. 류큐가 독자적인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동시에

중국에 조공한 속국이란 점을 드러내면서 청대 양국 간의 특수한 관계를 일본의 강점점령과 대립시켜 비교한다. 이것은 과거 중국-류큐관계가 댜오위다오문제에서 특수한 의미를 지닌다는 수준에서 벗어나 좀 더 공격적인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청일전쟁 이전의 영유권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나 중국-류큐관계사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는 해강사연구의 맥락에서 바라볼 여지가 많다.

이어도문제가 대표적인 한중간 해강갈등이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은 한국이 점유하고 있는 이어도(중국명: 蘇岩礁)에 대해 법률적으로 무효라며 영유권을 부정하면서 해강분쟁의 가능성을 높였다. 2012년 3월 12일 한중 양국은 해양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의했지만 이어도에 대한 해석차이가 남아있다. 한국은 이어도가 한국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중국은 이어도가 영토지위를 갖추지 않은 암초라고 규정한다. 현재로서는 양국 모두 이 문제로 긴장관계를 만들려 하지 않지만 앞으로 남해의 이어도문제뿐만 아니라 서해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구획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인 주권주장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해강문제는 이미 단순한 영토분쟁의 차원을 넘어 동북아지역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세력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3. 해권(海權)과 해강

중국해강사와 관련해 부쩍 강조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해권(Sea Power=해양력)[8]이다. 근대이후 바다의 영토화가 이루지면서 해권의 중요성이 해강사연구에 반영된 것이다. 알프레드 머핸(A. T. Mahan)에 대한 조명부터 최근의 댜오위다오나 난사군도분쟁까지 해권이란 용어는 빠지지 않는다. “누가 해양을 장악하느냐가 곧 누가 세계무역을 장악하느냐이다. 누가 세계무역을 장악하느냐가 곧 누가 세계의 재부를 장악하느냐이다. 이것은 곧 세계를 장악하는 것이다.”라는 오래된 주장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해권에 대한 기본관점이었다. 현재 중국정부는 이런 관점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 중국인들은 아편전쟁 반세기 후 미국 해군장교 머핸이 제안한 해권론이야말로 미국해군 전략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행동강령을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오늘날에도 강력한 해권이 미국의 전지구적 전략의 기초라고 생각한다.

개혁개방의 성과가 가시화된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중국은 ‘화평굴기(和平崛起)’를 내세우면서 아세안국가들과 영유권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문제에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중국은 대륙국가에서 해양국가로 전한하고 있다면서 정치와 경제에 걸 맞는 해군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년 중국국무원은 해양으로 향하는 것이 세계강대국의 공통된 국가전략이라고 판단하여 『전국 해양경제 발전계획 강요』를 발표해 공식적으로 해양강국을 건설할 것을 천명하였다. 학계에서도 이에 호응해 전통적인 해양강국의 경험과 교훈을 탐구하는 차원에서 해양강대국의 흥쇠사를 연구하였다.

대륙학계에서는 해권이야말로 역사상 대국흥쇠의 핵심요소로 보고, 연해국가가 강력한 해군과 해상역량이 없으면 해권을 장악할 수 없으며 결국 주권을 보존할 수 없다고 한다. 국가가 부강하려면 반드시 해양으로 나아가야 하고, 해양을 개발하려면 반드시 강력한 해권에

8) ‘海權’을 한국학계에서는 ‘海洋力’이라고 번역하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해권이라는 중국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왜냐하면 邊疆・海疆・海權 등의 개념 속에 중국인들의 독특한 영토영해 인식이 담겨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의존해야한다는 논리를 편다. 따라서 강대국의 해권역사에 대해 유난히 관심이 많아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등 주요 해권국가에 대한 조명이 활발하다. 특히 해양의식의 강화를 목표로 머핸의 해양력에 대한 재조명이 두드러진다. 머핸의 저서가 다양한 제목으로 근래 여러 출판사에서 나온 사실이나, 해권사방면의 많은 연구목록만 보더라도 해권론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읽을 수 있다. 대륙은 물론이고 타이완학계에서도 해권과 관련한 책들이 나왔다.

21세기 중국이 꿈꾸는 해양강국론이 동아시아 패권주의로 나갈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주변국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2013년 9-10월 사이 시진핑(習近平) 중국국가주석이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방문했을 때 각국에 대해 처음으로 중국고대 비단의 육상고도와 해상무역노선을 기본으로 하여 주변국과의 무역과 교통망을 연결시키는 계획, '일대일로(一帶一路: 실크로드 경제지대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간칭)'을 제안하였다. 그 가운데 일로(一路) 즉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건설구상은 해양을 통해 중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이론배경에 머핸의 해권론이 있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육권국가에서 해권국가로의 전환의지가 담겨있으며, 이미 2012년 10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십팔대(十八大)회의에서 제출한 '해양강국(海洋强國)'전략과 서로 호응하는 것이다. 물론 중국에서 일대일로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업으로 해상패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적 해권론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중국이 해양강국과 일대일로라는 전략을 펼치는 배경에는 서진전략을 통해 해상운수선을 확보하고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받으려는 목적이 있다. 해양강국의 내용은 해양개발, 해양이용, 해양보호 및 해양관리를 통해 강력한 실력을 갖춘 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에는 '해양강국몽'이 포함된다. 해양강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대한 해군을 건설해 제해권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전략에 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21세기 해상실크로드는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남중국해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석을 추구한다. 중국의 남중국해전략은 미국의 중국 봉쇄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이 해역을 자신들의 내해(內海)로 만들려는데 있다. 하지만 2015년부터 남중국해를 두고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4. 나가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해강분쟁에 대한 역사서술은 목적론적 역사관의 전형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존의 역사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 없이는 현재의 해양영토 분쟁에 대한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어쩌면 해강문제는 역사의 변경을 국민국가의 근대적 국경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쟁점이 된 갈등이며, 이것은 근대적 국민국가의 산물인 국경관념을 과거에 투사한 시대착오적인 인식인지도 모른다.

보통 동북아 해강문제의 등장요인으로 중국과 주변국가 간의 역사적 배경, 중국굴기에 따른 주변국가의 경계심,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전략에 따른 충돌 등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한다. 중국은 아직까지는 해상교통로 보호가 주된 목적이긴 하지만 앞으로 해상에너지 확보와 해양자원 개발을 위해 활동반경을 더욱 넓히려고 할 것이고, 이런 시도는 곧 해양에서 분쟁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그런 까닭에 영해·도서분쟁에 대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해강사연구는 어느 변강연구보다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Abstract 】

Conflict surrounding the Chinese maritime boundary

Cho, Se-Hyun(Department of Histor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It is pointed out that the possibility of peaceful coexistence in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is likely to be determined in the ocean. There is even a prediction that if a war breaks out, it will be due to a maritime dispute. Therefore, the Chinese academic community tries to secure its historical basis in order to gain an advantage in international maritime disputes. One of the hallmarks of Chinese academia is the study of maritime boundary to achieve this patriotic national goal.

In general, the causes of the Northeast Asian Sea Crisis are explain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the historical background between China and neighboring countries, the vigilance of neighboring countries due to the rise of China, and the clashes caused by the US rebalancing strategy in Asia and the Pacific. Although China is still the main objective of maritime traffic protection, it will try to broaden the scope of activities to secure marine energy and develop marine resources in the future, and this will soon increase the possibility of disputes in the marine environment. Therefore, it is very likely that the maritime boundary research to secure advantageous position on the maritime territorial dispute will increase explosively in the future.

The historical narrative of the maritime boundary conflict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shows a typical teleological view of history. Therefore, it seems difficult to resolve the current maritime territorial dispute without a fundamental shift in the historical perception. Perhaps the maritime boundary conflict is a controversial issue that has brought about the change of history into the modern frontiers of the nation-state, and this may be an anachronistic recognition of the idea of the border, the product of the modern nation-state.

근대 동북아해역의 노동 이동과 랴오둥 반도의 해항도시

권경선(한국해양대학교)

1. 들어가며

본 발표는 중국 동북지방을 동북아해역을 구성하는 주요 권역의 하나로 상정하고, 동북지방과 동북아해역 내 타 권역(중국 關內, 한반도, 일본 열도)이 연결되는 거점에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현상을 황해 연안 해항도시-랴오둥 반도(遼東半島)의 다롄(大連), 잉커우(營口), 안둥(安東: 지금의 丹東)의 노동자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9세기 후반부터 외국과의 불평등조약 또는 청의 자발적 개방으로 황해 연안 지역이 개방되어 잉커우, 다롄, 안둥을 중심으로 도시가 건설되고, 이들 도시를 중심으로 동북지방 내륙과 역외 각지를 잇는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노동력 수요가 급증했다. 그러나 당시의 동북지방은 청대 이민족의 유입을 금하는 '봉금'(封禁) 등이 남긴 영향으로 인해 필요 노동력을 충족할 만한 인구가 없었기 때문에, 노동력의 많은 부분을 인근의 산둥성(山東省)과 허베이 성(河北省) 등의 화북지방(華北地方)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밖에 없었다. 특히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던 산둥 성 출신자들은 중국 동북지방은 물론 한반도로 유입되어, 1920년대의 불황기에는 다롄 등지에서 일본인 노동자의 일자리와 일본인 사회경제에 대한 위협으로, 조선에서는 조선인 노동자와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 유입과 연동되며 당시 사회 긴장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요컨대 해당시기 랴오둥 반도의 해항도시와 노동자는 근대 동북아해역의 국제관계,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도시와 계층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해역 내 제 권역들이 상호 관계하는 가운데 구축된 동북아해역 사회경제구조 고찰의 실마리라 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다롄, 잉커우, 안둥의 산업 규모와 구조가 일정 궤도에 오르고, 노동 이동과 노동 양상에서 일정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전반을 중심으로 각 해항도시의 노동자 구성 및 노동 방식을 고찰하고 유사성과 상이성을 확인한다.

2. 다롄, 잉커우, 안둥의 노동자 구성 및 노동 양상의 유사성과 상이성

세 개 도시는 해로, 육로, 하천 수로 등을 통해 배후지인 중국 동북지방과 역외 지역을 잇는 지리적 요충에 위치하여, 본격적인 근대 도시 건설 이전부터 배후지와 중국 관내의 교역을 매개하거나 해양 방어의 요지로 성장했다. 외국과의 조약에 의한 개항(잉커우), 외국에 의한 조차(다롄), 중국의 자발적 개항과 외국 '부속지' 설치(안둥) 등을 계기로 근대 도시로 전환한 이들 도시는, 배후지산 원료 및 가공품과 역외 생산 상품의 교역을 매개하는 가운데

성장하여, 물자를 수송하는 교통운수업, 원료 가공 공업, 상품의 교역유통을 담당하는 상업 무역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도시 및 산업 발전과 함께 도시 주민의 수도 계속적으로 증가했는데, 희소한 배후지 인구와 외세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했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주민의 다수가 중국 관내, 한반도, 일본 등 역외 지역에서 유입된 인구로 충당되고 민족별, 계층별 사회 구도가 구축되었다. 이와 같은 도시의 지리·정치·경제·사회구조는 노동자의 구성 및 노동 양상과 연계되어 있었고, 도시별로 유사성과 상이성을 드러내었다.

1) 노동자 구성의 유사성과 상이성

① 민족별 구성

세 개 도시는 필요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동북지방 역외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었다. 민족별 구성에서 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중국인으로, 산둥 성과 허베이 성 등 해로를 통한 이동이 용이한 화북지방 출신자가 다수를 이루었다. 중국인 노동자 외에 일본인 노동자와 조선인 노동자도 일정 규모 존재했으나, 그 비중은 도시별로 상이했다. 중국 관내와의 관계가 강하고 중국인 인구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잉커우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일본의 조차지였던 다롄에서는 일본인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적 컸으며, 한반도와 접경하고 일본 '부속지'가 시가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고 있던 안둥에서는 일본인 노동자는 물론, 조선인 노동자의 비중이 여타 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② 업종별 구성

노동자의 종사 업종은 공업, 교통운수업에 집중되었다. 특히 상공업의 근간이 되던 부두 하역, 철도 하역 등의 교통운수업은 대규모 노동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종으로 노동자의 대표적인 종사 업종이었다. 교통운수업과 함께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공업의 경우에는 배후지 생산 원료의 가공을 주로 하는 것은 동일했으나, 잉커우와 다롄의 유방(油坊), 안둥의 제재(製材) 및 제사(製絲)와 같이 도시의 중심 업종에 따라 노동자의 종사 업종에 차이가 있었다.

2) 노동 양상의 유사성과 상이성(중국인 노동자)

① 노동자의 이동 경향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한 중국인 노동자는 주로 해로를 통해 산둥 성과 허베이 성 등지로부터 유입된 사람들로, 동계를 기점으로 귀성과 노동 현장 복귀를 반복하는 계절성 이동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노동력 수요가 줄어드는 동계에 노동자의 유입이 감소하고, 수요가 늘어나는 춘하추계에 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하는 현상은 세 개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각 도시의 산업구조와 규모, 이동 방식에 따라 차이도 존재했다. 세 개 도시 중 도시와 산업 규모가 가장 크고 동계에도 입항이 가능했던 다롄의 경우에는 구정을 전후하여 입항자의 수가 감소했으나 매월 다수의 노동자가 입항하고 있었다. 반면 랴오허(遼河)와 압록강(鴨綠江)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던 잉커우와 안둥은 하천의 결빙으로 인해 동계 수개월 간 각종 산업의 조업과 노동자의 유입이 휴지기를 맞았다.

② 작업 및 노무 관리 방식

노동자의 작업 방식과 노무 관리 방식은 업종에 따라 다양했으나, 주요 산업이자 상시 고용 노동자의 규모가 컸던 부두 하역, 철도 하역 등의 업종에서는 중국인 노동자 조직인 방(幇)을 관리하는 파두(把頭: 華工頭)에게 작업 전반을 전담하는 형태로 작업과 노무 관리가 이루어졌다. 세 개 해항도시 모두 필요 노동력의 대부분을 역외 지역 출신자로부터 공급받는 상황에서, 각 사업장의 경영자들은 유력 노동자인 파두에게 노동자의 고용에서부터 작업 관리, 임금 분배에 이르는 전권을 부여함으로써, 유동성이 큰 노동자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고자 했던 것이다.

3. 향후 과제

1) 노동자의 구성과 노동 양상

우선 노동자의 구성과 노동 양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본론에서 주목한 중국인 남성 노동자의 고찰과 함께, 일본인 노동자와 조선인 노동자, 여성 노동자의 이동 양상, 종사 업종, 작업 방식과 노무 관리 방식을 파악함으로써 각 도시별 유사성과 상이성의 확인에서부터 랴오둥 반도 해항도시 노동자 구성과 노동 양상 전반의 해명은 물론, 동북아해역 내 노동 이동의 양상과 관계성 고찰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더불어 업종에 따른 노동자의 작업 및 노무 관리 방식의 고찰이 필요하다. 본론에서 다룬 파두제는 비숙련 노동자를 상시 사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널리 채용되는 방식 중의 하나였으나, 공업 등의 숙련 노동 분야에서는 보다 근대적인 형태의 노무 관리 방식이 이용되었고, 잡업 노동 등 일용직 노동의 경우 인력 시장을 통한 노동력 충원이 이루어지는 등 업종과 고용 형태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채용되었다.

노동 이동과 관련한 고찰도 필요하다. 서론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인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했던 산둥 성 출신자의 노동 이동은 중국 동북지방 각지와 조선 각지에서 동시에 전개되며 현지 노동자와의 마찰이나 그들의 역외 노동 이동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노동 이동의 연쇄적 양상과 그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해당시기 동북아해역 내 인적 이동의 양상과 그 사회경제적 의의를 해명할 수 있는 소재가 될 것이다.

2) 환동해권 해항도시와의 비교

중국 동북지방과 타 권역 간 관계의 보다 폭넓은 고찰을 위해서는 해당시기 환동해권에서 인적·물적 이동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던 해항도시를 고찰하고, 환황해권 해항도시와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동해 연안은 중국, 조선, 러시아의 세 개 국가가 접경하고, 중국의 경우에는 동해 연안의 영토가 존재하지 않아 나진, 청진 등 조선 북부의 항이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항에 이르는 철도를 통해 동해 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동해를 통한 중국 동북지방과 타 권역의 관계 고찰을 위해서는 해당시기의 국제관계, 교통망, 인적·물적 이동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 등을 고려한 가운데, 연구대상을 신중하게 설정해야 한다. 동해를 통한 권역 간 인적·물적 이동과 관계 형성은 '만주국' 수립 이후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므로, 본고에서 다루지 않은 '만주국' 수립 후의 환황해권 연구와 함께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권경선(2012), “1900~1930년대 중국 산동인의 역외이동과 해항도시의 관계 연구: 중국 동북 지방으로의 이동을 중심으로”,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해항도시문화교섭학』6호.

권경선(2017), “근대 해항도시 안둥의 산업구조”,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해항도시문화교섭학』16호.

권경선(2018), “근대 동북아해역 해항도시 기반 연구: 랴오둥 반도 잉커우(營口)의 산업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인문사회과학연구』Vol.19 No.2.

권경선·구지영 편저(2016),『다롄, 환황해권 해항도시 100여 년의 궤적』, 서울: 선인.

吉田美之(1934), “山東河北出稼移民發航地事情”, 大連: 南滿州鐵道株式會社總務部勞務課『勞務時報』第61号.

南滿洲鐵道庶務部調査課鞍山地方事務所編(1925),『營口之現勢』, 大連: 南滿洲鐵道庶務部調査課鞍山地方事務所.

南滿洲鐵道株式會社經濟調査會編(1934),『滿洲の苦力』, 大連: 南滿洲鐵道株式會社經濟調査會.

南滿洲鐵道株式會社興業部商工課(1927),『安東に於ける商工業の現勢』, 大連: 南滿洲鐵道株式會社興業部商工課.

大連市役所 編(1936),『大連市史』, 大連: 大連市役所.

滿蒙産業研究會編(1920),『滿洲産業界より見たる支那の苦力』, 大連: 滿蒙産業研究會.

福昌華工株式會社(1934),『碧山莊』, 大連: 福昌華工株式會社.

安東商工會議所(1937),『安東經濟事情』, 安東:安東商工會議所.

安東商業會議所(1926),『安東商業會議所統計年報. 大正14年度』, 安東: 安東商業會議所.

井藤譽志雄(1926), “苦力研究(大連を中心として)”, 神戸: 神戸高等商業學校,『海外旅行調査報告. 大正十四年夏期』.

【 Abstrict 】

The Labour Migration in Modern Northeast Asian Sea Region

Kwon, Kyung-seon(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In this presentation, I shall examine the labour migration within the seaport cities in Liaodong peninsula(Dalian, Yingkou, Andong) during the 1920-1930s'. The flow of Shandong people into Manchuria grew steadily beginning in the latter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reaching an annual flow of about 300 thousand to 400 thousand people by the early 1920-1930s. They were the main industrial labourers in the cities. In particular, the Chinese labourer organization 'Bang(幇)' was in charge of loading and unloading work, which required a lot of labourer. 'Bang' was a group of labourers from the same hometown. The dock and railway station, which used to employ large-scale labours, gave full powers to 'Batou(把頭)', the leader of the 'Bang'. The object was to secure and manage a large number of labourers.

『航海献酬録』에 나타난 일본과 조선 학사의 중국인식

박찬기(목포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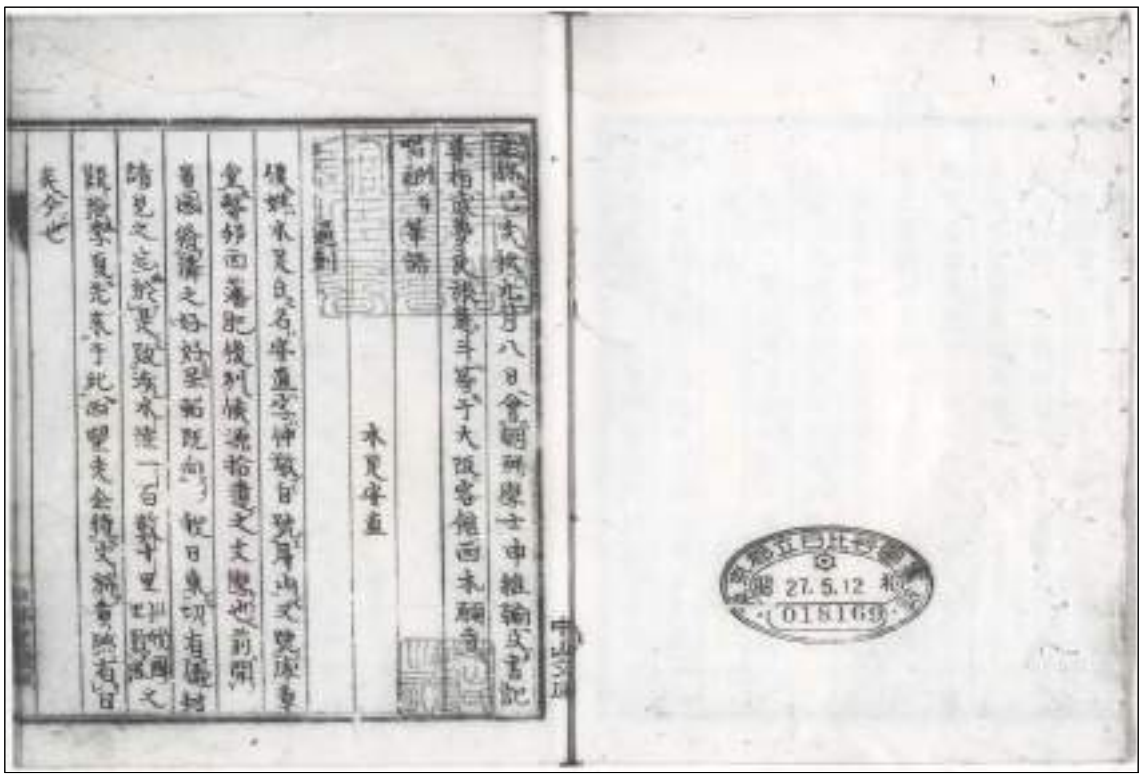
1. 한시문 수창과 필담집 『航海獻酬錄』에 대하여

『航海獻酬錄』에 대하여『國書總目錄』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航海獻酬錄』(こうかいけんしゅうろく) 一冊 (類) 漢詩文 (著) 水足屛山, 水足博泉 (寫) 中山久四郎

한시문 창수집으로 미즈다리 부자에 의하여 저술되었다는 기술이다. 단 소장처에 대한 기술은 없으나, 이 논문에서는 동경도립 중앙도서관 소장본을 텍스트로 하여 논을 진행하려고 한다(그림(1) 참조).

그림 (1)



1719년에 필사되어 성립된 『航海献酬録』에는 미즈타리 야스나오의 필명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향보(享保) 기해(1719)년 가을, 9월8일, 오사카 객관 니시혼간지에서 조선학사 신유한 및 서기 강백, 성몽량 장응두 등과 만나 창수 및 필담을 나누었다.[9] (『항해헌수록』의 번각과 번역은 필자에 의함. 이하 같음.)

미즈타리 야스나오(水足安直)

1719년 9월 4일 오사카에 도착한 사절단의 제술관 신유한과 서기 강백, 성몽량, 장응두 등 일행은 9월 8일 미즈타리 야스나오, 야스카다 부자를 만나 유교의 학문과 유학 관련 서적 등에 대한 질문과 그 응답을 필담으로 교환하게 되는데, 우선 미즈타리 야스카다는 조선학사에게 면회를 구하며 다음과 같이 자기소개를 한다.

저는 성이 미즈타리, 이름이 야스나오, 자는 중경이며 호가 헤이잔 또는 세이쇼도라 합니다. 일본의 서쪽 히고(肥後,지금의 구마모토(熊本)현)의 문인입니다. 전부터 귀국과의 교류를 좋아하여 마음속으로 사절단이 찾아오기를 갈망했으며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수 천리의 험난한 노정을 거쳐 왔나이다. 여름에 먼저 여기로 왔으며 또 서쪽을 바라보고 달려 문사의 깃발로 장식한 여러분의 왕림을 기다리다 오늘에 이르렀나이다.

현재 삼사신 및 여러 관원들의 짐도 별일 없고 모두 건강하며 배도 강어귀에 세워두고 숙소에서 잠시 쉬게 되었으니 이는 天人合一이나이다. 이로서 관원과 백성들이 함께 즐기게 되었으니 이는 두 나라의 기쁨이고 만복의 바람이나이다.[10]

자기와 아들의 소개를 마친 미즈타리 야스나오는 7언 율시 두수를 제술관 신유한에게 보이며, 시의 첨삭을 구하는 등 적극적인 교류의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 여기에서 『航海獻酬錄』의 한시문에 나타난 조선과 일본 학사의 대 중국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한시문 및 필담의 내용을 크게 세 개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미즈타리 야스나오의 자기소개와 조선 학사들과의 한시문 교환

-미즈타리 야스나와와 신유한과 나눈 조선 유학에 관한 증답

-미즈타리 야스카다에 대한 조선학사로부터의 '자호설」 수여와 한시문 수창 교환

우선 첫 번째로 미즈타리 야스나오는 조선학사에게 칠언율시 2수, 칠언절구 4수, 오언율시 4수를 지어 수창을 구한다. 이것에 답하여 신유한은 칠언율시 2수, 칠언절구 1수, 강백은 칠언절구 2수, 오언 율시 1수, 성몽량은 칠언율시 1수, 칠언절구 1수, 오언율시 1수를, 장응두도 칠언절구 1수, 오언율시 1수를 각각 지어 수창한다.

이어서 두 번째로 미즈타리 야스나오는 9건의 주자학 관련 학문과 서적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신유한은 이것에 답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친과 동행한 소년 야스카다도 부친의 후원으로 조선학사로부터 '자호설」을 수여받은 후 적극적으로 창화를 구해, 칠언율시 4수, 칠언절구 6수, 오언절구 2수를 남기고 있다. 이것에 응대하여 신유한이 칠언율시 1수, 칠언절구 2수, 강백이 칠언율시와 절구, 오언절구를 각각 1수, 성몽량이 칠언율시 1수, 오언절구 2수, 장응두가 칠언율시, 칠언절구, 오언절구 각 1수씩을 지어 증답한다. 게다가 미즈타리 부자는 조선학사와 동석한 대마번의 마쓰우라 가쇼(松浦霞沼)에게도 창화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한시문 교환을 요청하고 있다. 미즈타리씨 부자와 조선학사가 증답한 한시를 합하면 칠언율시 13수, 칠언절구 22수, 오

9) 享保、己亥、秋、九月八日、会朝鮮学士申維翰、及書記姜栢、 成夢良、 張応斗、等于大阪、客館、西本願寺、

10) 僕姓水足氏、名安直、字仲敬、自号屏山、又号成章堂、弊邦西藩肥後州、候源拾遺之文学也、前聞貴国修隣之好好、星軺既向、我日東切、有儀封請見之意、於是跋涉水陸一百数十里(以我国里数儀)之艱険、季夏先来于此、 西望走、企待文旆賁臨有日矣、今也、
三大使君及諸官員行李無恙、動止安泰繫錦纜於河口、弭玉節於館頭、天人孚眷、朝野交歓、是両国之慶也、万福至祝、

언율시 7수, 오언절구 5수 모두 합하여 47수의 한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창수의 형태로 특징적인 것은 예를 들면 미즈타리 야스나오가 먼저 칠언율시와 칠언절구 1수씩을 수창하면, 이것에 응답하는 형태로 신유한이 칠언율시와 칠언 절구로 화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른 조선학사의 서기들도 같은 형태로 화답하고 있고, 미즈타리 야스카다도 같은 수창 형태를 이루고 있다.

2. 미즈타리 야스나오와 조선학사의 한시문 창수에 나타난 중국인식

이미 언급한 듯이, 일본의 학사들이 일본을 방문한 조선의 학사들과 한시문 수창을 나누고, 서화의 휘호를 구하고, 한문 필담을 통하여 학문적 의문점을 묻고, 상대국의 국정을 논하는 일은 수차례에 걸친 조선통신사 방일의 때에는 자주 일어난 것이었다. 특히 오사카를 비롯한 교토, 에도에서는 비교적 체재기간도 길고, 일본 전국 각지로부터의 교통편도 편리하여 조선 학사들과의 접촉을 원하는 많은 일본 학사들이 찾아왔다.

1719년 통신사의 제술관으로 방일한 신유한은 에도로 가는 도중, 오사카에서 체재한 9월 4일부터 5일간과 돌아오는 길에 체재한 11월 4일부터 5일간 오사카의 문인들과 한시문 증답의 환담을 나눈다. 그 중 신유한은 큐슈의 구마모토에서 찾아온 미즈타리 야스나오, 야스카다 부자를 만나 환담한다. 이것에 대하여 신유한은『해유록』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오사카에 머문 5일간은 서생 십 수 명과 함께 저녁 늦게까지 시간을 보냈다. 동자에게 먹을 갈도록 준비시켜 매일 조금도 쉴 여유가 없었다. 서생들이 찾아와서 각각 성명, 자,호를 써 내보이는데 눈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많고, 그 한시문 또한 졸렬해서 읽을 수가 없다. 단 江若水와 池南溟의 한시는 약간 운치가 있다. 한 동자가 있었다. 나이는 14세[11]로 용모가 그림과 같았다. 지필을 다루어 앞으로 나아가 필담을 하면서 시어가 완성된다. 스스로 말하기를 성은 미즈타리, 이름은 야스카다라 하며 집은 北陸道[12] 천리 먼 곳이라 한다. 그 아비 헤이잔과 함께 왔다고 한다. 이 기회에 사절의 객관에서 재주를 평가받고 싶었을 것이다. 내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신동, 신동"이라 하자 그의 아비는 크게 기뻐하며 아들의 자호를 청했다. 나는 "미즈타리씨란 '부박연천(溥博淵泉)」[13]의 뜻에 상응하는 것이므로 호를 박연(博淵)이라 하고, 야스카다(安方)란 '족도대방(足蹈大方)」의 모습이 있으므로 자를 사립(斯立)이라 하면 어떠한가?"라 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초기하여 주었다. 그 부자는 함께 머리 숙여 사례했다.[14](번역은 필자에 의함.)

신유한은 오사카 체재 중 많은 일본 학사들과 한시문 창수와 증답을 하였지만, 위의 인용문으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미즈타라씨 부자와의 만남에는 특별히 인상 깊은 것이 있었던 듯하다.

그러면 우선 오사카에서 행해진 신유한과 미즈타리 야스나오와의 한시문 증답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航海獻酬錄』에 의하면, 미즈다리 야스나오는 자기

11)『항해헌수록』에 의하면 당시 미즈타리 야스카다의 나이는 13세였던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것은 신유한이 후년 기억을 되살려 편찬한 것이므로 이러한 오류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12)『항해헌수록』에 의하면, 미즈타리씨 부자는 히고(肥後) 구마모토에서 온 사람이어서 이것도 신유한의 오류이다.

13)『항해헌수록』의 신유한이 초기하여준 '자호설.의 기술에 의하면, 실제로는 호를 박천(博泉)이라 하였다.

14) 留大阪五日,与書生十数人,竟夕至夜,令童子磨墨以待,日不暇給,其人至則各各書姓名号,雑然而進者,多駭眼,其詩又蹇拙不可読,江若水池南溟両人詩,差有小致,一童子,面目如画,操紙筆而前,手談及韻語,咄嗟而成,自言水足氏安方名,家在北陸道千里,其父屏山者偕来,盖欲鳴芸於使館,余為撫頂而呼曰,神童神童,其父大驩,請命字号,余謂水足氏,応溥博淵泉之義,号曰博淵,安方者,有足蹈大方之像,字曰斯立可矣,別艸記以給,其父子倶稽謝

소개를 한 후, 칠언율시 1수와 칠언절구 1수의 시문을 신유한에게 보이며 시의 첨삭을 구한다.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서툰 시 두 수를 조선학사 청천(青泉) 신공관하께 드리니 부디 첨삭을 바라나이다.
>
> 헤이잔
>
> 사절단이 잠시 머무는 오사카 성시 근처에 의관을 가지런히 하여 신선의 바다에서 왔다네.
> 기이한 재주는 마치 호랑이가 울부짖는 듯하고 천 리 밖 멀리까지 감화하네. 도량이 넓음은 봉황이 한 번에 9천 리의 구름을 나는 것과 같구나.
> 일찍이 여러분의 명성을 듣고 모범됨을 흠양하며 행동거지를 보고 말씀을 사모하였다네.
> 예로부터 훌륭한 말은 가장 뛰어나니 어리석은 사람에게 편달을 바랍니다.
> 규격이 있는 걸음걸이는 위엄이 있고 가르침의 감화가 멀리까지 전해져 알려졌도다.
> 여러 빈객 중 당신들의 명성이 특히 높으며 뛰어난 재주도 갖고 있으니, 두루두루 미덕을 갖춘 것이 무슨 의심할 바가 있으랴.15)

「屛山」은 미즈타리 야스나오의 호를 자칭하는 것이고, 「青泉」은 신유한의 호를 지칭한다. 이 두 수의 한시에 대하여 신유한도 같은 칠언율시, 칠언절구 1수씩을 지어 증답한다.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병산께서 주신 시에 봉수하다　　청천 신유한
> 강가에서 우연히 만나 군자의 시를 들으니, 나도 몰래 한 수 읊어 신선으로 화 하도다
> 약초는 백운심처 삼산지경에서 자라며, 해는 부상(중국 고대 신화에서 바다 밖에 있다는 커다란 나무로, 여기에서 해가 뜬다고 믿어졌음, 일본을 말함)에서 떠올라 만 리 천공을 붉히노라.
> 자고로 청편에는 많은 묘책이 있다고 여겼으니 붉은 솥(丹竈)에 진수가 있다는 것은 더욱 말도 말라.
> 가벼운 담소 중에도 가을의 시간이 너무 빠름이 느껴지니, 내일 아침 말을 타고 출발함에 채찍 들기가 아쉽나이다.
> 사절의 성대한 예의로 빈객을 영접하고 있으니, 글재주가 뛰어나고 풍류를 즐기는 사람은 모두 나의 선생이나이다.
> 모두 함께 태평성세를 경축하고 있는 모습이 꼭 마치 또 하나의 주왕조가 시작한 것 같으니,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하니 백년의 우정을 절대 의심하지 말기를 바라나이다.16)

일본과 조선 학사의 한시문 증답의 형태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양국 학사의 한시문 수창에서 읽을 수 있는 대 중국의식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미즈타리 야스나오는 신유한과의 한시문 교환 후, 이어서 조선학사의 서기들과도 차례차례로 한시문을 교환한다. 그 한시문 창수 중에는 다수의 중국 선현을 인식한 한시가 창화된다. 우선 서기 강백에게 수창한 한시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15) 鄙詩二章謹奉呈朝鮮学士青泉申公館下伏蕲郢玫、
屛山星使暫留城市邊、衣冠済々自潮仙、奇才虎嘯風千里、大風鵬飛雲九天、早聴佳名思徳范、今看手采慕言詮、古来金馬最豪逸、須為駕駘着一鞭、矩行規歩有威儀、風化遠伝殷太師、列位賓中名特重、太才実徳又奚疑、

16) 奉酬屛山恵贈　　青泉 申維翰
邂逅鳴琴落水邊、将雛一曲亦神仙、雲生薬艸三山経、日出槫桑万里天、自道青編多妙契、休言丹竈有真詮、清談共惜秋曦短、明発征駆懶挙鞭、皇華正楽盛賓儀、文采風流是我師、共賀太平周道始、百年肝瞻莫相疑

진사 강공에게 드립니다 헤이잔

선린 우호를 위하여 조선 사절의 배가 천산만수를 넘고 절벽을 넘어 여기로 왔나이다.
당신들의 풍채와 재주를 흠모하며, 시 한수를 읊어 올려 귀국의 풍채를 보고 싶습니다.
송죽(松竹)은 천년의 세월을 지나왔지만, 계국(桂菊)은 단지 한가을만 피는 꽃일 뿐입니다.
우연히 만났으니, 산수를 즐김이 또한 어떠한지요?
魯連 (齊나라 魯連은 선비의 지조)도, 당년에 東溟 천만 리 땅을 답사했다고 하는데. 선지자를 만나서 그의 재화가 출중하게 되고 그의 마음속의 문채가 하늘의 별 만큼 많아지고 걸작이 수없이 많이 읊어지겠지요.[17]

오언율시와 칠언절구를 1수씩을 창화하였는데, 그 한시문 중에 중국의 선현 노연을 예로 들고 있다 .노연[18]은 노중연을 말하는 것으로 중국 전국시대의 뛰어난 학자이다. 노연은 말년에 관직을 사양하고 중국의 동해에서 은거하며 학문을 즐겼다고 전해진다.

이외에도 조선학사 성몽량은 미즈타리 야스나오와 수창하여 다음과 같은 오언율시와 칠언절구 1수씩을 지어 화답한다.

헤이잔의 시운에 화답하다
재주가 단지 八丈 높이밖에 안 된단 말인가, 당신의 품행은 고결하기로 蓮幕에서 나온 것 같구나.
한수 북에서 고향과 이별하고, 石橋 동쪽에서 일출을 보는 구나
봉래섬에서 금이 화하니, 이백의 시에 공력이 실려 있듯이 巴陵에서 재능있는 사람이 오도다.
당신의 소중한 발걸음을 기쁘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함께 문서를 펼쳐 푸른 하늘이 보는 구나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천리 길을 왔음에, 군자의 魏万(당나라의 젊은 시인)과 같은 정의에 감격하는 도다
꿈속에서 이미 江郎錦[19]으로 돌아갔음에, 어찌 당신의 멀리서 온 정의를 저버릴 수 있으랴
당나라의 魏万은 삼천리를 걸어 이백을 만났는데, 聊城은 魏万의 고향이었도다. [20]

조선사절을 찾아온 미즈타리 야스나오를 중국의 시인 이백을 찾아온 위만에 비유하여 수창한 것이다. 여기에 성서기의 중국인식의 한 단면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이어서 미지타리 야스나오의 한시문에 대한 강백의 화운시를 소개한다.

미즈타리 헤이잔에게 차운하여 드리며 화운을 바라노라 비목자 권도

부자가 함께 여기에 왔는데, 재능이 뛰어나며 마치 당년의 사천(중국 사천성)眉洲의 蘇씨 부

17) 奉呈進士姜公 屛山
善隣漢使槎、冠盖涉雲涯、連揚仰風采、寄詩観国華、松篁千歳月、桂菊一秋花、萍水偶相遇、寄遊又曷如.
魯連千古気離群、踏破東溟万里雲、邂逅先知才調別、胸中星斗吐成文.

18) 魯連이 趙나라에 살고 있을 때、진나라가 조나라의 수도인 邯鄲을 공략하여 포위했다. 이 때 魏나라의 장군 新垣衍을 파견하여、진나라 왕을 황제로 칭하면 포위를 풀겠다고 하였다. 이 말에 노중연은 진나라가 교만하게 천제를 참칭한다면 나는“ 踏東海而死(동해 바다에 빠져 죽겠다)” 라 하자、 진나라 장군은 이 말을 듣고 군대를 물렸다고 전해진다. 《史記巻83 魯仲連鄒陽列伝》

19) 江郎은 중국남조의 江淹을 말한다. 江郎이 어렸을 때、꿈속에서 郭璞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오색 벼루를 받고난 후、문장이 좋아졌는데、만년에 冶亭라는 곳에서 자고 있는데 다시 郭璞이 꿈에 나타나 벼루를 가지고 간 후는 좋은 시구를 지을 수 없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재능이 다했다”라 했다고 한다.
《南史 巻59 江淹列伝》

20) 奉和屛山恵示韻
大豈八丈雄、猥来蓮幕中、辞家漢水北、観日石橋東、蓬島琴将化、巴陵句未工、喜君労玉趾、披露見青穹、
千里踰山又渉瀛、感君高義魏聊城、夢中已返江郎錦、曷副殷勤遠訪情、
唐魏万行三千里、遠訪李白、聊城乃魏万故郷云之、

자[21]와 같구나.

내가 瑤琴이 있어 받침대에 올려놓았으니, 군자를 위해 "風将雛[22]"를 연주하리라.[23]

미즈타리씨 부자를 중국의 소순 소동파 부자가 구양수를 찾아 상경한 것에 비유하여 읊은 수창이다. 이것도 강서기의 중국 선현에게서 배우고 싶다는 강한 갈망에 따른 비유일 것이다. 이어서 미즈타리 야스나오가 신유한에게 아들 야스카다의 「자호」를 구하는 문장에도, 중국 선현의 예가 비유되어 진다.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아뢰다 헤이잔

아들 이름은 安方이며 깊은 사랑을 받아 감사의 마음을 금할 길 없나이다. 왕년 귀국의 선유 鄭汝昌이 8세 때, 아버지 鄭六乙은 아들을 데리고 天使 浙江 張寧을 만나 이름을 빌었더니 張寧은 汝昌이란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했나이다. 오늘 당신도 저의 아들에게 이름 혹은 별호를 지어주기 바라나이다. 이는 아들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일가의 영광일 것이나이다. 아들과 정가네 아들은 재주가 많이 차이나지만 당신은 오늘날의 張天使이니 간절히 부탁하니, 승낙하시기 바라나이다. [24]

조선사절의 제술관 신유한을 중국 절강성 출신으로 1460년 중국 명나라 황제의 사절로 조선을 방문한 장녕 천사에 비유하고 있다. 이것도 대 중국인식의 한 예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미즈타리 야스나오에 비유된 선현은, 동해에 은거한 노연, 이백을 만나기 위하여 수천리의 여행을 한 위만, 소식, 소철 두 아들을 데리고 구양수를 찾아 상경한 소순, 장녕 사절을 만나기 위하여 아들 정여창을 데리고 자호를 구한 정유을 등이 해당된다.

3. 미즈타리 야스카다와 조선학사의 중국인식

부친의 후원에 힘입어 조선학사로부터 '자호설」을 받은 야스카다는 적극적으로 조선학사와의 수창을 구한다. 이것에 화운하는 조선학사는 그의 풍채와 재능에 끌려 적극적으로 교환한다. 서기 성몽량은 다음과 같이 야스카다를 칭찬한다.

소헌

이 아이를 보니 귀엽고 풍채나 재주가 뛰어나다. 이미 陸家의 宝馬[25]와 謝家의 宝樹[26]와 같은 존재가 되었으니 장래에 반드시 이름을 떨칠 것일세. 종이 위에 필묵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나 자네의 재삼 감사함에 오히려 부끄러울 따름이다. [27]

---

21) 蘇東坡,이름은 軾、자는 子瞻이다.북송의 인종 때、眉山、지금의 四川에서 태어났다.8세부터 張易簡의 문하에서 공부하고 그 영향으로 도가 특히 莊子의 斎物哲学을 접하게 되었다. 1056년 그의 아버지 蘇洵은 蘇軾、蘇轍 형제를 데리고 開封에 상경했다. 형제는 欧陽修를 만나 한시문 증답을 하고、欧陽修로부터 격찬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22) 중국의 고전곡명으로, 봉황이 새끼를 품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다.

23) 奉呈水足屏山座次要和 卑牧子 権道
同来父子甚問都、宛似眉洲大小蘇、我有瑶琴方払擡、為君弾出風将雛、

24) 禀 屏山
小児安方、厚蒙寵眷、不勝感謝、 昔年貴国儒先鄭汝昌、八歳其父鄭六乙携之、見天使浙江張寧、請求児名、張寧名之以汝昌、且作説贈之、今公為此児、賜名或別号、 則匪啻小児之栄、而又僕一家之幸也 豚犬小児、固与鄭家之児、才質懸絶、然公則今日之張天使也、切望一諾、

25) 陸孫(183-245년). 자는 伯言. 중국 삼국시대의 정치가를 지칭하는가?

26) 謝霊運,원명은 公義.남북조시대의 뛰어난 시인을 지칭하는가?

여기에서 중국의 선현 육씨 집안의 보마, 謝씨 집안의 보수로 비유되어 극찬되어 진다. 이어서 미즈타리 하쿠센(야스카다)가 칠언율시 1수를 수창한 것에 대하여 신유한은 다음과 같은 칠언율시로 화운한다.

출천 수재의 수창에 화운하다 청천

해륙으로 하는 먼 여정도 어려운 줄 몰랐고, 馬祖의 보살핌으로 바다가 맺어준 인연 일세
고서에 보는 당년의 「禹穴南山」[28]의 풍경, 검을 빼고 성을 공략하는 모습은 북두성도 두려움에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
손으로 뜬구름을 잡으니 시원한 느낌이 더하고, 마음으로 석양을 맺으니 파도가 용솟음치는구나.
태평한 세상에서 옛 일을 되돌아보니, 젊을 때 너의 시 읊음을 보는 것 같도다. [29]

청천은 야스카다를 중국 우왕에 비유하여 화운하였다. 한시문 수창은 이어져 야스카다의 칠언절구에 화답하여 청천은 다음과 같이 증답한다.

청천

扶桑(일본)은 매일 신선한 일이 있으며, 그리하여 조선 사절의 배가 바닷가에 머무르노라.
그것은 섬 위에는 피부가 백설 같은 선동이 있고, 입으로는 王母의 白雲詩[30]를 읊기 때문이노라. [31]

왕모의 「백운편」도 중국의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표현이다. 또 흥미로운 것은 미즈타리 동자를 중국의 소년 왕발에 비유한 표현이다. 이하 강서기의 칠언율시를 인용한다.

출천에 화운하다. 경목자

글재주가 아주 뛰어나 진심이 표현되고, 하늘이 방금 개어왔을 때 친구들은 객관에서 함께 시문을 담론하네. 자네의 시 운율은 얼마나 교묘하고 풍격 또한 얼마나 뛰어난가, 아마도 문장을 배우려면 大瀛[32]에 배워야 하나 보다.
나이 어린 아이가 이렇듯 기묘한 재주가 있으니, 마치 소년 왕발[33]처럼 명성이 높구나. 언제쯤 南斗星 옆에서 멀리 보려나, 서서 奎花(학문을 관장하는 별)의 빛이 보이는 도다.[34]

---

27) 嘯軒
即見寧馨、豊姿異材迥出凡児、可謂陸家之駒、謝宅之樹 珍重曷已、若于紙筆以寓眷意、 而返荷勒謝、慚恧慚恧、
28) 夏禹의 葬地. 지금의 절강성 소흥에 있는 会稽山에 해당된다.
29) 奉訓出泉秀才恵贈韻 青泉
海陸追遊未覚難、婆々衣帯結秋蘭、書探禹穴南山色、剣抜豊城北斗寒、握手浮雲添爽気、離心落日満警瀾、清平起草它年事、緑髪看君詠王欄.
30) 《穆天子伝》이권에 「乙丑, 天子觴西王母瑤池之上。西王母為天子謡曰：『白云在天、山陸自出。道理悠遠, 山川間之。将子无死, 尚夏能来』.이란 기술이 있다.。또 漢武帝《秋風辞》에는「秋風起兮白云飛.라는 구가 있어、이것에 따라서、「백운편.에 의한 제왕의 시를 비유한 일설이 있다.
31) 青泉
扶桑俗日日華鮮、漢使孤槎逞海邊、上有仙童顔似雪、口吟王母白雲篇.
32) 대해. 전설상의 산 이름. 동해에 있고, 선인이 살고 있다고 전해진다. 여기서는 일본 즉 미즈타리 야스카다를 지칭하는 것일까?
33) 王勃. 자는 子安、당대의 시인。楊炯, 盧照鄰, 駱賓王과 함께 「王楊盧駱.、「初唐四傑.이라 전해진다. 27세의 젊은 나이에 강에 빠져 익사했다.
34) 和出泉韻 耕牧子
鉄硯工夫有至誠、論詩賓館属新晴、已看韻格多奇骨、欲学文章法大瀛、早歳童鳥多妙芸、弱年王勃有高名、何時南斗星邊望、佇見奎花一点明.

한시의 뛰어남이 중국의 소년 왕발을 보는 듯하고, 앞으로 학문적으로 대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극찬의 의미가 담겨있는 증답이다. 이어서 성서기도 칠언절구를 읊어 수족동자를 칭송한다.

출천에 화운하다

사절을 방문하기 위하여 천리를 여행하고, 어린 나이에 한시 문장이 출중하도다.
王勃의 "勝王閣序"[35]처럼, 천백 년이 지났지만, 勝王閣은 여전히 강위에 우뚝서있으며 "秋水共長天一色"이라는 佳句는 여전히 유행하도다.[36]

구마모토에서 찾아온 오사카에도 중국의 소년 왕발과 견줄만한 일본의 소년 왕발 미즈타리 동자가 있어, 등왕각서문의 뛰어난 시구와 비교되어 칭송되는 것이다. "秋水共長天一色"은 왕발의 시구로 성서기는 이것을 모방하여 "水色長天一樣秋"라 표현하였다. 이것은 같은 의미로 "장강에 비친 가을 하늘의 색이 서로 같다"는 뛰어난 구이다. 거듭해서 성서기는 왕발을 소재로 한 오언절구를 화운한다.

다시 미즈타리 동자에게 증답하다 소헌

滕王閣 서문을 썼을 때의 王勃은 자네와 같은 나이였노라. 丹山에는 鳳凰의 발자취가 남아있듯이 너에게는 봉황의 깃털(큰 인재가 될 소지)이 보이는구나.
너에게 청홍색의 전을 몇 폭 주겠으니, 글 짓는 연습에 사용하도록 하여라.
끝으로 "옥설가념"[37] 네 글자와 지필묵까지 함께 출전에게 주노라.[38]

이상 미즈타리 야스카다에 비유된 선현은 소동파, 정여창, 육손, 사영운, 우왕, 왕발 등이다. 13세의 소년 미즈타리 야스카다는 조선학사와 한시문 교환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이에 화운한 조선학사는 중국의 선현들에 비유하며, 그 재능을 격찬했다. 그 중 소년 왕발의 비유가 가장 많았고, 공교롭게도 조선학사로부터 일본의 소년 왕발로 비유된 미즈타리 동자는, 왕발이 젊은 나이에 요절한 것과 같이, 26세의 젊은 나이로 불행하게도 병사해 버렸다.

그러나 미즈타리 하쿠센(水足博泉)의 학문의 평가는 히고 학계 제일류로 알려져 있고, 저서도 다수 남기고 있다. 그 중『太平策』12권은, 당시 학자들이 정치에 관한 논의는 거의 막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쿠센은 정치는 황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國太民安」의 방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 외에도 오규소라이의『南留別志』를 모방하여 저술한『なるべし』등이 있다. 이러한 저서를 통해서 하쿠센의 뛰어난 재능이 유감없이 발휘된 것이다.

35) 등왕각은 중국 강서성 남창에 있는 누각이다. 악양의 악양루, 우한의 황학루와 함께 강남의 3대 누각이라 칭해진다. 당나라 시대의 왕발이 읊은 「등왕각서문」이 벽에 기술되어 있다. 그 중에 「秋水共長天一色」이라는 뛰어난 문장도 포함되어 있다.

36) 和出泉
為訪皇華千里遊、鬢齢翰墨亦風流、浪花江上勝王閣、水色長天一様秋、

37) "玉雪可念"은 중국의 선현 退之 韓愈의 시어로, 용모가 옥설과 같이 희고 아름답다는 뜻이다. "玉雪可念"에 대한 마쓰우라 가쇼의 물음에 성몽량은 "어린 아이의 총명함이 뛰어남을 소중히 여겨, 退之의 말을 그에게 선물했도다."라고 답한다.

38) 滕閣王生歳, 丹山端鳳毛, 青紅箋数幅, 資爾弄柔毫,
尾書, 玉雪可念, 四大字併筆墨紙 而賜之.出泉

【 Abstrict 】

Japan's and Chosun's perception of China as shown in *Hang-hae-hun-soo-rok*.

Park, Chan-Ki(Mokpo National University)

When the Chosun Diplomatic Delegation (Chosun Tongsinsa) stayed in Osaka on September 8th, Mr. Mizutar and his son, coming from Kumamoto, visited the delegation. The visitors exchanged the gifts of poems and conversations in literary Chinese with Yu-han Sin, an official literateur, and a group of document clerks for the three envoys, including Baek Gang, Mong-rang Sung, Eun-doo Jang. These collection of written conversations and poems were later scribed down by Mizutari Yasunao into a book titled *Hang Hae Hyun Soo Rok*.

A closer look at 47 Chinese poems in the book, which were composed and read aloud during the visit, reveals frequent references and allusions to Chinese classic scholars. Notably mentioned among these poems are No Yeon, Wee Mann, who travelled thousands of miles to meet Lee Baek, So Sik, and So Sun, Cheon Sa, Yook Son, Sa Young Woon, Woo Owang, Twe Zi Han Yoo, Owang Bal, and others. What is the most fascinating among these is the reference and allusion to the young Wang Bal, because it provides a rare opportunity of glimpsing into how both Japanese and Cho-sun young scholars perceived China and its culture.

젠더화된 섬과 공간 표상
- 오키나와의 군사주의와 관광 -

조정민(부경대학교 일어일문학부)

1. 들어가며

일본열도 가운데서 유일하게 지상전을 경험한 오키나와(沖縄)는 패전 후에도 미군의 직접 지배하에 놓여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 요새로 기능하게 된다. 일본 내 미군기지의 약 71%가 오키나와에 집중되어 있는 탓에 오키나와에서는 미군 혹은 미군기지와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다. 1972년 본토 복귀 이후에도 미국의 절대적인 군사적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은 오키나와를 재식민화하고 있으며 일본 본토와는 달리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제국주의적 지배는 오키나와의 신식민주의(재식민주의)를 더욱 거세게 추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문제는 구조적으로 페미니즘과 공명할 수밖에 없다. 단적으로 말해 군대 혹은 군사기지를 존치시키는 인식은 전통적인 젠더 역할에 대단히 크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사명을 받은 남성은 국가방위의 주체자로 등극하고 여성은 이들 남성으로부터 보호받거나 뒷바라지를 감당하는 수동적인 존재에 불가하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젠더화의 정착은 전쟁담론이나 국가안보 담론은 물론이고 국제 관계 담론에서도 반복된다. 즉 미군=남성=보호자, 일본/오키나와=여성=피보호자라는 구도는 지금도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관습적 인식인 것이다.

군사기지가 환기시키는 젠더화된 오키나와 문제와 더불어 오키나와가 공간적으로 젠더 질서에 강력하게 포박당해 있다는 사실은 오키나와를 수사하는 관광 담론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된다. 사실 관광 행위란 시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시선 보유자와 시각 이미지의 대상으로 전시된 객체를 성별화시키는 과정 그 자체이며, 이는 오키나와도 예외가 아니다. 일본 내에서도 오키나와는 그 독특한 자연 환경과 풍습, 풍속으로 말미암아 볼거리, 즐길 거리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일본의 '통제적 응시' 하에 재배치되면서 오키나와가 일본의 타자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 갔다.[1)]

이와 같이 오키나와가 공간적으로 재현되거나 전시되는 국면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오키나와가 끊임없이 '젠더화된 하위 주체'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오키나와는 미군기지라는 강력하고 폭력적인 지배 시스템으로 인해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이미 주변화되어 있으며, 여기에 '변경'이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탄생한 관광의 시선을 매개로 다시 한 번 '젠더화된 하위 주체'로 주변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 발표에서는 정치, 군사, 지리, 문화 등 다양한 현실적 조건들로 말미암아 점차 젠더화된 공간으로 변모

1) 시선에 내재된 젠더 정치를 정치하게 다룬 글로는 페미니즘 영화이론가 로라 멀비(Laura Mulvey)의 논문 「시각적 쾌락과 내러티브 영화」(윤난지 편,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눈빛, 1999)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해 가는 오키나와의 공간 표상을 미군기지 반환 이후에 조성된 각종 소비 문화시설과 세계문화유산 등재지 등을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장소 전용으로 인한 공간의 젠더화-나하(那覇) 신도심의 경우

군사주의가 필연적으로 배태할 수밖에 없는 식민주의와 공간의 젠더화는 앞으로 살펴 볼 오키나와의 사례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미 신시아 인로(Cynthia Enloe)가 지적했듯이 섹스 관광객의 도착지로 발전한 나라 가운데는 미군을 위한 위락 시설을 만들었던 나라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이들 국가에서 벌어지는 성매매 관광은 외화를 벌어들이려는 지역 정부와 섹슈얼한 여행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 등에 의해 지탱되면서 젠더적 종속 관계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2] 문제는 미군 휴양지 개발을 둘러싼 젠더 구조의 연속성은 관광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앞으로 살펴 볼 나하 신도심의 경우와 같이 공간의 젠더화에도 지속적으로 개입한다는 사실이다.

오키나와 본섬 남부에 위치한 나하시는 오키나와현의 행정과 경제,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이다. 그 가운데서도 나하시 북서부에 위치한 '나하 신도심'은 상업과 행정, 주거, 문화 시설 등을 고루 갖춘 곳으로서 최근에 들어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약 214ha 규모의 광대한 나하 신도심 내에는 대형 쇼핑몰이나 면세점과 같은 상업 시설을 비롯하여 신축 맨션과 비즈니스호텔, 현립 박물관과 미술관, 학교, 관공청, 방송국, 신문사, 공원 등이 밀집해 있다.

원래 이 지역은 미군의 주거지인 마키미나토 주택지구(牧港住宅地區)가 자리했던 곳으로, 1975년 7월부터 부분 반환되기 시작하여 1987년 5월에 전면 반환되었고, 이후에는 도시 안의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이른바 '신도심' 조성이 구체화되었다. 1989년 지역진흥정비공단(현 도시재생기구)이 사업실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국가의 인가를 받은 후, 1992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착수하여 2005년 지금의 모습으로 미군시설은 탈바꿈했다. 그 사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투입된 자금은 모두 508억 엔이며 공공시설건설비 541억 엔, 민간시설건설비 1032억 엔, 그 외 기반정비사업비 83억 엔을 더하면 총 투자액은 2164억 엔에 달한다.

거액의 투자금으로 조성된 나하 신도심의 장소성은 모노레일 오모로마치(おもろまち) 역에서 내리면 곧바로 실감할 수 있다. 모노레일 역과 직결되어 있는 면세점 T 갤러리아의 거대한 입구는 이제부터 소비문화가 이루어지는 특별한 공간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관문처럼 연출되어 있다. 이곳은 2002년 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에 따라 일본 국내에 거주하면서 면세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나하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내선이나 국제선 탑승권 소지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광대한 소비 공간의 시작점인 면세점 T 갤러리아에서 거리로 나아가면 나하 메인플레이스(那覇メインプレイス), 애플타운(あっぷるタウン), 리우보우 라쿠이치(りうぼう樂市) 등의 대형쇼핑센터가 연이어 나타난다. 이들 세 곳의 쇼핑센터가 차지하는 면적은 오키나와현 내에서 가장 넓으며, 특히 리우보우 라쿠이치의 경우에는 약 300미터 정도의 길이에 걸쳐 쇼핑 몰이 조성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는 24시간 영업하는 곳도 있다. 나하 공항 제한표면 구

2) 신시아 인로 지음, 권인숙 옮김, 『바나나, 해변 그리고 군사기지-여성주의로 국제정치 들여다보기』, 청년사, 2011, 68쪽.

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층 빌딩 건설이 불가한데 비하여, 이 지역은 그 구역 밖에 위치하기 때문에 오키나와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초고층 빌딩이 드문드문 들어 서 있다.

질리언 로즈(Gillian Rose), 린다 맥도웰(Linda McDowell), 도린 매시(Doreen Massey) 등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은 공간 자체가 여성을 억압하는 주요한 기제였음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왔다. 공적 공간이나 노동, 생산과 관련된 장소는 모두 남성의 전유물로 전경화되고 그와 대비를 이루듯 여성의 공간은 사적 공간과 가정, 소비 공간에 국한되어 여성의 신체와 사고를 포획해 왔기 때문이다. 미군 시설이 반환된 자리에 새롭게 만들어진 나하 신도심은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이 거듭 비판해 왔던 구태의연한 젠더 질서를 그대로 구현한 대표적인 공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생계 영역이 아닌 소비 영역으로 전경화된 나하 신도심 공간은, 단적으로 말해 노동이나 생산, 부양과 같은 남성화된 이미지가 아니라 여성화된 소비 이미지를 추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식민자가 떠난 이후에 피식민자는 우선적으로 지리, 장소에 대한 강제적인 왜곡부터 교정하거나 그에 대한 흔적을 없애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미군기지에서 소비문화 공간으로 변모한 나하 신도심은 미군기지에 의한 장소성의 왜곡을 교정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기도 하겠지만 그 기저에는 제국주의 혹은 군사주의, 식민주의가 배태시킨 공간의 젠더화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는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시 말해 나하 신도심 내부의 자리한 여러 가지 복합 소비문화공간은 군사주의가 낳은, 혹은 군사주의를 대신해 이분법적으로 성별화된 공간 구성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으며, 나아가 오키나와(나하)가 견고한 이분법적 성별화 범주 하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3. 초자연적 세계라는 세계문화유산

2000년, 오키나와 본토 남부를 중심으로 점재하는 성곽(구스쿠)을 비롯해 류큐 왕국의 사적 중 9곳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3] 14세기 후반부터 18세기 말까지 걸쳐 조성된 건조물 및 장소가 대거 포함되었는데, 그 가운데 나키진 성터(今歸仁城跡), 자키미 성터(座喜味城跡), 가쓰렌 성터(勝連城跡), 나카구스쿠 성터(中城城跡), 슈리 성터(首里城跡) 등은 그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과거에 오키나와 각지에 존재했던 성의 자리가 세계문화유산이 된 경우이고, 소노향우타키(園比屋武御嶽) 석문과 세화 우타키(齋場御嶽) 두 곳은 민간 신앙의 대표적인 기도처로 성지(聖地)로 불리는 장소이다. 그 외에 다마우둔(玉陵)은 류큐 왕국의 역대 국왕이 매장되어 있는 능묘이며 시키나엔(識名園)은 류큐 왕국의 왕족들이 별장으로 사용하거나 외국 사신을 접대한 별저의 정원이다.

이처럼 오키나와의 세계문화유산에는 성곽 터나 별저와 같이 류큐 왕조의 웅장하고 화려한 문화를 상징하는 건조물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고, 또 우타키와 같이 오래된 민간 신앙의

3) 오키나와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계유산등록 기준에 따라 선정되었다.
- 건축, 과학 기술, 기념비, 도시 계획, 경관 설계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가치관의 교류 또는 문화권 내의 교류를 나타내는 것.
- 현존이나 소멸에 관계없이, 일정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존재를 전승하는 물증으로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적어도 대단히 희소한 존재인 경우)
- 현저하게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사건이나 행사, 살아있는 전통, 사상, 신앙, 예술적 작품 혹은 문학 작품과 직접적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一般財団法人南西地域産業活性化センター,『「沖縄における刊行進行に向けた世界遺産活用戦略検討調査」』, 2013.03, p.53)

기도처도 두 곳이나 포함되어 있다. 오키나와에서 구스쿠로 불리는 성곽은 신령스러운 땅, 즉 영지(靈地)로서 신성시되며 그 지역의 신앙심을 모으는 장소였다. 우타키 역시 신이 재림하는 성지, 혹은 조상신을 모시는 장소로서 역시 신성한 성역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오키나와의 전통 문화 유산은 오키나와 혹은 류큐에 관한 역사적 사건, 이미지, 의례 등을 상징하는 표상 체계 속에 포섭되어 소위 오키나와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며 반복적으로 재생산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 오키나와는 여성으로 대변되기 쉬운데, 그것은 예컨대 우타키에 강림하는 신을 모시거나 우타키에 직접 출입하는 사람이 여성에 한정된다거나 하는 단순한 지식부터 오키나와의 민간 신앙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해석해 오키나와를 영성이나 심령이 지배하는 샤머니즘의 세계로 여성화시키는 것까지 그 층위는 실로 다양하다. 오키나와는 은유적 의미에서건 실제적 의미에서건 철저하게 이분화된 젠더 프레임을 거듭 재생산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키나와 스스로 전통적인 젠더 역할 모델을 내면화시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Abstrict 】

A Genderized Island and its Spatial Representations

Cho, Jung-Min(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genderization of space that occurs in a US military base after the withdrawal or return of its facilities. Partial return of the Makiminato housing area of US Military base in Okinawa began from 1975, transforming the area into the new city center of Naha by 2005. This area is lined with all kinds of culture and consumer facilities such as duty free stores and large shopping malls, and the typical shopping activities carried out in this area are based on traditional gender order. Just as the existence of a US military base itself represen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ler and the ruled as that of male and female, the space is also genderized after the withdrawal of the US military base. Similar genderization is found in the sites that have been designated as UNESCO World Heritage in 2000. These World Heritage Sites mainly include Okinawan traditional culture and folk beliefs. Representing Okinawa as a world of shamanism dominated by spirituality divine spirits is nothing more than a metaphorical feminization of Okinawa. A thorough investigation on how genderization of space originating from militarism affects the tourism industry will have great implications on reasoning the neo-colonialism in Okinawa that continues even today.

東シナ海を還流する海流による日・中・韓三国の文化交流について

村川逸朗(長崎県教育庁新幹線文化財調査事務所)

1. はじめに

日・中・韓三国は、東シナ海の周りに所在し古来より海を通じて文化交流を行ってきた。長いその歴史の中では、時に攻防を伴う戦時の時があれば、貿易により相互に利益を享受することもあった。総括的にみれば、その海を通じた貿易などの交流により三者三様に利するところがあったといえ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2. 対馬暖流の中に点在する対馬・壱岐・五島列島と長崎県本土部

長崎県は九州の西北部に位置し、北から対馬・壱岐・五島列島は、対馬暖流に流れの中に点在し、また夏季には福建辺りから五島へと流れる海流があるため、種々の恩恵を受けてきた場所でもある。長崎県は、島嶼部を含めて全国で第二位の海岸延長距離をもっている(註１)。可耕地に恵まれない長崎県はその面積では隣の佐賀県の後塵を拝しているが、人口では佐賀県が85万人であるのに対し、142万人と二倍とまではいかないまでもそれに近い数字になる。これはいかに長崎県が経済を海に依存しているかを示している。時代の変化により、その依存の仕方は変化を伴っていたと思われるが、発掘調査などの進展により、さまざまな方法により生活の糧としてきたことがわかってきた。

3. 縄文時代からの海に依存する生活

縄文時代早期末(約8千年前)から前期及び中期を主体とする“つぐめの鼻遺跡”では、有茎尖頭器の石器と共に鯨骨が出土しており、この遺跡が海峡の狭まった所の海に張り出した場所に位置することから“鯨”を捕獲した遺跡と考えられている。

この縄文時代早期末頃には、東シナ海を含む東アジア地域は現有の地形とほぼ同じになっており、海流も現在の海流と同じ流れが始まったと考えられている。これ以降、台湾の東を出発点とする対馬暖流とともに長崎県の人々の歴史が営まれたと考えられる。次の弥生時代でも、長崎県壱岐市の“原の辻遺跡”では3世紀後半、弥生時代後期の甕棺に捕鯨線刻が施されており、船と漁の様子も描かれている。韓国の韓国盤亀台岩刻画のコククジラ捕鯨画と比較すると、その近似性が理解できる。

この後の古墳時代でも、壱岐市所在の7世紀後半の須恵器が出土する鬼屋窪古墳の石室西側壁には、「捕鯨の様子を示す線刻画」が描かれている。

4. 古代になって生じた朝鮮半島との緊張関係

古代になると、朝鮮半島との緊張関係も生まれる。7世紀の663年の'白村江の戦い」では唐と新羅の連合軍に日本は敗戦し、本国へと退却したが、海を渡って攻撃を受けるのではないかとの恐怖心があったようである。これは、対馬・壱岐・五島列島と島嶼部が'対馬暖流」や、中国大陸からの季節的な海流が流れ着く真只中にあり、それまでは漁業等で恩恵を受けていたのが、その海流等の関係で最初に攻撃を受けかねないという地政学上の要因があったからである。

5. 長崎県大村市竹松遺跡出土の記銘紡錘車について

九州新幹線西九州ルート(長崎ルート)の2012～2016年に実施された車両基地関係の長崎県大村市竹松遺跡の発掘調査で'木都」と記された9世紀頃の滑石製紡錘車が発掘された。この'木都」という文字については、平川南氏により、木(ki)は城(ki),都(tsu)は津(tsu)の文字を使用することもあるとのことで、城津→木都と変化したことも考えられる。この竹松遺跡の近くには“武留路山城跡”があり、淡水の潟津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港津も所在する。これは663年の“白村江の戦い”で唐と新羅の連合軍に敗戦した大和政権が海防の為に整備した西海道駅路の近くに所在し、防衛の拠点として築かれた可能性があるものである。その緊張状態から'木都」の文字を記すようになったもので、木材の交易により栄えていたか、それを望んでいたかとも推測される。これは戦争から交易へと時代が変わったことを表し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今後、傍証を集めて結論を求めて生きたい。

6. 彼我の交流を示す“支石墓(石棚墓)”について

1993年に浙江省温州地市で30基を超える石棚墓が発掘され、春秋時代の器物が多数出土した。石棚墓とは日本でいう支石墓のことである。これは、紀元前1700年～紀元前256年頃にかけて江南地方で営まれた墓制で、石棚墓の下には石棺や甕棺も埋葬されている。その形状や葬送様式などから、九州北部に展開する支石墓のルーツかとも考えられている。

この石棚墓を調査したその当時、中国杭州市の杭州大学教授であった“毛昭晰”氏が長崎に来訪され、長崎県内の“支石墓”の状況を尋ねられた。そこで長崎県佐世保市大野台支石墓群E地点の調査報告書を見せたところ、大いに得心が得られたように見受けられた。確かに上部構造の掌石の形の数種類のバリエーションは同じであり、朝鮮半島から系統が異なる数種類の形の石棚墓が、そっくりそのまま大野台支石墓群E地点に入っていると判断された(下部構造については、複雑な様相を呈しており検討が必要)。出土遺物についても慎重な判断が求められる。この場合の慎重さとは、安易に相違だけをあげつらうのではなく総合的に判断することが求められるという意味である。

テーマが気宇壮大なのに対して、考古学的なアプローチがわずかな一歩であるが、半歩でもこれを進めたいと考えている。

【 Abstract 】

Cultural exchange of Japan, China,Korea three countries caused by the ocean current to flow back in the East China Sea

Murakawa Itsuro(Nagasakiken Kyouikutyou Sinkansen Bunkazai Tyousa Jimusyo)

At 1 beginning

Day, average, Korea three countries were located around the East China Sea and performed cultural exchange through the sea from ancient times. If there was sometimes wartime time with the offense and defense in the long history, I might enjoy profit by trade mutually. It may be said that there was a place benefiting you to three persons three by interchange such as the trade through the sea if I look generally.

Because Tsushima, Iki, Goto Islands and Nagasaki mainland region Nagasaki dotted in 2 Tsushima warm currents are located in the northwestern part of Kyushu, and the Tsushima warm current is dotted with Tsushima, Iki, Goto Islands in a flow from the north, and there is an ocean current to drift from the Fujian area to Goto again in the summer, it is the place that received various kinds of benefits. Nagasaki has shore extension distance of the second place in the whole country including islands part (note 1). Nagasaki that is not blessed with the arable land plays second fiddle to neighboring Saga at the area, but it is to the number that it is near whereas Saga is 850,000 people with the population even if I do not go to 1,420,000 and double. This shows how Nagasaki depends on the sea for economy. The way of the dependence was thought to have been accompanied by a change by the change of the times, but, by progress such as the excavation, knew that I came as bread of the life by various methods.

Life to depend on the sea from 3 Jomon period

A whale bone excavates it with the stone implement of the existence stem pointed utensil in "the つぐめのはな remains" mainly composed of the first half year and the middle from (approximately 8,000 years ago) at an early end in Jomon period, and it is thought with the remains which captured "a whale" because these remains are located in the place that projected into the sea of the place that got narrow of the straits.

It becomes about the same, and, in the East Asia area including the East China Sea, it is thought that a flow same as a current ocean current began in the ocean current with the topography of the existence in an early end in this Jomon period. After this, it is thought that the history of people of Nagasaki was run with the Tsushima warm current which assumes the east of Taiwan the starting point. In the next Yayoi period, whaling line engraving is put for the funerary urn which is in the latter half of Yayoi period in the late third century in "the remains of Iki-shi, Nagasaki of crossroads of Hara", and a ship and the state of the fishing are pictured. I can understand the twinship in comparison with a gray whale whaling image of Korean 韓國盤龜台岩刻畵.

"The line engraving image indicating the state of the whaling" is pictured in the burial mound west wall of 鬼屋窪古墳 which an earthen vessel of the late seventh century of the

Iki-shi location excavates in this later Burial Mound age.

Strain relations with 4 Korean Peninsulas which ancient, and arose

If ancient, the strain relations with the Korean Peninsula are born. Japan was defeated by "the fight of 白村江" of 663 years of the seventh century in the Allied Forces of Tang and Silla and retreated to the own country, but there seemed to be a sense of fear that I crossed the sea and might receive an attack. This is because there was a factor in the geopolitics to have possibilities to receive an attack concerning the ocean currents the one which it is right in the middle, and received a benefit by fishery till then which a seasonal ocean current from "Tsushima warm current" and Mainland China drifts to Tsushima, Iki, Goto Islands and islands part first.

About a spindle car to memorize of 5 Omura-shi, Nagasaki Takematsu remains exhumation

"The tree capital" and a product made in talc spindle car in the about ninth century written down were found by the excavation of the Omura-shi, Nagasaki Takematsu remains of the vehicle base relations carried out from 2012 through 2016 of the Kyushu Shinkansen West Kyushu route (Nagasaki route). As for the tree (ki), a castle (ki), the capital (tsu) seem to have possibilities to use a letter of Tsu (tsu), and, about the letter called this "tree capital", it is thought about by Mr. Minami Hirakawa having changed with the castle Tsu → tree capital. There is "武留路山城跡" in near this Takematsu remains, and the harbor considered to have possibilities to be liman Tsu of the fresh water is located. "It was the fight of 白村江" of 663 years, and this was located in the Allied Forces of Tang and Silla near the Saikai Highway postal road which the defeated Yamato Administration maintained for coastal defense and might be built as a base of the defense. It prospered, or, with the thing which I came to write down the letter of "the tree capital" from a strain state, it is supposed by trade of the wood whether you expected it. This may express that the times turned from war into trade. I collect collaborating evidence and want to grow for a conclusion in future.

About "a dolmen" (stone shelf grave) indicating the interchange of 6 this side and that

The stone shelf grave more than 30 was excavated in Zhejiang Wenzhou ground city in 1993, and a lot of instruments of the Lu Ages were excavated. It is the dolmen which the stone shelf grave means in Japan. This is buried to a sarcophagus and the funerary urn in a grave system run in the Konan district over from B.C. 1700 to B.C. 256 under the stone shelf grave. It is thought whether it is the ancestors of a dolmen unfolding from the shape or burial of remains style in North Kyushu.

"毛昭晰" he which was Hangzhou university professor of Chinese Hangzhou City was visited by Nagasaki, and, in that time when I investigated this stone shelf grave, the situation of "the dolmen" in Nagasaki was asked. Therefore after showing working papers of Onodai, Sasebo-shi, Nagasaki dolmen group Point E, it was supposed as consent was provided very much. Several kinds of variations of the form of the palm stone of the superstructure were the same and were surely judged when several kinds of stone shelf graves of the form where varied in a school entered precise Onodai dolmen group Point E at the Korean Peninsula (it presents a complicated aspect and, about the infrastructure, needs examination). A careful judgment is demanded about the exhumation remains. The carefulness of this case means that it is demanded that I do not find fault with only a

difference easily and judge it generally.

A theme is the one step that there is a little archeological approach whereas an attitude is magnificent, but even half step wants to stimulate this.

동북아해역 출세어(出世魚) 명칭에 관한 연구

양민호(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HK연구교수)

1. 들어가며

본 발표에서는 동북아해역에서 나타나는 출세어(出世魚)의 명칭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일찍이 동북아해역 국가들은 수산물 소비에 있어서 거대 시장이었으며 앞으로도 소비량 및 교역량이 증가 추세에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렇듯 동북아해역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경제활동 수단인 어획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미 수산과학 분야에서는 물고기 및 어획물 자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다만 인문학적 입장에서 접근할 때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해역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물고기의 이동 경로와 언어지리학적 방언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단일 국가별로 연구가 진행된 적은 있지만 한중일 더 나아가서 동북아해역과 같이 광역적으로 조사나 분석이 이루어진 적은 매우 드물다. 따라서 출세어를 비롯한 어획물의 명칭을 통하여 해역 기층문화의 일면을 투영해보며 나아가 큰 그림으로서 동북아해역과 인문네트워크의 역동성이라는 영역까지 그 관심과 분석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2. 출세어(出世魚)란

출세어(出世魚)란 치어(稚魚)에서 성어(成魚)까지의 성장 단계별로 다른 명칭을 가진 물고기를 가리킨다. 출세어의 어원은 일본의 경우 에도(江戶) 시대까지는 무사나 학자에게는 성인이 되거나 출세를 하였을 때 이름을 바꾸는 관습에서 유래했다. 그 관습에 빗대어 '성장과 함께 출세하는 것처럼 명칭이 바뀌는 물고기'를 출세어라고 부른다. "운수 또는 재수가 좋은 생선"으로 해석되기도 하여 새출발을 축하하는 자리 또는 잔치 음식에 자주 쓰인다. 방어, 농어, 숭어 등이 대표적인 출세어의 종류이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동북아해역의 출세어 중 방어의 이동 경로와 명칭의 관계에 대하여 개략하겠다. 이러한 기초연구를 통하여 향후 출세어의 이동과 동북아해역 사회의 연관성을 밝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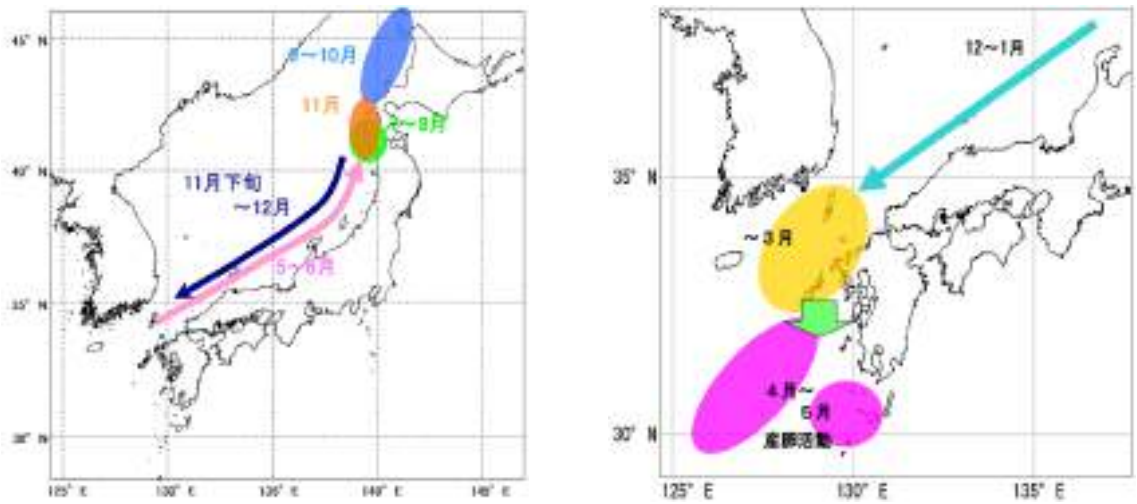
3. 일본의 지역별 방어 명칭

먼저 회유성 어종 대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방어는 한국과 일본에서 출세어로 불리는 어종(魚種)으로 그 크기와 성장 과정에 따라 불리는 이름이 다르다.

방어는 대표적인 출세어 중 하나다. 대방어 이외 중방어 또는 소방어는 미성어(未成魚)로 취급한다. 이와 같은 미성어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지역별로 그 이름이 달리 붙어 있으며 일본의 경우 95종에 이른다고 한다.

<표1> 일본의 지역별 출세어 방어(ブリ) 명칭

지역/권역	15cm까지	40cm정도	60cm정도			90cm이상	
關東/태평양	ワカシ	イナダ	ワラサ			ブリ	
關西/태평양	ツバス	ハマチ	メジロ			ブリ	
東北/태평양	ツベ	イナダ	アオ			ブリ	
下北/환동해	フクラギ	イナダ	ワラサ			ブリ	
北陸/환동해	ツバエリ	コズクラ	フクラギ	アオブリ	ハナジロ	ブリ	
富山/환동해	ツバイソ	コズクラ	フクラギ	ガンド		ブリ	
山陰/환동해	ショウジゴ	ワカナ	メジロ	ハマチ		ブリ	
四國·山口·廣島 /태평양	ヤズ	ハマチ				ブリ	
九州/환동해 /대한해협/동중국해	ワカナゴ	ヤズ	ハマチ	メジロ		ブリ	オオウ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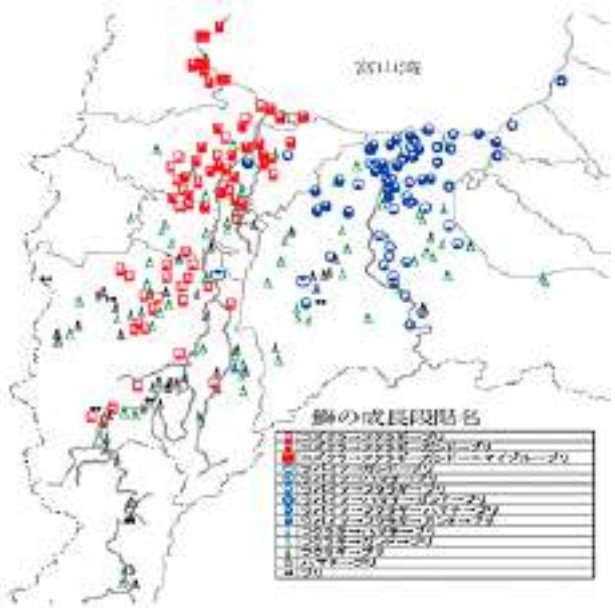


<그림1> 출세어 대방어의 계절적 이동(回遊) 경로

출전: 日本海における大型ブリの動き-福井県水産試験場 자료 중 발췌

<표1>은 일본 방어(ブリ)의 명칭에 대하여 지역별 그리고 크기별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여기에 권역별 해역 표시(태평양, 환동해, 대한해협 등)를 덧붙였다. <그림1>은 방어가 회유어(回遊魚)이면서 출세어이므로 물고기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림1>을 살펴보면 회유어인 방어는 환동해, 동중국해, 대한해협, 규슈 북부 지역 등을 절기에 맞추어 산란활동을 하거나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수온에 따라 움직이는 방어의 명칭은 이동경로에 따라 각기 달라진다. 대방어가 주된 이동을 하는 환동해 권역인 호쿠리쿠(**北陸**), 도야마(**富山**), 산인(**山陰**), 규슈(**九州**) 북부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명칭이 다양화되어 있으며 크기와 성장 상태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다. YANG(2018)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사피아 워프의 가설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언어가 인간의 사고(思考)를 규정한

다고 최초로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는 사피어와 워프이다. 사피어 워프 가설(Sapir-Whorf hypothesis)은 한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과 행동이 그 사람이 쓰는 언어의 문법적 체계와 관련이 있다는 언어학적인 가설이다. 예를 들면 유럽인에게는 시간이 객관화된 것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 1월, 8월, 여름, 가을이 분명하고, 또 시간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여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하다. 그러나 호피(Hopi)족에게는 시간이 객관화되어 있지 않고 관습적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볼 때 언어상대주의(Linguistic Relativism)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언어 상대성 가설이란 '언어는 사고다'라는 생각으로 즉 '사고가 반드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 언어의 영향을 사고가 받는다'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섬나라 일본의 방어 명칭을 살펴보았을 때 어촌마을 특히 회유어인 방어의 회유 루트를 따라 그 명칭이 표1과 같이 세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마크로(Macro)적으로 보았을 때 크게 나눈 것이며, 마이크로(Micro)적으로 분석한 中井(2018)의 연구 역시 살펴 볼 수 있다. 中井에 의하면 방어의 산지인 도야마(富山)현 내에서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으로 나누어 그 명칭을 분석하였다.



<그림2> 도야마 만과 주변 지역 방어의 성장단계별 명칭

출전:富山湾—その豊かな沿岸世界と内陸をつなぐぶり 자료 중 발췌

예를 들어 도야마 동부 지역에서는 그림2와 같이 ツバイソ→フクラギ→ガンド→ブリ 또는 ツバイソ→フクラギ→ハマチ→ブリ처럼 성장단계에 따라 명칭이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도야마 서부 지역에서는 コズクラ→フクラギ→ガンド→ブリ와 같이 명칭이 바뀐다. 결국 中井(2018)에서 도야마 동부에서는 일년 내내 미성어(幼魚)인 ツバイソ인데 비하여 서부에서는 コズクラ라고 부른 지역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동부에서는 성어(成魚)인 ブリ의 전 단계인 ガンド라고 불리는 지역과 ハマチ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나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방어의 성장단계를 보았을 때 도야마 동부 ツバイソ→フクラギ→ハマチ→ブリ 또는 서부 コズクラ→フクラギ→ガンド→ブリ는 4단계 명칭, 내륙 쪽에서는 3단계가 많고, 산간부에는 2단계 フクラギ→ブリ 또는 단순히 ブリ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앞서 언

급한 것처럼 방어는 광역적 해역 단위로 보았을 때와 中井와 같이 마이크로적 지역 단위로 보았을 때 양쪽 모두 출세어인 방어의 명칭에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유통경로 즉 방어의 판로와 연관되며 소금에 절이지 않은 방어의 경우 연안 지방에서만 소비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일년생 ツバイソ와 コズクラ 또는 이년생 フクラギ 등이 내륙 지방에서 요리재료로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따라서 도야마 연안에서 10km 떨어진 내륙 지방에서는 무염 방어가 유통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상인들이 방어를 팔러 내륙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모두 염장한 방어이다. 이렇게 염장된 방어지만 내륙에서는 비싸게 팔려 연말연시에 かぶら壽司(かぶらずし)라는 도야마 현과 이시카와 현의 독특한 식문화가 탄생되었다. かぶら壽司는 순무를 잘라서 염장된 방어와 당근 등을 끼워 발효시킨 스시이다.

출세어는 아니지만 어획물 중에 유사한 예를 한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의 방어와 비슷한 유통경로를 갖춘 것이 안동간고등어이다. 동해안 영덕항에서 잡힌 고등어를 염장하여 내륙에 위치한 안동으로 가져와 먹던 것에서 유래된 것이다. 보부상 상인들이 영덕 강구항에서 안동까지 고등어를 운반하는데 기본적으로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는 유독 쉽게 부패하는 생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운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인들이 장시간 상하지 않도록 소금을 쳐서 판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방어와 같은 출세어는 아니지만 한국인이 사랑하는 어획물의 한 종류인 고등어의 경우에도 방언형은 해안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자산어보에 따르면 고등어는 등이 푸르고 등무늬가 뚜렷하여 벽문어(碧文魚)라고 기록되어 있다. 방언도 지역에 따라 경남북, 전남북, 경기 및 충남 지방에서는 고등어, 강원도에서는 고망어, 함경남도에서는 고동어, 함경북도에서는 고등어 또는 고망어라고 부른다. 이외에도 여러 문헌에서는 고도어(古道魚)라고 기록되어 있다.

4. 한국의 지역별 방어 명칭

한편 한국에서 방어를 해벽어(海碧魚)라고 부르며 표2와 같이 지역별 방언형 역시 다양하게 존재한다.

<표2> 한국의 지역별 출세어 방어 명칭

<table>
<tr><th>지역</th><th colspan="5">방언형</th><th>공통어</th></tr>
<tr><td>통영·거제</td><td colspan="2">야도</td><td colspan="2">히라스</td><td>히라시</td><td rowspan="6">방어</td></tr>
<tr><td>여수·울산</td><td colspan="5">부시리</td></tr>
<tr><td>마산·창원</td><td colspan="5">부리</td></tr>
<tr><td>제주</td><td>야즈</td><td>하마치</td><td>부시리</td><td>부리</td><td>재방어</td></tr>
<tr><td>강원</td><td>떡마르미
떡메레미
방치마르미</td><td>마르미
메레미</td><td>이배기</td><td>피미</td><td>사기</td></tr>
<tr><td>경북·포항·경주·영덕·울릉</td><td>곤지레미</td><td colspan="2">떡메레미</td><td colspan="2">메레기, 되미, 메리미, 마래미</td></tr>
</table>

표2는 앞서 언급한 표1과 같이 크기별 성장기별로 구분된 명칭이 아니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강원도에서는 15센티미터 이내의 어린 개체를 떡마르미, 40센티미터 내외의 중간 개체를 이배기, 60센티미터 이상의 큰 개체를 사기라 부르고, 경북에서는 10센티미터 내외를 곤지메레미, 15센티미터 내외를 떡메레미, 30센티미터 내외를 메레기 혹은 되미, 60센티미터 이상을 방어라 부르고 있다. 다만 표2는 현재 그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언형을 나열해 놓은 것으로 향후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여기서 주장할 수 있는 사실은 지역별 방어의 명칭이 서해에서는 단순화 되어 보이지 않던 명칭들이 환동해권 지역과 산란기를 남해와 제주해 인근에서 산란기를 보내는 방어의 특성상 한국에서도 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일본식 명칭(야즈, 야도, 부리, 하마치, 히라스)으로 다수 사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나오며

본 발표는 동북아해역 출세어(出世魚) 중에서 방어(ブリ)의 명칭에 대하여 언어지리학적 입장에서 기술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명칭이 해역과 육역의 지리적 특징, 방어의 이동경로, 방어가 판매되는 상업 판로와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삼면이 바다인 한국과 섬나라인 일본, 그리고 동중국해 등과 같이 동북아해역을 공유하는 국가 입장에서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물고기의 명칭과 식문화의 이동(異同)을 통하여 해역기층문화의 이해라는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본 발표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출세어란 치어(稚魚)에서 성어(成魚)까지 성장 단계별로 다른 명칭을 가진 물고기를 지칭
- 출세어인 방어의 명칭은 광역적으로 살펴볼 때 계절적 이동 경로 즉 해역별로 다름
- 지협적으로 볼 때 도야마 지역 동부와 서부,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에서 방어를 부르는 명칭과 식문화 차이가 존재
- 방어의 한국 명칭은 지역별로 다양화된 방언이 존재
- 계절적 이동경로에 속하지 않은 서해안에서는 방어의 명칭이 매우 단순하지만 동해권 남해안, 제주도에서는 명칭이 다양

참고문헌

김문기(2016)『玆山魚譜』와『海族圖說』. 역사와경계, 101, 67-132

조영제(2009)『생선회 100배 즐기기』김&정

Yang, Minho(2018) Study on Vestiges of Japanese in Fishing Village Language, *Journal of Marine and Island Cultures*, vol.7 no.1

李崇寧(1935) 魚名雜攷. 진단학보, (2), 134-149

中井精一(2018)「語の受容と社会的機能－ブリの成長段階名の拡大とその背景」『方言の研究3』ひつじ書房

--------(2018) 富山湾―その豊かな沿岸世界と内陸をつなぐぶり
福井県水産試験場(2008) 日本海における大型ブリの動き
네이버 지식백과 및 두산백과사전

【 Abstract 】

A Study on the name of Chul-se-eo in Northeast Asia Sea Region

Yang, Min-Ho(Pukyong University)

This paper describes the names of yellowtail in Northeast Asia sea region as linguistic geography.

As a result, various names were associated with geographical features of the oceans and land, the movement of yellowtail, and commercial routes from which yellowtail were sold. In addition, South Korea and the island of water on three sides, Japan, and East China Sea, such as Northeast Asia countries discussed in position to share the waters.

The differences in food culture and fish names that move freely across borders enabled us to lay the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marine culture.

* Chul-se-eo is a fish which changes its name after a certain period.

포츠머스회담(1905)이 동북아해양질서에 미친 영향

이학수(한국해양대학교 초빙교수)

1. 들어가는 말

현재 중국과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심각한 해양갈등을 겪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이 언제부터 어떻게 동북아 해역에서 현재와 같은 해양질서를 구축하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미국 주도의 동북아 해양질서가 정착되는 시점이 바로 포츠머스 회담(1905년)이라는 가정 하에서 출발하고 있다.

러일 전쟁 직후 미국이 전쟁당사국들인 러시아와 일본에게 주선한 포츠머스 강화조약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를 공식화하는 문서이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필리핀을 식민지로 한다는 내락을 얻어 내고 대신 일본에게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주장이 정설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포츠머스 회담의 이면에 미국의 거대한 동북아 해양질서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왔다. 아편전쟁 이후 미 해군 군함들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중국의 내륙과 동북아 해역을 자유롭게 통항하게 되었고, 미서 전쟁에서 승리하여 필리핀을 점령하였으며(1898), 미 해군 백색함대가 세계일주 항해를 하여 전 세계에 미 해군력을 과시할 때에 일본 요코하마 항구를 방문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1907-1909).

그렇다면 포츠머스 회담은 이상과 같은 역사적 사실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인데도 동아시아 전문 연구자들은 그 동안 이러한 측면을 간과해 왔던 것이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포츠머스 강화회담을 주선하고 중재했다는 이유로 1906년 노벨평화상을 받았고, 미국인들이 그를 최근까지 20세기 최초의 위대한 정치가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가 동북아 해양질서를 장악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 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국이 동북아 해양질서를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게 된 것은 러일전쟁 이후 일본과 러시아 간에 체결된 포츠머스 조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상의 분석은 동북아해역에서 미국 주도의 해양질서가 재편되기 이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미국 주도의 현 동북아해양질서가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보려는 의도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작업은 현재의 남중국해를 비롯한 동아시아 해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양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단초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Ⅱ. 19세기 동북아 해역의 미국

동양에 대한 진출 속도가 서구 열강에 비해 훨씬 늦었던 미국은 1853년 페리 제독으로 하

여금 흑선을 동원, 무력시위와 함포사격을 통해 일본을 개방시켰고, 1882년에는 조선과 조·미통상조약을 체결하여 중국 대륙으로 향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1898년에는 마닐라를 침공하여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아 제국의 깃발을 꽂았다.

중국은 아편전쟁 발발 20년 전인 1820년 청나라 때만 해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3%를 차지했다. 천하를 호령했던 대국이 홍콩, 마카오 등의 영토를 외세에 하나씩 떼어 주며 반식민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청나라는 2차례에 걸친 아편전쟁의 패배(1839-1842, 1856-1860)와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과의 연이은 불평등조약으로 쇠락의 길을 달리고 있었다. 19세기 말 양무운동으로 변화를 꾀하였지만, 청일전쟁(1894-1895)의 패배로 청조는 재기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다. 부패한 청조, 열강의 침략, 청일전쟁의 배상금 등이 불러온 민중의 고통은 의화단 사건까지 비화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중국 진출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1899년에는 헤이 국무장관이 중국의 영토 보존과 중국에서의 상업적 기회균등 등을 강조한 문호개방정책을 열강에 통고했다. 1900년경에 오면서 열강 대열에 오른 미국은 늦게나마 제국주의 열차에 편승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진출을 시도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진출 최종 목표는 만주였다. 열강 간에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해야만 했던 것이다. 여기에 가장 걸림돌로 작용한 미국의 주적은 처음에는 러시아였고, 러시아를 견제한 후에는 일본이었다.

1. 의화단 사건

그리스도교를 앞세운 서양인들의 제국주의적 행동은 외국인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청년들의 분노에 불을 지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해서 발발한 내란이 바로 1900년의 의화단 사건(Boxer Rebellion)이다.

제국주의 열강은 청 정부에 사태 해결을 위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요청했지만, 청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의화단과 합세하였다. 그러는 사이 독일과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탈리아의 8개국 연합군이 중국의 다구에 상륙하였고, 도리어 베이징에 입성하기에 이르렀다. 연합군에 위협을 느낀 시태후는 열국과 화의를 맺었고 의화단은 근대 무기로 무장한 열강의 정규군에 의해 패전을 거듭해 소멸되었다.

베이징 함락 1년 뒤 청은 8개국과 신축화약을 맺었다. 그 내용은 사건의 주모자 100여명을 처형하고 독일과 일본에 사죄사를 파견하며, 공사관 보호를 위해 외국 군대가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주둔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배상금으로 4억 5,000만 냥을 39년 간 분할 상환하는 것 등이었다. 의화단 사건으로 청의 보수, 수구파 세력은 그 세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고, 배상금 지불로 인해 국가 재정은 파탄에 빠졌다. 시태후가 의화단을 도운 것은 그것도 나름 청이 처해있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시도였던 것 같다. 하지만 외세를 배척하는 것만이 옳은 선택이 아니었음을 의화단 사건의 결말이 보여준다.

의화단 사건(1899-1901)은 의화단이라는 중국의 비밀결사단체가 유럽 선교사들과 중국인 기독교도들의 전횡에 항의하여 봉기한 후 외국인과 중국인 기독교도들을 대량으로 살해한 사건이다. 1898년 4월 독일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선교활동이 왕성했던 산둥성에서 처음 일어날 때만 해도 미미했던 세력이 그해 가뭄이 극심해 지자 많은 유민이 발생하였고 유민들의 가세로 의화단의 세력은 성장하였다. 1899년 12월에 산둥에 부임한 위안스카이는 열강의 요구에 따라 의화단을 탄압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의화단이 북부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그 운동도 더욱 격렬해졌다.

의화단이 성행하게 된 사회적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철도의 건

설과 증기선으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생업을 삼아온 사람들과 여관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두 번째는 중국인 기독교도들이 선교사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송사에서 부당하게 승리함으로써 원성을 산 점 등이 있었다. 또한 1897년에 독일이 교주만을 조차한 것 등 열강의 중국분할 시도와 같은 해에 황하의 범람과 그로인한 기근, 여기에다 러시아의 시베리아철도 건설(1891-1905)과 만주진출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의화단원들이 만주에서 러시아가 당시 건설 중이던 동청철도를 파괴했을 때 이를 계기로 러시아군대가 만주에 주둔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러시아는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말로는 약속했으나, 차일피일 이를 미루었고 영구주둔을 꽤하였는데, 이것이 1902년의 영일동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감숙성 출신의 회교도 군대인 간군은 동복상(동푸샹)의 지휘 하에 있었는데, 북경수비대로서 평상시에는 북경 외곽에 주둔하고 있었으나 의화단사건이 일어나자 조정의 명에 따라 북경내로 들어와서 공사관을 포위하였다. 청조는 외교관들에게 중국을 일시적으로 떠날 것을 권하였으나, 북경에서 해안지역까지 가는 길이 의화단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으므로 공사관에서 방어선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다. 포위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였는데, 구조가 늦은 이유로는 영국의 시모어(Seymour) 제독이 성급하게 철로를 따라 북경으로 진격하다가 도중에 의화단에게 저지되었고, 서방의 언론들이 공사관의 외교관들이 이미 모두 살해당했다고 오보를 하는 바람에 신속한 구조의 필요성을 경시한 것을 들 수 있지만 이밖에도 영국이 보어전쟁으로 발이 묶여 있었다던가, 미국이 필리핀의 독립운동을 진압하느라 여력이 없던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1900년 8월 8개국(영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미국, 일본)의 연합군이 북경에 진주하자 서태후와 광서제는 내륙지역으로 급히 피신하였다. 이때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한 나라는 일본이었고 그 다음이 러시아였다. 북경과 톈진 일대에서는 대규모의 보복성 학살과 약탈이 있었다. 북경과 톈진 이외의 지역에서도 선교사들에 대한 공격이 빈발하였는데, 주로 북부지역이었고, 남부와 동부지역에서는 의화단이 오히려 탄압을 받았다. 1901년에 체결된 신축조약은 1901년 청나라가 영국·미국·러시아·독일·일본 등 11개국과 외세 배격을 주장했던 무장단체인 의화단 사건 처리를 위해 맺은 것이다.[1] 이 조약을 계기로 서구 열강은 중국에 대한 통치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청나라는 독일과 일본에 사죄사를 파견하고 막대한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하며 외국 군대 상주를 허용해야만 했던 불평등조약이었다.

의화단이 확대되면서 제국주의 열강은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 국의 중국 주재 공사관들은 청조에 대하여 강력한 방법으로 의화단을 진압해 주도록 요구하였다. 즉 1900년 1월에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공사는 각각 총리아문에 청 정부가 의화단의 활동을 엄금하는 상유를 공개 발표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청이 의화단 진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1900년 6월 10일에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의 8개국이 연합군을 조직하기로 하여 우선 2129명(영:915명, 독:512명, 러:312명, 미:111명, 일:54명, 프:157명, 이:42명, 오:26명)을 구성, 영국 해군사령관 시모어(E. H. Seymour)의 지휘아래 톈진의 다구 포대로 상륙하여 톈진을 경유 베이징으로 들어오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청의 조정에서는 회의 끝에 서양과 강화하자는

1) Diana Preston, 'Boxer Rebellion: The Dramatic Story of China's War on Foreigners That Shook the World in the Summer of 1900'

광서제의 의견을 묵살하고 서태후가 의화단과 손을 잡기로 결정함에 따라 .청군은 의화단과 함께 연합군을 저지하였다.

청 조정은 1900년 6월 21일에 서양과 전쟁상태에 들어갔음을 포고하고 베이징에 있는 외국인 지역을 포위한 후 이미 의화단의 대규모 무장폭동이 일어난 톈진에서 안전을 위해 24시간 이내에 떠나라고 권고한다. 8개국 연합군은 전력을 재정비하여 공격하였고 7월 14일 톈진을 함락시켰다. 이때는 이미 연합군의 숫자가 1만1천 명으로 늘어났고, 7월 말에는 3만4천 명이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2만의 병력으로 8월 13일에 연합군은 베이징을 함락시켰다. 서태후와 광서제는 8월 15일 간신히 베이징을 빠져나와 서안으로 도망쳤다. 임자 없는 베이징은 혼돈상태가 되었고 연합군은 의화단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을 감행하였다. 즉 의화단 색출을 명분으로 끔찍한 살인, 약탈, 강간 등 범죄를 자행했는데, 희생자의 대부분은 의화단과 전혀 무관한 민간인들이었다. 또한 베이징의 이화원 등 많은 건물들이 약탈당하거나 파괴되었다.

Ⅲ. 미서 전쟁과 동북아 해역의 미국

마젤란이 필리핀에서 죽은 지 44년 후인 1565년 4월 27일 에스파냐 국왕 펠리페 2세의 임명장을 받은 Miguel Lopez de Legazpi 초대 총독이 다시 세부 섬에 상륙, 최초의 식민지 통치를 시작하였으며, 1571년에는 필리핀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으로 판단되는 지금의 마닐라로 식민지 수도를 옮기고 본격적인 필리핀 식민지 통치를 시작했다. 이처럼 필리핀은 미서 전쟁으로 미국에 양도되기까지 330년간 에스파냐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

필리핀에서 반 에스파냐 독립운동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에스파냐 정부는 쿠바 관계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이어서 필리핀 반란군 진압에 주력할 수가 없었다. 결국 에스파냐 정부는 반란군 측에 종교 명령 철폐, 민족 법적 평등, 언론과 집회의 자유, 재정의 개선 등의 강화조건을 수용하고 또 170만 페소의 배상금을 지불함으로써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아귀날도 장군 등 반란군 지도자들을 홍콩으로 추방하였다. 홍콩으로 추방된 아기날도 장군은 무기구입에 전념하고 필리핀 수복을 노리고 있었다.

쿠바의 메인 호 사건 이후 미국과 에스파냐의 관계는 매우 악화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태평양에서도 에스파냐와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다. 당시 에스파냐령이었던 필리핀에 가장 근접한 것은 조지 듀이 대장이 이끄는 홍콩의 아시아 전대(Asiatic Squadron)였으며 각각 2척의 방호 순양함과 포함을 보유하고 있었다. 미국 해군은 개전 직전에 방호 순양함 2척과 포함 1척을 추가했다. 1898년 5월 1일, 미국의 조지 듀이(George Dewey)제독이 이끄는 미국의 동양함대가 필리핀 마닐라 만 해전에서 에스파냐 함대에 포격을 가했고, 포격 시작 후 6시간 만에 에스파냐 군함들은 괴멸되고 말았다.[2] 마닐라 해전에서 에스파냐군은 381명의 사상자를 내었고, 미군은 8명의 경상자만 내었다. 미국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해군과 에스파냐 해군의 함포 성능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를 해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학살이라고 해야 할 정도였다.

이때 아기날도 휘하의 필리핀 독립군 부대도 에스파냐군 공격에 가담했다. 이들은 1898년 미국과 에스파냐 간에 전쟁이 일어나자 홍콩주재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무기를 지원 받아 미

2) 듀이 제독이 *War Times Journal*에 기고한 The Battle of Manila Bay.

국과 협력하여 카비테에 상륙, 에스파냐 군을 물리치고 1898년 6월 12일에는 마침내 필리핀의 독립을 선언하고 수도를 마닐라로 정하였다. 당연히 아기날도 독립부대는 미서전쟁에서 미군이 승리하자 필리핀이 독립하는 줄 믿고 있었다. 하지만 미 해군은 1898년 12월 파리에서 미국, 에스파냐와 파리강화조약을 맺고 에스파냐에 2천만 달러를 제공하여 에스파냐로부터 필리핀을 양도받아 327년간의 에스파냐 통치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필리핀 식민지 종주국이 되었다.

1899년 매킨리 대통령은 미국이 필리핀 전체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선포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데 미국은 필리핀을 점령했다고 판단했지만 아기날도가 이끄는 필리핀 독립군들은 미국에 저항했다. 독립군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 12만 6천 명의 미군들이 3년간 전쟁을 했다. 30여만 명의 필리핀 주민들과 2만 명의 반란군, 4,165명의 미군들이 전투 중에 사망했다.

미서전쟁 이후 미국 해군은 필리핀 인근 해상권을 장악하게 된다. 당시 에스파냐는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조차 예상하지 못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후 마닐라 만에는 홍콩에서 발진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4개국 함대가 전개하여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용인했다. 6월 20일에는 미 순양함 USS 찰스턴이 괌을 무혈점령했다.

미서전쟁 과정에서 미국 지도자들이 내세운 게 선민의식이었다.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인종이 기독교 문화와 그를 기반으로 발전된 서양 문명을 전 세계에 전파함으로써 미개한 유색인종들을 개화시키는 것이 도리요, 의무라고까지 주장했다.

일단 미서전쟁을 일으킨 가장 큰 미국의 목적은 카리브 해를 차지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쿠바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에스파냐는 육군이나 해군에서도 미국에 상대가 되지 않았기에 일단 카리브 해 지역의 에스파냐 식민지는 접수했고 카리브 해 에스파냐 식민지뿐만 아니라 태평양의 필리핀까지 차지하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사실 미국은 카리브 해뿐만 아니라 태평양에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 유리한 거점이 필리핀이었다.

필리핀 점령이후 미국은 필리핀 남쪽에 있는 섬의 영유권 문제로 네덜란드와 해양영토분쟁을 야기하여 국제사법재판소로부터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섬에 대한 점유권은 네덜란드에게 돌아갔지만 대신 미국은 필리핀 점령을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Ⅳ. 포츠머스 조약과 동북아의 미국

러일전쟁은 1904년 2월 일본군이 중국 여순(旅順)의 러시아 해군기지를 기습하면서 시작되었다. 전쟁은 1905년 1월 봉천(奉天)전투와 5월의 동해해전에서 일본군이 러시아군에 승리하면서 일본이 승세를 잡았다.

일본은 유리한 전쟁 상황을 활용하여 미국의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에게 러시와의 강화를 알선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당시 일본군은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고 있었고, 봉천전투 이후 더 이상 북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처지였다. 러시아도 일본군에 계속 패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와 독일을 상대로 전쟁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발행한 외채부담이 가중되는 등 재정난에 직면하였다. 더구나 1905년 1월 9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와 최저임금제 실시를 요구하는 평화적 시

위에 대해 군인이 발포하면서 수백 명이 죽는 '피의 일요일' 사건이 일어났다. 시위는 이즈음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러시아의 차르 니콜라이 2세(Aleksandrovich Nikolai II)가 통치하는 짜르체제를 위기에 빠뜨렸다(제1차 러시아혁명). 이에 반해 일본은 지도층만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도 분열되어 있지 않았다. 러일전쟁으로 러시아와 일본이 모두 녹초가 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객관적으로 일본이 처한 상황이 러시아보다는 유리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에스파냐와의 전쟁을 통해 영토를 해외로 확장하는 제국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1905년 7월 29일 태프트-가쓰라 비밀 협정을 맺었다. 태프트 미국 육군 장관이 새로운 식민지 필리핀을 시찰하러 가는 길에 일본에 들러 가쓰라 총리를 만나,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통치를 양해하고 미국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용인한다고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이 1905년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는 을사늑약을 맺자, 서양 국가들 가운데 가장 먼저 1882년 조선과 수호통상조약을 맺었던 미국은 가장 먼저 조선을 떠났다.

1905년 8월 9일부터 미국 뉴우햄프셔 주에 있는 조그마한 군항 도시 포츠머스에서, 미국의 중재로 일본과 러시아가 러일전쟁의 종전협상을 거듭하여 1905년 9월 5일 크게 다섯 가지 사항을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바로 포츠머스조약(Treaty of Portsmouth, 一條約)이다.

일본 측 전권수석대표는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 외상이었고, 러시아 측 수석대표는 세르게이 율리예비치 비테(Sergei Yulievich Vitte)였다. 양측 간 회담은 모두 15회 열렸으며, 회담 도중 양측은 전쟁 상황을 고려하며 미국의 언론을 동원하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일본은 끝까지 관철해야 할 강화조약의 절대적 필요조건으로 첫째,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자유처분권을 러시아가 승낙하고, 둘째, 일정 기한 내에 러시아군이 만주에서 철수하며, 셋째, 랴오둥반도의 조차권 및 하얼빈에서의 여순 간의 철도를 일본에 양도할 것을 내세웠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는 거의 승낙하였다.

하지만 일본이 생각하고 있던 강화조약에 따른 비교적 필요조건 곧, 사정이 허락하는 한 관철을 시도한다는 조건 가운데 러시아로부터 배상금을 지불받고, 사할린 섬을 할양받는다는 사항을 러시아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회담이 난항에 빠졌다. 교착상태에 빠진 회담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니콜라이 2세를 설득하여 사할린의 남쪽 부분을 할양하도록 함으로써 일본 측에 유리하도록 중재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사실상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를 확인한 조약이었다.

일본은 주요 열강으로부터 대한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안정적으로 확약받기 위해 포츠머스조약을 체결하기 한 달 전인 7월에 미국과 '가쓰라-테프트 비밀협정'을 체결하였다. 강화회담이 진행되고 있던 와중인 8월 12일에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두 차례의 약속을 통해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였고, 영국과 공수동맹을 체결하였다.

1905년 9월 5일에 조인된 회담의 주요 내용은 한국 및 러시아와 관련된 것이었다. 한국과 관련된 것으로는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도 보호 감리조치를 승인한다는 것이었고, 러시아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중국의 동의를 조건으로 러시아가 (러시아의) 관동주 조차지와 장춘-여순 간 철도를 일본에 양도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해양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사항으로 러시아가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 섬 남쪽을 일본에 양도하고, 동해, 오호츠크 해 및 베링 해 연안의 어업권을 일본에 양도한 점이다.

Ⅴ. 백색함대의 세계 원정과 동북아 해역

1907년12월16일, 관중의 환호 속에 해군 함정들이 꼬리를 물고 미국 버지니아 주 햄프턴 로드 항에 나타났다. 1만 톤에서 1만6천 톤에 이르기까지 대형전함의 총톤수만 22만5천 톤이었다. 모두 28척의 군함들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전용 요트 메이플라워호에 경의를 표하면서 체사피크만을 빠져 나갔다. 영국의 북해함대를 제외하고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의 백색함대(the Great White Fleet)가 세계 일주에 나선 순간이다.

이번 세계 일주 항해에 나서는 이유는 미국이 내륙국가에서 해양국가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다. 보통 군함의 도색은 적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한 회색이었는데 미국의 군함들이 백색 페인트를 칠한 이유는 평화 이미지 때문이었다.

카리브 해와 브라질을 거치며 석탄을 가득 보급 받은 백색함대는 미주대륙 남단 마젤란 해협을 돌아 멕시코를 거쳐 샌프란시스코에서 도착했다. 백색함대가 미국의 서부를 특별히 방문한 것은 이유가 있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가 일본인 이민제한 및 백인과 일본인이 한 교실에서 수업 받는 공학(共學) 금지를 발표해 긴장이 높아지던 시절이었다. 청나라와 러시아까지 제압한 일본이 미국도 침공할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서부 지역의 민심을 다독이자는 게 백색함대가 맡은 국내 임무였다. 루스벨트가 추진하던 미국 해군 증강 정책을 줄기차게 반대하던 서부 지역 의원들의 생각을 돌리자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

백색함대의 다음 순항지는 오스트레일리아였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항에서는 10만 인파가 미국의 백색함대를 환영했다. 열흘 뒤 호주의 시드니 항에는 60만 인파가 몰려들었다. 영국의 퇴보가 뚜렷하고 일본의 기세가 분명해지는 분위기에서 고립될 수도 있고, 영국의 안보 우산이 사라질까 떨던 뉴질랜드와 호주로서는 같은 앵글로 색슨의 대규모 함대에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 백색함대에 자극받은 오스트레일리아는 영국과 별도로 자체 해군력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1908년 10월 16일, 미국 백색함대 16척의 전함은 일본 함대 전함 16척의 안내를 받아 요코하마 항구에 나타났다. 루스벨트는 백색함대의 일본 파견을 통해 미·일 협조와 대일경고라는 이중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일본인들 중에서 이러한 미국의 백색함대 순항의 이중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한 전략가들은 많지 않았다. 일본의 외교관 오쿠마 시게노부(大重信) 백작은 “루스벨트의 해군력 건설은 일본을 목적으로 지향된 것이며 서구 사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간파했지만, 그의 견해가 일본 여론을 대변한 것은 아니었던 점은 향후 태평양에서 벌어진 첨예한 미일 대립구조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3)]

백색함대는 일본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환영을 받았다. 일본 해군은 연합함대를 편성해 백색함대와 나란히 요코하마 항에 입항하는 행사를 치렀다. 6개월 동안 예행연습을 했던 어린이 5만 명은 성조기를 흔들며 미국 국가를 부르고 일본왕은 백색함대의 장교들을 초청해 오찬을 베풀었다. 이 와중에 미국의 이민 제한,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의 일본인 차별 문제로 일본의 일부 군국주의자들이 주장하던 대미 전쟁불사론은 슬그머니 철회되고 말았다. 백색함대의 의도 중의 하나가 달성된 것이다. 하지만 백색함대는 중국으로부터 불만을 샀다. 백색함대 전체가 중국을 방문하지 않고 절반만 파견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시기부터 중국보다 일본을 선호하는 동아시아정책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4)]

---

3) 이주천(2015.09.03.), “‘친일(親日)과 견제’ 절묘한 2중 외교”, 『미래한국』.
4) 브루스 커밍스, 나지원 옮김, “1894~2014년간 동아시아 질서에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선호”, 『아시아 리뷰』(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vol.4, no.2(2015), 133-163쪽.

백색함대의 출항 전부터 석탄 보급을 위한 기지로 개발했던 필리핀 수빅 만(Subic Bay)과 싱가포르, 수에즈운하를 거치는 동안 백색함대의 순항 소식은 세계적인 뉴스거리로 떠올랐다. 지중해를 통과한 백색함대는 432일간 8만2천여 ㎞를 항해하며 1909년 2월 22일 출항지인 햄프턴 로드 항구에 도착했고 이때 미국인들은 백색함대에 열광했다.[5]

백색함대의 항해는 가장 요란하게 가장 효율적인 성과를 거둔 '포함외교'로 평가받는다(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유행한 '함대 방문-외교 조약 체결'패턴은 프랑스함대의 1891년 러시아 방문이 대표적이다. 크림전쟁에서 피 흘렸던 두 나라는 함대 방문으로 동맹을 맺었다). 미국의 백색함대는 한꺼번에 여러 국가를 상대로 포함외교를 펼쳐 군사적으로도 결실을 얻었다.

백색함대의 세계 일주는 미국의 상선대 확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장 큰 문제는 연료 보급. 석탄 보급을 위해 백색함대는 38척의 민간인 선박과 계약을 맺었으나 미국 국적의 선박은 달랑 8척. 나머지 30척은 영국 선적의 민간 화물선이었다. 하와이 진주만이 해군 군항으로 본격 개발된 것도 백색함대의 순항 이후다. 대양함대 운용에 보급 기지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절감한 미국은 백색함대가 출항한 직후 진주만 해군 군항 개발을 위한 긴급비용으로 예산 백만 달러를 편성했다.

백색함대의 항해가 주는 함의(含意)는 오늘날까지 유효하다. '세계 경찰국가 미국'의 뿌리가 바로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몽둥이 정책(Big Stick Policy)'[6]이고 백색함대는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미국의 대외정책도 시어도어 루스벨트에게서 유래한다는 해석도 있다. 부시 행정부 이래 미국이 취하고 있는 선제공격과 일방주의, 헤게모니의 원형이 바로 루스벨트다.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개념도 루스벨트에서 비롯됐다.[7]

루스벨트는 '전함'을 위협 요인으로 봤다. 범선과 달리 빠르고 강력하며 미국이 대비할 시간도 없이 침략할 수 있는 현대식 철제 전함의 등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게 바로 백색함대라고 볼 수 있다. 루스벨트는 전함이 강력해지면서 대서양과 태평양이라는 천혜의 방어막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판단, 펀치력을 확장하는 전략을 택했다. 고립주의에서 적극적 확장으로의 전환은 여전히 미국 외교의 기조다. 미국은 백색함대의 세계 일주 이후에도 해군력 건설에 더 힘을 쏟았다.

백색함대의 위력과 해군력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국제정치 지도자도 있었다. 청나라의 실권자 이홍장(李鴻章)은 북양함대 사열을 몸이 아프다며 거부했다. 그는 미국 방문 시에도 비가 온다는 이유로 웨스트포인트 방문을 취소하고 낮잠 자느라 약속했던 조선소 방문도 취소

---

5) 시어도어 루스벨트에 대한 미국인들의 사랑은 지금도 대단하다. 미국-에스파냐전쟁(1898)이 터지자 해군 차관 자리를 던지고 의용기병대를 조직해 대령 계급장을 달고 직접 쿠바 전투에 참전한 일화가 유명하다. 역사가로도 이름을 남겼고 해군력 증강에 힘썼으며 반(反) 트러스트 법으로 재벌의 독점 구조를 타파하는데 앞장섰다.

6) 몽둥이 정책은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부통령 시절인 1902년 연설에서 처음 나타난다. '평화를 위해서는 말은 부드럽게 하되 큰 몽둥이가 필요하다' 는 이 정책은 처음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 연설을 마친 뒤 불과 12일 만에 암살당한 맥킨지 대통령을 승계한 루스벨트는 미국의 전통적인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외교에 나섰는데 그것의 근간이 바로 몽둥이 정책이었다. 중남미에 군함을 파견하여 에스파냐와 영국, 독일의 영향을 차단하고 2차 모로코 위기 때에도 전함을 보내 독일을 견제하고 프랑스 편을 들었다. 파나마 운하 사건도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루스벨트는 막대한 돈을 요구하는 콜롬비아 정부를 배제하고 반란군을 지원해 파나마 공화국을 독립시킨 다음 유리한 조건으로 파나마운하 계약을 맺었다.

7) 최정수(2003), "조지 W. 부시 독트린의 역사적 기원 :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세계안보' 전략", 『미국사연구』, vol.23(2006), 151-189쪽. 트럼프의 전투함 건조 구상이 조선 경기 활성화를 염두에 둔 것처럼 루스벨트의 백색함대 역시 1907년 공황으로 실의에 빠진 미국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자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됐다. 이홍장은 세계정세 파악에 있어서 특히 해군력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근대적인 인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8)]

Ⅵ. 나가는 말

미국은 1867년에 알레스카와 미드웨이를 확보했고, 1872년에는 파고파고에 미 해군기지를 건설할 수 있었다. 스페인 전쟁 동안 하와이와 필리핀을 합병했고, 1899년 사모아를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획득하여 독일과 분할했다. 이어 무인도인인 웨이크 섬을 합병했다. 하지만 미국은 러일전쟁 때까지도 미국의 아시아 해군 전대가 나가사키와 홍콩의 부두에 정박하려면 일본과 영국의 지원을 받아야 했다. 미국의 팽창주의 정치가들은 제국주의국가로 태평양까지 영토를 확장했다고 믿고 있었지만 이러한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03년이 되면 미국은 세계의 절반에 걸친 거대하고 성장하는 국가를 건설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미국 국가의 부가 증대했고, 완벽한 교통수단을 보유했으며, 강력한 산업시스템을 지닌 것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츠머스 강화조약은 일본이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음을 확인해 준 조약이었다. 이로써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이 해양 강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독점권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았고, 일본이 1905년 11월 을사늑약을 대한제국에 강요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에다 일본은 만주 침략을 위한 확실한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일본을 미국을 한편으로는 지지하면서 한편으로는 견제하면서 동북아 해역에서의 세력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포츠머스 회담을 거치면서 고립주의와 중립주의에서 벗어나 국제주의와 팽창주의, 제국주의 국가로 변모해갔다. 그러다가 백색함대의 세계 일주 원정항해 이후 미국은 확실하게 동북아 해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다시 말해 미국의 태평양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태평양에 대해 미국은 무관심했다거나 진주만 기습 이전까지는 미국의 태평양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희성, “러일전쟁 기간 국제관계와 한국”, 『사총』(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vol.75(2012), 195-230쪽.

브루스 커밍스, 나지원 옮김,“1894~2014년간 동아시아 질서에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선호”, 『아시아 리뷰』(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vol.4, no.2(2015), 133-163쪽.

전홍찬, “미국의 러일전쟁 중재에 관한 재조명 : T. 루즈벨트 대통령의 인종주의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vol.26, no. 4(2010), 175-197쪽.

최정수(2003), “조지 W. 부시 독트린의 역사적 기원 :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세계안보’ 전략”, 『미국사연구』, vol.23(2006), 151-189쪽.

그레이엄 앨리슨, 정혜윤 옮김, 『예정된 전쟁』, 세종서적, 2018.

8) 권홍우(2016.12.26.), “백색의 함대, 미국의 시대를 열다”, 『서울경제』.

브루스 커밍스, 박진빈 외 옮김, 『바다에서 바다로. 미국 패권의 역사』, 서해문집(2011).
Diana Preston, 'Boxer Rebellion: The Dramatic Story of China's War on Foreigners That Shook the World in the Summer of 1900'.
Eugene P. Trani, *The Treaty of Portsmouth : An Adventure in American Diplomacy,* University of Kentucky, 2014.
Frank Freidal, *The Splendid Little War,* Burford Books, 2002.
G. J. A. O'Toole, *The Spanish War : An American Epic 1898,* W. W. Norton & Company, 1986.
George Dewey, *The War With Spain : Operations of the United States Navy on the Asiatic Station : Reports of Rear-Admiral George Dewey on the Battle of Manila Bay, May... May 1 to August 13,* 1898, Forgotten Books, 2018.
Henry J. Hendrix, 조학제 옮김,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해군외교』, 한국해양전략연구소(2010).
Hourly History, *Spanish-American War : A History From Beginning to End,* Create 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2016.
Ivan Musicant, *Empire by Default : The Spanish-American War and the Dawn of American Century*, Henry Holt and Co., 1998.
John Clothurst and George Dewey, *The Dewey Souvenir[of the battle of Manila Bay],* British Library, Historical Print Edition, 2011.
Robert Conroy, *The Battle of Manila Bay : the Spanish-american War in the Philippines,* Macmillan, 1968.
Sergei Witte, *The Russo-Japanese Treaty of Portsmouth(1905),* Amazon Digital Service, 2015.*

【 Abstract 】

The Impacts of the Portsmouth Talks (1905) on the Northeast Asian Maritime Order

Lee, Hak-Su(Visiting professor at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The East Asian maritime order currently dominated by the US is seriously challenged by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Since when and how has the US ruled the Northeast Asian maritime order? This study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US-led Northeast Asian maritime order was established at the Portsmouth talks (1905).

As is often argued, the US-sponsored Portsmouth Peace Treaty is a document that formalized Japan's victory in the Russo-Japanese War. It is accepted as a fact that Japan allowed the US to colonize the Philippines and the US allowed Japan to dominate Korea in return.

However, many researchers have overlooked the fact that the US had a big plan for the Northeast Asian maritime order behind the Portsmouth Talks. After the Opium War, the US Navy warships were free to navigate the inland of China and the Northeast Asian waters without any sanctions. The US won the Spanish-American war and occupied the Philippines (1898). Whenever the US Navy White Fleet sailed and showed off its naval forces around the world, it visited Yokohama Port in Japan (1907-1909).

Then, it is right to understand the Portsmouth Talks in a series of historical facts in relation to the above fact. Nonetheless, experts on East Asia have ignored such aspect. President Theodore Roosevelt received the Nobel Peace Prize in 1906 for arranging and mediating the Portsmouth Peace Talks. The Americans have considered him as the first great politician in the 20th century. This proves that he was involved in the fact that the US took control of the Northeast Asian maritime order.

Therefore, this study understands that the US' having properly taken root in the Northeast Asian maritime order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clusion of the Portsmouth Peace Treaty between Japan and Russia after the Russo-Japanese War. The above analysis is intended to date back to the time before the Northeast Asian maritime order was dominated by a particular country, and to examine how the present US-led Northeast Asian maritime order has been formed.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o provide a basis for resolving maritime conflicts occurring in the seas of East Asia including the present South China Sea.

Section 2

日本語學

도호쿠방언의 전비음화와 불투명성 / 李炳勳

日中漢字音の対比研究 -多音字を中心に- / Jiao, Li-Xin, 崔建植

한일후치사용법고찰 -「에 대하여」와 「について」의 경우- / 金仙姬

일본 신약성경의 漢語動詞 사용양상 / 張民榮, 孫東周

Aspects of 'Numeratives' in Japanese
日本語の助数詞の諸相 / 北原博雄

心理動詞の使役文と他動詞文の比較
- 自動詞(-u)-他動詞(-eru)型を中心に - / 李恩珠, 孫東周

가상현실(VR)에 기반한 일본어 교실활동 가능성 모색 / 千昊載

カラ~コロ・クル系派生オノマトペの意味変化に関する考察 / 竹下知佳, 崔建植

도호쿠방언의 전비음화와 불투명성

이병훈(전남대학교)

1. 서론

일본 도호쿠(東北)방언 전반에 걸쳐 모음 간 カ행, タ행 자음의 유성음화가 나타난다. 또한 도호쿠의 북부방언(중노년층)에서는 탁음(濁音)인 ガ행, ザ행, ダ행, バ행 자음의 앞부분에 비음(鼻音)이 동반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때문에 모음 간 자음의 유성음화에도 불구하고 カ행, タ행과 ガ행 ダ행의 변별은 유지된다(Nishihara 2013:54).

(1) a. /mato/ → [mado] '的' b. /mado/ → [ma^{n}do] '窓'

따라서 /zabɯtoN/(座布団), /kabɯto/(兜)와 같이 '...유성저해음+고모음+무성폐쇄음+모음....'의 순으로 분절음이 연속할 때, 전비음화(前鼻音化)와 유성음화를 모두 관찰할 수 있다.

(2) a. /zabɯtoN/ → [dza^{m}bɯdoN] '座布団' b. /kabɯto/ → [ka^{m}bɯdo] '兜'

그런데 도호쿠 북부의 일부 방언에서는 이러한 예에서 유성음화는 일어나지 않고, 무성저해음 앞에 비음성이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 있다(井上 1968, 橋本 2013).

(3) a. /zabɯtoN/ → [dza^{m}p̥ɯtoN] '座布団' b. /kabɯto/ → [ka^{m}p̥ɯto] '兜'

전비음화와 무성음화의 상호작용에 의해 전비음화가 일어나지 않을 환경임에도 비음이 동반되는 과다적용불투명성(overapplication opacity)이 나타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도호쿠의 북부방언에서 나타나는 유성음화와 전비음화의 상호작용에 의한 과소적용불투명(underapplication opacity)성, 그리고 일부 지역에 나타나는 전비음화와 무성음화의 상호작용에 의한 과다적용불투명성을 최적성이론(Optimality Theory; Prince & Smolensky 1993/2002)의 틀 속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2. 최적성이론에 의한 분석

2.1 전비음화

(4) NasalVoice: 유성자음은 비음성이 선행한다. (Nishihara 2013:57)

(5) Dep(nasal): 출력형의 비음성([nasal]) 자질은 대응하는 입력형에 존재한다.

도호쿠 북부방언에서 탁음 앞에 비음성이 나타남은 유성음 앞의 비음성을 요구하는 NasalVoice 제약이 비음성 자질의 삽입을 금하는 Dep(nasal) 제약을 지배함을 뜻한다.

(6) NasalVoice ≫ Dep(nasal)

'창문'을 뜻하는 일본어 /mado/(窓)가 도호쿠 북부방언에서는 [ma^{n}do]로 발음되는데 이를 (6)의 위계에 따라 표로 나타내면 (7)과 같다.

(7) /mado/(窓) → [ma^{n}do]

/mado/	NasalVoice	Dep(nasal)
a. mado	*!	
b. ☞ ma^{n}do		*

2.2 유성음화

(8) *$\underset{\vee}{V}\underset{o}{C}\underset{\vee}{V}$: 유성모음 사이의 자음은 유성음이다.

(9) Ident(Lar): 자음은 후두([Laryngeal]) 자질의 지정에 있어 동일해야한다. (Lombardi 1999)

(10) *$\underset{\vee}{V}\underset{o}{C}\underset{\vee}{V}$ ≫ Ident(Lar)

(11) /atama/(頭) → [adama]

/atama/	*$\underset{\vee}{V}\underset{o}{C}\underset{\vee}{V}$	Ident(Lar)
a. atama	*!	
b. ☞ adama		*

이렇게 모음 간 자음의 유성음화에 의해 입력형의 무성폐쇄음이 출력형에서 유성폐쇄음이 된 경우는 비음성이 선행하지 않는다. NasalVoice 제약에 의해 전비음화 하여야 할 환경임에도 전비음화하지 않는 과소적용불투명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12) /atama/(頭)의 잘못된 예측

/atama/	*$\underset{\vee}{V}\underset{o}{C}\underset{\vee}{V}$	NasalVoice	Ident(Lar)	Dep(nasal)
a. atama	*!			
b. ☹ adama		*!	*	
c. ☜ a^{n}dama			*	*

2.3 제약의 조합

Crowhurst & Hewitt(1997)는 불 연산(Boolean operation) 논리인 '연접(conjunction; X∩Y)', '이접(disjunction; X∪Y)', '함축(implication; X→Y)'을 최적성이론의 제약에 도입했다.

(13) a. 연접적 조합(X∩Y): X와 Y를 모두 준수하기를 요구하는 제약

b. 이접적 조합(X∪Y): X와 Y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준수하기를 요구하는 제약
c. 함축적 조합(X→Y): X가 준수되면 Y도 준수되기를 요구하는 제약

Lee(2014)는 (13b)의 이접적 조합으로 과소적용불투명성을, (13c)의 함축적 조합으로 과다적용불투명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접적 조합은 사실상 국부제약연접(Local Constraint Conjunction; Smolensky 1993)에 해당하는 것으로 Dep(nas)과 Id(Lar)를 분절음의 영역에서 이접적 조합으로 묶으면 (14)의 $[\text{Dep(nas)}\cup\text{Id(Lar)}]_{seg}$이 되며, 이를 NasalVoice의 상위에 두면, 전비음화에 관한 과소적용불투명성을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다.

(14) $[\text{Dep(nas)}\cup\text{Id(Lar)}]_{seg}$: 자음에 비음성 자질의 삽입과 후두 자질의 변동이 같이 일어나지 않는다.
(15) $^{*}\underset{\vee\ o\ \vee}{\text{VCV}}$, $[\text{Dep(nas)}\cup\text{Id(Lar)}]_{seg}$ ≫ NasalVoice ≫ Dep(nas), Id(Lar)

(16) /atama/(頭) → [adama]

/atama/	$^{*}\underset{\vee\ o\ \vee}{\text{VCV}}$	$[\text{Dep(nas)}\cup\text{Id(Lar)}]_{seg}$	NasalVoice	Dep(nas)	Id(Lar)
a. atama	*!				
b. ☞ adama			*		
c. a^{n}dama		*!		*	

2.4 무성음화

도호쿠 북부의 일부 방언에 있어 '유성저해음+고모음+무성폐쇄음+모음'이 이어질 때 무성폐쇄음의 유성화가 일어나지 않고 /kabɯto/(兜)→[ka^{m}p$\underset{o}{\text{ɯ}}$to]와 같이 고모음과 유성저해음의 무성음화가 일어나는 것은 형태소 내 2개의 유성저해음을 금하는 No-D^{2}_{m} 제약 때문이다.

(17) No-D^{2}_{m}: 동일한 형태소 내에 2개의 유성저해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Ito & Mester 2003:37)
(18) $^{*}\underset{o}{\text{V}}$: 모음은 무성음이어서는 안 된다. (Teshigawara 2002)
(19) $^{*}\underset{\vee\ o}{\text{CV}}$: 무성모음 앞의 유성자음은 금한다.

'...유성저해음+고모음+무성폐쇄음+모음....'과 같은 분절음 연속에서 $^{*}\underset{\vee\ o\ \vee}{\text{VCV}}$의 준수를 위해서는 무성폐쇄음의 유성화가 아니라 고모음의 무성화가 일어나도 된다. 그러나 모음이 무성화하면 (18)의 $^{*}\underset{o}{\text{V}}$를 위반하게 되는데 도호쿠 북부의 다수 방언에서는 $^{*}\underset{o}{\text{V}}$가 No-$D^{2}_{m}$의 상위제약이라 No-$D^{2}_{m}$ 제약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무성폐쇄음의 유성음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No-D^{2}_{m}가 $^{*}\underset{o}{\text{V}}$의 상위제약이라 무성폐쇄음의 유성음화가 아니라 고모음의 무성음화로 $^{*}\underset{\vee\ o\ \vee}{\text{VCV}}$ 제약을 준수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성저해음+고모음+무성폐쇄음+모음....'에서 고모음의 무성음화가 일어나면 유성저해음과 무성고모음이 연속하게 되어 (19)의 $^{*}\underset{\vee\ o}{\text{CV}}$ 제약을 위반하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유성저해음의 무성음화도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20) A방언: $^{*}\underset{\vee\ o}{\text{CV}}$ ≫ $^{*}\underset{\vee\ o\ \vee}{\text{VCV}}$, $[\text{Dep(nas)}\cup\text{Id(Lar)}]_{seg}$, $^{*}\underset{o}{\text{V}}$ ≫ No-D^{2}_{m}, NasalVoice ≫ Dep(nas), Id(Lar)
(21) B방언: $^{*}\underset{\vee\ o}{\text{CV}}$ ≫ $^{*}\underset{\vee\ o\ \vee}{\text{VCV}}$, $[\text{Dep(nas)}\cup\text{Id(Lar)}]_{seg}$, No-$D^{2}_{m}$ ≫ $^{*}\underset{o}{\text{V}}$, NasalVoice ≫ Dep(nas), Id(Lar)

(22) A방언: /kabɯto/(兜) → [ka^{m}bɯdo]

/kabɯto/	*CV$_{\vee o}$	*VCV$_{\vee o \vee}$	[Dep(nas)∪Id(Lar)]$_{seg}$	*V$_{o}$	No-D$^{2}_{m}$	NasalVoice	Dep(nas)	Id(Lar)
a. kabɯto		*!				*		
b. kabɯdo					*	**!		*
c.☞ ka^{m}bɯdo					*	*	*	*
d. ka^{m}bɯ^{n}do			*!		*		**	*
e. ka^{m}bɯto$_{o}$	*!			*			*	
f. ka^{m}pɯto$_{o}$				*!			*	*
g. kapɯto$_{o}$				*!				*

(23) B방언: /kabɯto/(兜)의 잘못된 예측

/kabɯto/	*CV$_{\vee o}$	*VCV$_{\vee o \vee}$	[Dep(nas)∪Id(Lar)]$_{seg}$	No-D$^{2}_{m}$	*V$_{o}$	NasalVoice	Dep(nas)	Id(Lar)
a. kabɯto		*!				*		
b. kabɯdo				*!		**		*
c. ka^{m}bɯdo				*!		*	*	*
d. ka^{m}bɯ^{n}do			*!	*!			**	*
e. ka^{m}bɯto$_{o}$	*!				*		*	
f.☹ ka^{m}pɯto$_{o}$					*		*!	*
g.☜ kapɯto$_{o}$					*			*

(23)을 보면 무성음화가 발생한 B방언에서 실제 출력형은 [ka^{m}pɯto]이나 평가표는 [kapɯto]를 출력형으로 예측하고 있다. 무성음화와 전비음화의 상호작용에 의한 과다적용불투명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 Dep(nas)과 Id(Lar)을 분절음의 영역에서 (13c)의 함축적 조합으로 묶은 (24)의 조건제약을 제시한다.

(24) [Dep(nas)→Id(Lar)]$_{seg}$: 자음에 비음성 자질의 첨가가 없으면 후두 자질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

아래 (25)와 같이 조건 제약 [Dep(nas)→Id(Lar)]$_{seg}$를 2개의 충실성 제약 Dep(nas)과 Id(Lar)의 상위에 두면 (26)과 같이 올바른 출력형을 예측한다.

(25) *CV$_{\vee o}$≫ *VCV$_{\vee o \vee}$, [Dep(nas)∪Id(Lar)]$_{seg}$, No-D$^{2}_{m}$≫ [Dep(nas)→Id(Lar)]$_{seg}$, *V$_{o}$, NasVoi≫ Id(Lar), Dep(nas)

(26) B방언: /kabɯto/(兜) → [ka^{m}pɯto$_{o}$]

/kabɯto/	*CV$_{\vee o}$	*VCV$_{\vee o \vee}$	[Dep(nas)∪Id(Lar)]$_{seg}$	No-D$^{2}_{m}$	[Dep(nas)→Id(Lar)]$_{seg}$	*V$_{o}$	NasVoi	Dep(nas)	Id(Lar)
a. kabɯto		*!					*		
b. kabɯdo				*!	*		**		*
c. ka^{m}bɯdo				*!	*		*	*	*
d. ka^{m}bɯ^{n}do			*!	*!				**	*
e. ka^{m}bɯto$_{o}$	*!					*		*	
f.☞ ka^{m}pɯto$_{o}$						*		*	*
g. kapɯto$_{o}$					*!	*			*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적성이론의 틀 속에서 제약의 조합을 이용, 일본 도호쿠 북부방언에서 나타나는 유성음화와 전비음화의 상호작용에 의한 과소적용불투명성을 제약의 이접적 조합(국부제약연접)으로, 도호쿠 북부의 일부 방언에서 나타나는 무성음화와 전비음화의 상호작용에 의한 과다적용불투명성을 제약의 함축적 조합(조건제약)으로 설명했다.

참고문헌

井上史雄(1968)'東北方言の子音体系」『言語研究』52、pp.80-98.

橋本文子(2013)'東北方言に見られる有声化と無声化の現象について」『音韻研究』16、開拓社、pp.11-18.

Crowhurst, M. & Hewitt, M. (1997) Boolean operations and constraint interactions in Optimality Theory. M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Brandeis University. [ROA-229]

Ito, J. & Mester, A. (2003). *Japanese Morphophonemics: Markedness and Word Structure*. Cambridge, MA: MIT Press, pp.30-37.

Lee, Yongsung (2014) Constraint combinations and phonological opacity.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20.2, pp.187-206.

Lombardi, L. (1999) Positional faithfulness and voicing assimilation in Optimality Theory.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7: pp.267-302.

Nishihara, T. (2013) Consonant voicing in Tohoku dialect. Weijer, J.M van de and T. Nishihara, eds. *Issues in Japanese Phonology : Segmental Variation in Japanese*. Tokyo: Kaitakusha, pp.53-61.

Prince, A. & Smolensky, P. (1993/2002) *Optimality Theory: Constraint Interaction in Generative Grammar*. Technical report RuCC-TR-2. New Brunswick, NJ: Ruters University Center for Cognitive Science. [2002 ROA Version, ROA-537]

Smolensky, P. (1993) Harmony, markedness & phonological activity. Handout of keynote address, Rutgers Optimality Workshop-1, October 23. [ROA-87]

Teshigawara, M. (2002). Vowel devoicing in Tokyo Japanese. In G.S. Morrison, & L. Zsoldos, eds. *Proceedings of the North West Linguistics Conference* 2002. Burnaby, BC, Canada: Simon Fraser University Linguistics Graduate Student Association, pp.49-65.

【 Abstract 】

Pre-nasalization and Opacity in Tohoku Japanese

Lee, Byeong-Hoon(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phonological opacities related to pre-nasalization in the northern Tohoku Japanese by using combinations of constraints within the framework of Optimality Theory (Prince & Smolensky 1993/2002).

To explain these opacities, I propose a cup-joined complex constraint $[Dep(nas) \cup Id(Lar)]_{seg}$ and a if-joined complex constraint $[Dep(nas) \rightarrow Id(Lar)]_{seg}$. This study shows the underapplication opacity caused by an interaction between pre-nasalization and voicing in the northern Dohoku Japanese can be explained using the cup-joined complex constraint $[Dep(nas) \cup Id(Lar)]_{seg}$. And the overapplication opacity caused by an interaction between pre-nasalization and devoicing can be explained using the if-joined complex constraint $[Dep(nas) \rightarrow Id(Lar)]_{seg}$ within the framework of Optimality Theory without abandoning parallelism..

日中漢字音の対比研究

- 多音字を中心に -

JIAO LI-XIN(釜慶大學校 大學院)
崔建植(釜慶大學校)

Ⅰ. 序論

1. 研究の背景と目的

日本語も中国語も、日常的に漢字を使う言語であり、言語学習の過程では、漢字を学ぶ必要がある。しかし、それ故に、中国語を母語とする日本語学習者にとって、日本語は漢字が分かるから簡単だと安易に考えてしまいがちだ。同じように、日本語を母語とする中国語学習者にも、中国語は漢字が分かるから学習しやすいという安易な考えがある。しかしながら、漢字を知っているだけでは、書きには強いが、話すこと・聞くことには限界がある。

この両言語(日本語と中国語)における漢字を学ぶ初級学習者(中国人と日本人)に求められるのは、漢字の形・音・義・用法などであるが、このうち手始めに、音の知識を身につける必要があるのではないか。そして、日本語の漢字音が中国語を基にしたものであり、現代中国語音との間には対応関係が存在していることが知られる。日本語と中国語における漢字音の対応関係については、すでに様々な研究がなされていることから、漢字音の学習能力を向上させる鍵は、現代中国語の漢字音と日本語の音読みの関係を正確に把握することにあると考える。

このような背景の中で、筆者は日本語の常用漢字を対象にして、日中両言語における漢字音の対比研究を行うことにしたい。その研究の中において、本発表ではまず、音読み漢字のうち一つの漢字に二つ以上の音読みのある多音字について比較研究を行う。ここでは、日本語における漢字音読みと現代中国語における漢字音との関係を明らかにし、日本語学習者(あるいは中国語学習者)が両言語の漢字音習得のための基礎的知識を提供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2、研究方法と研究対象

<研究方法>

日本語漢字の多音字における清濁音・長短音・促音・撥音と、中国語漢字音との関係を調査・分析する。音の表記については、日本語は子音・半母音・母音・特殊音からなるローマ字を、中国語は声母、韻母、声調からなるピンインを中心に用いる。中国語の声母部分、韻母部分に分けて日本語の漢字音を対照し、それから対照法則に基づいて検索できるように漢字音の分類表を作成する。

<研究対象>

◎ 日本語：新『常用漢字表』(日本文化庁平成22年内閣告示第2号)

音読み漢字は、日本の常用漢字2136字のうち訓読みのみのあるもの77字を除外した2059字である。本発表では、音読み漢字2059字のうちの多音漢字273字を対象とした。その中には、2種類の読み方のものが254字(悪依遺一右易疫益怨遠音下化仮夏家華牙画回会絵解外街格楽滑間眼気期吉客脚九久去拠虚御漁京供強郷境競仰業極金勤兄形恵経月建嫌献権験懸元言厳己庫後口工功甲皇紅香貢黄興今砂再塞歳財作冊刹雑惨子仕施示次自児事治執蛇若寂主守宗拾修就衆十柔重祝出旬緒如除象上情色食織臣神人仁図数井世正生成西声姓性青政星省清盛精静請赤昔切節説然素早相曾装想贈率存太対体大代台旦団男壇地茶着中丁直通定殿都土豆登道内南日白拍博鉢罰発伴判板煩眉泌病貧不夫富武封風物文聞平兵米便奉亡坊望暴謀木凡幕末万無名命明冥模妄耗目役唯有遊立律流留糧力緑礼鈴霊露和)、3種類の読み方のものが17字(宮行合殺質従女石弟度頭読反分歩法由)、5種類の読み方のものが1字(納)、である。

『学研 漢和大字典』

◎ 中国語：《現代漢語詞典》《新華字典》

Ⅱ. 本論

音声の単位について、日本語は'拍」であるが、中国語は'拍」ではなく'音節」である。撥音(ん)、促音(っ)、長音(—)は、拍では他の音声と独立した１拍であるが、音節では独立した1つの音声として扱われない。

'愛」「英」'短」'共」「甲」'竹」'適」「八」'冊」の 9字を例に、日本語の音節[1]構成と現代中国語の音節構成を比較する。次の(表１)は日本語と中国語の音節構造の図解例である。

(表1) 日本語と中国語の音節構成の図解例

日本語のローマ字表記[2]						中国語のピンインの音節				
漢字	1音節				2音節	1音節				
	1拍			2拍	2拍	声母	韻母			声調
	頭子音	半母音	主母音	特殊音	入声韻[3]		韻頭	韻腹	韻尾	
愛			a		i(結尾)	∅		a	i	51
英			e	i(長音)		∅		i	ng	55
短	t		a	N(撥音)		d	u	a	n	214
共	k	y	o	u(長音)		g		o	ng	51
甲	k		o		u(長音)	j	i	a		214
竹	t		i		ku	zh		u		35
適	t		e		ki	sh		i		51
八	h		a		ti	b		a		55
冊	s		a		tu	c		e		51

1) 日本語では、'音節」より'拍」の方がよく使われているが、ここでは、現代中国語の'音節」と対照させるために、日本語の場合も'拍」のほかに'音節」という用語をも使用している。

2) 日本語のローマ字表記はおおむね日本式に綴る。

3) 古代中国語のうち、-k・-t・-pなどの入声韻韻尾

次に、本発表では日本語の子音と中国語の声母、日本語の母音と中国語の韻母の方面から日本語と中国語の発音を比較して分析する。

1. 日本語の子音と中国語の声母

（表2）日本語の子音と中国語の声母の関係表

子音行	声母	字数	例	その他		
				声母	字数	例
カ行	g·k·h·j·q·x	99	功、庫、華、金、権、献…	sh·y	3	石、仰、験
ガ行	g·h·j·q·x	18	宮、画、街、期、夏 ….	y·w	22	外、眼…
サ行	j·q·x·zh·ch·sh·z·c·s	122	寂、清、昔、祝、出、食、再、財、歳…			
ザ行	j·q·x·zh·ch·sh·r·z·c	47	寂、情、旬、治、成、示、若、雑、財…	d·t·n·∅	7	児、女、図、地…
タ行	d·t·zh·ch	41	対、体、治…	f·n·x	3	反、納、緒
ダ行	d·t	14	台、大…	n	2	男、内
ナ行	n·r	16	女、柔…	∅	1	児
ハ行	b·p·m·f	38	白、拍、泌、反…			
バ行	b·p·m·f	31	博、判、眉、罰…	w	9	物、聞…
マ行	m	16	眉、米、目…	h·w	10	耗、万、物…
ヤ行	y	11	遺、益…	w	1	唯
ラ行	l	24	楽、立…	y	1	漁
ワ行	h	1	和			

2．日本語の母音と中国語の韻母

（表3）日本語の母音と中国語の韻母の関係表

	空	拗音	撥音ン	イ結尾·イ長音	ウ長音		-k		-t	
					-ng	-p	-ク	-キ	-チ	-ツ
ア	a ia ua ai e	a iao e	an ian uan üan	ai ei i ie ui			i iao o u uo		a o	a o ua
	砂仮華再和	砂脚蛇	眼間団元	外内礼解回			益脚若		罰鉢	殺鉢滑
イ	er i ei		ian en in					i e	i ü	i ü
	児依眉		便臣今					織色	日律	一率
ウ	u ou iu ong eng	u ou iu	en ün	i ui ei	eng i iu ong ou u		u			u
	庫右留功風	主守修	分旬	遺出唯	封修執宮由富		祝			出物
エ	i ia ie ui ua		an ian üan	eng i ing iong ui	iang			i	ie	üe uo ie
	依仮解会華		眼間遠	政西京兄恵	想			易	節	月説節
オ	u ü ou o	u ü	an ian uan üan en in un		ang eng iang ing iong ong uang ao ou u ü	a ai e ia	u ü i			u uai
	悪去後模	除､拠	言建団遠聞音存		上正香行兄功黄早口露女	雑､拍､合､甲	目緑織			物率

3. 日本語音読みの漢字発音と呉·漢·唐·慣用音の対応関係

(表4) 呉·漢音と日本語主母音の関係

漢字	呉音	主母音	漢音	主母音
眼	げん	e	がん	a
仮	け	e	か	a
回	え	e	かい	a

(表5) 呉·漢音と日本語清·濁音の関係

漢字	呉音	濁音	漢音	清音
伴	ばん	b	はん	h
存	ぞん	z	そん	s
神	じん	z	しん	s

(表6) 呉·漢音と長·短音の関係

漢字	呉音	短音	漢音	長音
宮	く	短音	きゅう	長音
九	く	短音	きゅう	長音
久	く	短音	きゅう	長音
供	く	短音	きょう	長音
工	く	短音	こう	長音

Ⅲ. 結論

現代日本語の漢字音と中国語漢字音との関係に注目し、それを言語(日本語·中国語)教育に活用しようとする研究が数多くある。しかし、従来の言語教育における研究は、現代日本語の漢字音と中国語音の対応規則を求めるものが主流で、多くの対応規則を列挙するに留まり、教育実践には利用しがたいものが多かった。

本研究は、現代日本語における漢字音と中国語の漢字音に関する先行研究を整理したうえで、日本語漢字音のうち、多音字を対象に現代中国語の漢字音と日本語漢字音の対応規則を求めたものである。ここでは簡単に対応関係を述べるにとどまるが、その他の詳細な規則については、今後の研究の中で逐一行うことにする。また今後は、現代日本語の漢字音と中国語漢字音との比較は勿論のこと、さらに古代日本語における漢字音と古代中国語の漢字音との関わり、また古代中国語の漢字音の変化と日本語漢字音との関係などについても両者間の相関関係を明らかにし、漢字音習得のための基礎的研究を行うことを目指したい。

参考文献

<辞書類>

藤堂明保編(1978)『学研 漢和大字典』学習研究社

藤堂明保編(1979)『漢語と日本語』秀英出版

町田健編 猪塚元·猪塚恵美子著(2003)『日本語音声学のしくみ』研究社

沼本克明(1986)『日本漢字音の歴史』東京堂出版

《現代漢語詞典》(第七版)(2016) 商務印書館

《古漢語常用字字典》(第4版)(2005) 商務印書館

《新華字典》(第十一版)(2011) 商務印書館

黄伯栄 廖序東 主編《現代漢語》(増訂五版)(2011) 高等教育出版社

新『常用漢字表』(日本文化庁平成22年内閣告示第2号)

<論文>

古藤友子(1987)'日中漢字音の対照」『日本語教育』62号 日本語教育学会学会誌委員 pp.225-240

丸田孝志(1996)'日本語漢字音の清濁音·長短音·促音の指導について—北京語·朝鮮語話者の母語をてがかりに—」『教育学研究紀要』第42巻 第 2 部 中国四国教育学会

【 Abstract 】

A study on the comparative of Japanese and Chinese pronunciation — Centered on Polyphonic characters —

Jiao, Li-Xin · Choi(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master's course)
Kun-Sik(Pukyong National University)

As we all know, there i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Japanese and Chinese. Therefore, there are many related researches. Based on the research of seniors, I intend to re-explain the correspondence between Japanese pronunciation and different pronunciations in Japanese and Chinese from the perspective of phonology and acoustics. Both Japanese and Chinese are the voices developed on the basis of ancient Chinese in ancient times. Although Japanese has experienced many developments and changes for a long time, Chinese is the root of Japanese, and the two languages still have voice. Multiple connections. This thesis will focus on the 272-word polyphonic words in Japanese pronunciation, and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ese and Chinese characters from the Japanese and Chinese syllables, Japanese consonants and Chinese consonants, Japanese vowels and vowels. Correspondence relationship. The correspondence relationship mainly explains the development process of Chinese Pinyin in different historical periods and the correspondence between Japanese Wuyin, Hanyin, Tang and Song Dynasties, and idioms. The main purpose of writing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subtle relationship between Japanese and Chinese speech, find out the corresponding relationship, and discuss the reasons for formation as much as possible.

한일후치사용법고찰
-「에 대하여」와「について」의 경우 -

김선희(창원대학교)

1. 서론

格조사는 명사와 술어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文章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格조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後置詞[1]이다. 寺村秀夫(1982)도 格조사의 부족을 보충하는 것으로 조사에 동사「テ形」을 조합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格조사와 같이 사용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언급하며 전형적인 것으로「によって、に對して、につれて、に關して、にとって、について、として、とともに」등을 들고 있다[2]. 後置詞 중에 특히 母語와의 의미체계상에 있어서 어긋나거나 다르면 상당히 학습하기가 곤란하다.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後置詞들 중에 하나인「について」와 그에 대응하는 '에 대하여'를 중심으로 후치사 용법을 고찰하고, 또한 格조사와의 置換을 통해서 後置詞와 格조사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朴宣映(2006)은「에 대하여」의 생성, 정착에 있어서 일본어의 영향을 검증하였는데, 동사[對하다]는 원래 對格조사를 취하는 원동사(本動詞)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19세기말부터 後置詞「에 對하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다음의 3가지 점 즉, 格조사 취하는 법, 원동사에는 없는 새로운 의미용법, 後置詞「에 對하야」의 용례가 일부 문헌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그 문헌이 일본관련 문헌이라는 점에서 19세기말에 있어서 後置詞「－에 對하야」의 생성에 일본어「に對して」「について」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주장했다.[3] 안주호(1994)도 '에 대하여'를 중세국어에서는 자주 볼 수 없는 형태로서 근대국어 후기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4].

『複合助詞がこれでわかる』(2007)에서는 後置詞를 複合助詞라 칭하며 초급단계에서 도입될 複合助詞를 포함하여 중급단계의 일본어 교육에서 학습해야 할 19항목의 複合助詞를 선정해

---

1) 일본어에서는「後置詞」이외에도「複合助詞」「複合辭」「助詞相当連語」등으로 불리고, 한국어에서는「後置詞」이외에도 '후치사류'. '보조동사', '형태적인 연어'등으로 불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鈴木重幸(1972)의 설에 따라 後置詞라 한다.

2)寺村秀夫(1982)『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Ⅰ』、185ｐ참조

3)朴宣映(2006)「近代韓國語の文章における日本語の影響－後置詞「-에　　대하여」の生成を中心に－」、55~68p참조

4) 안주호(1994)「동사에서 파생된 이른바 '후치사류'의 문법화 연구」, 150p참조

서 그 의미용법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について」에 대해서는 表現, 思考, 感情 등의 테마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林淳子(2008)에서는 後置詞와 格조사의 관계를 알기위해 「ついて」와 「を」격을 비교분석하여, 「ついて」와 「を」는 부분적으로 용법이 겹치지만, 「を」는 格조사로서 논리적인 관계를 세워 제시하려는 것이고, 「ついて」는 題材라는 의미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결합시키려는 점이 양자의 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5].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위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먼저, 후치사「について」와 「에 대하여」를 비교 고찰하여 「について」의 영향을 받은 「에 대하여」는 그 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格조사 「を」「을」과의 비교를 통해 후치사「について」 「에 대하여」의 기능어로서의 성질의 차이를 고찰한다.

3.「について」와「에 대하여」

3-1. 연구방법

「에 대하여」에는 「について」와 「に対して」의 의미용법이 같이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について」만 고찰대상으로 한다. 용법 고찰 시 예를 들면, 「結婚について話し合う」의 경우, 후행성분인 「話し合う」와 선행성분인 「結婚」의 어휘적인 성격과 후치사 「について」와 「에 대하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고려하며 고찰한다. 선행성분은 「話題」와「對象」으로 나누어, 「話題」는 화제로서 들 수 있는 토픽이 여러 개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包括的인 話題」와 「具体的인 話題」로 나누며, 「對象」은 「行爲의 對象」과 「行爲의 內容」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후행성분은 언어활동이나 사고활동 등의 지적행위를 나타내는 말에 한해서 고찰한다.[6]

3-2. 「について」와 「에 대하여」

3-2-1. 話題용법

1) 人が命について考える機会のうち最も劇的なのは、自分の死の影をみたときであろう。
(朝日新聞. 1989. 10. 7)
2) 私は父の健康について母とよく話し合った。(心. pp97)
3) 同じことは人間の乳幼児についても報告されている。母親やそのかわりの人がいるとはじめての場所でも子どもは安心しており、能動的に探索したり遊んだりできる。(知的、pp92)
4) 人と話していて、その人のことばづかいについて、ときとき思うことがあります。(日本語と私、pp47)
5) 書店にはこの街について書かれた本があふれ、いつも満席の直行便が日本からの観光客を運ぶ。
(朝日新聞. 88.11.12)
6) 집배원 아저씨가 한 일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초, 국어3-3,pp25)

---

5) 林淳子(2008)「後置詞『について』と格助辞『を』-、 pp133~142 참조
6)『複合助詞がこれでわかる』(2007)에서는「について」의 선행성분을 '테마'로 제시하고, 선행성분을 언어·표현활동, 사고활동, 인식활동, 조사·연구·교육활동 등으로 나누고, 林淳子(2008)에서는 「ついて」의 선행성분을 題材와 대상으로 나누고, 후행성분을 언어활동, 문답, 보도·보고, 교수, 사고활동, 공부·연구, 조사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7) 한글과 한자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해보자. (중, 국어1-1,pp226)
8) 한국의 명절에는 설날, 추석, 단오 등이 있는데, 추석에 대하여 쓰면 어떨까?
(초, 말듣쓰4-2, pp57)
9) 혹시 트럭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나요?(은교, pp327)
10) 내가 옮겨 쓴 시에 대하여 친구들과 이야기하여 봅시다.(초, 읽기1-2,pp11p)

1)~10)에서 「について」와 「에 대하여」는 지적행위를 나타내는 말과 공기해 「話題」를 나타내는데, 4)「その人のことばづかい」와 10) "내가 옮겨 쓴 시" 는 「具体的인 話題」의 경우이고, 그 나머지는 토픽으로 들 수 있는 측면이 여러 개인 「包括的인 話題」의 경우이다. 즉 「について」와 「에 대하여」는 「包括的인 話題」와 「具体的인 話題」모두 나타낼 수 있다.

3-2-2. 話題와 見解용법

11) 私が翻訳紹介した『ピーター・パン・シンドローム』についてその概要を説明したい。
(現代人,pp72)
12) 母親が、このごろ、あの人について、いろいろなことを伝えようとしていることに、亜弓は気づいている。
(朝日新聞.88.9.19)
13) 나그네, 꿩, 구렁이가 한 일에 대하여 느낀 점을 말하여 봅시다.(초, 읽기1-2,pp15)
14) 모둠별로 하나의 직업을 선택하여 봅시다. 그리고 그 직업에 대하여 알고 싶은 내용을 친구들과 말하여 봅시다.(초, 말듣쓰6-2,pp45)
15) 김치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봅시다.(초, 말듣, 4-2, pp62)

11)~15)는 한 문장에 後置詞와 조사가 함께 사용된 예이다. 후행성분에 지적행위를 나타내는 말과 공기해 선행성분이 「話題」가 된다. 즉, 「について」와 「에 대하여」는 「話題」를, 「を」와 「을」은 「見解(意見, 思考, 評価 등)」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낸다. 위와 같은 예에 대해 佐藤(1989)[7]와 『複合助詞がこれでわかる』(2007)에서는 「に ついて」는 「전체」를 「を」격은 「부분(측면)」을 나타낸다고 지적하고 있다[8]. 그러나 「전체와 부분(측면)」으로 나누는 것은 전체 속에 부분이 포함되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예가 적절할 것이다.

16) 내가 더 알고 싶은 것에 대하여 조사한 다음 조사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봅시다.
(초, 쓰기3-1,pp91)
自分がもっと知りたいことについて調査した後、調査した内容を簡単に整理してみましょう。
17) 민속놀이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알게 된 내용을 글로 써봅시다.
(초, 쓰기1-2, pp66)
伝統遊びについて調べて、分かった内容を書いてみましょう。

---

7) 佐藤尚子(1989)「後置詞と前置詞」、pp38참조
8) 『複合助詞がこれでわかる』(2007)에서는「委員会は調査の結果について報告書を出した」(6p)
「その留学生は国際関係についての論文を書いた」(6p)를 '전체와 부분(측면)'으로 보고 있지만,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국제관계에 대한 논문'이기 때문에 '화제'에 대한 '견해(생각, 의견 등)를 나타낸다. 즉 '화제'와 '견해'라고 하는 편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즉, 「について」와 「에 대하여」 모두 「話題와 見解」용법이나 「話題와 部分(側面)」용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2-3. 話題용법과 對象용법

3-2-3-1. 『について』와 「を」

17) あなたたちは、世界の未來について／を(○) 考えたことがありますか。
(ふぞろいの林檎たち、pp87)
18) 母親は息子の進路について／を(○)相談した。(日本語と私、pp49)
19) 警察は關係者に事故の狀況について/を(○)話した。(日本語、pp35)
20) 車のタイヤ を／について(○) 調べる。(日本語、pp24)

17)〜20)은 후행성분에 지적행위를 나타내는 말과 공기하여 선행성분을 『話題』로도 『對象』으로도 취할 수 있다. 즉, 『について』와 공기하면 『話題』가 되고, 『を』격과 공기하면 「行爲의 內容」이나 「行爲의 對象」이 된다.「を」격과 공기할 때 17)~19)는 「行爲의 內容」이 되나, 20)은 「行爲의 對象」이 된다. 20)은 선행성분에 '차 타이어'와 같은 구체적인 명사와 『を』격이 공기하면 '차 타이어를 구체적으로 체크한다'는 의미가 된다. 「について」는 선행성분에 구체적인 명사가 와도 話題가 되나, 『を』격은 직접적인 行爲의 對象이 된다.

21) 先生は遠足について／を(*)生徒に連絡した。(日本語、pp12)
22) 先生は遠足の日程について／を(○)詳しく述べる。(作例)
23) 歷史家が武田信玄について/を(*)古文書で調べる。(日本語、pp52)
24) 歷史家が武田信玄の家系について/を(○)古文書で調べる。(作例)

21)〜24)는 후행성분에 지적행위를 나타내는 말과 공기하여 「について」는 모두 사용가능하지만, 「を」격은 21)과 23)과 같은 包括的인 內容에는 사용되기 어려우나, 22)와 24)와 같은 具体的인 內容에는 사용되기 쉽다. 23)의「武田信玄」은 '그 家系뿐만 아니라 성격, 업적 등 토픽으로 들 수 있는 측면이 여러 가지인 包括的인 內容이고, 24)의 「歷史家が武田信玄の家系」은 具体的인 內容이다. 즉, 「について」는 「包括的인 話題」 「具体的인 話題」 둘 다 가능하지만,「を」격은「具体的인 內容」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21)과 23)의 「遠足」「武田信玄」를 「遠足のこと」「武田信玄のこと」와 같이 「のことを」를 사용하여 こと화로 추상화 시키면 「を」격도 사용되기 쉬워진다.

25) a. 加藤教授は記者會見で發がん性の食品について述べた。(○)
b. 加藤教授は記者會見で發がん性の食品を述べた。(*)
c. 加藤教授は記者會見で發がん性の食品のことを述べた。(○)
26) a.好きな人について話してみましょう。(○)
b. 好きな人を話してみましょう。(*)
c. 好きな人のことを話してみましょう。(○)
27) a. 新しく出會った友達について考えた。(○)
b. 新しく出會った友達を考えた。(*)
c. 新しく出會った友達のことを考えた。(○)

이상에서 후행성분에 지적행위를 나타내는 말과 공기해 선행성분이 「包括的인 話題」가 될 때 「を」격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 측면을 연상시키는 包括的인 內容에서 그 중의 한 부분만을 나타내는 具体的인 內容으로 만들거나 「のことを」를 사용하여 전체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を」격이 사용되기 쉬움을 알 수 있다.

3-2-3-2. 「에 대하여」와 「을」

28) '이것', '그것', '저것'을 넣어 교실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하여／을(○)말해 봅시다.
(초, 읽기2-1,pp103)
29) 내가 그린 만화를／에 대하여(○) 친구에게 설명하여 봅시다.
(초, 말듣쓰 5.-2,pp108)
30) 베짱이는 노래 부르는 것에 대하여／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초, 쓰기2-1,pp65)
31) 내가 자라온 과정에 대하여／을(○) 생각해 봅시다. (초, 말듣4-2,pp12)

28)~30)은 후행성분에 지적행위를 나타내는 말과 공기하여 선행성분을 「話題」로도 「對象」으로도 취할 수 있다. 즉, 「에 대하여」와 공기하면 「話題」가 되고, 격조사「을／를」과 공기하면 「行爲의 對象(內容)」이 된다. 28)은 「에 대하여」는 '교실 안에 있는 물건을 「話題」로 나타내고, 「을」은 구체적인「行爲의 對象(內容)」으로 나타낸다. 30)은 「에 대하여」는 '노래 부르는 것에 대한 장점이나 단점, 경험담 등의 설명이 담긴 답이 요구되고, 「을」은 '노래 부르는 것이 좋은지 싫은지의 태도가 담긴 짧은 답이 요구된다.

32) 다음엔 배우의 연기에 대해／를(*) 이야기할까? (중, 국어3-2,pp65)
33) 인터넷에 대해서／을(*) 논하자. (고, 작문,pp73)
34) 그림을 보고, 체험 학습을 가서 보고 들은 내용을/에 대하여(*) 생각하여 봅시다.
(초, 쓰기2-2,pp10)
35) 여러 가지 비 이름'에 나오는 비 이름을/에 대하여(*) 정리하여 봅시다.
(초, 읽기2-2,pp25)
36) '준호의 일기'를 다시 읽고, 어색한 부분을/에 대하여(*)을 바르게 고쳐 봅시다.
(초, 말듣3-2,pp84)

32)와 33)은 「에 대하여」는 사용 가능하나, 「을」은 사용할 수 없고, 반대로 34)~36)는 「을」은 사용 가능하나, 「에 대하여」는 사용할 수 없다. 즉 후행성분에 지적행위를 나타내는 말이 올 때 34)는 '그림을 보고'라는 지시대상이 와서 '그림 속에 나타난 있는 체험학습의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다'라는 뜻이고, 3 5)와 36)은 '여러 가지 비 이름', '준호의 일기'라는 지정된(한정된)작품이 문장에 명시되어있을 때 「을」만 가능하다. 그에 비해 32)~33)은 '배우의 연기', '인터넷'과 같은 토픽으로 들 수 있는 측면이 여러 가지로 연상되는 '포괄적인 화제'의 경우 「에 대하여」만 가능하다.

37)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하여／을(○) 자세하게 말하여 봅시다.(말듣2-2,pp11)
自分が好きな人について／を(*)詳しく話してみましょう。

38) 내가 잘 아는 동물이나 식물에 대하여／을(○) 듣는 이가 알기 쉽게 말해 봅시다.
(초, 말듣2-2,pp12)
私がよく知っている動物や植物について/を(*)相手に分かりやすく話してみましょう。

37)~38)은 한국어의 경우「에 대하여」와 「을」모두 가능하지만, 일본어의 경우 「について」는 가능하나 「を」격은 사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후행성분에 '말하다(話す)' 라는 지적행위를 나타내는 말이올 때 선행성분을 「話題」로 나타낼 때 일본어의 경우「話す」는「について」와는 공기하기 쉬우나, 「を」격과는 공기하기 어렵다. 「話す」의 경우 「を」格을 사용하려면 25)~27)와 같이 「のことを」로 추상화시키면 사용 가능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어에만 있는 현상이다. 林淳子(2008)는 선행성분에 오는 말을 抽象名詞와 具體名詞로 나누고 具體名詞와 같이 제재가 될 수 있는 자질이 빈약한 것은 「のこと」로 コト化시키지 않으면 제재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9]. 하지만 선행성분을 抽象名詞냐 具體名詞로 나누는 것 보다 「包括的인 內容」이「具体的인 內容」으로 나누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한국어의 경우 후행성분에 지적행위를 나타내는 말과 선행성분의 「具体的인 內容」이 공기할 때 「에 대하여」와 「을」이 둘 다 가능하다. 「에 대하여」는 「話題」를, 「을」은 「行爲의 對象(內容)」을 나타낸다.

4. 결론

한일後置詞용법에 대해 「에 대하여」와「について」를 중심으로 같은 기능어인 格조사 「을」「を」와 비교하여 그 용법을 고찰했다. 그 결과 「에 대하여」와 「について」는 후행성분에 지적행위를 나타내는 말과 공기해서 선행성분을 「話題」로 나타내며, 거의 대부분의 용법이 같았다. 이는 朴宣映(2006)에서 언급한 것 과 같이 「에 대하여」는 「について」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格조사「을」과 「を」는 「行爲의 對象(內容)」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을」은 선행성분에 '지시대상'이나 '지시문(지정작품)'이 오는 경우 사용되기 쉬운 반면, 「を」는 후행성분의 성질과 선행성분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 양 언어 모두 後置詞와 조사를 결정하는 요소에는 후행성분의 성질에 영향을 받지만, 그것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선행성분에 의해서 정해지기 쉬움을 알 수 있었다.

참고논문

寺村秀夫(1982)『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Ⅰ』、くろしお出版、pp185
佐藤尙子(1989)「後置詞と前置詞」『國文學解釋と鑑賞』1月号 至文堂、pp38
안주호(1994) 「동사에서 파생된 이른바 '후치사류'의 문법화 연구」, 『말』, 한국연세당, pp150
朴宣映(2006)「近代韓國語の文章における日本語の影響ー後置詞『-에 대하여』の生成を中心にー」、pp55~68
鈴木智美(2007)『複合助詞がこれでわかる』、東京外國語大學留學生日本語教育センター、pp6~21
林淳子(2008)「後置詞『について』と格助辭『を』-」、『日本語學論集』第4号、pp133~142

9) 林淳子(2008)「後置詞『について』」と格助辞『を』-」、 pp133참조

金仙姬(2016)「日本語後置詞研究ー韓國語との比較を中心にー」、博士學位論文、東北大學pp.210～260

용례출전

(心)－夏目漱石(1991)『心』 集英社文庫
(知的)－波多野誼余夫 他(1973)『知的好奇心』中央公論社
(現代人)-小比木啓吾(1986)『現代人の心をさぐる』朝日新聞社
(ふぞろいの林檎たち)-山田太一(1988)『ふぞろいの林檎たち』大和書房
(日本語と私)月間日本語編集部(1990)『日本語と私』アルク
(日本語)江上波夫(1980)『日本人とは何かー民族の起源を求めて』天城シンポジウム
(朝日.88. 9.19)-朝日新聞(1988年10月～11月
(은교)－박범신(2010)『은교』문학동네
국어편찬위원회(2005)『초 중, 고 국어교과서』교육인적자원부
(초, 국어3-3)－초등학교 국어 3 － 3
(초, 읽기2-2)－초등학교 읽기 2 － 2
(초, 말듣2-2)-초등학교 말하기 · 듣기
(초, 말듣쓰6-2)－초등학교 말하기 · 듣기 · 쓰기
(중, 국어3-2)－중학교 국어 3 － 2
(고, 작문)－고등학교 작문

【 Abstrict 】

A Study on the use of Postpositions Korean-Japanese -“e daehayeo” “ni tsuite” -

Kim, Sun-Hee(Changwon University)

Concerning the usage of Korea and Japan's postposition, this research aims to consider the character by organizing the usage around “~e daehayeo” and “ni tsuite” and comparing case maker ‘eul’ and “o” of the same function word. As a result, “~e daehayeo” and “ni tsuite” were in used together as 'topic usages'. Case maker ‘eul’ and “o” were in used as ‘object usages’ but, while ‘eul’ was easy to be used in case that the previous constituent is ‘a demonstrative object’, ‘a demonstrative sentence’, “o” was different depending on characters of things in previous constituent. In other wise, when previous constituent is comprehensive topics, “~e daehayeo” and “ni tsuite” was easy to be used and when previous constituent is a concrete reference or object, ‘eul’ and “o” was. Both languages in elements determining postposition and case maker are influenced by ending constituent of character, but it could be found that those are restrictive and preferably easy to be determined by previous constituent.

일본 신약성경의 漢語動詞 사용양상

장민영(부경대학교 대학원)·**손동주**(부경대학교)

1. 서론

일본어 성경에는 같은 의미로 보여지는 단어에서 어떤 때는 漢語로 표현하고 어떤 때는 和語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어를 한국어로 통역하는 경우, 漢語와 和語의 의미의 차이로 인해 한국어로 볼 때에는 틀리지 않았지만 일본어로 볼 때는 틀린 통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문장을 예로 들어보겠다.

(1) 저는 아내를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2) (?) 私は妻と出會い、**変化**しました。
(3) 私は妻と出會い、**変わり**ました。

(2)는 漢語動詞인 変化를 사용하였고 (3)은 和語動詞인 '変わる'를 사용하였다. 한국어로는 의미의 차이가 없다. 일본어의 경우는 어떠한가. 아래의 표는 コーパス에서 2001년부터 2005년에 신문에 사용된 예문에서 変化와 変わる의 대상을 정리한 것이다.

変化	変わる
大きさ、計画、応答、体、町、記憶力、価格、考え方、時代、 環境、トレーニング法	出費、政権、オーダー、減税額の差、近所の人、家族の考え方、生活、値段、知識、世界、人生、主力の顔ぶれ、様相、心、政治的支持、立場、雰囲気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変化는 외형, 기계 등과 같이 눈으로 보이는 어떠한 변화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変わる는 내면의 심리, 성향의 변화를 뜻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変化」와 「変わる」 이외에도 漢語動詞와 和語動詞는 여러 이유로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明治元譯新約聖書, 新改譯, 新改譯2017에서 쓰인 漢語動詞의 사용 양상을 통해 漢字의 기능과 和語動詞와의 의미의 차이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明治元譯과 新改譯 성경에서 쓰이는 漢語動詞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하였다.
2) 明治元譯에서는 쓰였지만 新改譯에서는 쓰이지 않는 漢語動詞가 漢語로 쓰이고 있는지,

和語로 쓰이고 있는지 보았다. 和語로 쓰이고 있는 경우, 明治元譯 漢語動詞의 漢字와 같은 漢字를 쓰는 경우, 讀み方가 같은 경우, 새로운 단어로 표현하는 경우로 분류를 하였다.

3) 明治元譯에서는 쓰이지 않았지만 新改譯에서는 쓰이는 漢語動詞가 明治元譯에서 句로 쓰였는지, 單語로 쓰였는지, 혹은 쓰이지 않은 표현인지 보았다. 單語로 쓰인 경우, 漢語로 쓰였는지 和語로 쓰였는지 보았다. 마지막으로 明治元譯와 新改譯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는 漢語動詞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았다.

4) 나타나는 明治元譯과 新改譯 漢語動詞의 사용양상을 아래의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① 明治元譯에서 사용된 애매한 표현을 확실히 하기 위한 개역

② 의미를 보충하기 위한 개역

③ 새로운 개념의 생성에 의한 개역

5) 漢語動詞의 개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漢語의 기능에 대해 정리하였다.

3. 漢語動詞의 變遷

3.1. 소실의 漢語動詞

假寐, 刻書, 減少, 開闢, 激論, 輕慢, 敬拜, 傾覆, 輕視, 哭泣, 困苦, 恐喝, 供給, 拐騙, 救道, 詬辞, 苟合, 謹防, 祈禱, 氣絶, 納金, 耐忍, 禱告, 憐憫, 離去, 挽回, 忙亂, 妄證, 埋伏, 惡念, 卑微, 朽壞, 貿易, 上告, 勸言, 收稼, 長存, 成全, 錯失, 出立, 稱讚, 美稱, 賑恤 등 193 개

3.2.생성의 漢語動詞

覺悟, 看視, 懇願, 監禁, 監視, 强要, 開始, 改宗, 改革, 醵金, 建設, 檢討, 激動, 激勵, 見当, 決心, 決意, 決議, 決定, 結婚, 警戒, 警告, 競技, 輕蔑, 敬愛, 競走, 驚嘆, 経驗, 計算, 啓示, 計畵, 告發, 告白, 告訴, 苦心, 苦闘, 空論, 共有, 交際, 區別 등 315 개

3.3.유지의 漢語動詞

干涉, 姦淫, 感謝, 介抱, 契約, 苦労, 管理, 教訓, 記念, 記憶, 男色, 断食, 同行, 練達, 礼拝, 労苦, 留置, 満足, 滅亡, 命令, 默示, 迷惑, 迫害, 弁明, 保護, 復活, 封印, 専念, 不足, 死罪, 生長, 生活, 誓願, 宣教, 先導, 宣伝, 善行, 説明, 成長, 成就, 所有 등 95 개

4. 漢語動詞의 사용 구분

4.1. 의미를 확실히 하기 위한 구분

4.1.1.명시적 해석과 단편적 해석

4.1.1.1. 명시적 해석

(4) 我(われ)いたらば書(ふみ)を爾曹(なんぢら)が選(えら)ぶ所(ところ)の人(ひと)に予(あた)へ爾曹(なんぢら)の**<u>恵(めぐみ)</u>**をエルサレムに携(たづさ)へしむべし。

(5) 私がそちらに行ったとき、あなたがたの承認を得た人々に手紙を持たせて派遣し、あなたがたの**献金**をエルサレムに届けさせましょう。

(6) 私がそちらに行ったとき、あなたがたの承認を得た人々に手紙を持たせて派遣し、あなたがたの**献金**をエルサレムに届けさせましょう。(新改譯2017 고린도전서 16:3)

明治元譯에서는 '惠」로 사용하였지만 新改譯과 新改譯2017에서는 '獻金」으로 사용하고 있다. '獻金」은 明治元譯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단어로, 明治元譯에서는 '施濟」'金を捐すこと」「餽物」등으로 사용되었다. 그리스어에서는 은혜, 호의 등의 뜻을 가지는 '카리스(χάρις)'로 쓰여졌다. 明治元譯의 번역인 '惠」는 여러 생각할 수 있다. 재정, 물품과 같은 것뿐만 아니라 기도 혹은 섬기는 것도 해당된다. 여러 의미의 惠를 보낼 수가 있지만, '獻金」이라고 명시함으로써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보낸 것은 재정적인 후원임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굳이 넓은 해석을 하게 하여 깊게 묵상할 이유가 없는 것이기에 직접 명시하였다고 생각된다.

4.1.1.2. 단편적 해석

(7) 諸(すべて)の恩惠(めぐみ)を予(あた)ふる神(かみ)すなはち爾曹(なんぢら)をして暫(しばら)く苦(くるしみ)を受(うく)る後(のち)キリスト・イエスにある窮(かぎり)なき榮(さかえ)に入(いら)しめんとて爾曹(なんぢら)を招(まね)きし神(かみ)爾曹(なんぢら)を**全(まつた)**うし堅(かた)くし强(つよく)して基(もとゐ)の上(うへ)に置(おき)給(たま)ふべし

(8) あらゆる恵みに満ちた神、すなわち、あなたがたをキリストにあってその永遠の栄光の中に招き入れてくださった神ご自身が、あなたがたをしばらくの苦しみのあとで**完全にし**、堅く立たせ、强くし、不動の者としてくださいます。

(9) あらゆる恵みに満ちた神、すなわち、あなたがたをキリストにあって永遠の栄光の中に招き入れてくださった神ご自身が、あなたがたをしばらくの苦しみの後で**回復させ**、堅く立たせ、强くし、不動の者としてくださいます。(新改譯2017 베드로전서 5:10)

밑줄의 문장은 서로 같은 구절을 의미하고 있다. 明治元譯에서는 全う로 사용된 것이 新改譯聖書에서는 回復로 사용되고 있다. 현대 일본어 '全」은 全然, 全く, 全て, 全部, 全う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明治元譯의 讀み方에 가까운 「まっとう」는 '정직', '성실'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まっとうする」는 완수하다, 다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 新改譯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完全にする」로 번역되었다. 그리스어에서는 '준비를 갖추다', 'equip'의 의미인'카타르티조(καταρτίζω)'를 사용하고 있다. 明治元譯와 新改譯의 번역의 의미인'苦しみの後で完全にする」는 한 번 봐서는 어떤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완전하게 하다'는 결핍된 것, 부족한 것을 없애고 완벽하게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의 苦しみ는 결핍으로 오는 것이 아닌 '信仰'로 인한 박해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핍된 것은 무엇이며,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생각과 고민을 통해 뒤에 '완전하게 하다'라는 것은 '堅く立たせ、强くし、不動の者とする」라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부족하다는 것은 '바르게 서지 못하고, 약하고, 흔들리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구절의 의미는 지금은 약하고, 쉽게 흔들리지만 후에는 그

리스도에 의해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하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新改譯2017에서는「回復させる」를 사용함으로써 '고난 뒤의 회복'이라는 단편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읽기 쉽고 의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回復로 개역하였지만 오히려 해석의 범위를 좁히게 된 개역으로 볼 수 있겠다.

4.2. 의미의 보충과 정리

4.2.1. 의미의 보충

(10) 彼(かれ)また我儕(われら)に**印(いん)し**且(かつ)質(かた)として靈(みたま)を我儕(われら)の心(こころ)に賜(たま)へり

(11) 神はまた、**確認の印を**私たちに**押し**、保証として、御靈を私たちの心に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12) 神はまた、私たちに**証印を押し**、保証として御靈を私たちの心に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新改譯2017 고린도후서 1:22)

明治元譯에서는「印する」로 표현되었고, 新改譯와 新改譯2017에서는 각각「確認の印を押す」「証印を押す」로 표현되었다. 원어에서는 징조 혹은 표식을 의미하는 명사 '세메이온(σημεῖον)'과 묻다, 요구하다ask, request의 의미인 '아이테오(αἰτέω)'를 사용하고 있다. 明治元譯에서는 그저 印する라고 표현되어 있지, 그것의 효능, 대상은 나타나있지 않아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해석의 어려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新改譯와 新改譯2017에서는 각각「確認」「証印」을 사용하여 문장 해석에 도움을 주고 있다.

4.2.2. 의미의 정리

(13) 兩(りやう)三人(さんにん)の口(くち)に由(より)て證(あかし)をなし凡(すべて)の言(ことば)を**定(さだめ)**んが爲(ため)

(14) ふたりか三人の証人の口によって、すべての事實が**確認**されるためです。
(新改譯 마태복음18:16)

明治元譯에 비해 新改譯이 해석이 편한데 그것은 사용된 동사의 수에 기인한다. 明治元譯에 사용된 동사는「由る/證をなす/定める」총 3개의 동사가 사용되었다. 新改譯에서는「よる/確認する」2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 동사의 수는 문장의 수로 볼 수 있다.

(15) 明治元譯 - 兩三人の口に由る。證をなす。凡の言を定る。
(16) 新改譯 - ふたりか三人の証人の口による。すべての事實が確認される。

같은 문장에 동사가 몇 개가 사용되느냐에 따라 읽는 것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新改譯에서는 明治元譯에 쓰인「證をなす」를 없애고, 문장의 앞, 뒤에 '證'를 하는 証人과 證를 밝히는 確認을 사용함으로써 證의 의미를 문장에 녹아들게 하였다.

5. 마무리

이상으로 일본 신약성경 漢語動詞의 변천과 개역으로 인해 생기는 효과와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明治元譯에서 新改譯으로 개역되면서 사용되지 않게 된 漢語, 새롭게 사용하게 된 漢語 그리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漢語가 있었다. 개역을 통해 의미가 명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반면, 해석의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는 점도 있었다. 또한 漢語를 사용함으로써 부족했던 의미를 보충하기도 하고, 중복되거나 의미가 없는 표현들은 정리가 되기도 하는 효과가 있었다.

위에서 다루었던 것 이외에 漢語의 다른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으로 오는 효과와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6. 참고문헌

프레드릭 윌리엄 댕커著, 김한원譯(2017)『신약성서 그리스어 사전』, 새물결플러스.
新日本聖書刊行會(2003)『聖書 新改譯』いのちのことば社.
新日本聖書刊行會(2017)『聖書 新改譯2017』いのちのことば社.

【 Abstrict 】

Aspects of sino-Japanese verb in the Japanese bible New Testament

Jang, Min-Yyeong(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master's course)
Son, Dong-Ju(Pukyong National University)

When I read Japanese bible, I felt one question every single times. That is difference of sino-Japanese verb and Native Japanese verb. In my point of view, there's no any differece, same meaning. So I started research to find out about difference of sino-Japanese verb and Native Japanese verb. First, I categorized sino-Japanese verb among New Testament of Meiji, shinkaiyaku, shinkaiyaku2017 version. There were some patterns, 1) keep using verb 2) used verb 3) using verb.
I researched that throughout Bible's history, arising things, like sino-Japanese's roles, what part of sino-Japanese, etc.
I hope some people who studing, speaking Japanese as foreign language be of help.

Aspects of 'Numeratives' in Japanese
日本語の助數詞の諸相

北原博雄(玉川大學)

Numeral Quantifiers (hearafter *NQs*) in Japanese are composed of a numeral and a numerative (or an auxiliary numeral). For example, *ni-satsu*(: two-Classifier for book) is composed of a numeral *ni* and a numerative *satsu*. I discuss the relation between an NQ and its host NP in terms of a numeratives forming the former, and classify numeratives into three categories as follows. Couning-Classifiers constitute Kitahara's(1996) Individual NQs (*ni-satsu*) which count objects discretely, Measurers his Content NQs(*ni-guramu*: two-grams)which measures objects or a continuum as a mass, and Counters-cum-Measures Group NQs (*ni-hako*(*no ringo*): two boxes (of apples)) which have properties of both Individual and Content NQs. Finally, I propose that most of Group NQs as Individual NQs be analyzed into a numeral and a noun. In Japanese, one of the classifier languages, there are numeral expressions similar to ones such as *three books* in English, one of the non- classifier languages.

1. はじめに

① 1) **數詞數量詞**(Numeral Quantifier：以下**NQ**と略す)

：對象を計量する ＆ 數詞(numeral)と助數詞(numerative, auxiliary numeral)から成る

(1) とき子は {a. みかんを5個／b. 5個のみかんを} 買った。

(2) 美保子は {a. 5km／b. 5時間／c. 5回} 走った。

2) **先行詞**(antecedent, host(NP))：NQの計量對象となる名詞→(1)：「みかん」.(2)：なし

② 計量方法によるNQの二分(北原1996)

(3)「5匹のマグロ」と「1.5トンのマグロ」：NQの計量對象はともに「マグロ」

→計量方法：a.「5匹」：個体數量詞：對象を計數(count)する(=個別的.離散的に計量する)

b.「1.5トン」：内容數量詞：對象を一括計量=計測(measure)する

※ 計量：計數と計測の上位語

③ 本發表の目的：

1) 先行詞とNQとの關係を，NQを構成する助數詞から考える → (1)のような例に限定

2) 日本語にも，英語の*two books*のような可算名詞を計數する構文に似た構文があることを示す

- **類別詞(助數詞)言語**：數詞を使うときは助數詞の使用が義務的：「2冊の本」vs.「*2の本」
- **非類別詞(非助數詞)言語**：數詞が可算的(countable)な名詞を直接修飾する：*two books*

2. 助數詞分類についての先行研究

① 北原(1996)

- **單位系助數詞**：內容數量詞を構成する　&　數詞をかえると十進法的に体系的に置き換えられる
  例)「2m = 200cm = 2000mm」の「-m」,「-cm」,「-mm」
- **非單位系助數詞**：個体數量詞を構成する　例)「牛2頭」,「本5冊」の「-頭」,「-冊」

② 水口(2004a,b)

(4) a. 個別類別詞：人 匹 本 枚 個 …
b. 集合類別詞：對 足 束 山 チーム …
c. 計量類別詞：杯 匙 袋 切れ グラム …

③ 影山他(2011)

(5) a. 類別詞：①單体類別詞；　≒(4a)
②グループ類別詞≒(4b)
b. 計量詞：①容器など；束 山 袋 …
②計測單位；グラム メートル 尺 …

→ (4a),(5a①)：非單位系助數詞(にほぼ相当) & (4c),(5b②)：單位系助數詞(にほぼ相当)
→ 本發表で問題にすること：非單位系,單位系の間の中間領域をどう考えるか

3. 本發表での助數詞分類－北原(2015)の修正案－

Ⅰ：**計數類別詞**(Counting-Classifiers)：「-冊/本/匹/台/人/個/つ,…」

① 計數機能がある → 個体數量詞：對象を個別的,離散的に數える：「5匹の犬,5冊の本」
→ Greenberg(1972)流に言えば被乘數1 = ×1　例)「5匹」= 5×1
→ 計量の最小單位：1個体 → atomicity(Link1983, Landman1989a,b): ATOM(x) ↔ ¬∃y[y<x]

(6) **計數の前提は,計量の最小單位が決まっていること**,卽ち,對象が個別化されていることである。

② 類別機能がある　例)'-冊」：書物.ノート　'-本」：細長いモノ

1) いわゆる閉じたクラス(closed-class)であり.名詞の類別基準は慣習的に.文化的に決まっている
→ 名詞の類別のしかた：言語ごとに異なる 例)中國語の量詞'-本」：書物を計數する

2) 類別詞言語の計數類別詞：被乘數1の計數機能をもつ計數詞(であることが多い)

③ 個体數量詞の先行詞=計數對象：意味的には可算名詞扱いであり.個体解釋(= atomicity)を持つ

④ 助數詞の選擇：捉え方による違いがある：　(7) {2匹の／2頭の} 犬　：助數詞をかえても數詞はかわらない

Ⅱ：計測詞(Measurers)：「-メートル/グラム/リットル/ダース/尺/升.…」

① 計測機能がある(=重さ.長さ.容積などを測定する) → 内容數量詞：對象を一括計量する(北原1996)
(8)a.　5kgのみかん　　b.　5リットルの水

1) 一括計量：計量對象をひとまとまり(mass)として扱うということ → 計量の最小單位：不分明

(9) 計數できない對象(= 計量の最小單位が決まっていない對象)の計量は計測のみである。
：非類別詞言語では.可算名詞の複數形.非可算名詞(uncountable　　nouns).質量名詞(mass nouns)で指示される

(10) (8a)の'みかん」：解釋は曖昧
a.「みかん」が複數個：「みかん」の個別性は捨象 → 'みかん」：質量名詞 → **計測解釋**
b.「みかん」が1個：1つの'みかん」の重さが5kg → **屬性Q**(奥津1983)

(11) 5kgのみかんを買った：曖昧な解釋 → みかんを5kg買った：計測解釋のみ

2) Greenberg流に言えば被乘數は既定：　(12) a. 5m = 5×100cm = 500cm
b. 5ダース(のビール) = 5×12本 = 60本

② 類別機能：ない(かきわめて弱い)
例) '-グラム」：重さの有無で類別 ≒ 抽象物と具象物の類別　cf.「-つ」.「-個」：general classifiers
：いわゆる開いたクラス(open-class)であり.世界標準で決められる單位もある

例）メートル法(metric system)とヤードポンド法(imperial unit)､尺貫法
→ 助數詞：計量對象と(ほぼ)無關係に決まる

③ 内容數量詞の先行詞=計量對象：意味的には質量名詞 ← ①1)

④ 助數詞の選擇：

1) どんな次元(dimension)での計量か－ 立体であれば､高さ(⊂長さ)､重さ､体積などの次元で計測しうる

2) 數詞の讀みやすさ－例)長さの計測： 「5cm」を「0.0005km」とは普通は言わない(但し､文脈による)

3) 同一次元での計量でも助數詞が異なると數詞が異なる 例）「1尺」=「10寸」=「(約)30.3cm」
→ 助數詞：計量對象と(ほぼ)無關係に決まる

Ⅲ：計數計測詞(Counters-cum-Measurers)：計數類別詞と計測詞との性質を併せ持つ

タイプⅠ：「-箱/束/山/組/列/連(數珠を計量)/盛り/さじ/杯/カップ/パック/袋/俵(米を計量)/ケース/抱え/包み/掬い/つかみ/握り/折り/缶/瓶､…」
(13)a. ビール5ケース b. 2山のみかん

タイプⅡ：「-本」： (14) 5本のビール

① **計測機能**がある → **集合數量詞**(=計測類別詞から成るNQ)：對象を一括計量する

1) (13b)の「みかん」：複數個体の存在が無標(unmarked)の解釋 & 個別性は無視され質量名詞扱い

2) Greenberg流に言えば､被乘數､卽ち､“數詞×*x*”の“*x*”の値は文脈に委ねられる

cf. (慣習的に､)「ビール」のケース買いでは1ケースに24本入っているのが普通
→ 「(ビール)5ケース」：“5×24本” → 「-ケース」：計測詞に移行

3) **計測對象 = 集合數量詞の先行詞** 例)(13)と(14)のNQの計量對象：「ビール」､「みかん」

②**計數機能**がある

(15) **計數不可能な對象を計數可能にするためには､計量の最小單位を創らなければならない**。

タイプⅠ

1) 數詞：助數詞の指示對象を計數する

例) (13b)の'2山」の'2」：助數詞'山」の數であって.「みかん」の數ではない

→ 個体數量詞と同樣の計量方法(=計數)だが助數詞がない

→ ∴ 計數計測詞：計數機能に着目すると.助數詞ではなく名詞である可能性がある

← 單獨で名詞としても使える例ばかり

cf.「5kgのみかん」：數詞が「kg」を計數 →(15)：計測詞にも当てはまる → *five kilos of oranges*

(i) 英語の「類別詞」構文と統語的には平行的

(16) a. ten boxes of apples：• *ten*は*box*を計數している→10個の箱を指示：'計數解釋」

• *ten boxes(of)*が*apples*を計測している：'計測解釋」

b. 10箱のりんご：計測解釋のみ

(ii) 英語の計數構文：助數詞に相当する表現がない 例) *three boxes*

→「3箱のみかん」の「3箱」：上例と同樣.數詞'3」に名詞'箱」が後續した構造

→「3」：*three boxes*の*three*と同樣.計數詞(counter)?

→ ∴ **計數對象 ≠ 集合數量詞の先行詞**

(17) '5箱の｛みかん/ジュース｝」：1.「みかん.ジュース」：'箱」で類別されない

2.「5箱」：'みかん」,'ジュース」を計量する

3. '5」：「箱」を計數する

→ '箱」を計數することによって'みかん」「ジュース」の總量を表している

2) (18)

	計數解釋	計測解釋
a. もう｛2箱／2袋｝必要だ。	OK	OK
b. 2山を買った。	OK	OK('一番右にある2山を買った」:「みかん」)
c. もう｛2束｝必要だ。	*	OK

a. の數量詞の後ろに格助詞を付けると少々不自然：'?もう2箱が必要」

→ グラデーションあり

タイプⅡ

1) 助數詞「-本」：見えない.計量の最小單位を表す名詞と一致

(14) 5本のビール：「-本」の計數對象は'ビール」ではなく.'ビール」が入っている細長いモノ

(19)｛大瓶/500ml缶｝(で) 5本のビール

→ '5本」：• 計測對象：'ビール」

• 計數對象：'-本」が類別するモノ.例えば(19)の「大瓶」.'500ml缶」など

→ ∴ **計數對象 ≠ 集合數量詞の先行詞**

例)「5本のジュース」:「ジュース」は'-本」で類別されない→類別對象:個体(固体)が主

1.「5本」:'ジュース」を計量する

2.「5」:'ジュース」を計量する細長いモノ1個体を最小單位として計數する

→「5本」:'-本」が類別する名詞が表す個体を計數することによって'ジュース」の總量を表す

2) 計數對象を表す名詞:計量對象((14)では'ビール」)と(廣義)メトニミーの關係にある

→ '5本のビール」:'-本」は'鉛筆」と一致する解釋は常識的にはない

4. さいごに

① 先行詞をとるNQを構成する助數詞の3分類が予測すること

1) 言語普遍性の予測:計數類別詞.計數計測詞.計測詞の順に言語普遍性が高くなる

← ●計測詞がない言語はおそらく存在しない

●英語:計數類別詞はないが.計數計測詞と計測詞がある

2) 容積の單位'俵(ひょう)」についての『日本國語大辭典第二版』の記述

●'米.野菜.炭を入れるための藁で編んだ袋」:名詞(→ 數詞に後續して計數類別詞に)

●'袋に.米.炭などを詰めたものを單位として數えるのに用いる」:計數計測詞

●'古代では1俵=5斗.明治以後.1俵=4斗」:計測詞

② 成田(1990)による.名詞としても使われうる助數詞のリスト(:計數計測詞のタイプⅠも含む)

:數詞が.後續する「名詞」を計數するものばかり

(20) a.5家族.3大臣.… b.4市町村:市.町.村の個体數量の合計

→ 數量詞ではない (← 先行詞をとっていわゆる遊離數量詞の位置に現れない)

可算名詞構造か單なる複合名詞か = 計數しているか否か

引用文獻

Aikhenvald, Alexandra.(2003) *Classifiers: A Typology of Noun Categorization Devices*. Oxford:Oxford UP.

Greenberg, Joseph H.(1972) Numeral Classifiers and Substantival Number: Problems in the Genesis of Linguistic Type. *Working Papers on Language Universals 9*, pp.1-39.

影山太郎・眞野美穗・米澤優・當野能之(2011)「名詞の數え方と類別」影山太郎編『日英對照名詞の意味と構文』pp.10-35. 大修館書店.

北原博雄(1996),「連用用法における個体數量詞と內容數量詞」『國語學』186:63-76. 國語學會(現日本語學會).

北原博雄(2015)「數量詞構文の實踐的応用:個体數量詞と內容數量詞再論」「ICR總合言語科學ラ

ボラトリー」. 「言語研究の實踐的応用リサーチグループ」. 及び科研費 「作文を支援する語彙文法的事項に關する研究」共催研究集會. 平成28(2016)年 3月 5日. 筑波大學.

Landman, Fred.(1989a)“Groups, I.”*Linguistics and Philosophy* 12.5: 559-605.

Landman, Fred.(1989b)“Groups, Ⅱ.”*Linguistics and Philosophy* 12.6: 723-744.

Link, Godehard(1983)“The Logical Analysis of Plurals and Mass Terms:A Lattice-theoretical Approach.” In

Bäuerle,R et.al.(eds.), *Meaning, Use and Interpretation of Language*, Berlin: de Gruyter. pp.302-323.

眞野美穗·米澤優(2013)「生成語彙理論による助數詞の分析」『レキシコンフォーラムNo.6』pp.139-171. ひつじ書房.

水口志乃扶(2004), 「日本語の類別詞の特性」 西光·水口(編)所收. pp.61-77.

成田徹男(1990), 「名詞と同形の助數詞」『都大論究』27:1-8. 東京都立大學.

西光義弘·水口志乃扶(編)『シリーズ言語對照<外から見る日本語>3　類別詞の對照』くろしお出版.

奥津敬一郎(1983), 「數量詞移動再論」『人文學報』160. pp.1-24. 東京都立大學.

心理動詞の使役文と他動詞文の比較
－ 自動詞(-u)-他動詞(-eru)型を中心に －

李恩珠(釜慶大学校 大学院)
孫東周(釜慶大学校)

1. はじめに

日本語の使役文は、'動詞＋(sa)seru」の形をして表れる。使役の意味について、青木(1977)は'使役とは、使役作用が他者に及ぶことを意味しているから、それは“その作用が、ある客体に及ぶ意味を持つ”とされる他動詞の特性と異ならない」と述べている。使役文と他動詞文は、同じ意味を持っているだろうか。

（1） a. 太郎は花子を苦しませた
　　 b. 太郎は花子を苦しめた。
（2） a. その話は花子を落ち着かせた。
　　 b. *その話は花子を落ち着けた。

自‧他対応する心理動詞の使役文と他動詞文の例をみてみよう。まず、(1a)は、自動詞'苦しむ」の使役形、(1b)は、自動詞と対応する他動詞'苦しめる」の文である。(2a)は、自動詞'落ち着く」の使役形、(2b)は、その自動詞と対応する他動詞'落ち着ける」の文である。(1)の場合、使役主体と被使役者がそれぞれ'人」を指し、(2)の場合は、使役主体は無情物の'その話」であり、被使役者は'花子」を指している。(1)は、自動詞の使役形を他動詞に入れ替えても、文が成立しているが、(2)は、自動詞使役形を他動詞に入れ替えると不自然な文になる。このことにより、対応する他動詞のある自動詞の使役文と他動詞文の意味は全く一致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ことが分かる。そうすると、自‧他対応する自動詞の使役文と他動詞文とのその違いは何だろうか。

本稿は、自‧他対応する心理動詞の自動詞(-u)と他動詞(-eru)型の自動詞の使役文と他動詞文を比較し、自動詞の使役文と他動詞文との共通点と相違点について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標としている。

2. 先行研究

寺村(1982)は、形態的に対立する自動詞や他動詞をもつ動詞を'相対自動詞」'相対他動詞」といい、形態的に対立をもたない自動詞と他動詞を'絶対自動詞」'絶対他動詞」、自他両用に使われるものを'両用動詞」と呼んでいる。相対自‧他動詞については、次のように形態的に10種類に分けて分類している。

表１．寺村(1982)による相対自･他動詞の分類

種類	自	他	例
①	-aru	-u	からまる-からむ、くるまる-くるむ、つかまる-つかむ、またがる-またぐ
②	-aru	-eru	あたる-あてる、植わる-植える、休まる-休める、集まる-集める
③	-u	-eru	あく-あける、痛む-痛める、落ち着く-落ち着ける、やむ-やめる
④	-ru	-su	うつる-うつす、起る-起こす、かえる-かえす、とおる-とおす
⑤	-reru	-su	崩れる-崩す、汚れる-汚す、表れる-表す、倒れる-倒す
⑥	-eru	-asu	荒れる-荒す、枯れる-枯らす、もえる-もやす、出る-出す
⑦	-iru	-asu	のびる-のばす、満ちる-満たす、生きる-生かす、懲りる-懲らす
⑧	-iru	-osu	起きる-起こす、落ちる-落とす、おじる-おどす、おりる-おろす
⑨	-iru	-seru	見る-見せる、着る-着せる、浴びる-浴びせる、似る-似せる
⑩	-u	-asu	かわく-かわかす、へる-へらす、もる-もらす、すむ-すます

寺村は、③の自動詞(-u)―他動詞(-eru)の動詞に対して、人を主体にとる自動詞は意向形にも命令形にもなる。また、間接受身にも使役にもなるけれども、派生の仕方が語によってちがうと述べ、他動詞と使役の使い分けを次のように表している。

Xが＜自＞

(X が 有 情) ⟶ Xヲ ＜自＞ の使役形

(X が 無 情) ⟶ Xヲ ＜他＞

寺村は、この類には、落ち着く、進むなどのように両方の派生が可能なもの、育つのように使役にはしないものなどもあると指摘している。従って、この種類の動詞に関して研究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られる。

孫(2005)は、自動詞の使役形とそれと対応する他動詞について、三つに分け[1]分析し、その結果、有対自動詞の使役形と有対他動詞が共に自然になる場合について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

1．事態が使役主体の意図と被使役者の意志的な動作によって実現される場合として、被使役者の行為に対する意図は問題にならない。
2．使役主体には事態を実現させようとする意図はないが、事態が被使役者の意志的な動作によって実現される場合として、使役主体は事態のきっかけである。
3．被使役者には事態に対する意志はないが、事態が使役主体の意図による被使役者の行為によって行われる場合。

また、心理動詞に使役文が成立することについては、禁止表現ができることによって、事態の成立過程について使役主体によって制御が可能であるので使役ができると述べている。

1) ① 自動詞の使役形だけが自然な場合
② 自動詞の使役形と他動詞が自然な場合
③ 自動詞の使役形ができない場合

（３） a. 借金が太郎を苦しめた。
b. 借金が太郎を苦しませた。
c. 借金で苦しむな。

孫は、有対自動詞の使役形と有対他動詞が自然になることについて、使役主体の意図・被使役者の意志によって分析を行っている。心理動詞の使役文は、禁止表現が成立することから、使役主体によって制御が可能だと述べているが、心理動詞の使役文が他動詞とどのような関係があるのかに関しては詳しく説明されていない。

3. 自動詞(-u)の使役文と他動詞(-eru)の比較

3.1 自動詞の使役形を他動詞に入れ替える場合

≪使役主体・被使役者「人名詞」≫
（４） a. あるいは気がついていてわざと相手を苦しませて楽しんでいるようにもとれる。
b. あるいは気がついていてわざと相手を苦しめて楽しんでいるようにもとれる。
（５） a. こんなにあたしを苦しませた男が、もう、見る値うちもないくらいになるわ。
b. こんなにあたしを苦しめた男が、もう、見る値うちもないくらいになるわ。

使役主体と被使役者が人名詞である場合、自動詞の「苦しむ」と他動詞の「苦しめる」は自動詞の使役形を他動詞に交換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使役主体が被使役者をある心理状態にしようとする意図が強く感じられる。

（６） a. 僕は、気持ちを落ち着かせるため、大きく息を吸い込んだ。 ＜告＞
b. * 僕は、気持ちを落ち着けるため、大きく息を吸い込んだ。
（７） a. この子が俺への初恋で胸を痛ませている。
b. * この子が俺への初恋で胸を痛めている。
（８） a. その人物がどんなに私の夢を悩ませたかは、言うまでもないくらいである。
b. * その人物がどんなに私の夢を悩めたかは、言うまでもないくらいである。

しかし、使役主体と被使役者が人名詞でも、自動詞の使役形を他動詞に入れ替え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がある。「落ち着く-落ち着ける」「痛む-痛める」「悩む-悩める」の動詞は、自動詞の使役形を他動詞に入れ替えると不自然になる。

≪使役主体「無情物」被使役者「人名詞」≫
（９） a. この街には人を苦しませるものは何ひとつとして存在しない。
b. ? この街には人を苦しめるものは何ひとつとして存在しない。
(10) a. その代わり、あなたの薬は、永劫に貴族たちを苦しませる力がありました。
b. ? その代わり、あなたの薬は、永劫に貴族たちを苦しめる力がありました。

「苦しむ-苦しめる」でも、使役主体が無情物である場合は、自動詞の使役形を他動詞に入れ替えると少し不自然になる。他動詞に入れ替えたとき、被使役者に直接的にあることををして心理状態を変化させるようなニュアンスが感じられる。

(11) a. 一定のリズムで刻まれるそれが僕の心を落ち着かせていく。 <い>
b. * 一定のリズムで刻まれるそれが僕の心を落ち着けていく。
(12) a. この返事は王虎の心を非常に痛ませた。
b. * この返事は王虎の心を非常に痛めた。
(13) a. 高之は頭を悩ませていた。考えもしなかったことが起きたからだ。 <仮>
b. * 高之は頭を悩めていた。考えもしなかったことが起きたからだ。

「落ち着く-落ち着ける」「痛む-痛める」「悩む-悩める」は、使役主体が無情物である場合でも、自動詞の使役形を他動詞に入れ替えるのができない。

3.2 他動詞を自動詞の使役形に入れ替える場合

他動詞を自動詞の使役形に入れ替えることが可能な場合と不可能な場合がある。

≪使役主体・被使役者『人名詞』≫
(14) a. 自分の父である王が彼を苦しめるのは正しくなかったと言った。
b. 自分の父である王が彼を苦しませるのは正しくなかったと言った。
(15) a. 俺は気持ちと体を落ち着けるためしばらくベッドでじっとする。
b. 俺は気持ちと体を落ち着かせるためしばらくベッドでじっとする。
(16) a. 彼の頑固がんこはその付近の人々の口に上り、そして非常に人々の心を痛めた。
b. 彼の頑固がんこはその付近の人々の口に上り、そして非常に人々の心を痛ませた。

≪使役主体『無情物』被使役者『人名詞』≫
(17) a. 自責、迷い、後悔といったものが一晩中哲朗を苦しめた。 <片>
b. 自責、迷い、後悔といったものが一晩中哲朗を苦しませた。
(18) a. 目を閉じ、いつまでも聞いていたくなる単調な蹄の音で心を落ち着ける。
b. 目を閉じ、いつまでも聞いていたくなる単調な蹄の音で心を落ち着かせる。
(19) a. ただ火山のせいで、多くの被害が出ることに心を痛めているに違ちがいない。
b. ただ火山のせいで、多くの被害が出ることに心を痛ませているに違ちがいない。
(20) a. 今ではその薬は花粉症に悩める人々にとって奇跡にも等しい神薬として話題になっている。
b. ? 今ではその薬は花粉症に悩ませる人々にとって奇跡にも等しい神薬として話題になっている。

3.3 他動詞を自動詞の使役形に入れ替え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

≪仮定条件『～ば』≫
(21) a. 『深山さんが苦しめばいいと思うところもあって…』 <刑>
b. * 『深山さんが苦しませればいいと思うところもあって…』

(22) a. 杉原の気持ちがもっと落ち着けば、忘れていたことを思い出すかもしれない。
b. * 杉原の気持ちがもっと落ち着かせれば、忘れていたことを思い出すかもしれない。
(23) a. 頭を抱えて、せいぜい悩めばいいのだわ。
b. * 頭を抱えて、せいぜい悩ませればいいのだわ。

仮定条件を表す'～ば」が付く他動詞文は、主体が対象の心理状態を変化しようとする意図が表れる。主体に意図性がある表現が文中に表れる場合、自動詞の使役形に入れ替えることができない。

≪命令表現≫
(24) a. * 苦しめ！
b. * 苦しませろ！
(25) a. 声が震えているのが自分でもわかって、落ち着け、と心のなかでつぶやく。
b. * 声が震えているのが自分でもわかって、落ち着かせろ、と心のなかでつぶやく。
(26) a. * 痛め！
b. * 痛ませろ！
(27) a. * 悩め！
b. * 悩ませろ！

この類の動詞は、命令表現を用いることができない。たとえ(25)'落ち着ける」のように命令形をとることができるとしても、その他動詞を自動詞の使役形に入れ替えることはできない。

≪継続表現'～続ける」≫
(28) a. 長年にわたって私の存在が彼を苦しめ続けてきた。 ＜手＞
b. * 長年にわたって私の存在が彼を苦しませ続けてきた。
(29) a. 彼の傷ついたエゴを密かに痛めつづけていたことは確かだと僕は思った。
b. * 彼の傷ついたエゴを密かに痛ませつづけていたことは確かだと僕は思った。

継続を表す'～続ける」が付く他動詞文の場合、ある動作や出来事が終わっていないことを示す。これは、主体が対象の心理状態を変化させようと、積極的に何かの影響を与えていることを表している。このような表現が文中に表れる場合、他動詞を自動詞の使役形に交換することはできない。

≪受身表現'～られる」≫
(30) a. 何日間も眠れなかったり、幻覚に苦しめられたりしたそうです。 ＜魔＞
b. * 何日間も眠れなかったり、幻覚に苦しませられたりしたそうです。
(31) a. 落ち着けられる。
b. * 落ち着かせられる。
(32) a. 三人のうちで、もっともその苦悩に痛められたのはアントアネットだった。
b. * 三人のうちで、もっともその苦悩に痛ませられたのはアントアネットだった。
(33) a. ? 悩められる。
b. * 悩ませられる。

受身表現の'～られる」が付く文は、自動詞の使役形に入れ替えると不自然である。すなわち、この類の自動詞は使役受身の表現を使うことができない。使役受身ができないのは、主体の意図と対象の意志によって事態が成立するわけではないからだと考える。

参考文献

青木伶子(1977)'使役－自動詞・他動詞との関わりにおいて」『成蹊国文　10』成蹊大学　日本文学科研究所 pp.26-39

孫東周(2005)『日本語の動詞とヴォイス』제이앤씨

寺村秀夫(1982)『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Ⅰ』くろしお出版

用例出典

表示なし：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通常版)

刑：宇田学他(2016)『日曜劇場'99.9-刑事専門弁護士-」(上)』扶桑社

仮：東野圭吾(1995)『仮面山荘殺人事件』講談社

片：東野圭吾(2004)『片想い』文芸春秋

手：東野圭吾(2006)『手紙』文芸春秋

魔：東野圭吾(2015)『ラプラスの魔女』角川書店

い：三秋縋(2014)『いたいのいたいの、とんでゆけ』角川書店

告：湊かなえ(2010)『告白』双葉社

【 Abstract 】

Comparison between Causative and Transitive Sentences in a Psychological Verb
-Centering on the Intransitive Verb (-u) and Transitive Verb (-eru) type-

Lee, Eun-Ju(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master's course)
Son, Dong-Ju(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Japanese causative sentence appears in the form of "verb +(sa)seru."Regarding the meaning of the causative role, Aoki (1977) states that 'The causative role means that the causative action reaches another person, so it is not different from the characteristic of the other verb, which is said to have meaning.'It may be natural to exchange an intransitive causative form for another verb, but it may also be unnatural.It turns out that the meanings of the causative sentence of the corresponding intransitive verb and the transitive sentence do not match at all. Then,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ausative sentence of the corresponding intransitive sentence and the transitive sentence? This article compares the intransitive (-u) of one's own and other corresponding psychological verbs, the causative sentence of the transitive verb (-eru) type intransitive verb with the transitive verb sentence, and clearly makes a difference.

가상현실(VR)에 기반한 일본어 교실활동 가능성 모색

천호재(계명대학교)

1. 본 발표의 목적

① 가상현실에서 일본어 수업이 행해질 경우, 교사와 관련하여 학습자들의 니즈를 고찰하는 것이다. →설문조사의 방식(선호하는 교사의 성별, 교사의 인종, 교사의 헤어스타일, 교사의 얼굴형, 교사의 눈빛과 표정, 교실활동 시의 교사의 멘트, 교사의 목소리, 교사의 체형, 교사의 옷차림새, 교사의 연령, 수업 시 교사의 자세, 학습 공간)

② 본 발표가 미래의 학습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미래교육과 VR

2.2 교실활동

3. 설문 개요 및 설문 문항

설문조사의 시기- 2015년 2학기, 응답자-K대학 전공자 153명(여117명, 남36명)

설문 문항-20문항(복수 응답 허용함)

(선호하는 교사의 성별, 교사의 인종, 교사의 헤어스타일, 교사의 얼굴형, 교사의 눈빛과 표정, 교실활동 시의 교사의 멘트, 교사의 목소리, 교사의 체형, 교사의 옷차 림새, 교사의 연령, 수업 시 교사의 자세, 학습 공간)

<표1> 설문대상자의 연령

연령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남학생	0%	42%	14%	14%	6%	17%	3%	0%	1%	1%
여학생	3%	57%	23%	9%	4%	3%	1%	1%	0%	0%
전체	2%	54%	21%	10%	5%	6%	1%	1%	1%	1%

3.1 가상현실에서 학습자들이 원하는 교사의 성별

설문1. 당신이 가상세계에서 원하는 교사의 성별은?

성별	남자 교사	여자 교사
남학생	31%	69%
여학생	62%	38%
전체	54%	46%

3.2 가상현실에서 학습자들이 원하는 교사의 인종

설문2. 당신이 가상세계에서 원하는 교사의 인종은?

성별	백인	황인	흑인	혼혈
남학생	17%	69%	3%	11%
여학생	21%	59%	3%	17%
전체	20%	61%	3%	16%

3.3 가상현실에서 학습자들이 원하는 교사의 헤어스타일

설문3. 가상세계에서 원하는 남자 교사의 헤어스타일은 무엇입니까?

성별	리젠트 컷	투블럭 컷	댄디 컷	소프트 모이칸 컷	예수 머리	샤기컷	레이어컷	언더컷	댄디 볼륨	남자 웨이브펌	기타
남학생	11%	3%	39%	0%	11%	0%	11%	0%	8%	8%	8%
여학생	2%	15%	39%	7%	3%	2%	9%	2%	15%	8%	0%
전체	4%	12%	39%	5%	5%	1%	10%	1%	13%	8%	2%

설문4. 당신이 가상세계에서 원하는 여자 교사의 헤어스타일은 무엇입니까?

성별	러블리펌	롱 스트레이트	굵은 웨이브펌	단발	숏커트	내츄럴 똥머리	미디움 헤어스타일	롱펌 헤어 스타일	기타
남학생	28%	17%	17%	14%	0%	8%	6%	11%	0%
여학생	18%	0%	36%	8%	2%	3%	18%	15%	0%
전체	20%	4%	31%	9%	1%	5%	15%	14%	0%

3.4 가상현실에서 원하는 교사의 얼굴형

설문5. 당신이 가상현실에서 원하는 남자 교사의 얼굴형은?

성별	둥근 얼굴형	긴 얼굴형	사각 얼굴형	역삼각 얼굴형	마름모 얼굴형	기타
남학생	72%	8%	0%	11%	6%	3%
여학생	68%	6%	3%	13%	3%	7%
전체	69%	7%	3%	12%	4%	6%

설문6. 당신이 가상세계에서 원하는 여자 교사의 얼굴형은?

성별	둥근 얼굴형	긴 얼굴형	사각 얼굴형	역삼각 얼굴형	마름모 얼굴형	기타
남학생	86%	6%	0%	6%	0%	3%
여학생	82%	8%	1%	3%	2%	5%
전체	83%	7%	1%	3%	1%	5%

3.5 가상현실에서 학습자들이 원하는 남녀교사의 눈빛과 표정

설문7. 당신이 가상세계에서 원하는 평소 교사의 표정은?

성별	웃는 얼굴	근엄한 얼굴	무표정	기타
남학생	81%	6%	3%	11%
여학생	93%	5%	2%	0%
전체	90%	5%	2%	3%

설문8. 당신이 가상현실에서 수업을 받으며 대답을 잘했을 때 원하는 교사의 눈빛(표정)은?

성별	놀란 눈빛	행복한 눈빛	지켜보는 눈빛	지긋이 바라보는 진지한 눈빛	기타
남학생	6%	72%	6%	17%	0%
여학생	8%	62%	10%	17%	3%
전체	7%	65%	9%	17%	2%

설문9. 당신이 가상세계에서 수업시간에 대답을 잘 못했을 때 원하는 교사의 눈빛(표정)은?

성별	놀란 눈빛	행복한 눈빛	지켜보는 눈빛	지긋이 바라보는 진지한 눈빛	분한 눈빛	멍한 눈빛	실망한 눈빛	화난 눈빛	기타
남학생	6%	8%	28%	44%	0%	3%	6%	3%	3%
여학생	3%	8%	46%	28%	0%	4%	9%	0%	2%
전체	3%	8%	42%	32%	0%	4%	8%	1%	2%

3.6 가상현실에서 학습자들이 원하는 교사의 멘트

설문10. 당신이 가상현실에서 수업을 받으며 대답을 잘했을 때 원하는 교사의 멘트는?

성별	과도한 칭찬	적절한 칭찬	시인	노코멘트	기타
남학생	3%	53%	42%	0%	3%
여학생	3%	77%	21%	0%	0%
전체	3%	71%	25%	0%	1%

설문11. 당신이 가상현실에서 수업을 받으며 대답을 잘못했을 때 원하는 교사의 멘트는?

성별	과도한 비난	적절한 비난	유감 표명	노코멘트	기타
남학생	6%	33%	47%	14%	0%
여학생	1%	23%	54%	19%	3%
전체	2%	25%	52%	18%	3%

3.7 가상현실에서 학습자들이 원하는 교사의 목소리 유형

설문12. 당신이 가상세계에서 원하는 남자 교사의 목소리 유형은?

성별	고음형-테너	중저음-바리톤	저음-베이스	기타
남학생	11%	83%	3%	3%
여학생	1%	91%	9%	0%
전체	3%	89%	7%	1%

설문13. 당신이 가상현실에서 원하는 여자 교사의 목소리 유형은?

성별	고음형-소프라노	중저음-메조 소프라노	저음-알토	기타
남학생	17%	75%	6%	3%
여학생	9%	88%	3%	0%
전체	10%	85%	4%	1%

설문14. 당신이 가상현실에서 원하는 남녀 교사의 목소리 상태는?

성별	빠른 목소리	느린 목소리	친절한 목소리	근엄한 목소리	사무적인 목소리	예쁜 목소리	남자다운 목소리	귀여운 목소리	침착한 목소리	냉정한 목소리	기타
남학생	8%	8%	58%	3%	0%	19%	19%	36%	25%	6%	0%
여학생	5%	3%	81%	9%	1%	14%	33%	5%	50%	5%	0%
전체	6%	5%	76%	8%	1%	15%	30%	12%	44%	5%	0%

3.8 가상현실에서 학습자들이 원하는 교사의 체형

설문15. 당신이 가상세계에서 원하는 남자 교사의 체형은?

성별	날씬	보통	뚱뚱	기타
남학생	8%	92%	0%	0%
여학생	10%	86%	3%	0%
전체	10%	88%	3%	0%

설문16. 당신이 가상세계에서 원하는 여자교사의 체형은?

성별	날씬	보통	뚱뚱	기타
남학생	44%	53%	0%	3%
여학생	26%	72%	2%	0%
전체	30%	67%	1%	1%

3.9 가상현실에서 학습자들이 원하는 남녀 교사의 옷차림새

설문17. 당신이 가상세계에서 원하는 남녀 교사의 옷차림새는?

성별	정장 차림	캐주얼 차림	야외복 차림	체육복 차림	기타
남학생	28%	64%	6%	3%	0%
여학생	42%	57%	0%	1%	0%
전체	39%	59%	1%	1%	0%

3.10 가상현실에서 학습자들이 원하는 남녀 교사의 연령

설문18. 당신이 원하는 남녀 교사의 연령은?

성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기타
남학생	58%	28%	6%	6%	0%	3%
여학생	44%	56%	1%	0%	0%	0%
전체	47%	49%	2%	1%	0%	1%

3.11 가상현실에서 원하는 남녀 교사의 자세

설문19. 당신이 원하는 남녀 교사의 자세는?

성별	서있는 자세	움직이는 자세	앉아 있는 자세	교탁에 기댄 자세	기타
남학생	22%	64%	11%	3%	0%
여학생	44%	44%	2%	9%	1%
1전체	39%	49%	4%	7%	1%

3.12 가상현실에서 학습자가 원하는 학습 공간

설문20. 당신이 희망하는 공부 장소는?

성별	강의실	레스토랑	콘서트장	공원	하늘나라	체육관	강당	구름위	바닷가	산속	평원	기타
남학생	58%	0%	3%	8%	11%	6%	0%	3%	0%	3%	6%	3%
여학생	50%	1%	1%	8%	3%	2%	2%	8%	7%	12%	0%	9%
전체	52%	1%	1%	8%	5%	3%	1%	7%	5%	10%	1%	7%

4. 교육콘텐츠 제작

선호하는 교사의 성별, 교사의 인종, 교사의 헤어스타일, 교사의 얼굴형, 교사의 눈빛과 표정, 교실활동 시의 교사의 멘트, 교사의 목소리, 교사의 체형, 교사의 옷차림새, 교사의 연령, 수업 시 교사의 자세, 학습 공간의 다양성을 구축

5. 결론

설문 1. 당신이 가상세계에서 원하는 교사의 성별은? 남자 54%, 여자 46%
설문 2. 당신이 가상세계에서 원하는 교사의 인종은? 황인종 61%
설문 3. 가상세계에서 원하는 남자 교사의 헤어스타일은 무엇입니까? 댄디컷 39%
설문 4. 당신이 가상세계에서 원하는 여자 교사의 헤어스타일은? 굵은 웨이브펌 31%
설문 5. 당신이 가상현실에서 원하는 남자 교사의 얼굴형은? 둥근 얼굴형 69%
설문 6. 당신이 가상세계에서 원하는 여자 교사의 얼굴형은? 둥근 얼굴형 83%
설문 7. 당신이 가상세계에서 원하는 평소 교사의 표정은? 웃는 얼굴 90%
설문 8. 가상현실에서 대답을 잘했을 때 원하는 교사의 눈빛(표정)은?행복한 눈빛 65%
설문 9. 가상현실에서 대답을 잘 못했을 때 원하는 교사의 눈빛(표정)은? 지켜보는 눈빛 46%
설문10. 가상현실에서 대답을 잘했을 때 원하는 교사의 멘트는? 적절한 칭찬 71%
설문11. 가상현실에서 대답을 잘못했을 때 원하는 교사의 멘트는? 유감 표명 52%
설문12. 가상현실에서 원하는 남자 교사의 목소리 유형은? 중저음-바리톤 89%
설문13. 가상현실에서 원하는 여자 교사의 목소리 유형은? 중저음-메조소프라노 85%
설문14. 당신이 가상현실에서 원하는 남녀 교사의 목소리 상태는? 친절한 목소리 76%
설문15. 당신이 가상세계에서 원하는 남자 교사의 체형은? 보통 88%

설문16. 당신이 가상세계에서 원하는 여자교사의 체형은? 보통 67%
설문17. 당신이 가상세계에서 원하는 남녀 교사의 옷차림새는? 캐쥬얼 59%
설문18. 당신이 원하는 남녀 교사의 연령은? 30대 49%
설문19. 당신이 원하는 남녀 교사의 자세는? 움직이는 자세 49%
설문20. 당신이 희망하는 공부 장소는? 강의실 52%
☞다양성을 고려한 학습 콘텐츠 제작

【 Abstract 】

A Plan for Finding the Possibility of Japanese Language Class Activity based on Virtual Reality (VR)

Cheon, Ho-Jae(Keimyung University)

This presentation has two purposes. One is to analyze leaners's needs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if there is a Japanese language class in virtual reality. The needs are described as follows: 1) sex of favoured teachers, 2) races of teachers, 3) teachers' hair styles, 4) teachers' facial forms, 5) teachers' look and facial expression, 6) teachers' comments in class activity, 7) teachers' voice, 8) teachers' body type, 9) teachers' outfit, 10) teachers' age, 11) teachers' attitude in class, and 12) learning space. The other is to provide significant information to future learning contents producers on the basis of the Japanese language learners' needs revealed in this presentation.

カラ～コロ及びクル系派生オノマトペの意味変化に関する考察

竹下知佳*·崔建植**

1．はじめに

オノマトペ研究において、類義語の意味の相違をいかに書き表すかという命題は常に高い関心が持たれている。田守育弘(1999)の纏めたオノマトペ標識の違いや清濁交替による意味の相違はもちろん、中里理子(2002)や久保香珠(2014)に見られる、特定の語基から派生したオノマトペ(や動詞)の意味変化に関する研究、「へとへと」と「くたくた」のような異なる形態の類義オノマトペのペアを多数取り上げ、意味の違いや程度の強弱まで判定する試みを行った小野正弘(2018)など、興味深い研究は数多くある。

その一方で、カラカラとコロコロのように互いに母音交替関係にあり、意味の上でも類似するオノマトペのペアを取り上げ、その意味の関連性を明らかにしようとする試みはあまり行われていない。もちろん、阪倉篤義(1966)や浜野祥子(2012)のように語構成研究の中で取り上げられることはあったが、二語の意味の関わり合いの検討に加え、通時的観点からそれらの意味の変化を辿るというアプローチは、現在まで疎かにされてきた感がある。しかし、実際の言語活動を振り返った場合、類似する形態を有しており、且つ意味の面でも重なる部分があるにも関わらず、全く同じようには使えないというペアの方が、外国人日本語学習者にとって使い分けの困難な、紛らわしい語と言え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筆者はこれまでに、母音交替関係にある類義オノマトペのペアを取り上げ、その意味の核(コアイメージ)を上代文献に求め、そこから意味拡張を辿るという考察を行ってきた。その際注目したのは、上代語に多く見られる、母音交替によって新たな語を生み出すという造語法と、それによって派生した語同士の「等価的交替関係」という概念である。今回もこれらの概念を基盤に、上代文献に現れる母音交替関係にある語基カラ～コロから派生するオノマトペの意味変化について考察していく。

特に本稿では、現代語における意味と古典文献(上代～中世)における意味とを提示して、その共通点と相違点を明らかにすることに重点を置くと同時に、語基カラ～コロと関わりの深い語基クル派生オノマトペについても言及する。用例は主に国文学研究資料館ホームページ内の「日本古典文学大系本文データベース」から抽出し、適宜岩波書店『日本古典文学大系』(以下、「大系本」)で本文を確認した。

2．語基カラ～コロ及びクル系派生オノマトペの現代語における意味

本稿で取り上げる語基カラ～コロ及びクル系派生オノマトペの最も代表的な形態は、語基反復形である

* 釜慶大学校 日語日文学部 非常勤講師
** 釜慶大学校 日語日文学部 教授(C.A)

カラカラ、コロコロ、クルクルであろう。現代語において三者はどのように用いられ、使い分けられているのであろうか。下記の<表1>はNLB[1]を元にコロケーション調査を行い、共起する頻度の高いものから順に整理したものである[2]。

〈表1〉カラカラ·コロコロ·クルクルと共起する動詞

カラカラ			コロコロ			クルクル		
∅	～と	～に	∅	～と	～に	∅	～と	～に
(乾燥)	笑う	乾く	変わる	笑う	切る	回る	回る	なる
鳴る	鳴る	なる	する	転がる	焼ける	回す	巻く	包む
笑う	回る 音を立てる 音がする	渇く 干からびる	転がる	変わる		する	回す	
音がする		干上がる するかわく	変える	転がす		巻く	回転する	
		転がす	変える	変わる		変わる	丸める	

<表1>を見ると、カラカラは助詞が接続しないか「と」を伴う場合に「笑う」や「鳴る·音がする」など音に関わる語と多く共起するのに対し、「に」を伴う場合は「乾燥」に関わる語と共起することが多いということに気付く。またコロコロは「変わる · 転がる」という動詞と、クルクルは「回る」動きに関わる動詞と共起しやすいが、広く見渡すといずれの語にも「回転」という意味が存在していることが見て取れる。『日本語オノマトペ辞典』の「ものが回転するようす」に関するコラム(p.50)でも、上記三語の濁音形オノマトペであるガラガラ、ゴロゴロ、グルグルの使い分けについて言及されており、語基カラ～コロ及びクル系派生オノマトペはいずれも「回転」の意味を有すると言ってよいであろう。

ではこれらの意味はいつ頃現れ、分化し、各々どのように関係し合って現代に至るのであろうか。次章では上代から中世までの語基カラ～コロ·クル派生オノマトペについて見ていくことにする。

3. 語基カラ～コロ及びクル系派生オノマトペの古典文献における意味

3.1. 上代文献における語基カラ～コロ及びクルのコアイメージ(意味の核)の検討

先に、語基カラ～コロ及びクル系派生オノマトペは上代文献より現れると述べたが、まずは古事記に見られる以下の用例から検討する。

(1) 故、鈎を以ちて其の沈みし処を探れば、其の衣の甲に繋かりて、訶和羅[3]と鳴りき。(記·中巻〔大山守命〕)
(2) 塩許々袁々呂々迩画き鳴して (記·上巻〔国生みの段〕)

---

1) NINJAL-LWP for BCCWJ(以下、NLB)は、国立国語研究所(以下、国語研)が構築した『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Balanced Corpus of Contemporary Written Japanese : BCCWJ)を検索するために、国語研とLago言語研究所が共同開発したオンライン検索システム。
2) <表1>では共起する動詞のうち、頻度3以上のもの上位5位までを抽出し、NLBの区分に従い、助詞を伴わないもの(∅で表示)、助詞「と」を伴うもの、助詞「に」を伴うものに分けて纏めている。ただし補助動詞と共起する例については除外し、出現頻度が同じ場合は同じマスに含めた。またカラカラは、助詞を伴わない場合「太陽は容赦なく照りつけ、喉はカラカラ、目はかすんで朦朧としている。」(『博士の愛した数学』)のように動詞を伴わない形で現れる例が最も多く、いずれも乾きを表すものであるため、ここでは任意に「(乾燥)」という表記を用いた。
3) 用例中の下線は筆者が施したものである。実線は該当オノマトペ(或いは語基派生語)、波線はオノマトペと意味上関わりのある語を指す(以下同様)。

『岩波古語辞典』によると、カワラは'コヲロの母音交替形」であると記されており、カワラ～コヲロはいわゆる等価的交替関係にあると考えられる[4]。ところが、これまでの先行研究において示されたカワラとコヲロの意味記述を見ると、両語に共通する意味を見出すことが難しく、両者を同じコアイメージ有する等価的交替関係にあると捉えてよいのか、という疑問が生じる。

例えば、これまでの研究によると(1)のカワラは'訶和羅とは、甲に鈎の触て鳴たる音を云なり、…」(記伝三十三之巻)、'大山守王の屍を川から引き上げる時、鈎が其甲にかかつてカワラと音した…」(『日本古語大辞典』)など'固い物の触れ合う音」という意味を有するとされている。これは下記(3)の琴歌譜に現れるカワラにおいても同様である。

(3) 天人の 作りし田の石田は いなゑ、石田は 己男作れば かわらとゆらと鳴る…（琴歌譜・雑歌）

一方、(2)のコヲロは記伝の'彼ノ矛以て迦伎賜ふに随ひて、潮の漸々に凝ゆく状なり」という解釈の影響を受けてか、'潮をコロコロと撹き廻して、凝り固まらせる意」(次田潤1927:28)、'擬声語で海水を撹きまはす時の音」(倉野憲司1974:83)のように'海水をかき回し、凝り固まらせるさまやその音」という意味に解釈されてきた。(2)は後続する'画き鳴す」から音を描写する語であると想定できるが、海水という液体をかき回す際に立つ音がコロコロであること自体に違和感があり、ましてそれが次田(同上)の述べる'恰も葛粉に熱湯を注いで、撹きまぜて葛湯を作る時などの所作を連想した」(p.28)ものであれば、なおさらコロコロという音からかけ離れてしまう。むろん、カワラの意味とも重なりが認められない。一体コヲロコヲロはどのような意味を表しているのだろうか。

これに関しては荻原浅男(1977)の考察が、興味深い示唆を与えてくれている。荻原氏は、瀬戸内海にある家島(オノゴロ島であるという説がある)で発見された師楽式土器による製塩の工程における、'藻塩から作った濃い鹹水をこの土器の中で、棒状のものを使ってかき回しながら煎つめて結晶させる。その時に発する鹹水の擬声語」(p.6)がコヲロコヲロではないかと述べている。つまりコヲロコヲロは'土器の中でかき混ぜられた固い塩の結晶が触れ合って生じる音」を表しており、この意味を介してカワラとコヲロの間には等価的交替関係が認められると言えよう。

ところで上代文献には、コヲロと同じ語基コロ派生語として(4)のようなコロロクという動詞が現れる。

(4) …宇土多加礼許呂々岐弖、此の十字は音を以ゐよ。(記・上巻〔黄泉国〕)

(4)は'蛆が集まり声がむせびふさがっての意」(大系本『古事記祝詞』p.64)、'膿などが流れて、ごろごろになつて居る様」(次田1927:59)、'コロコロと転がりうごめいている様子」(新編全集本『古事記』p.45)など様々な解釈がなされている。しかし先の(2)で見たように、コヲロコヲロが'土器の中でかき混ぜられた固い塩の結晶が触れ合って生じる音」だとすると、同じ語基から派生したコロロクは、その音が発せられるための動きやその状況全体を描写していると言えるのではないか。むしろ語基コロ自体が、語基カラのような聴覚的な意味合いよりも、そのような音が生じる状況、ここで言うなら塩のように丸く小さなものが重なり合って動くさまに焦点を当てた、視覚的な意味合いの強い語基であったのかも知れない。つまり語基コロは'固いもの

4) そもそも論として、カワラ～コヲロが語基カラ～コロの派生語であると言えるのか、という点が問題として挙げられる。なぜなら、これらはオノマトペの基本形態、すなわち語基＋オノマトペ標識という形態から外れており、また上代の形状言の語構成的見地から語基カワ～コヲに接尾辞ラ、ロが接続したものと見る説もあるからである(工藤力男1980:29など)。しかし『日本古語大辞典』では、コヲロコヲロが'コロコロを伸べてコーロコーロとしたのであろう」と記されており、また『岩波古語辞典』においても、カワラには'《コヲロの母音交替形》固いもののふれあう音。からから。がらがら」、コヲロには'液体をかきまわして、凝り固まらせる時の音。ごろごろ。」と、現代語のカラ～コロ系派生オノマトペに通じる意味が見受けられることから、本稿ではカワラ～コヲロを語基カラ～コロより派生したオノマトペであると見なして論を進める。

が触れ合う音」という聴覚的意味の他に、視覚的意味として'小さな粒状のもの」という形状や、それらが触れ合う'回転」という動的意味を含んだ語であると捉えることができよう。そしてこの'回転」の意味は、次の(5)に現れる語基クル派生オノマトペ、クルルにも通じるのである。

(5) 乎謀苫留留爾其の左の髻に纏かせる五百箇の統の瓊の綸を解き（神代紀上）

(5)のクルルは'纏かせる」という語と共起することから'回転」の意味を有していると想定でき、この点から語基クルとコロが'回転」という視覚的意味において関連性の認められる語同士であることが言える。更に、この意味が現代語に至るまで保たれている点にも注目すべきであろう。

3.2. 中古・中世文獻における語基カラ～コロ及びクル派生オノマトペの意味

前節で語基カラ～コロに'固いものが触れ合う時に発する音」という共通するコアイメージがあり、また語基コロとクルにも'回転」という共通の意味が認められることを指摘したが、これらの意味は中古以降どのように変化するのであろうか。本節では中古から中世にかけての文献に見られる語基カラ～コロ及びクル派生オノマトペを中心に考察する。まず、カラカラの中古文献における用例から見ていく。

(6) おしあけ方の月影に、法師ばらの閼伽たてまつるとて、からからと鳴らしつつ、…(源氏物語・賢木)
(7) …馬ノ走テ行鐙ノ、人モ不乗音ニテカラカラト聞ヘケレバ、…(今昔物語集・巻第二十五)
(8) …此兄ト弟ト、俄ニ取組テ、カラカラト上ニ成リ下ニ成リ為ルヲ、…(今昔物語集・巻第二十七)

(6)は花皿を洗って重ねる時の音、(7)は馬の鐙が立てる音であり、いずれも上代文献に見られる聴覚的意味から逸脱してはいない。しかし用例(8)は大系本『今昔物語集四』にて'今のバタンバタンに類する擬態語」(p.494:脚注60)と解釈されており、上の二例とはその意味を異にしているように見える。ただ、兄弟が取っ組み合い、もつれて転がり回る描写において、語基カラが聴覚的側面を表すことを考えると、(8)は'転倒」という一種の'転」の意味合いを有する擬音語的なバタンバタン、すなわち'転」と'音」というイメージを介したメタファー的な意味拡張の例であると捉えることが出来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中世文献においても、カラカラは主に聴覚的意味を表し、(9)のように固いもの同士の立てる音(ここではかみ砕く音)を描写した例などが見えるが、主な用法は(10)のような笑い声の描写である。

(9) こめをうちくくみて、ことに歯音よげに、からからとくひけり。（古今著聞集・巻第六）
(10) 快実是ヲ見テカラカラト打笑テ、…(太平記・巻第二)

『日葡辞書』においてもカラカラは'大笑いするさま」とあり、中世、カラカラは笑い声を表す語として定着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固いものが触れ合って鳴る音」と'大きな笑い声」との関連性については更なる検討が必要だが、同時に、同辞書のガラガラの項には'振鈴,鈴,将棋の駒,胡桃(くるみ)などの鳴る音の形容」とあり、カラカラの意味がガラガラの方に転移していることが読み取れる。中世文献にはガラメクという動詞も現れるが、これも本来カラカラが持っていたニュアンスを残したものと言えるだろう。

(11) 我も脱ぎ置かばやと思ひけるが、脱げば災を除くに似ると思ひ、履きながらがらめかしてぞ上りけり。（義経記・巻第三)

次に、語基コロ派生オノマトペの用例について検討する。実は本稿の調査においては、中古文献において語基コロ派生オノマトペの用例を抽出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また『日葡辞書』の見出しにも、語基コロ派生動詞コロブを中心とした複合動詞などは見えるがコロコロのようなオノマトペはなく、語基コロ派生オノマトペが中古から中世にかけてさほど一般的な語彙ではなかったことが伺い知れる。それでも本調査では、中世文献においていくつかの用例が抽出でき、それらは用例(12)のコロコロ、或いは(13)のコロリのように、いずれも上代文献に見られた'回転」の意味を保っ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た。

(12) …投げあげたれば、一たまりもたまらず、ころころと転(ころ)び落ち、雨落ちの石のたたきにどうど落つ。(義経記・巻第三)
(13) …力にまかせて前へ エイと引いたならば、首がころりとおちて そのまま死ぬるであろう。(女狂言・鎌腹)

上の二例から語基コロは'回転」の中でも、回りながら下方に移動する'転がる」ニュアンスを持っていることが分かる。特に(13)のコロリは、狂言や歌謡のような口語資料に多く現れる点でも特徴的であり、コロコロより軽く一回性の動きを表している。また(14)のようにカラリを伴う場合は、主に櫓を漕ぐ際に木が触れ合って立てる音(唐艫の音)という聴覚的意味を表す。

(14) 又湊へ舟が入(る)やらう、からろのをとが、ころりからりと。(閑吟集137)

では、語基コロと同じく'回転」の意味を有する語基クル派生語はどうであろうか。中古文献の用例(15)のクルクル及びクルベクは前述の語基コロ派生語とは異なり、コマが軸を中心に'回る」という意味を表していることに気付く[5]。他方、用例(16)のクルクルは'滞りのないさま」という意味で用いられているが、これは語基クルの持つ'回転」の勢いよく回るさまから拡張したものと推測される。

(15) …寂照ガ前ナル鉢、俄ニ狛鷸ノ如ククルクルト転(クルベ)テ、…(今昔物語集・巻第十九)
(16) …男も女も、くるくるとやすらかに読みたるこそ、あれがやうにいつの世にあらんとおぼゆれ。(枕草子・一五八)

中世文献においても、クルクルは(17)の'まく」という動詞と共起する例のように、軸を中心とした動きを描写する。また用例(18)のように急ぎ立ち回るさまを表すクルメクという動詞も見えるが、これは中古文献に見られたクルクルの'滞りのないさま」という意味が更に拡張したものであろう。

(17) うるはしくは、ただくるくるとまきて、上より下へ、わなの先をさしはさむべし…(徒然草・第二百八段)
(18) この女、暁たたんまうけなどもしにやりて、いそぎくるめくがいとほしければ、…(宇治拾遺物語・一〇八)

---

5) 興味深いのは、中古文献(15)で'クルクルト転(クルベ)テ」と読まれていた'転」が中世文献(12)において'ころころと転(ころ)び落ち」という読み方に転じている点である。前述の通り、上代文献において語基コロとクルは'回転」の意味において繋がりが認められたが、万葉集には'転」をマロブと訓する'展転(こいまろ)び 恋ひはしぬとも いちしろく 色には出でじ 朝貌の花」(巻第十・2274)のような例も見受けられる。このマロブは中古文献においても'『今宵呼びもて去なむずるにこそあめれ』と涙を流してふし転び給ふ。」(宇津保物語・国譲下)のように用いられ、やはり'回転」の意味を有している。ここから、中古文献において語基コロ派生語がさほど一般的ではなかった理由を、マロブとの関係から考えることもできるが、これは本稿の要旨から外れるためここではこれ以上の言及は避ける。

4. まとめ

本稿では、上代文献に現れる母音交替関係にある語基カラ～コロ及びクル派生オノマトペの意味変化に関する考察の足掛かりとして、語基カラ～コロ及びクル系派生オノマトペの現代語における意味と古典文献(上代～中世)における意味とを比較し、その共通点と相違点について考察した。

まず、上代文献においては語基カラ～コロが'固いものの触れ合う音」という意味において等価的交替関係にある一方、語基コロとクルとの間にも、現代語にも通じる'回転」の意味を介して繋がりが見出だせた。このことから、語基コロは音を表す聴覚的意味の他に、視覚的意味として'小さな粒状のもの」という形状的意味と'回転」という動的意味とを内包していると言える。

さて、上代から聴覚的意味を担っていたカラカラの意味は中古においても継承されるが、中世に至り'固いものの触れ合う音」という意味はガラガラに譲り、カラカラ自体は笑い声を表す語として定着する。

他方、中古文献における語基コロ派生オノマトペの用例は、本稿の調査においては抽出されず、中世文献に'回転」の中でも特に回りながら下方へ'転がる」という意味で現れる。また、語基コロ同様'回転」の意味を有する語基クルは、中古文献において軸を中心にした'回る」動きを表しており、その勢いよく回るさまから'滞りのないさま」、更に中世には'急ぎ立ち回るさま」という意味にまで拡張していく。

本稿では紙面の関係上、提示する用例に限界があり、また近世から現代に至るまでの各語基派生オノマトペの意味変化についても、今後検討していかねばならない。これらは次回の課題として引き続き考察していくことにする。

参考文献

1. 辞書類

大野晋他編(1982)『岩波古語辞典』岩波書店

小野正弘編(2007)『擬音語・擬態語4500 日本語オノマトペ辞典』小学館

土井忠生他編訳(1980)『邦訳日葡辞書』岩波書店

松岡静雄(1970)『日本古語大辞典 語誌篇(復刻二刷)』刀江書院

2. 論文/単行本

大野晋(1968-1974)『本居宣長全集』(第九巻～第十二巻) 筑摩書房

荻原浅男(1977)'『塩こをろこをろに』考 『古事記』の旅から」『駒沢短大国文』vol.7 駒沢大学 pp.1-7

小野正弘(2018)『くらべてわかるオノマトペ』東洋館出版社

久保香珠(2014)'平安時代の『スク』語幹語彙の語義比較小考—スクム・スクヨカとスクスク(ト)・スクスクシー」『学習院大学人文科学論集』23号 学習院大学大学院人文科学研究科 pp.67-99

倉野憲司(1974)『古事記全註釈 第二巻』三省堂

阪倉篤義(1966)『語構成の研究』角川書店

田守育弘/ローレンス・スコウラップ著(1999)『オノマトペ—形態と意味—』くろしお出版

次田潤(1927)『古事記新講(増訂九版)』明治書院

中里理子(2002)'オノマトペの多義性と意味変化—近世・近代の『まじまじ』を例に」『上越教育大学研究紀要』第22巻 第1号 上越教育大学 pp.268-282(右11-25)

浜野祥子(2012)『日本語のオノマトペ 音象徴と構造』くろしお出版

山口佳紀他校注・訳(1997)『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一 古事記』小学館

【 Abstract 】

On Semantic Changes of the Onomatopée with the derivation of *kara*, *koro* and *kuru*

Takeshita Chika · Choi, Kun-Sik(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diachronically deals with semantic changes of the onomatopée with the deribation of *kara* ,*koro* and *kuru*.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meanings in modern languages and the meanings in classical literature (from the Ancient to the Middle Ages), and discussed the common points and the differences.

In the Ancient Japanese, the adjectival base *kara* and *koro* has the core meaning of "sounds of hard objects touching". *koro* also has the meaning of "to rotate" like *kuru*.

kara originally depicted 'sounds of hard objects touching', which was semantically extended to 'a big laugh' in the Middle Japanese. On the other hand, *kuru*, whose core meaning was 'to rotate', was semantically extended to 'Speaking smoothly' and further to 'moving in a hurry'. *koro* also has the meaning of 'to rotate'. However, it is a meaning derived from the adjectival base *kuru*. Both of them differentiated from the originally meaning of 'to rotate', *kuru* became the meaning of "spining", and *koro* took on a different meaning of "rolling".

Section 3

日本學

「解放の学力」論を考案した中村拡三(なかむら・こうぞう, 1923-2002)の教養
-和歌山県新宮市と奈良県吉野郡の教育に関する文章から考える- / **岡本洋之**

일본의 출산율 향상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 **吳美喜**

「無用の苦しみ」はいかに裁かれたのか
-日本の安楽死裁判から考える「自己決定」をめぐる論争- / **牧田満知子**

死んだら終わりなのか -情報科学の観点から- / **湯瀬晶文**

모노즈쿠리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殷慶基, 金珍基**

총력전체제기의 기혼여성의 노무동원과 육아의 사회화 / **金慶玉**

일본 서국 삼십삼 관음영장 순례의 현재적 의의 / **金容儀**

農村振興運動期における農業補習学校改変の地域的展開と朝鮮農民の反応 / **小谷稔**

하타씨와 야와타신(八幡神)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 **崔景振**

渡党に関する一考察 / **金子哲**

에도시대 서민문화 속 우키요에와 호리모노 / **鄭智熙**

「解放の學力」論を考案した中村擴三(なかむら・こうぞう, 1923-2002)の教養

- 和歌山縣新宮市と奈良縣吉野郡の教育に關する文章から考える -

岡本 洋之(兵庫大學)

1. 本研究の目的と方法

中村拡三は, 戦後日本の同和教育における'解放の学力」論を考案した人であり, 発表者は, 彼が同和教育指導者のなかでは早くから子どもの人生設計の多様性を重視していたのではないか, またその基盤として, 大正デモクラシー期に彼の故郷・長野県で花開いた, 教養を楽しむ風潮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 という仮説をもっている。

1955(昭和30)年ころ, 中村は部落問題研究所員として和歌山県新宮市の被差別部落の調査に携わるとともに, 同年秋には小学校教員に転じて奈良県吉野郡中荘村(現・吉野町)に赴任する。本発表は, すでにこの時期に彼が, 単に社会的・経済的差別の撤廃を目指すだけでなく, 教養としての知をもとうと努めていたこと, そしてその姿勢から, 社会に対する彼の姿勢を読み取ることを目的とする。方法としては, このころの両地域における社会情勢の動きをふまえ, 彼の文章を読み解く。

なお本研究の着想のヒントになったのは, 後年, 解放教育研究所において中村とともに同和・解放教育理論の指導者となる横田三郎(1923-2010)が, 中村没後に書いた追悼文である。横田は「一度だけ, 彼［中村］を大いに怒らせたことがある。それは或る人(故人)について私が厳しい思想的批判をした時である。彼はその人を大いに尊敬していたので, 非常に腹を立て, 私に, 『謝れ』とまで言った。私が謝らなかったので, 二人の間に険悪な空気が流れた」という(横田, 桂他編, 2016年, 463頁)。

'或る人」が誰なのかはわからない。しかし横田(1963年7月, 42-43頁)が'御用学者」と名指しで攻撃した一人である高坂正顕(1900-69)は, すでに1930(昭和5)年には諏訪でスピノザのエチカ講義をしたのをはじめ, 太平洋戦争中も長野県に足を運んで教員らに向け講演をし, 敗戦直後には東筑哲学会の指導者を引き受けるなど, 戦前・戦後を通じて同県の教員らと積極的に交流し, 彼らとの信頼関係をつくっていた(長瀬, 1974年, 72-73頁)。長野県東筑地域(塩尻市)出身で, 同県で小学校教員の経験ある中村は, おそらくそのような事実を評価せぬ横田の高坂批判を聞いていられなかったのではないか。またそうだとすると, マルクス主義以外の思想を自らの糧にしようとしなかった横田とは異なり, 中村は種々の思想を学んで積極的に自分の知の世界を広げ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のである。

2. 中村に関する先行研究と本研究の関連

中村の思想の変遷についての先行研究には, 板山(2013年)がある。彼は, 中村が学力について検討し

はじめた時点から'解放の学力」論成立までを次のように述べる。

'解放の学力」論の成立過程である1950-60年代の20年間を見ると，中ほどの60年前後は，勤務評定や全国一斉学力調査への反対闘争等において部落解放運動が重要な役割を果たした時期である。中村らは奈良県で同和教育副読本『なかま』を発行し，彼の思想に変容が見られる。そこでおおよそ50年代と60年代に区分して考察できる。

1950年代の中村は，学校で生起していた部落問題(被差別部落の子どもの低学力と差別事件の発生)の解決をターゲットとし，'教育による，学校内部の人間関係の変革」を目的としていた。彼の思考対象は，'『部落／部落外』双方の子どもの変革」であった。

1960年代になると中村は，運動による社会の排除構造の変革という，政治次元での課題群へとターゲットを移し，部落の子どもが'解放の自覚」に基づいて，学校外における子どもの運動体である'子ども会」を足場として，子ども自身が要求を出して教育条件整備等の運動を進めることを目的とするようになる。彼の思考対象は，'部落の子どもの『解放の主体形成』」となった。

そして1950-60年代を通し，(1)生活綴方的教育によって子どもたちに生活実態を見つめさせ，そこから社会矛盾に気づかせる(解放の自覚)，(2)狭い個人・人間関係レヴェルの問題を，広い社会関係の問題へとつなぐ意味で'社会関係のあり方や自然の法則を身につける教育」を行う(教科指導)，(3)部落の子どもがもつ，社会の不正に対する'抵抗感」(中村の造語)に共感した部落外の子どもが自分の差別意識を克服し，両者が集団の中で生活そのものを高めていくような教育を行う(集団づくり)，の3点はほぼ一貫していた。

本研究は板山稿に学びつつ，このうち1950年代の中村の思想形成について，それが新宮市における調査と吉野郡における教員生活に大きく影響され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問いを立て，両地域における戦後経済の動き，とくに林業を取り巻く環境の変化をふまえてそれを解きたい。

3. 新宮市での調査をめぐって

1955(昭和30)年，部落問題研究所に所属していた中村らは，同研究所の調査事業の一環として和歌山県新宮市を訪れ，市内6校の学校教員約80名の力を借りて，被差別部落住民の生活と責善教育(戦後和歌山県における同和教育の呼称)の現状を調べた。

当時の同市の小・中学校の責善教育は，それに熱心に取り組む学校から，教師が'部落の子どもの親の顔もほとんど知らない。まして，家庭訪問などしたことがない」という学校まで，大きな温度差があった。このため中村らは，調査の実を上げ，かつ取り組みが低調な学校の教師も参加できるよう，おおむね'子どもの家庭における学習はどうか」，'友人関係，家の手伝い等はどうか」，'教師に対して父兄［ママ］は何を望んでいるか」，'家族の生活(職業，家族構成，経済)はどうか」等々の調査項目を設けた。そして綴方教育の蓄積を生かし，生活の現状を反映した子どもたちの作文も集められた。

また中村らは，調査に対する被差別部落住民の協力を得るため，ひざ詰め集会を頻繁にもち，調査について住民に説明した。ちょうど前年の12月に近隣の東牟婁郡勝浦町(現・那智勝浦町)で警官が同町の部落住民に対して暴言・暴行を伴う差別事件を起こし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同町のいわゆる部落の'ボス」がこれを放置したため，新宮市の部落住民間に不満と怒りがたまっていたこともあり，中村らの調査は住民に快く受け入れられた。

調査では，多くの家庭の経済的貧困，そのなかで子どもたちが市内の製材所に木くずを拾いに行く'薪集め」のため登校できない現実，経済的・時間的余裕がない親の生活からくる家庭内での不和と暴力，親が家を空けている間に子どもが集団をつくって街を徘徊する現実等が明らかになった。また子どもたちの作文か

らは，「学習に不熱心な子どもでも，［親に対し］内部にもえるような怒りをもっ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多くの子どもたちは，貧困のために薪をぬすみにゆき，また家庭が破壊されているなかで，その人間性をすっかり歪められてきている。だがそれにも屈せずにのびている子どもたちがいることも事実である。その家庭は，いわば『教育に理解のある家庭』であるが，この理解というものは何であるのか。理解のある親というのは，どのような生活をしているのか，親の生き方はどのような生き方であるのか」。中村らはこれを討議した結果，望ましい親の生き方は「子どもと共に悩み，語り，共にのびようとする」ものであり，それが子どもたちの怒りを「社会に対する批判と抵抗として育ててゆく」のだと小括し，そこから「何よりも正しい解放運動をすすめなければならないであろう。解放運動とは，ゆがめられた社会関係に対する抵抗以外の何物でもないからであり，それは当然，親たち自身の人間変革をともなわないではいない。この解放運動＝人間変革が一方では，子どもたちの教育を前進させ，他方では，子どもたちに学用品を与え，教科書を与え，やがて，子どもたちの薪拾いをも解決してゆく道である」という結論に達する(以上，中村，1973年，93-109頁)。

文中の，上記ひざ詰め集会に関する記述に「各地の解放運動の動きと解放された中国の経験には討議が最も集中された」，中国で「民族の解放と共に丹民［ママ］も解放されてきたという歴史的事実は，解放への確信をいっそう強くしたように思われた」とあること(同書，99頁)から，この「ゆがめられた社会関係に対する抵抗」としての解放運動は，社会主義革命につながるものと考えられたことは間違いない。

しかし中村の文章は，解放運動が大切だというスローガンを唱えてハッピー・エンドにするプロパガンダではない。末尾には調査への反省の弁が述べられているが，それにもまして注目すべきだと思われるのは，冒頭に「新宮というところ」という節が設けられ，かつて木材の一大集積地として新宮市の果たした役割が1952-54(昭和27-29)年に急速に衰退していることが，新聞記事から統計を引用してまで丁寧に示されていることである。そこでは，かつて当地の人々が「関西の江戸っ子」と呼ばれたことや，戦前に熊野川のいかだ師たちが鴨緑江にまで遠征したことにも触れられ，さながら教養講座のようである。

これに続く，本論の始まりともいうべき次節「部落のすがた」では，最初の文中に「約二〇〇戸に及ぶここの未解放部落は，木材とは，直接関係がなかった。いや，木材からは，はねのけられていたという方が正しいかもしれない」とされ，「新宮市に集まる木材の減少は，山林労働者，いかだ師の仕事を極度にきりつめ，そこからあふれた労働者が，これまで部落の主業であった土木労働にくいこんできた」と要点を突いた説明がされているため，一見すると冒頭の節はなくてもよいように思われる。

だが「前途の暗い新宮」を説明する冒頭の節があるからこそ，文章は書き出しからやや重い。そこには読者に対し，解放運動にとにかく結集しさえすればよいという単純化された結論にひたることを許さない中村のメッセージが込められ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しかもそこに，前述のような教養講座的内容があるところを見ると彼は，大切なのは安易な処方箋ではなく，広範な知識だとも言っているようである。

4. 奈良県吉野郡での教育実践をめぐって

部落問題研究所が新宮市で調査を行った直後，同研究所内では日本共産党員登録をしていた者と，そうでない中村らとの間に確執が生じ(平野，2002年12月，65-66頁)，彼は研究所を去って1955(昭和30)年11月から奈良県吉野郡中荘村の中荘小学校で教壇に立った。校区に被差別部落はなかったが，そこは貧しい家庭の多い山村であった(中村，1975年，464頁)。教室内はケンカが絶えず，一方で元気がない子どももいる。毎日家庭訪問をして保護者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とるなかで，「問題はやはり彼らの生活そのものにある。［中略］加えて，親たちの性格，意識にまでも関係している」(同書，30頁)と気づいた中村は，生活綴方を採り入れる。彼は，家庭の様子も含めて子どもたちに日記を書かせ，そのわずかな一言にもコメ

ントを書き，また家庭を訪問する。

やがて子どもたちが変わってきた。「人の立場や言動も一層深くみるようにもなってきた。学級のなかでは，まず目の色がかわってくる」。話し合いに加わらなかった子どもは，「片言でも発言をもとめるようにさえなった。家庭の生活の変化は，学級の集団生活をも高めてきた」。そして子どもたちの学力も向上してきた(同書，31頁)。

しかし夏休みに，生活の乱れた子どもが，事故防止のために定められた校則を破って，保護者が監視をしていない時間に川遊びをし，それにつられて加わった下級生が水死した。子どもに安全を保障することだけでも，たいへんな緊張感が伴う。中村はいう。「彼らが，生活の乱れを彼らの力で立てなおそうとしているが，それだけにまかせておいてよいのか？彼らの生活，とは一口にいっても，親たちの生活は，彼らの顔がめいめいちがうよりもっとちがっている。そのなかの彼らの生活とそこから生まれる意識の形は，ちがうのが当然だし，そのおのおののちがいによって，生活のあり方をきめてゆかねばならない」(同書，35頁。傍点は岡本)。

傍点の部分は，一人ひとり異なる子どもたちの生活と意識に応じて，その子どもたちの近未来の生活を，教師が介入して指導していかねばならないことを示している。これは，何らかの運動のような定型に子どもを流し込むのではない。そもそも中荘小のあった宮滝の地には，生活を守る社会運動そのものがなかったとみられる。

当時の情勢を見ると，新宮市と同様にここにも林業をめぐる経済環境の変化があった。宮滝は，少なくとも明治末期から大正初期のころは，山林王と呼ばれた北村家の筏師たちが，和歌山に向けて奥郷(吉野川の本流・支流の最上流部)から流してきた筏をいったん係留し，そこよりも下流の上市から来た筏師に引き継いだ場所である。筏師は給料がよく，金遣いも荒かったので(谷，1972年，515，518頁)，彼らのおかげで同地は潤っていたであろう。

ところが中村が赴任したのは，この筏流しが昭和20年代末までにトラック輸送に取って代わられ(同稿，514頁)，寂れてしまった宮滝である。この材木輸送手段の変化に対応して，中荘村よりひとつ吉野川上流の川上村では，川上村山林労働組合が争議を頻発させ，組合員の生活防衛に一定の貢献をした(半田良一・山田良治，1979年，139，142-143，147-148，155-156頁)。しかし宮滝の住民は生活を守ろうにも，闘いようがなかったであろう。中村はこのように絶望的な状況におかれた住民と子どもたちを前にして，孤軍奮闘というべき上述の教育実践を展開したのである。

5. おわりに

本研究はまだ，板山が指摘する1950年代の中村の思想を社会的背景から説明するのに十分な説明をできていない。しかし日本が高度成長に向かうなかで，筏流しからトラック輸送へと木材運搬方法が変わるにつれ，生じた失業者が職を求めて被差別部落住民の生業を脅かした新宮市と，顧客たる筏師を失って経済的困窮に陥った中荘村の両方を，中村が相次いで見つめる立場にいたことは見出せた。中荘村に関しては，中村稿がもともと紙幅の限られた雑誌記事であったためか，林業の変化に関する記述はないが，彼がこの点に気づかなかったとは考えられない。

中村が，社会的運動の基盤を有する人々と，それをもたない人々の両方を見つめたことは，運動さえすればよい，運動は万能だという考え方に，彼が陥ることを防いだのではないか。またいずれの地においても冷静に現実を見つめることができた彼の能力は，ファシズム期にさえも「哲学を勉強しなければ一人前の教員ではない，というような気風があった」(赤羽，1974年，48頁)という長野県で彼が生まれ育ち，師範学校で学び，最初に教員生活を送ったこと，および部落問題研究所で歴史研究の訓練を受け，教養を積んだことからきているのではないか。この点を深めることを今後の課題としたい。

引用·参考文献

赤羽七郎治(1974年)「教員生活断章」,『塩筑教育』第3号, 東筑摩塩尻教育会, 47-50頁, 塩尻市立図書館蔵。

板山勝樹(2013年)「中村拡三の『解放の学力』論成立に関する一考察」,『部落解放研究』, 部落解放·人権研究所, 第199号, 85-96頁。

谷弥兵衛(1972年)「筏流しについて」, 吉野町史編集委員会編(1972年), 514-521頁。

長瀬修作(1974年)「愛―高坂正顕先生をしのんで―」,『塩筑教育』第3号, 72-74頁。

中村拡三(1973年)『解放教育著作集第3巻　解放教育と集団主義』, 明治図書出版。

_____(1975年)『解放教育著作集第1巻　部落解放と教育実践』, 同社。

半田良一編著(1979年)『日本の林業問題―紀伊半島における林業の展開構造―』, ミネルヴァ書房。

_____·山田良治(1979年)「吉野林業における労働問題」, 半田良一編著(1979年), 132-157頁。

平野一郎(2002年12月)「中村かくさんのこと(私記)」, 解放教育研究所編『解放教育』第420号, 明治図書出版, 65-67頁。

横田三郎(1963年7月)「教育における価値観の変遷―戦後の日本について―」, 『現代教育科学』第63号, 明治図書出版, 38-45頁。

_____, 桂正孝他編(2016年)『現代人権教育の思想と源流―横田三郎コレクション―』, 鳥影社·ロゴス企画。

吉野町史編集委員会編(1972年)『吉野町史上巻』, 吉野町役場。

【 Abstract 】

Cultural Knowledge of Nakamura Kôzô (1923-2002) Who Designed the Theory of Academic Ability for Liberation: From His Essays on the Education in Shingu and Yoshino

OKAMATO Hiroyuki(Hyogo University)

This presentation indicates that Nakamura watched both Shingu City where the unemployed seeking their jobs made Burakumin people afraid that they would lose theirs, and Nakashô Village in Yoshino District where people lost rafts men as their customers. Both phenomena happened as the method of transporting woods in Kii Peninsula changed into lorries in the years before 1955. These experiences of Nakamura made him avoid to have a bad idea that people and children should only join a social movement, including a liberation movement.

일본의 출산율 향상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오미희(U1대학교)

1. 서론

20세기 중반이후 많은 선진국들이 동거와 이혼의 증가로 인해 결혼의 감소를 경험했고, 출산율도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OECD 선진국들의 상당 수 국가에서 출산율이 회복되면서 인구 대체수준(2.1명)에 달하고 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노동력 공급의 문제뿐 아니라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비롯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인구 대체선(2.1명)이 무너져도 1.5명대가 유지되거나 최하 1.3명 선까지는 극단적 상황의 염려까지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프랑스 1.88, 미국 1.87, 중국 1.6, 일본 1.41, 대한민국 0.97이라는 2018년의 출산율이 집계되면서 한국은 OECD국가 중 최하위의 '출산쇼크'에 빠졌다(통계청,2018). 한국은 결국 1.0명 선이 무너지면서 '0.9 쇼크' 현상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한국 고용정보원에 의하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2013년 75곳(32.9%)에서 2018년 89곳(39%)로 증가했다(한국고용정보원, 2018).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126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여해왔지만 그 성과는 나타나지 않은 결과로 추정 할 수 있다. 1984년 선진국의 인구대체수준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출산율 저하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는 세금감면을 비롯하여 육아휴직 및 양육수당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하였지만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한국사회가 직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1.41명(2018년)으로 높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출산율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출산율 회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사회의 결혼 및 출산 기피현상과 같은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출산율의 완만한 증가 유지 현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과거 일본은 합계출산율 1.57명(1989년)이 되었을 때 '1.57 쇼크'로 사회적 이슈의 범위를 넓혀가며 저출산정책에 선택적 방향전환의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출산율향상의 긍정적 배경으로 일본의 보육시스템과 직장 내 어린이집 설립이 적극적인 정부지원을 비롯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및 자녀양육 부담이 해소될 수 다양한 정책을 들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가족과 직장의 친화적 환경 만들기 정책방향이 일본의 출산율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본에서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지원된 정책을 살펴보면서 출산율 향상전환의 정책방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자료와 온라인 검색사이트를 통해 출산율 향상관련 정책방향을 살펴보면서 출산율의 결정요인 등에 대해 밝힌다.

2. 출산율향상 현황과 정책동향

1) 일본의 출산율 현황

일본의 인구동향 중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처음으로 넘어선 시기가 2005년도이며, 2007년부터는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비하여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1940년대 후반의 짧은 베이비붐 기간에는 매년 150만 명 넘게 증가했으나, 최근에는 인구의 자연감소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표1>. 그러나 일본은 최근 10여년 넘게 출산율만을 놓고 본다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에 1.26 명으로 사상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한 일본에서는, 2017년에는 1.43 명으로 추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2>.

<표2> 일본이 출생아 사망자 수 연도별 추이

<표1> 일본의 합계출산율 연도별 추이

출처: https://blog.naver.com/jichetong

1989년 '1.57쇼크' 이후 시급히 마련한 엔젤플랜(1994-1999) 시책 및 긴급보육대책 5개년 사업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의 2005년 일본 사회는 사상최저인 1.26으로 떨어지면서 이어서 마련한 신엔젤플랜(2000-2004), 아이·아이키우기 응원Plan(2005-2009) 등이 다양한 시책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출산율은 이후 조금씩 진전을 보이다가 2010년도 다시 1.27로 떨어졌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본사회는 출산율 향상 전환 시점이 지연된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千葉喜久也,2011). 일본의 저출산 배경요인으로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결혼유무를 커다란 장애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을 장점으로 간주되거나 여성 개인의 자아실현에 더 많은 가치관을 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아동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자녀를 독립시킨 후 조용히 지내고 싶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보호아동과 관련된 시설 등이 건립되지 못하도록 하여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土谷みち子, 2009).

<표3> 일본의 합계출산율(2005-2010)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8
비율	1.26	1.32	1.34	1.37	1.34	1.27	1.37	1.41	1.41

출처: 통계청 및 인터넷 자료(2018)

이러한 현황에 따르면 1989년도 '1.57쇼크' 이후 시행된 엔젤플랜 및 신엔젤플랜 등의 출산지원정책이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 나타난 1.27(2010년)라는 수치를 통해 일본정부의 새로운 정책방향 전환 요인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2018년 현재 1.41의 출산율이 1.50이상의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2) 선진국 정책동향

20세기 후반 주요 선진국은 일본과 같이 출산율 하락 및 만혼과 결혼의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이 영국 미국의 경우1970년대 1.7이하로 떨어졌다가 2.0으로 회복되고,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도 1980년대 1.5로 떨어졌으나 현재는 1.8-2.0으로 회복했다. 반면 일본, 포루투칼, 스페인 등은 1990년 1.2-1.3이라는 초 저출산 수준까지 하락하여 일부 반등했지만 선진국과 같은 출산율 회복을 보이지 못한 실정이다. 이를 배경으로 출산과 관련된 이론적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출산율 회복국가들의 경우 여성의 교육신장과 경제활동 참가 등이 출산율과의 상관관계가 역전되었다는 결과물이 나왔다. 즉, Mira(2002) 미국,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국가들처럼 여성의 고용이 정상화될 때 출산율 반등이 일어난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20세기 후반에 경제가 발전할수록 출산율이 하락한다는 상관관계가, 21세기의 고도로 발달한 국가에서 출산율이 상등한다는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이다(이제상, 2016).

다른 한편으로는 양성평등정책과 또는 가족친화정책이 강조되었다. 가족친화적인 제도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관련이 깊으며 특히 취업모여성의 자녀 돌봄 비용을 줄여주는 등 출산율 향상역할에 기여했다(이제상, 송유미, 2017). 그러나 고도의 경제발전이 출산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양성평등을 전제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수준이 낮은 국가들은 여전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Myrskyla ete, 2011).

3. 가족과 직장의 친화적 지원정책

1) 1989년-2005년 출산지원 정책

일본은 1980년대 중반부터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다가 2005년 1.26명이라는 최하의 수치로 떨어졌다. 1989년도의 1.57 쇼크를 계기로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자녀양육을 위한 환경을 검토하여 엔젤플랜(Angel Plan)과 신엔젤플랜(新Angel Plan) 정책을 만들었다. 엔젤플랜은 육아를 '부부와 가정'만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를 비롯하여 기업·직장·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긴급보육사업5개년사업을 1999년까지 보육소의 양적확대와 저연령아(0-2세) 보육 및 연장보육 등을 비롯하여 지역아이키우기지원센터를 정비를 목표로 진행하였다(정미선, 2016). 이후 1999년 12월에는 소자녀화대책 추진기본방침이 결정되어 만혼화 및 미혼율의 배경에는 '일과 자녀양육을 양립'해야한다는 부담감이 지적

되면서 신엔젤플랜이 추진되어 고용환경 및 모자보건, 상담 및 교육사업 등을 추가하였다. 이어서 '소자녀화대책 Plus One'을 통해 남성의 일 방법이 재검토 되고, 지역에서는 아이양육을 지원하여 사회전체가 참여(차세대육성지원대책 추진법 2003년 제정)할 수 있는 데 관심이 모아졌다(조정훈, 2015). 이시기 남성의 아이키우기 참가촉진을 위한 아버지 프로그램 보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시점 일본의 남성도 자녀양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수준으로 강조되었다 할 수 있다.

2) 2006년-2010년 출산지원 정책

2005년 출산율 최하수치(1.26)를 나타나면서 지금까지 일본이 강조한 출산율향상의 주요 정책은 경제적 지원조치라 할 수 있으며 이는 20세부터 49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 비롯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보육료 또는 유치원비의 경감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유아의료비의 무료화, 아동수당금액의 인상, 아동수당지급 대상연령의 인상 순위였다. 이후 일본의 출산지원 정책은 경제적 다양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검토해야만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출산은 일본의 고용문제를 부각하게 되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야하는 과제로 결혼연령이 높아지거나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고용환경조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고용환경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출산율과 관련된 문제는 양성평등적인 고용제도와 양육환경의 친화적 기업문화를 우선시 했다. 따라서, 이후 일본은 3세 미만의 자녀양육과 개호가 필요한 파트타임근로자와 취학전 자녀양육의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해 육아개호휴직제도 및 근무시간 단축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일본의 경력단절여성이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08년에는 9.0%로 낮아졌다(오미희, 2015). 아울러 일본 남성의 육아와 가사에 소비하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지적은 남성의 육아참여율을 높이면서 출산율 결정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일본은 2018년 현재 합계출산율 1.41명 수준으로 여전히 높다고 하긴 어렵지만, 한국의 0.97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월등하다 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의 보육환경정비 및 남성육아참여와 여성의 고용환경 재검토에 대한 정책방향은 출산율 증대에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2006년도 1.32대 수치는 4년간 유지하다가 2010년 1.27로 떨어졌다. 그리고 2012년 1.41로 높아진 출산율은 현재 7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육아지원 정책으로는 충분한 내용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출산율 향상에 성공을 보인 프랑스나 스웨덴 등의 정책과 비교하면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아이와 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한 선진국가의 '아동·가정정책'은 '일과 육아양립'정책방향과는 다르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육아정책연구소, 2018).

결론적으로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제도 및 경제적 완화정책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출생과 성장과정에서 요구되는 가정에서의 양육환경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 세부적인 실천항목으로 '아이가 살기 좋은 환경 만들기'로 방향전환을 한 것에 대한 의미가 향후 한국의 저출산 지원정책에 많은 시사점이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이제상(2016).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출산율의 결정요인과 양성평등 박사학회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이제상,송유미(2016). 사회경제적 발전, 양성평등 그리고 출산율의 결정요인-가족 중심축의 수평화 2단계 모형을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1 pp.256-270.

오미희(2015).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연구', 일어일문학 제65, 대한일어일문학회.

조정훈(2015).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현황과 대응정책, 제298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미선(2006). 해외보고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정연금(2004). 가족친화적 정책을 통한 일-가족 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2권, 5호, pp.91-100.

Myrskyla, M.,H-P.Kohler.,Billari.F.C(2011). "High Development and Fertility: Fertility at Older reproductive Ages and Gender Equality Explain the Positive Link." Max Plan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Rostock, Germany.

千葉喜久也(2011). 兒童家庭福祉論, みらい(株).

【 Abstract 】

A Study on the Policy to Improve the Birth Rate in Japan

Oh, Mi-Hee(U1 University)

Japan's birth rate is gradually increasing, drawing keen attention to the recovery of the birth rate. Despite similar experiences, such as avoiding marriage and childbirth in Korean society, interest is growing in maintaining a steady rise in the birth rate. This is because when the total fertility rate reached 1.57 children (1989) in the past, it expanded the scope of social issues to 1.57 shock and made efforts to create a low birth rate. In particular, Japan's childcare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day care centers in the workplace are a positive background for improving the birth rate.

In addition, among various policies that could ease the burden on women's career and childrearing, the policy direction for creating a friendly environment for families and workplaces contributed greatly to the improvement of Japan's birth rate.

「無用の苦しみ」はいかに裁かれたのか
－ 日本の安樂死裁判から考える「自己決定」をめぐる論爭 －

牧田滿知子(社會人類學者·元兵庫大學教授)

はじめに

日本では現在、「尊厳死」「自然死」に対する国民の期待は高く、「日本尊厳死協会」は世界でも有数の加入者数を数える。しかし「尊厳死法案」は何度も超党派の委員会で議論されているが、未だ承認される気配はない。まして「安楽死」が議論の俎上に上ることはまずない。しかし、奇妙なことに、日本は世界ではじめて「安楽死」を法廷で争い(1950年)、そこで議論された緊急避難行為(刑法37条)は後日オランダの「安楽死法」にも影響を与えるなど、裁判を通して長く「安楽死」の理解を模索してきた歴史を持つ国である。なぜそうした先駆的な取り組み、潮流がとだえてしまったのだろうか。

本発表では、まず世界に先駆けて緊急避難行為(刑法37条)の是非が問われた1950年の東京事件の判例、及び安楽死法制化をめざす運動が開始されるきっかけとなった1962年の名古屋事件の判例を議論する。次に安楽死の問題が一気に否定的方向へ決定づけられる事になった1991年の東海大学事件の判例、及び東海事件から３年後におきた川崎協同病院事件の判例を通して、患者の「自己決定」を得ることの困難さ、および「治療の中止」「治療の差し控え」を正当化する「医学的無益性」の客観的判断の問題など、現在の生命倫理学の重要な課題を検証する。

Ⅰ. 正当業務行為(刑法35条)および緊急避難行為(刑法37条)が問われた判例

東京地裁安楽死裁判(1950年)は、裁判史上はじめて「安楽死」が定義され議論された事件として記憶される。弁護側の主張は認められなかったが、その後の「安楽死」事件において重要な意義を持つ条件が提示された事件である(林謙治、J.Natl.Inst.Public Health, 55(3):2006)。

1. 概要

患者Ａ(女性)は、朝鮮に引き上げた夫に同行できない事から脳溢血の病状を悪化させ、激烈な苦痛から「死にたい」とＢ(息子)に懇願した。Ｂは激痛に苦しむ母を楽にさせたいと、青酸カリを母に飲ませ、死に至らしめた。弁護側は刑法35条の正当業務行為、および刑法37条の緊急避難行為に基づき「安楽死」を主張し、無罪を主張。

2. 結果

本件では弁護側の主張は認められなかったが、今後「安楽死」が裁かれる際に以下の論点に基づくものか否かが問われることになった。

① 精神的な苦痛は含まれず、肉体的な苦痛に限っているかどうか。

② 正当業務行為であるかどうか(刑法35条)。
③ 緊急避難行為であるかどうか（刑法37条)。

II. 安楽死の違法性を阻却する要件(６項目の違法性阻却要件)を定立した判例

名古屋高裁尊属殺人被告事件(1962年)は、東京地裁判決から約10年後、老人福祉法が制定される前年に確定された判決である。肉親の'耐え難い苦痛」に対する慈悲殺として広く同情を集め、安楽死の違法性を阻却する６項目の要件が提示された画期的判決である。

1. 概要

被害者Ａ(父)は脳溢血で寝たきりで、食事も受け付けず全身衰弱状態だった。激痛と絶え間ない'しゃっくり」で海老のように身体を反らして苦しんでいた。'死にたい。死にたい」と何度も自分の意思をＢ(息子)に告げていた。Ｂは主治医に相談するが、主治医は何もしてくれない。Ｂは苦慮の末、Ａが飲む牛乳に有機リンの殺虫剤を混入し、事情を知らない母に渡し、母がＡ(父)に牛乳を飲ませてＡは死亡した。

2. 結果

高裁は、日本で初めての６項目の『安楽死違法性阻却要件』を提示するなど画期的な判例を示した。医師による行使ではなかった点、そして倫理的な方法が欠けていたという２点がこの事件を'安楽死」と認めなかった要因であるが、判決は同情的で量刑も軽いものだった。名古屋高裁が出した『安楽死違法性阻却要』は、次の6つの違法性阻却要件を満たさない場合は違法行為となるというものである。

- 回復の見込みがない病気の終末期で死期の直前である。
- 患者の心身に著しい苦痛・耐えがたい苦痛がある。
- 患者の心身の苦痛からの解放が目的である。
- 患者の意識が明瞭・意思表示能力があり、自発的意思で安楽死を要求している。
- 医師が行う。
- 倫理的にも妥当な方法である。

3. ２つの事件と日本安楽死協会(後に'日本尊厳死協会」と改名)の発足

２つの事件は、死期が迫り耐え難い苦しみに襲われながらも、患者は拷問のような生活を強い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事実を人々に突きつけた。この理不尽さは国民を震撼させ、'安楽死」への共感を集めた。1976年、こうした声を背景にして『日本安楽死協会』が発足したが、1970年代末になるとホスピス、緩和ケア病棟の導入が進み、疼痛ケアも飛躍的に発展したため、『日本安楽死協会』は1983年に『日本尊厳死協会』に改称した。

III. 尊厳死、安楽死の要件が提示された判決

苦しむ患者を楽にさせてほしいという家族の思いを忖度した医師が致死量の薬剤で生命の終結を行った事件である。判決では'緊急避難の法理」と'本人の自己決定」が不可欠とされ、本件は'本人の自己決

定」がなかった(家族の要請であった)という点において、安楽死は成立しないとされた(平成７(1995)年3月：横浜地裁判決　殺人罪で有罪/ 懲役2年執行猶予2年)。判決の中で医師による'安楽死」の四要件および尊厳死の要件が提示され社会的に大きな反響を呼んだ。

1. 東海大学事件の概要

患者Ａ(50代後半)は多発性骨髄腫(ガン)に罹患し、東海大学病院に入院。ステージは末期であった。苦しむＡの様子を見かねた家族からの再三の依頼を受けて、Ｂ(主治医)が致死量の塩化カリウムを静脈注射してＡを死亡させた。しかし看護婦長が疑義を呈し病院に報告。東海大学病院が独自に調査を開始し、Ｂ医師の処置が不適切であったとＢ医師を懲戒免職処分にした。その後Ｂ医師は捜査当局から取り調べを受け、横浜地方裁判所において1995年、殺人罪を宣告された。

2. 東海大学病院事件の結果

当時、癌の宣告は'死」の宣告に等しく、癌末期の痛みに対応できるだけの医療はまだ十全ではなかった。判決はそうした世相を把握し、Ｂ医師に対する刑事罰と同時に'尊厳死」'安楽死」の要件が提示されることになった。横浜地裁の規定した施行に関する要件は以下である(『ジュリスト』NO.1072, 95.7.15.PP81-115)。

１）横浜地裁が提言した尊厳死の要件
- 死の不可避性
- 患者本人の意思表示(ただし、家族の推定も可)
- 中止の対象は治療行為のすべて

２）横浜地裁が提言した安楽死の要件
- 死期が迫っている
- 有効な治療法がない
- 苦痛(肉体)を取り除くことができない
- 本人が強く望んでいる

現在も４つの要件を満たして安楽死が行われたケースはない。

Ⅳ.「意味のない延命治療を中止することが許されるのか」という尊厳死の問題が争点となった事件。

東海大学事件の判決から３年後におきた事件である。ここでも患者の'自己決定」が確認されていないことが問題となっているが、同時に'医学的無益性」の客観的判断が示されていないこと、また'治療の中止」'治療の差し控え」の問題など、現在の生命倫理学領域の様々な課題が浮き彫りになった。

1. 川崎協同病院事件の概要

患者Ｃは気管支喘息の重責発作で低酸素性脳損傷の状態にあり、病院に連れて来られた時は意識不明、意識混濁、意思表示が出来ない状態であった。医師ＤはＣを長い間診ていた主治医である。Ｄ医師は、なんの生体反応もないＣに無理な延命で生き長らえさせるよりは自然な形で息を引き取らせたほう

がいいだろうと判断し、鼻から気管内に挿入されていたチューブを取り外した。ところがCは手足をバタつかせ苦しみ悶えたため、医師Dはパニックになり、自分では手を下さず事情を知らない准看護師に筋弛緩剤を投与させ、Cを呼吸筋弛緩による窒息で死亡に至らしめた。

2. 川崎協同病院事件の結果

横浜地裁は、「無理な延命で生きながらえるより…」と気管内挿入チューブを外したD医師の行為はで容認できない(殺人罪で有罪/懲役3年執行猶予5年)としたが、D医師側は家族に強く懇願されたとして控訴。東京高裁では、被告人D医師の主張が認められた。しかし、患者が意識不明で自己決定は出来ない事、もし家族の意向を認めると「本人の自己決定」にならない事から、高裁はD医師の行為は医師として容認できないとし、D医師に対し殺人罪を適用。平成19(2007)年2月に東京高裁判決が言い渡され、被告人D医師は有罪(懲役1年6か月執行猶予3年)として結審した。

まとめにかえて

川崎協同病院事件の後、東京高裁は、「患者の自己決定権」というアプローチにしても「医師の治療義務の限界」からのアプローチにしても、現行法を前提とする解釈論では限界があるとして、「終末期医療の決定プロセス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2007年5月)を策定した。しかしそれはあくまで末期癌患者を対象としたもので、重篤な症状の非癌患者(事故・難病・脳血管障害・心疾患など)には対応したものとはなっていない。本発表で取り上げた判例の悲惨さから考えれば、「安楽死」を等閑視する国の施策の偏りには憤りを感じる。

ではどのようにすればその人らしい苦しみのない穏やかな「最期」を迎えることができるのだろうか。本発表ではこの問題を「医療的無益性」と「事前指示書」を軸に議論した。ただ、無益な(決して生命を救うことがない)治療を続ける事は確かに患者本人の尊厳を傷つけるが、医療保険財政にとっても莫大な損失をもたらすものというマネタリーなロジックを打ち出せば、高齢者、障碍者など社会的弱者への排除へとつながりかねない。今後時間をかけて熟議していくことが望まれよう。一方事前指示に関しては、ますます高齢化が進む現在、比例するように認知症の人々が増加する事を考え併せれば、いっそう事前指示書の流動的で幅広い理解が望まれ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 Abstract 】

How Meaningless Pain has been Judged
- Dispute on self-determination from the Viewpoint of Legal Cases of Euthanasia in Japan -

Makita Machiko(Hyogo University)

According to the national statistics, many Japanese people wish to die by “Death with Dignity (DWD)” and/or “Natural Death (ND)”, however, there are no choices available for them to do so. Most of them go to hospital to end lives and/or to get the Palliative Care. Though “DWD” ”Euthanasia” have been being discussed at, the court so far in Japan, we still have not had the precedent to make it use. On the contrary, DWD and Euthanasia have faded away because of the medical development. In this presentation

I firstly examine the judicial precedents in Japan and argue how the unbearable pain and self-determination have been being discussed by referring two significant legal cases. Secondly, I discuss about the physician’s determination by referring two trial records, the Tokai University’s case and the Kawasaki Kyodo Hospital’s case. Especially the precedent of Tokai University’s case which made physicians scared to commit DWD and/or Euthanasia gave us a significant definition regarding Euthanasia. Finally, I analyze the advanced direction and the medical futility and conclude that we should accumulate much more data and evidences concerning those concepts.

死んだら終わりなのか
－ 情報科學の觀点から －

湯瀬晶文(兵庫大學)

１．はじめに

これまでに、主として現代日本における一般的な死生観の一端をとらえるべく、アンケート調査を行い、その分析を行ってきた。また、終末期医療、尊厳死、臓器移植に伴う脳死の取り扱いなどの統計データに加え、新聞社のアンケート調査等も含めて検討を加えた。その結果として、基本的に死そのものについて考える機会が少なく、環境に依存することがわかった。そのため、若い学生においては専門領域の違いによるわずかな環境の違いによって結果に差が出ることもあった。また、漠然とした死に対するイメージはあるものの想定する状況によって一貫性がない等、生の充実という面から気がかりな点も生じていた。

本稿では、こうしたもののひとつとして人間の存在性に対する否定的な価値観、すなわち'死んだら終わり」という価値観について情報科学的な観点から考察を行う。

２．死んだら終わり

我々が死んだ後、我々には'次なる生」が待っているのだろうか、あるいは燃え尽きてゆく蝋燭のように単純に'消え去る」だけなのだろうか。こうした問いに対して、宗教の立場では何らかの行き先を用意していることが少なくない。葬儀式に対して'葬送」という言葉を用いることからも次へ送り出すイメージが意識のどこかにあることが推察できる。一方で無宗教を自認する人の場合は、そういった世界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死んでしまうと何もない'無」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考え方も存在する。こうした'無」は日常の生活からは想像すら困難であるため、それが不安となりさらに恐れを生むことにつながる場合もあるが、逆に何も無くなるのであれば今のうちに好きなことを好きなだけやっておけばよいし後のことは考えなくてよいという享楽的な発想や行動に結びついてしまう場合も見受けられる。こうした発想が端的に表れるのが'死んだら終わり」という価値観であるといえる。

３．死後の世界について

ここで、'死後の世界」という言葉について少し触れておきたい。「死後の世界」という表現を用いるときに少なくとも２つの意味合いが考えられるだろう。その２つとは、

(１)死んだ者が死後に行く(と考えている)世界

(２)死んだ者が死んだ後に残る(この)世界

である。

アンケート調査等で「死後の世界」という標記をする時に(１)の世界のみを考えていると思われるケースが散見される。しかし(１)の世界は、我々にはある意味存在すら感知できない世界であるが、(２)の世界は観測可能性から確実と言ってよい世界である。したがって、(２)の世界も考えてしかるべきであろう。

この２つの死後の世界を考えるとき、「死んだら終わり」という価値観をどのように見ることができるのかについて考察を進めたい。

4. 積み上がる情報

我々は日々生活を営んでおり、それに伴う様々な活動をしている。その内容は多様だが、ここでは非常に簡単な例として、ものを移動させることを考える。

いま、正方形のテーブルがあり、そのテーブル上の１つの角にカップが置いてあるとする。このカップを同じテーブルの隣の角まで移動させると当然元の状態と異なる状態になる。このまま放置してもカップが元の位置に勝手に戻ることはないので、元の状態に戻すためには再度カップを移動させる必要がある。カップを移動させて元のカップの位置を正確に再現できればテーブルの上は一見初期状態と同じになる。

ではこれで、何事もなかった、といえるだろうか。最終状態のテーブルの上だけを見ると確かに元通りかもしれない。しかし実際にはこの移動に伴う痕跡(情報)が残ることになる。

カップ程度ではわかりにくいかもしれないが、カップの代わりに大きなコンテナをトレーラーで離れた工場へ運搬する場合でも同じである。コンテナを移動させるためにはトレーラーを使う必要があり、その分だけ燃料計が少ない残量を示すことになる。もう一度元の場所へ移動させるとまた燃料の残量は減少する。さらに、大がかりな移動では時間もかかるので、コンテナがなくなっていた時間も長くなる。

コンテナの場合はより明確だが、一見初期の状態に戻ったとしても、その周辺には燃料計の表示残量の減少など移動の痕跡(情報)がしっかりと残ることになる。ここでは、カップやコンテナの移動という単純な場合を考えたが、これ以外の動作や活動でも同様に考えることができる。

こうしたことは常に言えることであり、狭い範囲の状態は初期の状態に戻せても、それ以外の周囲に移動の情報が残ることになる。こうして、一つ一つの動作に伴う情報が残されてゆき、情報の総量は増えることはあっても減ることはない。

このことはより一般的に、物理学分野の熱力学の法則で表現できる。また、量子力学の世界ではさまざま情報は失われることはなく保存されることがわかっている。

この例で分かるように、我々の様々な活動に伴って多くの情報が蓄積されてゆくことになる。

5. 本当に死んだら終わるのだろうか

本当に「死んだら終わり」と言えるのだろうか。別の表現をするなら「死んだら終われる」のだろうか。

我々は、何もしないでおこうと思っても生命を維持しようとする限り、周囲に影響を与える。生きるために食事をすれば、少なくともある程度の生き物の命を奪うことになり、このことはモノの移動に比べるとはるかに元の状態に戻せる見込みは少なくなる。

上記のように、我々の活動に伴う情報が蓄積されるため、何事もなかったかのようにすることは不可能であるし、何らかの変化が残ってしまうことは不可避であるといえる。

こうしたことから、少なくとも上記の(２)の世界においては、「死んだら終わり」と言って何事もなかったかのように振る舞うことは、我々が生きて生活する限り「できない」といえるであろう。

6. まとめ

情報の観点に立ったこれまでの議論から、上記の２つの死後の世界を考えることにより、「死んだら終わり」と言って何も残らないように考えることは、我々が生活する限り不可能であると見ることができる。もちろん(１)の世界だけに限れば事前に見ることができず、信仰などの違いに依存する部分が大きいが、全体としてみれば「不可能」と判断できると言える。

このことは、我々が死んでしまった後に確実に残る変化があるということであり、死んだ後も自分が生きた痕跡があちらこちらに残されるということである。何かを残したいと願う人にとって、ある意味で希望が持てるということもできる。一方で、地獄の閻魔帳をはじめ、死後の世界において生前の行いに対する審判のための材料が様々な宗教などの中で記述されているが、そんなものは考えたくないという人にとっては面倒なことといえるだろう。

【 Abstract 】

No one can substitute for you
- From the viewpoint of information scienc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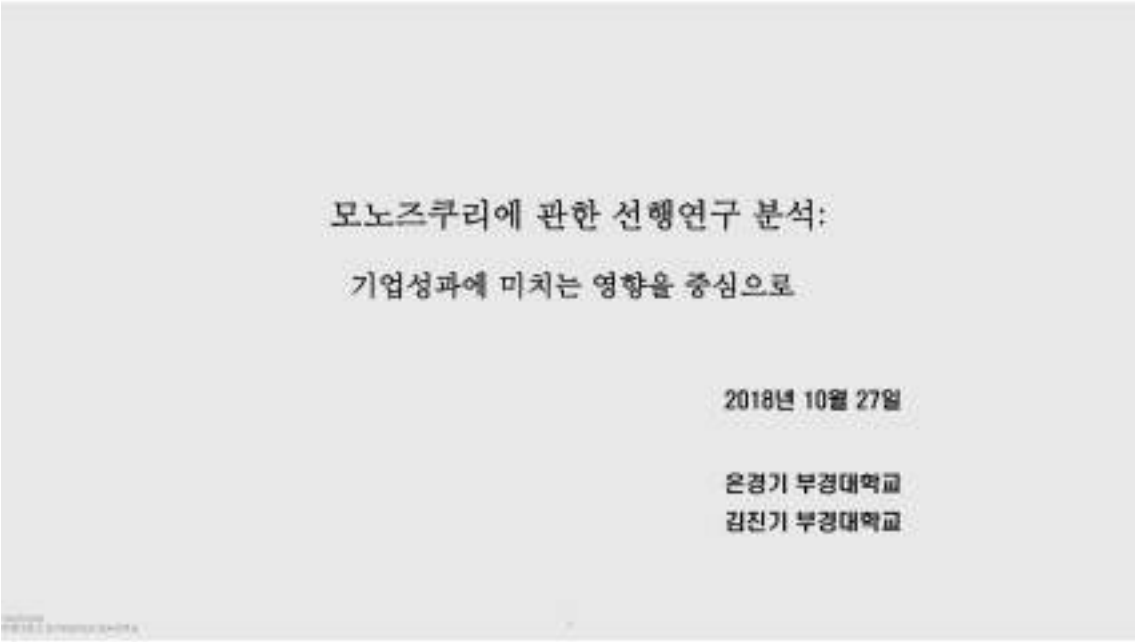
YUSE Akifumi(Hyogo Un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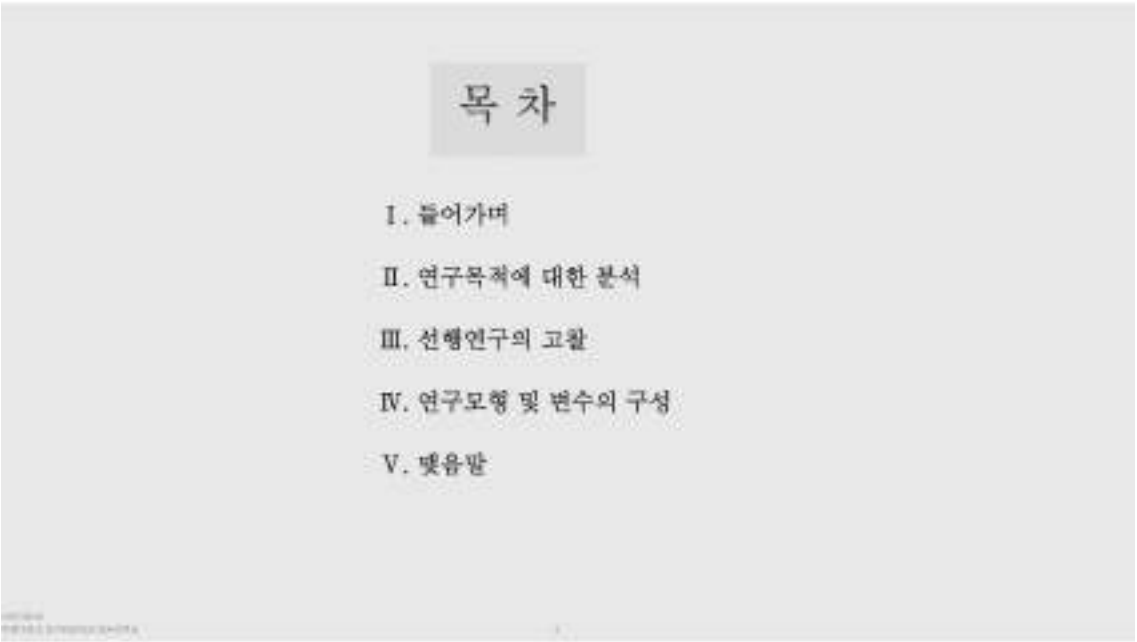
We have studied the view of life and death in contemporary Japan with questionnaire analysis; we found that people have the less opportunity to think about their own death.

We We discussed if one can die without leaving any change from the viewpoint of information science. As a result, it turned out that it it was almost impossible. In other words, the trace of having lived a lifetime does not disappear so simply.

모노즈쿠리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은경기·김진기(부경대학교)





Ⅰ. 들어가며

➢ 본 연구의 목적: 1) 모노즈쿠리와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여 그 실적과 특성을 분석
2) 기업성과와 관련하여 학계에 발표된 선행연구들에 대한 상세 분석
→ 본인의 향후 연구(**모노즈쿠리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참조와 적용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함

➢ 본 연구의 방법: 1)국내 발표된 모노즈쿠리관련 국내 선행연구의 조사
2)기업성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들 중 3편을 선택하여 상세 분석을 실시

손성진(2009) "품질지향성과 기업문화가 품질경영활동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
한공기(2011) "기술혁신역량과 SCM활동이 기업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재식(2011) "TPM활동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모노즈쿠리의 개념은 일본에서도 매우 다양하고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

➢ 한 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단순하게는 '정성들여 물건을 제조한다'라는 개념부터
훨씬 광범위한 생산, 설계, 연구개발, 판매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을 말하기도 함
→도쿄대학 후지모토 다카히로(藤本隆宏) 교수는 '통합형 모노즈쿠리'로 확대, 정의

➢ 기업의 성과에 대한 연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논문들이 학계에 발표되어 있음
→기업 내부적 요소: 경영자(기업가정신), 기업의 정보화, 인적자원 · 조직역량, R&D,
개선활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기업외부적 요소: 중소기업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기업성과평가방법 및 제도 등

Ⅱ. 연구목적에 대한 분석

➢ 손성진 연구목적: 품질지향성, 기업문화가 TQM, 6시그마 등 품질경영개선활동의 추진 및 성공,
경영성과의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 한공기 연구목적: ①기술혁신역량 결정요인들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
②기술혁신역량 요인들이 기술혁신성과를 가지오는 과정에서
공급사슬관리(SCM) 활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

➢ 이재식 연구목적: 국내 중소기업의 전사적 설비 보전(TPM: Total Productive Maintenance)
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규명

Ⅲ. 선행연구의 고찰

1. 모노즈쿠리와 관련된 선행연구고찰

- 한국에서 발표된 논문: 총 25편, 한국에서 출판된 단행본: 총 47권
  - →주된 내용이 모노즈쿠리와 크게 관련이 없거나 간단하게 설명 및 서술되어 있는 논문과 단행본을 제외하면 논문 총 16편, 단행본은 36권으로 나타남

2. 기업성과에 대한 선행연구고찰

1)손성진의 선행연구고찰

- 품질경영기법과 관련한 연구는 크게 세 개의 분야에서 진행되어옴
  - ①품질경영기법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②품질경영 기법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③품질경영기법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서 관리 통제시스템 상황요인 등의 영향에 관한 연구
  - →Ghobadian et al.1998, Harry 1998, Elliott2003, Sila 2007 연구 참조
- 품질경영기법의 도입으로 개선된 경영성과: 원가절감, 수익성향상(재무성과)
  인적자원성과, 품질성과, 고객성과 등 (비재무성과)

2)정종기의 선행연구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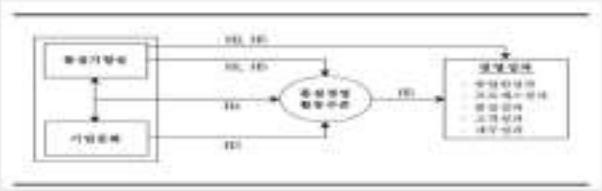
- 기술혁신역량, 혁신성과의 관계의 실증연구인 Yam et al.(2004) 연구 참조
  - →중국 베이징 213개 혁신 제조업체 대상으로 기술혁신역량, 기업성과 사이 관계를 실증적 검증
- 연구개발 역량, 기술사업화역량, 혁신성과의 관계를 실증적 검증한 김서균(2008) 연구 참조
  - →연구개발로 수혜를 본 254개 IT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Input-Process-Output 관점에서 분석
- 기술혁신 능력, 기술사업화능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시장정보 지향성이라는 매개변수를 거쳐 경영성과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이동석(2008) 연구도 참조

3)이재식의 선행연구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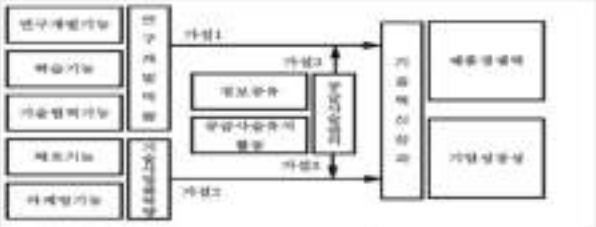
- TPM 활동요인, 성과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분석을 통해 개별개선, 자주보전활동으로 경영관점, 고객관점, 성과관점, 활동관점 4가지 관점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결의함
- 또한 계획보전, 교육훈련, 안전환경활동은 고객관점, 성과관점, 그리고 활동관점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연구개발 역량, 기술사업화역량, 혁신성과의 관계를 실증적 검증한 김서균(2008) 연구 참조
  - →연구개발로 효과를 얻은 254개 IT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Input-Process-Output 관점에서 분석

Ⅳ.연구모형 및 변수의 구성

1)손성진의 연구모형



2)원종기의 연구모형



3) 이재석의 연구모형

구분	국내학술지 (박위논문포함)	국내 단행본
정신 · 의식/문화	2	12
정책/전략/보고서	5	11
기업/기술	7	13
기타	2	-
계	16	36

❖ 국내에 발표된 모노즈쿠리 관련 연구

Ⅴ. 맺음말

1. 모노즈쿠리와 관련된 선행연구

➢ 한국에서 모노즈쿠리 관련 연구는 본인의 상세조사에 의하면 논문이 총 16편, 단행본 36권이 발표됨
→논문: 기업가/기술자들의 정신 · 의식, 문화관련: 2편, 정부 및 기업의 정책/전략/보고서: 5편
기업체/기술관련: 7편 기타: 2편
→단행본: 기업가/기술자들의 정신 · 의식, 문화관련: 12권 정부 및 기업의 정책/전략/보고서: 11권
기업체/기술관:13권

➢ 국내 대학에서는 모노즈쿠리에 관한된 연구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본인이 향후 연구코자 하는 모노즈쿠리 개념과 한국 제조기업의 설계 생산, 설계, R&D, 판매, 서비스 등을 접목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블루오션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2. 기업성과와 관련된 선행연구

1)손성진의 연구결론

①품질지향성 혁신수준이 높으면 품질경영활동수준과 재무성과, 비재무성과의 정행성과가 개선됨

②개발/집단/합리문화 지향적인 기업이 품질경영활동 수준이 높음. 그 중 개발문화가 가장 효과적

③품질경영이 성공키 위해서는 품질지향문화 형성필요, 조직전체 상위문화는 도전적, 목표지향적

④품질지향성이 높으면 품질경영활동수준 높아짐, 비재무성과와 재무성과의 개선으로 연계

2) 원종기의 연구결론

①연구개발 기능, 학습기능, 기술협력기능은 기업혁신성과로서 제품경쟁력에 영향을 미침

②연구개발 기능, 학습기능 및 기술협력기능이 기업성장에 영향을 미침

③기술혁신역량에 의하여 기업혁신성과가 개선됨

3)이재식의 선행연구고찰

①개별개선, 자주보전 활동을 통해 경영관점, 고객관점, 성과관점, 활동관점 등 4가지 성과를 바탕으로 전사적 차원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로 TPM 효과측정이 가능해짐

②기존의 TPM활동 성과연구는 대기업 사례 연구구가 대부분, 이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 TPM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4) 논문들의 한계와 보완되어야 할 점

❑ 손성진의 연구

①설문지의 구성이 응답자의 인지수준에 의존하고 있는 한계로 개인적인 인식 차이로 답변에 편차 발생가능

②TQM, 6시그마 등의 도입시점을 통제하고 조직특성, 산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효과를 규명해보는 연구도 향후 필요

❑ 원종기의 연구

①1차 자료를 활용한 변수들(정보공유 등)은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수 있음

②연구범위가 경공업인 신발산업이 대상임. 조선기자재산업과 같은 중공업과는 산업의 특성 및 성격에 차이가 있음

→향후 본인의 논문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

③품질지향성이 높으면 품질경영활동수준 높아짐, 비재무성과와 재무성과의 개선으로 연계

❑ 이재식의 연구

①설문에 응답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도 있으므로 객관적, 정량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 및 도구의 개발과 정제한 설문지 설계 필요

②각 추진단계별 TPM 활동요인과 경영성과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 있음

【 Abstract 】

A Study on the Existing Studies on Monozukuri : Focused on the Effects to the Corporate Performance

Eun, Kyung-Ki · Kim, Jin-Ki(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xisting studies which are published on the academic community of Korea Monozukuri and on the effects of improvement activities on corporate performance. First of all,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Monozukuri by investigating the existing studies of Korean academic area. In addition, three studies of corporate performance were selected and analyzed, which were selected to be applicable and referenceable to my future research by Son Sung Jin (2009, Cheon Jong Gi (2011) and Lee Jae Sik(2011).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three studies, Son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orporate-wide, continuous and systematic quality management to improve quality competitiveness through customer satisfaction. In addition, for quality management to succeed, quality-oriented culture needs to be established and actively promoted by introducing quality improvement activity systems such as TQM and 6 sigma, emphasizing that cultural characteristics of companies formed throughout the organization should be appropriate.

And Cheon recommended strengthening R&D capabilities and strengthening information on supply chain management as an approach to enhancing production competitiveness as a short-term innovation. Second, he emphasizes that strengthening technology, business capacity and supply chain cooperation will be valid in order to pursue corporate growth as long-term innovation and innovation.

Finally, the research result of Lee showed that the company which was introduced the TPM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company's performance by carrying out systematic productive maintenance activities across the company. In addition, it is presented that systematic management of TPM activity factors and performance metrics will help small and medium companies to improve their corporate performance and competitiveness.

Keywords: Corporate Performance, Technical Performance, Quality Improvement activities, Monozukuri, TQM, TPM, 5S, 6 sigma

총력전체제기의 기혼여성의 노무동원과 육아의 사회화

김경옥(도쿄대학교총합문화연구과 박사)

들어가며

1937년부터 1945년까지의 총력전체제기의 일본에서는 전쟁의 악화 속에서 남성의 대체노동력으로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미혼만이 아니라 기혼의 여성도 노동력으로서 동원하였다. 그러나 기혼 여성을 노동현장으로 불러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육아라는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사회화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1924년에 농번기탁아소를 포함한 계절보육소가 48개소, 상설보육소가 147개소 설치되어 있었지만, 1944년에는 50,320개소, 2,184개소로 각각 증가하였다. 이 숫자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탁아소와 같은 보육시설은 여성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하여 전시후생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어 급속하게 그 수를 늘려가고 있었다. 또한 보모라는 직업도 여성의 전형적인 일로 간주되던 육아에 비상시국하의 국가적 사명이라는 명목 하에 보육시설의 설치와 함께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단기양성과정 등을 통해 긴급한 양성이 꾀하여졌다.

총력전과 복지라는 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다카오카 히로유키(高岡裕之)의 “총력전체제와 복지국가”를 대표로 들 수 있다. 다카오카는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고 후생성의 설치와 후생성의 활동 및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전시기 일본의 후생이 국민의 복지를 우선한 것이 아닌 전쟁 승리를 목표로 한 파시즘체제 하에서 행해진 후생사업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총력전시기의 일본의 후생의 시작과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힘으로써 오늘날 일본에 있어서의 복지의 토대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지적한 논문으로, 다만 기혼여성에 대한 부분은 전쟁 협력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기혼여성의 노무동원적 관점은 그다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아쉬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기혼여성노동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서는 호리 사치코(堀サチコ)의 ‘15전쟁의 여자노동정책과 기혼여자노동자’를 들 수 있다. 호리는 여성사의 관점에서 여성 노동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고용노동자로서의 기혼여성의 노동정책과 실태를 검토하고 일본정부가 표면적으로는 기혼여성의 근로동원을 부정하면서도 실제로는 탁아소의 증설, 학동보호, 심야업 부활 등의 노동력 동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행한 것을 밝히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여성노동과 보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후생성 산하의 도쿄국민직업지도소에서 실시한 총후여자근로요원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기혼여성의 노무동원과 보육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군수공장으로서 방독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었던 일본화공주식회사에 설치된 공장부속탁아소를 사례로 들어 전형적인 여성의 일로 간주되었던 육아가 탁아소라는 공동의 장을 통해 사회화된 실태를 살펴보고, 동시에 그에 대한 여성 자신과 남성,

즉 그들의 남편의 반응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화공주식회사는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총후여자근로요원실시요령에 따라서 설비를 갖추어 공장 내에 탁아소를 설치하고, 기혼의 여성을 노동력으로서 고용하였다. 총후여자근로요원실시요령에 따라서 설치된 공장부속탁아소가 여성이 가정에서 담당해야만 했던 육아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켰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요구를 채우는 것에만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밝히고자 한다. 또한 전시 일본이 미혼여성만이 아닌 기혼여성도 노무동원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실제로 도쿄국민직업지도소를 통하여 노무동원을 시도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분석대상으로서 본고에서는 중앙사회사업협회 사회사업연구소와 은사재단 애육회 애육연구소가 1940년부터 1942년에 걸쳐서 일본 내지에 있던 보육시설을 조사한 [본방 보육시설에 관한 조사]를 통해 일본화공주식회사의 공장부속탁아소를 다루고자 한다.

1. 일본화공주식회사 공장부속탁아소의 설치와 전개

일본화공주식회사 공장부속탁아소는 사회사업법에 의한 탁아소가 아니며, 유치원령에 의한 유치원도 아니다. 단지 탁아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며, 설치의 근거는 총후여자근로요원실시요령이다. 본 장에서는 일본화공주식회사부속탁아소의 설치와 전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당시의 총후여자근로요원의 노무동원과 육아의 사회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화공주식회사의 공장부속탁아소(이하, 일본화공탁아소로 간략 표기함)는 1940년 3월 일본화공주식회사에 의해 도쿄시 이타바시구 이타바시 7쵸메 301번지에 설치된 공장부속탁아소이다. 이 지역은 “이와노 사카(岩の坂)”에 있는 손꼽히는 빈민가였지만, 1930년대에 접어들어 부근 일대가 공장지대가 되면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곳이었다. 일본화공주식회사는 1938년 10월 23일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3동 (120평)이 전소하고 그 후 새롭게 건설되었다. 1940년 3월 공장부지의 한쪽 구석 경사지에 설치한 탁아소는 주변에 공터와 수목이 우거져 있어서 공원들의 휴식처가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2. 일본화공주식회사 공장부속탁아소의 보육에 관한 문제점

공장부속으로 설치된 이 탁아소는 “‘보육내용은 유치원의 행사에 준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보육에 관해서는 공장 측의 보육 그 자체에 관한 생각은 ‘다치지 않게 울타리 안에 넣어두면 된다’ 는 생각으로, 인적으로도 물적으로도 충분한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실태는 당시의 공장부속탁아소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더 “나쁜 상태의 것은 더욱 많고, 좋은 것은 적”어서, 일본화공탁아소는 “현재 일본의 평준적인 형태”였다. 그래도 일본화공탁아소에서는 자격과 경험이 있는 전문적인 주임보모가 있으므로 설비에 있어서 다소의 불충분함을 보충할 수가 있지만 다른 대부분의 공장탁아소는 “여공원 또는 근로요원 중에서 선발된 보육경험자가 보모로서 배치되어 있으므로 그 보육내용은 참으

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 는 것이 사실이라 한다.

또한 탁아소를 이용하고 있는 총후여자근로요원의 사정에 의한 결근이나 이동이 많기 때문에 “탁아도 결석, 이동이 심해서, 일관된 보육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었다. 처음부터 근로요원을 모집하기 위한 설비로서 상정되어 설치되었으므로 탁아소의 설이 2년 4개월 간 546명의 이동자가 발생하고, 아이들의 평균보육계속기간은 약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 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어디까지나 모친의 일이 주(主)이기 때문에 탁아소의 입장은 부수적인 것이고, 모친에 대한 지도나 (아이에 관해 모친에게 뭔가) 손을 쓸 수 없다” 는 보모의 걱정에 관해 기술된 부분은 일본화공탁아소의 보육 실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더욱이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재적아동의 평균 출석률이 44.4%라는 낮은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요원이 아닌,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일반 여공은 아이가 있어도 공장부속탁아소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적지 않은 수의 여공이 자녀를 둔 기혼여성이었지만, 공장측에서는 여공의 자녀의 수탁을 거부하는 이유를 수탁 “시간이 길어서 경비가 든다” 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근로요원의 경우, 탁아소 완비가 근로요원 채용을 위한 조건으로 총후여자근로요원실시요령에 명문화되어 있지만, 여공에게는 공장법이 있어도 탁아소 완비가 의무적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3. 도쿄시의 총후여자근로요원제도

일본화공탁아소는 1940년 3월 “공장에 근로요원 (일가의 주부이고 여가를 공장근로로 일하며,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5시간) 제” 를 시행함에 따라 그 실시요령에 근거해서 설치되었다. 일본화공주식회사처럼 가정주부로 구성된 근로요원은 1940년 3월 “후지쿠라공업회사의 시나가와 공장에서 납기를 맞출 수 없는 군수품의 제조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무자 부족 대책으로서 채용”된 것이 그 시작으로, 이것은 일본에서 “첫 시도였다.” 도쿄직업지도소 부인부가 최초로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은 1940년 3월에 “직업시보”에 게재된 근로요원모집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소학교 재학생을 포함하지 않는 14세부터 50세까지의 여자로, 근무형태는 2반제로 나누고, 근무시간은 제1반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고, 제2반은 오후1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하여 5시간 근무제로써 1일 60전의 임금이었다. 공출방법은 우선 각출장소에 부인부를 설치하여 담당 구역 내에 각각의 구인처에 이용방법과 취지를 주지시켜서 여자근로요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도쿄국민직업지도소는 그 통괄을 행하였다. 근로요원의 작업은, 일반 공원과 섞이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독립작업장을 설치하고 가슴에 마크를 붙였다.

독립작업장이나 입소식 등의 일반 공원과는 다른 처우는 “단순히 공장 자체의 모집에 의한 일반 공원이 아니라, 도쿄국민직업지도소에서 뽑힌 요원이 되었다는 긍지를 주기” 위해서 “공장 내의 처우도 이분자(異分子) 다루듯이 하지 않도록 오히려 일반 공원의 모범자로서 대우할” 것을 공장 측에 요구하고 있었다. 1941년 3월의 시점에 13개의 공장에 1,602명의 근로요원이 채용되고 있다. 1941년 4월의 시점에서는 이미 도쿄시내의 약 20개소에서 7,000명의 주부가 근로요원으로서 동원되어서 시내의 군수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4. 일본화공주식회사의 총후여자근로요원

일본화공주식회사는 1941년 3월 시점 500명이라는 가장 많은 수의 총후여자근로요원을 고용하고 있고, 이것만으로도 일본화공주식회사가 당시 군수공장으로서 얼마나 호황을 누리고 있었는지 추측할 수 있다. 근로요원의 1일 5시간제 (휴게시간 30분을 포함) 로 일급 60전이라는 임금이다. 이것은 당시의 내직과 비교해서 2.5배에 이를 정도의 금액이었다. 게다가 자녀가 몇 명이 있어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장부속탁아소는 일을 선택하기에 유리한 이점으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5. 젠더와 육아의 사회화

공장부속탁아소가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직장의 범위를 확대시킨 것도 사실이었다. 이전에 내직에 근무했던 여성이, 혹은 사회에서의 일의 경험이 전무했던 여성이 탁아소의 무료 이용을 접하고 집 안에서 사회라는 집 밖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지지와 지원을 경험함으로 사회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있는 여성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의 의견을 들으면, “처음에는 일하는 것을 매우 반대했습니다만, (아이를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도 전보다 튼튼해져서 서로 직역봉공(職域奉公)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국가에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부터 무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는 여성이 가정 밖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남편의 인식의 변화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식의 변화라고 해도 가정영역을 온전히 담당하는 것이 전제가 된 변화였다. 부인시국연구회의 이치가와 후사에(市川房枝)는 “가정부인을 동원할 때 가정생활, 즉 처와 엄마로서의 전통적인 관념과 근로와의 관계가 대립하는 것과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그 때 그 때의 정부의 슬로건”으로 “어떤 때는 공장에서 일하라하고 어떤 때는 낳고 기르라며 조혼을 장려하는 식의 일견 모순된 명령을 만나게 되면, 과연 오른쪽으로 가야할지, 왼쪽으로 가야할지 혼란”스러워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것이 여성노동자의 입장이었던 것이다.

【 Abstract 】

Married Women's labor Mobilization and Child-care Socialization in Japan

Kim, Kyung-Ok(the University of Tokyo)

The Asia-Pacific War clearly had a great social and psychological impact on Japanese women. They were treated as an object of government labor mobilization schemes, and so played a crucial role because the Japanese government needed lots of labor to win the war. Previous studies have argued that only unmarried women were mobilized as laborer in wartime. They have overlooked the role of married women as laborers. And they have ign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labor and child-care in wartime.

In this research, I would like to talk about married women's labor mobilization and child-care at factories in Tokyo. Specifically, I focus on Kinro yoin who worked in munitions factory. Kinro yoin system was carried out before unmarried women were officially mobilized. Tokyo National Employment Agency decided to allow a factory which built the attached nursery to hire kinro yoin to produce war supplies.

If the kinro yoin system had been succeeded, I think the labor policy of Japanese women in wartime would have changed. There is no research on kinro yoin until now. In that sense I think this research is very important.

일본 서국 삼십삼 관음영장 순례의 현재적 의의

김용의(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1. 시작하며

일본에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불교순례가 존재한다. 시코쿠헨로(四國遍路)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시코쿠팔십팔소(四國八十八ヶ所)를 비롯하여, 사이고쿠삼십삼소순례(西國三十三所巡禮), 반도삼십삼소(板東三十三ヶ所), 지치부삼십사소(秩父三十四所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사이고쿠삼십삼소순례(이하, '사이고쿠순례'로 표기)는 문헌상 기록으로 2018년에 1,300년을 맞이할 정도로 유서 깊은 순례이다.

본고에서는 필자가 2017년 4월에 시작하여 약 8개월 동안 실시한 사이고쿠순례의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6] 현대 일본인들이 순례를 통해서 주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순례의 현재적 의의에 대해서 고찰하기로 한다.

2. 사이고쿠순례의 기원

사이고쿠순례의 삼십삼관음영장(三十三觀音靈場)은 관음경(妙法蓮華経觀世音菩薩普門品第二十五)에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서른세 가지 모습으로 변신하여 세상에 출현한다는 신앙에서 비롯되었다. 그 공덕을 받기 위해서 삼십삼관음영장을 순례하면 현세에서 지은 죄업이 소멸되고 극락왕생한다는 것이다. 순례의 기원에 관해서는 『中山寺由來記』(中山寺緣起) 및 『谷汲山根元由來記』(華嚴寺緣起)에 전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718년 德道上人이 사후에 염라대왕을 만나다. 생전의 죄업으로 지옥에 보내진 사람들이 많다. 일본에 있는 삼십삼관음영장을 순례하면 죄업이 소멸되는 공덕이 있다하여 순례로 사람들을 구제하도록 탁선을 내리다. 삼십삼 宝印을 받아서 현세로 돌아오다. 德道上人이 사람들에게 설법하였으나 전파되지 않았으므로 中山寺에 宝印을 보관하다. 약 270년 후에 花山法皇이 那智山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熊野権現이 출현하여 三十三觀音靈場을 재흥하도록 탁선하다. 그리하여 花山法皇이 순례를 시작한 이후부터 확산하였다.

이후 사이고쿠순례는 일본의 현대사회에 이르러, 종교적 역사적 의의에 더하여 다양한 현대적 의의를 지니게 되었다. 필자는 실제로 순례자들과 동행하며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이고쿠순례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사별한 가족에 대한 추도·추억·

6) 현지조사는 혼자서 순례하는 방법과 H여행사에서 주관하는 버스투어를 병행하였다. 면담조사는 주로 버스투어에 참가한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재회의 시공간, 둘째 그리프 케어(grief care)의 기능, 셋째 본인 및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트랙킹, 넷째 자연친화·자연동화·자연숭배로서의 순례, 다섯째 인생에 대한 감사의 의미, 여섯째 스탬프러리의 일환으로서의 순례 등이다.

3. 사별한 가족에 대한 추도·추억·재회의 시공간

사이고쿠순례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은 주로 사별한 가족에 대한 추도, 추억, 그리고 재회를 목적으로 순례를 한다. 순례를 하며 사별한 가족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이는 사이고쿠순례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고전적인 순례의 목적이기도 하다.

<사례1> H씨 : 1942년 출생, 히로시마 출신, 오사카 거주 남성
"17歳の時に大阪に就職してきた。今回が２巡目である。四国も２巡した。巡礼は6年前からはじめる。1年３ヶ月のむすめがなくなってから妻がはじめる。長男が喘息の時にいっしょにまわる。"17살 때 취직해서 오사카로 왔다. 이번 순례가 2회 째이다. 시코쿠도 2회 돌았다. 순례는 6년 전부터 시작했다. 1년 3개월 된 딸이 죽은 후에 아내가 시작했다. 장남이 천식에 걸리자 함께 돈다.

<사례2> Y씨 : 1939년 출생, 시가현 구사쓰 거주 남성
"5年前からはじめる。夫婦が滋賀県を中心に巡っていた。3年6ヶ月前に妻がなくなる。子どもだちが後に続いてほしい。"5년 전에 시작했다. 부부가 시가현을 중심으로 돌았다. 3년 6개월 전에 아내가 죽었다. 아이들도 순례를 이어가기를 바란다.

<사례3> ＹＡ씨: 교토 하치만시 거주 남성
"公務員で定年退職した。3年前に母がなくなる。友だちの勧めで巡礼をはじめる。"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했다. 3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친구가 권해서 순례를 시작했다.

4. 그리프 케어(grief care)의 기능

그리프 케어는 일본에서 2005년4월25일 발생한 서일본여객철도(西日本旅客鐵道)의 후쿠치야마선(福知山線) 탈선사고를 계기로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사고를 당한 유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일환으로 2009년 聖토마스대학 (兵庫縣尼崎市)에 일본 최초로 전문적인 교육연구기관인 그리프 케어연구소(グリーフケア研究所)가 설립되었다.

필자가 순례에 동행하며 면담조사를 실시한 많은 순례 참가자들이 일종의 그리프 케어의 목적으로 순례를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경우에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4> Ｓ씨: 1951년 출생, 오사카 다카라즈카 거주 여성
北海道根室出身。"10年前に両親が続いてなくなる。友だちが母親の死後に巡礼をはじめる。その友だちの勧めで巡礼をはじめる。"10년 전에 부모가 연달아 돌아가셨다. 친구가 그 어머니 사후에 순례를 시작했다. 그 친구의 권유로 순례를 시작했다.

＜사례5＞K씨: 70세
"自動車で主人といっしょに巡礼していたが、2016年に主人がなくなる。主人の写真を懐にいれて巡礼している。"자동차로 남편과 함께 순례를 했다. 2016년에 남편이 사망했다. 남편 사진을 품에 품고 순례를 한다.

＜사례6＞ N씨: 71세, 오사카 이타미시 거주 여성
"兄が62歳の時になくなる。毎晩母が泣いていた。母といっしょに四国巡礼をはじめる。４年のあいだに5回の巡礼。母は99歳でなくなる。" 오빠가 62세로 사망했다. 어머니가 매일 밤 울었다. 어머니와 함께 시코쿠순례를 시작했다. 4년 동안 5회 순례를 했다. 어머니는 99세로 돌아가셨다.

5. 본인 및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트랙킹

본인 및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지만 순례 동안에 더불어서 건강을 기원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아픈 몸을 낫게 해준다는 빈두로(賓頭盧)상 앞에서 열심히 기원하는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례7＞ Y씨:65세, 교토 하치만시 거주 남성
福井県出身。現在八幡市に居住。西国三十三所巡礼は3巡目。
"家に一人でいるよりは、と健康のためにも巡っている。" 집에 홀로 있기 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돈다.

＜사례8＞K씨:1942년 출생, 오사카 히라카타시 거주 남성
"歩けるうちに参加しようと" 걸을 수 있을 때에 참가하려고

6. 자연친화·자연동화·자연숭배로서의 순례

사이고쿠순례에 포함되는 33군데 사찰은 지역적으로 교토, 오사카, 나라(奈良), 와카야마현(和歌山縣), 효고현(兵庫縣), 기후현(岐阜縣) 등에 분포한다. 순례자들은 춘하추동 사계절 동안 이들 지역의 동식물을 감하거나 관찰하며 자연친화, 자연동화, 자연숭배의 기회를 갖는다. 이는 애니미즘이나 에콜로지로 연결된다.

7. 인생에 대한 감사의 의미

＜사례9＞ M씨:도쿠시마 거주 부부
이들 부부는 도쿠시마에서 사이고쿠순례에 참가하였다.
"若いときに四国八十八カ所巡礼に参加したことがある。今までの幸せな人生に感謝する気持で、夫婦でいっしょに巡っている。" 젊은 시절 시코쿠순례에 참가한 적이 있다. 이제까지의 행복한 인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부가 함께 돌고 있다.

8. 스탬프러리의 일환으로서의 순례

스탬프러리(スタンプラリー)는 철도 역이나 관광 명소 등을 돌면서 지정된 장소에서 전용 종이나 노트에 스탬프를 찍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1970년에 개최된 오사카 만국박람회에서 각 전시장(pavilion)에 설치된 전용스탬프를 수집하는 것이 인기를 끌어 스탬프러리 탄생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 <사례10> S씨: 1942년 출생, 오사카 히라카타시 거주 남성
> "二十歳頃の若いときに、日本の都道府県のユースホステルのスタンプを集めるのが趣味であった。西国三十三所のスタンプ(ご朱印)を収集するのが主な目的である。" 스무 살 젊은 시절에 일본 도도부현의 유스호스텔 스탬프를 수집하는 것이 취미였다. 사이고쿠순례 스탬프를 수집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9. 마치며

흔히 1회 순례는 조상을 위해서, 2회 순례는 가족을 위해서, 3회 순례는 본인을 위해서 행한다고 한다. 순례 참가자는 부부, 형제자매, 부모와 자식, 동료와 함께 순례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서 조상과 자손 사이의 종적 인간관계, 그리고 가족 및 동료 사이의 횡적 인간관계를 확인하고 돈독히 하는 계기로 삼는다. 또한 순례는 신, 자연, 인간의 삼위일체의 시공간이기도 하다.

*** 학술대회 당일 파워포인트 영상자료를 사용하여 발표합니다.**

【 Abstract 】

The Present Implications of the Japanese Saigokusanjyusangannonmeguri Pilgrimage

Kim, Yong-Ui(Chonnam National Univerty)

In this articl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field survey of the Pilgrimage to Saigoku, which I started in April, 2017, for about 8 months, I will examine what the modern Japanese are mainly pursuing through pilgrimage and the current significance of the pilgrimage.

The Pilgrimage to Sai Goku came to modern society in Japan, and it has various modern significance in addition to religious and historical significance.

Pilgrimage participants often have a pilgrimage with a couple, siblings, parents, children, or colleagues. Through this, it seeks to identify and strengthen the longitudinal human relationship between the ancestor and the offspring, and the lateral human relations between the family and peers. The pilgrimage is also the space and time of God, nature, and human trinity.

農村振興運動期における農業補習學校改変の地域的展開と朝鮮農民の反応

小谷稔(京都大學大學院農學研究科博士後期課程)

1. はじめに

本稿の目的は、植民地朝鮮で実施された農村振興運動の期間(1932～40年)における農業補習学校改変の地域的展開と、朝鮮農民の反応を検討することで、朝鮮総督府・各道による中堅人物育成政策の一端を明らかにすることにある。

農村振興運動が実施された1932年から1940年は、農業恐慌、満州事変から、国際連盟脱退、日中戦争開戦、総動員体制を経て、日米開戦に至る直前までという期間である。農村振興運動は、そのような時代背景のもと、大日本帝国がユーラシア大陸内部に侵略していく足掛かり('兵站基地」)として朝鮮半島を位置づる中で、農業恐慌とそれに伴う小作争議の増加に'経済更生運動」をもって対応し、その人口の約８割を占める農民層を組織・支配しようとした政策として、朝鮮史研究において重要な研究対象の一つとなってきた(例えば宮田1973、富田1981a・b、池1984、松本1998、板垣2000、趙景達2008、青野2012など)。

朝鮮総督府は農村振興運動をより効果的に行うために、日本'内地」と同様、'更生指導部落」に指定された村落の中上層農民を'中堅人物」に指定した。こうした農民層は総督府の提示する勤労主義や節約などの価値観を内面化した人物であ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たが、総督府は学校教育や農業訓練所での生活を通して農村青年を中堅人物として'養成」する方策をとった。

富田(1981a)や呉(2000)、金(2005)などの先行研究では、このような中堅人物育成政策について、初等教育や'普通学校卒業生指導」での農業教育によるものが分析・考察の中心を占めてきた。一方で、農業補習学校でのそれに関しては、例えば金(1996)のように概説的に触れられる程度にとどまってきた。他方で、近年の研究(李2008、2011、2012)では、1935年に日本'内地」で実業補習学校が廃止されたことに伴い、植民地朝鮮(および台湾)において実業補習学校の設置要綱が改定され、日本'内地」で流行した塾風教育である'農民道場」の要素を取り入れた農業補習学校が設立できるようになり、中堅人物教育に用いられ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実際、1930年から1940年までの農業補習学校の増設の様相を見ると、1935年の66校から1936年の82校、1940年には102校と、この期間に比較的顕著に増加していることがわかる。ただ李の研究は、農業補習学校の改変に関しては中央(朝鮮総督府近辺)での制度的議論が中心で、学校の実態には乏しい。制度が実際にどのように各道で展開していたのか、また地域の農民や生徒たちはこのような改変をどう受け止め、どのように反応したのか、などについての議論を蓄積していく必要があると考える。

以上から、本稿では、①農業補習学校を改変した中堅人物育成政策の地域的展開を明らかにすること、②地域の農民や生徒たちの反応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課題とし、農村振興運動期における中堅人物育成政策の一端を明らかにしたいと思う。史料としては、当時の新聞や総督府が作成した史料などを主に使

用した。

2. 農業補習学校改変の地域的展開と総督府

農業補習学校を改変して中堅人物を育成する試みは、実業補習学校規定が改定される1935年以前からすでにいくつかの道で行われていた。具体的には、1933年に咸鏡南道・新興で'地方農村の中堅人物たる資質訓練，即ち公民教育に最大の重点をおく特殊な農業補習学校」である'新興公立農業公民校」が新設され[1]、1934年には平安南道で農業補習学校が'中堅農民校」に改変されたことが確認できる。1934年当時の中堅農民校では'１年生には修身、公民科数学、農業、国語を習わせるとともに寄宿制度を敷いて実習地を充てがい、５名の生徒で一家族を組織させて実習を行い、２年生になると学校からは離れ、'家庭実習地」に帰って教師が出張指導を行うこととし」[2]たという。また、'中堅農民校」では、学校の土地を小作させることで、営農訓練を通した農業教育を行っていた。具体的には、一学年15人を５人ずつの'農耕経済の単位」三軒の寄宿舎に分けて収容し、学校が保有する耕地を生徒に小作させて'農作物の多角的営農」を行わせたことにより、'各食費、学用品を購つてなほ余剰を生じ」、一人あたり20円の利益を上げたことが新聞で報道されている[3]。このような'中堅農民校」は'一郡一校」の割合で、昭和'十年度中和，大同，順川▲十一年度江東，安州，平原，寧遠▲十二年度徳川，陽徳，价川，孟山」[4]という順で改称・設置されていった．また1936年以降に新設される学校は、'学校」と銘打ちながらも、'寄宿舎」だけで'校舎」は置かず、専ら農作業の実習指導を行うことが目指された[5]。

こうした地域の状況を受けながら、総督府で中堅人物を育成する方策に関する検討が1934年末頃から開始される。特に、1935年年頭に宇垣一成総督が朝鮮半島の統治構想を提示して、1935年から10年間で朝鮮半島に存在した７万余りの全村落を'更生指導部落」に設定するという方針を明らかにしたことから、中堅人物を急速に育成していく必要性が生じることとなった。総督府はこの構想の実現のために、中堅人物育成の方策を各道に答申させたが、ここで平安南道の'中堅農民校」が'異色ある案」として注目された[6]。地域での試みの'成功例」をもとに、総督府内での検討が進んでいった様子が伺える。1935年３月16日には政務総監通牒'農山漁村振興上留意すべき件」が各道に通達されたが、この第一項目として'中堅人物の養成」が掲げられ'農村振興運動の遂行上施措すべき事項素より多々ありと雖就中其の最も重要なるものは部落に中堅先導となるべき人物を多数且迅速に養成するに在り」とされ、'……農業補習学校の経営指導等に付ても同様の趣旨、見地に於て中堅者の育成に一段の努力を払ひ以て本運動の進展に寄与せられたし」[7]と、その手段として'農業補習学校」を用いる方針が提示された。地域での中堅人物育成の試みを取り入れながら、総督府が各道に再通達していく様子を見て取ることができる。

---

1) 大阪朝日新聞付録朝鮮朝日1933年(昭和８年)１月10日西北版'農業公民校愈よ設立を認可さる新興普通校に併置」。
2) 大阪朝日新聞朝鮮版1934年3月18日西北版'平南中堅農民校全鮮に魁くる新試み愈よ成案を得て準備に着手」
3) 大阪朝日新聞朝鮮朝日西北版1935年1月8日'農民校の卒業生を振興運動の中心に指導部落設定案に対する平南の異色ある答申」。
4) 大阪朝日新聞朝鮮朝日西北版1935年1月17日'農民校を各郡に設く社会主事も全郡に平南の更生陣強化」。
5) 大阪朝日新聞朝鮮版1935年1月24日西北版'山野を伴に学生の実習指導校舎なしの農民校十一年度から平南で実施」。
6) 大阪朝日新聞朝鮮朝日西北版1935年1月8日'農民校の卒業生を振興運動の中心に指導部落設定案に対する平南の異色ある答申」。
7)『自力更生彙報第十九号』、昭和十年三月、2頁。

3. 朝鮮農民の反応

このような農業補習学校の展開に対して、地域の農民や生徒はどのように反応したのだろうか。当時の新聞史料からは、必ずしも総督府や各道の政策が貫徹していなかったことを垣間見ることができる。

平安南道で1935年に開校した中和郡・中和中堅農民校では、翌1936年に生徒が学校から脱走する事態が発生した。これは生徒が粗食や早朝から夕方までの農業実習に「不平」を唱えた結果だとされている[8]。

また慶尚北道・永川郡にあった永川農業実修学校[9]では、1936年と1937年に連続して多数の生徒が脱走した。これには勤労主義的な教育に加えて、生徒が「中等教育」を求めて農業実修学校に入学していたという事情もあった[10]。ここで注目すべきこととして、慶尚北道当局がこの学校で「将来の農村中堅人物を養成すべく道が各地農村模範青年を選抜して在学せしめ、その教育に相当の力瘤を入れてゐ」たことがある。つまり、この青年たちは慶尚北道当局による「選抜」を受けた人物だった。一方で、当の学生たちは「中等教育」を求めて学校に入学していた。ここに農業補習学校をめぐる、総督府と生徒との意図のズレを見て取ることができる。

また、地域の農民がそもそも入学を忌避するという様子も見られた。江原道では農業補習学校に当たる農民学校や農民訓練所、女子講習所を作り、中堅人物を育成してきたが、農民学校と同訓練所の入所志望者が減少するという事態が発生した。そこで当局が「志願者の少なき裡面を調べ」たところ「農民学校や訓練所に入学するようになれば永久に農家でのみ活動するのであって、郡邑面のような場所には奉職できないということをよく知るようになった」[11]ことが発覚したという。

そもそも農業補習学校は朝鮮農民にとって、郡面職員などの農外就職のための教育施設の一つとみなされていた。「朝鮮の農業補習学校は内地のごとき好成績を示さず当初の期待を年々裏切りつつあるので各道学務課は何れも悩みの種としてゐる、例を平南道にとると六校ともにその入学生は卒業後は郡面の吏員になることを最大の目的として若き農民として農村の中堅人物たることを欲せぬ気風が濃厚で農業補習校としての使命に全く背馳してゐる…(後略)」[12]という新聞記事からも、農民の子弟から、従来の農業補習学校が官吏になるための教育施設として機能していた事実が伺える。総督府や各道による農業補習学校の拡大は、農民たちにとってはこのような機会の増加と映っただろう。しかし、農業補習学校に入学すれば、学校や道・郡・面などからは卒業後に帰村・帰農して「中堅人物」になることを期待されることが次第に判明してくる。そのため、生徒やその家族が農業補習学校への進学を選択しなくなったといえ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4、おわりに

8) 大阪朝日朝鮮西北版1936年6月26日「盟休騒ぎにも模範中和農民学校生ら脱出退学処分に附さる」。
9) 玉井(2018)は1920代中盤、朝鮮農村において植民地農政の担い手としての「中堅人物」が育成されるようになったことを指摘している。その中で、日本「内地」の農民道場である「国民高等学校」の影響を受けた「農業実修学校」という名の農業補習学校が江原道で設置された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る。農村振興運動以前の各道での取り組みの経験を元に、農村振興運動期に入っても農業補習学校を用いて「中堅人物」を育成するという発想が導き出されたのだと思われる。
10) 大阪毎日新聞朝鮮版1936年7月28日付A版「農業実習生が六名も脱出期待を裏切られ極度に狼狽する慶北道当局」およびB版「農業実習生が六名も脱出す すつかり期待を裏ぎられ 狼狽する慶北道当局」. および大阪朝日朝鮮西北版1937年5月11日「模範青年の脱走慶北の農業実習生卅七名粗食と勤労に堪へ兼ねて」。
11) 毎日新報1939年1月24日「農民学校と同訓練所入学志願者激減江原道当局対策講究」。
12) 1933年(昭和8年)5月13日西北版「農業補習学校の全廃論がもちあがる余り成績が上らぬので改善策考究の平南道当局」。

以上の検討から明らかになったこととして、まず第一に、農業補習学校を用いた中堅人物育成の試みについて、総督府での立案よりも地域での試みが先行していた事実を指摘できる。本稿で見たように、「農業公民校」「中堅農民校」など、朝鮮の各地域における中堅人物育成の取り組みがあった。農村振興運動期には、こうした取り組みが植民地朝鮮の各地域で行われていたため、それを基盤として総督府は1935年以降、中堅人物を急速かつ大量に育成していくための手段として農業補習学校を用いることが可能になったのである。

次に、本稿で検討した生徒たちの反応からは、総督府による農業補習学校をめぐる政策が一定の困難を抱え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学校から課される勤労主義的なカリキュラムに「不平」を唱えて学校を脱走した中和中堅農民校の事件、「選抜」されたはずの生徒が「中等教育」を求めて入学していたため学校を脱走した永川農業実修学校、「官吏」になれないために農村青年が入学忌避をしたことが問題となった江原道などの例を見る限り、農業補習学校という施設を用いた中堅人物育成政策が展開していく過程の中で、農民の「下からの」要求と、総督府や各道当局による「上からの」政策の意図との両方が混在する状況が生まれ、摩擦を起こしていた。特に後の二例は、中等学校の絶対数や農外就職の機会が限られていた植民地朝鮮の教育や農村の状況を反映する、農民の選択だったともいえる(呉「生存戦略」、金「家族戦略」の結果)。こうした「下からの」要因が中堅人物育成政策の展開に影響を与えていたということができる。

【 Abstract 】

The Change of Advocational Agricultural Schools and the Reaction of Korean Peasant During the Rural Revitalization Campaign in Colonial Korea

Kodani, Minoru(Kyoto Daigaku, Nougaku Kenkyuk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olicy of growing mainstays during the Rural Revitalization Campaign in Colonial Korea(1932-1940), with the focus on local actual condition and students' or peasants' reaction. From 1935, Governor-General of Korea started to utilize Agricultural Vocational Schools to develop mainstays(中堅人物、Village leader). The number of these schools increased especially from 1935 in Colonial Korea. And it's new teaching curriculum mainly focused on heavy agricultural practical training. But in the local(Do,道) level, some Agricultural Vocational Schools had been already changed or established before 1935 to develop mainstays and the name "Agricultural Vocational School s" were often changed.

Seeing students' or peasants' reaction, students belonged to some of these schools escaped from their dormitory, because they couldn't put up with the heavy agricultural practical training and the daily principle. And some students did so because they wanted ordinary education in the school, however they were elected by Do(道)in expectation of becoming good mainstays. Or some peasant children (or their parents) decide not to enter these schools from the first, because they wanted to be workers of public service(Gun郡, Myeon面), but if they entered and graduated these schools, they must stay in their home-village as mainstays and must be involved in agriculture.

하타씨와 야와타신(八幡神)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최경진(부경대학교 일어일문학부 강사)

Ⅰ. 서론

카마쿠라바쿠후(鎌倉幕府: 1185-1333)를 창설한 미나모토 요리토모(源頼朝)의 선조인 미나모토 요시이에(源義家)·요시쯔나(義綱)·요시미츠(義光) 삼형제는 각각 이와시미즈하찌만구(岩清水八幡宮)、시모카모신사(下鴨神社), 온죠지 신라명신(園城寺新羅明神) 앞에서 성인식(元服式)을 올려 야와타타로(八幡太郎), 카모지로(賀茂次郎), 신라사부로(新羅三朗)로 불렸다. 그런데 삼형제가 성인식을 올린 신사나 절이 가야계(혹은 신라계) 도래인 하타씨와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秦氏と賀茂氏との關わりについての考察」, 「秦氏と新羅明神との關わりについて」[1]를 통해 기술한 바 있다. 계속하여 본 논문에서는 맏형인 요시이에가 성인식을 치른 이와시미즈하찌만구가 하타씨와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야와타신(八幡神、혹은 하치만신, 이후 야와타신으로 기술한다)은 기원과 성립, 전개가 매우중층적[2]이고 난해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생략하고, 고대 야와타신 3대 제사씨족인 우사씨(宇佐氏), 카라시마씨(辛島氏), 오가씨(大神氏)와 하타씨, 그리고 야와타신과의 관계를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미나모토 요시이에는 하타씨와 연관성을 가진 야와타신의 앞에서 성인식을 올렸음을 밝히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야와타신의 기원, 성립, 발전에 대한 저서로는 中野幡能『八幡信仰』[3]、逵日出典『八幡神と神仏習合』[4], 泊勝美『古代九州の新羅王國』[5], 그리고 大和岩雄、『秦氏の研究』、[6]가 있으며, 연구논문으로는 寺尾美智子 「八幡信仰の成立」[7], 佐志傳 「八幡信仰の起源について」가 있다. 우사씨 관련 논문으로는 北條勝貴(1997)「松尾大社における市杵嶋姫命の鎭座について」[8], 龜

1) 최경진(2017.3.31),「秦氏と賀茂氏との関わりについての考察」·『동북아문화연구』50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同(2017.9.30),「秦氏と新羅明神との関わりについて」,52집
2) 이광래(2000.4), 「일본고대의신화적習合現象으로서 八幡神信仰에 관한연구」·『일본역사연구』11집, 일본사학회, p62.
3) 中野幡能(2000.6.10. 版),『八幡信仰』, 塙書房
4) 逵日出典(2007.8),『八幡神と神仏習合』, 講談社
5) 泊勝美(1974.10),『古代九州の新羅王国』, 新人物往来社
6) 大和岩雄(2016版),『秦氏の研究』、大和書房
7) 寺尾美智子(1999.03.21.), 「八幡信仰の成立」·『種智院大学密教資料研究所紀要』, 種智院大学密教資料研究所

井輝一朗'古代の宗形氏と宗像信仰」가 있으며, 카라씨마에 대한 연구로는 大和岩雄『日本にあった朝鮮王國』[9], 오가씨, 미와씨(三輪氏)에 대해서는 上田正昭『三輪山の神々』[10], 小川進一『宇佐神宮と大神氏』[11]와 金祥圭'三輪山伝承考」[12]、瀬間正之'高句麗·百濟·新羅の建國神話と日本」[13], 그리고 鈴木正信'五～六世紀における大神氏の氏族的展開」[14]가 있다. 또한 국내의 야와타신앙에 대한 연구로는 진은숙'우사하치만궁 제신에 관한 고찰」[15], 김현욱'秦氏と八幡信仰」[16], 김후련 '모자신과 하치만신앙」[17]등이 있다.

Ⅲ. 야와타(八幡神)신의 제사씨족과 하타씨

1. 이찌기시마히메(市杵嶋姬)와 하타씨

『紀』에서 스사노오노미코토(素戔嗚尊)와 아마데라스오카미(天照大神) 사이에서 타기리히메(田心姬)·타기즈히메(湍津姬)·이찌기시마히메(市杵嶋姬)의 삼여신(三女神)이 탄생, 찌구시(筑紫)에 강림[18]한다. 또한 동조(同條)一書(第三)에서는 강림지를 우사지마(宇佐嶋)로 기록하고 있어 삼여신과 우사씨의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다. '神武紀」를 보면 우사쿠니노미야츠코(宇佐國造)의 조상은 우사쯔히메(菟狹津姬)·우사쯔히코(菟狹津曾孫彦)라 하고, 센다이큐지혼키(先代旧事本紀)에서도 우사쿠니노미야츠코(菟狹國造)의 조상은 아메노미쿠다리신(天三降命:三女神)[19]라 함으로 우사씨의 제신은 무나가타 삼여신이 된다.

그러면 현재 야와신앙의 제신(祭神)인 무나가타 삼여신 중에서 하타씨는 마쯔오다이샤(松尾大社)에 왜 이찌기시마히메(市杵嶋姬) 신만 모신 것일까? 『紀』·神世上에서 무나가타(宗像)에 강림한 삼여신을 북의 해로(北の海路)를 지키는 '미찌누시노무찌(道主貴)」라 불렀다 하니, 삼여신은 현해탄의 안전항해를 지키는 여신임을 알 수가 있다. 부산-무나가타의 항해선에서 오키노시마(沖ノ島)는 중간 기착지인데, 이름에 시마(嶋)가 포함된 이찌기시마히메(市杵嶋姬)를 오키노시마를 지키는 신으로 간주하여 도래인 하타씨가 마쯔오다이샤에 모신 것으로 추정된다. 水野祐는 타기리히메(田心姬)는 일본해 특유의 농무(濃霧)를 신격화한 신, 타기즈히메(湍津姬)는 해류의 흐름을 형용하는 신, 그리고 이찌기시마히메(市杵嶋姬)는 포항(浦港)을 지배하는 무신(巫神)[20]으로 해석하고 있다.

2. 카라시마씨(辛島氏)와 야와타신(八幡神)

---

8) 北条勝貴(1997),'松尾大社における市杵嶋姬命の鎮座について」·『国立歷史民族博物館研究報告』第72集
9) 大和岩雄(1993.3),『日本にあった朝鮮王国』, 白水社
10) 上田正昭(2004.10.30),『三輪山の神々』, 学生社
11) 小川進一(2007.8.15),『宇佐神宮と大神氏』, 文芸社
12) 金祥圭2007.08, 三輪山伝承考」『일어일문학』(35), 대한일어일문학회
13) 瀬間正之(2018.3),'高句麗·百濟·新羅の建國神話と日本」·『東洋文化研究』第20号
14) 鈴木正伸(2012),'五～六世紀における大神氏の氏族的展開」·『滋賀大学経済学部研究年報』
15) 진은숙(2008.07),'우사하치만궁 제신에 관한 고찰」·『일본어문』(78), 일본어문학회
16) 金賢旭(2005.08), '秦氏と八幡信仰」·『일어일문학연구』 54(2), 한국일어일문학회
17) 김후련(2004.06), '모자신과 하치만신앙」·『동아시아고대학』(9), 동아시아고대학회
18) 日本書紀神代上'素戔嗚尊の誓約」
19)『先代旧事本紀』卷第三 天神本紀:'天三降命, 豐田菟狹國造等祖」
20) 水野祐(1977.1), '出雲大神と宗像神—出雲文化の中の漁携文化」·『出雲學論攷』, 神道學會編、pp.9-13. (北條勝貴(1997),'松尾大社における市杵嶋姬命の鎭座について」·『國立歷史民族博物館研究報告』第72集、p.47.으로부터 재인용함).

『豊前風土記』에 의하면 타가와군(田川郡) 가하루산(香春岳)에서는 철광과 석탄이 채굴되며[21], 신라의 신이 스스로 이곳에 와서 살았다는 기록[22]이 있다. 광물을 채굴했던 채동소(香春山三ノ岳採銅所) 마을 안에 토요히메신신사(豊比咩命神社)가 있는데,『太宰管内志』를 보면 고미야하찌만궁(古宮八幡宮)의 토요히메신이 바로 신라의 신[23]이며, 제관(祭官)은 쯔루가씨(鶴賀氏)라 한다, 또한 부근의 카가미아먀(鏡山)의 신관 또한 쯔루가씨인데,『紀』垂仁朝에 등장하는 대가야국의 왕자 쯔누가아라시토(都怒我阿羅斯)를 연상시킨다. 이를 보아 쯔루가씨족은 가야계 도래인 하타씨 계통의 인물로 생각된다. 加藤謙吉도 하타씨의 집단거주지인 쯔루가(近江敦賀)의 지명과 닮은 이 씨족은 하타씨계 씨족[24]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였다..

『延喜式神名帳』에 의하면 카하루신사(香春神社)에 카라쿠니오키나가오히메오메신(辛國息長大姫大目命), 오시호네신(忍骨命), 토요히메신(豊比賣命)이 진좌한다. 위의『太宰管内志』를 보면 오키나가오히메오메신과 오시호네신의 신관은 아카소메씨(赤染氏), 토요히메신의 신관은 쯔루가씨(鶴賀氏)[25]이다. 그리고 카라구니오키나가오히메오메신(辛國息長大姫大目命)의「辛國」발음을 「加羅久爾(가라구니)」로 한다고 표기되어 있는 바, 이 신은 가야에서 온 신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아카소메씨는 하타씨의 일족임에 다름이 없다. 泊勝美는『古代九州の新羅王國』에서 아카소메씨와 하타씨는 동족, 적어도 동일한 생활집단을 형성한 도래계 씨족이었음을 확정할 수 있다[26] 고 하며, 平野邦雄도 동일한 언급[27]을 하였다.

우사하찌만궁(宇佐八幡宮)의 중요행사가 호죠에(放生會)[28]인데, 행사의 신체(神体)인 동경(銅鏡)을 제작하는 씨족이 채동소(香春岳採銅所) 세이샤덴(清祀殿)의 신관 나가미쯔씨(長光)인데, 이 씨족도 아카소메씨(赤染氏) 동족으로 하타씨계 일족임이 밝혀져 있다[29]. 호죠에의 순행을 보면『隋書』倭國伝에서 말하는 하타왕국(秦王國)을 지나게 되는데, 이 지역은 하타씨족의 집단거주지이다. 세력을 넓힌 하타씨계 제사족들은 동진(東進)하여 우사 약칸가와(驛館川)좌안(左岸)에 이르러 카라시마향(辛島鄕)을 건설하였다. 카라시마 하타족은 자신들의 신과 우사씨의 오모토산(御許山)의 신앙을 습합하여 초기 야와타신앙을 형성하였다.

3. 오가씨(大神氏)와 야와타신

6세기후반 조정에 의해 우사에 파견된 오가히기(大神比義)는 이와이의 난(磐井の亂)이후 쇠퇴한 우사씨의 뒤를 이어 약칸가와(驛館川) 우안에 본거지를 두고, 카라시마씨와 함께 야

---

21)『豊前風土記』鹿春郷：「昔、新羅国の神が御自身で渡ってきて、この河原に住んだ。それで名付けて鹿春神という。また郷の北に峯がある。峯の戴きに沼がある。そこには黄楊の木が生えており、また竜の骨(石灰)もある。第二の峯には、銅や黄楊・竜の骨等がある。第三の峯には竜の骨がある。」

22) 前揭 註13과 동일

23) 伊藤常足編(1908),『太宰管内志』中巻、日本歷史学会、豊前之二,(田川郡上)：「辛国ノ神と比咩神との事聞ゆ。豊比咩命神社は今三ノ岳の麓にして中採銅所村ノ内に在て古宮八幡宮と云。(略)神官一家在り鶴賀氏なり。又云鏡山の神官も鶴賀氏なり。」

24) 加藤謙吉(1998.9),『秦氏とその民』, 白水社、p.23.

25) 前揭 註15 참조: (香春神社に)「神官三家あり。赤染氏二、鶴賀氏一家あり。」

26) 泊勝美(1974.10)『古代九州の新羅王国』, 新人物往来社、p.75

27) 平野邦雄(1961),「秦氏の研究(一)」·『史学雜誌』70篇3号。大和岩雄『続秦氏の研究』p73에서 재인용함.

28) 720년에 일어난 카고시마의 하야토의 반란(隼人の反乱) 진압 시, 야마토 조정은 야와타신과 함께 많은 하야토를 죽였는데, 그 넋을 위로하기 위한 제사의례를 말함

29) 大和岩雄(1993.3),『日本にあった朝鮮王国』, 白水社, pp.40-41.

와타신의 제사족이 되었다. 약칸가와(驛館川)의 좌우에 포진한 두 씨족의 관계설에 대해서는 확립된 바가 없다.『三輪高宮家系』[30]에 따르면 오가씨(大神氏)는 오쿠니누시신(大國主命)을 원조로 하는 오타다네코(大田田根子)의 자손이다. 그리고『記』崇神朝[31]에서 오타다네코는 미와씨(三輪氏)[32]와 카모씨(鴨氏)의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오가씨는 나라 미와신사(三輪神社)의 제사족 미와씨의 자손이 되며, 동시에 교토의 카모신사(上賀茂·下鴨神社)의 제사족인 카모씨와도 동족이 된다.

『記紀』崇神朝에 미와산전설(三輪山伝說)이 나오는데, 이 전설은『삼국유사』의 백제 무왕의 전설[33]을 차용한 후백제 견훤의 설화[34]와 유사하며, 가야도래인 미와씨족이 도래이전에 지니고 있었던 설화였다고 한다.[35]『紀』崇神朝에서 미와씨의 선조인 오타다네코가 발견된 찌누노아가타 스에무라(茅渟縣陶邑-現在の堺市、和泉市、岸和田市、大阪狭山市付近)는 가야도래인 들의 도기생산 거점으로, 여기에 거주한 오타다네코도 가야도래인 이라 여겨진다. AD 400년 백제, 금관가야, 일본이 합세하여 신라를 공격하였을 때, 신라를 구하기 위해 광개토왕이 금관가야까지 침범[36]하여, 많은 가야인 들이 야마토(大和) 지역으로 피신하였다 한다. 이 피난민들이 지니고 있던 설화가 미와산전설이 되었다 한다.

미와씨의 동족인 카모씨(鴨氏)는 니누리야(丹塗矢)전승[37]을 가지고 있는데, 하타씨 또한 흡사한 설화[38]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찍이 에도시대의 국학자 반노부토모(伴信友)는 하타씨의 위조라고 신랄하게 비난하였다.[39] 한편 나라의 고세시(御所市)에는 카모씨와 관련있는 카모삼사(鴨三社: 高鴨神社、鴨都波神社、葛木御歳神社)가 존재하는데, 이 지역은 하타씨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紀』신공황후(神功皇后)5年3月7日條를 보면, 카쯔라기소Wm히코(葛城襲津彦)가 부산 다대포 (蹈鞴津)에 진을 치고 양산(草羅城)을 공격하여 포로로 연행한 백성들을 고세시의 4개 부락(桑原 · 佐糜 · 高宮 · 忍海の四邑)에 살게 하였다는데, 4개 부락과 카모삼사는 반경 1-2킬로미터 거리이다. 또한 815년에 편찬된 신센쇼지로쿠(『新撰姓氏錄』) 야마시로국(山城國諸藩上) 하타이미키(秦忌寸)조를 보면, 유쯔기(弓月)가 127현의 백성과 함께 고세시의 아사즈마와카가미(朝津間腋上)에 살았다 하는데, 이 지역 역시 카모삼사와 매우 가까워 카모씨와 하타씨는 예부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생각된다. 실제적으로 카모씨가 하타씨의 사위가 되었다는 기록이 상술한 「秦氏本系帳」[40]에 나타나 있다.

---

30) 大神神社社務所編(1928),『三輪叢書』、大神神社社務所。
31)『古事記』崇神朝：「この多多泥古、神君、鴨君の祖」
32) 三輪氏는 시대에 따라 三輪、大三輪、神、大神로 표기되었으며 모두 미와(みわ)로 읽었다. 그러나 우사지방에 파견된 大神는 오가(おおが)로 발음한다.
33)『三国遺事』巻 第二、紀異第二、武王、무왕의 출생
34)『三国遺史』巻 第二、紀異第二、後百済·甄萱、출생에 관한 이설
35) 瀬間正之(2018.3),「高句麗·百済·新羅の建国神話と日本」·『東洋文化研究』第20号、pp.150-151.
36) 광개토대왕비
37) 卜部兼方(1901),「釈日本紀」巻九「山城国風土記逸文」『国史大系.第7巻』所収, 経済雑誌社,「玉依日売石川の瀬見の小川に川遊び為る時、丹塗矢、川上より流れ下る。乃ち取り、床の辺に挿し置く。遂に孕み、男子を生む」
38) 塙保己一編(1902)、「秦氏本系帳」·『本朝月令』,『群書類従』第五輯に所収、経済雑誌社。
「又云はく初め秦氏女子葛野河に出でて衣裳を濯擢きし時に一の矢ありて上流より下りき。女子取りて還り来，戸の上に刺置く。是に女子夫無くして子を孕む。既にして男子を生む。」
39) 伴信友(1907-1909版)、『瀬見小川』三之巻、国会刊行会、pp.306-307.
40) 前掲 註29와 동일.
「鴨氏の人秦氏の聟と為る。秦氏聟を愛ひむとして鴨祭を以ちて譲り与ふ。故今鴨氏禰宜して奉祭る」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가야의 도래인인 미와씨는 카모씨와 동족이며, 카모씨와 가야인 하타씨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미와씨의 후손인 오가씨(大神氏)는 가야의 동향인 카라시마씨(辛島氏)를 의지하여 우사에 들어왔던 것이다. 大和岩雄는 하타씨·카모씨·미와씨가 친밀한 관계라고 기술[41]하고 있다.

859년 교쿄스님(僧行敎)이 우사의 야와타신(八幡神)의 신탁을 받아 교토의 오토코야마(男山) 에 이와시미즈하찌만궁(石淸水八幡宮)를 창건하게 된다. 카와지겐지(河內源氏) 중흥의 무장 미나모토 요시이에(源義家)는 1045년 7살의 나이로 야와타신앞에서 성인식(元服式)를 올리게 되어 야와타타로(八幡太郞)로 불리게 된다.

Ⅳ. 결론

현재 우사하찌만궁(宇佐八幡宮)의 제신 무나가타 삼여신(三女神) 중 이찌기시마히메가 하타씨의 마쯔오타이샤(松尾大社)에 제신으로 모셔져 있다. 도래인 하타씨는 현해탄 항해의 안전을 도모하는 무녀의 성격을 가진 이찌기시마히메를 제신으로 모셨다. 가하루산(香春山) 고미야하찌만궁(古宮八幡宮), 가하루신사(香春神社)의 토요히메신의 제사장인 쯔루가씨(鶴賀氏), 야와타신의 신체인 동경(銅鏡)을 제작하는 나가미쯔씨(長光氏), 가하루신사의 카라시마 오키나가오히메오메신(辛國息長大姬大目命)과 오시호네신(忍骨命)의 제사족인 아카소메씨(赤染氏)는 모두 하타씨의 동족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젠국(豊前國)에서 이들과 함께 세력을 불린 하타씨는 우사평야지대를 향해 동진, 약칸가와(驛館川)의 좌안[左岸,) 카라시마(辛島鄕)에 이르러 우사씨와 함께 초기 야와타 신앙을 성립시킨다.

한편 몰락한 우사씨를 대신하여 우사에 들어 온 오가씨(大神氏)는 가야도래인 미와씨(三輪氏)의 후손이며, 미와씨는 카모씨(鴨氏)와 동족이다. 또한 카모씨는 하타씨와 동일한 전승과 인척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별한 사이이다. 따라서 미와씨의 후손인 오가씨는 하타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을 것이다. 오가씨는 오진천황과 모 진구황후를 야와타의 신으로 부여하여 오늘의 야와타신앙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다.. 이후 869년 교쿄스님(行敎)이 간청(勸請)한 교토 오토코야마(男山)의 이와시미즈하찌만궁(石淸水八幡宮)의 야와타신 앞에서 미나모토요 시이에(源義家)는 7살의 나이로 성인식(元服式)을 올렸던 것이다.

참고문헌

이광래(2000.4), 「일본고대의신화적習合現象으로서 八幡神信仰에 관한연구」·『일본역사연구』 11집, 일본사학회, p62.

진은숙(2008.07), 「하타씨(秦氏)에 관한 고찰」·『일본문화연구』(27), 동아시아일본학회, pp. 340-343

_____(2014.02), 「丹塗矢型 神婚전승에 관한 연구」, 上同(64)、pp. 340-344

홍성목 (2013.12), 「고대일본의 三輪山信仰」·『日本思想』(25), 한국일본사상사학회, pp.189-194.

伊藤常足編(1908), 『太宰管內志』中卷、日本歷史學會、豊前之二, (田川郡上)

卜部兼方(1901), 「釋日本紀」卷九「山城國風土記逸文」『國史大系.第7卷』所收, 經濟雜誌社,

41) 大和岩雄(2016)、『秦氏の研究』、大和書房、pp.140-142.

大和岩雄(2016版)、『秦氏の研究』,大和書房、p.140/同(1993.3),『日本にあった朝鮮王國』,白水社, p.41
加藤謙吉(2000)、『秦氏とその民』、百水社、p.26。
佐志傳(1958), ｢宇佐八幡宮の祀官について｣·『史學』Vol.31, 三田史學會、pp.187-189
『三國遺史』卷 第二、紀異第二、後百濟·甄萱、출생에 관한 이설
『釋日本紀』 卷十三｢筑紫國造磐井｣(國史大系第7卷 所收、経濟雜誌社編、1897年)
瀬間正之(2018.3), ｢高句麗·百濟·新羅の建國神話と日本｣·『東洋文化研究』第20号、pp.150-151.
達日出典(2007.8),『八幡神と神仏習合』, 講談社、pp.81-82.
泊勝美(1974.10)『古代九州の新羅王國』, 新人物往來社、p.75
塙保己一編(1902)、｢秦氏本系帳｣·『本朝月令』,『群書類從』第五輯に所收、経濟雜誌社。
原順(1617),『倭名類聚抄20卷』〔5〕卷九·筑前國、,那波道圓.
伴信友(1907-1909版)、『瀨見小川』三之卷、國會刊行會、pp.306-307.
肥後和男(1945)、｢賀茂伝說考｣『日本神話研究』、河出書房 第5版. p.255.
平野邦雄(1961), ｢秦氏の研究(一)｣·『史學雜誌』 70篇3号
北條勝貴(1997), ｢松尾大社における市杵嶋姬命の鎭座について｣·『國立歷史民族博物館研究報告』第72集、p.47.
水野祐(1977.1), ｢出雲大神と宗像神—出雲文化の中の漁携文化｣·『出雲學論攷』,神道學會編、pp.9-13
大神神社社務所編(1928),『三輪叢書』、大神神社社務所。

【 Abstract 】

The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Hata Uji and God Yawata

Choi, Kyung-Jin(Pukyong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I have tried to examine a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Hata clan and three priests of the ancient God Yawata- Usa, Karashima, and Oga clan.

First of all, Usa, a native of the Usa region, worshiped Munagata three Goddesses. Among the three goddesses of Usa clan, Ichigishima-Hime was stepping up as a deity to Kyoto Matsuo-taisha Shrine, which was founded by Hata clan in AD 701. Hata family, the immigrant from Gaya Confederacy (AD 42-532)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served Ichigishima-Hime as their female shaman who sought the safety of sailing between their hometown Busan (Kimhae) in Korea and Northern Kyushu region in Japan. Currently, the three goddesses of Usa clan are enshrined as the deity of the Ushahazimang Palace in Usa City, Oita Prefecture. By taking account of this enshrinement , we can understand a close relationship among Hata, Usa clan and God Yawata.

Karashima who is a same tribe of Hata clan went east and arrived the Usa district in the middle of 5th century from Kaharu Mountain in Tagawa and blended their spirit with God of Usa and built up an initial shape of God Yawata. By the way, Usa clan could have rapidly declined in relation to Iwai's rebellion against Yamato Dynasty in the late 6th century. On behalf of the fallen Usa clan, Ogahigi, a descendant of the Miwa clan, was sent from Yamato Dynasty to Usa region, took over Usa's position. On the other side, Miwa and Kamo clan had a same ancestor, at the same time, Kamo and Hata clan owned a very similar historical tale each other. This means that all these three clans had very closed relationship. I presume that Hata clan was cooperative to Ogahigi in Usa region and they built up another new Yawata religion. Later in year AD 860, Gyokyo, a Buddhist priest, shared God Yamata with Iwashimizu Hachimangu Shrine in Otokoyama Mountain in near Kyoto . In 1045, at the age of seven, Minamoto Yoshie, the ancestor of Yoritomo who opened the Kamakura Bakufu, held an adult ceremony in front of God Yawata and was called as Yawatataro that was originated from the name of God Yamato.

渡党に関する一考察

金子哲(兵庫大學･共通教育機構)

はじめに

- 中世北海道南部の歴史は、勝者である蛎崎＝松前の視点で語られ、松前･上ノ国エリア中心の視座が多い。
- 中世渡党(わたりとう
  日本系とアイヌ系のマージナルマン)の確実な出発点は『諏訪大明神絵詞』：'蝦夷が千島というのは、わが国の東北に当る大海の中央にあって、そこには日(ひ)の本(もと)、唐子(からこ)、渡党の３種の住民がおり、その中の１島には３類が雑居している。そのうちには宇曾利鶴子州と万堂宇満伊犬という小島もあり、渡党は多く奥州津軽の外ヶ浜に往来して交易している。
  宇曾利鶴子州：ウソリケシ＝宇須岸＝箱館　堂宇満伊犬：マトウマイヌ＝松前

(参考) 応仁二年(1468)二月二十八日'安藤師季(政季)願文」(熊野那智大社文書)

奉籠
熊野那智山願書之事
右意趣者、奥州下国弓矢仁達本意、如本津軽外浜･宇楚利･鶴子遍地悉安堵仕候者、重而寄進可申処実也。怨敵退散、武運長久、息災延命、子孫繁昌、殿中安穏、心中所願皆令満足。奉祈申所之願書之状如件。
応仁弐年つちのへね二月廿八日　安東下野守師季(花押)
×　津軽外浜･宇楚利･鶴子遍地→◎津軽外浜･宇楚利鶴子、遍地

宇楚利＝宇曾利ならば、下北半島まで下国安東が支配？
鶴子遍地(つるこべち)の地名は確認できない。宇楚利鶴子(ウソリケシ)、遍地(へんち：全ての土地)と読むべき。

15 世紀中葉～の北東北での安東勢力の急速な弱体化→津軽外ヶ浜支配の危機、1457 年のコシャマインの蜂起→函館エリア支配力の喪失、に対応している。

- 北海道南部の中世渡党系の考古学的遺物は、函館エリアが松前エリアに先行する。
  函館称名寺の'貞治の碑」貞治六(1367)年。函館市戸井館跡の'戸井の板碑」14 世紀後半。
  函館市石崎八幡宮の鰐口　嘉吉三(1439)年。
  コシャマインの蜂起などと関係する可能性のある、志苔埋納千(39 万枚)
  道南十二館の一つ原口館も、松前ではなく戸井？ 6 万枚あまりの銭出土との伝承。
- 『新羅之記録』は蝦夷島最古の'文献資料」。正保三(1646)年ごろに成立の松前氏の'家譜」。著者は初代松前藩主松前慶広(まつまえ よしひろ)の六男である松前景広。松前氏は若狭武田氏の後裔を自称。祖先の源義光(新羅三郎)元服の地である近江国園城寺新羅大明神で著述。
- 『新羅之記録』は蝦夷島最古のまとまった文字史料。だが勝者側の記録。

- 他の史料·証拠·傍証と、『新羅之記録』から漏れ出てくる'不都合な部分」を統合してもう一つの'中世渡島史」を目指す。

1. 中世史料などからの視座

- 『諏訪大明神絵詞』は1356年頃に成立。'蝦夷カ千島」の三種族：渡党(渡島地区居住の日本·アイヌ間のマージナルマン)、日の本(東部アイヌ)、唐子(西部アイヌ)。
- 渡党の根拠地は'万堂宇満伊犬」(まとうまいんぬ)と'宇曾利鶴子州」(うそりけしす)'万堂宇満伊犬」は松前。'宇曾利鶴子州」は函館(箱館)の古名。アイヌ語で〈湾の端〉。
- 松前は青森県津軽半島からの、函館は青森県下北半島からの渡海地点である。本州と北海道の最短は、大間—函館市戸井汐首岬
- 南北朝期成立『庭訓往来』は四月復の'諸国物尽」に、「宇賀昆布」'夷鮭」。
- 宇賀浦は志苔以東、汐首岬まで。
- 真昆布の産地は函館山以東、噴火湾入り口まで。
- 真昆布の分類は、本場折(函館山～汐首岬)、黒口浜(汐首岬～恵山周辺部)、白口浜(恵山北部～噴火湾入口)、場違(その他地域)。価格は白口＞黒口＞本場折＞＞＞＞場違。
- 上記序列は近世には確立。本場とは中世段階の本場→宇賀浦。宇賀昆布。
- 狭義'宇賀」地名は函館市小安浜宇賀川。18世紀後半『松前氏』(松前藩家老松前広長著：最良の蝦夷島地誌)でも同様の考え。管見の限りでも他に宇賀地名はなし。
- 小安浜昆布は長大であり、古社の神事に使われる。小安浜は宇賀浦東端。

2. 宇須岸全盛の頃

- 『新羅之記録』は、''宇須岸全盛の時、毎年三回宛若州より商船来たり。此所の問屋家々を渚汀に掛造りと為して住む。依って、纜を縁の柱に結び繋ぐなり。」
- 1512年宇須消岸滅亡の直後の記事。その直前の姿か。京都府伊根町(丹後半島)の'舟屋」の如き家々·問屋が波打ち際に並ぶ'港湾都市」であった。
- 宇須岸は、日本海ルートの終端ターミナル。太平洋·下北半島物流との結節点。日本海海運の終端は松前ではない。宇賀昆布の集積地は宇須岸。

3. 渡党—アイヌ民族間の抗争と松前(蛎崎)氏の覇権

時系列を整理したい。

永享04(1432)年　十三湊下国安東氏、南部氏に敗れて蝦夷島へ敗走(後に和議)：満済
享徳01(1452)年　下北半島田名部領主の武田信広、蝦夷島へ渡る:新羅
享徳03(1454)年　南部氏に擁立された下国安東傀儡当主の安東政李(田名部領主)、蛎崎武田信広、相原政胤、河野政通と蝦夷島へ渡る:新羅

康正02(1456)年　安東政李出羽国男鹿へ渡る。渡島三守護体勢。下国(正:茂別の下国家政、副:宇須岸の河野政通)、松前(正:下国定李、副:相原政胤、ともに松前)、上国(正：蛎崎武田信広、副:蛎崎季繁、正副逆の記載あり):新羅

康正03(1457)年　田名部領主蛎崎蔵人、南部氏に討たれる。:八戸家伝記など
北東北での安東急速な衰微、南部の覇権決定的に。
蛎崎氏は長く北蝦夷松前に移る:新撰陸奥国史

康正03(1457)年　志海苔館でのトラブルからコシャマインの蜂起。渡党―アイヌ民族の70年戦争始まる。下国守護館と上国(副)守護館(蛎崎武田信広)以外の渡党城館陥落。下国守護安東家政に男子なく、下国安東当主の政李の娘を家政の養女とし、信宏と結婚させる。武田蛎崎による下国守護安東家の乗っ取り。:新羅

明応05(1495)年　松前守護の安東定李、乱行により下国安東当主の命で切腹。相原季胤が松前守護となる。副は村上政儀。渡島からの安東直系の駆逐完了。：新羅

永正09(1512)年　アイヌ民族蜂起。宇須岸館、志海苔館、与倉前館が陥落する。宇須岸河野氏滅亡。この際、茂別の下国守護の動きなし。城主河野季通の一女のみ助かり、後に第四代蛎崎武田当主季広の妻となる。蛎崎武田氏による宇須岸河野家の吸収。：新羅

永正10(1513)年　アイヌ民族が松前を攻略し、正副守護を殺害。その後、蛎崎武田信広の子光広(第二代)とその子良広(第三代)とが松前に移住する。
翌年、一連の'ショヤ･コウジの蜂起」を鎮圧する。:新羅
蛎崎武田光広が松前大館を攻め、正副守護を殺害する。：下国家松前累系

永正11(1514)年　出羽国河北郡桧山の下国安東当主尋李から、光広の'狄島守護権」及び諸州商船･旅人からの口銭徴収権が認められる。：新羅

天文19(1550)年　「東公の嶋渡」。桧山館尋李の嫡子舜李が渡島へ渡海。西部アイヌの長ハシタインを上国天ノ川に住まわせ、知内のトコモタインを東部アイヌの長とし、'上乗権」を認めた。諸国商船からの関銭は、蛎崎武田氏と両アイヌ間で按分した。：新羅
上国以北、下国のアイヌへの割譲完了。70年戦争終結。

4. 私見

- 中央に対してより周縁部を'上国」とする矛盾。近世松前氏の価値世界。三守護体制は疑問。あくまで、松前―宇須岸か。
- 上国正副守護、松前正副守護は同一地に居住。下国正副守護は函館湾の両端に分離。→出羽下国安東の勢力が直接的に及ぶのは茂別まで。函館湾には入れない。
- 宇須岸は『新羅之記録』では'内海宇須岸」と記される。内海(函館湾)＋宇賀浦は、出羽安東と南部との両面外交？コシャマインの蜂起後は南部をバックに再興？
  (参考) 内海之宇須岸攻破夷賊事者、志濃里之鍛冶屋村家数百、康正二年春、乙孩来而、令打鍛冶於劘刀、乙孩与鍛冶論劘刀之善悪価、而鍛冶取劘刀突殺乙孩(新羅ょ
- 安東定李の切腹後は、安東系勢力は下国をほぼ放棄へと向かった？

- 下北半島のやや安東寄りの蛎崎氏は浪人し、渡嶋西北部の辺境上国の防衛隊長。
- 蛎崎はアイヌ勢力と協力関係をもちつつ、南部勢力の駆逐をはかった。
- コシャマインの蜂起後、アイヌの協力の下、安東勢力の東端、茂別安東氏を吸収。
- 渡島の首座、松前安東氏の駆逐にも成功。
- アイヌの協力の下に'ショヤ・コウジの蜂起」を利用して、内海・宇賀浦世界をアイヌへ割譲、松前を武力制圧。→渡島の覇者。宇賀昆布の権益を松前に。
- 下国を完全にアイヌへ割譲し(上乗体制)、松前一極構造を完成。一応の平和達成。
- 蛎崎武田慶広(第四代)の母は河野氏。宇須岸・宇賀浦世界の吸収が覇権に不可欠。

【 Abstract 】

A Study of WATARITO

Kaneko, Satoshi(Hyogo University)

WATARI-TO(渡党) are the marginal men between Japanese and Ainu people in the Middle Ages. They lived at the southern end of Hokkaido - along the coast of the Tsugaru Strait. Suwadaimyozin-Ekotoba(諏訪大明神畵詞) is the picture and story scroll about legends of Suwa Shrine in Nagano Prefecture. It was created in the period of the Northern and Southern Courts. It says that WATARI-TO had characteristics of Japanese and Ainu people and Japanese-Ainu mixed culture. They had two bases , MATOUMAINU which is the old name of MATSUMAE(松前) and USORIKESHI which is the old name of HAKODATE(函館). Most of the historical materials related to WATARI-TO were written in the Edo period from the viewpoint of the Matsumae clan, winner of civil war in the southern part of Hokkaido, so it have been thought that MATSUMAE was the center of WATARI-TO. But I think that USORIKESHI is the center of WATARI-TO. Archeological remains relating to WATARI-TO in the HAKODATE area precede them in MATSUMAE area. The HAKODATE area is the production area of the highest class Konbu Kelp(昆布) . Until the early 16th century, USORIKESHI was collecting and trading center of the Kelp.

In the 15th and 16th centuries, there were many wars between the WATARI-TO and the Ainu people. The Kakizaki-Takeda clan(蠣崎武田氏) was one of member of WATARI-TO, and unified the area. The clan was allied with the Ainu people, gave up Hakodate area which was called “Inland Sea”, and allowed the Ainu people to dominate Hakodate area. The Kakizaki-Takeda clan succeeded to make MATSUMAE the only collecting and trading center of the Kelp.

에도시대, 서민문화 속의 우키요에와 호리모노

정지희(아시아문화원 아시아문화연구소)

1. 서론

금세기 우키요에(浮世繪, Ukiyo-e)는 일본을 상징하는 문화이자 일본을 대표하는 미술 장르로 불린다. 이 미술은 일본의 근세에 해당하는 에도시대(江戶時代,1603～1867)에 귀족이 아닌 서민을 대상으로,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만한 소재와 장치를 만들어가며 성장하였다. 에도시대에는 이와 유사한 태생의 새로운 장르문화가 대거 출현하였고, 그중에는 일본의 전통문신, 호리모노(彫り物, Horimono)도 있다. 호리모노는 에도시대의 우키요에 작품에 영향을 받아 생겨난 독특한 문화로, 인체를 캔버스처럼 활용하여 온몸에 문신을 덮는 일본의 문신양식을 가리킨다. 특히 19세기를 전후하여 많은 도시민들은 우키요에 작품의 도안을 자신의 몸에 새겼고, 이러한 행위는 당대 사회상을 담아냈던 우키요에와 가부키(歌舞伎) 극을 통해 다시금 재현됨으로써 호리모노는 두 장르와 함께 에도시대 일본을 대표하는 대중문화의 트로이카로 부상하였다. 이 연구는 일본의 문예부흥기로 손꼽히는 에도시대의 서민문화로서 우키요에와 호리모노에 주목하여 당대 서민문화의 예술성과 두 장르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에도의 서민문화의 부상을 살펴보고 오랫동안 하위문화로서 위치해왔던 호리모노, 일본의 전통문신에 대해서 재고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우키요에의 등장과 서민문화의 부상

에도시대(江戶時代, 1603～1867)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1542～1616)가 도요토미 히데요시(豐臣秀吉, 1537～1598) 가문과의 정권 다툼에서 승리하고 직접 쇼군(將軍)이 되어 에도를 중심으로 대도시를 형성했던 약 260년간의 통치시대를 일컫는다. 이에야스는 주변국과의 평화외교를 표방하고 사농공상의 엄격한 신분제도 아래, 중앙집권화로 다이묘(大名)의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참근교대제(參勤交代制) 등의 정책을 시행하며 경제적, 정치적 안정을 일궈냈다. 특히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은 상공계층인 조닌(町人)을 신흥 부르주아로 급성장시켰고, 이때 축적된 부를 기반으로 조닌은 문화주체로서 자리한다. 경제적 발달과 풍요로운 생활은 일반 서민들의 문화적 욕구까지 증대시켜 서민들도 이를 적극 향유하게 만든 동시에 향락적인 풍토마저 확산되어 각종 유흥문화가 발달하며 에도, 교토, 오사카를 중심으로 유곽이 번성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따라서 조닌의 주도하에 일본의 전통 문화 중심지인 교토와 달리 개인적 향락적인 문화를 추구되었고 서민문화로서 문학, 미술, 공연 등의 새로운 문화 장르가 대거 탄생하였는데, 이 시기에 출현한 대표적인 미술이 바로 우키요에(浮世繪)이다.

우키요에는 에도기의 판화 또는 그와 같은 경향으로 제작된 회화 작품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덧없는 세상을 그린 그림'이라는 뜻의 이 용어는 1661년, 작가 아사이 료이(淺井了意)에 의해 중세적이고 현세부정적인 우키요(憂世)의 개념을 전환하여, 근세적이며 현세 긍정적·향락적인 우키요(浮世)의 개념으로 부른 데에서 처음 사용되었다.[1] 이를 반영하듯 우키요에는 현세의 삶을 호탕하게 즐기며 살다가고픈 당대 서민들의 변화된 의식을 담아낸 그림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판화인 까닭에 다량 인쇄가 가능했고, 싼 가격에 서민들이 구매 가능했기에 그들이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되어갔다. 특히 18세기 중반, 우키요에의 제작방법 중 다색판화인 니시키에(錦繪)가 탄생하고 출판업자, 한모토(版元)를 중심으로 에시(繪師), 호리시(彫師), 스리시(摺師)의 협력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일본의 출판 산업과 함께 우키요에는 양식적 발전을 거듭하며 하나의 예술 장르로 출현하게 된다.[2]

실제로 우키요에는 초기에 불교의 경전이나 신상(神像)등에 작게 실린 삽화로 제작되었으나, 이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인기 연극과 소설의 삽화장면뿐만 아니라 일상 가정생활, 유녀(遊女), 스모 역사, 가부키의 유명 배우, 나아가 순수 자연의 풍경이 주가 되는 회화로 발전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도리이 기요노부(鳥居清信, 1725~1760)의 작품 <초대 사와무라 고덴지가 분한 츠유노마에>는 '간토 고루쿠' 극의 장면을 묘사한 것인데, 자신의 죄로 인해 실성한 여인의 모습은 유연한 옷자락의 곡선과 은은한 채색 표현으로 서글프기보다 청연하다. 도리이 기요나가(鳥居清長, 1752~1815)의 작품 <스미다 강가에서 즐기는 해질녘(大川端夕涼み)>는 한 여름철의 저녁 무렵 스마다가와 강가에서 더위를 식히는 여성들의 풍속화로, 인물들의 자연스런 포즈와 공간의 강약을 잘 활용하여 명랑한 분위기를 풍기는 동시에 여인들의 치장과 늘씬한 미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당시의 유행과 이상화된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였다. 또한 도슈사이 사라쿠(東洲齋寫樂)는 전통적인 야쿠사에의 테투리를 벗어나 배우를 이상화하기보다 신체적 특징을 의도적으로 과장하며 개성적 특징을 포착해낸 화가로 유명하다. 그는 <3대 사노가와 이치마츠가 분한 기온마치 하쿠진의 오나요(三代目佐野川市松の祇園町の白人おなよ)>에서 남성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남자배우가 교태를 부리는 창녀의 역할을 연기해야만 하는 당대 가부키 극의 모순을 꼬집듯 여장을 한 배우의 모습을 추하게 그려내며 해학적 면모를 보여준다.

이렇듯 우키요에는 초기부터 판화와 판본 문학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문학이 주는 재미에 교훈을 담아 그림 속에서 상호 불가분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또한, 유행을 주도했던 가부키 배우와 극의 장면 묘사를 통해 당대 미의식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소설과 극의 묘사를 시간의 추이와 새로운 작가들에 따라 번안하여 새롭게 읽히는 형식을 만듦과 동시에 당시 세태에 대한 풍자와 해학이 녹아있는 그림으로 막부의 정치를 예리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즉, 에도시대의 이 미술장르는 서민들의 일상을 현실감 있게 묘사함은 물론, 유미주의와 데카탕스적 삶의 쾌락과 이상향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이미지로 당대 문화를 진실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은 동시대 다른 장르 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본의 전통문신, 호리모노라 할 수 있다.

---

1) 아사이 료이는 1661년 그의 작품 『우키요 모노가타리』(浮世物語)에서 우키요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한 치 앞은 어두컴컴하고, 아무 쓸모없는 것, 자꾸 생각하는 일은 마음의 고통, 그때 그때 해결하고, 달·눈·꽃·단풍과 더불어 노래 부르고, 술을 마시며 흥얼거리고, 생계의 무일푼도 괴로움이 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고, 물에서 표류하는 표주박같이, 이것을 우키요(浮世)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김유미, 「아사이 료이(淺井了意)의 『우키요 모노가타리』(浮世物語)에 대한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학위논문(석사), 2005, p. 10 재인용.

2) 이미림, 「우키요에 출판문화의 특색에 관한 일고찰」, 일본문화연구, 제65호, 2018, pp.173~176.

3. 일본 문신의 역사와 호리모노의 출현

호리모노란 '사물을 새기다'라는 뜻으로, 에도시대에 생겨난 일본의 회화적 문신 양식을 일컫는다. 에도기에는 '이레즈미(入れ墨)'[3] 라고 불리는 형벌 문신 제도가 미미하게 존속했고, 그 이전에는 풍습으로서 문신 또한 있어왔기에 이러한 장식 문신의 출현은 변화된 시대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문신은 기원전 5000년경, 발견된 토우 조각상에서부터 일찍이 출현한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의 오래된 문신 습속을 명징하는 최초의 기록은 『삼국지(三國志)』, 「동이전(東夷傳)」, 왜인전(倭人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왜(倭)의 남자는 어른과 아이 구별없이 모두 얼굴과 몸에 문신(文身)을 한다…[중략]…지금 왜의 어부는 바다에 들어가 물고기와 조개를 잘 잡는데, 문신은 원래는 큰 물고기와 바다짐승을 피하려는 것이었으나, 후에 점차 장식이 되었다. 여러 나라들의 문신은 각각 달라 왼쪽이나 오른쪽 혹은 크거나 작은데, 왼쪽 혹은 오른쪽, 크고 혹은 작은데,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4]

이 기록에 따르면, 일본의 문신은 초기 방어 주술적 목적에서 훗날 미적 기능을 충족시키는 형태로 발전했으며 신분적 위계를 드러내는 사회적 기능까지 내포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대 문신 풍습에 대한 기록은 나라시대(奈良時代, 710~794)[5]에 이르러 중앙집권체제의 강화와 중화사상의 영향으로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 이 시기를 기점으로 형벌 문신, 이레즈미가 시행됨은 중앙 정부에서 문신 풍습을 터부시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다가 일본의 문신 풍습은 17세기 초, 에도의 유녀들 사이에서 애인과 함께 신념, 맹세의 표지로서 점 또는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거나, 야외에서 육체노동을 하는 남성들이 그림 문신을 하는 문화가 생겨나면서 부활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도기에 형벌문신이 존재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신은 주변화된 하위문화에 속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소설 『수호전(水滸傳)』이 일본에 소개돼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카츠시카 후쿠사이(葛飾北齋, 1760~1849)를 비롯해 많은 우키요에 화가들이 이를 소재로 권력을 풍자하는 반사회적인 영웅호걸의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우타가와 구니요시(歌川國芳, 1798~1861)의 『통속수호전호걸백팔인지일개(通俗水滸伝豪傑百八人之一個))』(이하 『통속수호전』)는 역동적인 포즈와 정교한 모티브 그리고 화려한 문신을 한 인물 묘를 통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구니요시는 원작에서 문신을 가진 약 6명의 인물을 15명으로 늘렸고, 총 74점 중 19점에 온 몸을 덮는 회화적 문신을 새김으로써 기존에 없던 새로운 영웅의 모습을 창안했다. 단적인 예로, '한지홀률 주귀(旱地忽律朱貴)'의 등에 불길을 뿜는 구미호 문신이 새겨져 있는데, 『수호전』의 많은 판본의 바탕이 된 『충의수호전(忠義水滸傳)』에는 등장하지 않는 점이다. 또한, 구니요시는 이 작품에서 지

3) 동시대 타투 씬에서 일본 문신 양식은 통칭 '이레즈미(入れ墨)'라고 불린다. 그러나 '먹을 넣다'라는 뜻의 이레즈미는 형벌 문신을 가리키는 용어로 출현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동안 범죄와 연관된 부정적인 의미로 읽혀왔다. 에도시대 들어, '사물의 새기다'라는 뜻의 '호리모노(彫り物)'라는 단어가 장식으로서 문신을 일컬으며 형벌 문신과 구분되어 사용되어왔기 때문에 필자는 일본 전통문신을 호리모노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4)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넷 《중국정사외국전》 발췌인용, "왜의 풍습, 문화, 자연환경, 사회제도에 관한 설명", http://contents.nahf.or.kr/item/item.do?levelId=jo.k_0004_0030_0040_0020

5) 임병덕, 일본속의 한국문화답사-오사카박물관과 나니와궁적(2), 충북일보, 2015/09/23(검색일: 2017/10/02), 2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14804

위가 낮은 인물에 문신을 부여함으로써 캐릭터의 변신을 꾀함은 물론 이들을 초월적인 존재로 변화시켰다.[6] 그리고 『통속수호전』의 문신 이미지를 고찰한 오누키 나호(大貫 菜穗)의 분석과 같이 주귀의 등에 그려진 구미호 꼬리의 배치와 장청의 손오공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숨결, 설용의 용 입에서 내뿜는 물의 표현 등은 배경의 문양이 육체의 입체감과 이어져 하나의 문신으로 보인다. 실로 흥미로운 기록은 『우키요에화가우타가와열전(浮世繪傳歌川國芳)』의 구니요시 항에서 그가 문신 밑그림을 그리는 데도 재주가 뛰어났다는 것이다. 또한 1830~1844년에는 문신이 성행했고 에도 장정들은 모두 앞 다퉈 문신을 했다고 하는데 그중 대부분은 무사나 용호류를 새기고 구니요시의 화풍이 문신에 가장 좋다하여 청하는 이가 늘 많았다는 기록도 있다.[7] 다른 저서를 살펴보면 우키요에 화가들은 간판 그림이든 의복 디자인이든 문신류의 장식미술이든 가리지 않고 작업했고 문신은 목판화를 따라 많이 묘사되었기 때문에 이는 문신 문양의 스타일과 유행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기록한다.[8] 실제로 우키요에 화가들이 문신 도안의 창작에 얼마나 깊이 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문신 애호가들은 우키요에를 실제 문신 도안으로 활용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에도시대 간행된 광둥어 사전 『속어해(俗語解)』를 바탕으로 한 『아속한어역해(雅俗漢語譯解)』에 기재되어[9] 있듯 이때의 문신은 고대부터 이어진 민족적 풍속과 관계를 의식하면서도 차별화된 것으로 존재하며, 이는'호리모노'라고 불려진다.

1811년, 에도 막부가 문신을 제한하는 여러 개의 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리모노의 유행은 도시민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빽빽한 목조 건물들로 인해 화재가 많았던 에도 시대에 공동체의 안위를 책임졌던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 시 화마를 피하기 위한 기복적 행위로서 주로 용이나 뱀과 같은 문양을 새기며, 호리시(彫り師)라고 불린 문신사의 주고객층이 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의 문신이 화마로부터 신의 가호를 기원하는 부적이자 스스로 물의 신처럼 마을을 지키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표지로서 나타났다는 데 있다.[10] 목수, 파발꾼, 어부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사고의 위험에 더 노출된 직업을 가진 이들 역시 자신의 직업과 취향을 반영한 문신을 선보였다. 따라서 호리모노는 동시대 문신의 기능과 유사하게 집단적 혹은 개인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기호로서 읽힌다.

더욱이 19세기 초중반 무렵, 호리모노는 당대 사회상을 담아냈던 우키요에와 가부키 극을 통해 확산되어갔다. 단적인 예로, 우타가와 쿠니사다(歌川國貞, 1786~1865)는 가부키 극의 이시카와 고에몬 도적을 묘사한 장면에서 화장과 문신을 활용해 많은 작품을 그렸고, 츠키오카 요시토시(月岡芳年, 1839~1892)는 요괴, 악녀, 악당 인물을 묘사하며 문신을 그렸다. 또한, 가부키 극'나니와의 여름 축제(夏祭浪花鑑)」에서는 주인공 단시치가 욕심 많은 그의 장

---

6) 『수호전(水滸傳)』 백팔명의 인물은 상위 36성을 천강성 삼십육성과 하위 72성을 지살성 칠십이성으로 나누며 순서에 따라 인물의 중요도를 정한다.

7) 이이지마 교신 저, 다마바야시 하루오 교정 『우키요에화가우타가와열전』, 중공문고, 1993, p.205, 大貫 菜穗, 歌川國芳《通俗水滸伝豪傑百八人之一個》におけるほりものの分析と考察, Core ethics: コア・エシックス Vol.6, 2010, p.52 재인용.

8) Riechie D and Ian B, *The Japaness Tattoo*, New York: Jone Weather Hiell, p.29, 양수미, 「우키요에 문양이 나타난 일본 이레즈미 타투에 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제21권 제2호, 2015, p.20. 재인용.

9) '刺字類書纂要云。凡竊盜初犯二犯刺竊盜二字于臂。家人自盜者免刺。至三犯問紋問斬。…[중략]…이 문신을 이른다. 또 수호전에 구문룡 사진 등이 자착일신청룡 등이라 함은 문신을 이름이다' , 사에키 도미 편 『아속한어역해』, 동붕사, 1976, p.106, 大貫 菜穗, 歌川國芳《通俗水滸伝豪傑百八人之一個》におけるほりものの分析と考察, Core ethics: コア・エシックス Vol.6, 2010, p.51 재인용.

10) 大貫 菜穗, 歌川國芳《通俗水滸伝豪傑百八人之一個》におけるほりものの分析と考察, Core ethics: コア・エシックス Vol.6, 2010, p.57 참조.

인을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장면을 묘사하며 호리모노를 새긴 몸을 변화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악의 맞서 싸운 의인의 이미지로 문신을 활용하기도 한다.[11] 가부키 극의 장치내지 배우의 초상화 등을 통해 호리모노는 확산되고, 이를 본 대중들은 그 이미지를 자신의 몸에 다시금 재현함으로써, 호리모노는 우키요에, 가부키와 함께 에도시대 일본을 대표하는 대중문화의 트로이카로 부상하였다.

개항 이후,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거리에서 포착된 일본인의 문신을 보고 호리시의 새로운 고객층으로 등장하면서 일본 전통 문신은 전 세계로 확산되는 듯 했으나 19세기 말, 문신 금지령의 강화로 호리모노는 음지화되어 갔다. 반면, 우키요에는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를 필두로 한 인상주의화가들에 의해 재조명되어 명실상부 가장 일본다운 미술로 자리매김한다.

4. 결론

인체를 캔버스처럼 활용하여 그림을 새기는 일본의 전통문신은 우키요에 작품에 영향을 받아 형식적 특징을 갖추며 하나의 문화로 형성되었다. 우키요에가 서정적 또는 에로틱한 정취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로부터 공감을 받아온 것처럼, 호리모노 역시 당시 서민들의 삶을 대하는 자세와 의지를 가시화해왔다. 이상과 같이 우키요에와 호리모노는 당대 서민들의 정서와 의식을 반영한 매체로서 나타나며 일본의 근세 문화를 살펴보기에 충분한 가치가 지니고 있다. 동시대 두 장르의 사회·문화적 위상은 상이하나, 일본 문신사를 고찰하며 문신에 대한 사회 저변의 인식이 제고되고 이를 문화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11) Naho ONUKI. *Japanese Tattoo as a Symbol of "Kabuki" Spirit,* Kyoto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Faculty of Art and Design, 2017. p.283.

【 Abstract 】

A Study on Ukiyoe and Horimono in Popular Culture of Edo Period

Jung, Ji-Hee(Asia Culture Research Institute, Asia Culture Center)

This thesis examines the artistic characters of Ukiyoe and Horimono, two representative folk culture in Edo era(1603~1867), so called Japanese Renaissance, and their rela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commodity money economy in Edo era, the population of urban merchants and craftmen, Chōnin(townsman), grew and so did new cultural genres such as literature, fine arts, or performances.

Ukiyoye was a kind of woodprint which mainly used important illustrations from popular dramas and novels, or portraits of Kabuki actors or prostitutes. Due to its cheap prices and mass production, Ukiyoe soon became one of the most popular genres. Among many Ukiyoe painters sketching heros who criticize society, Katsushika Hokusai(1760~1849) and Utagawa Kuniyoshi(1798-1861) stand out. Especially, the latter is famous for his characters from "*Tsūzoku Suikoden Gōketsu Hyakuhachinin no Hitori*(One of the 108 Heroes of the Popular Water Margin)). He depicted tatoos on the body of the lower dramatis personae gradually accepted as symbolic heros by the common people. Tattoo devotees came to use this Ukiyoe as a basic design when tatooing, which later on foster a new genre, "Horimono."

Edo people engraved this Horimono on their bodies to prevent from dangers or bad fortunes. This novel cultural trend was again depicted in Ukiyoe woodcuts or Kabuki dramas and became one of three most representative Edo popular genres.

Since the late 19th century, Horimono, while Uikyoe became the most famous Japanese art reevaluated and adapted by some impressionist painters such as Claude Monet(1840~1926) or Vincent van Gogh(1853~1890).

Overall, this study analyzes Ukiyoe and Horimono as the two artistic media representing feelings and consciousness of Edo common people. Ukiyoe and Horimono are meaningful in offering a way to scrutinize the pre-modern Japanese society as well as contemporary tatoo culture in Japan.

Section 4

韓日比較

한·일·중의 일본군 위안부 문학의 현황과 과제 / **南松祐**

현대 일본 소설에서 보는 한·일 혼례문화 / **吳秉禹**

한일 평생교육정책의 특성 비교 고찰 / **林永彦**

일제강점기 조선영화계와 재조일본인 / **全喜知**

한·일·중의 일본군 위안부 문학의 현황과 과제

남송우(부경대학교)

1. 머리말

1988년 한국기독교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국제세미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처음 제기되었을 때,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낸 한국거주 피해자는 없었다. 용어도 정신대란 말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1990년에 조직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도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1]. 그러나 1992년경에 들어서는 역사적 용어로서 위안부, 그 성격으로는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2]

그런데 김학순이 1991년 8월, 일본군에 의해 당한 피해를 공개 증언했고, 이후 다수의 피해자가 한국사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위안부에 대한 논의와 자료수집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의 등장 이후 관련단체들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 제정 운동을 벌이는 한편 생존 피해자들에 대한 구술 녹취작업을 시작했다. 1993년『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증언 1집(한울) 간행되었으며, 이후 군위안부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자, 중국 우한 등지에 피해자 여러 명이 생존해 있다는 소식이 국내에 전해져 미귀환 피해자들의 구술집인『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제1집(한을)이 1995년에 출간되었다.

이후 정대협 진상조사연구위원회가 엮은『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역사비평사, 1997)가 나왔으며,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 설립과 관련하여『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묻는다』(풀빛, 2001)가 출간되었다[3]. 그리고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정부기관의 지원으로 여러 연구자에 의해 다양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1년 김학순의 증언을 계기로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적인 이슈로

---

1) 종군 위안부에 대한 용어는 다양하다. 위안부, 정신대, 공창, 성노예, 작부, 창기, 일본군ㅁ 위안부, 일본군 성노예 등이 사용되고 있다. 종군위안부는 일제 강점기에 주로 위안부로 불렸다. 성을 제공하는 위안부는 ㅗ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원된 정신대와는 그 용어에 차이가 있다. 이들은 작부나 창기로도 불렸는데, 이것은 일본공창제도나 일반 성매매 여성을 지칭하던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쓴 것이다. 위안부하는 용어는 일본군이 붙인 이름으로, 집권자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 남성 중심적 용어여서 그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위안부 문제가 유엔 등의 국제기구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군대성노예라는 용어로 써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생존피해자들이 이 용어를 섬뜩하게 여기는 탓에 한국의 관련 연구자나 활동가 사이에서는 따옴표를 써서 일본군 '위안부'와 일본군 성노예 두 용어를 함께 쓰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따라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변화영, 「『종군 위안부』에 나타난 고통과 기억의 의미」,『비평문학』51, 2014, p,39

2) 강정숙,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연구, 어디까지 왔나」,《창비》 44(2), 2016, p.484

3) 이후로도 자료집의 출간은 계속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후지코시 강제동원 소송기록 1-4』(2005), 여성부『일본군 위안부 관련 국제기구 권고 자료집』(2004), 여성부『일본군 위안부 신문기사 자료집』(20094), 정진성 외『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외 자료조사 연구2』(2003), 김인덕 편저『강제연행사 연구』(2002), 여성부『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 자료집』(2004), 여성부『국외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실태조사』(2002) 등. 김미영, 「시간의 현상학: 역사와 내러티브(문학) - 종군위안부를 다룬 소설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2006, p,52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기보다는 한일 간의 갈등만 증폭시키는 현안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사회적으로는 대단한 관심사가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빈약한 편이다.[4]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 상황은 문학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한, 일, 중 삼국 문학 작품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삼국에서 발표된 위안부 문학 관련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다 다룰 수가 없기에 본고에서는 위안부 문학에 관련된 그 동안의 논의들을 정리함으로써, 위안부 문학이 현재 다루고 있는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일본군 위안부의 삶을 다룬 작품들은 역사서술의 언어가 매개할 수 없는 잉여. 즉 이미 완결된 사건으로 말하여진 언어의 부족함, 그 언어와 지시대상의 어긋남, 말해진 것과 표현되지 못한 고통 사이의 끝없는 괴리를 전달할 수 있는 점에서 역사서술과 다르고, 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다. 사실들, 혹은 사건들 사이의 공극을 메우고 있는 잉여들로 인한 상흔을 치유하는 데에는 문학적 내러티브가 매우 유용할 수 있다[5].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위안부 문학이 지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탐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본 논의가 지니는 의미이다.

2. 한국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학의 연구 현황

한국에서의 일본 위안부 문학은 1991년 김학순의 증언 이후, 활발하게 발표된 것으로 이해하지만, 해방 직후부터 계속해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한국문학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문학이라는 영역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학은 수적으로 희소하고, 질적으로도 빈약한 편이다.

이들 중에서 중요한 작품을 목록화 해보면, 엄흥섬의 「귀환일기」(『우리문학』, 1946), 장덕조의 「함성」(『백민』 9호, 1947), 박용구의 「함락직전」, 김정한의 「오키나와에서 온 편지」(《문예중앙》(1977), 김성종의 『여명의 눈동자』(태종출판사, 1977), 윤정모의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1982), 정현웅의 『그대 아직도 거기에 있는가』1-3(대산출판사, 1999), 고혜정의

---

4) 강정숙은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연구, 어디까지 왔나」(창비 44(2), 2016)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과제를 남겨두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더 진척되어야 할 과제로, 첫째, 식민지성과 민족문제에 집중되었던 연구관점을 젠더나 계급의 관점으로 확장해나가는 것, 둘째, 군 '위안부'제 운영을 위한 자금의 흐름도를 밝힐 필요가 있음, 셋째, 명부와 결합한 지역연구와 군 '위안부' 수 추정 작업, 넷째, 구술에 대한 이해와 분석작업 등을 들고 있다. (창비, 44(2), 2016) pp495-496
서현주는 「2006 -2016년간 일본군 위안부 연구의 성과와 전망」에서, 여러 가지 과제를 제시하면서, 아직은 시작단계임을 제시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사회운동의 범주에서 다루어지던 위안부 문제가 2007년 즈음부터 본격적인 학문적 의제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2013년 이후에는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실태를 둘러싼 논쟁이 학문적 영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역사적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존해 있으면서 아직도 그 피해로부터 완전히 구제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 구제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학문적 탐구도 피해자 구제라는 현실적 요구를 우선시하면서 그를 위해 필요한 논쟁을 시도해봐야 될 것이다. 이 점에서 위안부의 개념과 범주 나아가 규모 등을 둘러싼 논의를 이제 시작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현주, 「2006 -2016년간 일본군 위안부 연구의 성과와 전망」, 『동북아 역사 논총』 (53), 2016, P,217

5) 김미영,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역사기록과 문학적 재현의 서술방식 비교」, 『우리 말글』45, 2009, pp,234-235

『날아라 금빛 날개를 타고』(소명출판사, 2006), 소재원의 『그 날』(미래, 2014)권비영의 『몽화』(북폴리오, 2016), 김은진의 『푸른 늑대의 파수꾼』(창비, 2016), 이금이의 『거기 내가 가면 안 돼요?』(2016), 김숨의 『한 명』(현대문학, 2016) 등이다. 이들 중 몇 작품들이 보여주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논의들의 현황을 살핌으로써, 한국문학 속에서[6]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946년 2월 잡지 『우리문학』에 발표되었던 엄흥섭의 「귀환일기」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종전 후 일본에서 귀환하는 순이와 영희의 이야기이다. 애초 순이와 영희는 여자정신대로 탄약을 만드는 군수공장에서 일하게 되지만, 격심한 강제노역 중 공장을 탈출한다. 그러나 곧 가짜 형사에게 붙잡혀 취조를 당하고, 술집 작부로 팔리게 된다. 이후 청춘루에 있다가 8.15 이후 자유의 몸이 되어 고향에 돌아가려고 나선다. 정기 귀환선을 탈 수 없었던 그들은 청춘루에서 만난 탄광에 징용되었던 청년과 함께 '야미배'를 타게 된다. 임신 중이었던 순이는 비록 아비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조선 사람의 씨를 받은 '건국동이'를 배에서 낳고,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일본 사람의 씨를 받은 대구 여인도 갑판 한 구석에서 또 다른 '건국동이'를 낳게 된다.

이 소설은 식민지 시기 강제 징용과 징병을 당했던 조선인들이 귀환선을 타고 조선으로 돌아오면서 어떻게 조선의 민족으로 다시 귀환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탄광 노동자로 징용당했던 청년이 수많은 전쟁동포와 귀환 징용자들 중에서 조선인 아기와 일본인의 아기를 가진 조선인 여성들을 조선으로 돌아가도록 돕는다. 이들 여성은 건국동이를 낳으면서 어머니로서 조선 민족, 국민으로서 귀환하게 되는 것이다. 민족의 어머니, 건국동이들의 어머니로서 조선으로의 귀환은 일본군 위안부였던 고통의 기억을 귀환 서사의 주변으로 배제시켜버렸다. 그리고 이 배제는 일본군 위안부의 삶과 귀환을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으로 만들었다[7]고 본다.

1947년 『백민』에 발표된 장덕조의 「함성」은 또 다른 차원의 위안부 문제를 내보이고 있다.

이 작품 속에는 소작인의 딸인 점순과 준례가 정신대에 가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선발 과정이 식민 지방행정사무소에서 서기라는 식민지방 행정관이 정한 제비뽑기라는 형식을 차용하지만, 결국은 식민지의 하부권력이 능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소설 속에서 점순이는 도청이 있는 곳에서 달아났다고 했지만, 그가 집으로 돌아왔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서사 구조에서 의미있는 부분은 소설 속의 점순이는 이름만 등장하고, 단 한 마디의 목소리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점순이와 준례의 안부는 점순이의 어머니가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으로 달아났다는 소식이나 다시 잡혔다는 소식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8]. 즉 이름으로만 남는 위안부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종전 후 일본에서는 종군했던 일본 군인들의 전쟁체험기와 소설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한국에서는 학병들의 수기가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학병 출신 박용구가 1953년에 발표한 「함락직전」은 한국전쟁 시기 드물게 태평양 전쟁의 버마 전선을 그리고 있다. 후퇴를 계속해온

---

6) 사실 일본군 위안부 문학은 재미, 재일 한인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도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다. 예를 들면, 테레사 박의 A Gift of the Emperor(1997),노라 옥자 켈러의 Comfort Woman(1997)와 Fox Girl(2004), 이창래의 A Gesture Life(1999), 양석일의 『다시 오는 봄(2010)』 등이다. 윤영실,「동아시아의 장소들과 한국근대문학의 탈영토화 -조선인 위안부 재현 서사들을 중심으로」『현대소설연구』 67, 2017, p,83

7) 장수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문화적 재현 -해방 이후부터 50년대를 중심으로」, 《문학들》 48, 2017, p,31

8) 장수희, 위의 글, pp,34-35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던 '푸롬'시가 연합군에 의해 함락될 때까지의 모습이 이 소설의 주요 내용이다. 이 소설에서는 위안부의 동원과정과 일본 군대와의 관련성, 위안소 앞의 풍경을 전장의 일상적인 모습으로 묘시하고 있다.

이곳에 오게 된 위안부들은 조선과 중국에서 강제 동원되거나, 취업사기로 일본군 위안부가 되어 '푸롬'시로 오게 되었고, '위안소'가 군대가 관할하는 것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 위안소는 군 직영 위안소라고 할 수 있는데, 위안부들은 현지인에게 일본군에 소속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한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루어진 일본군 위안부의 징모는 군이 전면에 나섰다는 것이 특성이었다는 점이 소설 속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위안소에서의 위안부 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단편적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군인들이 위안소로 몰려들었을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형상화하고 있다.

> 댓잎문 안의 댓잎자리에 누운 그들 위안부들은 일체 말이 없다. 누운 채로 다음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위안부도 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 "빨리, 빨리,"
> 라는 한 마디뿐이다. 그것은 다음 병정이 어서 들어오기를 재촉하는 말이 아니었다.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병정이 빨리 나가기를, 그리고 모든 시간이 빨리 흘러가기를 재촉하는 말이었다.[9]

그런데 이러한 당시의 위안부들의 현실 상황 묘사는 조선인으로서 혹은 한국인으로서의 항거의식을 가지고 씌어진 것으로 읽어낼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오히려 군인의 눈으로 본 일본군 위안부들이 재현되어 있어, 종군했던 일본인 작가들이 쓴 소설들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음을[10] 문제로 제기한다.

이렇게 해방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소설들이 지닌 특징과 한계를 정리한 장수희는 2000년대의 증언과 해방직후 소설의 세계, 그리고 2000년대 이후 꾸준히 발표되는 일본군 위안부를 재현한 영화, 드라마, 소설의 세계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고, 또 어떻게 변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발견되고, 또 발견되지 않았는지, 이는 일본군 위안부 재현의 계보가 완성되었을 때,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11] 전망하고 있다.

김정한의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문예중앙, 1977, 11)는 1970년대 중반의 한국을 배경으로 오키나와에 계절노동자로 취업한 딸이 강원도 황지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는 서간체 형식의 소설이다.

강원도 황지 탄광촌 출신의 처녀 복진은 고향을 떠나 일본 오키나와 미나미다이토지마(南大東島)에서 계절 노동자로 취업하여 사탕수수 농가에서 일을 한다. 복진을 비롯한 친구들은 궁핍한 젊은이들을 모아 일본의 계절노동자로 알선해주는 한국의 재단법인 00기능협회의 소개로 짐 덩어리처럼 배에 실려 일본으로 왔다. 복진이 일하는 농가의 집주인 하야시는 전쟁 중에 홋카이도 탄광에 징용되고 패전 직전에는 라바울에 출정한 경험이 있는 만큼, 한국에서 온 처녀들에 대한 이해심도 깊다. 하야시의 아들 다케오는 오키나와 본토 미군기지 반환투쟁에 가담한 인물로서 역시 복진과 같은 처지의 노동자를 동정한다. 전시 중에 강제 징용된 광부와 여자 정신대의 모욕적인 경험, 또한 그들을 선동한 파렴치한 한국인 지식인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70년대 현재에도 이러한 역사의 부채가 계절노동자, 기생관광 등의 형태로 남아 있음을 복진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12].

---

9) 박용구, 「함락직전」『정통한국문학대계31』, 어문각, 1993, p,38
10) 장수희, 앞의 글, p,41
11) 장수희, 위의 글, p,43

이러한 복진의 오키나와로의 이동경로와 수송방식을 조정민은 여자 정신대의 재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보인다. 작품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여자 정신대에 대한 환기는 이들 계절 노동자를 해외로 송출해야만 하는 1970년대의 한국 현실과 정신대를 강제로 동원했던 일제 식민지시대를 대비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 때문일 것이다[13] 라고 본 것이다. 즉 복진을 통해 일제 식민지배에 있어서 피지배자, 피해자로만 일관되기 쉬운 조선 또는 한국을 재조명하고 있다. 복진은 정신대 문제, 강제 징용 문제 등 일제 식민지 시대의 치용ㄱ의 역사를 직시함에 있어서 그 원인을 식민자였던 일본에서만 구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복진의 날카로운 시선은 우리 사회에 있다. 울고불고 숨고 하던 처녀들을 억지로 끌어내는데 갖은 방법으로 협조한 우리 사람들을 단죄하고, 나아가 지금도 천 여 명의 광산촌 딸들이 수출되어 마소처럼 고달픈 노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높은 양반들의 가해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복진의 이러한 시선은 비단 높은 양반들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복진은 다케오로 대변되는 일본의 젊은 세대와 한국의 젊은 세대를 비교하며, 비판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의 모순을 은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식민지 지배라는 치욕의 역사와 전쟁의 고통마저도 망각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대해 강렬하게 비판하고[14] 있다.

윤정모의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1982)를 논한 윤영실은, 이 작품이 위안부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선구적 업적으로 인정되지만, 고향의 상상력과 결부된 가부장적이고 민족주의적 시각의 한계를 뚜렷이 보여주는 작품으로[15] 평가한다.

중편 분량인 이 소설은 전반부에서 소설가인 '나'(배문하)가 출생의 비밀로 고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부인과 지식을 버리고 일생을 술에 찌든 삶을 살다 죽은 '나'의 아버지(배광수)는 생전에 어머니(순이)를 '갈보'라고 욕하고, '나'에게는 쪽발이를 닮았다 라는 비난을 퍼붓곤 했다. 그 결과 '나'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일본 남자와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고, 자신의 몸 속에 일본인의 피가 흐를 수도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한다.

작품의 후반부는 출생의 비밀을 캐묻는 '나'에게 어머니가 위안부 경험을 고백하는 내용이다. 군대에서 세탁 일을 한다는 말에 속아, 오빠의 징용을 대신해 '정신대'에 지원했던 그녀는 필리핀에 끌려가 성노예의 삶을 강요당했다. 미군의 상륙이 가까워오자 조선인 위안부 여성들도 일본군과 함께 밀림을 행군하며 초목근피로 연명했다. 이 때 그녀는 학병으로 일본군에 끌려와 부상을 입고 안락사 당할 처지에 놓인 조선 남성을 도와 우여곡절 끝에 함께 조선으로 돌아왔는데, 그가 바로 '나'의 아버지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배광수)는 처음부터 위안부 출신인 아내(순이)를 향한 분노와 혐오를 숨기지 않았다. 그 이유를 윤 영실은 고향의 상상력과 연결시킨다.[16]

> "순이, 내가 왜 자꾸 화가 나는지 그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봤는데 말야. 그건 우리 고향 처녀들이 갖고 있는 질박하고 수수한 미가 당신에겐 없긴 때문에..."

---

12) 조정민, 「오키나와가 기억하는 전후- 마타요시 에이키 「자귀나무 저택」과 김정한 「옥나와에서 온 편지」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45, 2010, pp,333-334
13) 조정민, 위의 논문, p,335
14) 조정민, 위의 논문, pp,339-340
15) 윤영실, 「동아시아의 장소들과 한국근대문학의 탈영토화- 조선인 위안부 재현 서서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 연구』67, 2017, p,89
16) 윤영실, 위의 논문, p,90

순이를 향한 그의 혐오와 멸시는 그녀가 고향처녀들이 갖고 있는 질박하고 수수한 미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무심코 내 뱉은 “일본 남자를 상대하고 나면 여자의 그것도 일본식으로 변화는 게 아닐까?” 라는 말처럼 고향 처녀 같은 내음에 대한 추구는 민족의 순수한 혈통에 대한 욕망과 연결된다. 소설의 결말에서 밝혀지듯이, 위안부 출신 아내를 향한 분노란 일본이라는 이민족에게 유린당한 ‘치욕적 역사’로 인한 피해의식 투사에 다름 아니다. 그 피해의식이 자신의 아들마저 ‘왜놈의 종자’로 오해하고 내치게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소설 속의 그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남성 주체의 한계 안에 갇혀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대부분의 위안부 여성들이 고국에 돌아와서도 자신의 위안부 경험을 밝히지 못하거나, 혹은 위안부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가족이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학대받았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의 반응은 현실에 대한 핍진한 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의 부당한 핍박으로 위안부 이후의 삶마저 불행으로 점철되었던 ‘그녀’ 역시 가부장적 민족주의의 한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17]는 점이다. 이와 함께 윤영실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고향의 문제를 제기한다.

> 나에게서 뿐만 아니라 그 양반에게도 넌 특별한 의미가 있어. 그런 치욕을 겪고도 우린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얻었단 말이다. 천대 만대 대를 이어 갈 아들 ... 문하야. 이제 내 얘기는 끝났다. 니가 이 에미를 부인해도 좋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온 배씨 집안의 영원한 끈임을 너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
> 나는 어머니의 손을 끌어 잡았다. 당신이 옳았어요. 어머니. 어머닌 나를 낳고부터 배문하로 키웠을 테지만 나는 이제야 막 배광수의 아들 배문하로 완성되었어요....
>
> 별안간 달콤한 졸음이 바다처럼 다가왔다. 나는 어머니 손바ㄱ닥에 얼굴을 묻었다. 어머니 한숨 자구요. 우리 함께 아버지 고향엘 다녀와요. 어머니 고향두요. 가는 곳마다 제가 말할 게요. 내가 바로 배광수의 아들이라고

그녀가 평생 자신과 아들을 방기했던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도 자신이 낳은 아들이 틀림없이 이 땅에서 살아온 배씨 집안의 영원한 끈이라는 자부심에 있었다. 가문과 민족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음으로써 구원을 얻었다는 그녀의 소박한 믿음은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구시대의 불기피한 산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소설의 서술자이자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그녀의 아들 배문하마저 이런 사유를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의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18] 배문하의 아버지에 대한 피해의식, 어머닐르 향한 의구심은 오로지 자신이 일본인의 혈통이 아님을 확인함으로써 한꺼번에 해소된다. 식민지 조선의 위안부 여성과 강제 징용된 남성, 그리고 그들의 자손까지 모두 똑같이 불시에 재난을 당한 조선사람/한국인이라는 동질성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고향이라는 장소는 다시 불려 나온다. 육체의 유린에도 불구하고 혈통만 여전히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정당성이 그들 모두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때 고향은 소설 혹은 현실 속 개개인들의 실제의 고향이라기보다는 이미 추상적으로 관념화된 장소로서의 고향, 상실된 민족의 본래적 장소로서의 고향으로[19] 해석한다.

---

17) 윤영실, 위의 논문, p,91
18) 윤영실, 위의 논문, p,92
19) 윤영실, 위의 논문,p,92

그러나 소설 역시 관념적 결말로 비약해 가기 전에는 이 점을 말하고 있다. 위안부 여성에게 되돌아가 안주할 수 있는 민족적 고향 따위는 없음을. 사실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고향은 오히려 소외와 절망을 배가시키는 장소였다. 그런 점에서 돌아갈 수 없는 곳,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다. 위안부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가난의 고통을 뼛속 깊이 겪었고, 아버지나 오빠들의 가부장적 폭력에 시달렸으며, 고향집을 떠나 남의집살이를 전전했던 그녀들에게 고향은 돌아가도 반갑게 맞아줄 가족이 없는 곳, 변함없이 가난하여 살 방도가 없는 곳, 위안부 경험의 고통이 수군거림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곳에 불과했다[20]고 평가한다.

2006년에 나온 고혜정의 『날아라 금빛 날개를 타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서승희는 「일본군 위안부의 기억과 재현의 정치」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비판에 그치지 않고, 여성연대를 통해 전쟁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치유의 서사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날아라 금빛 날개를 타고』는 전문작가가 아닌 연구자 겸 운동가의 창작물이란 점에서 독특한 위상을 지닌다. 고혜정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실행위원이자 한국정신대 연구소 소장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인터뷰 및 증언집 출간 작업에 몸담았고, 중국 잔류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 다큐멘터리 영상작업에도 참여했다. 이러한 작업들은 일본구ㄴ위안부의 기억과 경험을 공적 담론의 장으로 기입하고자 하는 실천의 결과로 보고 있다[21].

『날아라 금빛 날개를 타고』는 오마당순이라는 조선인 소녀가 남태평양 군도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종전 후 귀국하는 여정을 담고 있다. 마당순의 인생은 액자식 구조를 통해 소설화되는데, 외화는 해직기자인 지식인 여성의 목소리로, 내화는 마당순의 목소리로 전개된다. 소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화는 지식인 여성이 노년에 이른 마당순의 구술을 받아 쓴 것이 아니라, 마당순이 소녀시절부터 작성한 일기를 입수하여 공개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언제나 대변/재현되는 대상으로 존재했던 위안부 여성에게 직접 자신의 역사를 직접 이야기하고 해석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로[22] 해석한다.

그리고 이 소설은 일본군 위안부라는 제도적 폭력이 자행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그려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조선인 하수인 업자로 추정되는 일본인이 짝을 이루어 찾아오는 장면, 공장에 가면 일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전언, 자신의 큰 오빠가 그리고 신여성들이 유학을 떠난 일본이란 장소에 대한 선망, 징용 대상자인 아버지를 대신하여야 한다는 협박,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 대신 기대감에 부푼 마당순의 모습, 그리고 마침내 일본인 군인들의 감시 속에서 이것이 사기극이었음을 깨닫는 장면, 끌려가는 뱃속에서 죽고 다치는 소녀들의 참경 등은 당대 위안부 모집의 리얼리티에 마당순의 캐릭터를 무리 없이 합치시키며 강제 동원의 한 사례를 인상적으로 재현하고[23] 있다.

이와 같이 마당순의 서사는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폭력의 구조를 낱낱이 증언하지만 피해의 사실을 보고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분노의 글쓰기로 나아간다. 고립된 섬에서, 게다가 생존권을 박탈당한 여성들이 일본군과 업자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당순은 말하는 주체로서 그들 앞에 선다. 이는 마당순 자신이 화자로서 서술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업에

---

20) 윤영실, 위의 논문,p,95
21) 서승희, 「일본군 위안부의 기억과 재현의 정치 - 소설『날아라 금빛 날개를 타고』를 중심으로」,『한국문학 이론과 비평』 20(3), 2016, p,228
22) 서승희, 위의 논문, p,230
23) 서승희, 위의 논문, p,233

대한 열망 덕분에 그녀가 어린 시절 일본어를 해득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마당순 스스로의 언어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실상을 알리고 비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동시에 여성적 치유의 가능성과 전망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24]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 마당순은 제대로 말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않는 여성들의 경험을 대신 써내려가는 것은 물론, 이미 죽었거나 또 다른 곳에서 죽어갈 이름 모를 여성들을 기억하는 행위를 시작한다. 총 아흔 아홉 개의 목각인형을 만드는 작업이 그것으로, 처음에는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다른 위안부들도 적극 동참하게 된다. 이는 전쟁 희생자와 생존자 모두를 향한 위로와 치유의 염원을 드러내는 행위로[25] 해석된다.

작가의 대변자라 할 수 있는 소설 속 지식인 여성은 에필로그에서 “고독한 복화술사”를 자처하며 마당순과 자신이 ‘언젠가는 허물을 벗고,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를 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것이 작가와 독자 모두를 포괄하는 우리의 화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역사의 운동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선언적으로 제시되는 데 그쳤을 뿐, 지금 여기 우리의 문제로 확장되고 구체화하는 경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이 소설은 트라우마적 경험을 피해자만의 것이 아닌 우리 전체의 문제로 사유하기 위해, 또한 증언을 미학으로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26] 작품으로 평가한다.

2010년 이후에 젊은 작가들에 의해 형상화되는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의식하게 한다. 그 중의 한 작품이 김숨의『한 명』이다. 이 작품에 대해 최진석은'진실을 조형하는 허구의 미학과 윤리 - 김숨의『한 명』에 나타난 위안부 형상과 문학의 정동」에서 이 작품이 주는 감동은 위안부들이 실제로 겪었던 사실의 참혹성 자체를 묘사했다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사실의 조각들을 한데 모아 이야기의 구조 속에 통합함으로써 진실을 구성하고 표현하려는 허구의 힘이 관건이다. 사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병치시키는 게 아니라 소설적 구도 속에 풀어냄으로써, 날 것의 사실성을 넘어서는 진실을 구성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7]고 본다.

이 소설에서 우리는 그 이름의 실제 주인공을 직접 만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설은 철저하게 허구의 규칙에 따라, 스토리와 풀롯의 예술적 구성 원칙에 의거해 이름을 재배치하고 있다. 이는 그녀로 지칭되는 화자의 시선과 체험에 비쳐진 세계이며, 그곳을 살아가는 타인들의 삶을 극화시킨 형태로 돌아온다. 실제 사실로부터 길어낸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주석 표시와 고딕문자체로만 간혹 도드라질 뿐, 그녀가 보고 들었던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로 변주되어 독자들에게 전해진다. 이 소설은 그렇게 허구 속에 섞여 들어 구별 불가능한 한 편의 이야기로 재구성되어 있다[28].

이 소설은 철저히 사실에 기반해 있고, 작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제경험을 고증하여 창작했다. 그러나 끔찍하고 몸서리칠 정도로 악마적이었던 일본군의 가학성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거나, 재현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술적 구성을 통해 피해의 체험을 다른 형식으로 전화시키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위안부 체험을 소설화시켰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작품에서 일본군 위안부 생

24) 서승희, 위의 논문, p,238
25) 서승희, 위의 논문, p,242
26) 서승희, 위의 논문, p,242
27) 최진석, '진실을 조형하는 허구의 미학과 윤리 -김숨의 『한 명』에 나타난 위안부 형상과 문학의 정동」, 한국예술연구(19), 2018, P,118
28) 최진석, 위의 논문, P,119

활에 관한 서술은 절반 정도의 분량에 그친다. 소설 후반부에서는 일본의 패전과 함께 주인공이 위안소를 탈출하여 천신만고 끝에 두만강을 넘어 한국에 들어오고, 다시 숱한 고생을 겪으며 고향으로 되돌아왔다가 떠난 후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후반부 이야기의 중심은 전반부에서 간간히 지속되어 온 그녀의 현재적 삶과 과거 회상, 그리고 홀로 남게 되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한 명에 대한 그녀의 심적 풍경을 보여주는 데 있다. 이 소설은 역사적 사실을 재현해 다큐멘테이션하는 위안부 소설이 아니다. 화자의 현재적 삶에서 빚어지는 위안부 피해의 문제의식을 예각화하고 재구성하는데 집중한다. 귀환 이후의 삶, 위안부 피해의 경험이라는 역사적 사실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성찰되어야 할 장면들, 허구적 보충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생존자들의 내적 체험의 풍경이 그것이다. 결국 위안부 문제란 당시 상황에 한정되지 않는, 현재적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29]는 의미이다.

그리고 김숨의 작품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르포르타주나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소설의 표현적 형식을 취하기 때문이라고[30] 본다. 그래서 소설『한 명』은 소설적 진실로서의 허구를 통해 우리 앞에 사실을 넘어서는 삶의 세계, 정동적 연대의 가능성을 묵묵히 보여주고 있다[31]고 평가한다.

3.일본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학의 연구현황

전후 일본 최초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를 다룬 소설은 다무라 다이지로(田村泰次郎)의『춘부전』(春婦傳)이다. 이 소설은 1947년 5월 긴자출판사(銀座出版社)에서 출판되었다. 이 작품은 위안부 여성인 하루미(春美)가 일본인 남성에 대한 미련을 끊기 위해 전장의 최전선지인 히노대관(일の出舘)으로 향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곳에서 하루미는 군대 부관인 나리타(成田)의 정부가 되나 그의 모욕적인 태도에 반발하고, 그의 부하인 미카미(三上)를 선택하여 사랑하게 된다.

이 작품은 군대의 최하위에 위치한 병졸과 그를 사랑하는 최하위층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동반자살이 병졸이 상징하는 군대＝천황제를 비판하는 도식을 취하고 있다. 하루미는 미카미가 마지막까지 벗어날 수 없었던 군대＝천황제를 상대화하는 비평적 시선을 제시하는 존재이다. 그런 그녀는 생명에의 본능으로서 자신의 육체를 감지한다. 다무라 다이지로는 욕망의 억제라는 도덕적 사고를 비판하고, 이를 타파하는 것으로 육체를 내세우며, 그 욕망의 의미를 재해석한 작가이다. 여주인공 하루미는 육체 자체가 하나의 의사인 인물이다. 작가의 육체문학 이론을 체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육체 그 자체가 하나의 의사인 여주인공의 생명에 대한 본능으로서의 육체는, 하루미라는 인물의 조선인 위안부라는 설정과 면밀하게 관련된다[32]는 것이다.

춘부전의 주인공인 하루미는 조선이름과 민족성을 가진 조선인 위안부로 설정되고 있고, 민족성을 드러내는 마늘과 고춧가루는 그녀들의 육체 안에 내재하는 생명의 강렬함, 혹은 본능을 표현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매개로 기술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성을 드러내는 이질적인 음식이 연상시키는 강렬함과 자극이 사상과 대치되는 육체적 관념으로 살아가

29) 최진석, 위의 논문, P,121
30) 최진석, 위의 논문, P,126
31) 최진석, 위의 논문, P,134
32) 최은주, 「전후 일본의 조선인 위안부 표상, 그 변용과 굴절」,『페미니즘 연구』14(2), 2014, pp,6-7

는 여주인공의 삶의 방식을 표상하고, 동시에 육체적 인간이 가지는 사상의 이질성을 드러내고 있다[33]고 본 것이다.

그런데 육체의 사상을 살아가는 주체적인 여성인 하루미는, 하급병사인 미카미의 또 다른 자아일 뿐, 민족적/젠더적 권력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현실의 여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춘부전의 조선인 위안부라는 표상을 차용하면서도 결국 일본군 병사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군 장교가 일본군 위안부와 맺는 관계성과 하급병사가 식민지 출신 위안부와 맺는 관계성이 결코 대등하고 대항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점, 즉 양자의 관계성이 동질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점이야말로 위안부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으로 다무라의 레토릭은 그 핵심을 놓치고 있다[34]는 것이다. 민족적/젠더적 성격이 은폐된 채 구축된 인물상은, 따라서 매우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픽션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다무라 자신이 작품 전체를 통해 드러내려했던 일본군 비판에는 유효할지 모르지만, 피억압자의 주변화된 목소리를 재구축하는 의의에서는 벗어난다.

결국 다무라가 하루미라는 표상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하루미가 아닌 미카미라는 일본군 하급병사의 존재이며, 그런 의미에서 하루미에게 부여된 민족의 이질성은 마지막까지 천황이라는 사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미카미에게 제시된 또 다른 세계로서, 위안부 그 자체를 비평의 지표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형태로만 차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이 전쟁 그 자체를 상대화 하는 파괴력을 가질 수 없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35]고 본다.

일본에서 종군 위안부에 관한 출판물이 실질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이들은 종군 위안부의 실상에 대한 각 개인의 단편적인 기록으로 대부분이 전쟁 체험을 서술하는 수기 형태를 취하고 있다. 물론 그 중에는 신문기자 출신의 센다 가코(千田夏光)의『종군 위안부』(1973-1974) 와 김일면의『천왕의 군대와 조선인 위안부』(1976)와 같이 관련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종군 위안부에 대한 전체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서적도 있다. 그러나 가와타 후미코(川田文子)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 종군 위안부물의 작자는 남성이고, 독자 또한 대부분이 구일본군출신의 남성독자들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36]. 비슷한 시기에 비교적 여성 독자들을 확보하고 있었던 야마자키 도모코(山崎朋子)의 『산다칸 8번 유녀관 -일 저변여성사 서장』(1972)과 모리사키 가즈에(森崎和江)의『가라유키상』(1976)은 엄밀히 말하자면 종군 위안부물과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들은 메이지시대부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로 건너가 성매매를 한 일본 여성들에 대한 기록으로 일본인 여성의 피해상황이 중심이고,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의 실태와 가해자로서의 일본인이라는 인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수기형태의 종군위안부물에는 위안부 제도라는 국가적 차원의 성폭력시스템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제기, 위안부의 젠더적 체험에 대한 배려, 그리고 성폭력의 가해자라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종래의 종군 위안부물은 구일본군 출신의 남성독자가 주로 자신의 체

33) 최은주, 위의 논문, p,7
34) 최은주, 위의 논문, P,10
35) 최은주, 위의 논문, P,10
36) 일본군 위안부를 형상화한 작품은 태평양전쟁에 참전한 경험이 있는 일본군 출신의 작가, 다시 말해 남성작가에 의한 작품으로 한정되어 있다. 작품 수는 많지 않지만, 다무라 다이지로의『춘부전』(1947),『메뚜기』(1964), 후지 마사하루의『동정』(1952), 후루야마 고마우의『하얀 논』((1970),『개미의 자유』(1971),『매미의 추억』(1993), 아리마 요리치카의『군대 야쿠자 -기사부로 일대』(1964), 이토 게이치의『물의 거문고』(1962) 등이 있다. 소명선, 「오키나와문학 속의 일본군 위안부 표상에 관해」,『일본문화연구』58, 2016, p,171

험을 회상하면서 무비판적으로 소비되어온 경향이 있었다[37]고 할 수 있다.

일본 문학 속에 나타난 위안부 문제는 소명선의 「오키나와문학 속의 일본군 위안부 표상에 관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38]. 오키나와는 태평양전쟁 중 일본 내에서 유일하게 지상전이 전개된 곳이며, 130여개의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된 지역이란 점에서 위안부 문학의 중요한 논의 대상 지역이다. 1975년 재류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안부 출신 여성의 첫 증언 이후, 오키나와에서는 일본군의 성폭력시스템이었던 위안부 제도와 전후에도 계속되는 미군의 성폭력에 대해 젠더적 관점에 의한 비판적 담론이 활발하게 전개된 지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산출된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일본군 위안부라는 역사적 타자를 어떻게 형상화해 왔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그 대상은 오시로 다쓰히로의 「가미지마」(1968), 마타요시 에이키의 『자귀나무 저택』(1980), 메도루마의 『나비떼 나무』(2000), 사키야마 다미의 『달은 아니다』(2012) 등이다. 이 작품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도 일본 중앙문단에서 발표된 위안부 관련 작품들과 비교하면서,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들 속에서 문학 영역에 있어서의 위안부 표상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논하고 있다.

「가미지마」(1968)는 오키나와전쟁에 관한 언설에서 은폐되어 왔던 집단자결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선구적인 작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선인 군부 및 조선인 위안부의 경우, 「칵테일파티」(1967)와 마찬가지로 일본오키나와, 미국과 오키나와, 일본과 미국이라는 이항대립식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도에 조선인의 존재를 추가함으로써 오키나와인 스스로에 대해서도 가해자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가미지마」(1968)는 조선인 위안부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보긴 어려우나, 1960대 당시 오키나와인의 역사인식의 구도에 조선인이라는 존재가 의식되고 있었다는 점과 편협한 오키나와 내셔널리즘을 비판하고 아시아적 문맥 속에서 오키나와인의 아이덴티티를 모색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작품의 의의는 크다[39]고 평가한다.

「가미지마」를 제외한 나머지 세 작품에는 공통되는 요소가 발견되는데, 그것은 위안부 출신의 여성을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광기에 사로잡힌 여성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자귀나무의 저택』의 강소리,『나비떼 나무』의 고제이,「달은, 아니다」의 노녀, 이들은 모두 자신의 트라우마를 스스로 표현할 언어를 잃고 존재 그 자체가 망각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게 되는 운명으로 그려지고 있다. 즉 그녀들의 광기는 폭력적인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적 반응으로, 이것이 이해를 거부하는 타자에게는 광기로서밖에 비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다[40]는 것이다.

폭력적인 사건의 기억을 기억의 저장소에 냉동시켜두는 것으로 생을 유지해나갈 수 있었던 『자귀나무의 저택』의 강소리에 대해, 기억을 회복하도록 강요하는 조선인에게 있어 그녀의 트라우마적 상처는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강소리는 조선인이라는 남성주체에 의한 고백이라는 닫힌 서술구조 속에서 자신을 표현할 목소리를 갖지 못했으며, 위안부라는 역사적 타자의 존재 의미는 민족의 역사라는 거대 담론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강소리의 목소리를 공백으로 처리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오키나와전쟁사에서 공소화된 위

37) 소명선, 「종군 '위안부'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해 -양석일의 『다시 오는 봄』을 기저로」.일어일문학 56, 2012, pp.177-178

38) 오키나와문학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형상화되기 시작한 것은 『자귀나무저택』을 기점으로 한 1980년대 이후로 보고 있다. 소명선, 「오키나와문학 속의 일본군 위안부 표상에 관해」, 『일본문화연구』58, 2016, p,174

39) 소명선, 「오키나와문학 속의 일본군 '위안부' 표상에 관해」, 『일본문화연구』 58, 2016. p.166

40) 소명선, 위의 논문, p.183.

안부 문제를 상기시킨다는 역설적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이것은 역시 위안부 표상에 있어서의 한계[41]라는 것이다.

그리고『나비떼 나무』의 경우, 요시아키의 시각으로 서술되는 가운데 고제이의 회상이 곳곳에 삽입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제이의 회상은 그녀가 체험한 트라우마적 기억의 일부가 반복적으로 그녀를 엄습해 오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문학적 기법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라우마 기억은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것으로, 마치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듯한 선명한 감각으로 되살아나는 플래시백(flash back)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회상이라는 형태로밖에 표현될 수 없는 것은 그녀의 트라우마 체험은 언어화되지 못한 상태이며, 또한 그녀의 체험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주변인들에게는 전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키야마의 '달은, 아니다」는 폭력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살아남은 역사적 타자가 그 체험과 기억에 대해 증언한다고 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기억이 담론화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표상의 폭력이라는 문제를 소설의 중심에 두고 있다고 평가한다. 논의한 앞 선 두 작품과 마찬가지로 위안부 여성의 트라우마 체험을 언어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어둠 속에서 자신을 표현할 목소리를 잃은 채 웅크리고 있는 수많은 타자의 존재를 상기시키고, 그들의 빼앗긴 목소리를 듣는 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한다는 것의 의미를 쓴다는 것을 통해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작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으로 평가한다. 다카미와가 의미불명의 원고를 해독하기 위해 취한 몸짓은 타자의 고통을 분유하는 모습이었고,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죽은 영혼들의 잡담에 귀를 기울이는 나의 모습은 스스로를 이야기할 목소리를 빼앗긴 역사적 타자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태도였다[42]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분석과 함께 소명선은 일본군 위안부를 형상화한 오키나와문학이 표상의 방법에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적 타자를 상대화하는 시점 없이 작가의 사상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거나, 작가의 리얼리즘에 대한 욕망으로 표상의 폭력에 노출시키는 것과 같은 도쿄 중심의 일본 문학과는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43]고 평가한다.

그래서 소명선은 위안부를 둘러싼 정치적 담론들과 마찬가지로 문학 영역에서 위안부를 형상화한다는 작업에도 폭력의 가해자로서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그린 작품이 산출되고 있다는 것은 망각의 존재로서의 위기에 놓인 일본군 위안부라는 역사적 타자의 부름에 응답하고자 하는 오키나와 작가들의 적극적인 태도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44] 있다.

소명선이 일본군 위안부를 형상화한 오키나와문학 작품 중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키야마 다미의『달은, 아니다』를 조정민은 「역사적 트라우마와 기억 투쟁」이란 관점에서 논하고 있다. 이 작품 속에 나타나는 역사적 트르우마의 문학적 재현과 서사의 정치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사키야마의 소설은 위안부의 삶을 구체적으로 재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안부에 대한 기록이나 기억, 서사에 관한 표상의 정치성을 다루고 있으며 위안부의 서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도 커다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45]고 보았다.

---

41) 소명선, 위의 논문, p,167
42) 소명선, 위의 논문, p,184
43) 소명선, 위의 논문, p,184
44) 소명선, 위의 논문, PP.184 - 185
45) 조정민, 「역사적 트라우마와 기억 투쟁」,『일본사상』30, 2016, p,266

사키야마 다미의『달은, 아니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갈등이나 사건이 일어나고 마무리되는 보통의 소설과 다른 전개를 보이기에, 그 흐름과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쉽지 않은 소설로 인식되고 있다.

이 작품은 오랫동안 편집자로 일하던 다카미자와가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한 업무상의 일을 '나'에게 부탁하고 사라진 뒤, '나'가 환시와 환청의 순간 속에서 업무상의 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적해 가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 '나'는 아무 것도 쓰여 있지 않은 백지에다가 저자마저 알 수 없는『자서전』과 마주하게 되는데, '나'는『자서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다카미자와가 남긴 업무상의 일이라 상정하고 그녀가 남긴 육성 녹음을 실마리로 삼아 업무상의 일을 진행시키고자 한다. 그런데 때때로 일어나는 환상 속에서 '나'는 다카미지와가 어느 한 젊은 남성 작가의 논픽션 다큐멘터리『진흙바닥으로부터 - 어느 할머니의 외침』을 접하게 된 사실과 이후 그녀가 직접 어느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 사정, 그리고 어느 할머니와의 만남 뒤 방대한 양의 두루마리 원고와 씨름하게 되는 경위 등에 대해 알게 된다. '나'는 다카미자와가 고백하는 일련의 사건들이『자서전』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유추해 가지만 결국 또 다른 환상 속에서 죽은 혼령들과 만나게 되고, 그 속에 다카미자와의 모습이 섞여 있는 것 같아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는 것으로 소설은 끝이 난다.

여기서 조정민이 주목한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환시와 환청이 단속적으로 개입하는 작품의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주제만큼은 일관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록이나 기억에 내재하고 있는 동일성의 정치와 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46]로 본 점이다. 즉 한 젊은 남성 작가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취재하여 쓴 논픽션 다큐멘터리『진흙바닥으로부터 - 어느 할머니의 외침』, 또 인종이나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여자 사진이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공백의『자서전』, 그리고 다카미자와가 운영하는 편집공방 <세 여자>에 도착한 12개의 의미 불분명한 원고 두루마리와 그것을 독해하려고 1년 이상을 매달린 다카미자와의 고백, 편집공방 동료들의 증언, 마지막으로 다카미자와가 편집공방 <세 여자>를 해체시키고 행방불명되기 직전에 남긴 육성 녹음 등, 이 소설에는 다양한 형태의 기록을 통해 과거가 복원되고 있으며 각각의 기록은 조금씩 서로 보완적인 작용을 하거나 혹은 전혀 상반된 담론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진흙바닥으로부터 - 어느 할머니의 외침』이라는 논픽션 다큐멘터리 원고에 대한 편집자 다카미자와의 반응은 매우 상징적이[47]라고 해석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카미자와는 할머니의 실명과 신체를 시성의 위안부 담론에 포섭시키고 안착시키려 했지만, 할머니는 역으로 다카미자와의 위안부 재현방식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48]라는 것이다. 즉 다카미자와는 할머니로부터 제국주의에 대한 규탄이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원한, 혹은 자신의 신체를 뒤덮었던 상처의 고백 등을 기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정민은 할머니의 죽음 이후 편집 공방에 도착한 12개의 원고 두루마리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감각적으로 읽기 시작하는데,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 이렇듯 다카미자와에게 있어서 읽는 행위란 글 쓴 이의 감정과 감각에 자신의 신체가 온전히 삼투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그녀가 글 쓴 이의 세계를 남김없이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그 녀가 글 쓴 이가 만든 세계에서 조금도 자유스러울 수 없음을 시사하는 바이기도 하다.
>
> 자신만의 독특한 신체 반응으로 글쓴이와 동일화의 과정을 거치던 다카미자와는 역설적이게

46) 조정민, 의의 논문, p.271
47) 조정민, 위의 논문, pp.271 - 272
48) 조정민, 위의 논문, p.274

> 도 글 쓴 이와 자신 사이를 가로지르는 깊은 틈새와 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나아가 자신이 감지한 것을 어떠한 형태로도 재현시키지 못했다.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작가의 언어를 공감하는 것과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재현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며 심지어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기도 했다. 예컨대 백지로만 구성된『자서전』이 나에게 남겨진 것과 해독하기는 했지만 활자화시키지는 못했던 12개의 두루마리 원고는 다카미자와의 서술할 수 없음, 재현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49]

이는 원고를 읽는 방식이나 읽는 이의 주체성에 따라 원고 내용이 가변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요한 것은 원고내용이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의미화시키며 읽어나가는 독자의 수행적 역할에 있다는 것이다. 쓰여 있는 것과 시시각각 투쟁하며 의미화 시켜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의미로 수렴시키거나 고정시키지 않는 것이야말로 읽는 행위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조정민은 다카미자와가『자서전』을 백지로 남긴 이유는 바로 그녀 자신이 보여준 읽는 방식에서 찾아야 한다[50]고 본다.

그리고 이 작품에 나타나는 유령 혹은 혼령의 출현은 목소리를 잃어버린 자들의 목소리를 과거로 만들지 않고 현재의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다. 즉 죽음을 현실 안으로 끌어들여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를 교란시킴으로써, 죽은 자들을 죽지 않고 되살아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작품을 통해 어떤 존재에 대한 규정이나 정의, 의미부여를 미루며 쓰기와 읽기의 관성에서 벗어나 있으려 했던 작가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독자는 파편화된 맥락을 재구성해야 하는 숙제를 매번 떠안게 된다고 본다. 그러니 이 분절된 틈 사이로 낯선 이방인, 혹은 독자는 끊임없이 개입하며 재현된, 혹은 재현되지 않은, 재현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주목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상과 재현 사이의 간극이 만드는 긴장을 응시하는 것, 그 간극 사이로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이방인 혹은 유령의 목소리가 도래하는 것을 감지하는 것, 섣부른 화해나 치유로 과거를 과거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 그로 인해 다시 한 번 목소리를 잃어버린 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사키야마 다미가『달은, 아니다』에서 말하고 싶은 것[51]이라고 조정민은 해석하고 있다.

양성일은 2010년『다시 오는 봄』을 출간했지만, 2012년 한국어로 번역 출판되었을 때의 국내의 반응과는 대조적으로, 일본 문단은『다시 오는 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다시 오는 봄』은 김순화라는 여성이 일본 순사의 속임에 넘어가 위안소에 넘겨지는 과정부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까지의 8년간의 위안부 생활을 전지적 화자에 의해 서술하고 있다[52]고 본다. 8년간의 통시적 시간 축을 따라 일본군의 광기같은 성폭력 실태와 위안부들의 고통을 직설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즉『다시 오는 봄』은 위안소 방 안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위안부의 고통을 전달하려한다. 그러나 위안소 방 안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쓰지 않으면 위안부의 고통은 알 수 없을까 라고 의문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위안부의 고통에 공감공고하고 그 고통을 독자와 분유하기 위해서는 위안부의 젠더화된 경험과 트라우마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53]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

49) 조정민, 위의 논문, pp.279 - 280
50) 조정민, 위의 논문, p.281
51) 조정민, 위의 논문, pp. 288- 289
52) 소명선, 「종군 위안부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해 - 양석일의『다시 오는 봄』」,『일어일문학』(56), p.190
53) 소명선, 「오키나와문학 속의 일본군 위안부 표상에 관해」,『일본문화연구』58, 2016, p,173

위안부의 경험을 절시하듯 상처의 내부까지도 충실히 묘사하는 것은 작가에 의한 표상의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오는 봄』은 소설이라는 장르를 통해 종군위안부를 형상화하는데 있어 작가의 리얼리즘에 대한 욕망이 과도하게 표출되고 있고, 그로 인해 일본인 독자의 회피와 무반응/무응답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54]고 평가한다.

4. 중국에서의 한국위안부 문학의 연구 현황

그 동안 중국 현대문학[55] 속의 한국인 위안부 제재 작품에 대한 정리와 연구는 개별 작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국학자 왕학진(王學振)의 「항전문학중의 위안부 제재」라는 논문에서 중국 항일문학에 나타난 위안부 관련 작품을 고찰하면서, 그 가운데 한국인 위안부를 제재로 한 왕계사(王季思)의 「조선소녀음(朝鮮少女吟)」과 반세정(潘世征)의 「적의 종군 영기 조사 -등충 성내의 가련한 사람들(敵隨軍營妓調查 -騰沖城內的 -群可憐虫)」이라는 두 편의 작품을 언급할 정도이다. 그런데 한샤오(韓曉).뉴린제(牛林杰)에 의해 한국인 위안부를 제재로 한 중국 현대작품은 9편으로 정리되었다[56]. 그 작품은 다음과 같다.

① 서군(舒群), 「혈의단곡8(血的短曲之八)」, 중학생(中學生)전시반월간(戰時半月刊), 제3호, 1939.6
② 왕계사(王季思), 「조선소녀음(朝鮮少女吟)」, 월풍(越風), 금화국민출판사(金華國民出版社), 1940.9
③ 반세정(潘世征), 「적의종군영기조사-등충성내의가련한사람들(敵隨軍營妓調查-騰沖城內的一群可憐虫)」 4), 전노강(戰怒江), 문강도서문구공사(文江圖書文具公司), 1945.3
④정연(鄭燕), 「고려아가씨(高麗姑娘)」, 상해의비밀(上海的秘密),중국출판공사(中國出版公司), 1946.1
⑤ 남운(藍沄), 「한국 '영기' 방문기(韓國"營妓"訪問記)」, 여성(女聲)(월간)제4권,제2호,1946.3
⑥ 육중(陸中), 「가련한 사람!영기들이모이다(可憐虫!大批營妓集中)」 ,문반(文飯)제5호,1946.3
⑦ 호치(虎癡), 「영기(營妓)」, 만상(萬象)(주간)제3호, 1946.4
⑧ 대광(大狂), 「영기(營妓)」, 풍광(風光)(주간)제9호, 1946.5
⑨ 이인(伊人), 「상해의 한국 매음녀(韓國賣淫女郎在上海)」, 칠일담(七日談)(주간)제4호, 1949, 1

위의 작품들의 발표시간은 항일전쟁(2차 세계대전) 당시와 전쟁이 끝난 바로 이후의 두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전시에 발표된 작품은 3편이며, 전후에 발표된 작품은 6편이다. 위안부가 중국 현대문학 작품에 등장하게 된 것은 항일전쟁 때 일본 군인이 포로가 되어 그들과 함께 있던 위안부가 발견되면서부터였다. 이 작품의 저자에는 소설가도 있고, 시인과 종군기자도 있으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일반인도 있다. 서군은 소위 동북작가군 일원으로서 한인제재 작품을 많이 창작하였으며, 왕계사는 희곡 연구 학자이다. 그리고 반세정은 당시 중국 군사위원회 기관지인 <소탕보>(掃蕩報)의 기자였다. 장르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의 작품들은 소설, 고체시, 보고문학, 기사 등으로 다양하다. 이 중 보고문학이 가장 많으나, 예술적

54) 소명선, 앞의 논문, pp.190-191
55) 중국에서의 현대문학에 해당하는 시기는 1919년부터 1949년까지이며, 당대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1949년으로부터 지금까지의 문학을 말한다.
56) 한샤오(韓曉).뉴린제(牛林杰),「한국인 '위안부' 제재 중국 현대문학 작품에 대한 고찰」,『아시아문화연구』42, 2016, p.181

수준과 감화력에는 시와 소설만큼 풍부하지 못한 한계도 보인다.

그리고 작품 속에 나타나는 위안부에 대한 호칭은 작품마다 다소 달리 나타나고 있다. ; 영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서군의 「혈의 단곡 8」에서는 '일군의 기녀'라고 하였고, 왕계사의「조선소녀음」에서는 그들을 '위로반'의 소녀라고 하였으며, 반세정의 「적의 종군 영기 조사」에서는 '종군 영기'라고 하였다. 종전 후의 작품에서는 주로 '영기'라고 칭하고 있다[57].

그런데 한샤오(韓曉).뉴린제(牛林杰)는 이 작품들 중 「혈의 단곡 8」과 「조선소녀음」 이 두 작품은 장르가 다르지만 조선 여성이라는 타자의 슬픔을 통해 민족과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연대의식과 휴머니즘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혈의 단곡 8」은 1938년부터 1942년까지 창작된『혈의 단곡』이라는 연작 소설 중의 하나인데 액자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작품 속의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산간지역으로만 제시되고 있다. 이 소설이 창작된 당시 서군이 고향인 동북을 떠나 연안에 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동북이나 서북지역인 것으로 추정한다. 중국군 '나'와 조선여자 '그'의 해후, 민족주의에 대한 '그'의 깨달음, '내'가 '그'에게 베풀어준 인간애 등이 소설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의미있는 부분은 작품 마지막 부분에 고향에 언제 갈 수 있냐는 조선여성의 질문에 대해 '나'는 "곧 가게 될 것이다", "돌아가고 싶은 조선 사람들이 모두 고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는 것도 작가의식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위와 같은 '나'의 대답은 '위안부' 여성의 소원과 침략자를 반드시 쫓아내겠다는 '나'의 믿음을 함께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믿음은 단지 절망에 빠진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한 작가의식의 발로이기도 하다. 일본군이라는 같은 적을 두고 반항의 입장에서 '나'와 '그'는 우리가 되어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는 국제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 소설은 민중의 민족의식과 저항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작가의 의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소설의 주요 타자인 조선인 '위안부'의 슬픔과 아픔을 통해 식민지 조선에 대한 중국 사람의 동정심을 자아내면서, 일본의 침략을 당한 민족끼리 서로 도와주어야 하는 국제연대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위안부' 개인의 치욕과 고통은 민족의 수난으로 인한 것으로, 민족해방의 길은 '그'의 고통을 달래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여성의 개인 슬픔은 민족주의에 양보되어 개인의 아픔을 고발하는 민족주의를 선언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그러므로 일본군의 만행을 당한 여성개인의 수난과 정신적, 심리적 치유방법, 그리고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인식이 부족하다[58]고 평가한다.

「조선소녀음」은 1940년에 발표된 전시 작품이다. 저자 왕계사는 유명한 희곡연구의 전문가이며, 고전문학에도 조예가 깊다. 그는 이 작품을 고체시 형식 중의 하나인 가행체(歌行體)의 형식으로'위안부'가 된 조선 여성의 아픔을 묘사하고 그들에게 강한 동정심을 보여주며 당시 비슷한 운명에 직면한 중국 사람들의 각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 시는 칠언 율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총 62구로 이루어져 있다. 시의 구성은 먼저 두 소녀가 중국으로 끌려온 사연을 밝히고, 위안부가 된 두 조선 소녀의 슬픔은 일본군의 유린을 당한 개인의 비애일 뿐 아니라, 국권 상실로 인한 약한 민족의 슬픔이자, 벗어날 수 없는 운명임을 노래한다. 이어서 작가는 조선 소녀가 중국으로 끌려온 과정과 위안부들의 비참한 실상을 기록하

57) 한샤오(韓曉).뉴린제(牛林杰), 위의 논문, pp. 180-181
58) 한샤오(韓曉).뉴린제(牛林杰), 위의 논문, p,187

였다[59].그들 여성 일행 36명이 같은 날에 고향을 떠났는데 현재 살아남은 자는 몇 명 되지 않음을 보여주면서, 피눈물을 흘린 위안부들의 고통을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조선 여성들의 비극을 묘사하면서, 시인은 그들을 구해주고 삶의 새 희망을 가져다준 중국군을 등장시킨다. 중국군의 인간애와 일본군의 비인간적 행동을 대조하여 중국군을 찬미함으로써 중국군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시는 다시 위안부들에게 시선을 돌려 그들의 신세를 한 번 더 한탄하고 있다. 시구의 처음과 마지막이 조응되는 형식으로 망국의 아픔을 다시 부각시켰다. 결국 왕계사는 이 작품을 통해, 타자를 통해 타자와 자아가 생존하는 위기와 곤경을 인식시키고, 불우한 조선 여성의 모습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중국인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저자는 전쟁이라는 매개로 타자를 가깝게 관찰하고 살펴보면서, 약한 타자에게 따뜻한 휴머니즘의 정신을 베풀어 주고 있다.[60]

다음은 앞 선 두 작품과는 좀 다른 성격의 작품이 종군기자 반세정이 쓴 '적의 종군 영기 조사」이다. 저자 반세정은 서남연대[61]출신이며 항일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학생이었던 그는 뜨거운 열정으로 종군시자가 되어 온갖 고생을 하며 서남전선의 전황을 여실히 보여준 기사와 사진자료를 많이 남겼다. 전쟁이 끝난 후, 1945년 그는 전시에 쓴 기사들을 모아서『전노강』이라는 보고문학집을 내었다. 이 책은 네 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15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적의 종군 영기 조사」는 제 4장의 마지막 절이며 1944년 9 · 18 기념일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반세정은 이 글에서 동충에 있는 위안부 공관, 즉 위안소의 실체를 밝혔다. 그리고 붙잡힌 일보군 포로의 말에 의하면 성내에 48명의 위안부와 5명의 포주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들 중 학살을 피해 도망하려던 한국인 위안부 13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 중 포주가 두 명이고, 11명이 위안부였다.

조선여성이 위안부가 된 과정에 대해 반세정은 :적군은 영기제도를 실시하였고, 조선에 사람을 보내 가난한 여성을 모집하게 하였다. 그들은 의식주가 불안정한 어머니에게 돈을 주거나 아예 부모 없이 사는 고녀를 돈을 주고 사서 자기 양딸로 삼아 중국으로 데려왔다. ... 이 중에는 외모가 잘 나지 못하여 조선인 남편에게서 버림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이 길을 걷게 된 여자도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저자는 박해를 당한 위안부들의 신세를 불쌍하게 여겼지만 일부 위안부들이 정신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것도 아쉬워하였다.[62]
반세정이 이렇게 한국인 위안부 문제를 상세하게 밝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중국 자체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한국인 위안부의 불쌍한 처지를 통해 중국 국내에도 각지에서 삶의 보장도 없이 빈곤에 허덕이는 여성들이 많다는 사실을 연상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여성의 해방문제는 전후 국가건설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일찍 깨달아 여성의 해방을 호소하였다는 것이다. 저자는 여성문제를 민족해방 못지않은 중요한 임무로 여기고 여성문제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앞선 두 작품과의 차이점이 나타난다[63]고 할 수 있다.

---

59) 한샤오(韓曉).뉴린제(牛林杰), 위의 논문, p,188
60) 한샤오(韓曉).뉴린제(牛林杰), 위의 논문, pp,189 - 190
61) 국립서남연합대학은 중국항일전쟁 때 운남성 곤명에 설립된 종합대학이다. 이 대학의 설립은 항일전쟁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전면적 항일전쟁이 발발한 후, 일본의 대대적인 침략에 의해 대학의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리고 망국노가 되고 싶지 않다는 의지로 일부 대학은 내륙으로 옮겼다. 1938년 4월 전세가 위급해지자, 이미 호남성 장사에 옮겨 국립장사임시대학이 명명한 국립북경대학, 국립청하대학, 사립남개대학은 다시 서쪽 곤명으로 와서 국립서남연합대학으로 개칭하였다.
62) 한샤오(韓曉).뉴린제(牛林杰), 위의 논문, p,193
63) 한샤오(韓曉).뉴린제(牛林杰), 위의 논문, pp193 -194,

다음은 전후 중국 체류 한국인 위안부의 삶을 다룬 작품들이다. 전후 중국 체류 한국인 위안부 관련 작품은 6편이 있는데, 모두 상해를 무대로 하고 있다. 그 중 5편은 1946년, 즉 일본이 항복한 바로 다음 해에 창작되었다. 종전 후 위안부 관련 중국 문학 작품들은 대부분 한국인 여성에 초점이 집중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중국학자 송소붕은 귀향은 위안부 문제의 종결이다. 그래서 저자는 종전 후 여전히 귀향하지 못하는 조선인 위안부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은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조선인 위안부들이 영기라는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들이 유괴당한 가련충으로 여겨지고 그들의 운명은 식민통치로 인한 불행으로 여겨졌다라고 지적했다. 종전 후, 바로 귀향하지 못하고 거리에서 헤매는 조선 여성의 모습을 중국 지식인들은 불쌍히 여겨 그들을 작품에 등장시켰다. 호치의 「영기」라는 작품은 바로 한국인 위안부에 대한 중국 사람의 동정심을 보여준 시가이다.

迫向軍営献此身 구박을 당해 어쩔 수 없이 군영에 몸을 바쳐
狂蜂浪蝶送残春 일본군들에게 몸을 빼앗겼네
而今湖海飄零客 지금 유랑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사람은
尽是萱韓夢裏人 조선의 여자들이었구나

칠언절구로 이루어진 이 시는 한국인 위안부들의 불쌍한 신세를 한탄하고 그들에 대한 저자의 동정심을 보여준다. 1행과 2행은 식민지 출신의 여성으로 어쩔 수 없이 일본군의 영기가 되어 유린당한 조선 여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으며, 3행과 4행은 일본군이 패망한 이후에도 여전히 귀향하지 못하고 거리의 부랑자가 된 그들의 불행을 읊고 있다.

이렇게 일제의 패망과 더불어 고국으로 귀환하는 길을 찾아내지 못해서 방황하던 위안부들은 중국각지에서 상해로 모여들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 각지에 남게 된 여성도 있었다. 전쟁이 끝난 최초의 몇 년에는 상해에 있는 위안부들을 대상으로 한 기록이나 문학작품들이 비교적 많았다. 그들 가운데 임시 수용소에서 노동하고 교육을 받는 사람도 있고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매춘부로 전락된 여성도 있었다. 「상해의 한국 매음녀」와 「고려 아가씨」는 바로 상해에서 매춘부로 전락한 전 위안부들을 제재로 한 작품이다. 「상해의 한국 매음녀」는 전후 상해 체류 한국 매음 여성들의 총체적 상황을 보여주고, 「고려 아가씨」는 그 중에서 한 여성의 불우한 운명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항복한 후, 한국의 유식자들은 상해에서 스스로 수용소를 설치하여 전쟁 당시 끌려온 한국인 위안부들을 수용하였다. 이 시기에 발표된 「한국영기 방문기」와 「가련한 사람! 영기들이 모이다」라는 실기는 바로 수용소에 있는 위안부들의 실상을 기록한 것이다.

남운의 「한국영기 방문기」는 당시 수용소에 있는 한국인 위안부들의 삶의 실상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 작품은 유일하게 영기라는 두 글자에 따옴표를 쓴 작품이고, 저자가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잘 파악한다고 평가할 만 하다[64]고 보았다. 1946년 3월 잡지『여성』에 발표된 이 글은 저자가 해방 후 상해에 설립된 영기 수용소를 직접 방문하여 쓴 것으로 7개 절로 구성되어 있다. 일제 식민 치하 조선의 상황, 수용소 위안부들의 삶, 위안부들의 불쌍한 신세, 수용소 설립의 유래, 고국에 돌아가고 싶은 소원, 상해의 3개 위안부 수용소, 위안부들의 삶에 대한 새 희망 등이 이 글의 주 내용으로 되어 잇다.

그러므로 이 작품을 통해 종전 후 위안부들에 대한 구제 사업이 바로 실시되었다는 것을

64) 한샤오(韓曉).뉴린제(牛林杰), 위의 논문, p199

알 수 있다. '가련한 사람! 영기들이 모이다」에서도 일본군 위안소에 한국에서 끌려온 여성들이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된 한국에서 여성들이 일본의 제국 통치에 동원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을 탄식하였다. 그리고 상해에 있는 한국 유식자들이 위안부 수용소를 설립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위안부들의 실상을 기록하였다는 차원에서 남운의 '한국 영기 방문기」에서 밝힌 것과 비슷한 내용이다[65].

지금까지 다룬 중국인 작가들에 의해 씌어진 한국인 위안부에 대한 작품들을 살폈다. 이들 작품은 작가의 신분과 문학적 수준이 다르고, 작품의 예술적 수준 및 감화력도 서로 차이가 있지만, 문학 작품이 현실의 반영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당시 위안부의 실정을 살펴보는 자료로서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들 작품을 통해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이국 타자에 대한 중국 작가들의 뚜렷한 휴머니즘 정신과 인간애도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시기의 한계와 저자의식, 창작 수준의 제한으로 일부 작품은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하는 데만 그치고, 여성 개인의 권리, 존엄과 관련된 심층적 언급은 부족하였지만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이들 자료의 가치는 소홀히 할 수는 없다[66]고 평가한다..

5. 잠정적인 마무리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를 다룬 한국, 일본, 중국에서 발표된 문학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태평양 전쟁이 끝난 이후로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들이 한국, 일본, 중국에 계속 발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해방 이후부터 일본군 위안부를 다룬 작품이 나타났다. 초기 작품은 위안부의 귀환 이야기, 위안부로 끌려가는 이야기, 군인의 눈으로 본 위안들의 삶의 재현 등이 나타났다. 이후의 작품들은 단순한 증언을 넘어 치유의 서사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작품들은 위안부들이 겪은 사실의 형상화보다는 허구의 진실성을 추구하고 있다. 김숨의 『한 명』은 역사적 사실을 재현해 다큐멘테이션하는 일반적 위안부 소설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화자의 현재적 삶에서 빚어지는 위안부 피해의 문제의식을 예각화하고 재구성하는데 집중한다. 귀환 이후의 삶, 위안부 피해의 경험이라는 역사적 사실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성찰되어야 할 장면들, 허구적 보충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생존자들의 내적 체험의 풍경이 그것이다. 결국 위안부 문제란 당시 상황에 한정되지 않는, 현재적 문제로 다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패전 이후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에 의해 논픽션 형태의 홍미거리 위주의 작품들 이 많이 창작되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를 형상화한 오키나와문학이 표상의 방법에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적 타자를 상대화하는 시점 없이 작가의 사상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거나, 작가의 리얼리즘에 대한 욕망으로 표상의 폭력에 노출시키는 것과 같은 도쿄 중심의 일본 문학과는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그들이 말못하는 부분을 전달해주려고 하는 작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는 한국 위안부를 다룬 작품이 9편 정도 정리되어 있다. 이 작품들은 주로 항일전쟁 당시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 작가는 소설가, 시인, 종군 기자. 일반인

65) 한샤오(韓曉).뉴린제(牛林杰), 위의 논문, pp200-201
66) 한샤오(韓曉).뉴린제(牛林杰), 위의 논문, p202

등이다. 시기의 한계와 저자의식, 창작 수준의 제한으로 일부 작품은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하는 데만 그치고, 여성 개인의 권리, 존엄과 관련된 심층적 언급은 부족하였지만, 역사를 되돌아 볼 때, 당시 중국에서의 위안부 실정을 살펴보는 자료로서의 가치는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중국의 경우는 이후의 중국 작품을 더 조사하고 분석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작품은 재미 한인 작가들에 의해 발표된 적이 있어, 이들 작품에 대한 논의도 남겨진 과제이다.

【 Abstract 】

The present circumstances and issue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presented in Korean, Japanese and Chinese Literature

Nam, Song-Woo(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ere are various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hemed literature in Korea, Japan and China. Especially Korean women are usually taken as the main character.

The thesis is aimed for the understanding of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literature dealt with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hrough the analysis of these works and researches.

In Korean literature, the works about these women have released after the Korean independence. The earlier works told about their return to homeland, their capture to the military, and the reappearance of their lives from the point of soldiers.

After that, the works have developed to look for the healing rather then the mere testimony of the fact. The latest works of Comfort women focused on the truth of fiction more than the imagery of the fact about them.

In Japanese literature, The nonfictions for the entertainment were created by the veteran after the defeat of World WarⅡ. Okinawa writer, however, failed to express the trauma of those Comfort women . Still, their effort to show those women's feeling can be appreciated.

In Chinea, there are about 9 works of Korean Comfort women. These works focused on the time of Anti-Japanese war and after the war. The writers are novelist, poet, war correspondent, civilians, etc.

These works have their own value as the information to show the state of the Comfort women but do not show enough understanding of women rights.

현대 일본 소설에서 보는 한-일 혼례문화

오병우(대구예술대학교 교수)

1. 일본 여류작가 村田喜代子 小說에 나타난 한일 혼례문화

현존작가 村田喜代子는 1945년 일본 후쿠오카 야와타에서 출생하였다. 그리 平坦하지 못한 祖孫家庭에서 자랐다. 지극히 내성적인 성격 탓에 남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여 일찍부터 讀書와 空想에 빠져 이러한 성격이 村田小說의 特徵을 이루는 發端이 된다. 村田의 『百年佳約』에 앞서 발표된 『龍秘御天歌』에서는 한일양국의 葬禮文化를 둘러싼 葛藤을 묘사했던 작가는 『百年佳約』에서 婚禮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에피소드와 葛藤을 통해 한국 固有文化를 소개하면서 일본문화와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일본문화의 저급함을 描寫하고 있다.[67] 일반적으로 자국 문화의 우수성을 披瀝하는 것이 관례인 반면 작가는 어떤 因緣으로 일본문화의 저급함과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피력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매우 궁금하다. 異邦人의 전통을 葛藤이라는 주제로 상세히 묘사한 작가 村田의 모습에서 村田小說의 特徵을 찾아 볼 수가 있겠다. 村田는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인에 대한 지식에서도 녹녹치 않은 功力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百年佳約』은 일본 신문에 실리는 연재소설의 형식으로 처음 소개되었고 후에 단행본으로 나왔다. 신문으로 연재되던 당시 일본인들이 매일 한국 문화와 한국인에 대한 지식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窓口가 되었던 소설이다. 그리고 이 작품 역시 村田 작품 전체의 배경이 되는 삶과 죽음이 하나로 통해 있음을 보여준다. 그녀의 작품에서 삶과 죽음은 絶緣된 관계가 아니라 葛藤 속에서 서로 疏通하고 循環하여 가는 村田小說의 特徵을 구성한다. 『龍秘御天歌』가 죽음을 다룬 소설이라면 『百年佳約』은 삶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그래서 死者 百婆가 계속 神으로 살아남아 일족과 도래 조선인들을 돌보고 그들의 삶 속에서 葛藤을 일으키며 개입하는 것이다. 『百年佳約』의 주인공은 살아있는 人間이 아니라 죽어서 神이 된 도래인 1세인 조선인 老婆인 百婆다. 사라야마 마을의 대표적인 도자기 工房의 창업자 百婆가 죽은 뒤 이승에서는 그의 아들 주조가 아들과 딸 조카들의 婚禮문제로 날마다 葛藤에 휩싸인다. 葛藤은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證據라 할 수 있겠다. 百婆와 아들 주조의 婚禮葛藤은 가족과 사라야마 도공사회의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다투고 葛藤을 극복하고 解消해 간다.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葛藤이 전혀 없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冷情하다는 것과 같다. 사라야마라는 도공사회라는 공동체에서 葛藤이 없으면 발전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村田 작품 전체의 배경이 되는 삶과 죽음을 바탕으로 葛藤을 주제로 한 것이 村田小說의 特徵이라 하겠다. 백파의 눈으로 보자면 일본인은 맨발로 걸어 다니고 혼전 성관계와 처녀를 함부로 납치하는 野蠻人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남자도 여자도 늙은이도 모두 상

67) 오병우(2018)「韓.日 葬禮文化 比較硏究- 村田喜代子의 小說 『龍秘御天歌』를 中心으로-」『한국일본문화학회』 76, pp.96-116.

스럽게 맨발로 걷고, 살을 드러내는 데 수치심이 없다. 여름이면 샅가리개 하나만 걸치고 벌거벗는다. 아슬아슬한 반나체로 걷는다." 일본문화의 저급함을 솔직하게 告白하면서 描寫하는 것이 村田小說의 特徵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본인들과는 血緣은 맺을 수 없다고 하는 백파는 아들과 葛藤한다. 이러한 한일 양국의 문화 衝突 속에서 葛藤하는 주조를 위해 백파는 산 위의 무덤에서 나와 자손들의 百年佳約을 위해 발로 뛰고 날아다니는 마치 武俠小說의 주인공과 같다.

2. 『百年佳約』에서 일어나 葛藤과 解消

소설『百年佳約』의 주인공인 百婆는 渡來 조선인 1世로 龍窯의 여주인이었다가 颱風이 부는 어느 날 後頭部에 마른 장작을 맞아 죽어서 神이 된 朝鮮人 朴貞玉으로 描寫되고 있다. 百婆가 죽은 후에 長男 가라시마 주조(辛島十藏, 張正浩)가 張氏 집안 젊은 자식들의 婚禮問題로 매번 葛藤에 휩싸인다. 지금까지처럼 조선인끼리 婚禮를 해서 血緣의 紐帶를 强化 할 것인지 아니면 日本人과 婚禮시켜 朝鮮陶工들의 未來를 開拓할 것인지를 葛藤한다. 葛藤(conflict)은 '衝突하다. 부딪치다'라는 뜻의 라틴어 'confligere'에서 由來했다. 두 물체가 衝突하면 에너지가 발생한다. 따라서 갈등 때문에 衝突이 일어났다면 에너지가 생겨나고 있다는 表示로 볼 수 있다. 葛藤은 삶의 본질과도 같다. 백파와 아들 주조의 葛藤은 사라야마 도공사회의 삶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葛藤이 없으면 自我實現이나 지속적인 관리도 조직의 변화와 발전도 없다 백파와 아들 주조의 葛藤이 없으면 주조의 자아실현인 도공사회의 발전이나 지속적인 사라야마 도공관리도 조직의 변화와 발전도 없을 것이다. 葛藤은 옳고 그름의 대상이 아니다. 葛藤은 葛藤일 뿐이며 더욱 성숙한 세상으로 가는 티켓이다. 백파와 아들 주조의 葛藤은 단순한 가족 간에 발생한 葛藤일 뿐이며 사라야마 도공사회를 성숙한 조직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백파의 후손들이 婚禮라는 葛藤을 두고서 각자의 配匹을 구하는 것으로 갈등의 解消로 소설은 막을 내린다. 일본인 陶工사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힘을 갖고자하는 慾望을 가진 가라시마 주조는 딸인 후쿠와 조카딸 가치를 사라야마(皿山)를 움직이는 일본인 工房의 아들들에게 보낼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결심이 마땅치 않은 그의 아내 코시호(權麗喜)와 주조의 이런 野望을 알게 된 百婆는 憤怒한다. 분노로 가득 찬 백파의 행동은 사라야마 도공사회에서의 여성도공으로서의 개인과 사라야마라는 집단사회에서의 환경이 상호 작용한 결과로 婚禮라는 葛藤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 된다. 지금까지 조선인 도공끼리의 婚禮를 고집하는 百婆와 사라야마 조선 도공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는 일본인 도공 관계자와 婚禮를 해야 한다는 주조는 사라야마의 변화는 개별적 항목의 변화가 아니라 사라야마의 집단적인 분위기의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일본인과의 婚禮를 주장한다. 즉 사라야마의 변화는 조선인의 조선어 사용만을 고집하는 차원에서 훨씬 더 깊어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3. 婚禮를 통한 葛藤

백파는 자신도 모르게 아들 주조의 모습을 훑어보았다. 아버지를 닮아 넓적한 얼굴에 키

가 커서 처음 입는 하오리 하카마이지만 아주 잘 어울렸다. 주조는 딸들을 시집보내야겠다는 생각에 예쁜 옷을 입혀 손님들 앞에 나가도록 하여 혼례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葛藤은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證據라 할 수 있겠다. 百婆와 아들 주조의 婚禮葛藤은 가족과 사라야마 도공사회의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다투고 葛藤을 극복하고 解消해 간다.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葛藤이 전혀 없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冷情하다는 것과 같다. 사라야마라는 도공사회라는 공동체에서 葛藤이 없으면 발전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村田 작품 전체의 배경이 되는 삶과 죽음을 바탕으로 葛藤을 주제로 한 것이 村田小說의 特徵이라 하겠다. 백파와 아들 주조의 葛藤은 사라야마 도공사회의 삶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葛藤이 없으면 自我實現이나 지속적인 관리도 조직의 변화와 발전도 없다. 백파와 아들 주조의 葛藤이 없으면 주조의 자아실현인 도공사회의 발전이나 지속적인 사라야마 도공관리도 조직의 변화와 발전도 없을 것이다. 葛藤은 옳고 그름의 대상이 아니다. 백파와 아들 주조의 葛藤은 단순한 가족 간에 발생한 葛藤일 뿐이며 사라야마 도공사회를 성숙한 조직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백파의 후손들이 婚禮라는 葛藤을 두고서 각자의 配匹을 구하는 것으로 갈등의 解消로 소설은 막을 내린다.

4. 요바이(夜這い)로 인한 葛藤

요바이(夜這い)는 야간에 性交를 목적으로 모르는 사람의 寢室에 潛入하는 일본의 전통 풍습이다. 일반적으로 일본 관서지방에서 행하는 풍습으로 관동 이북지방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요바이에는 規則이 있다. 아내로 삼을 생각이 없는 처녀와 자서는 안 되고 접근조차 할 수 없다. 남녀의 결합에는 햇빛이 비추는 낮에 본 얼굴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항이 있다. 이 때문에 그들에게는 밤의 어둠 속에서 어둠의 잠자리에서 짝을 찾는 특별한 시간이 주어진 것이다. 주조의 次男 고키치(小吉,張明善)는 경산요(景山窯) 무헤이타(無兵太)의 아들 다로지(太郎次)와 밤놀이 친구로 요바이(夜這い)를 통하여 갈 때는 지옥 돌아올 때는 極樂의 세계를 경험한다. 고키치는 요바이를 하다가 이와 마을(祝村) 후키(フキ) 아버지에게 發覺이 되어 아버지 주조에게 요바이 한 사실을 以實直告하고 후키와의 婚禮를 허락해 달라고 하지만 주조는 婚禮란 선조가 정하는 것으로 후키와의 婚禮를 반대하여 葛藤을 초래한다. 다로지는 촌장 가쿠자에몬의 딸과 관계를 맺었다고 한 것은 거짓이고 대신 하녀인 도지의 방에 요바이를 하여 결국 그녀와 婚禮를 하게 된다.

일본인 陶工사회에 적극적으로 參加하여 능력을 발휘하려는 慾望을 가진 가라시마 주조는 딸인 후쿠와 조카딸 가치를 사라야마(皿山)를 움직이는 일본인 工房의 아들들에게 보낼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決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그의 아내 코시호(コシホ,試補權麗喜)와 주조의 이런 野望을 알게 된 百婆는 憤怒한다. 분노로 가득 찬 백파의 행동은 사라야마 도공사회에서의 여성도공으로서의 개인과 사라야마라는 집단사회에서의 환경이 상호 작용한 결과로 婚禮라는 葛藤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68] 同姓同本의 婚禮를 금기시하는 한국 傳統慣習을 百婆가 固守한다면 미래에는 후손들의 配匹을 맺어줄 상대가 없어져서 代

68) 쿠르트 레빈(2016)『사회적 갈등 해결하기』교보문고, pp.293-303. 쿠르트 레빈의 대표적 이론은“인간의 행동은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레빈(1890-1947)은 사회 심리학의 창설자로 집단역학과 조직발달에 대한 연구를 가장 먼저 시작한 심리학자이다.

가 끊기는 危機에 逢着하지만 百婆의 觀點에서 보면 일본인은 맨발로 다니는 野蠻人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婚禮로 인한 문화적 葛藤 속에서 苦悶하는 주조를 위해 백파는 무덤에서 나와 子孫들의 百年佳約을 위해 死者의 몸으로 東奔西走한다. 이러한 百婆의 知覺과 感情, 行動은 百婆가 속한 사라야마 도공사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소설의 주인공인 死者가 무덤에서 나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行動하고 描寫하는 작품은 보기 드문 事例로 들 수가 있다. 일본 사회에서 성공을 하고자 하는 아들 주조와는 달리 百婆는 손자손녀들이 일본인과 婚禮치루는 것을 절대적으로 反對한다. 이미 전작인『龍秘御天歌』에서도 백파의 남편 가라시마 주베에(辛島十兵衛, 張成徹)의 장례식을 조선식과 일본식을 두고서 葛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69]『龍秘御天歌』에서 보는 사라야마 집단 사회에서의 장례문화를 두고 일어난 葛藤과 變化는 모자간의 권력 序列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權力이 아들 주조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가족의 갈등으로 볼 수 있겠다.

5. 冥婚 婚禮를 통한 葛藤의 解消

冥婚은 死婚이라고도 하며 사후혼사(死後婚事) 또는 사후혼인(死後婚姻)의 줄인 말로서 영혼끼리의 혼인이라는 의미에서 혼백혼인(魂魄婚姻)이라고도 한다. 또는 명계(冥界)의 혼인이라는 의미에서 명혼(冥婚)이라 부르기도 하고 현실적인 실혼(實婚)에 대하여 허혼(虛婚)이라고도 한다.[70] 조선백정출신인 故 萬治(李則一)의 장남인 토라기치(寅吉, 李延吉)는 47세 불잡이로 그의 어머니는 68세 아카(金禮仙)이다. 萬治의 차남은 45세 구마기치(熊吉)로곰보딸 25세 이치(イチ)가 있다. 婚禮를 치루지 않고 죽은 처녀귀신은 惡鬼가 된다하여 이치가 죽은 死者에게라도 시집가는 冥婚 婚禮를 아카 할머니는 손녀 이치에게 늘 타이르곤 했다. 조선에서는 祭祀를 지내주는 사람이 없는 영혼을 무적귀신(無籍鬼神)이라 하여 이들이 정처없이 九天을 떠돌아다니면서 살아 있는 사람에게 害를 끼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冤魂 중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이 婚禮를 못하고 총각·처녀로 죽은 영혼을 몽달귀신이라 한다.

6. 木婚式 통한 葛藤의 解消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대한 더없이 따스하고 날카로운 通察의 視線을 가진 村田가 그려내는 흥미로운 한일문화의 비교라 할 수 있는『百年佳約』속에서 작가는 婚禮문제를 둘러싼 葛藤과 解消를 다양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가감 없이 소개하였다. 葛藤 해결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관계개선을 뛰어 넘어 성과 향상으로 이어진다. 한국의 장례 문화는 屍身을 埋葬하기 때문에 주인공인 百婆는 靈魂이 남아 일족을 지키는 신이 될 수 있었고 일본에서는 火葬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만다. 그리고 부모가 죽은 후 삼년상을 치르고 일정 기간 동안 매일 부모의 墓所에 가서 葛藤을 解消하기 위해서 哭하는 모습을 상세히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한국의 孝 문화에 대해

69) 오병우(2018)「韓.日 葬礼文化 比較研究- 村田喜代子의 小説『龍秘御天歌』를 中心으로-」,『한국일본문화학회』76, pp.89-90.
70) 최길성 (1985)「사후결혼(死後結婚)의 의미(意味)」,『비교민속학』1, pp.35-115.

은근히 부러움의 視線이 묻어난다. 서두에서 죽은 백파의 혼이 나타나 묘사하는 특이한 소설기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설『百年佳約』의 원본과 대조하면서 번역본을 면밀히 分析하여 한일 양국의 혼례문화를 통한 葛藤과 解消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葛藤과 解消를 중심으로 묘사한 것이 村田喜代子 小說의 特徵이라 할 수 있겠다.

【 Abstract 】

The Culture of Korean and Japanese Wedding in Modern Japanese Novels

Oh, Byung-Woo(Dae-gu arts university)

The main character of 'a hundred years worth of appointment ' is not a living chum, but a one-year-old Korean who is just about to die. After Shun, the founder of the famous pottery shop in the village of Sarayama, was killed, his son's casting was surrounded by questions from his sons and daughters and nephews. Conflict is the essence of life. It is also said that the community of old family members is alive. The essence of life for the Sarayama Metropolitan Council is the white wave and the son's casting. Without it, there is no change or improvement in the management structure. Bekpa and his son, Zhuji, are proof that the family and the community of the Sarayama Metropolitan Council are alive. Humans struggle to live together and overcome difficulties. In other words, the absence of any ulterior motive in the family community is indifferent and mean to each other. The white wave and son casting process is a process of developing the Sarayama potterial community into a mature organization. These descendants of the Bekpa people sought their own favor at the time of the book, and the novel ended with conflicts. There will be no progress without a silver spoon in the community of the potterial community. The theme of Life is based on the life and death that set the setting for the entire work. It is a matter of frankness to criticize the low quality of Japanese culture. Therefore, a white woman who is said to be unable to form a close relationship with Japanese like this is married to her son. For the sake of supporting the culture of both Korea and Japan, the white wave is like the main character of Bekpa who came out of a tomb on a mountain and hovers and flies around for his descendants.

한일 평생교육정책의 특성 비교 고찰

임영언(전남대학교)

Ⅰ. 연구목적

일본에서 생애학습이라는 관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유네스코 성인교육추진국제위원회가 '인간의 일생을 통하여 행해지는 교육의 과정을 축적하고 활동시키는 원리로서 생애교육이라는 구상을 승인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여 유네스코 총회에서 생애교육이 교육의 기본원리로 채택된 이후 본격화되었다.[1]일본에서는 1977년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향후 인간형성상의 중요한 문제로서 생애교육의 관점으로부터 모든 교육체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것을 검토과제'로서 제기하여 1987년 중앙교육심의회 답신 "생애교육에 대하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당시 일본에서 생애교육이 중시된 이유로서는 첫째, 시대적으로 사회 경제의 급격한 변화로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요구되고 있었던 점, 둘째, 사람들의 교육적 문화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었던 점, 셋째, 사람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사회적 조건이 구비되고 있었던 점, 넷째, 향후 일본이 자유롭고 역동성 있는 사회를 유지하고 한층 발전하기 위하여 위로부터 적절한 사회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었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일본에서 생애학습과 생애교육의 개념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생애학습은 개인이 자발적 의사에 근거하여 필요에 따라 자기에게 적합한 수단과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여 생애에 걸쳐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애학습을 위해 스스로 학습의욕을 불태우고 사회의 다양한 교육기능을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정비 혹은 충실하려는 것이 생애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일본에서는 각 개인들이 생애에 걸쳐 수행하는 주체적인 학습활동을 생애학습, 사회의 다양한 교육기능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충실을 기하는 것을 생애교육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일본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평생교육(생애학습)은 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 개념으로서 생애학습이라는 용어가 정착되었는데[2] 이는 학습자의 시점에서 과제를 검토한다는 의미가 강조되었기 때문이다.[3] 일본에서 생애학습은 국민이나 시민들이 스스로 수행하는 학습활동이라 할 수 있다.[4]

---

1) 生涯學習とは:https://www.city.taito.lg.jp/index/kurashi/gakushu/shogaikakusyujigyo/shishin.files/08.pdf#search(검색일: 2018.08.06).

2) 金明姫(2014)「韓国における大学生涯学習に関する序説」『創価大学大学院紀要』第36集、pp.203-222。

3) 일본에서의 생애학습은 한국에서는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 lifelong learning, recurrent education, continuing education)이라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평생은 한국어로 일생 혹은 생애를 통해 라는 의미로 일본에서는 생애에 걸친 학습이라는 학습자의 입장이 강조되어 생애학습이 일상적인 용어로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입장에서 평생교육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생애학습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4) 山崎ゆきこ(2013)『ユネスコにおける生涯学習概念の再検討—フランスの教育改革を視野に入れて—』, pp.1-15.

1977년 이래 일본에서는 생애학습과 관련하여 순차적으로 생애학습체계로의 이행과 관련된 생애에 걸친 학습기회 정비, 생애학습을 위한 가정과 학교, 사회의 연계, 평가의 다원화 및 생애학습기반으로서의 생애학습을 진행하는 마을만들기, 시설의 인텔리전트화, 문부성의 조직개편과 법체계 정비, 각 성청간의 연락 및 조정 등이 수행되어 왔다.

결국 일본에서 생애학습은 생애에 걸쳐 모든 기회와 모든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고 그 성과를 적절하게 실릴 수 사회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생애학습은 단지 학습자의 수요-지원-성과달성- 자기실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이나 학습 성과의 평가 및 인증제도의 정비도 필수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일본에서의 생애학습(평생교육)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평생교육정책의 한일 비교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Ⅱ. 일본 평생교육정책의 전개와 동향

일본에서 1981년 출판된 중앙교육심의회 “생애교육에 대하여”라는 답신에서 처음으로 ‘생애교육(평생교육)’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다.[5] 여기에 따르면 생애학습은 자기의 충실, 계발이나 생활향상을 위해 각 사람들이 자발적 의사에 의해 필요에 따라 자기에 적합한 수단과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여 일생을 통해 수행되는 학습을 가리키고 있다. 즉 생애학습은 일본 국민이나 시민들이 스스로 수행하는 학습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시설로는 통신교육, 대학(사회인입학), 방송대학, 도서관, 공민관, 생애학습센터, 커뮤니티센터, 스포츠센터, 기타 학습센터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6]

<표 1> 일본의 평생교육정책의 동향과 변천[7]

연도	심의회명	주요 답신 내용의 변화
1965년	유네스코	유네스코 성인교육추진국제위원회의에서 폴 랭그랑(Paul Lengrand) 의장을 중심으로 ‘생애교육’이라는 아젠다 제창. 인간은 변화가 빠른 사회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으며 비판정신이나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배양하지 않으면 이러한 도전에 승리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학습의 존재형태가 문제라고 주장하였음.
1971년	사회교육심의회	사회교육심의회 보고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교육의 존재형태에 대하여’가 등장. 일본에서 처음으로 공적 장소에서 생애교육 개념이 기술되었음. 생애교육의 관점에서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유아기부터 고령자까지 인생의 각 단계에서의 사회교육의 과제를 설명하였음. 이후 ‘향후 학교교육의 종합적인 확충정비를 위한 기본적 방책에 대하여’
1981년	중앙교육심의회	중앙교육심의회 보고 ‘생애교육에 대하여’가 등장. 생애교육과 생애학습이라는 언어를 정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실한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향하여 생애에 걸쳐 수행하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제도 전체가 생애교육의 관점에서 서야한다고 주장. 생애교육의 개념을 승인하였음.

5) 中角直樹(2014)『日本における生涯学習の現状と課題』, pp.1-3.

6) 앞의 논문, 中角直樹(2014), p.2참조. 일본에서 대학을 활용한 평생교육기관은 사회인 입학제도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사회에서 취업하여 일하면서 혹은 휴직하고 재입학하여 배우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사회인 입학은 시간상의 제약, 경제적 여유문제, 재취업의 곤란, 학위와 자격취득에 따른 낮은 메리트 등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7) 生涯学習に関する主な変遷(案): https://www.city.kashiba.lg.jp/kyouiku/cmsfiles/contents/0000001/1058/files022552.pdf#search(검색일: 2018.08.06.).

연도	심의회명	주요 답신 내용의 변화
1985년 ~ 1987년	임시교육심의회	1985년 임시교육심의회로부터 교육개혁에 관한 제1차~제4차에 걸쳐 보고. '생애교육'을 '생애학습'이라는 표현으로 통일하였음. 학교중심 교육제도를 수정하여 광범위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정비하고 학습한 것이 적절하게 평가되도록 '생애학습체계에의 이행'을 제언. (임시교육심의회는 교육기본법 정신에 입각하여 교육개혁에 관한 국가자문기관임). 교육체계의 종합적인 재편성, 개성중시, 교육 자기책임, 수익자부담, 민간활력 도입, 1988년 문부성기구개혁 생애학습국 설치
1990년	중앙교육심의회	중앙교육심의회 보고 '생애학습의 기반정비에 대하여'가 등장. 생애학습추진상의 유의점과 기반정비의 존재형태를 제시. 그 가운데 '생애학습은 생활 및 직업상의 향상 및 자기충실을 지향하여 자발적 의사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제시하였음.
	문부성 통산성	'생애학습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체제 등 정비에 관한 법률' 생애학습에 관한 유일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제1조(목적) 이 법률은 국민이 생애에 걸쳐 학습할 기회가 골고루 요구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고 생애학습의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도부현의 사업에 관한 추진체제의 정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특정지구에서 생애학습과 관련된 기회의 종합적인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에 대하여 정함과 동시에 도도부현 생애학습심의회의 사무에 대하여 정하는 등의 조치를 협의함으로써 생애학습을 위한 시책의 추진체제 및 지역에서의 생애학습과 관련된 기회의 정비를 도모하여 생애학습의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생애학습심의회 설치
1991년	중앙교육심의회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의 모든 제도 개혁에 대하여'
1992년	생애학습심의회	생애학습심의회 보고 중 '향후 사회동향에 대한 생애학습 진흥방책에 대하여'가 제출되었음. 당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가정, 학교, 행정 등 각계각층에 대하여 생애학습 진흥을 위한 대처를 호소하였음. 또한 생애학습사회를 '사람들이 생애가운데 언제든 자유롭게 학습기회를 선택하여 배울 수 있고 그 성과가 사회에 적절하게 평가되는 사회'로 정의하였음. 학교 5일제 도입 개시
1996년	생애학습심의회	'지역에서의 생애학습 충실방책에 대하여'
1998년	생애학습심의회	'사회변화에 대응한 향후 사회교육해정의 존재형태에 대하여'
1999년	생애학습심의회	'학습의 성과를 폭넓게 살리는 생애학습의 성과를 살리기 위한 방책에 대하여'
2000년	생애학습심의회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생애학습의 추진방책에 대하여'(2001년 생애학습심의회 개조 중앙교육심의회 생애학습분과회)
2004년	중앙교육심의회 생애학습분과회	'향후 생애학습 진행방책에 대하여'(심의 경과보고)
2006년		12월 '교육기본법'이 전부 개정되어 새로운 시대의 교육이념을 명확히 함과 더불어 생애학습의 이념(제3조)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생애학습사회의 실현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또한 가정교육(제10조)과 사회교육(제12조), 학교, 가정, 지역의 연계협력(제13조) 등에 대해서도 정하였음. 제3조(생애학습의 이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인격을 연마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그 생애에 걸쳐 모든 기회에 모든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고 그 성과를 적절히 살릴 수 있는 사회실현을 도모해야 함을 강조.
2008년	중앙교육심의회	2월 중앙교육심의회에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생애학습 방책'의 보고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에 걸친 학습지원(국민의 학습의욕을 지지하는)'과 '사회전체의 교육력 향상(학교, 가정, 지역을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 만들기)'을 향후 방책의 두 가지 핵심기둥으로서 '지의 순환형사회'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책 등을 제안하였음(중앙교육심의회는 국가 교육행정의 자문기관).
2013년	중앙교육심의회 생애학습분과회	'제6기 중앙교육심의회 생애학습분과회에서 논의 정리(안)'

그리고 2008년 일본중앙교육심의회 답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생애학습의 진흥방책에 대하여-지(知)의 순환사회를 향하여'라는 2013년 생애학습분과회 논의 보고가 이후 전개되었

지만 답신에서는 '지식기반사회 시대에 적합한 인재양성이 생애학습사회에 필요하며 치열한 경쟁과 기술혁신이 발생하여 상승적 글로벌화가 진전된다. 때문에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고 생각하는 능력, 유연한 사고력, 체험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 및 타인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능력 등 풍부한 인간성을 포함한 종합적 '지(知)'을 가진 자립한 개인이 기술되어 있다.'[8]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남녀공동참가, 인권, 환경보전, 소비자문제, 방재 및 안전 등 지역문제와 생활문제가 산적하고 있지만 과제해결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구축과 활력 있는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학습기회의 충실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본인 각자에게 자기책임에 의한 배움을 환기시키고 이러한 학습을 커뮤니티에서 살려야한다는 국민의 의무화를 강조하고 있다.

Ⅲ. 한일 평생교육의 특성 비교

그러면 여기에서는 한일평생교육의 비교를 통해 상호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평생교육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서비스차원뿐만 아니라 많은 수강생을 유치하여 대학경영의 향상과 영리적 수입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들을 위한 재취업과 재교육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학교교육이외의 고등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제도화하고 단위은행제도나 독학학위제도를 통해 고등교육에 대해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의 평생교육이 65세 이하의 성인대상이 특징인데 반하여 일본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일본의 평생교육은 취미교양강좌에서 출발하여 보란티어활동, 지역재생과 창업활동, 고령자들이 지역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술이나 지식습득, 노후경제활동 준비나 자격취득 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한일 평생교육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지(知)의 거점역할, 사회인입시나 통신교육, 공개강좌실시, 고령자를 위한 평생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표 3> 한일 평생교육의 특성 비교[9]

평생교육	한국	일본
차이점	지역사회 공헌 영리적 목적의 수입 성인대상 재취업과 재교육 교육소외계층 고등교육기회 제공 확대	취미교양강좌 보란티어활동 지역재생과 창업활동 지역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양성 고령자대상 경제활동 준비, 자격 취득 등을 위한 평생학습
공통점	지역사회에서 지(知)의 거점 사회인 입시, 주야간 개강제, 과목 등 이수생, 통신교육, 이수증명제도, 공개강좌 실시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대학 도산 사태 대응차원 고령자의 생애학습	

8) 河野和枝(2014) 「日本の生涯學習政策の動向と課題一國民の新たな「學び」に注目して一」『北星論集(社)』51, pp.106-111.

9) 한국의 평생교육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는 앞의 논문, 金明姬(2014), pp.221-222을 참조할 것. 본 한일 평생교육의 비교표는 필자가 작성하였음.

Ⅳ.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에서의 생애학습(평생교육)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평생교육의 한일 간의 특성을 비교 고찰하는데 있다. 일본에서 평생교육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65년 이후 치열한 경쟁과 글로벌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고 생각하는 능력, 유연한 사고력, 체험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 및 타인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능력 등 풍부한 인간성을 포함한 종합적 '지(知)'을 가진 자립적 개인의 양성을 지향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서 60세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내각부 조사에서 사회활동 참여이유는 친구와의 만남, 삶의 보람이었고 참여하고 싶은 단체는 마을회나 자치회, 취미와 건강스포츠, 보란티어활동으로 특히 보란티어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습득을 위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일 평생교육을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성인대상의 재취업과 재교육, 영리목적의 고등교육기회의 제공확대가 강조되지만 일본에서는 고령자대상의 보란티어활동과 지역에서 활약하는 인재양성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일본의 평생교육과정은 취미교양강좌와 보란티어활동, 지역재생과 창업활동, 지역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과정은 고령자의 평생교육이 최근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종래의 교양과 취미를 위한 평생학습에 만족하지 않고 보란티어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준비, 자격 취득 등을 위한 평생학습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Characteristics of Lifelong Education Policy in Korea-Japan

Yim, Young-Eon(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ansition process of lifelong education in Japan and to compare and analyze the policies of Korea and Japan. In general, lifelong learning in Japan is a comprehensive knowledge, including abundant humanity, such as the ability to discover and think on tasks in the global era, flexible thinking skills, ability to solve complex tasks using experiential knowledge and skills, and ability to build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self - efficac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ason why elderly people participate in lifelong education in Japan is to acquire knowledge and function necessary for volunteer activity. Second, the lifelong education in Korea emphasizes reinstatement and re-education of adults and the provision of higher education opportunities for commercial purposes.

일제강점기 조선영화계와 재조일본인

전희지(동서대학교대학원 일본지역연구과)

1. 시작하며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영화계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등장하는 흥행업의 형성과정과 흥행업을 주도하는 재조일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활동을 재검토 하고자 하였다.

영화는 근대화의 상징으로 조선에 다가왔으며 빠른 시간 동안 확산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뤼미에르 형제의 첫 상영이 1895년에 이루어졌다. 일본에서 1897년 2월 첫 대중상영이 있었으며, 조선 또한 1897년 첫 상영이 이루어졌다는 기록과 증언이 남아있다. 이는 거의 전 세계가 동일한 시기에 영화라는 근대화의 집약적 산물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식민지를 겪고 있던 조선 또한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의 예술가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영화에 매혹되었으며, 영화가 갖는 예술성과 영화관이 가지는 기능성을 동시에 고민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지배자 계층이 영화를 식민지배의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영화야 말로 새로운 시대의 민중오락[10]으로 평가 될 만큼 영화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는 열광적이었으며 대중문화로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영화관은 다양한 계층구도를 형성 하고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본 연구는 조선영화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일본인의 존재를 '사업자'가 아닌 '지배자'로 인식하고 있는 한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식이 당시 재조일본인의 조선영화계에 대한 영향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하는 원인되고 있다는 것이 논지이다. 본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영화관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이나 또는 역사적 의의를 명백히 밝히고자 함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먼저 경성에 존재했던 영화관의 실태를 파악한 후 재조일본인들의 영화관 운영방식이나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검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일제강점기 조선영화계에 관한 연구 중 가장 대표적인 연구자인 조희문(1992)[11]은 조선에 영화가 전래된 한국병합 이전부터 한국 최초의 극영화라고 주장하는 작품 '국경'이 제작된 1923년까지의 시기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이영일(1969)[12], 김미현(2010)[13]등 초

10) 權田保之助『民衆娯樂問題　第1編：「民衆娯樂の考察」』,同人社書店,1921年
11) 조희문,「초창기한국영화사연구」,중앙대학교박사학위논문,1992년
12) 이영일,『한국영화전사』,한국영화인협회,1969년
13) 김미현,『韓国映画史—開化期から開花期まで』,キネマ旬報社,2010年

창기 조선영화계의 형성과 발전 및 실태를 명백히 밝히고자 하였다.

한편,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영화연구 가운데 1897년부터 1919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검토를 시도한 한상언(2010)[14]은 흥행이 중심인 초창기 조선영화계는 일본인 자본가가 주체가 되어 운영 되고 있던 시기에 주목하여 필연적으로 일본인의 활동에 관한 서술이 많고, 당시 흥행이 일본인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실태를 파악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주는 내용이 된다. 또한, 무성영화기의 일본인 제작자의 활동을 주로 다룬 연구 성과도 내고 있다. 특히 田中(2015)[15]는 일제강점기 조선영화계에서의 일본인에 대해서 주로 연출 및 기획 등 '제작' 측의 중심인물과 그 영화 단체의 활동을 규명하고 분석·고찰하였으며 재조일본인이 주도한 조선영화 산업의 형성 과정을 명백히 하고자 하였다.

전자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는 주로 한국 영화사에 있어서 초창기 영화를 논해야하는 의의를 제기하고 있고 후자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는 영화발달론을 지지하는 가운데 재조일본인들의 역할도 중요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주로 한국영화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단선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여 특히 재조일본인을 조선영화계를 장악한 '경제적 지배자'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영화 제작 및 흥행업이 일본에 비해 뒤처지고 있었다는 점이 연구자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단순히 영화발달론을 지지하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지배자'로 분석하기 보다는 '사업자' 즉, 조선이라는 시장을 이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고자 했던 경제적인 측면에서 영화관 관주들의 성향이나 운영방식을 분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먼저 일제강점기 경성에 존재했던 영화관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분석 및 정리를 바탕으로 열광적인 인기를 얻었던 영화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재조일본인의 활동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영화관들이 가지는 가장 큰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3. 조선영화계의 시작과 재조일본인의 활동

일본인이 조선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1876년 일본정부는 조선시장을 일본에 개방하기 위해 한일수호조약을 결합하고 조약의 내용으로 조선의 항구 개방과 그 지역에 일본인들의 거주지를 형성하는 조건도 포함[16]되어있다. 특히 1905년 이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조선의 식민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해졌던 것은 일본인을 조선에 이주시키는 것이었다. 수많은 일본인을 조선에 이주시키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새로운 영지로서 동화시킴과 동시에 조선인의 지도계발 등의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그 결과 재조일본인의 수는 증가하였고 정치·문화·경제 등 각 분야에서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당시 이러한 사회적 배경으

14) 한상언,「활동사진기 조선영화산업」한양대학교박사학위논문,2010年

15) 田中則広,「植民地統治下の朝鮮における宣撫活動—日本人の劇映画製作研究—」,『メディア史研究』第38号、2015년

16) 총독부는 새로운 영토를 동화시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선인의 지도계발을 계획하고 유감없이 그 완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지에 흩어져 매일 지역주민들과 접촉하는 내지인의 협력과 주선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조선으로 이주하는 내지인이 합병 이후 점점 많아져 1909년에 4만 3천여 호, 14만 6천여 인에 지나지 않던 거류민이 1913년 6월 현재 7만5천여 호, 26만 4천여 인으로 늘어나 3년 동안에 호수는 3만1천여 호, 인구는 1만 8천여 인이 극적으로 늘어나 앞으로 1년 후에는 합병 당시의 2배에 달하는 데, 이는 가장 기쁜 일이다. 『京城府史』第2卷 (湘南堂書店,1982年),173頁

로 조선에서 일본인들의 거주지가 형성되어 그 주변으로 새로운 문화가 출현하였다. 특히 초기 조선영화계 역시 일본인과 서양인을 중심으로 흥행업이 시작되면서 조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볼거리를 소비한다는 인식이 생겼다.

영화가 유입된 1899년부터 제작까지의 1923년, 25년간 영화는 다양한 형태로서 한국사회에 인식되어 대중적인 지지를 확보해 나가던 시기이었다. 1903년 경성의 철도회사 기계창고에서 영화를 상영 한 것이 시발점으로 영화는 새로운 문화로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대중적 혹은 상업적으로 정착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상설관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일본의 소광통교에서 영화를 상영하거나 전통극을 공연하는 소규모 형태의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기도 한 사례가 보여 지고 있다. 또한 1902년 고종황제 등극 40주면 경축식을 위해 지어진 관립극장 협률사는 조선 최초의 극장으로 영화를 상영했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당시의 협률사는 왕실 소속으로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영화를 감상하는 일은 드물었다. 즉, 영화가 유입되고 전문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이 생기기 전까지는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이후 본격적으로 1910년을 전후하여 호화로운 시설과 최신의 설비를 갖춘 영화관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경성에는 조선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우미관(1912), 단성사(1918), 조선극장(1922)이 들어섰고 일본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경성고등연예관(1910), 대정관(1912), 황금관(1913), 유락관(1915), 경룡관(1921), 중앙관(1922) 등이 차례로 설립되었다. 이들 영화관은 일본인영화관, 조선인영화관으로 구분되었으며 특히 경성고등연예관은 경성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영화관으로 1910년 2월부터 1913년 9월에 개관하기까지 약 3년 반 동안 영화의 보급에 힘썼다. 그러나 존속 시기가 짧아 1910년대 흥행업의 중심이 된 영화관은 대정관(新田耕市의 新田연예부 소속)과 황금관(早川增太郎의 早川연예부 소속)이었다.

이 두 영화관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며 상당한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운영자들의 운영방식에 있었다. 당시 신문이나 영화 잡지에 따르면 경영자들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었고 영화관 시설의 대형화와 고급화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본의 규모가 커지면서 투자규모의 리스크와 부담이 증가함과 동시에 이를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인에 국한되었다. 경성번창기(1915년)[17]에 의하면 新田[18]는 영화를 전문적으로 상영하는 '제1 대정관'을 창설한 뒤 관객들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고 이에 증축을 계획 중인 것과 동시에 '세계관'을 경영하고 이었다. 그리고 이 두 영화관을 통괄하기 위해서 연예부를 중심으로 개량·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서술되어 있으며 新田의 능숙한 경영 수완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新田와 경쟁관계에 있었던 早川[19]가 운영하는 황금관도 대정관 못지않게 큰 인기를 끌고 있었다. 당시 경성에 거주하던 한 일본인은 早川에게 감사의 뜻과 함께 조선인들을 부러워하며 하루빨리 일본 내지에서도 早川의 운영방식을 본받았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잡지에 싣기도 했다.

당시 영화의 제작이나 영화의 흥행 속도에 비하면 영화관의 형성 속도는 전혀 다른 의미를

17) 岡良助『京城繫昌記』（博文社、大正四年）、四七八～四七九頁

18) 新田는 1899년 시모노세키 상업 학교를 졸업한 뒤, 三井 물산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시모노세키·모지·와카·오사카의 각 지점을 거쳐서 도쿄 본부에 근무하게 된다. 그 후 한국 병합 직후인 1910년 9월 三井 물산을 퇴직하고 조선에 건너오게 되면서 토지사업으로 자본을 확보한다. 자본을 확보한 그는 경성에서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고, 사업을 구상하던 중, 도쿄와 오사카를 방문했던 때, 우연히 영화를 접하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경성에서 1912년 대정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19) 早川는 1879년 1월 태생으로 본적은 도쿄 아카사카구이다. 그는 1905년에 조선으로 건너와 함흥에 주둔군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1906년에는 한국정부 재정고문부에서 1909년까지 활동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 후 용달업에 종사하며 1913년 1월부터 황금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제시하고 있다. 1902년 고종황제 등극 40주년 경축식을 위해 지어진 관립극장 협률사는 현재 서울 새문안교회 터에 자리 잡은 조선 최초의 극장이다. 상해에서 수입된 미국과 프랑스의 영화를 상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1907년 경성 거주 일본인의 수가 급증하면서 일본인 거주지가 형성되었고, 이에 맞춰 근대적 의미의 영화관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영화관들은 곧 지방에도 확산되어 1925년에는 서울 12관, 전국 15관이 번성하였고, 군소도시의 천막극장 등이 형성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1920년 경 경성 인구 중 일본인은 전체의 30% 정도를 차지하였고, 이들은 상위 10%의 경제력을 보유하였다. 경성을 중심으로 영화관을 운영하면서 흥행에 힘을 쓴 두 인물을 검토하는 것으로 당시 경성의 흥행업계에 힘을 싣고 있던 재조일본인들의 전체를 해명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그들이 당시 '식민지 지배계층'의 정치가들이나 상공인들과는 다르게, 상영과 보급에 전념했던 것에 주목하고 초기부터 영화관을 직접 운영한 개인 '사업가'라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자한다.

4. 나아가며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영화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일본인의 존재를 '사업자'가 아닌 '지배자'로 인식하고 있는 한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하였다. 주로 작품 자체의 분석이나 작품을 제작한 감독을 위시한 여러 스태프들에 대한 연구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이러한 인식이 당시 재조일본인의 조선영화계에 대한 영향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논지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본의 기능을 밝히고 재조일본인 경영하는 영화관의 역사적 의의를 밝히고자 한 점에서 본 연구는 유의미한 것이라고 사례된다. 그러나 식민지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더구나 1940년대 내선일체가 강조되면서 더 이상 식민의 관념이 드러나지 않는 시기가 오고 조선영화계는 '조선영화령'이라는 정책을 마주하게 된다. 영화제작, 배급업에 대한 허가제 실시, 영화인등록제 실시, 영화제작 신고제 실시, 영화검열 강화. 외국영화배급의 종류 및 수량 제한, 국책기록영화의 의무상영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다. 조선영화의 주인공은 더 이상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 구분할 수 없는 인물로 바뀌어 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바탕에 두고 본 연구가 강조하고자 하는 재조일본인 경영자들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Abstract 】

Japanese occupation Korean Film industry and Japanese settlers in Joseon History

Jeon, Hee-Ji(Dongseo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ctivities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Japanese who are leading the commercialization business and the box office business, which is emerging as a new business in the Korean film industr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film came to Korea as a symbol of modernization and spread quickly. This means that the world almost experienced the intensive product of the modernization of the film at the same time, and that the Joseon which was undergoing colonization also did not escape from this flow. People's support for movies has been enthusiastic and has grown into a popular culture, as movies are appreciated as a popular entertainment of the new era. I would like to point out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tudies on the Korean film industry as recognizing the existence of Japanese people as 'rulers' rather than 'businesses'. It is also argued that this perception has not been able to properly assess the impact of the Japanese reigns on the Korean film industry at the time.

Section 5

日本文學

大国主神話考 / 金祥圭

공민왕 13(1364)년 김속명(金續命)의 진해현(鎭海縣) 전투와 육전론(陸戰論) / 李領

西海道の国学について / 堀内和宏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위원회방식의 기원에 대한 연구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를 중심으로- / 田泰昊

『쇼코쿠 햐쿠모노가타리』에 나타난 이계 고찰 / 崔嘉珍

한일 구법승 기행문의 문학성 고찰
-『왕오천축국전』과 『입당구법순례행기』를 중심으로- / 姜鏡賀

大国主神話考

김상규(부경대학교)

1. 始めに

神代記－『古事記』上巻－の主題は、天孫の降臨を核にして皇室の神聖さと天皇王権の由来を語るところにある。これは大国主神が行った所謂'国作り」および'国譲り」によって成り立つ。言い換えれば、天孫の降臨は葦原中国を完成させた大国主神から取りあげなければ始まらないことである。このように、神代記の主題にも関わる神であるが、出自(系譜)から隠遁まで非常に長い記事と共に五つの名でもって展開され、伝承ばかりでなく神格まで複雑な様相を呈している。詰まるところ、これらは大国主神を分かりづらくしている所以でもある。

本稿では、出自から根之堅州国の訪問まで大国主神話の前半部について、神代記の本文を中心に従来の解釈や伝承の背景などを鑑みながら分析してみることにしたい。

2. 伝承の分析と解釈

2.1 大國主神の出自

神代記における大国主神は、スサノヲ(須佐之男命)の子孫の系譜から始まる。スサノヲが救った稲田の女神との神婚伝承の後に、次のような系譜を載せている。

> 故、其櫛名田比売以久美度迩起而所生神名、謂八嶋士奴美神(中略)此神、娶刺国大神之女、名刺国若比売、生子、**大国主神**。亦名謂大穴牟遅神〔牟遅二字以音〕亦名謂葦原色許男神〔色許二字以音〕亦名謂八千矛神、亦名謂宇都志国玉神[宇都志三字以音]并**有五名**。

八嶋士奴美神から六代目(六世孫)にわたる子孫を並べているが、性格が不明な神名を除いてほぼ農耕と関わる神である。このような系譜を記録した最後に、大国主神を含む五つの異名を記している。そして、続くところではおよそ三つに分けられる話題を中心に綴られている。

2.2 '稻羽之素菟」と八十神の迫害

系譜に続く大国主神話は、異名の一つである大穴牟遅神が稲羽の素菟を救う話から始まる。

> 故、此**大国主神**之兄弟八十神坐。然皆国者避於大国主神。所以避者。其八十神各有下欲婚稲羽之八上比売之心共行稲羽時。於**大穴牟遅神負伇**。為従者率往。於是到気多之前時。裸菟伏也。爾八十神謂其菟云。汝将為者。浴此海塩当風吹而伏高山尾上。故其菟従八十神之教而

伏。爾其塩随乾其身皮悉風見吹拆。故痛苦泣伏者。最後之来大穴牟遅神見其菟。言何由汝泣伏。菟答言僕在淤岐嶋雖欲度此地無度因。故欺海和迩言。吾与汝競欲計族之多少。故、汝者随其族在悉率来。自此嶋至于気多前皆列伏度。爾吾蹈其上。走乍読度。於是知与吾族孰多。如此言者。見欺而列伏之時。吾蹈其上読度来。今将下地時。吾云。汝者我見欺。言竟。即伏最端和迩捕我。悉剥我衣服。因此泣患者。先行八十神之命以。誨告浴海塩当風伏。故為如教者。我身悉傷。於是大穴牟遅神教告其菟。今急往此水門。以水洗汝身。即取其水門之蒲黄。敷散而。輾転其上者。汝身如本膚必差。故為如教其身如本也。此稲羽之素菟者也。於今者謂菟神也。故其菟白大穴牟遅神。此八十神者必不得八上比売。雖負俗汝命獲之。於是八上比売答八十神言。吾者不聞汝等之言。将嫁大穴牟遅神。
故爾八十神忿。欲殺大穴牟遅神共議而。至伯岐国之手間山本云。赤猪在此山。故和礼共追下者。汝待取。若不待取者。必将殺汝云而。以火焼似猪大石而転落。爾追下取時。即於其石所焼著而死。爾其御祖命哭患而。参上于天。請神産巣日之命時。乃遣螱貝比売与蛤貝比売。令作活。爾螱貝比売岐佐宜集而。蛤貝比売持水而。塗母乳汁者。成麗壮夫訓壮夫云**袁等古**而出遊行。於是八十神見。且欺率入山而。切伏大樹。茹矢。打立其木。令入其中即。打離其冰目矢而。拷殺也。爾亦其御祖哭乍求者。得見即。拆其木而取出活。告其子言。汝者有此間者。遂為八十神所滅。乃遣於木国之大屋毘古神之御所。爾八十神覓追臻而。矢刺之時。自木俣漏逃而云。御祖命告子云。可参向須佐能男命所坐之根堅州国。必其大神議也。

ここでは、オホアナムチという名で始まるが、本文では二つのテーマに分けられる。すなわち、因幡の菟の話および八十神の兄たちによる迫害と克服である。先ず兄たちの袋持ち—負俗—として出発した彼は、皮を剥がれた菟を助けたが、これは呪術師としての資格という古代医療と関わるものと解釈されている。そして、次の八十神の試練での焼死を貝の女神の助けによって生き返るが、それも美男子—成麗壮夫—に生まれ変わったという。これは、大穴牟遅神が少年から青年に成長したことを意味する。

2.3 「根之堅州國」訪問

前段における大穴牟遅神は、度重なる兄たちの脅迫から親神の助けで逃れたが、耐えきれず遂にスサノヲ—須佐之男命—の支配する根(之)堅州国に入ることになる。

故、随詔命而、参到須佐之男命之御所者。其女須勢理毘売出見。為目合而相婚。還入白其父言。甚麗神来。爾其大神出見而告。此者謂之**葦原色許男**。即喚入而令寝其蛇室。於是其妻須勢理毘売命以蛇比礼授其夫云。其蛇将咋。以此比礼三挙打撥。故如教者、蛇自静故。平寝出之。亦来日夜者入呉公与蜂室。亦授呉公、蜂之比礼。教如先故平出之。亦鳴鏑射入大野之中令採其矢。故人其野時。即以火迴焼其野。於是不知所出之間鼠来云。内者富良富良外者須夫須夫。如此言故。蹈其処者。落隠入之間。火者焼過。爾其鼠咋持其鳴鏑。出来而奉也。其矢羽者。其鼠子等皆喫也。於是其妻須世理毘売者。持喪具而哭来。其父大神者。思已死訖。出立其野。爾持其矢以奉之時率入家而。喚入八田間大室而。令取其頭之虱。故爾見其頭者。呉公多在。於是其妻以牟久木実与赤土授其夫。故咋破其木実含赤土唾出者。其大神以為咋破呉公唾出上而。於心思愛。而寝。爾握其神之髪。其室毎椽結著而。五百引石。取塞其室戸。負其妻須世理毘売。即取持其大神之生大刀与生弓矢。及其天詔琴而。逃出之時。其天詔琴払樹而。地動鳴。故其所寝大神。聞驚而引仆其室。然解結椽髪之間遠逃。故爾追至黄泉比良坂遥望呼。謂大穴牟遅神日。其汝所持之生大刀・生弓矢以而。汝庶兄弟者追伏坂之御尾。亦追撥河之瀬而。意礼為**大国主神**亦為**宇都志国玉神**而。其我之女為須世理毘売、為嫡妻而。於宇迦能山之山本。於底津石根。宮柱布刀斯理於高天原氷椽多迦斯理而居是奴也。故、持其大刀・弓。追避其八十神之時。毎坂御尾追伏。毎河瀬追撥而。**始作国**也。

ここでは別名の一つである葦原色許男とも呼ばれるが、この国でも更なる試練を受ける。取り分け、生命の威脅ばかりでなく実際の死を意味する葬式まで準備したこともあった。

このような一連の苦痛を嘗めたことは、古代における成年式儀礼の一種と解釈されている。従って、主人公はこの過程を通じて成人になったことがわかる。また、ここを去る時にはスサノヲの神宝である'生大刀・生弓矢・天詔琴」という三種の神器を持ち出す。最後は、逃げていく主人公に向かって大国主神になれという祝福を受け、やがて地上世界の建設に取り掛かるのである。

2.4 '八千矛神」

前段に続き、ここからはスサノヲから祝福を受けた後で、専ら神婚を巡る物語になっている。

> 故、其八上比売者如先期美刀阿多波志都〔此七字以音〕故其八上比売者雖率来。畏其嫡妻須世理毘売而。其所生子者刺狭木俣而返。故名其子云木俣神亦名謂御井神也。此**八千矛神**。将婚高志国之沼河比売幸行之時。到其沼河比売之家歌曰。……四首の歌、省略……如此歌。即為宇伎由比〔四字以音〕而。宇那賀気理弖〔六字以音〕至今鎮坐也。此謂之神語也。
> 故、此**大国主神**娶坐胸形奥津宮神。多紀理毘売命生子。阿遅鉏高日子根神。次妹高比売命……

地上世界の主神として成長する最後の段階における伝承は、主人公の戀愛と結婚に関する物語であり、四首の歌は'神語」という歌曲名の由来も示されている。ここでは、八千矛神という名で登場するが、前の物語に出ていた八上比売との後日譚と共に、高志国の沼河比売との戀愛を巡る事件を中心に歌物語が置かれる。本妻(嫡妻)になった須世理毘売の嫉妬と再結合の過程を歌謡の形でもって進行される。所謂帝王としての面貌を備えたことを三人の女神との戀愛と婚姻を通じて語ったもので、彼が王権を獲得した者であることを象徴する。これによって大国主神になるまでの過程は叙述し終え、最後に子孫に関する系譜を載せている。次は、やがて葦原中国という地上世界の建設に着手する伝承に入るのである。

3. 結びに

神代記における大国主神の伝承は、主人公の成長過程に合わせて体系的に語られている。すなわち、スサノヲの六世の孫という出自から始め、少年から成年式を経て大人になるまでの過程を辿った後、最後の歌物語では王者にふさわしい恋愛物語を載せた。これらを語り終えた時点で、いよいよ国作りの段階に入るのである。

従来、大穴牟遅神は出雲地方の古層伝承から来たもので、遺物からしてこの地に巨大な宗教勢力があったとも言われる。従って、地方に伝来されたもとの要素が神話に反映されていると解釈する向きも多いが、もっぱら神代記にのみ見えることは説明できていない。ということからして、編者の都合で意図的に作ろうとした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のである。何故なら、大国主神話を分析すれば、見てきたようにいわゆる英雄の一代記のように描いているからである。『古事記』の編者は、神代における天孫の絶対性を標榜すると同時に、登場人物を通じて劇的な効果もあげるように語ったのであろう。それは、高天原の神に作り上げた世界を明け渡さざるをえなかった経緯を詳しく伝えていることからも窺える。神代記は統治者として君臨する天孫の神聖さを表すが、一方では、これを支える大国主神をも創造した。いわゆる地上の神々を代表する大国主神の神話はこれでもって完成したのである。

参考文献

本居宣長(1968),『古事記伝』(本居宣長全集第九巻) 筑摩書房
津田左右吉(1948),『日本古典の研究(上)』岩波書店
松村武雄(1955),『日本神話の研究』(第三巻) 培風館
水野祐(1965),『出雲国風土記論攷』早稲田大学出版部, p.692
松前健(1976),『出雲神話』(講談社現代新書)講談社
西郷信綱(1976),『古事記注釈』(第二巻) 平凡社
倉野憲司(1976),『古事記全註釈』(第三巻) 三省堂
神野志隆光(2008),『古事記の世界観』吉川弘文館
西条勉(2011),『古事記』神話の謎を解く』(中公新書) 中央公論新社
日本古典文学大系(1958),『古事記 祝詞』岩波書店
新朝日本古典集成(1979),『古事記』(西宮一民校註) 新朝社
日本思想大系(1982),『古事記』岩波書店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1997),『古事記』小学館

【 Abstract 】

Research of the Ohokuninusi myth in the "Kojiki"

Kim, Sang-Gyu(Pukyong National University)

Until now, the tradition of Ohoanamuchi comes from the old tradition of the Izumo district, and is said for huge religious influence to have been in this area, in view of remains. Therefore, I may be able to guess that such a situation was reflected in the myth. However, if it carries out from having put on the "Kojiki", an editor will be considered that I will tell intentionally also with the bottom. It is because the Ohokuninusi myth is drawn like a so-called hero's biography. The editor of the "Kojiki" is making so that dramatic effect may also be achieved through characters, while showing the Imperial Household ancestor absoluteness in the age of the gods. Although the "Kojiki" first volume expressed sacred of imperial ancestor, on the other hand, I also created Ohokuninusi with the divinity supporting this. It is certain to have completed that, as for terrestrial gods' so-called representative's state, this was also.

공민왕 13(1364)년 김속명(金續命)의 진해현(鎭海縣) 전투와 육전론(陸戰論)

이영(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Ⅰ. 서 론

충정왕(忠定王) 2(1350)년 2월, 약 80 여 년 만에 왜구의 침구가 재개(再開)되자, 고려는 공민왕 즉위와 동시에 적극적인 대응책 모색에 나선다.[1]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대륙정세의 변동에 따른[2] 공민왕의 반원자주개혁(反元自主改革)이 시작되면서 원나라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방 국경 지역에 대한 방비의 중요성이 더 시급한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고려는 한반도의 남북에서 전개되는 군사적인 위기 상황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에 공민왕 즉위 당초의 각오와 달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이처럼 북방 국경 지대에서의 원나라와의 군사 대치로 인해 왜구로 당시 고려가 받았던 물질적·심리적 피해는 더욱 가중되었다. 왜구에 대한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은 함선 건조를 시작으로 수군을 재건하는 공민왕 22(1373)년 10월경부터 시작되었다.[3]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려가 그 때까지 왜구 문제에 대하여 전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고려는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왜구 침구의 빈도와 규모 등의 시기적 변화에 대응해 적절한 다양한 대응책을 꾸준히 강구하고 또 시도하였다.[4]

본고에서는 고려 조정이 수군을 재건해 왜구에 본격적인 대응을 하기 이전 시기에는 어떤 원칙에 입각해 왜구 문제 해결에 임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하였으며 또 그 한계(限界)는 무엇이었는지 등에 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고려 말 왜구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 중 가장 효율적인 것은 화포를 함선에 선적해 왜구 선단을 해상해서 격퇴하는 것이었음은 여러 사료나 연구를 통해서 입증된 바 있다.[5] 그렇다

---

1) 공민왕의 즉위 교서에서 "유능하여 적을 막을 계책을 가진 사람은 조목별로 건의하도록 허용할 것이며, 그 중 우수한 것을 선택하여 시행하고 특별히 포상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고려사』권38. 세가 권제38, 공민왕 원년 2월조.

2) 한인군웅(漢人群雄)들의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중국 국내 정세는 크게 요동치기 시작하는 데 특히 그 중에서도 강남(江南)의 양주(楊州)의 염상(鹽商)이었던 장사성(張士誠)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원나라 조정은 백만이나 되는 토벌대를 조직하였고 고려에 대해서도 원군을 요청하였고 이에 응해 공민왕 3(1354)년, 약 2만 3천명의 고려군이 동원되었다. 그런데 이 전투에 참가한 고려군 장수들이 귀국해 중국 국내 정세에 대한 보고에 입각해 공민왕 5(1356)년 기철(奇轍) 일가 등 소위 부원세력(附元勢力)의 제거를 단행함으로써 반원자주개혁을 개시한다.

3) "겨울 10월 을해 찬성사(贊成事) 최영을 육도도순찰사(六道都巡察使)로 삼고 장수와 수령을 출척(黜陟)하고 군호를 편성하며 전함을 건조하고, 죄 있는 자는 모두 바로 처단하게 하였다." 『고려사』권44. 세가 권제44, 공민왕 22년 10월조.

4) 이에 관해서는 이영, 「고려 말 왜구의 단계별 침구 양상과 대책」(『황국사관과 고려 말 왜구』, 에피스테메. 2015, 제6장) 참조.

5) 예를 들어 이영은 고려군과 왜구와의 해상 충돌을 해전 · 왜구의 기습 공격 · 해상 조우로 분류하고 ①왜구의 침구가 시작된 경인년(1350) 이후 고려가 제대로 된 수군 조직을 갖추지 못한 시기 ②

면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왜 고려 조정은 왜구가 침구해오기 시작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수군을 재건해 왜구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방 국경 지역에 대한 방위를 우선시 하다 보니 왜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는 주장[6]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수군의 재건이 결정된 공민왕 22(1373)년에는 고려 조정이 왜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까? 반드시 꼭 그렇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 또 다시 왜구의 침구가 격화되기 시작한 것[7]과 고려 조정 내부의 권력 다툼과 관련된 대외 정책의 변화[8] 등 복합적인 시대적 배경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경인년(1350) 이후 공민왕 22(1373)년 10월 이전까지의 기간 중 거의 대부분은 목은 이색이 말한 고려 말 왜구 침구의 제1단계(1350-1371년)에 해당한다.

< 표1: 왜구 침구의 세 단계 >[9]

단계	이 색의 구별	시기(년)	특 징
Ⅰ	밤에 해안에 상륙, 몰래 도둑질	1350 - 1371	밤에 침구, 낮에는 도주
Ⅱ	약탈 뒤 바로 철수하지 않고 대낮에 평원을 떠돌며 고려군과 전투를 벌임	1372 - 1375	고려군과 왜구의 매년 연속적인 육상 전투 발생
Ⅲ	마치 고려를 점령하려고 하는 수준	1376 - 1385	수도권 해역에 대규모 왜구의 연속적인 침구

이 시기의 고려의 왜구 대책은 소극적 · 방어적이며 외교적 대응 중심으로 대책다운 대책은 거의 강구하지 않았다, 고 할 수 있다.[10]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적이 자국에 침입해 마음대로 재물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납치해가는 데 국가 권력이 아무런 군사적 대응을 취하지 않았을 리 없다. 실제로 고려는 왜구 토벌에 나서는 등 군사적 조치를 취하

수군의 재건이 시작되었으나 아직까지 화통도감이 설치되기 이전 시기 ③ 화통도감 설치 이후의 시기 등 3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①시기에는 고려군이 왜구에게 수세에 몰려 일방적으로 패배를 당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러한 양상은 고려가 함선의 건조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②시기에도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②시기에는 왜구에 의해 고려의 함선과 병영이 집중적으로 공격당해 불타버린 상황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③시기에 들어오면서 화약 무기를 함선에 장착하게 된 고려군은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왜구 선박을 수색하고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의 통계, 즉 ①기간 중에 왜구의 기습 사례가 24년 동안 10건. ②기간 중에는 4년 동안 4건이나 되었는데 반해 ③기간 중에는 15년 동안 왜구의 기습에 의해 고려군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단 1건에 불과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영, 「고려 말 수군의 재건과 해양 지배권의 장악」(『동북아 문화연구』 48집, 동북아시아 문화학회, 2016. 9) 참조.

6) 이에 대한 사료적 근거로 『고려사』권133, 열전 권제46, 우왕 3년 9월조의 다음 기사가 있다.
"전 대사성(大司成) 정몽주(鄭夢周)를 답례 차 일본에 파견하고 또한 해적을 단속해달라고 요청하게 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나라는 북쪽으로는 원[大元]과 잇닿아 있고, 서쪽으로 명[大明]과 접해 있으므로 항상 군관(軍官)을 훈련시켜 방어하는 데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적들의 침구에 대해서는 오로지 연해의 주군(州郡)들에게 방어를 일임하고 있습니다." (후략)
이와 관련된 연구로 이영, 「14세기의 동 아시아 국제 정세와 왜구-공민왕 15년(1366)의 금왜 사절의 파견을 중심으로-」(『황국사관과 고려 말 왜구』, 에피스테메, 2015) 참조.

7) 전년도(1372)에 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슌이 다자이후(大宰府) 탈환 작전을 전개하면서 북 규슈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이 고조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비례하여 왜구의 한반도 침구도 증가하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이영, 앞의 주(4) 책, 2015, 200-201쪽을 참조.

8) 이 문제에 관해서는 추후 별도의 기회를 빌려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9) 이영, 앞의 주(4) 책, 2015, 216쪽 참조.

10) 이영, 앞의 주(4) 책, 2015, 220-221쪽 참조.

였고 그러한 군사적 대응에는 나름대로 일정한 원칙이라고 할까,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 원칙과 한계는 무엇이며 그러한 원칙은 어떠한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찰은 왜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 조정이 추진해온 왜구 정책의 시행착오 과정을 돌이켜 봄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가 무엇이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제공해 줄 것이다.

1. 김속명과 진해현 전투에 관한 인식

고려 말 왜구 침구의 제Ⅰ단계에 있어서, 고려 조정의 왜구에 대한 군사 대응은 어떠한 원칙에 입각한 것이었을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초점을 보다 좁혀서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제기하자면, "이미 공민왕 원년에 목은 이색이 수군 재건론을 주장한 바 있었음[11]에도 불구하고 왜 침구의 제Ⅰ단계에 고려는 수군을 재건하지 않았을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고려 조정이 더 이른 시기에 수군을 재건하지 않았던 데에는 군사력을 북쪽 국경에 집중시키느라고 여유가 없었다고 하는 주장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조정 내의 수군 재건 반대 여론이었다. 이를 '반(反) 수군 재건론'이라 하자. 이 주장은 달리 표현하자면, '육전론(陸戰論)'이라고 할 수 있다.

수군 재건론자로는 이색·우현보·이희·정준제(정지) 등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소위 반(反) 수군 재건론이라고 할 수 있을 주장을 내세운 사람들이 누구이며 또 그 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고찰된 적이 없다. 본고에서는 '반 수군 재건론'의 대표격인 인물로 김속명에 주목하고 그 논거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김속명(?-1386)은 "이인임·지윤·임견미 등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끝없이 탐욕을 부렸지만, 오직 김속명을 꺼려서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였다."[12] 고 할 정도로 공민왕 - 우왕 정권 당시 조정 내에서 비중 있는 인물이었다.[13] 그가 이처럼 공민왕 - 우왕

---

11) 이색은 "대개 육지를 지키고 바다에서 싸우지 않는다면, 저들은 우리가 겁을 먹었다고 여겨 셀 수 없는 만큼 쳐들어 올 것입니다. 바다에서 싸우고 육지를 지키지 않는다면, 저들은 혹 나가더라도 불의에 쳐들어와 해가 되는 것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지를 지키는 것은 우리를 굳게 지키는 것이며, 바다에서 싸우는 것은 저들에게 위세를 보이는 것이니, 이와 같다면 둘 다 얻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여 해상과 육상에서 모두 왜구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사』권115, 열전 권제28, 이색 전.
한편 우현보와 이희, 그리고 정준제의 수군 재건 주장은 『고려사』권83, 지(志) 권제37, 병3(兵三), 선군(船軍) 조에 있다.

12) 『고려사』권111, 열전 권제24, 김속명 전.

13)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간행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공민왕(恭愍王) 초에 감찰집의(監察執義)가 되어 감찰대부(監察大夫)원의(元顗)와 감찰지평(監察持平)홍원로(洪元老)와 함께 부정을 규탄하고 법을 집행하였다. 새로 임명되는 관리도 허물이 있으면 서명을 거부했으므로 나인과 환자(宦者)들의 미움을 사 파면되었다가 다시 복직되어 좌부대언(左副代言)이 되었다. 1361년(공민왕 10)에 홍건적의 침입으로 왕이 복주(福州: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로 피난할 때 호종한 공으로 신축호종이등공신(辛丑扈從二等功臣)이 되었고, 감찰대부에 제수되었다가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에 올랐다. 1364년에 서북면체찰사(西北面體察使)에서 다시 경상도도순문사(慶尙道都巡問使)가 되어 진해현(鎭海縣)에 침입한 왜구 3천여 명을 물리쳤다. 그 공로로 1365년 삼사좌사(三司左使)에 제수되고 단성규의보리공신(湍誠揆義輔理功臣)의 호를 받았으며, 그 해 다시 첨의평리(僉議評理)가 되었다. 1367년(공민왕 16)에 평양도도순문사를 거쳐 대사헌이 되었으나, 찬성사(贊成事)최영(崔瑩)의 경상·전라·양광도도순문사의 보직 임명이 옳지 못함을 논하다가 파면되었으나, 우왕(禑王) 초에 삼사우사(三司右使)에 복직되었다.
명덕태후(明德太后: 忠肅王妃)의 인척으로서 궁중의 일을 도맡았으며, 또 성품이 청렴하고 강직해 거리낌 없이 말을 함으로써 주위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였다. 때마침 반야(般若)의 사건이 일어나 이를 변론하는 자리에서 왕에 대해 불경한 말을 했다고 하여 이인임(李仁任) 등의 탄핵을 받아 처형될 뻔하였으나, 명덕태후의 구원으로 감형되어 1376년(우왕 12)에 문의현(文義縣: 지금의 충

조정에서 큰 비중이 있는 존재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국정에 임함에 있어서 일체의 사심(私心)이 없었으며 옳지 않다고 판단한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최고 권력자에 반대했던 그의 용기에 당대 조정의 관리들이 감복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직언을 서슴치 않을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인격과 성격만이 아니라, 그가 공민왕의 어머니인 명덕 태후의 외척이었다고 하는 것[14]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김속명이 최영의 삼도 도순문사 임명에 반대하다가 대사헌(大司憲)에서 해임당한 것 역시 최영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반대한 것이었고[15] 결국 공민왕이 이희와 정준제의 수군 재건에 관한 새로운 건의를 채택함으로써[16] 김속명의 최영 임명에 대한 반대 주장이 일정 부분 수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직언과 충정은 우왕의 생모(生母)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직언을 꺼리지 않음으로써 결국 귀양을 가게 되고 유배지에서 사망하고 만다.[17]

이처럼 김속명이 공민왕과 우왕 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비중 있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가 고려 말 조정에서 행한 역할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 중 하나로, 김속명과 최영의 악연(惡緣)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하겠지만 '악연'이란, 최영이 왜구에 대한 대응을 잘 못했다고 해서 동서강도지휘사(東西江都指揮使)[18]에서 해임당하고 그를 대신해 진해현 전투에서 왜구를 대파한 김속명이 임명되었던 것이다. 또 한 번은 김속명이 최영이 주도했던 고려 수군 재건에 반대한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최영은 이성계의 조선 건국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 왕조의 충신으로 오랫동안 현창되어져 온 인물이다. 그리고 그가 주도한 고려의 수군 재건은 한국 해군에 '최영함'이라는 구축함이 있다고 하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요동 정벌 역시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그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 또 한 원인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김속명이 당대의 최고 권력자의 반감을 살 위험이 있음에도 직언을 꺼리지 않았을 정도로 사심이 없는 인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의 '반 수군 재건론'도 나름대로 논리적인 판단의 근거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그가 어떤 이유로 수군의 재건에 반대했는지, 그리고 수군 재건 반대에 대한 대안(代案)으로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한 좋은 힌트를 제공해 주는 것이 공민왕 13년에 그가 경상도도순문사로서 고려 말 최대 병력의 왜구를 상대로 거둔 승리인 진해현 전투를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는 대사헌 등 대표적인 문반(文班)직을 역임해 학계에서는 문신으로 알려져 있지만[19],

청북도 청원)으로 귀양 가서 죽었다.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14) 앞의 주(12) 사료.

15) 『고려사』권44, 세가 권제44, 공민왕 23년 3월 29일 을미일 조.

16) 『고려사』권83, 지(誌) 권제37, 병3(兵三), 선군(船軍) 조.

17) 앞의 주(12) 사료.

18) 동서강도지휘사는 최영과 김속명 두 사람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기사에서만 확인될 뿐, 더 이상 사료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동서강 도지휘사는 다음과 같은 배경과 목적이 상정된다. 즉, 공민왕 13(1364)년 3월에 경기좌도 병마사 이선과 경기우도 병마사 변광수가 휘하 병력을 이끌고 왜구의 위협으로 전라도에서 상경하지 못하고 있던 조운선단을 호위하기 위해 현지로 향하던 도중에 왜구의 유인작전에 속아서 이작도(伊作島)에서 전멸에 가까운 참패를 당했다. 이처럼 수도 개경을 방어하기 위한 경기좌우도 병마사의 휘하 병력이 이작도에서 대패를 당하자, 고려 조정이 왜구의 개경(開京) 침구에 대비하기 위해 급히 만든 조직이었고 위급한 상황이 지나자 소멸된 것으로 생각된다.

19) 예를 들어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물론, 민병하가 1995년에 집필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김속명 자신은 스스로를 무신(武臣)으로 자임하고 있었다.[20] 그런데 그가 실제로 무관직에 임명되어 실제로 활동한 것이 사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단 1건 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공민왕 13(1364)년 5월, 진해현(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鎭東面)에서 있었던 전투였다.

『두산백과사전』, 민중서관에서 2002년에 발행한 『인명사전』에서는 모두 다 김속명을 '고려 후기의 문신'으로 소개하고 있다.

20) "우사(右使) 김속명이 태후를 찾아가 보고하여 말하기를, '신은 무인(武人)이기 때문에 사리에 밝지 못하지만 문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간관이 비록 〈임금의〉 뜻을 거스르더라도 죄를 주지 않는 것은 언로를 열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고려사』권120, 열전 권제33, 김자수 전.
이 때의 발언은 우왕 때 그가 우사(右使)에 재직하고 있을 때였다. 그런 그가 스스로를 '무신'이라고 한 것을 단지 자신이 '사리에 밝지 못하다'고 함으로써 스스로를 낮추고자 한 겸손한 생각에서 비롯된 일종의 '레토릭(RHETORIC)'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스스로를 '무신'으로 여기고 있었는지 여부는 이 한 건 밖에 없는 사료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여기서는 단지 그가 고려 말의 국방 정책에 깊은 관여를 했으며 또 실제로 그가 전장에서 전투를 지휘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Abstract 】

The battle of Chinhae Hyun in the year of 1364.

Yi, Young(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In the year of 1364(= the king Gongmin 13th year), Goryo army encountered miserable defeat by 'Waegu(=japanese pirates) in the naval battle of Izakdo(Izak island) which is located in western sea of Korean peninsular(=yellow sea). The reasons of the miserable defeat were as follows : 1. the discord of the channel of command 2. the quality of commander 3. the performance of naval battle of soldiers.

The naval battle was proceeded as follows : Each soldiers start to shoot an arrow a little way off. And as the ships get closer each other, they started to speared each other. Boats tip after contact with each other, the members of Waegu armed with swords jumped onto Goryo army's ships started to the hand - to hand combat.

One reason of Goryo army's defeat was that their performance of using swords like as arrows and spears and long swords on board ship was inferior to Waegu. The soldiers had mobilized in the Izakdo battle were land troops like as cavalry or infantry. There were big differences between the conditions of the ground combat and naval battle like as the tidal current, seasickness etc. On the other hand, Waegu members are the nautical. And the Goryo court knew that this point. So there were so many members of Goryo court who opposed to rebuild their navy because their navy could not afford the Waegu in the naval battle. Therefore Goryo court did not try to rebuild their navy.

西海道の國學について

堀内和宏(青森県つがる市教育委員会)

学令に規定されるように、日本古代の令制国各々には公立の地方教育機関として国学が行政施設の国府に付随して置かれ、中央教育機関である大学寮や大宰府の府学と並立していた。双方とも儒教の古典を中心に漢字文化全般を学ぶ規定になっていた。これら古代の教育制度については桃裕行や久木幸男らの古典的研究があるが、地方の実態については史料の不足もあり、不明な点も多い。また地方出土の木簡や墨書土器など出土文字資料の増加もあり、二氏ら従来の古代教育史研究については再考すべき点も見られる。

国学は奈良時代の初めで九州の 3 分の 1 くらい、終わりには全ての国に設置が完了していたとされる。正規教員たる国博士の定員は一人しかいない。校長に当たるもので、実際には非正規雇用の助教や兼任講師に相当する立場の教師が多かったと想定される。また、地方の医師や国博士は実際には国府の幹部職員として、医学や教育と関係ない税務などの一般事務にも従事していたことが古文書の署名から判明する。学生の定員は大国で 50、上国 40、中国 30、下国 20 で 9 年まで在学できた。同年代の、同様の学習進度の者は 5 人からせいぜい 8 人程度と少人数授業であった。

国学から優秀な学生が大学寮に編入できる制度もあり、従来の研究では国学の教育内容は貧弱と考えられていた。大陸に近い九州では他地方より文化水準が高かったことが想定されるにも拘わらず、大宰府の府学から九州管内に教員を派遣した記事があることから、一般の国学の教育水準について過小評価するのが妥当と考えられたためである。しかし近年の考古学的発掘調査の成果により急増した地方の出土文字資料の記載は、地方の下級官人層への漢字文化の浸透について明示するものであり、地方の教育水準についても再考するべき余地が大きい。従来知られていた史料の記載についても再検討する必要がある。

【 Abstract 】

Local colleges in ancient Kyusyu Island

Kazuhiro, HORIUCHI(Tsugaru city, Board of education)

In ancient Japan, local colleges which were put over each province played important roles to bring up local clerks with education that ware characterized by Confucianism and Kanji cultures, along with central Academy. Classic studies in Japanese education history by Hiroyuki MOMO and Yukio HISAGI underestimated educational standards and student's levels of local colleges. Recent archaeological discoveries of wooden tablets and pottery with Indian-ink writings clarified high knowledge of lower clerks around Japan. These novel view will change educational history in ancient Japan.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위원회방식의 기원에 대한 연구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를 중심으로-

전태호(나고야대학교)

1. 서론

일본 애니메이션은 이제 단순한 산업을 뛰어넘어서 일본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가 되어있다. 이런 일본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일반적인 영화연구학적(cinema studies) 관점에서 저명한 감독이나 작품을 중심으로 연구되거나, 일본 애니메이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리미티드 애니메이션 기법과 같은 기술을 중심으로 한 미학적 비평이나 연구(Thomas Lamarre, 2009)가 많았다. 그런데 근래 들어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는 또 하나의 관점으로서 애니메이션의 주변 환경을 다루고 있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마크 스타인버그(Marc Steinberg, 2012)와 이안 콘드리(Ian Condry, 2013)가 그 대표적인 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자체만이 아니라 만화와 캐릭터 상품, 라이트노벨과 같은 소설과 게임 등과 같이 각종 미디어를 횡단하는 특징을 가진 것에 주목했다 할 수 있다. 콘드리는 일본 애니메이션을'횡단형 미디어'라 정의하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유명 감독 등의 특정인 소산이 아닌, 프로듀서나 팬들, 상품개발자, 심지어 불법 동영상에 들어가는 자막을 만드는 해외 팬들까지 아우르며, 일본애니메이션이 지금과 같은 위치에 서게 한 에너지에 대해 고찰했다. 그는 문화인류학자답게 애니메이션의 제작 전선부터 소비자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필드워크를 수행하고 인터뷰를 시도했다. 애니메이션이라는 형식에 관련되는 복잡다단한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 단순한 특정인의 힘이 아닌 집단적인 창조의 힘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 독특성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그 집단적 힘을 가능하게 한 한 조직과 환경이 없었다면 일본 애니메이션이 과연 그만큼의 위치에 설 수 있었을까 라는 점이다. 지금의 감독이나 프로듀서, 그리고 팬들을 양산한 배경과 시스템, 조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이 연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스타인버그는 콘드리에 비해서는 환경적인 접근을 한다. 그는 미디어믹스라는 일본식 영어 조어를 전면에 내세워서 그 기원과 발전양상에 관해 고찰했다. 만화가인 데즈카 오사무(手塚治?)가 직접 제작한 TV 애니메이션『철완 아톰(鐵腕アトム)』(1963)부터 시작된 일본의 미디어믹스는 종합 미디어 기업인 KADOKAWA의 창조적 전략과 실천에 의해 이어져 오늘과 같은 형태가 되었다고 서술한다. 특히 그가 주목하는 부분은 데즈카 오사무의『철완 아톰』이 방송국에 헐값에 팔리면서 자본 회수가 극히 어려웠기 때문에, 비교적 제작비가 적게 들어가는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 식품회사의 투자를 받아 자본을 회수하는 모델을 정립한 것이다. 이는 원작 만화의 지명도를 바탕으로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이를 캐릭터 상품화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전형적인 일본 TV 애니메이션의 방식이며, 그는 이

것이 일본 애니메이션의 미디어믹스의 시초라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이 모델의 후속 모델에 대한 고찰이 없이, KADOKAWA의 미디어믹스 실천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그는 KADOKAWA의 역대 회장들의 시장 전략을 쭉 따라갈 뿐이었다. 즉 스타인버그 자신이 미디어믹스를 "예술과 비즈니스, 혹은 예술과 자본주의 사이의 긴장 관계"로 보고 있으면서도, KADOKAWA에 한해서는 창조성에만 주목하고, 그를 지탱하는 산업적 구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

애니메이션 산업은 명백하게 문화산업(cultural industry)의 한 종류이며 오늘날의 학문적 관점에서는 창의산업(creative industries)에 속한다. 창의 산업은 기본적으로 예술(창조성)과 자본주의(시장성)의 긴장 관계가 항상 존재하며, 양쪽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지속할 수 있다.

본 발표는 일본의 미디어믹스를 비롯한 구조의 변화가 창조성과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고찰하기 위한 거대한 과제의 시작점으로서 먼저 가장 대표적인 제작 시스템의 역사와 변동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일본의 대표적인 영상 제작 방식으로 자리 잡은 제작위원회방식에 주목한다. 우선 제작위원회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논한 뒤, 최초로 제작 위원회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진『바람계곡의 나우시카(風の谷のナウシカ)』(1984)의 제작 경위를 좇아, 제작위원회방식의 기원에 관해 논한다. 또『나우시카』의 제작위원회방식의 실천이 당시의 미디어믹스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그리고 지금의 미디어믹스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2. 제작 위원회 방식이란 무엇인가

"제작위원회방식"은 "대형영화회사, 방송국, 출판사 등의 영화 관련 업계들이 임의 조합 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위원회'를 조성하여, 이들이 지출함으로써 영화 제작 및 제반 경비를 조달하는 방식"(杉山 · 鈴木2006 : 98)을 말한다. 2000년대부터는 제작위원회방식으로 만들어진 일본의 영화가 전체의 99%에 달하며, 출자자의 담당하는 각 분야의 미디어가 곧 선전 미디어이기도 한 미디어 믹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TV 애니메이션의 경우 제작위원회방식 정착되기 이전에는 주로 완구회사 같은 곳에서 광고대행사를 통해 자금을 투자하고, 이 돈으로 애니메이션 제작 스튜디오가 작품을 만들면 그 수익을 완구의 판매로 환수하는 시스템이 일반적이었다.『철완아톰』이 정착시킨 이러한 시스템은 1995년 제작위원회 방식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신세기 에반게리온(新世紀エヴァンゲリオン)』의 메가 히트로 점차 바뀌게 된다.

다나카(田中 2009)의 연구는 미디어 믹스의 시스템에 관한 한 선구적인 연구인데, 그에 따르면 제작위원회방식은 미디어믹스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기능한다. 즉 제작위원회방식을 이용함으로써 미디어 믹스에 관계되는 여러 부문(원작, 제작, 유통, 광고)의 리스크 분담이 가능하다(田中 2009:168). 기존의 방식이 소수의 회사가 큰 자본을 투자하고, 원작 출판사는 판권을 팔뿐이었고 제작에 직접 관여는 하지 않았다면, 제작위원회방식은 다양한 분야의 회사가 비교적 적은 돈을 투자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이 과정에서 원작 출판사도 판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의 투자자가 되는 것이다. 또한 몇몇 소수의 회사가 투자권을 갖고 있던 것과 달리 미디어믹스의 각 분야가 투자하기 때문에 좀 더 다채롭고, 각 분야의 회사가 거의 동시에 관련 상품과 광고를 내보냄으로써 작품의 선전과 상품의 선전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3.『바람계곡의 나우시카』와 제작위원회방식

3.1『나우시카』의 제작 경위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언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나우시카』는 제작위원회방식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작품으로 꼽힌다. 출판사인 토쿠마 서점과 광고 회사인 하쿠호도의 공동 출자에 의해 만들어졌다. 1984년 당시의 미야자키 하야오는 아직 신인 감독에 가까웠다. 그가 메인 감독으로서 연출한 작품은 TV용 애니메이션과 영화 한 작품씩 밖에 없었다. 특히 그가 감독한 극장용 장편인『루팡3세-카리오스토로의 성』(1979)은 흥행에 성공한 작품이 아니었다. 그는 도에이 동화를 퇴사하고『루팡3세』을 넘어선 작품을 만들려고 했지만, 미야자키 작품에 투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문제에 직면했다.

『월간 아니메쥬(月刊アニメージュ)』의 부편집장이었던 스즈키 토시오는 미야자키에게 "본인이 직접 원작 만화를 그려서 히트시키면 영화화할 수 있다"(叶 2006:39)며 우선 만화를 그릴 것을 권했다. 그래서 1982년 2월부터『아니메쥬』에『나우시카의 만화 판을 연재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분위기 속에서도 투자를 받기란 쉽지 않았다. 단지 10분의 파일럿 필름을 만드는 데에도 상당한 자금이 필요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나우시카』는 극장용 장편으로 만들기로 정해졌다. 다만『아니메쥬』의 출판사인 도쿠마 서점은 "출자 파트너를 찾을 것"이라는 조건을 내놓는다. 그 과정에서 미야자키의 형인 미야자키 지로가 근무하던 하쿠호도와 공동 출자하게 된다. 이것이『나우시카』가 제작위원회방식으로 만들어진 경위이다.

3.2 제작위원회방식과 미디어믹스

그럼 이는 미디어 믹스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나우시카』의 제작위원회방식은 다나카가 지적한 부문(원작, 제작, 유통, 광고)의 원작과 광고 회사밖에 관여하지 않았다. 즉 2000년대의 제작위원회방식처럼 신문과 방송이 관여하는 형태는 아니다. 그러나 당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원작 측의 출판사가 애니메이션 제작에 투자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이 두 회사는 이후 스튜디오 지브리의 창업에 출자하고 지브리의 작품에 지속해서 관여한다.

또 이는 잡지가 어느 특정 작품을 선전하고 제작에 관여를 주도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아니메쥬』는 1981년 8월호에 40쪽에 달하는 미야자키 감독의 특집을 실으며. 적극적으로 미야자키 감독을 선전했다. 당시까지 미야자키의 인지도를 생각하면 이런 행보는 상당히 파격적이었다. 또 1982년부터 애니메이션화를 염두에 두고 만화 연재가 시작됐다. 이는『나우시카』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방편이었지만, 가노우(叶 2006)에 의하면 편집장인 오가타가 미디어믹스에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 이는 KADOKAWA가 잡지를 통해서 미디어믹스를 시도했을 때보다 앞선 것이다. 이들의 실천이 엄밀한 의미에서 미디어믹스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의 여지는 있겠지만 하나의 모델이 되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그 외에 1983년 7월호부터『나우시카』의 제작 현황 및 설정, 제작 비화, 스태프와의 인터뷰 등을 특집 기사로 연재하기 시작했다. 영화 작품 취재야 원래 영화 잡지의 역할이지만, 이 경우엔 사실상 광고에 가깝기에 다르다. 특히『나우시카』의 팬들에게 정보를 주고 각 동아리에서 신문을 만들게 한 기획은 당시의 애니메이션 팬의 2차 창작적인 행위를 의식한 기법이라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나우시카』의 스탭 모집도 매번 실었다.

이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은『아니메쥬』가 작품의 상영 이후에도, 자사의 캐릭터를 장기간

인식시켰다는 것이다. 극장용 작품은 공개 기간에만 화제가 되는 경향이 있다. 어느 특정 캐릭터의 생명력을 길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나우시카』의 경우 『아니메쥬』의 캐릭터 인기 순위에서 30년 이상 순위권에 남았다. 이는 다른 애니메이션 잡지의 캐릭터 인기 순위와 다른 『아니메쥬』만의 현상이다. 이렇게 잡지와 작품의 깊은 관계는 브랜드나 캐릭터의 생명을 오래 갈 수 있도록 했다.

1984년 당시에 부편집장이었던 스즈키는 1989년부터 스튜디오 지브리의 프로듀서가 되어 지브리의 캐릭터 머천다이징 사업에 손을 댄다. 캐릭터 머천다이징에 있어서 생명력이 긴 콘텐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고려할 때(久保 2005) 이러한 잡지의 역할은 상당했다고 생각된다.

잡지와 캐릭터, 그리고 상품화의 관계는, KADOKAWA의 미디어 믹스 실천에 의해 계속된다. KADOKAWA는 『컴퓨틱』과 『뉴타입』 등의 잡지를 통하여, 전략적인 미디어 믹스 전개를 시작한다. 특히 『뉴타입』은 『기동전사 Z건담』의 시작과 동시에 창간된 잡지로, 지브리와 『아니메쥬』의 관계와 유사하다. 『뉴타입』은 만화 『 파이브 스타 스토리즈 』를 1986년부터 연재하면서 1989년에 애니메이션 영화화되는데, 이들의 실천도 『나우시카』를 모델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4. 향후 과제

본 발표에서는 『나우시카』와 제작위원회방식과 관련하여, 특히『아니메쥬』의 실천에 중점을 두고 논했다. 그러나 아직은 시작단계에 있다. 궁극적으로 제작위원회방식이라는 시스템과 미디어믹스, 그리고 작품의 내용과의 관계를 통시적 공시적인 연구를 통해 밝히고 싶다. 오토모 가쓰히로 감독의『AKIRA』는 10억 엔이라는 막대한 제작 예산이 들어갔으며 이 또한 제작 위원회 방식으로 제작됐다. 또 실사 영화 『건헤드』(1990)도 당시로써는 획기적인 특수효과가 사용된 거대 프로젝트로 제작위원회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나우시카』의 예산이 4억 엔 정도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제작 위원회 방식사용목적은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부터 일종의 시프트가 발생한다. 1990년대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디지털 게임의 폭발적 성장에서 애니메이션계의 인재를 게임 산업에 빼앗기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파다했다.

2016년에 발표자가 일본의 라이트노벨 편집자를 인터뷰 한 바에 기초해 현재 생각하는 가설이 있다. 그것은 일본의 콘텐츠 산업이 전반적으로 불황에 빠지면서 그 타개책으로 오히려 작은 작품을 수많이 만들고, 각 사업체가 연계해서(즉 여기서도 미디어믹스는 수단이다)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금 난폭하게 말하면 각 업체는 살아남기 위해 연대를 하고 있으며, 그것은 비교적 낭만적으로 그린 스타인버그의 미디어믹스와는 차별되는 형태이다. 여기에 제작위원회방식이 각각의 회사를 연결해주는 제도적 모델로 기능했을 것이며, 지금 보이는 수많은 동시다발적 미디어믹스는 그 결과라고 본다.

1995년에 제작위원회방식을 적용한 『에반게리온』이 기록적으로 히트하고 애니메이션 제작방식의 좋은 모델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모델이 되었는지에 대해선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후에 그 변화 양상을 좀 더 깊이 고찰하고 싶다.

참고 문헌

叶 精二(2006),『宮崎駿全書』フィルムアート社

久保 雅一(2005),「アニメーションキャラクターの總合プロデュース」『デジタルコンテンツ白書2005』一般財団法人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會, pp13 29

田中 繪麻(2009),「メディアミックスの産業構造—企業間取引と製作委員會方式の役割—」『コンテンツ産業論—混淆と伝播の日本型モデル』東京大學出版會, pp159-186

Steinberg, Marc(2012), *Anime's Media Mix: Franchising Toys and Characters in Japan*, Univ Of Minnesota Press(=中川 讓 譯『なぜ日本は〈メディアミックスする國〉なのか』KADOKAWA/角川學芸出版)

LaMarre, Thomas (2009), The Anime Machine: a Media Theory of Animation, Univ Of Minnesota Press(=藤木 秀朗 · 大崎 晴美 譯『アニメ · マシーン-グローバル · メディアとしての日本アニメーション-』名古屋大學出版會)

Condry, Ian(2013), *The Soul of Anime: Collaborative Creativity and Japan's Media Success Story*, Duke University Press(=島内 哲朗 譯『アニメの魂: 協働する創造の現場』エヌティティ出版)

【 Abstract 】

A study on the origins of Japanese anime production committee system- Focused on "Nausicaa of the Valley of the Wind"

Jeon, Tad-Ho(Nagoya Umiversity)

This presentation explores the history and variations of the Japanese animation production method as a starting point of a huge task to examine how the structural changes of the Japanese animation production system relate to creativity. To this end, I pay attention to the Production Committee System, which has become one of the representative systems of film production in Japan. I first review the previous work on what the production committee method is and then discuss the origins of the production committee approach, following the production process of "Nausicaa of the Valley of the Wind" (1984). It also examines how the practice of Nausicaa's Production Committee method relates to the media mix at the time and how it differs from the current media mix.

『쇼코쿠 햐쿠모노가타리』에 나타난 이계 고찰

최가진(울산대학교)

1. 서론

에도(江戸) 시대인 엔포(廷宝) 5년(1677)에 성립한 『쇼코쿠 햐쿠모노가타리』는 당시 일본 각지의 괴담을 한데모아 정리한 작자미상의 괴담집이다. 전 5권 구성에 권당 20개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 총 100개의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으며,[1] 총 50개의 삽화가 이야기 중간마다 삽입되어 있다. 『쇼코쿠 햐쿠모노가타리』는 간행 이후 '햐쿠모노가타리(百物語)'[2] 라고 제목 붙인 괴담집군이 다수 간행되어 '햐쿠모노가타리' 계열 괴담집의 원류라고 평가되고 있으며,[3] 다른 괴담집들과 달리 실제로 100개의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는 유일한 작품이라는 점[4]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괴이의 구체적이고 통일된 이미지를 확립시키고 괴이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작품으로 평가[5]되는 점 등 괴담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지금까지 그다지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쇼코쿠 햐쿠모노가타리』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그 이전에 성립한 괴담집・설화집과의 관계 속에서 『쇼코쿠 햐쿠모노가타리』가 성립될 수 있었던 배경과 그 문학사적 가치를 밝힌 연구[6]와 작품 속에 수록된 이야기 중 그 이전의 설화집이나 괴담집에 실린 이야기를 전거로 하고 있는 작품을 밝히고 양쪽 사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7] 이 외에 구조주의적 분석 방법을 통해 『쇼코쿠 햐쿠모노가타리』의 서술 특징 및 서

---

1) 단, 이 중 36화는 『도노이구사宿直草』(연도미상), 『인가 모노가타리因果物語』(1661), 『소로리 모노가타리僧侶利物語』(1663) 등 그 이전에 성립한 불교설화집이나 괴담집에 수록된 이야기를 전거(典據)로 하고 있다. 塚野晶子(2016), 「『諸國百物語』論:怪異と人との關わりを中心に」, 『國文學研究』, 早稻田大學國文學會, p.38

2) 해가 저물 무렵부터 한 자리에 촛불 백 개를 밝히고 괴담을 하나씩 이야기할 때마다 촛불을 꺼서 새벽 세 시 무렵이 되면 반드시 요괴가 나타난다고 믿어지는 괴담회이다. 福田アジオ 編(2000), 『日本民俗大辭典 下』, 吉川弘文館, p.440

3) 古明地樹(2015), 「怪異描寫の鮮明度-『諸國百物語』にみる近世的怪談文藝への志向-」, 『學藝古典文學』8, 東京學藝大學, p.153

4) 太刀川清(1987), 「解題」, 『百物語怪談集成』, 國書刊行會, p.360

5) 김영호(2014), 「『쇼코쿠 햐쿠모노가타리』 고찰-성립배경과 '괴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56,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p.60

6) 太刀川清(1973), 「諸國百物語」成立の背景」, 『長野懸短期大學紀要』 28, 長野縣短期大學

7) 일본의 연구로는 小澤江美子(1992), 「廷寶期の怪異小說考-『僧侶利物語』から『諸國百物語』へ」, 『大妻女子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論集』 2, 大妻女子大學, 三浦達尋(2011), 「近世怪異小說における「ろくろ首」の登場:『僧呂利物語』と『諸國百物語』の比較を通して」, 『ナラティヴ・メディア研究』 (3), ナラティヴ・メディア研究會, 塚野晶子(2016), 「『諸國百物語』論: 「後妻(うわなり)うち」を中心に」, 『昔話傳說研究』(35), 昔話傳說研究會, 塚野晶子(2017), 「『諸國百物語』論:幽靈譚を中心に」, 『早稻田大學大學院教育學研究科紀要:別冊24(2)』, 早稻田大學大學院教育學研究科 등이 있다. 국내 연구로는 김영호(2014), 「『쇼코쿠 햐쿠모노가타리』 고찰-성립배경과 '괴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56, 한

사를 분석하여 전거작과 비교되는 특성을 고찰한 연구[8] 등이 있다.

최근에 『쇼코쿠 햐쿠모노가타리』를 '장소'라는 관점에서 주목한 연구로는 쓰카노 아키코(塚野晶子)의 연구가 있다. 쓰카노는 『쇼코쿠 햐쿠모노가타리』에 수록된 이야기 중에서 제목에 '바케모노(ばけ物)' 혹은 '헨게노모노(へんげの物)'라고 명기된 22화를 대상으로 각 사례마다 요괴가 출현하는 장소를 정리하고, 그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9] 그러나 장소의 유형이나 특징에 관한 구체적 분석은 없으며, 또한 제목에 '바케모노'나 '헨게노모노'라고 명기되어 있지 않아도 요괴가 출현하는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분석이 결락되어 있다. 또 쓰카노는 '변소(厠, 雪隱)'를 사건의 배경으로 하는 9가지 이야기를 대상으로 그 공간적 의미에 주목함으로써 다른 괴담집과의 차별성을 지적한 바 있다.[10] 하지만 이 역시 '변소'를 배경으로 하는 사례만을 한정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쇼코쿠 햐쿠모노가타리』에 나타난 이계의 전체상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쇼코쿠 햐쿠모노가타리』에 수록된 100화 중에 요괴 체험담에 해당하는 총 55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구체적인 내용분석을 통해 그 속에 나타난 이계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11] 여기서 이계는 인간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과 겹치거나 그 주변에 펼쳐진 비일상적인 공간으로, 유령의 세계인 타계와 달리 요괴가 존재하는 곳이다.[12] 때문에 유령담을 비롯해 인간관계의 얽힘이 괴이(怪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전처 복수담이나 여인이 집착으로 뱀이 되는 이야기, 살생 등의 죄업 때문에 화를 당하는 불교적 응보담, 괴담적 요소가 없는 영험담・인물담에 해당하는 45화는 제외하였다.[13]

2. 『쇼코쿠 햐쿠모노가타리』에 나타난 이계의 시공간

『쇼코쿠 햐쿠모노가타리』의 중요한 특징은 수록된 괴담들의 신빙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서문序」에서 세간에 이미 '햐쿠모노가타리'라는 제목의 책이 있지만 아이들이나 가지고 노는 책이며 그 출처가 바르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쇼코쿠 햐쿠모노가타리』는 "각 지방의 여러 사람들이 듣고 본 이야기 중 근거가 바른 것을 모아(その國々の諸人も聞きおよび見及びたる咄の証據たゞしきをあつめ)"[14] 책으로 엮었다고 밝힘으

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가 있다.

8) 윤혜성(2009),「『쇼코쿠 햐쿠모노가타리(諸國百物語)』 고찰: 서술과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중일어문학과 석사학위논문

9) 쓰카노 아키코는 ①주지의 사실로서 특정 장소에 요괴가 출현한다고 설정되어 있는 이야기, ②주지의 사실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정 장소에 요괴가 출현하는 이야기, ③요괴가 출현하는 장소에 관한 기술은 있지만 특정 장소에 출현한다고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로 구별하고 있다. 塚野晶子(2017), 앞의 논문, pp.2~3

10) 塚野晶子(2018),「『諸國百物語』論: 「厠」「雪隱」の怪異という觀點から」『國文學研究究』184, 早稻田大學國文學會

11) 본고에서는 太刀川清 校訂(1995),『百物語怪談集成』, 國書刊行會에 수록된 「諸國百物語」를 텍스트로 삼았다. 번역에 있어서는 김영호 역주(2013),『쇼코쿠 햐쿠모노가타리』, 인문사를 참조하였다.

12) 諏訪春雄(1988),『日本の幽靈』, 岩波書店, pp.24~25

13) 고찰 대상에서 제외한 이야기의 '권-화'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8, 1-10, 1-12, 1-13, 1-15, 1-17, 2-1, 2-4, 2-5, 2-8, 2-9, 2-12, 2-14, 2-15, 2-16, 2-17, 2-20, 3-4, 3-5, 3-7, 3-9, 3-14, 3-16, 3-17, 3-19, 4-1, 4-4, 4-5, 4-7, 4-8, 4-11, 4-13, 4-14, 4-17, 4-18, 5-1, 5-6, 5-11, 5-13, 5-14, 5-15, 5-16, 5-18, 5-19, 5-20. 이하, 본고에서 지면 관계상 각 이야기의 제목은 생략하고 '권-화'의 형태로만 기술하기로 한다.

14) 太刀川清 校訂(1995), 앞의 책, p.6

로써 이 책에 수록된 괴이 체험의 진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쇼코쿠 햐쿠모노가타리』는 각 지방의 개인 혹은 집단이 실제로 경험했다고 믿어지는 세간이야기(世間話)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간이야기로서의 괴담은 '거의 동시대의 다른 사람의 요괴 체험담'[15] 즉 생활 체험담이므로『쇼코쿠 햐쿠모노가타리』에 나타난 이계는 당시 공유되던 일반적 이미지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쇼코쿠 햐쿠모노가타리』에 나타난 이계의 시간과 공간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3.『쇼코쿠 햐쿠모노가타리』에 나타난 이계관

여기에서는 이계에 속하는 존재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계와 접촉한 인간의 결말을 통해 인간과 이계와의 관계성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이계에서 만나게 되는 존재 중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여자의 모습을 한 요괴로 15화에 걸쳐 등장하며, 그 명칭은 헨게노모노(へんげの物), 헨게(變化), 바케모노(ばけ物), 마성(ましょう), 귀신(鬼神) 등 다양하게 기술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큰 뱀이 5화, 남자의 모습을 한 요괴・너구리・덴구(天狗)가 각4화, 오보즈(大ぼうず)・오니(鬼)가 3화, 아이의 모습을 한 요괴・네코마타(猫また)가 각 2화 등장하고 있다. 이외에 로쿠로쿠비(ろくろくび)・흙거미(土蜘)・가타와구루마(片輪車)・모친(母親)・여우・갈식(喝食) 승려・생령(かげの煩)・벤자이텐(辯才天)・슈노반(首番)・지신(地神)・산신(山の神)・거꾸로 자란 송이버섯・버섯・화로 삼발이・화차(火車)・상괭이・청개구리・문둥병 환자의 아내・푸른백로・참억새풀이 각 1화씩 등장하고 있다. 단, 문둥병 환자의 아내, 해오라기, 참억새풀의 경우 그 실체는 요괴가 아니었으나, 이야기의 주인공이 퇴치에 도전함으로써 정체가 밝혀지기 이전까지 사람들에게 요괴로 인식되고 있던 것들이다.『쇼코쿠 햐쿠모노가타리』가 성립할 당시 일본인들이 지니고 있는 이계에 사는 존재의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여자의 모습을 한 요괴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쇼코쿠 햐쿠모노가타리』에서 인간과 요괴가 만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요괴가 사는 곳에 인간이 가는 경우, 둘째, 인간이 사는 곳에 요괴가 가는 경우, 셋째, 인간이 요괴가 사는 곳에 간 후 요괴가 인간이 사는 곳으로 찾아오는(혹은 따라오는) 경우이다. 요컨대 당시 사람들은 인간과 이계의 접촉은 어느 한 쪽의 일방적 방문이 아니라 상호 왕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즉『쇼코쿠 햐쿠모노가타리』에서 이계는 인간이 사는 공간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곳이 아니라 시간의 변화나 금기의 위반 등 여러 가지 작용 속에서 연결되는 애매한 경계적 공간으로 상정되어 있다.

이계 체험 후의 결과를 통해 인간과 이계의 관계성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이계와 접촉하고 난 후 인간의 상황을 살펴보면 죽거나 병에 걸리는 등 나쁜 일이 생기는 경우가 28화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요괴를 퇴치하는 경우가 17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5화, 불도의 귀의하는 경우가 4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2화이다. 이는 요괴가 사는 이계가 부정(不淨)한 곳으로 간주되어 이계와의 접촉은 인간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고가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요괴를 퇴치하는 경우가 이어서 높은 화수를 차지하는

15) 梅野光興(2008),「妖怪」をかたちづくるもの—幻覺の解釋學」『日本文化の人類學/異文化の民俗學』, 小松和彦還曆記念論集刊行會 編, 法藏館, p.641

것도 같은 이유에서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쇼코쿠 햐쿠모노가타리』요괴 체험담의 기저에는 이계에 대한 부정적 사고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이상,『쇼코쿠 햐쿠모노가타리』에 수록된 100화 중에 요괴 체험담에 해당하는 55화를 대상으로 그 속에 나타난 이계의 시간과 공간의 양상 및 이계에 속하는 존재, 나아가 이계와 접촉한 인간의 결말을 통해 인간과 이계와의 관계성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인간이 이계와 접촉하게 되는 시간적 배경으로는 '밤'이 총 37화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외에도 '해질 무렵'이나 '날이 어슴푸레하게 밝은 때' 등 민속적 관념의 '경계 시간'이 이계와 접촉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상정되어 있다.

또한 이계로 표현되고 있는 공간을 자연적・비자연적 공간으로 나누어 본 결과 전자는 '산'이 가장 많이 상정되어 있으며, 비자연적 이계는 '집'이 28화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공간은 이계의 시간적 관념과 마찬가지로 '경계 영역'에 해당한다. 이는『쇼코쿠 햐쿠모노가타리』속 이계는 경계성을 띤 애매한 시・공간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경계성을 바탕으로 인간과 요괴 중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인간계 혹은 이계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서로의 세계를 상호 왕래하고 있다. 즉『쇼코쿠 햐쿠모노가타리』에서 이계는 인간계와 확실하게 구별되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의 변화나 금기의 위반 등 여러 가지 영향 하에 상호 연결되는 경계적 시・공간으로 상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간에 살고 있거나 혹은 인간계로 찾아온다고 생각한 요괴는 총 29종이 출현하고 있는데, 이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여자의 모습을 한 요괴'이다. 이를 통해 '햐쿠모노가타리' 계열 괴담집 성립 초기부터 이계에 사는 존재는 인간형, 그중에서도 특히 여자 요괴의 이미지가 강했으며 이것이 후대까지 전승되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계와 접촉하게 된 인간의 결말을 살펴보면 죽거나 병에 걸리는 등 나쁜 일이 생기는 사례가 28화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는 요괴를 퇴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양상은 이계가 부정한 곳이며, 따라서 이곳과 접촉한 인간은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고가 강했음을 알 수 있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spirit world of "*Shokoku Hyakumonogatari*"

Choi, Ga-Jin(University of Ulsan)

"Shokoku Hyakumonogatari", which was established in 1677, is an epic tale of the author who compiled the stories from various parts of Japan. Since the publication of the book, a group of ghost stories titled "Hyakumonogatari" has been published a number of times,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origin of the "Hyakumonogatari" family. It is also symbolic in that it is the only one that actually contains 100 stories unlike other ghost stories. It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study of the story, including being evaluated as a work that greatly influenced establishing a specific, unified image of the monster and establishing a perception of the monster.

therefore In this paper, among the 100 stories in Shokoku Haikumono Gatari, 55 stories that correspond to the story of the utopian experience are studied and we will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alien world through a detailed analysis.

한일 구법승 기행문의 문학성 고찰
-『왕오천축국전』과『입당구법순례행기』를 중심으로 -

강경하(전남대학교)

1. 들어가며

동아시아의 대표적 여행기[16]인 혜초(慧超, 704~780)의『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과 엔닌(圓仁,794~864)의『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는 한국과 일본에서 최초의 기행문으로 일컬어지는 작품으로 각각 인도와 중국을 순례한 구법(求法) 기행문이다. 구법은 불교의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 수행하고 순례하는 행위로 그 주체를 일반적으로 구법승(求法僧)이라고 하며 동아시아의 불교는 이들 구법승들의 활동에 의해 크게 발전했다. 이들 여행지는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를 포함한 서역과 인도불교를 새롭게 변화, 발전시킨 중국이 그들의 주요 구법 대상지였다.[17] 이와 같은 고대의 구법기행이 오늘날의 교양과 유희의 여행과 다른 점은 정신적 세계의 중심 즉 성지(聖地)를 향해 육체적 삶의 중심인 집을 떠난 것이었다. 육체적 삶의 중심인 집을 떠나 신앙과 정신의 중심지로 목숨을 건 여행을 한다는 것이다.[18] 여행기는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여행자가 구성한 세계, 여행자의 해석을 통한 자아의 반영에 다름 아니라고 한다면,『왕오천축국전』과『입당구법순례행기』의 여행의 목적은 구법수행이라는 것은 주지한 바, 이들 작품을 보면 구법에 따른 부처에 대한 깨달음의 기록보다는 여행한 곳곳의 풍습, 정서 등의 서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여행기가 세상의 모습과 인간이 처한 상황을 관찰하는 수단으로 인류에 대한 인류의 지식을 확대하는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들 작품은 구도적이라기보다는 탐험기와 같은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먼 곳을 향해 생사를 건 모험을 치룬 여행자들은 자신이 본 것을 특정한 대상을 위해 기록하기 마련인데 구법승 혜초와 엔닌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행기를 기록하진 않았을 것이고, 나아가 이전의 연륜 깊은 구도자의 구법여행의 기록과 같은 것도 아니었다고 한다면 열 아홉 혜초와 스무 살 엔닌은 무엇을 바라보고 여행을 하였으며 그 심정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본고는 이 같은 점에 착안하여 종교적 수행하는 데 있어 자국이 아닌 타국으로의 여행을 통해 인간 본연의 심정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작품에 대한 문학적 특성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특히 객관적 기술에 따른 서사가 중심적이지만 두 사람의 여

16) 흔히 동방의 4대 여행기로 꼽히는 법현의『법현전』(400년 경), 현장의『대당서역기』(630년), 의정의『남해기귀내법전』(7세기 후반), 혜초의『왕오천축국전』(8세기), 그리고 엔닌의『입당구법순례행기』(9세기)를 말한다.

17) 이와 반대로 불교 선진국에서 미진한 나라로 가서 불법을 전수한 승려를 전법승(傳法僧)이라 할 수 있다. 고대 동아시아에서의 전법승은 서역과 인도 승려들이 중국에 도래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불교가 전래된 이후 불경을 가지고 와 그것을 한역한 이래 많은 서역과 인도 전법승들이 중국에 도래하였으며, 서역의 승려들은 중국을 넘어 한반도와 일본에까지 가서 불교를 홍포하였다. 권덕영(2010), 「古代 東아시아인들의 國外旅行記 撰述」,『동국사학 49집』, pp.3-7요약 참조

18) 신은경(2008), 「'往五天竺國傳'에 대한 비교문학적 연구」,『韓國言語文學』第66集, p.68

행에 대한 심정을 살필 수 있는, 여행기로서 객수나 여정에 대한 심정이 드러나 있는 부분을 주목하고자 한 것이다.[19] 한일 고대 여행기인 구법승 기행문을 통해 문학적 특성을 고찰하는 일은 동아시아의 기행문학의 원형을 살피는 계기가 될 것이며 동아시아 문학의 보편성과 감수성을 살피는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왕오천축국전』과 『입당구법순례행기』의 문학성

2.1 작품의 위상(의의) 및 여행의 여정[20]

혜초와 엔닌 두 사람은 시대적으로 8세기 신라, 9세기 헤이안 모두 귀족 시대의 불교 중심국가에서 각각 인도(4년여)와 당나라(9년 6개월)를 순례 여행하여『왕오천축국전』과『입당구법순례행기』로 남겼다. 양 작품의 지금까지의 성과는 8세기 전반 인도, 중앙아시의 정세와 불교, 9세기 전반의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불교사의 한 측면을 알 수 있는 자료로써 의미가 크다.

2.2 『왕오천축국전』과 『입당구법순례행기』의 심정 표출 양상

문학에서 의미하는 기행문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단순한 여행기나 명소 안내기와는 달리 기행문의 내용 감상, 즉 문학성의 가치를 내표하는 내재적 가치를 포함하는 서술내용을 문학작품으로서 감상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가치를 풍부하게 느낄 수 있을 때 기행문학의 본질적 특성에 접근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행문학의 본질적 특성에서 본다면 양 작품은 여행기로서 문학적 감동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우선 구도의 목적으로 출발한 여행기이지만 실제 내용은 있었던 사실과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는 정보와 같은 객관적 서술에 가까우며 그렇다고 해서 부처의 구도에 대한 감정을 기록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혜초와 엔닌 두 사람이 구법승으로서의 책무가 아닌 여정에 대한 심정을 드러낸 곳을 볼 수 있는데, 『왕오천축국전』에 삽입된 시문과 『입당구법순례행기』의 이야기담 및 상서문(편지글)을 통해서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측면을 통해 구법적, 회구적, 인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두 사람의 심정 표출의 양상을 살펴보겠다

---

19) 연구업적의 대부분은 문학성에 대한 논의가 중심적이기보다는 역사, 불교, 철학, 해양학 관련 쪽에 치중되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뤄지고는 있는 편이다.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또는 동아시아의 해양 등 순례 여행의 목적 등 다방면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지고는 있지만, 자국에서 기행문학사의 원류이며 동아시아의 기행문학의 발전양상을 살필 수 있는 문학성에 대한 논의는 미진하다고 볼 수 있다.

20) 『왕오천축국전』의 여정 : 인도네시아 자바섬(불서국) → 말레이시아 → 미얀마 → 방글라데시 앞바다를 거쳐 동천국 → 왕사성 →구시나가라 → 바라나시 →마하보디 → 바라나시 → 카나쿱자→ 나시크 → 알로르(아프카니스탄) → 잘란다라 → 카슈미르(파키스탄) → 간다라 → 우디아나 →치트랄 → 우디아나 → 간다라 → 람파카 → 카피시 → 사율국(謝颶國)[자불리스탄] → 바미얀(아프카니스탄) → 토카리스탄 → 파사(이란) → 니샤푸르 → 토카리스탄 → 와칸 → 파미르 → 카슈카르 → 쿠차 → 언기 → 돈항 → 난주 → 장안(長安:西安)
『입당구법순례행기』의 여정 : 835년에 제17차 견당사(遣唐使)에 임명, 당으로 향할 때 폭풍우로 두 번 실패 → 하카다→ 양주 → 양주 개원사 →초주 → 적산촌→ 적산법화원 → 오대산 대화엄사 → 장안 → 등주 → 문등현 → 초주 → 적산포→ 청해진 →하카타만

2.2.1 구법(求法)

우선 양 작품에서 혜초와 엔닌의 감정이 가장 극적으로 표출되어 있는 곳은 역시 이들의 주요 관심은 구법 순례여행이었기에 불교성지를 방문한 순간이었다. 신성한 공간, 그곳은 혜초와 엔닌이 바라마지 않았던 곳, 불교성지에서 두 사람의 감정은 극적으로 표출된다. 신앙인에게 성지는 세계의 중심으로 인식된다. 이 중심에 도달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그것은 험난한 행로를 거친 후에야 겨우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목표로 간주된다. 그래서 중심에 도달하는 것은 통과의례를 지니는 것이다.[21] 먼저 혜초는 마케타국의 갠지스 강 북쪽을 방문하여 4개의 불교성지와 만난다. 그의 여행이 구법여행이었기에 불교성지를 방문한다는 것은 그가 여행의 목적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다. '마하보리'에 도착하여 혜초는 드디어 소원을 이루어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심정을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 보리수가 멀다고 걱정않는데 / 어찌 녹야원이 그리 멀다 하리오 / 가파른 길 험하다고만 근심할 뿐 / 업연(業緣)의 바람 몰아쳐도 개의찮네 / 열여덟 탑을 친견하기란 실로 어려운건데 / 오랜 세월을 겪어 어지러이 타버렸으니 / 어찌 뵈려는 소원 이루어지겠는가 / 하지만 바로 이 아침 내 눈으로 보았노라

이 시는 마케타국의 갠지스 강 북쪽 강가를 기행할 때 그곳의 열여덟 개의 불탑을 보고 부처의 모습을 그리며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져 기뻐하는 모습이다. 마케타국은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함께 행해지고 있는 곳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우선 부처가 깨달은 진리를 맨 먼저 5명에게 설교한 '녹야원', 녹야원 북쪽의 부처의 입멸지 '구시나', 최초의 불교정사 '왕사성', 부처가 득도한 곳 '마하보리'등의 4대 불교성지가 '마케타국왕'의 영역 내에 있기 때문이다. 혜초는 그 먼 길을 와서 보고 싶은 보리수를 보았다고 감탄하고 있다. 여기서 '이 아침 내 눈으로 보았노라' 라는 것은 혜초가 자아를 인식한 기쁨의 정서를 표출한 것으로 기뻐서 뛰거나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구도자의 초연한 모습이다. 엔닌의 경우를 보면, 서사에서 절제되어 있던 감정이 순례의 목적이었던 오대산(五台山)에 도착한 기쁨과 그곳에서 전해오는 문수사리보살(文殊師利菩薩)과 관련된 여러 신앙을 전하면서 그 심정은 무너져 내린다. 오대산은 중국 불교의 중심의 하나로 보현보살을 모신 사천성의 아미산(蛾眉山), 지장보살을 모신 안휘성의 구화산(九華山), 관세음보살을 모신 절강성의 보타산(普陀山)과 함께 중국 불교 4대 명산이며 4대 성지이다. 이곳은 문수보살과 관련하여 스님들의 수행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곳이다. 다섯 개의 봉우리[22]가 있는 이곳은 중요한 사원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밀교의 일대중심지로 엔닌은 드디어 오대산에 도착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 평곡에 이르러 서쪽으로 30리를 가서 오전 10시경에 정점보통원<(앞에)> 이르렀다. 아직 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서북을 향하여 <비로소> 중대, 중대의 <정상을> 바라보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 "이곳이 곧 문수사리가 계시던 곳이다. 다섯 봉우리는 둥글고 높은데 나무는 보이지 않으며 그 모양은 마치 구리 주발을 엎어놓은 것 같다. 멀리 바라보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렀다. 수목과 이채로운 꽃들도 다른 곳과 같지 않아 그 기이한 경치는 특히 심오하다. 이곳이 곧 청량산(清凉山) 금색세계(金色世界)로 문수사리께서 현재에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나타나신 곳이다. 곧 정점보통원으로 들어가서 문수사리보살의 상에 예배하였다.

---

21) 신은경(2008), 앞의 논문, p.69 재인용
22) 동대(망해봉), 북대(협두봉), 중대(위령봉), 서대(계월봉), 남대(금수봉)

엔닌이 그동안 오대산에 관해서 반복했던 신화의 역사를 시사하고 있는 신성한 지역에서 열성적인 순례자들이 느꼈을 순수한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엔닌은 신성한 봉우리 중 하나인 오대산의 중대가 눈에 들어오자 땅에 엎드려 머리를 대고 예배한다. '문수보살이 우리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나타나신 곳이다.... 금색세계(金色世界)' 이 광경을 목격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렀다' 라고 하며 매우 감격하고 있다.

2.2.2 회구(懷舊)

혜초는 머나먼 고향에 대한 이곳, 남천축에 오게 되어 고향에 대한 향수와 남천축 산 중의 큰 절 나란타사를 방문하여 번성했던 그 옛날을 그리워한다. 나란타사는 중인도 마갈타국의 절로 5세기에서 12세기까지 불교를 가르치는 대학이 있었던 곳으로 현장도 5년간 머물렀던 곳으로 그 옛날 3,000인의 승려가 있었으며 일반인들이 15석의 쌀을 공양하였으나 이 쌀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 신성한 곳이다. 그러나 그 번성했던 절은 지금은 황폐해져 있고 승려는 어디에도 없다. 같은 순례자의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혜초는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 달 밝은 밤에 고향길을 바라보니 / 뜬 구름은 너울너울 고향으로 돌아가네 / 나는 편지를 봉하여 구름편에 보내려 하네/ 바람이 거세어 내 말을 들으려고 돌아보지도 않네 / 내 나라는 하늘가 북쪽에 있고 / 내가 있는 다른 나라는 땅끝 서쪽에 있네 / 해가 뜨거운 남쪽에는 기러기마저 없으니/ 누가 내 고향 소식 전하러 계림(鷄林)으로 날아가리

번성했던 나란타사에 대한 지금의 황폐해진 모습에 아쉬운 마음이 나타나 있다. 특히 이 시는 혜초가 신라인이라는 요소가 들어있는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저 멀리 천축에서 혜초는 "내 나라는 하늘가 북쪽에 있고." "누가 내 고향 소식 전하러 계림으로 날아가리"라고 자신의 고향을 북쪽에 있는 계림이라고 함으로써 그가 신라인이라는 것이 명확해진 시로 고향에 대한 향수가 애절하게 표현되어 있다. 여행자로서 밤과 달의 차가움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지고 구름처럼 가지 못하는 여행길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입당구법순례행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방문한 곳곳의 불당과 그 불당과 관련된 선지자에 대한 일담을 통해 엔닌의 심정을 엿볼 수 있다. 오대산의 정상에서 남쪽으로 가던 중 일본 승려 레이센이 살았던 칠불교계원이라는 곳을 방문한다. 현판에는 팔지초난야(八地超灡若)'라고 쓰여 있는데 발해의 승려가 스승의 사부인 레이센 상인(靈仙上人)의 시(詩)와 서(序)를 현판 위에 써 못으로 박아 걸어둔 것을 엔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나를 깨우쳐 준 분은 응공(応公)이라 한다. 공은 몸을 낮추어 불법을 배워 스승을 따라 부상(일본)에 이르셨다. 어려서 이미 남달라 승려들(緇林) 사이에서 빼어나셨다. 나 또한 스님 되기를 기약하고 책상자를 메고 오대산에 와서 으뜸가는 대업(불교)으로 삼았다. 원화 8년(813)의 늦가을 즈음 여사(旅舍)에서 응공 스님을 만났다. 한마디 대화로서 길(度)이 서로 맞아 이를 논함에 마음으로 하였다. 내가 대성(大成)하게 된 것은 소자(小子)에게 그 어떤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다. 세월이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일찍이 할미새가 사는 들로 가게 되었다. 할미새가 살 장소를 잃어버리는 심상치 않은 상태에서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대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참으로 한스러울 뿐이다. 이 레이센 대사는 나의 스승이신 응공의 사부이다. 일찍이 불법의 묘미를 중생에게 나타내셨다. <중략> 일본에서 돌아오는 날에 임하여 또 금 100냥을 부쳤다. 태화 2년(828) 4월 7일에 돌아와 영경사에 이르러 레이센 대사를 찾았으나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

다. 나는 피눈물을 흘리고 비통함을 이기지 못하였다. 네 번이나 큰 바다를 건너 일본에 간 것도 죽음을 보러 가는 것과 같았고 연이어 다섯 번이나 여행을 함께 한 것도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음식은 먹는 짧은 시간처럼 여겨진다. 이러한 인연은 곧 스승인 응공과의 오랜 교분의 소치였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의 약속을 믿어 끝내 응답하였다. <중략>

엔닌은 레이센 스님을 향한 발해의 승려 정소의 글을 옮긴 뒤 대력영경사에 도착하여 그곳의 스님에게 레이센 스님이 돌아가신 곳을 묻는데, '어떤 사람이 독약을 먹여 죽였으니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듣는다. 그러면서 굴 안에서 종소리가 나 산봉우리가 울린다는 성종굴(聖鐘窟)과 보석산에서 성인(대성문수보살)이 화현한 곳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레이센 스님과 발해 승려 정소의 불도를 통한 깊은 스승과 제자관계를 생각하고 선지자를 통한 자신의 불도의 마음을 되새긴다.

2.2.3 인정(人情)

가장 인간적인 정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구법 수행자로서 두 사람 모두 10대 후반의 고행 길에 따른 여러 상황들, 혜초의 여행길의 고달픔, 엔닌의 여러 차례 실패된 당으로의 성지순례를 위한 간절한 편지글에서 뚜렷하다. 혜초는 여정 중 추운 겨울날 서번(西蕃)으로 들어가 중국 사신을 만나 힘든 고행 길에 대한 서러움을 노래한다.

그대는 서쪽 이역이 멀다고 원망하고 / 나는 동쪽 길이 멀다고 탄식하노라 / 길은 험하고 눈 쌓인 산마루 아스라한데 / 험한 골짜기엔 도적떼가 길을 트누나 / 새도 날다가 가파른 산에 짐짓 놀라고 / 사람은 기우뚱한 다리 건너기 어렵네 / 평생 눈물을 훔쳐본 적 없는 나건만 / 오늘만은 하염없는 눈물 뿌리는구나

서번은 서쪽 오랑캐 나라인 토번으로 서장이라 부르는 곳인데 이때는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두 나라의 문물을 교류하며 번성하였던 곳이다. 여행의 막바지 눈 쌓인 산마루, 히말라야 산맥은 하늘을 나는 새도 놀라고 지금까지의 험난한 여정에 눈물 한 번 흘린 적 없지만 이 가파른 산에서 고행으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린다. 엔닌의 경우, 당으로의 여정이 순탄하지 않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당으로 가고자 허락을 요구하는 수차례 거듭된 상서문과 편지글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당의 허락을 요하는 엔닌의 구도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또한 당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1년 가까이 머물게 된 등주(登州)의 적산법화원에서 신라 장보고에게 올리는 감사의 편지글 등에서 그와 같은 마음을 확인할 수 있

근래 소승은 은혜를 입어 홀연히 회답의 서신을 받고 그 위에다 높으신 정의도 입었습니다. 은혜하심이 깊고 두터워 무릇 이 소승은 감사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중략> 만일 지체하여 헛되이 절기를 보내면 바로 더운 계절에 들어갑니다. 엎드려 청하옵건대 다시 한 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승은 먼 여정의 험난한 길을 넘어서 전심(專心)으로 부처님의 길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 오로지 일찍 출발하기만을 욕심내어 꾸지람당하는 일도 감수하겠습니다. 가벼이 사소한 일로 휘하에 걱정을 끼쳐 올렸습니다.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이 더해가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압아의 돌보심을 흠모하기 때문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거듭 재촉해주셔서 일찍이 결정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오면 큰 자비로운 명성은 멀리 해외에까지 떨쳐 구법의 선근(善根)은 서로 우애의 정을 맺게 할 것입니다. 존경스러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삼가 제자인 이쇼를 보내어 서찰을 받들어 대신 말씀드립니다. 갖추기 못하옵고 삼가 올립니다.
2월 1일 구법승 엔닌 상서 장압아 시자

3. 나오며

이상 8~9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인으로서 혜초와 엔닌의 구법기행문을 통해 문학성에 대한 논의를 펼쳐 보았다. 특히 모두 자국에서 최초의 기행문이라는 타이틀과 최초의 외국 여행기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양 작품에 나타난 심정 표출 양상을 각각 구법적, 회구적, 인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폈다. 두 사람은 기나긴 순례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여행 모습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두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시문과 이야기담, 편지글이었다. 이와 같은 서사 중심적 기술 방식은 구도승으로서의 절제에서 비롯된 자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전의 구법여행자들과 달리 10대 후반의 힘든 고행 길을 마치고 혜초는 귀국하여 스승의 총애 아래 수행 정진하여 중국 밀교의 정통으로 일컬어지는 금강지 불공(不空) 법맥을 잇는 제자로, 엔닌은 일본의 천태종 산몬파의 시조로 각각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Literature of Korean and Japanese Buddhist Monks

- Focused on emotional expression in “Wangocheonchukgukjeon” and “Nittoughoujuneiki”-

Kang, Kyung-Ha(Chonnam National Universityt)

It It is the first time for Korea and Japan to follow the "Wangocheonchukgukjeon" in Hyecho (704~780), a representative travel machine of the East, and the "Nittouguhoujunreigyouki" by Enin(794~864). The main body discussed literary characteristics of the work, focusing on how human nature is expressed through a trip to a foreign country rather than on religious practice.In response, the two sides expressed the historical aspects, retrospective aspects, and recognition of poems inserted in "Wangocheonchukgukjeon" and the daily stories related to the ministry of Enin's "Nittouguhoujunreigyouki". The two pieces did not mention anything about the travel, and what could be seen about the two were poems, stories and letters inserted into the travel gate. The epic-centered technique can be seen as a spirit derived from the moderation of the old monk. Nevertheless, the poems, stories and letters included in the work confirmed that they had feelings that could be seen through their personal emotions.

Section 6

異文化

사할린 이주민의 장소성 상실과 회복 양상 / **蔡榮姬**

조선어 교사를 통해서 본 조선족의 언어 사용과 조선족학교의 발전 과제 / **宣奉奎**

중국어 유사(범주) 개사의 변별 모형 분석 / **金正必**

채정란 『해남잡저』와 19세기 대만 표류기 / **安哉妍**

중국에서 후안강(胡鞍鋼) 논쟁의 의미와 평가 / **徐錫興**

사할린 이주민의 장소성 상실과 회복 양상

채영희(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기록과 기억의 경계

사할린의 한인은 일제 강점기, 러일 전쟁, 남북분단 등 무력한 국가적 상황이 개인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구술자료 수집에 참여해 준 사할린 한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외부의 힘에 의해 자신들이 겪은 비극에 대해 그 때는 우리 모두 어쩔 수 없었다고 담담하게 당시의 일들을 들려주어 오히려 면담을 진행하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국가가 사할린 한인들에게 관심을 보인 시기는 1990년 한소 수교이후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문제가 거론되면서부터이다. 1990년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함에 따라 1992년부터 사할린 거주 한인들이 한국으로 영주 귀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기간인 1930년대 후반부터 강제 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하여 2차 세계대전 종료 후에도 모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사할린에 잔류하게 된 한인들의 한국으로의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들이 1945년 당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유에 대한 조명과 아울러 책임과 보상문제가 수반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조사[1]가 이루어지고 학계의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2007년 사할린 한인보상청구소송, 사할린에서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된 자의 국내 유가족 확인과 유골 송환 및 성묘사업, 1945년 8월15일 이후 출생자로서 영주귀국에서 제외된 무국적 사할린 2세에 대한 문제, 영주귀국자 후손에 대한 이중국적 부여 및 비자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1945년 당시 사할린 거주 한인의 수를 3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사료부족으로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당시 조사 위원회에 접수된 해당지역 피해자 건수는 9,600건 수였으나 자료 부족으로 판정불능 처리되어 2016년 6월 정부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사할린 강제동원피해자는 '6,289명'이라고 발표했다.[2]

일본은 1930년대 중일전쟁이후 본토의 석탄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할린 지역에 조선인을 강제 이주하게 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채웠다. 조선인은 사할린 지역에서 대부분 탄광업, 제지업, 어업 등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구술자의 증언에서도 아버지는 대부분 탄광에서 일하거나 벌목장에서 일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한·일 양국 적십자사를 통해 모국 방문 사업이 조금씩 가시화 되었으나,

---

1) 2004년 11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지고 2008년 '태평양전쟁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가 설치되어 사할린에서의 희생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다가 2010년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 위원회는 2015년 12월 폐지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관련 업무는 현재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이관되었다. 이연식(2017:153)재인용

2) 허광무 (2016:30)'사할린 경찰기록과 일본지역 조선인 노무자-강제동원노무자를 중심으로'2016년 한일 민족문제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

1992년 한국정부가 65세 이상 독신 상태의 연고가 없는 사람에게만 귀국을 허가하면서 그해 77명이 귀국하였다. 그 후, 1994년 한·일간 '영주귀국시범사업'의 실시에 합의하면서 영주 귀국이 본격화 되어 2013년 4,116명이 국내로 이주하였다. 2009년 1월 기장군 정관 신도시에 남자52명, 여자68명 모두 69세대가 사할린에서 귀국하여 현재 부산 정관에서 거주하고 있다.

부산 정관 거주 영구 귀국자에 대한 그동안의 사회문화적 연구는 정주와 이주 체험의 실상과 사회구조 및 계층 변화, 그리고 이주민들의 정착과정에 대한 논의에 한정되어 왔다. 구술사 자료 수집 역시 연구자들의 논의 틀에 준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간의 연구는 당시 시대상과 일상 생활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논의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특정 공간 중심의 지역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연구의 기초자료인 관련 구술자료 수집 또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주 당시 사할린 귀국자들의 기층문화와의 수용양상을 살펴보고 그들의 일상생활문화와 그 속에 내재된 사회문화적 역동성을 담아 낼 수 기초자료 수집과 분석적 접근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라는 측면에서 구술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술사는 사회구조와 행위의 '객관성'에 초점을 맞추는 양적방법론의 연구 방법론과 달리 개인의 구체적인 체험과 기억을 통해 사회의 구조와 상호관계성을 규명하는 질적 방법론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적 기억과 공공의 역사적 기록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일이다. 과거 개인의 경험과 현재 상황의 상호작용을 담아내는 구술사 연구방법론은 1990년 말 이후 인류학적, 민속학적 연구 영역을 넘어 역사 사회적 연구 방법론으로 수렴되어 대안적 역사쓰기 일환으로 확산되고 있다. 구술사 중 특히 개인과 사회의 상호구성물인 생애사를 중심으로 하는 구술생애사는 단순한 시대적 증언을 넘어 구체적 일반성을 탐구하는 연구방법론으로 기록 중심의 양적인 지표의 틈새에 자리하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의 삶과 의식 그리고 그 지향성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술을 받고 녹취하고 전사하는 작업은 단순히 구술대상자들의 '기억'에서 재구해낸 역사적 파편들을 찾아내어 역사 서술에서 빠진 기록을 깁고 돋우는 보충자료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역사로 기록되지 못한 채 힘겹게 어려운 시기를 살아낸 분들의 기억에 대한 기록화 작업이다. 구술 채록을 진행하면서 그분들에게서 억압되고 침묵을 강요당한 경험을 뚫고 세상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보았으며, 개인의 기록되지 못하고 삭제된 경험들을 그저 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현재의 우리 삶을 반성하게 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강제 징용 등으로 사할린에서 거주 경험을 가진 1세대보다는 그들을 부모로 둔 2세대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오랜 기간 러시아에서 생활하여 대다수 분들이 한국어로 대화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귀국자 중 10여 분 정도만이 한국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무척 아쉬웠으며 연구자들이 러시아어를 못하는 사실이 미안하기만 하였다. 그들의 러시아에서의 삶은 문헌자료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소중한 기억들이며, 개인들의 경험과 생애를 채록하고 외부로 드러내는 작업은 고단한 일이었으나 더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할 과제임도 알게 되었다. 구술 자료가 개인적이고, 사소하고 주관적인 이야기일 뿐 아니라, 유동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객관적인 학문세계로 진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긴 시간 역사에서 소외된 채 미처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들을 이렇게라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번 작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라고 생각한다. 구술사 연구의 의미는 밑바닥으로부터 나오는 자료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역사이며 과거를 복원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래서 역사에서 시민권을 갖지 못한 많은 분들의 기억을 불러내어 역사 속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구술 생애사를 듣고 채록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구술대상자의 기억을 지배하는 역사적, 사회적 문맥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균형이 가장 문제였다. 구술자들이 설명하는 내용이 내포한 문화적 양상과 개인적 의식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의 통찰력이 빈곤하여 기술이 어려웠음을 고백하면서 미처 기록하지 못한 부분은 모두 부족한 연구 책임자의 몫이다.

2. 귀환자의 생애시기와 역사적 사실과의 관계

대구분	시대 구분		년도	역사적 사건
제1기 일제 강점기	성장기		1931	만주사변
			1938	국가 총동원령 공포
			1939	세계 2차 대전 발발
	사할린 이주기		1939	사할린 징용
			1941	태평양전쟁
			1941	모집령
			1942	강제 동원령
			1944	국민 징용령
제2기 러시아 점령기	사할린 정착기	거주기	1945	일본패전
			1950	한국전쟁
			1956	일소 공동선언
			1957	사할린 잔류 일본인 귀환
		귀환 운동기	1958	사할린 억류 한국인회 결성 사할린억류교포귀환촉진회결성
			1965	한일법적 지위협정
			1968	한일소 3국에 귀환 요청자 명단제출
			1975	사할린잔류귀환청구소송(동경지법)
			1983	국제연합인권위원회 제소
제3기 조국 귀환기	한국 정착기		1990	사할린교포법률구조회결정
			1998	사할린 귀환교포 귀환결정
			1999	한국 귀환 및 고향마을 정착
			2009	한국 귀환 및 부산 정관 정착 68세대

3. 장소성의 상실과 장소성 회복 과정

사할린 이주민을 대상으로 구술 작업을 진행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줄곧 삶의 터전이 되어온 거주공간을 떠나 새로운 장소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된 배경에 가장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과 이주민에서 정착민을 전환되는 과정에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이다. 정관지역 거주 공간의 대다수 사람들이 그들에 대한 사회적 환대가 가장 중요한 정착 요인이기도 했으며 사할린과 대비되는 따뜻한 기후가 가장 매력적이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참고문헌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직권조사결과보고서
<사할린 미즈호조선인 학살사건 진상조사> 2008 방일권
<사할린 이중 징용피해 진상조사> 연구자 정혜경 2007,08
<강제동원구술기록집8 - 지독한 이별:사할린 징용진상조사구술기록집> 2007
러시아 사할린.연해주 한인 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1
사할린의 한 - 나의 조국 일본을 고발한다 인간사 1982, 三品永彬 지음 김종필 번역

김민영(2000), '사할린 한인의 이주와 노동',『국제지역연구』4-1
김주자(2007), '사할린 귀환동포의 생활적응실태연구- 노인시설거주자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봉수(2016),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통과의례내러티브 탐구',인하대 박사학위논문
박승의(2013), '사할린 한인디아스포라의 민족정체성형성과 변천과정 연구: 설문조사를 중심으로',『재외한인 연구29』113~152
박신규,이채문(2016),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귀환이 후 삶과 적응과정에 대한 분석',『한국민족문화』(60),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배수환(2010),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의 거주실태와 개선방향: 부산정관신도시 이주자를 중심으로',『국제정치연구13(2)』279~308
방일권 외 (2015),『사할린 한인의 동원·억류·귀환 경험』, 국사편찬위원회
안미정(2014), '부산사할린 영주귀국자의 이주와 가족 지역'『지역과 역사』(34), 부경역사연구소
이규정(2017),『사할린 1.2.3』현장취재 장편 소설, 산지니(먼 땅 가까운 하늘 재출간)
이연식(2017), '화태청(樺太廳) 자료를 통해 본 일본제국의 사할린 한인동원 실태연구'『일본사상(32), 한국일본사상사학회,151~188
이은숙, 김일림(2006), '사할린 한인의 이주와 사회문화적 정체성: 구술자료를 중심으로',『문화역사지리 20(1)』19~33
이순형 (2003),『사할린 귀환자』,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재혁 (2011), '일제강점기 사할린의 한국인 이주',『한국시베리아연구 15(1)』85~135
임채완, 이소영(2015),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생활환경과 정책적 욕구',『세계지역연구논충 33(1)』:145~175
장윤기(1998),『한 많은 섬 사할린』, 대구, 도서출판 그루.
전형권, 이소영(2009), '사할린 한인의 디아스포라 경험과 이주루트 연구',『OUGHTOPIA 21(1)』:135~184
정근식, 염미경(2000), '디아스포라, 귀환, 출현적 정체성-사할린 한인의 역사적 경험',『재외한인연구9』:237~280
조재순(2009),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의 주거생활사-안산시 고향마을 거주 강제 이주동포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 논문집20(4), 한국주거학회
윤택림(2004),『질적연구 방법론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아르케
윤택림·함한희(2006),『구술사 연구방법론 (새로운 역사 쓰기를 위한)』아르케
윤택림(2013),『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론』아르케

【 Abstract 】

The aspect of a lost memories of place and recovery of Sakhalin migrants

Chae, Young-Hee(Pukyong National University)

We can figure out how much Sakhalin Koreans were helples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Russia-Japan War, and the divis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considering their individual life. After 1990 when Korea and the Soviet Union amity treaty happened, the issue of Sakhalin Koreans' going back to their homeland was put on the table. Ever since the end of 1980, the issue has been more showing thanks to Korea and Japan Red Cross, however only citizens who are over 65 of age and did not have any family members in Korea were allowed to enter their homeland in 1992 with Korean government's permission. After this permission 77 people were able to come back. For the help of agreement the Korea and Japan's agreement of returning home from abroad in 1994, the returning was taken in action so 4,116 people was able to immigrate to Korea in 2013. 52 men and 68 women over 69 were able to come back from Sakhalin and are currently living in JeongKwan new town in Busan. However, the study on their life was limited in their settlement process, daily life and their change of social life and structure. This study is focused on their places that are distinguished settlement into relocation, and even the aspect of cultural conflict from their interview. Most importantly, we tried to find out the correct answers about the critical background throughout their settlement and the influences of relocation.

조선어 교사를 통해서 본 조선족의 언어 사용과 조선족학교의 발전 과제

선봉규(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Ⅰ. 문제제기

중국조선족은 대대적으로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있는 길림성과 흑룡강성, 요녕성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민족집거지를 형성하여 살아왔다. 민족집거지의 형성은 무엇보다 민족의 언어와 역사, 문화 등을 유지하고 계승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조선족의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1980년대부터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중국의 경제발전과 도시화를 진전시켰다. 이러한 중국사회의 대전환은 전통적인 농촌사회에서 민족교육과 문화를 유지해 온 조선족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1992년 한국과 중국 간의 수교 또한 동북 3성 조선족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오늘날 조선족사회의 변화는 이주의 일상화에 따른 인구 유출 및 인구 감소에 따른 민족공동체의 해체, 조선족학교 감소에 따른 민족교육의 위기, 민족정체성의 위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 조선족사회에서 유일하게 자치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조선족의 인구 감소로 인해 자치주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1] 연변조선족의 인구는 1952년 64%였으나 1998년에 39.7%로 감소되었으며, 2005년 말에는 3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2] 조선족 집거지의 공동화는 한족이 주택과 토지를 매입하여 한족의 집거지로 재편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조선족의 인구 감소로 민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조선족학교의 위기 현상에 대한 고찰이다. 한 기사에 따르면, 우리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의 80% 이상이 폐교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조선말을 배우지 못하는 조선족 어린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3] 소수민족에게 교육은 민족 고유의 문화와 전통,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조선족학교의 위기에 대한 고찰은 매우 의의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조선족학교에서 조선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생각하는 조선족학교의 현실과 발전과제에 대해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

1) 연변조선족자치주는 1952년에 '조선민족자치구'로 인정받았다가 1955년 조선족 비율이 2%에 불과한 둔화현이 편입되면서 자치주로 격하되었다. 아주경제, "연변조선족 인구비율 6%P만 줄면... 자치주 지위 상실 '위기'", 2016/02.09, http://www.ajunews.com/view/20150209094557554: 검색일: 2018년 9월 25일.

2) 중국의 소수민족 자치주 설립 요건에는 '소수민족 비율이 최소한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상하이저널,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주 해체 위기 직면", 2006/03/13,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1020: 검색일: 2018년 9월 25일.

3) EPOCH TIMES, "연변 '조선족자치주' 해체 위기", 2011/09/21,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832: 검색일: 2018년 9월 28일.

Ⅱ. 연구대상 및 방법

한국 외교부의 재외동포[4] 현황에 따르면, 2017년 현재 194개국에 7,430,688명이 살고 있다. 이중 중국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는 총 2,548,030명이며, 외국국적동포인 조선족은 2,198,624명이다. 조선족의 지역별 거주 현황을 보면, 북경·천진을 포함한 하북성 등에 184,462명, 광저우가 있는 광동성 등에 115,831명, 상하이를 포함한 강소성 등에 84,456명, 길림성에 1,04,167명, 흑룡강성에 327,806명, 요녕성에 239,537명, 섬서성 등에 3,259명, 호북성 및 호남성 등에 5,393명, 사천성 및 중경직할시 등에 3,330명, 청도 및 위해 등에 194,383명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조선족의 대표적인 집거지라 할 수 있는 길림성의 연변지역과 요녕성의 심양 등에 있는 초·중·고 조선족학교의 조선어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N=76)

특성		빈도(명)	비율(%)	특성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6	7.9	고등학교	조선족	74	97.4
	여성	70	92.1		한족	2	2.6
연령	20대	12	15.8		기타	0	0.0
	30대	17	22.4	현재 거주지	연변	33	43.4
	40대	40	52.6		심양	43	56.6
	50대	7	9.2	출신지	길림성	37	48.7
학력	초등	2	2.6		흑룡강성	3	3.9
	중등	2	2.6		요녕성	36	47.4
	고등	4	5.3	세대	1.5세	5	6.6
	3년제 전문대학	18	23.7		2세	45	59.2
	4년제 대학	38	50.0		3세	24	31.6
	대학원	11	14.5		4세	2	2.6
소학교	기타	1	1.3	결혼	결혼	61	80.3
	조선족	76	100.0		미혼	11	14.5
	한족	0	0.0		이혼	3	3.9
	기타	0	0.0		기타	1	1.3
중학교	조선족	76	100.0	배우자 민족	사별	0	0.0
	한족	0	0.0		조선족	65	85.5
	기타	0	0.0		한족	0	0.0
					해당 없음	11	14.5

성별은 남성이 6명, 여성이 70명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는 20대가 12명, 30대가 17명, 40대가 40명, 50대가 7명이다. 학력은 초등 졸업이 2명, 중등 졸업이 2명, 고등 졸업이 4명, 3

4) 한국의 재외동포는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서 살고 있는 재외국민으로 구분된다.

년제 전문대학 졸업이 18명, 4년제 대학 졸업이 38명, 대학원 졸업이 11명, 기타 1명이다. 응답자의 출신지역은 길림성이 37명, 요녕성이 36명, 흑룡강성이 3명이며, 현 거주지는 심양이 43명, 연변이 33명이다. 세대는 1.5세가 5명, 2세가 45명, 3세가 24명, 4세가 2명이다. 혼인 여부는 결혼이 61명, 미혼이 11명, 이혼이 3명, 기타 1명이다. 응답자의 배우자 민족은 조선족이 65명이며 한족은 0명이다. 응답자의 출신 학교는 소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76명 모두가 조선족 학교를 다녔다. 고등학교의 경우 74명이 조선족학교를 다녔으며, 2명은 한족학교를 다녔다.

이 연구는 연변과 심양지역의 현지 협력자의 도움을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심양지역의 설문조사는 2018년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43부를 회수했다. 연변지역의 설문조사는 2018년 8월 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33부가 회수되었다. 설문지는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으며, 문항은 크게 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특성 관련 11문항, 조선어・한어에 대한 태도 및 이해 관련 14문항, 조선어・한어의 언어 사용 실태 관련 12문항, 조선족학교의 현실 및 향후 과제 관련 10문항 등이다. 설문지는 2012년 국립국어원에서 재중동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5] 설문조사 분석은 SPSS Statistics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Ⅲ. 조선어 교사의 언어 사용 실태

1. 조선어 교사의 조선어 및 한어에 대한 태도

조선어 교사들은 조선족이 조선어와 한어 사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선족이 조선어를 왜 배워야 하는지, 조선어의 장래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조선어 교사들은 조선족이 조선어를 잘해야 한다는 항목에서 98.7%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고, 한어를 잘해야 한다는 항목은 88.1%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표 2> 조선어 교사의 조선어 및 한어 인식

(N=76, 명/%)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조선족은 조선어를 잘해야 한다.	61 (80.3)	14 (18.4)	1 (1.3)	0 (0.0)	0 (0.0)
조선족은 한어를 잘해야 한다.	54 (71.1)	13 (17.1)	8 (10.5)	1 (1.3)	0 (0.0)

조선어 교사들이 생각하는 모국어는 조선어가 89.5%로 가장 많았으며, 한어가 10.5%로 나타났다. 한국어와 북한말은 한 명도 선택하지 않았다.

5) 박경래 외(2012),『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서울: 국립국어원.

<표 3> 조선어 교사의 모국어 인식

(N=76, 명/%)

구분	조선어	한어	한국어	북한어	기타
조선족 국어교사의 모국어	68 (89.5)	8 (10.5)	0 (0.0)	0 (0.0)	0 (0.0)

자녀를 조선족학교에 보내야 하는 이유에 대한 항목에서, 조선어 교사들은 조선족은 조선말을 잘해야 하니까(75.0%)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취직에 유리하니까(9.2%), 사람을 사귀거나 생활하기에 유리해서(7.9%), 한족학교가 없어서(5.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자녀를 조선족학교에 보내는 이유

(N=76, 명/%)

구분	조선어를 잘해야 하니까	취직에 유리	조선족학교가 잘 가르쳐서	사람을 사귀거나 생활하기에 유리해서	한족학교가 없어서	기타
조선족학교에 보내는 이유	57 (75.0)	7 (9.2)	1 (1.3)	6 (7.9)	4 (5.3)	1

자녀를 한족학교에 보내야 하는 이유에 대한 항목에서, 조선어 교사들은 취직에 유리하기 때문에(55.3%)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사람을 사귀거나 생활하기에 유리해서(27.6%%), 조선어는 집에서 배우면 되니까(7.9%), 한족학교가 잘 가르쳐서(3.9%), 조선족학교가 없어서(2.6%)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자녀를 한족학교에 보내는 이유

(N=76, 명/%)

구분	조선어는 집에서 배우니까	취직에 유리	한족학교가 잘 가르쳐서	사람을 사귀거나 생활하기 유리해서	조선족 학교가 없어서	기타
한족학교에 보내는 이유	6 (7.9)	42 (55.3)	3 (3.9)	21 (27.6)	2 (2.6)	2 (2.6)

조선어 교사들은 조선족 학생이 조선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로는, 조선족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72.4%)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조선족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17.1%), 취직에 유리하기 때문에(7.9%), 가족이나 친척들간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2.6%)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조선족 학생이 조선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

(N=76, 명/%)

구분	조선족의 전통유지	취직에 유리	조선족의 역사와 문화 이해	의사소통 필수	한국 진출에 유리	기타
조선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	55 (72.4)	6 (7.9)	13 (17.1)	2 (2.6)	0 (0.0)	0 (0.0)

조선어 교사들은 향후 조선어의 장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점점 안 쓰게 되어 사라질 것이다가 전체의 38.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점점 더 발전할 것이다(18.4%), 잘 모르겠다(22.4%), 현재와 같을 것이다(11.8%), 기타(9.2%)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조선어의 장래

(N=76, 명/%)

구분	사라질 것이다	점점 더 발전할 것이다	현재와 같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	기타
조선어의 장래	29 (38.2)	14 (18.4)	9 (11.8)	17 (22.4)	7 (9.2)

조선어 교사들은 회의할 때 조선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다음으로 한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나 가족끼리는 조선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선족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은 한어이며, 자녀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또한 한어로 나타났다. 향후 가장 많이 사용될 말은 한어를 선택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족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 간의 언어 사용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모 세대는 조선어를 즐겨 쓰는 반면, 자녀 세대는 한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비록 조선어 교사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향후 조선어의 사용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표 8> 조선어 교사의 언어 사용 순위

(N=76명)

구분	조선어		한어		한국어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회의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47	20	26	37	2	4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58	12	17	47	1	6
가족끼리 가장 많이 쓰는 말	65	6	9	43	8	17
조선족학생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17	48	59	15	2	23
자녀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30	33	41	26	2	23
향후 가장 많이 사용될 말	22	41	53	17	1	7

2. 조선어 교사의 조선어 및 한어 사용 실태

1) 가족과의 언어 사용

조선어 교사들이 가족과의 언어 사용에 있어서 어떠한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부모님 등 윗사람들과 말할 때는 전체의 72명이 한어보다 조선어를 더 많이 쓰고 있으며, 조선어와 한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경우는 4명으로 나타났다. 형제, 자매들과 말할 때는 59명이 조선어를 한어 보다 많이 쓰고 있으며, 한어를 쓰는 사람은 5명으로 나타났다. 자녀 등 손아래 사람들과 말할 때는 조선어 사용이 48명이며, 반반씩 사용하는 경우는 20명, 한어를 더 많이 쓰는 경우는 8명을 나타났다. 조선족이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말할 때는 조선어(23명)보다 한어(45명)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가족과의 언어 사용 실태

(N=76명)

구분	대부분 조선어로 한다	조선어를 한어보다 더 많이 한다	조선어와 한어를 반반씩 한다	조선어보다 한어를 더 많이 한다	대부분 한어로 한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등 어른들과 말할 때	70	2	4	0	0
형제, 자매 등과 말할 때	49	10	12	1	4
자녀 등 손아래 사람들과 때 말할 때	41	7	20	5	3
조선족이 아닌 배우자 등의 사람들과 말할 때	16	7	8	15	30

2) 일상생활에서 언어 사용

조선어 교사들이 회의, 운동, 잡담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 실태를 살펴보면,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일상생활에서 언어 사용 실태

(N=76명)

구분	대부분 조선어로 한다	조선어를 한어보다 더 많이 한다	조선어와 한어를 반반씩 한다	조선어보다 한어를 더 많이 한다	대부분 한어로 한다
조선족들의 공식적인 모임에서 회의를 할 때	64	5	3	1	3
운동실에서 조선족과 놀면서 이야기 할 때	48	13	11	1	3
조선족 친구들과 이야기 할 때	51	9	14	1	1
한족과 조선족이 모인 자리에서 회의를 할 때	7	7	16	16	30
한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조선족과 일상 이야기를 할 때	15	8	14	15	24

조선족들끼리 회의를 진행할 때는 전체의 69명이 조선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4명이었다. 조선족들과 운동하면서 이야기할 때는 전체의 61명이 조선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반반씩 사용하는 경우는 11명, 한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4명으로 나타났다. 조선족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는 조선어를 사용한다는 사람이 60명, 조선어와 한어를 반반씩 사용한다는 사람이 14명, 한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사람은 2명으로 나타났다. 한족과 조선족이 함께 회의를 할 때는 한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사람이 48명이며, 반반씩 사용하는 경우는 16명, 조선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사람은 14명으로 나타났다. 한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조선족들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한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사람이 39명으로 나타났고, 반반씩 사용한다는 사람은 14명, 조선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사람은 23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에서 조선어 교사들은 조선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조선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한족들이 있는 경우는 조선어보다 한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Ⅳ. 조선족학교의 발전 과제

1. 조선족학교의 현실과 모국 지원

조선어 교사들이 생각하는 동북 3성 지역의 조선족학교의 감소 원인을 살펴보면, 한국 등 해외 이주가 가장 많았으며, 인구 감소, 중국 내 대도시 이주, 조선족학생의 한족학교 입학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에 이주한 조선족은 717,38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방문취업(H-2) 비자와 재외동포(F-4) 비자, 영주(F-5)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6)]

<표 11> 동북 3성 지역 조선족학교의 감소 원인 (1순위)

(N=76명)

구분	중국 내 대도시 이주	한국 등 해외이주	인구 감소	조선족학생의 한족학교 입학
조선족학교 감소 원인	20	28	24	10

중국조선족은 무엇보다 조선어와 한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이중언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조선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중언어 교육의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이중언어 교육으로 한어 실력은 제고되고 있지만, 조선어 실력은 점차 저하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7)] 그렇다고 해서 조선족학생의 한어 수준이 한족 학생을 능가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산재지역에서는 조선어보다 한어를 일상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조선어가 거의 외국어처럼 사용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조선족이 학교에서 이중언어 교육을 받고 있지만 한어를 민족 언어처럼 동등한 수준으로 구사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8)]

조선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조선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조선족학교의 이중언어 교육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조선족학교의 이중언어 교육 인식

(N=76명)

구분	매우 찬성한다	조금 찬성한다	보통	조금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이중언어 교육 인식	59	14	2	0	1

한국 정부기관, 특히 재외동포재단에서는 동북 3성 지역 조선족학교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기자재 및 도서 지원, 교사 파견, 조선족학교 교사 모국 연수 등 다양한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12년에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한 이후, 도문시 교육국, 심양시 교육연구원, 하얼빈시 교육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족학교에 심리상담실, 방과 후 교실, 도서관 구축 및 도서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조선족학교 교원 연수 조선족학교 교사의 초청 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6)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8),『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8년 8월호, p.36.
7) 인민넷, 조선족의 이중언어교육과 이중언어 문화교육, 2016년 10월 10일, http://korean.people.com.cn/310773/310780/15620968.html, 검색일: 2018년 10월 2일.
8) 마금선(2009), "연변에서의 이중언어 사용 실태와 한국어 교육",『세계한국어문학』창간호, p.64.

이러한 한국의 조선족학교 지원 정책에 대한 조선어 교사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조선어 교사들 중 전체의 51명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5명은 보통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표 13> 한국의 지원 정책 만족도

(N=76명)

구분	매우 만족한다	조금 만족한다	보통이다	조금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한국정부의 지원 정책 만족도	39	12	25	0	0

향후 한국의 재외동포재단이나 교육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분야의 지원을 원하는지 살펴보면, 도서관 등 교육시설 지원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 방문 연수 지원이 19명, 교육기자재 지원이 16명, 교사 파견 등 인적 교류가 12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 향후 한국의 지원 분야(1순위)

(N=76명)

구분	도서관 등 교육시설 지원	교육기자재 지원	한국 방문 연수 지원	교사 파견 등 인적교류
한국 정부의 지원 분야	29	16	19	12

2. 조선족학교의 발전 과제

현재 중국 조선족사회는 전환기적 상황에 있다. 중국조선족은 동북 3성 지역의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에서 살아오다가 이주의 일상화로 공동체의 공동화를 겪고 있다. 이는 곧 인구 감소로 이어져 민족공동체의 해체와 함께 민족교육의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민족교육의 위기는 차세대 조선족의 민족정체성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이다.

조선족학교의 조선어 교사들은 조선족학교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조선족학교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 베이징, 칭다오, 광저우 등 중국 내 도시지역과 한국, 일본 등 해외 지역에 조선족학교를 설립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족학교에 다니는 조선족학생의 전학 유도, 한국과의 교류 활성화, 조선족학교의 민족 특색 유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조선족학교의 발전에 필요한 정책(1순위)

(N=76명)

구분	집중적 투자	한족학교 다니는 조선족학생의 전학 유도	조선족학교의 민족 특색 유지	대도시 및 해외지역 등 조선족학교 설립	한국과의 교류 활성화
조선족학교의 발전 정책	51	5	2	16	3

조선족학교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어 교사들은 민족 언어의 담당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에게 민족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전파하고 애착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선족 학생들은 한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족적 자부심을 갖고 조선어를 소중히 여기고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셋째, 부모 세대는 자녀들을 조선족학교에 보내고 일상에서 조선어로 대화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넷째, 조선족사회는 부모와 학생들이 민족의 전통적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는 조선족학교의 위기는 곧 민족정체성의 상실이라는 인식을 해야 하며, 배타적인 정책을 버리고 조선족학교의 지원 및 교류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Ⅴ.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동북 3성 지역의 조선족사회에서 언어 사용과 조선족학교의 현실 및 과제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변지역과 심양지역의 조선족학교 조선어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어 교사들은 조선족이 조선어뿐 아니라 한어도 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둘째, 조선어 교사들은 조선족 학생이 조선족의 전통을 잘 유지하고 조선족의 역사와 문화를 잘 이해하기 위해 조선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조선어 교사들은 회의나 일상생활에서 조선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반면, 자녀 및 조선족 학생들은 한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넷째, 조선어 교사들은 조선어가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하기보다는 점차 사라지게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조선어 교사들은 동북 3성 지역의 조선족 학교들이 조선족의 이주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다. 여섯째, 한국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 시설 및 기자재 지원, 교사 초청 연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선어 교사들은 조선족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선족사회의 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조선족의 민족교육 문제는 동북 3성 지역뿐 아니라 베이징, 칭다오,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대도시 지역, 나아가 한국, 일본, 미국 등 해외 지역에도 해당되는 문제이다. 또한 조선족의 민족교육 문제는 단지 조선족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도 함께 주체가 되어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에 이주, 정착한 조선족들은 한국 사람들이 기피하는 분야에 진출하여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의 조선족학교 지원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배타적인 인식이 아니라 수평적인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윤성(2012), “조선족의 정체성 및 이중언어의 교육방식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마금선(2009), “연변에서의 이중언어 사용 실태와 한국어 교육”, 『세계한국어문학』창간호, 57-90.
박경래 외(2012),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8년 8월호,
안병삼(2015), “중국 조선족학교의 ‘학교문화’에 관한 고찰: 한족학생의 수용”, 『한국민족문화』, 169-195.
최우길(2011), “중국조선족 교육의 현황과 과제”, 『디아스포라연구』제6권 1호, 83-102.
상하이저널,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주 해체 위기 직면”, 2006/03/13,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1020, 검색일: 2018년 9월 25일.
아주경제, “연변조선족 인구비율 6%P만 줄면... 자치주 지위 상실 ‘위기’”, 2016/02/09, http://www.ajunews.com/view/20150209094557554, 검색일: 2018년 9월 25일.
인민넷, 조선족의 이중언어 교육과 이중언어 문화교육, 2016/10/10, http://korean.people.com.cn/310773/310780/15620968.html, 검색일: 2018년 10월 2일.
EPOCH TIMES, “연변 ‘조선족자치주’ 해체 위기”, 2011/09/21,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832, 검색일: 2018년 9월 28일.

【 Abstract 】

Language use of Korean-Chinese and development tasks of Korean-Chinese schools: focused on ethnic language teachers in Korean-Chinese schools

Sun, Bong-Kkyu(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anguage use of the Korean- Chinese living in the three provinces of Northeast and the realities and developmental tasks of Korean-Chinese schools in China.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ethnic language teachers in Yanbian and Shenyang areas.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Ethnic language teachers have a perception that Korean-Chinese language should be good as well as Chinese language. Second, Ethnic language teachers think that Korean-Chinese students should learn Korean language in order to maintain the Korean-Chinese tradition and to understand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Korean-Chinese. Third, Ethnic language teachers use Korean-Chinese language more than Chinese language in meetings and daily life. But Children and Korean-Chinese students are using Chinese language more than ethnic language. Fourth, Ethnic language teachers recognize that Korean-Chinese language will gradually disappear rather than develop in the future. Fifth, Ethnic language teachers think that Korean-Chinese schools are in trouble because of migration and population decrease. Sixth, Ethnic language teachers a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support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Finally, Ethnic language teachers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invest heavily in schools in order to develop Korean-Chinese schools.

중국어 유사(범주) 개사의 변별 모형 분석

김정필(경상대학교)

1. 서언

본 연구는 중국어에서 유사한 범주를 나타내는 개사 사이에 나타나는 시공간의 범주가 나타내는 차이를 도식화된 모형으로 그려봄으로써, 단순한 의미범주로 설명할 수 없는 미세한 차이점을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시도되었다. 대개 언어분석에서 조사나 어미 같은 허사에 대한 분석은 더 이상의 의미차이나 기능의미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경우가 많지만, 개사를 통해 인지되는 기능범주는 이동, 관계, 존재, 피동, 사동 등을 포괄하고 있다. 비록 한국인들은 중국어 개사가 한국어에서 동일한 조사나 어미로 번역되는 경우에는 유사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지만, 정작 모국어 화자들의 교제과정이나 HSK 등의 시험에서 변별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그 나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국어에서 유사범주의 개사는 대개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가 상호 대비되면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정작 모국어 화자들도 일반적인 교제에서는 정확히 구별해서 쓰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 나타나는 특정 언어 환경(화자의 심리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는 경우나, HSK 등)에서 구별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하기도 하고, 특히 문학작품에 대한 해석이나 비평에서는 나름의 활용도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예를 들면, 출발의 기점을 나타내는 '朝'나 '從', 종점을 나타내는 '到'나 '向', 그리고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跟、和、与、同' 등이나 일방적 관계를 나타내는 '對、爲、給、替' 등 정작 초보학습자들이 언제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할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점의 측면에서 '朝'는 '從'과 대비될 수 있지만, 종점의 측면에서는 '向'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한어사전≫의 '朝'에 대한 해석에서 '面對着'와 더불어 '向'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개사의 의미범주를 이동도식, 관계도식, 존재도식, 거리도식, 피동도식 등으로 분류하고, 다시 그 범주의 내부에 존재하는 유사개사 사이의 관계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본문의 주요 분석방법은 개사의 기능과 의미를 도식화하여 두 성분 상호간을 비교하는 이분법적 분석방식을 택했으며, 각기 범주에 따른 도식을 시각화된 모형으로 그려보고자 한다. 다만 본 발표문에서는 편폭의 관계상 '이동도식'만을 활용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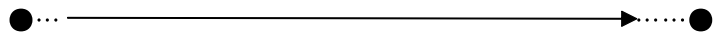
2. 이동도식

우선 이동도식은 '일정한 기점에서 종점에 이르기까지 방향을 이동하는 것'으로, 크게 '공간이동'과 '시간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공간이동은 기점(출발지점)에서 종점(도착지

점)에 이르는 두 개의 지점에 기반을 두고 물체(주어 등)의 진행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시간이동은 과거의 시점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세 개의 시점을 중심으로 한 사물의 이동 및 사건의 흐름에 대한 배경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식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시간이동은 여전히 일정한 기점과 종점을 화살표를 사용하여 공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공간이동과 동일한 방식으로 도식화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공간이동의 개사로는 朝、往、向을 들 수 있다. 이 세 개의 개사가 나타내는 이동의 과정은 '기점-과정-종점'의 세 가지 경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통해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간 및 시간과정은 동사와 목적어의 상호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또 '시간'과 '공간'의 구별은 이동의 대상(주어)와 목적지(목적어), 그리고 술어의 전개과정을 통해 이동의 향방을 도식화 할 수 있다.

1) 朝、往、向(방향이동)

중국어에서 공간이동을 나타내는 개사 朝、往、向은 모두 'A(기점)→B(종점)'으로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모두 '~(목적지인 종점)을 향해'로 해석된다. 비록 이들이 표시하는 공간범주의 경계는 상호 중첩되거나 연결되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기능은 시작점, 경로(과정), 종착점의 서로 다른 초점으로 구별되어 표현된다. 즉 '朝'는 비록 향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시작점'에서 대상의 이동 없이 방향의 이동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往'은 시작점과 종착점 사이의 이동과정, 즉 '경로'에 초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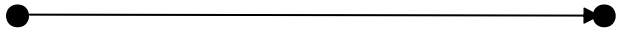
朝(기점/출발지) 往(과정/경로) 向 종점(목적지, 목표물로 향함)

- '朝、往、向'의 연결도식 -

우선 '朝'는 기점의 '점(点)'으로 인지되며 이동 없이 방향만을 나타내는데 비해, 往과 向은 대상이 목적지를 향해 '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기점 '朝'와 출발하는 물체 및 '向'이 추구하는 목적지를 나타내는 양쪽 끝의 점과 선 사이에는 일정한 점선의 공간이 존재한다. 또 往은 기점과 종점을 모두 포괄하지 않고 이동과정만을 나타낸다.

2) 從(공간이동/시간이동)과 到(공간이동/시간이동)

중국어에서 '從'과 '到'는 기본적으로 '從……到'의 격식을 구성하여 각각 기점과 종점에 초점을 두고 이동거리를 표현하고 있으며, 출발점과 도착점을 공간초점으로 하여 구조적 대응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우선 기점을 나타내는 '從'은 시간과 공간에 모두 사용되는 개사로서, '到' 또한 시간과 공간을 모두 나타내는 개사로 '從……到'의 격식을 통해 거리 및 이동도식을 나타내는데 많이 활용된다.



從 到

(출발지점에서 이동) (목적지 혹은 목표물에 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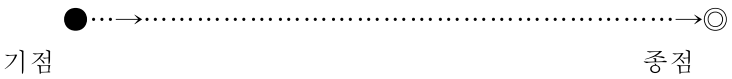
- '從……到'의 연결도식 -

구문에서 이동의 초점이 되는 것은 동작행위를 하는 주체에 있으며, 출발지점을 나타내는 '從'과 도착지점을 나타내는 '到'와의 사이에는 실선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다. 즉 '從'에서 출발한 주체(구체 혹은 추상 포함)는 이동을 하여 반드시 종점인 '到'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중간에 경유지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것에 필요한 개사와 목적지가 부가되어야 한다.

3. 유사(범주) 개사의 비교 분석

1) 기점 표시의 개사 '朝'와 '從', 그리고 '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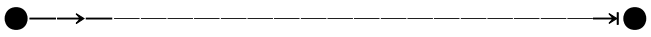
사실 '朝'는 '~향해'로 목적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 '向'과 대비시켜야 하지만, 정작 기점과 종점의 관계를 통한 도식화에서는 '朝'의 지시대상이 여전히 기점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從'은 한국어에서는 '~에서(부터)' 혹은 '~으로(부터)' 등으로 해석되어 기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거리를 나타내는 '离' 또한 기점으로 도식화 할 수 있다. 다만 차이는 '朝'는 이동이 아닌 방향에 초점을 두고 목적지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며, '從'은 출발에 초점을 두고 목적지로 이동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점 종점

- '朝'의 방향도식 -

따라서 '朝'의 도식은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방향은 목적지나 목표물인 종점을 향하고 있지만, 방향만을 제시할 뿐 직접적인 이동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이와 달리 '從'은 기점에서 종점을 향하여 이동이 시작되었음을 전제하고 있다. 아울러 출발을 함으로써,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기점 종점

- '從'의 이동도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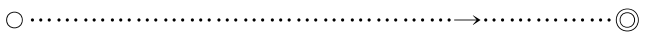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어법서에서는 '從'과 '离'를 비교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 출발점과 출발시간을 나타내고, '离'는 공간이나 시간의 간격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 '离'의 거리도식 -

즉 위의 도식에서 '离'의 시공간 범주는 출발점을 지시하고 있지만, 정작 구문 전체에서 나타나는 범주는 출발점이라기보다는 일정 거리의 두 꼭짓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离'자체로는 '기점'을 의미하지 않으며, 단지 화자가 어떤 꼭짓점을 기준으로 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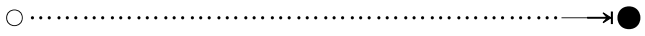
2) 종점 표시의 유사 개사 '向'과 '到'

개사 '向'은 직접적인 이동과 관련이 없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일련의 동작이 특정 목적지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 즉 '向'이 제시하는 방향과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과 관련지어 물체를 목적지와 관련지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동한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 '向'의 도식화 -

다시 말해, '向'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음을 이동의 향방만을 제시할 뿐, 동작이 목적지에 도달했는지를 제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到'는 방향보다는 도착점 그 자체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 '到'의 도식화 -

그래서 '從'과 '到'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구문의 초점은 종점을 제시하는 '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정리

본고에서는 우선 '이동도식'으로 고찰할 수 있는 '朝-往-向'의 도식과 '從-到'의 도식을 살펴보았고, 다시 '朝'와 '從'을 기점의 측면에서 유사범주로 파악하여 도식화를 시도해 보았다. 한편, '离'를 추가하여 기점과 종점 사이에 어떠한 도식적인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정작 '离'는 기점을 표시하는 것이 아닌 화자의 의지와 관계가 있었다.

또 종점의 측면에서 '向'과 '到'의 유사관계에 대해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비록 단순히 '朝'와 '從', '向'과 '到'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대개 '기점'과 '종점'의 대비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朝'와 '從'은 비록 방향성의 초점이 종점과 기점으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오히려 '朝'의 종점을 향한 '방향성'은 시선의 이동과 같은 '추상적인 이동성'을 제시하고 있을 뿐, 목적어인 물체는 직접적인 이동과 관련이 없다. 이와 달리, '從'은 강한 이동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출발과 동시에 종점에 도착됨을 암시하고 있다.

【 Abstract 】

Analysis of discrimination model of Chinese similar (category)preposition

Kim, Jeong-Pil(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 the paper, first looked at the schematisation of '朝-往-向' and '從-到', which can be considered as 'The move diagram'. Again, the similarities between '朝' and '從', '向' and '到' are summarized centering on the differences. Although it is doubtful whether we can simply compare '朝' and '從', '向' and '到' on a uniform basis, it is still generally similar in terms of the contrast between 'origin' and 'end'. First of all, if you look at the difference, The 'direction' towards the end of '朝' only suggests 'abstract mobility' such as the movement of the line of sight, but the object of '朝'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movement of the object. In contrast, '從' implies a strong mobility and arriving at the end of the journey at the same time as the start.

채정란『해남잡저』와 19세기 대만 표류기

안재연(아시아문화원 연구기획팀)

1. 17세기 이후 동북아시아 해상질서와 표해서사

동아시아 해상 교류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바닷길을 통한 외교와 공공무역, 민간 차원의 교류나 상업활동이 국가의 방침에 따라 공식적으로 또는 은밀히 지속되었다. 이 때 고장이나 기후 이상, 해적 등으로 인한 표류나 표착에 관한 기록들이 생산되는데 청, 조선, 일본 등 국가에서는 이를 기록한 많은 공식 기록(소위 관기록)과 민간기록이 발굴되었다. 중국의 경우 18세기 건륭(乾隆)연간부터 외국에 표류한 난민 처리방식이 점차 제도화 되었고 이를 처리한 지방관원의 문건, 중앙정부의 교지 등이 남아 있으며, 조선과 일본도 난민 처리 방식과 과정을 기록한 정부문서가 전해지고 있다.

17~19세기 활발한 해상 교류가 이루어졌던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난 주요 표해의 경로를 같이 표기하면 아래와 같다. 이방익(李邦翼)은 조선사람으로 충장장으로 있을 때인 1796년 9월 제주 앞바다에서 뱃놀이를 즐기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 중국의 푸젠성[福建省] 펑후도[澎湖島]에 표착하여 타이완[臺灣]·샤먼[廈門]·저장[浙江]·강남[江南]·산둥[山東]·베이징[北京]·랴오양[遼陽]·의주(義州)를 거쳐 이듬해 한양에 도착하여 정조를 알현하고 국문으로 '표해가(漂海歌)」를 지은 바 있다. 한편 야스다 요시카타[安田義方]는 사쓰마번[薩摩藩]의 무사(武士)로, 충청도 서천까지 표류하고 부산과 왜관을 거쳐 귀국한 내용을『조선표류일기』로 남겼다. 『조선표류일기』는 총 7권으로 구성되었는데, 자세한 일기 내용도 기록으로서의 가치도 있거니와 아름답고 사실적인 삽화로도 매우 유명하다.

<그림 43> 17~19세기 동북아시아 주요 표해록의 표류 경로

2. 채정란『해남잡저(海南雜著)』

중국에 남아 있는 민간 표해서사 중『해남잡저(海南雜著)』는 표해록의 길이, 내용과 정보의 풍부함, 사건의 진실성 등에 있어서 단연 타의추종을 불허한다.[1] 저자 채정란(蔡庭蘭, 1801~1859)는 자(字가) 중장(仲章), 호(號)가 향조(香祖)이다. 대만 팽호(澎湖) 사람으로 1813년 제자원(弟子員)이 되었다. 복건 흥전영도(福建 興泉永道)의 주개(周凱)를 스승으로 삼았고, 1837년 거인(擧人)에 합격하여 숭문서원(崇文書院)의 강석(講席)이 되었다. 1844년 진사(進士)에 합격하여 지현(知縣)에 임명되었으며 그 후 여러 곳에서 지현과 동지(同知)로 일했다. 1859년 병으로 사망하였다.[2]

채정란은 1835년(도광 15년) 가을 복건성으로 향시에 응하러 왔다가 금문(金門)에서 제를 지내고 팽호로 돌아가던 중 태풍을 만나 월남 광의성 사의부에 표착하였다. 월남 관민의 도움으로 육로를 통해 중국을 거쳐 다시 고향 팽호로 돌아오기까지 약 7개월이 걸렸으며, 월남에 머무른 기간만 5개월이었다. 실제로 표류나 표착 등의 사건이 발생했고, 이를 사실대로 적었는가의 진실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채정란의 표해 기록은『해남잡저』뿐 아니라 월남과 중국의 정부에서도 기록한 자료가 남아 있어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우선『해남잡저』11월 5일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3.『해남잡저(海南雜著)』판본

채정란은 1835년부터 10월부터 1836년 5월까지 표류와 귀국과정을 거쳤는데, 이를 정리하여 1837년(도광 17년) 가을에 출간하였다. 월남으로 표류를 했던 시기로부터 약 2년 뒤의 일로, 현재까지 판본과 역서가 나왔다. 단기간에 초판 1쇄와 2쇄가 나오고, 재판도 2쇄를 찍었다. 총 4개의 다른 인쇄본과 필사본이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등에 전해지고 있다.

초판은 현재 북경의 국가도서관 북해분관(北京國圖書館 北海分館)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초판 1쇄의 체제는 다음과 같다.

1. 표지
2. 속표지
3. 주개(周凱)의 서(序)
4. 유홍고(劉鴻翺)의 서(序)
5. 오백신(吳伯新), 장역암(蔣懌莽), 허음평(許蔭坪), 장택춘(蔣澤春)의 제사(題詞)
6. 본문 -「창명기험(滄溟記險)」,「염화기정(炎荒記程)」,「월남기략(越南記略)」

---

1) 劉序楓은 1688년 월남으로 표류한 반정규(潘鼎珪, ?~?)의『안남기유(安南記遊)』, 1823년 일본 표류사건을 기록한 정광조(鄭光祖, 1776~?)의『성세일반록 잡술·표박이역(醒世一斑錄 雜述·漂泊異域)』을 중국에 현존하는 민간 표류 기록중 가장 볼 만한 것으로 꼽았다. 정광조의『표박이역』은 지역의 문인이 구술한 내용을 듣고 적은 기록이다. 강남 소주부 묘항(茆港)의 큰 선박 선주인 장용화(張用和)가 자신의 상선 원태호(源泰號)로 산동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일본 사쓰마(薩摩)에 표류하였다가 나가사키와 류큐를 거쳐 귀국한 일을 적었다. 한편, 반정규는 1688년 겨울 대만에서 광동으로 향하던 중 월남 만넝주 강평항(萬寧州 江平港)에 표류하게 되었다. 이후 헌내항(軒內港)과 승룡(昇龍, 하노이)를 거쳐 중국으로 돌아온 사건을 적었다. 劉序楓, 위의 논문, pp. 62-66 참조.

2) 陳益源,「從金文漂流到越南的蔡廷蘭」,『閔南與越南』, 樂學書局, 2015, pp. 31~38 참조.

7. 웅일본(熊一本)의 발(跋)
8. 가용장(柯龍章)의 발(跋)

초판 1쇄 뒤에 나오는 판본들은 내용에 더함과 빼이 있고, 글자체나 판면이 다른 점 등 차이를 보인다. 아래 그림은 주요 판본과 번역본의 표지와 첫 페이지이다.

『해남잡저』초판 1쇄본 표지

『해남잡저』초판 2쇄폰 속표지

『해남잡저』재판 1쇄본 표지와 첫 페이지

『해남잡저』불어 번역본 첫 페이지

<그림 2> 『해남잡저』각종 판본과 번역본들[3]

4. 『해남잡저(海南雜著)』구성

『해남잡저』는 상, 하 두 권으로 되어 있고, 상권은 다시 총 세 편으로 구성되었다. '큰 바다에서의 조난을 기록함'이란 뜻의 「창명기험(滄溟記險)」은 대만에서 월남까지의 표류과 구조 과정을 적었고, '덥고 습한 남방에서의 여정 기록'이란 뜻의「염화기정(炎荒記程)」은 일기체 형식으로 날짜별로 적었다. 마지막 '월남에 관한 짧은 기록'이란 뜻의 「월남기략(越南記略)」은 월남의 역사, 정치, 문물, 환경, 의례, 풍속 등을 적었으며 귀환 과정에서 만난 월남의 관원과 화교들과의 교유 등을 적었다. 하권은 이를 요약한 시문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망실되어 그 내용을 현존하는 판본에서 확인 할 수 없다. 채정란의 기록에 의하면 1835년 10월 13~16일 사이 월남 광의성에 도착하여, 26일 귀환의 여정을 시작한다. 12월 30일 부춘(富春)에 도착하여 제야를 보내고, 여행을 계속하여 2월 초, 하노이에 당도한다. 월-중 국경선을 넘어선 것은 3월 5일자로 기록되어 있다. 광서-광동-복건을 거쳐, 팽호로 돌아

3) 판본과 번역본, 이미지는 陳益源, 위의 책, pp. 73-127 참조.

왔다.

이상에서 요약한 대로『해남잡저』의 양은 매우 방대하여 상세한 분석은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겠으나, 하나 유의할 점은 19세기 월남과 중국이라는 맥락에서『해남잡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월남은 응우옌 왕조의 명명제가 다스리고 있었다. 그런데 명명제는 선대 왕이었던 가융제(嘉隆帝)와 달리 강력한 숭유정책과 친중정책을 폈다. 가융제가 과거제나 행정문서에 민족어 쯔눔을 허용했던 것과 달리, 한자만을 사용하게 했고, 중국문화에 심취했다.[4] 채정란이 월남에서 받았던 환대와 편의는 이런 맥락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동시에 채정란이 월남에 머무른 5개월간 직접 목도한 사실을 기록한 것은 사실이나 중국중심의 조공체계와 유학중심주의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사실도 중요하다. 또한 그가 언어장벽으로 말미암아 매우 제한된 정보 취득과 소통 경로를 갖고 있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와 한자로 필담을 나누던 월남의 고관과 지식인이 일반 월남인들과는 상당히 다른 물적, 정신적 기반을 갖고 있었으리라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의 또 다른 소통 경로였던 '유우자'(有遇子) - 월남 화교들은 이민자로서 현지인과의 다리 역할을 하였으나, 그들 역시 월남인들과 다른 세계관과 문화에서 해석한 정보를 채정란에게 전달했을 가능성 역시 높다 하겠다.

참고 문헌

陳益源,『蔡廷蘭及其<<海南雜著>>』, 里仁書局, 2006.

陳益源 裴光雄 合著,『閔南與越南』, 樂學書局, 2015.

高啓進, 陳益源, 陳英俊 共著,『澎湖進士蔡廷蘭與海南雜著, 澎湖縣文化局, 2005.

林淑慧, ' 旅遊, 記憶與論述-蔡庭蘭 <<海南雜著>> 的 跨界之旅」,『漢學研究』第26券 第4期, 2008, pp.219-247.

劉序楓, 「近世東亞海域的僞裝漂流事件: 以道光年間朝鮮高閑祿的漂流中國事例爲中心」,『한국학논집』제45집, 2009, pp.103-154.

劉序楓,「중국 표해록의 현황과 특징」,『동아시아 표해록과 표해 문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2, pp.51-72.

湯熙勇,「遭難與海外歷險經驗-以蔡庭蘭漂流越南爲中心」,『人文及社會科學集刊』第21券 第3期, 2009, pp.467-499.

송정남,『베트남사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사, 2014.

최영화,『조선후기 표해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4) 송정남,『베트남사 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사, 2014), pp.303~304.

【 Abstract 】

Cai Tinglan's *Hainan zazhu*

Ahn, Jae-Yeon(Asia Culture Institute)

This thesis examines the 19th century Cai Tinglan's *Hainan zazhu* from Taiwan. Among the many drifting records of Asia from 17th to 19th century, *Hainan zazhu* stands out for its trustworthy records of both Taiwan and Vietnam as well as its sincere records of Vietnam's folklore and customs. *Hainan zazhu* has two editions and four versions. It consists of two books. First book contains three chapters, "Adventure in Blue Sea," "Records of Hot and Barren Land." and "A Short History of Vietnam." The Second one was lost to history.

중국에서 후안강(胡鞍鋼) 논쟁의 의미와 평가

서석홍(부경대학교 경제학부)

1. 머리말

2018년 3월 트럼프가 발동한 중미 무역전이 언제 끝날지 모른 채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경제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중국 지도부가 진퇴양난의 곤경에 처했다. 중미 무역전의 또 하나의 부산물은 후안강(胡鞍鋼) 논쟁과 이를 통해 드러난 중국의 교수·지식인 사회의 이면이다.

후안강은 칭화(淸華)대학교 국정연구원 원장이자 중앙 지도부의 정책 브레인으로 2015년 무렵부터 중국의 종합국력이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동안 간간히 그의 주장에 대한 비판과 후안강의 반론이 있었으나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다 중미 무역전이 발발하고 격화되어 가는 정세 속에서, 2018년 7월 말 칭화대 81학번 졸업생 27명이 연명으로 칭화대 총장에게 후안강의 국정연구원 원장 겸 교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보낸 것이 보도되었다(<신경보>(2018.8.2.)). 그 이유는 중국의 종합국력이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는 후안강의 학술보고가 국가의 정책 결정을 오도하고 국민들을 미혹시켰으며, 타국의 경계심과 공포를 유발하여, '誤國誤民' 했다는 것이다. 또 그의 연구보고는 과학적 연구모형과 객관적 데이터에 의거하지 않고 결론을 미리 정한 뒤 지표를 설정하여, 상식을 포기한 채 학술을 쓰레기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청원서에는 하루만에 약 2천 명의 추가 서명이 이어졌다.

이후 후안강의 '중국 종합국력 미국추월론' 학술보고와 그의 국정연구원 원장 해임 문제를 둘러싸고 언론과 인터넷, SNS에서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그런데 약 1주일 후인 8월 7일 무렵부터 중국내 제도권 언론과 인터넷에서 후안강 논쟁 관련 글들이 모두 삭제되었다. 논쟁의 확산과 여파를 우려한 중국 당국이 언론 통제를 가한 것이다. 논쟁은 해외의 중문 사이트와 중국내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대략 8월 중순 무렵까지 이어졌다.

후안강 논쟁은 1-2주 정도 지속된 반짝 논쟁으로 끝났다. 그러나 이 논쟁은 우리에게 중국 사회와 지식인 그룹 내부의 다양한 속살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즉 중국 학계(교수·지식인 그룹)의 학문 풍토, 중국에서 학자와 정치권(당정 지도부)과의 관계, 중국 사회의 여론 구성과 갈래, 중미 무역전을 보는 두 시각과 무역전이 중국 사회에 미친 충격과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다.

2. 후안강과 그의 미국추월론

후안강은 금년 65세로서, 탕산(唐山)공학원과 베이징과기대학에서 학사, 석사를 마친 후

1988년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1988년부터 중국의 국정분석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였고, 1993년에는 王紹光(현임 홍콩중문대학 교수)과 공동으로 <중국 국가능력 보고>를 작성 발표하였다. 이 보고에서 그들은 국가능력(state capacity)이란 개념을 제시하였다. 국가능력은 재정 수취 능력, 거시경제 조절 능력, 합법화 능력, 국가의 사회통제 능력 등 4가지로 구성되는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수취 능력이다. 중앙정부의 재정 수취 능력이 부족하면 구소련이나 유고슬라비아처럼 연방국가가 분열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중앙재정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던 중앙 지도부에 받아들여져, 1994년에 단행된 분세제(分稅制) 개혁의 중요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를 토대로 서방경제학이 성행하던 시기에 중앙지도부가 개혁에서 국가의 주도 작용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후안강은 칭화대 국정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하여 1998년부터 매년 <국정보고>를 발간하고 있다. 국정연구원은 중국 지도부의 주요 씽크탱크로서 <국정보고>는 부·성급 간부에게 배포되어 국가의 정책 결정에 일정한 영향력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후안강은 1997년에 2015년이 되면 중국이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자 무역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는 일찍부터 종합국력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미국을 추월할 것인가> 등을 통해 대국 부흥의 목표는 미국을 추월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2015년 <칭화대학학보>(철학·사회과학판)에 “중미 종합국력 평가에 대하여(1990-2013년)”란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는 하나의 학술논문으로 대중들에게 크게 알려지지 못했다. 그 후 이것을 수정 보완하여 2017년 6월 중국은 미국을 전면적으로 추월했다는 연구보고를 발표하고, 수차의 강연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피력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경제실력(2013년), 과학기술실력(2015년), 종합국력(2012년) 면에서 이미 미국을 완전히 추월했다. 2016년 기준 중국은 위의 3 방면에서 각각 미국의 1.15배, 1.31배, 1.36배로, 세계 제1이라는 것이다. 또 후안강은 장기 계산을 통해 다음의 결론을 도출했다. 중국의 종합국력은 이미 2010년에 미국의 1.04배로 미국을 추월했고, 2020년에는 미국의 1.75배, 2030년에는 2배가 될 것이다.

중국의 국력 증강과 후안강의 명성이 축적됨에 따라 그의 목소리는 국제무대로도 진출했다. 2011년에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에서 <2020중국 : 하나의 신형 초급 대국> 영문판이 출판되어 미국 정계와 학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해외의 여러 저작과 논문에서도 그의 연구 결론을 인용하였다. 또 <뉴욕타임즈>에서도 그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부상하고 있는 현재의 중국은 100년 전의 미국을 닮았다” “40년 동안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배웠지만, 이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배울 때가 되었다”는 그의 말을 소개하였다.

3. 후안강에 대한 비판과 옹호

1) 비판

① 과장되고 허풍에 가득찬 연구 결론으로 안으로는 국가의 정책 결정을 오도하고 국민들을 미혹시켰다. 밖으로는 타국의 경계심과 공포를 유발하여, 해외 중국 위협론의 근거가 되었다.(나아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발동에 단서를 제공하였다)

②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연구모형과 자료를 꿰어 맞추었다. 이는 표절보다 심각한 연구부정 행위이다.

③ 국내 최고급 연구기관의 학술보고에 걸맞지 않게 연구 방법이 단순 조잡하다. 초등학교 산술 수준이다. 예를 들어 군사실력을 평가할 때 단순히 군인수+군비지출로 계산하고 군대의 질을 따지지 않는다. 또 과학기술 실력 평가에서도 노벨상 수상자 수는 포함 안 시키고, 특허신청 건수, 인터넷 사용자 수, 과학기술 논문발표 건수 등으로 산출한다. 특허의 원천성 여부나 과학 논문의 질적 수준도 따지지 않는다.

④ 그의 학문 활동은 상부(정치지도자)의 의중을 추측하여 그에 맞추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전형적인 학술투기 행위이다. 이러한 불량 학풍은 진리 추구와 학문의 엄정성을 파괴하는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2) 옹호

① 후안강의 종합국력 미국 추월론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는 학술적 문제이다. 학자·대학교수로서 후안강이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그의 자유이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혹은 대중들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는 이유로 그를 매도하고, 대학당국에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文革스럽다)
이러한 방식의 학술 자유, 언론 자유 옹호에는 胡錫進, 梅新育 등 좌파 진영뿐만 아니라, 于建嵘 등 우파 쪽 인사도 참여하였다.

② 후안강에 대한 비판은 학문적 방식으로 해야지, 비전문가의 여론을 통한 매도는 문제가 있다. 후안강의 연구 방법에 약간의 결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타당하다. 그는 수십 년간 일관되게 국정문제 전문가로서 자신의 연구방법론을 견지하여 왔다.

③ 후안강 책임론은 과장되었다. 후안강의 연구보고가 국가의 정책 결정을 오도하고, 해외에 중국위협론을 강화하여 무역전을 일으켰다는 비판은 지나치다. 그는 일개 학자로서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했을 뿐이다. 중국의 지도부와 미국의 트럼프가 사실과 어긋난 후안강의 틀린 주장을 믿고 중요한 정책 결정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④ 후안강에 대한 비판과 매도는 친미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이다. 즉 후안강 논쟁은 애국주의, 민족주의와 친미주의, 투항주의의 대결이다. 시진핑 집권 이후 수세에 몰린 친미주의 진영에서 중미 무역전을 기회로 신좌파, 애국주의 진영의 대표인 후안강에게 공격을 가한 것이다.

4. 후안강 현상에 대한 또 다른 시각

후안강의 중국의 종합국력 미국 추월론 주장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이 있다. 중국 지식인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帝王師情結'이 그것이다. 이는 제왕(국가 지도자)의 스승이 되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포부를 펼쳐보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이러한 전통은 성공했든 실패했든 공자와 굴원에게서도 발견되며, 이것이 바로 많은 중국 지식인이 학문을 하는 목적이다. 이러한 욕구를 가진 학자가 권력과 연계를 맺으려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사상적 영향력을 최대화하려는 것은 매우 이성적인 선택이다. 후안강도 마찬가지고, 이 점에서는 후안강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후안강이라 할 수 있다.

후안강은 1988년에 함께 참여해서 작성한 국정보고 1호가 운 좋게 지도부에 전달되어 덩샤오핑의 호평을 받은 후, '국가 정책 결정에 공헌하는 학문 활동'을 자신의 학문 방향으로

삼았다. 그 후 1994년 왕샤오광과 함께 작성한 <국가능력보고>가 재차 지도부에 주목받아 1994년 분세제 개혁의 기초가 되었다. 이 두 학술활동의 성과가 후안강의 일생의 학문의 길을 비추어 주었다. 후안강의 '중국의 종합국력 미국 추월론'은 장기에 걸친 학술 사고 후에 도출한, 그의 목적을 위한 노력의 총괄이라 할 수 있다.

5. 후안강 논쟁을 통해 본 중국사회의 이면

1) 중국 학술계(지식인 그룹)의 학문 풍토
중국에서 지식인(학자)과 정치권(당정 지도부)과의 관계
중국 대학의 정치화, 관료화 경향

2) 중국 사회의 여론 구성과 갈래
미중무역전을 보는 대립되는 두 시각
중국의 발전 방향과 취해야 할 전략에 대한 두 개의 상반된 시각

3) 후안강에 대한 비판은 指桑罵槐(뽕나무를 가리키면서 회나무를 욕한다)
실은 과도한 자신감과 과장된 치적 선전으로 강압적인 국내 정치, 강경한 대외정책을 펴는 시진핑과 왕후닝, 중국공산당 선전 부문에 불만이 있는데, 이들을 직접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 그래서 허황된 '중국 국력 미국 추월론'으로 지도부에 편승한 후안강을 비판하는 것임.

4) 중미 무역전이 중국 사회와 지식계에 미친 충격과 영향
중국의 국가 실력과 경제의 취약점, 초강대국 미국에 대한 인식의 결여 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옴.
대표적인 사례는 길림대학 경제학원·금융학원 원장인 리샤오(李曉)의 졸업식 연설(<국가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

중미무역전과 이로부터 파생된 후안강 논쟁은 중국 지식계의 풍토를 변모시킬 수 있을 것인가?

【 Abstract 】

The Meaning and Appreciation of Huangang(胡鞍鋼) Controversy in China

Seo, Seok-Heung(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Huangang dispute erupted in China in August 2018 amid intensifying trade war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Huangang is the head of the Institute for Government Information at Qinghua University. He published a report in which China's comprehensive national power had already overtaken the United States in 2012. Huangang's critics say his false claims misled national policy and caused U.S. vigilance, causing great harm to China. Therefore, critics asked him to step down from his position at Qinghua University. In response, there was a heated debate between critics and advocates of Huangang. This debate has given us a glimpse into the diverse inner side of the Chinese social and intellectual community.

Section 7

政治·経済·社會·文化

에이젠슈테인과 이창동, 영화 <버닝> 연구 / **洪常佑**

한국 지역경찰에 있어서 경찰의 주민신뢰가
지역사회경찰활동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 **許勇勳, 文維錫**

南北/北美 頂上會談의 意味와 向後 課題 / **朱鳳浩**

제주도 방문 베트남 관광객의 개인가치와
관광지 선택속성만족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 **薛勳久**

한국과 일본 아동보육시설의 리스크매니지먼트에 관한 연구 / **金暻玟**

에이젠슈테인과 이창동, 영화《버닝》연구

홍상우(경상대학교 교수)

I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은 전통적인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한 서사가 아닌, 묘사와 형상에 대한 지각과 사유 자체를 추구하는 작품이다. 관객들은 영화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각자의 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플롯보다는 사유의 과정 그 자체를 중요시 하는 작품이다. 에이젠슈테인 식으로 정의하자면, 《버닝》은 "분절되고 재구성되고, 낯설게 펼쳐진 형식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스스로 찾아가는" 영화이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의 전반적인 형식은 에이젠슈테인이 자신의 몽타주 이론에서 제시했던 주요 개념들로 분석할 수 있다. 본고는 에이젠슈테인 이론의 몇 가지 개념들로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을 분석해보려는 시도이다.

II

1. 동사적 은유의 세계[1)]

에이젠슈테인에 따르면 은유란 "수동적 피조물의 위치에 머무를 수도 있는 예술적 대상에 생명체에 고유한 것인 살아있음의 감각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그런데 운동감의 발생은 은유의 작동이 서로 구분되는 두 영역이 공존하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은유는 지각하는 사람을 단순한 묘사로부터 정신적 이념을 나타내는 단계로 상승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데에 있어서 타당한 원칙이 된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동사적 은유란 "우리가 어느 한 쪽의 성질에 의거해 다른 쪽에 대해 새로이 이해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에이젠슈테인은 이때에 그 변화되는 대상에서 원래의 성질과 은유를 통해 얻어진 새로운 성질이 동시에 유지되는 경우, 즉 '과정의 감각'이 아직 살아있어 이중성의 감각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만을 작동하는 은유라고 정의하고 있다. 과정의 감각이란 이처럼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전이하는 현상이 지각주체에게 현재 진행적으로 지각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에이젠슈테인 자신의 논의 속에서 이러한

1) 동사적이고 행위적인 재료의 풍부함을 찬양한다! 이 때 그는 선택된 동사들 그 *자체의 본질을 꿰뚫어본다*. 만일 실제로 모든 명사들이 비유적인 방식에 의해 '예술적으로' 전혀 왜곡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어진다면, 모든 동사들은 순수하게 은유적일 것이며, 순수하게 형상적이고, 순수하게 비유적일 것이다! 은유가 형용사(Adjektiva)가 아니라, 동사(Verba)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이 경우 그것들의 기본적인 역할을 변경하지 않는다: 형상적인 처리에 의해 자연 현상과 대상들을 공급하는 것. 형상성과 은유성이 형태와 형식으로가 아니라 – 즉 존재의 결과로가 아니라 – 대상 혹은 현상의 행동으로 – 즉 설정 과정으로 도입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292)

‘과정(Процесс)’과 같은 의도로 사용되는 또 다른 단어들이 ‘운동(Движение)’, ‘동사성Глагольность)’과 같은 것들이다.

영화 《버닝》이 이러한 은유의 연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러한 은유가 관객에게 불러일으키는 연상 작용으로 인해 더욱 풍부한 예술텍스트가 된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이 작품이 통상적인 인과관계에 의한 서사 전개를 거부하고 형상과 은유로 연속되는 형식을 추구하는 작품이라는 관점에서 논지를 전개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에이젠슈테인의 몽타주 이론에서 언급되는 은유의 개념, 특히 동사[2]적 은유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작품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영화가 시작되고 종수가 등장한 이후 행사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해미가 다른 여성과 함께 춤추며 등장한다. 이 묘사는 해미가 사라진 후 종수가 그녀를 찾기 위해 방문하는 야외 행사장에서 다른 여성들이 같은 방식으로 춤추는 것으로 다시 묘사된다. 종수는 해미를 찾기 위해 과거 해미와 함께 일했던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여인이 해미처럼 사라지는 여자들이 많다고 말하는 동안 화면 한 구석에서는 영화 초반부에 해미가 했던 것처럼 젊은 여성들이 홍보행사에서 춤을 추고 있다. 처음 해미가 춤추는 형상은 가난한 젊은 여성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수준의 묘사이지만, 이후 다른 여성들이 유사한 춤을 추는 형상은 이미 개인적인 수준, 즉 개별적인 묘사 수준을 넘어 동시대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형상으로 의미적인 상승을 한다. 뿐만 아니라 해미는 실종된 이후에 종수에게 더욱 심리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이 장면은 이중적인 은유이다. 해미가 춤추는 최초 형상을 대체하는 다른 여성들의 춤과, 존재하던 해미가 부재하는 해미로 대치되는 것이다. 어느 경우이던 최초 형상의 자취가 남아있는 채로 두 번째 형상과 공존함으로써 이중성의 감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역동적인 인지 과정을 에이젠슈테인은 “은유의 동사성”이라고 규정했다.

해미의 존재와 관련하여 관객의 지각에 역동성을 불러일으키는 동사적 은유는 해미가 키웠던(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고양이인 ‘보일’에 의해서도 성립된다. 종수는 해미 집에서 ‘보일’을 실제로 본 적이 없지만, 해미가 사라진 이후에 벤의 집에서 ‘보일’로 추정되는 고양이를 본다. 종수의 입장에서 이 고양이는 비가시적인 존재에서 가시적인 존재로 전환된 것이다. 해미의 실종 전에 종수는 이 고양이를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해미가 사라진 이후에 보게 된다. 종수의 입장에서 볼 때 해미가 사라지기 전에 고양이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고, 해미가 사라지자 고양이는 보이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러나 관객 입장에서 해미가 사라진 후 종수가 벤의 집에서 본 고양이가 정말로 ‘보일’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특유의 모호성이 이 고양이에게도 해당된다. 이 고양이의 형상은 종수의 지각 내에서는 비가시적인 것과 가시적인 것의 충돌인데, 고양이가 모습을 드러낸 이후에도 여전히 해미 집에서 보이지 않았던 고양이의 형상이 종수와 관객에게 의식된다는 점에서 지속성과 운동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동사적 은유에 해당한다.

---

2) 동사는 우리 눈앞에서 묘사되지 않으며, 우리의 동력으로써 지각되고, 직관적 장면으로 구성되지(혹은 자유롭게 되지) 않으면서, 묘사로부터 우리의 손, 다리, 그리고 굽은 등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여기서부터 효과는 더욱 직접적이 되지만, 모든 자신의 역동성의 ‘공통적 분위기’에서는 더욱 간접적이고, 일반적이고, 더욱 절절하게 된다. 문제가 심리적으로 첨예화되고, 정확하게 되자마자, 예를 들면 , 인간의 지각에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이 처음에 일어나는 일이다: ‘누군가가’ 도착 한다 - 즉 전면에 움직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다음과 같다: “아! 이반 이바노비치가 왔군요!” - 즉 누가 왔는지 정의되는 것이다. 즉 처음에는 현상이고, 같은 정도로 - 더욱 plein air(여기서는: 대기의)한 - 제시는 인간 행위와 simile[1] 방법으로 특징지어 진다. 그러나 인간 행위의 심리적 구체화의 요구로 인한 정확도의 강한 집중에 따라 인간 *형상*으로 교체된다.(295-296)

해미는 자신의 소지품으로도 영화 내내 종수의 내면을 지배한다. 종수가 사은품으로 받아서 해미에게 선물한 시계는 해미의 존재와 실종에 밀접하게 관련된다. 해미는 종수가 선물로 준 시계를 차고 종수와 벤을 만나는데, 해미가 실종된 후에 종수는 벤의 집 화장실에서 해미의 시계를 발견하고 벤을 의심하게 된다. 해미의 여행 가방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해미가 아프리카 여행갈 때 가지고 갔던 가방은 해미의 집에 남아 있는데, 종수는 해미가 사라지고, 여느 때와는 다르게 해미의 집이 말끔하게 정돈된 것을 보고 해미의 여행 가방을 먼저 찾아본다. 여행 가방이 집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한 종수는 해미가 적어도 여행을 떠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해미의 존재는 시계와 여행 가방을 통하여 계속 종수와 관객의 의식에 남아 있다. 이때 시계와 여행 가방은 사물이지만, 마치 유기적인 생명체와도 같이 해미의 존재를 대체하는 의미로 전환된다. 즉 에이젠슈테인이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동적 피조물의 위치에 머무를 수도 있는 예술적 대상에 생명체에 고유한 것인 살아있음의 감각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비닐 하우스 역시 동사적인 성격을 지닌 은유이다. 이것은 종수에게 생계가 달린 귀한 것이지만, 벤에겐 아무 것도 아닌 유희 혹은 범죄의 대상이다. 이러한 단순한 은유를 넘어서 비닐하우스는 작품 중후반부 내내 종수의 머리 속에서 일종의 전이 상태에서 존재한다. 그는 벤이 비닐하우스, 즉 종수의 삶에 소중한 어떤 존재를 파괴하거나 죽였는지에 대해서 추적한다. 에이젠슈테인이 말하는 전이성, 또는 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높은 수준의 은유, 즉 은유의 동사성에 해당한다.

2. 공감각

에이젠슈테인의 '은유의 동사성'은 일종의 공감각과도 관련된다. 은유가 정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 되는 사례로 에이젠슈테인은 "공감각"을 들고 있다. 우선 영화 《버닝》에서 유사성에 근거한 병치로서의 은유는 작품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계속된다. 예를 들자면 이렇다. 해미의 집 고양이는 벤의 집 고양이로, 해미의 스토리텔링은 벤의 또 다른 여자 친구의 스토리텔링으로, 해미의 개인적 판토마임은 판토마임 교습소[3]에서의 단체 판토마임으로, 해미의 빚은 종수 엄마의 빚으로, 해미는 벤의 또 다른 여자 친구로, 해미의 성형 수술은 벤의 몸만들기 운동으로, 종수의 월리엄포크너에 대한 애호는 벤의 월리엄포크너 읽기로 변환되면서 지속적으로 은유의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4]

그런데 이러한 통상적인 은유 외에 시각과 청각을 비롯한 인간의 오감 중 복수의 감각이 동시에 일어나는 묘사야 말로 관객의 지각에 역동성을 불러일으키는 은유의 또 다른 동사성으로 에이젠슈테인은 주장했다. 에이젠슈테인은 "은유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루는 두 항들 중 원래의 성질이 새로운 성질에 의해 아직 압도당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승적 운동의 감각은, 지금 현재 지각이 두 개의 영역에 걸쳐 있다는 감각, 즉 이중성의 감각을 통하지 않고서는 생성되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동시에 "대상에서 대상으로 성질을 옮기는 은유는, 그 성질이 <다른> 현상이나 대상의 행위와 행동 영역에서 골라질 때 가장 자극적으로 작용하며, 바로 이러한 은유의 올바른, 즉

3) 이창동 작품에서 인물들은 삶의 전환점에서 주로 '무엇인가를 배우는 행위'를 한다. 《박하사탕》에서 여주인공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거나 운전을 배운다. 《오아시스》의 주인공은 자동차 정비를 배우려 한다. 《박하사탕》에서 주인공은 아들을 웅변학원에 보내고, 《시》에서 주인공은 시 쓰는 법을 배운다.

4) 물론 이외에도 일반적인 은유의 예로 들수 있는 유사성의 병치는 더 발견할 수 있다.

감정적으로 적절한 구체화는, 올바르게 선택된 조형적 요소들에 의해 항상 가장 강한 인상을 보장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해미의 판토마임은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으로 묘사하는 탁월한 영화 언어이자 동사적 은유의 사례이다. 해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화면에서 비가시적인 것이 관객의 뇌리 속에 가시화되고, 해미의 판토마임에 따라 오렌지의 맛, 나아가 식욕까지 자극하는 공감각의 순간이 성취되는 역동적이고 자극적인 동사적 은유가 이루어진다.
한편 아프리카로 가기 전 해미의 판토마임은 아프리카에 다녀온 후 종수의 집 마당에서 노을 진 무렵에 추는 자기 성찰의 춤으로 변형 반복된다. 아프리카에 다녀온 후 해미의 첫 번째 스토리텔링은 비가시적 색의 묘사이다. 이 때 화면상에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해미가 보이지만, 이 가시적 묘사 너머에 비가시적이지만 강렬한 색에 대한 묘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에이젠슈테인이 주장한 시청각적 대위법이다.

관객들이 가장 강렬하고 역동적으로 느끼는 은유의 동사성은 종수가 불탄 비닐하우스를 찾아 헤매는 시퀀스일 것이다. 이 시퀀스에서 벤이 말한 비닐하우스와 종수가 생각하는 비닐하우스는 개별적인 묘사이고 이 두 대상이 합쳐져서 삶의 존재 혹은 정체성이라는 형상을 획득하고, 나아가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질문이라는 일반화에 도달한다.

종수는 벤에게 자신의 아버지에게 분노조절장애가 있으며, 어릴 적 엄마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의 말에 따라 엄마의 옷을 태웠다고 말한다. 그런데 영화 말미에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종수이며, 그는 이제 엄마의 옷이 아니라, 칼에 찔린 벤이 타고 있는 벤의 차를 태운다. 반면 벤은 자신이 비닐하우스를 태운다고 말한다. 석유를 뿌리고 성냥불만 던지면 끝이라고 벤은 말하는데,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 불을 던진 사람은 종수였다. 이것은 시청각적 은유의 연속, 혹은 조형적 묘사의 차별화된 반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이작품은 명사 혹은 형용사적 은유와 동사적 은유의 연쇄 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 종수가 벤을 살해한 후 그의 차를 불태우는 쇼트가 아마도 관객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이다. 이 쇼트는 심도 깊은 미장센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경에는 벌거벗은 채로 운전하고 있는 종수가 보이고, 중경에는 종수의 트럭과 불타는 벤의 차 사이의 거리가 강조되고 있으며, 후경에는 불타는 벤의 차가 보인다. 이런 구조는 쇼트 내부의 노골적인 대위법에 해당한다. 종수의 적대감과 분노에 의해 칼에 찔린 벤이 타고 있는 불타는 차와 벤을 칼로 찌른 후 광기의 상태에서 운전하는 종수, 그리고 두 인물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간격은 개별적 묘사이다, 이러한 세 요소가 서로 충돌하면서 사회 계급 간의 갈등과 보복의 주제, 그리고 그러한 보복과 증오조차도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는 탈출구 없는 현실이라는 일반화의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다.

해미가 상의를 벗으면서 종수 집 마당에서 춤추는 장면 역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새로운 단계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쇼트이다. 이 쇼트는 시청각적 대위법의 절정이다. 이 쇼트는 몸짓과 말의 스토리텔링에서 순수 몸짓 언어로, 음악과 무관심하지 않은 자연이 동반 되는 묘사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컬러가 배제된 빛과 어둠이 충돌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영화의 본질적 언어인 빛과 어둠의 대조 미학을 구현하고 있다. 이 때 화면 내부의 시간과 화면 밖의 물리적 시간도 동일하다. 해미가 카메라의 시선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카메라는 파노라마 식으로 노을 진 자연을 오래 동안 바라보면서 화면 내와 화면 외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무관심하지 않은 자연'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다. 인간의 모든 감각을 동원하도록 요구하는 이러한 쇼트 구성과 배열은 다른 어떠한 특수 효과보다도 관객의 뇌리에 뚜렷한 운동의 감각과 시간의 감각, 그리고 동시에 지속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공감각의 동사적 은유이다.

2. ‘묘사’와 ‘형상’을 비롯한 그 밖의 개념들

2-1. 음모와 추적의 서사, 스토리텔링

영화 《버닝》에서 스토리텔링을 주로 하는 인물은 해미이다. 그러나 직업적인 스토리텔링을 하고자 하는 인물, 즉 작가가 되고자 하는 인물은 종수이다. 종수는 해미의 스토리텔링에 관심이 있는 반면, 벤은 해미의 스토리텔링에 관심이 없는 듯 보이는데, 정작 그는 종수가 좋아하는 문학에 관심이 있으며, 종수가 좋아하는 작가인 윌리엄 포크너를 읽는다. 벤은 스토리텔링을 즐겨하는 여성을 좋아하지만, 정작 그들의 스토리텔링 내용에는 관심이 없다. 그는 여자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하품을 한다.

해미의 스토리는 진실이자 허구이다. 그녀는 종수의 이력 일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종수가 기억하지 못하는 정보를 이야기한다. 그녀는 스토리텔러이지만, 몸 쓰는 일을 좋아한다. 종수는 작가가 되려 하지만, 그 역시 주로 육체노동을 하고 있다.

해미의 스토리텔링은 종수가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뉜다. 즉 종수가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확인 할 수 없는 것으로 나뉜다. 이것이 종수가 해미의 스토리를 추적하게 되는 자극이 된다. 종수는 세 갈래 길을 따라 해미를 추적한다. 해미의 스토리텔링의 진위 여부를 찾는 길, 해미의 행방을 찾는 길, 벤이 태운 비닐하우스를 찾는 길을 따라 추적하는 것이다. 이 중 시각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길은 벤이 태운 비닐하우스를 찾는 길인데, 특히 언덕 위의 벤을 좇아 올라가는 종수의 형상은 그야말로 사냥감을 추적하는 사냥꾼의 형상이다. 나머지 두 길은 비가시적인 묘사지만 종수의 뇌리에 시각적 형상으로 깊이 박혀 있는 과정이다. 특히 해미의 스토리는 매우 시각적이다. 그녀의 스토리에는 맛과 색깔이 유난히 강조되어 있다. 벤의 행위와 관련해서 종수는 실제로 벤을 추격한다. 그는 마치 개를 데리고 사냥감을 찾아 나서는 사냥꾼처럼 벤의 행위를 규명하려고 추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상당 부분은 사실상 종수의 추적에 관한 서사이다. 작품에서 종수가 하는 일은 우물의 존재 여부, 불탄 비닐하우스의 존재 여부, 그리고 해미의 존재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2-2. 개별적 묘사, 형상[5], 그리고 일반화[6]

---

5) 하나의 분야에서 미장센에 대한 우리 입장의 정당성을 그런 식으로 뒷받침하고 나서, 이제 기본적인 우리의 테마 - 단일 시점 영화 현상, 혹은 개별적인 몽타주 조각의 조형적 구성, 혹은 단순하게 프레임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자. 잠깐 우리가 여기서 언급했던 것은 잊기로 하자. 그리고 바리케이드를 묘사하고 있는 두 개의 제안된 그림-도식에 대한 직접적인 인상의 성질을 들여다보기로 하자.(그림 5와 6) 묘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일상적인 세부들에 의한 충만함의 관점으로 볼 때, 두 그림이 모두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그림들 중 어떤 것이 바리케이드를 더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모든 관객은 5번보다는 6번에 투표할 것이라는 점도 동일한 정도로 분명하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일상적이고, 대상적인, 묘사적 선에 따르면 이 그림은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어디에 차이가 있는가? 차이는 묘사의 이러한 요소들의 구성적 배치에 있다. 그러면 이러한 구성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차이는 한 그림(두 번째 것)이 다른 것(처음 것)과는 달리 바리케이드를 묘사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며, 또한 바리케이이드의 내적인 내용의 형상 - 투쟁 - 을 포괄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그림에서 구성적 요소들은 그것들 중 각각이 은유로서 읽혀지도록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서로 간의 그것들 각각의 총합은 투쟁의 형상으로 읽혀진다. 즉 그림에서 묘사된 것의 내적인 내용의 일반화된 형상으로 읽혀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음과 같다.

1. 건물들의 표면과 바리케이드의 표면을 예로 들면, 그림 5에서 이것들은 서로 붙어 있다. 그림 6에서는 바리케이드의 표면이 건물 벽의 표면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다.
2. 바리케이드 받침대의 선을 살펴보면, 그림 6에서는(그림 5와는 달리) 이 선이 가교를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3. 상부의 가장 자리 - 그림 6에서 바리케이드의 윤곽을 살펴보면, 이 윤곽이 갈라져서 꺾어진 선으로 보이며, 이 선은 마치 투쟁의 단계와도 같은 인상을 남겨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윤곽의 꺾인 곳에 있는 각각의 지점이 두 개의 상호 투쟁하는 두 세력의 일정하지 않은 성공과의 충돌 지점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게다가 이 꺾인 선은 그림 7에서 제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읽혀진다.

4. 깃발은 특징적인 예리한 각으로 하늘의 공간으로 파고 들어간다.
5. 마침내, 그림 6.의 둥글게 말은 빵 모양의 간판 배치에서 은유는 절정에 달한다. 여기 위로 올려 보았다가 아래로 내려다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 둥글게 말은 빵 모양의 간판은 바리케이드 밑으로 내려온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묘사적으로 간판이 물리적으로 빵처럼 생겼고, 실제로 바리케이드 밑에 있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구성적으로* 그렇게 놓여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경우의 차이는 일상적인 면 외에도 간판은 어떠한 후면으로도 읽혀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또한 두 번째 간판 - 빵 모양의 - 의 암시는 '버려진 간판'이 아닌, '전복'으로 읽혀진다는 것이다: 위에 있던 것이 아래로 내려온 것이다. 여기서 둥글게 말은 빵의 물리적인 제거가 아니라 구성적으로, 즉 현상에 대한 시점으로써 묘사되고 있는 상황이 이에 대한 은유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모든 요소들을 요약하면, 우리가 6번 그림에서 *파고 들어간 것*의 세 가지 경우 - 표면 속으로 표면이 들어간 것(1), 표면 속으로 선이 들어간 것(2), 표면 속으로 각이 들어간 것(3) -와, 마치 *투쟁의 어떠한 과정*의 지진의 *자취*와도 같은 꺾인 선,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질서의 *전복*에 대한 사상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풍경 요소들의 배치 등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림 6은 문자 그대로 모든 기호에 따라 투쟁의 관념과 형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1. 가장 단순한 대상적-묘사적인 기호에 따르면 그림은 바리케이드를 표현하고 있다.
2. 대상-형상적 기호에 따르면: 요소들은 전복에 대한 개념을 주기 위해 배치되어 있다. 이 때 구성은 물체의 전복으로써 바리케이드에서 역시 사물이 뒤집어지고 전복된 묘사적인 측면을 반복하고 있다(이것을 기억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 동기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3. 가장 심화된 일반화의 표시에 따라: 표면들의 충돌, 표면과 선의 충돌, 선과 표면의 충돌.
4. 마지막으로 투쟁의 전체적인 과정의 흔적으로 읽혀지는 기본적인 외형의 선적인 특성에 따라.

이 모든 요소들은 서로 서로 스며들어 있으며, 그 자체로서의 현상 자체의 일상적이고 묘사적인 통일성을 무엇으로도 파괴하지 않는다.(형식의 붕괴도, 입체적인 '변동'도, 전망의 다시점, 혹은 기타 등등을 파괴하지 않는다.)

또한 바로 이 테마가 색채와 빛의 점들의 올바른 일상적 배치 외에 투쟁의 이러한 은유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고유한 수단으로써 구현되었던 빛-색채 구성에도 연속적으로 스며들어야 했던 것은 아주 분명하다. 이후, 이 예를 인용하면서 우리는 주로 모든 다양성으로 구성된 모든 경우들 중 가장 단순한 것을 견지할 것이며, 그룹을 이루게 된 대상들이 바리케이드를 *묘사한다면*, 그 대상들의 배치는 그 외형의 선이 *바리케이드 내용의 일반화된 내적인 형상*-투쟁을 표현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견지할 것이다.(몽타주 68-70)

6) 그러나 우리의 중국인들과 그들의 회화의 실제를 살펴보자.

특별한 완성도를 지닌 그들의 회화에서 이것은 현상으로부터 그것의 일반화된 본질적인 현실을 포착하고, 동시에 그 현실을 순간적이고 스쳐지나가는 것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경향이다.

이것은 특히 남종화 혹은 소위 '문인화'풍에 특징적인 것이다. 풍경화의 이러한 새로운 타입은 당나라 중기(618-905) 왕유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바로 《The Chinese Eye》, p. 99에서 Chiang Yee가 쓴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혁' 학파의 화가들은 풍경에서 나무에 뒤이은 나무, 바위에 뒤이은 바위를 바라보지 않았고, 그들의 눈앞에 있는 각각의 디테일을 먹과 붓으로 그리지 않았다: 그들은 달이가고 해가 가면서 풍경에 익숙해져야 했으며, 거기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될 어떠한 가치 있는 것도 보지 않았다. 마침내 정신이 깨어나는 순간 명료한 의식이 다가오고, 그들은 같은 물과 같은 바위를 바라보면서, 자신들 앞에 삶의 그늘로부터 해방된 드러난 "현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오직 이 순간에야 붓을 쥐고 그것이 그 현실의 형태로 존재했었던 대로 '골격'을 그려야 한다; 사소한 디테일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골격(bones)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된다. 그리고 '진정한 형태'와 '현상의 일반화된 본질'을 구현시켜야 하는 이 선적인 골격은 우리가 바리케이드와 함께 예로 들면서 언급했던 바로 그 골격이다.

바로 그 동일한 것, 우리가 고려했던 것을 5세기에 최초로 출판되고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사혁 회화의 6가지 고전적인 규정에 있는 것으로부터 살펴볼 수 있다 - 두 번째 규정이 바로 이 특징에 관련된 내용인데, 표현 측면과 관련된 다른 요소들은 나머지 규정들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에이젠슈테인은 "'일반화(обобщение)'란 은유의 최고 단계인 형상[7]이 나타내는 이념을 가리키는 것으로, 에이젠슈테인은 묘사[8]가 그 한계에 이르면 그 묘사[9]하는 대상에 대한 일반화가 나타난다"고 한다. 에이젠슈테인은 일반화가 은유와 마찬가지로 인간 의식 작동양상의 일부라고 본다. 즉 부분과 전체의 동시적 구조 또한 그 부분적인 것들을 새로운 성격의 전체로 합일시키는 것이 인간의 의식의 작동 방식이기에, 이것이 은유와 마찬가지로 예술작품의 이해 과정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이다.

영화 《버닝》에서 인물들의 캐릭터는 에이젠슈테인이 말한 일반화의 전단계, 즉 '개별적인 묘사'에 해당한다.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 중 종수가 사회에서 자신이 처한 운명에 대해 가장 강하게 저항하는 사람이다. 그는 아르바이트하기 위해 들렀던 택배 회사 담당자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반발한다. 그는 벤의 범죄에도 저항한다. 물론 벤의 범죄는 증명되지 않았고, 종수의 판단일 뿐이다.

해미와 종수의 엄마는 공통적으로 카드빚을 지고 있다. 두 인물 모두 종수의 이력과 관계가 있고, 종수의 어린 시절을 아는 사람들이다. 해미는 카드빚을 지고 가족을 떠났고 사라져

법칙은 모든 나머지 것들에 대한 바로 이 규정의 기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중요성은 이 법칙이 사실상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하도록 해준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규정은 영감과 직관, 즉 작품의 요소가 아닌 창작 과정에 대한 전제적인 상황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쿠마라스와미(Coomaraswami)는 인도 미학과 관련된 책 《The Transformation of Nature in Art》(p.18-20)에서 다음과 같이 이 규정들을 축자적으로 번역하고 코멘트하고 있다:
"1. 삶의 움직임에서의....동작(operation), 혹은 순환(revolution)...혹은 조화(concord) 혹은 정신의 반향(reverberation).....(기운생동(氣韻生動)
2. 붓을 이용한 '골격'(본질적인 구성)의 묘사.(골법용필(骨法用筆))
3. 대상과 일치되는.... 형태 창조.(응물상형(應物象形))
4. 타입(대상)과 일치되는 색의 사용 혹은 배분.(수류부채(隋類賦彩))
5. 올바른 구성, 문자 그대로 - '있어야 할 자리로의 배치'('design due-placing).(경영위치(經營位置))
6. 전통적인....방법, 문자 그대로 - '(전통에 따라) 그리면서, 방법 혹은 모델을 모사한다.'(전이모사(傳移模寫))(몽타주 74-75)

7) 사실상, 기술하는 자신은 현상의 묘사 - 현상 자체를 알고 있다. 이것을 관객에게 '주고 나서', 그는, 이 형상을 느끼고 창조해야 하는 관객(독자)의 창조력 이상의 것을 끌어들이면서, 그에게(관객에게) 그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다. 다른 특성들 외에, 형상은 그것이 동시에 현상의 일반화가 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이다: 모든 상호관계와 상호영향에서 그 현상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이다.(289)
괴테에게 디테일과 요소의 선택, 그리고 그것들의 비교는 사실적인 기록의 수단이 아니고, 독자 내부에서 발생하는 형상 창조이다. (289)
여기서 이미 첫 행에서 저녁은 세 개의 형용사로 묘사 된다: 아름다운, 고요한, 자유로운; 두 번째 행에서 '시간' - 즉 다시 저녁 - 은 새로운 정의로 나뉘게 된다: 성스러운, 수녀를 닮은 고요한; 세 번째 행에서 이 수녀는 '숨겨진 호흡'(그녀가 이미 '호흡이 - 없는' 정도로)으로 묘사 된다; 이제야 우리는 저녁의 성질형용사들에서 해방된, 시인이 '그 고요 속'으로 내려오는 - 즉 다시 한 번 저녁의 '고요'로 - 해로 옮겨간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덟 개의 형용사 혹은 그에 상응하는 발화 표현은 괴테에게서 압축된 표시법으로 관사 없이 사용된 하나의 명사 '박명'(《Dämmrung》)이 사용되는 저녁을 묘사하기 위해 요구된다.(201)
본질적으로, 워즈워드는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아무 것도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그는 그 자신이 경험하는 것과 유사한 분위기에 젖어들도록 우리를 설득 한다; 그래서 우리, 추상적인 인간들은 기꺼이 연설조의 영향에 굴복하고, 그는 광범위한 독자층에 인상을 남기는 데 성공한다; 괴테는, 반대로, 그가 경험한 것을 매우 단순하게 묘사해서, 마치 화가가 그러는 것처럼, 그와 우리가 상호행동하는 환상에 그가 본 것을 보고, 시인이 느끼는 것을 느끼는 - 각자 영혼의 성숙도에 따라 - 가능성을 부여한다.(292)

8) 각주 내용 없습니다

9) 묘사는 아주 목적이 분명한 것이다. 8행에서 단지 두 개의 형용사 - '순수한'과 '짙은-검은' - 는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빛과 어둠의 대비를 강조하고 있다; 나머지에서 우리는 여기서 단지 명사와 동사들, 그리고 필요한 접속사들 중에서 가장 단순한 것들을 접할 뿐이다.(290)

버렸다. 주목할 점은 종수 이외에 누구도 해미의 실종에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이다. 해미의 언니와 엄마는 종수에게 “해미가 카드빚을 갚기 전에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말라고 전해달라”고 종수에게 말하고, 종수 엄마는 16년 전에 헤어진 아들 종수가 카드빚을 갚아주길 원한다.

부유한 청년인 벤은 자신보다 처지가 좋지 않은 젊은 여성들과 교제하면서 파티와 운동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는 내면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모호한 인물이다. 그는 고민과 슬픔을 잘 모르며, 재미를 추구한다고 말한다.

이 작품의 비극성은 벤의 세계는 해미가 사라진 이후에도 이전처럼 평온하게 유지되지만, 해미와 종수의 세계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벤은 이전처럼 친구들을 만나고 해미와 유사한 여자 친구를 사귀고 있으며, 그의 주장에 따르면 비닐하우스를 여전히 태우고 있다. 종수는 자신과 다른 세상, 다른 질서에 나름의 방식으로 저항하는데, 아르바이트 면접을 포기하는 장면과 벤을 살해하는 장면이 여기에 해당된다. 벤은 비닐하우스를 불태운다고 말하지만, 종수는 벤을 살해하고 그와 그의 차를 불태우는 것으로 저항한다. 불을 태우는 벤의 행위는 비가시적인 반면에, 벤을 살해하고 그와 그의 자동차를 불태우는 종수의 행위는 가시적이다. 에이젠슈테인에 따르면 개별적인 묘사에 해당하는 이러한 가시적 행위와 비가시적 행위가 충돌하여, 탈출구 없는 종수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언급에서 개별적 묘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작품의 주제를 나타내는 형상화에 도달하는 것이다.
종수의 살인은 모호함과 탈출구 없는 삶에 대한 비극적 저항이다. 이 저항은 윤리적이고 법적인 측면에서 평가될 것이 아니라, 미학적이고 표현적인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종수는 추적을 통하여 모호함을 해소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추적의 욕망 자체를 불태워버렸다. 이런 식으로 영화는 서사의 인과관계보다는 묘사와 형상, 그리고 일반화라는 형식을 추구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또는 기법적으로 이러한 묘사에서 감독은 일종의 ‘지연’ 효과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감독은 작품에서 자주 삶의 지연되는 순간을 삽입한다. 그것은 개별적인 묘사가 형상으로 이동하는 과정의 지연이자 지속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종수가 카드로 계산을 하고나서 영수증을 매우 꼼꼼하게 살펴보자, 종업원이 불쾌한 듯이 그를 바라본다. 이 쇼트는 종수의 경제 상황을 순간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인데, 나중에 벤이 카드로 계산을 하는 쇼트와 조형적으로 유사하지만, 벤은 카드 영수증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 이 때 두 인물 모두 주변 기둥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마치 별도의 세계에 갇혀있는 느낌을 주지만, 두 사람이 존재하는 세계는 서로 전혀 다른 곳이다.

영화 《버닝》에서 어긋나고 지연되는 삶의 사례는 또 있다. 종수와 해미가 성관계를 맺으려 할 때 해미가 갑자기 “잠깐만”이라고 말하면서 침대 밑에서 콘돔을 꺼낸다. 성욕의 절정 순간에서 행위가 지연되는 것이다. 또한 이 장면은 해미가 자기 집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작품 전체에 걸쳐서 해미의 사생활 역시 모호한 채로 남아 있다. 종수가 자위행위에 열중하고, 쾌감을 느끼려는 순간 해미가 아프리카에서 거는 전화 벨 소리를 듣는다.[10]

10) 이러한 삶의 어느 순간에서의 지연은 이창동 작품에서 자주 발견된다. 데뷔작 《박하사탕》에서 인물들이 사진을 찍는 순간 사람들이 카메라 앞을 지나가거나, 여주인공이 남편을 찾으러 나가려 할 때, 슬리퍼 한 짝이 벗겨진다. 또한 주인공이 지방에서 술집 여인과 함께 그녀의 집으로 들어갈 때, 여인이 우산을 접으려 하나 접히지 않자 우산을 버리고 문을 닫는다. 주인공이 결혼하게 된 여성과 최초 성관계를 가지려는 순간, 여성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오아시스》에서 종두는 도로 위에서 방송 촬영 팀을 만난다.

2-3. 지적 몽타주

에이젠슈테인이 주장하는 지적영화의 의미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적영화의 가장 큰 특색은 스토리를 위주로 하는 내러티브 전통에서 해방되어 형상을 통해 추상적 개념을 산출하는 '영화 극작술'에 있다”는 것이다. 지적영화는 '이야기 약화'를 통해 주제를 표현한다. 두 번째로 감성과 이성의 이원론을 배격한다. 지적영화는 오히려 둘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다. 지적영화는 논리적인 이야기 흐름보다는 연상 과정을 통해 주제를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논제에서 형상으로, 형상에서 개념으로’라는 원칙을 지향한다. 지적영화의 스토리는 오직 시발점으로만 기능하고, 영화는 일련의 자극들을 설정해, 통제된 연상이 작용하도록 구성되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지적영화는 ‘부분 대 전체’의 관계를 중시한다.

영화 《버닝》이 스토리를 위주로 하는 내러티브의 전통에서 벗어나 형상을 통해 추상적 개념에 도달하는 경우는 주로 조형적 묘사의 충돌 혹은 대비를 통해서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작품에서는 평면적 쇼트와 심도 있는 쇼트가 대비된다. 해미와 종수가 나란히 담배 피우는 평면적인 쇼트와 종수가 벤의 집 통로를 걸어갈 때, 그리고 종수의 집 마당에서의 심도 있는 쇼트가 대비된다. 해미와 종수가 처한 현실,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와 벤이 존재하는 세계가 다르다는 점이 쇼트의 조형적 충돌, 나아가 형상적 충돌로써 드러나고 있다.

종수를 처음 만났을 때와 두 번째 만났을 때 해미의 태도가 다르다. 처음 해미는 종수에게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캐묻지만. 두 번째 만남에서는 종수가 이사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지 않는다. 종수는 “왜 이사하는지 물어보지도 않네?”라고 말한다. 영화는 계속 처음 묘사한 것을 뒤에 반복하거나 뒤집고 있다.

해미를 만나러 지하 카페로 내려갈 때 종수는 카페의 유리벽을 보면서 머리를 다듬는다. 이후 쇼트에서 카메라는 카페 지하 실내에서 종수를 바라보고 있다. 즉 카메라는 종수가 카페 유리벽을 보면서 머리를 다듬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때 카페 천장에 걸려 있는 둥근 원 모양의 장신구를 통해 해미가 앉아 있는 반대 방향도 보여주고 있다. 이 때 쇼트 내부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종수가 해미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여러 층위의 시각적 묘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불타는 비닐하우스와 관련된 종수의 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꿈에서 어린 종수는 불타는 비닐하우스를 두려움에 가득 찬 눈길로 보고 있다. 이 꿈은 영화 말미에 비극적인 방식으로 실현된다. 또한 종수에게 걸려오는 말없는 전화는, 종수가 해미에게 거는 수신되지 않는 전화로 변형된다.

종수가 벤을 추적하여 도착하게 된 호숫가에서의 쇼트를 살펴보자. 카메라는 여전히 인물의 정면보다는 뒷모습을 주목하고 있다. 호숫가에 서 있는 벤의 뒷모습이 보이고, 카메라는 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종수의 정면을 클로즈업한다. 그리고 언덕에 있는 종수와 호숫가에 있는 벤은 벤의 자동차를 기점으로 분리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공간을 연결하는 후경에 위치한 산으로 구성된 미장센은 시각적으로 정태적이지만 내적으로는 역동적이다. 즉 에이젠슈테인이 말하는 ‘정태로부터의 역동성’이다. 이 때 벤의 정체를 밝히려는 종수의 욕망은 절정에 달하고, 알 수 없는 벤의 모호함은 여전히 화면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 다.

종수가 마을 이장 집에서 외국인 며느리와 대화할 때, 외국인 며느리의 서툰 한국말과 종수의 정확한 한국어, 그리고 그가 글을 잘 쓴다는 사실이 서로 충돌한다. 이 쇼트는 전형적인 시청각적 대위법이며, 관객의 공감각 유발하고 있다.

2-4. “무관심하지 않은 자연”[11]과 “조각으로의 분할”

이 작품에서 자연 혹은 풍경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에이젠슈테인 식으로 말하자면 ‘무관심하지 않은 자연’이 묘사되고 있다. “자연의 의인화” 기법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영화에서의 몽타주 이론, 228쪽)

인간이야말로 은유가 궁극적으로 묘사하려는 대상인데, 에이젠슈테인에 따르면 인간은 총체적 특성상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묘사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조각으로 분할되어져 묘사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탄생, 자람, 늙음, 죽음을 다투는 한 인간의 생애도 해당된다. 영화 《버닝》에서 해미와 종수의 삶은 조각으로 분할되어 묘사되고 있다.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에 대한 해미의 진술은 해미와 종수의 삶 모두와 관련된다. 해미가 생각 날 때 마다 언급하는 자신들에 대한 ‘분할된 조각’과도 같은 묘사가 총체화되었을 때, 즉 종수가 불을 지르는 마지막 장면이 가장 고차원의 은유인 동사적 은유로 성립되는 것이다.

에이젠슈테인은 인간이 부재하는 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비유를 성립시킨다고 보고 있는데, 작품에서 해미의 부재는 결국 해미에 대한 강력한 은유이다. 해미는 부재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해미는 실재했을 때 보다 더 종수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녀는 부재하지만, 그녀의 스토리텔링이 종수의 내면을 지배하는 것이다. 영화 언어적으로 볼 때에도 가시적인 것의 부재로 인해 비가시적인 것이 화면을 더욱 강력하게 지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11) 이미 인간 혹은 동물 행동의 특성들이 분명하게 *전이*되는 것이다.(293)

【 Abstract 】

Sergej Eisenstein and Lee Chang-dong, a study on the film "Burning"

Hong, Sang-Woo(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Lee Chang-dong's film "Burning" is not a narrative based on traditional causal relationships, but rather a pursuit of perceptions and thoughts about depictions and images. Audiences can see the events that occur in movies in their own way, and it is a work that emphasizes the process of thinking rather than the plot. In terms of the Einstein formula, "Burning" is a film that seeks new meanings in a form that is segmented, reconstructed, and unfolded. In this sense, the overall form of this work can be analyzed by Eigenstein as a major concept presented in his montage theory.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analyze Lee Chang-dong's movie "Burning" with some concepts of Sergej Eisenstein's theory.

한국 지역경찰에 있어서 경찰의 주민신뢰가 지역사회경찰활동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허용훈(부경대학교)·**문유석**(경성대학교)

Ⅰ. 서 론

본 연구는 지역경찰활동에 있어서 경찰관의 주민신뢰가 경찰관의 지역사회경찰활동 수용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지역경찰활동을 수행하는 경찰관의 인식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주민신뢰와 수용도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연구문제(research problem), 가설들을 설정하였고 이를 실증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경찰관의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수용도를 분석하고, 2) 지역경찰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경찰이 주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3) 그리고 경찰관의 주민에 대한 신뢰가 경찰관의 지역사회경찰활동 수용도, 협력치안 태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지역경찰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각 경찰서의 생활안전과, 순찰지구대 및 파출소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Ⅱ. 지역경찰활동에 있어서 주민신뢰와 지역사회경찰활동 수용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지역경찰활동의 개념 및 범위

지역경찰활동은 경찰활동의 수가 매우 많고 그 범위도 넓기 때문에 지역경찰활동을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지역경찰활동이란 지역경찰관이 수행하는 제반활동을 총칭하는 것이다(허용훈, 2004: 191).

지역경찰활동은 경찰업무의 한 분야로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지역경찰활동은 순찰활동을 포함한 각종 경찰사건·사고에 대한 즉응활동과, 순찰지구대 및 파출소를 활동거점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전문 지역사회경찰활동 및 이와 같은 임무와 활동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관리업무를 의미한다(경찰대학, 2004: 291).

2. 경찰의 주민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은 주민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활동이기 때문에 지역사회경찰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찰과 주민 간의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다. 경찰과 주민 간에 상호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호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주민은 경찰을 신뢰해야 하고 지지를 보내야 하며, 경찰 역시 주민을 신뢰해야 하고 주민이 경찰을 지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경찰과 주민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이 강조하고 있는 상호협조를 통한 협력치안을 할 수 있다(허용훈·문유석, 2014).

3.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개념과 특성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전통적 경찰활동과는 달리 경찰관과 시민의 접촉으로 지역사회의 무질서, 범죄, 지역사회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핵심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경찰과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을 증진시켜 협력관계를 창출해 내는 것이므로 시민과의 상호협력이 강조되고 시민의 역할이 중요시 된다(이은주외, 2014: 153).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특성은 국가별로 그리고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연구하는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대체로 공통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Skogan, 2000; Oliver, 1998; Trojanowicz, 1998; 허용훈, 2003: 62).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구성요소는 대체로 지역사회와 경찰과의 파트너십, 문제지향적 활동을 통한 순찰활동, 경찰활동에 있어서의 지역사회의 참여, 경찰의 분권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중요한 차원으로서 앞으로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허용훈·문유석, 2018).

4. 지역사회경찰활동 수용도의 개념 및 중요성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수용이란 경찰관이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철학과 이념을 받아들여(acceptance) 그에 따른 태도와 행동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외면적으로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이 요구하는 행동규정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철학과 이념 및 가치체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수용도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정책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정책대상집단이 수용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며 그 정책은 실패하고 만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사회경찰활동이 아무리 훌륭한 경찰철학이라고 하더라도, 지역경찰활동을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지역경찰관들이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철학 이념을 체득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수용도가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5. 지역사회경찰활동 수용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지역경찰사회경찰활동에 대한 경찰관의 태도는 경찰관이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철학과 이념에 대하여 동의(agree)하고, 이를 수용하고(accept), 실천(action)하는 것으로서 지역사회경찰활동으로 대변되는 주요한 활동이나 프로그램 및 제도에 대하여 지지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표현하는 정도를 말한다(Lewis et al., 1999: 575).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태도 연구는 대체로 성별, 연령, 계급, 학력, 근무연수 등 경찰관

의 인구통계학적인 개인적 변수의 차이에 초점을 맞춰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경찰관의 태도를 연구한 것이 많다(Novak et al., 2003: 59; Lewis et al., 1999: 579; Kratcoski & Dukes, 1995; 176; 허용훈, 2004:196).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자의 이론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변수들에 의하여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태도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개인적 변수 이외에도 태도의 영향요인으로 선행연구 및 관계 경찰관과의 면담을 바탕으로 주민에 대한 신뢰, 사회적지지, 범죄발생도, 동네결속력, 목표의 내면화, 자아효능감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지역사회경찰활동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는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지역, 조직, 개인의 세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상기 변수들이 지역사회경찰활동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 중의 하나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Ⅲ. 분석 틀 및 조사설계

1. 분석 틀 및 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경찰관들의 수용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고, 주민들에 대한 신뢰가 지역사회경찰활동 수용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경찰관들의 지역사회경찰 활동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단계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로, 경찰관들의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수용도와, 주민들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측정해 보고, 그 수준이 응답자들의 배경적 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로, 지역사회경찰활동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식별하고, 이들 변수들을 통제한 가운데 경찰관의 주민신뢰가 수용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2. 조사설계

1)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수용도에 대한 일선경찰관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평가하고 주민에 대한 신뢰가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역경찰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각 경찰서의 생활안전과, 순찰지구대 및 파출소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12)]

12) 설문조사는 관계경찰관의 협조 아래 2017년 9월14일부터 9월 26일까지 12일간 실시되었으며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중에서 불완전하게 작성한 6매는 제외시켜 총 243부를 대상으로 통계처리하였다(회수율 97%). 통계분석방법은 주로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분산분석 및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Window 23.0 program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n	%	구분		n	%
성별	남자	193	79.4	학력	고졸	61	25.1
	여자	48	19.8		전문대졸	30	12.3
	합계	243	100.0		대졸	140	57.6
					대학원졸	8	3.3
					합계	243	100.0
계급	순경	48	19.8	총재직기간	5년 미만	72	29.6
	경장	49	20.2		5년-10년	50	20.6
	경사	52	21.4		10년-15년	22	9.1
	경위 이상	92	37.9		15년-20년	37	15.2
	합계	243	100.0		20년 이상	60	24.7
					합계	243	100.0
				현지구대 근무기간	1년미만	50	20.6
					1년~3년미만	100	41.2
					3년~5년미만	25	10.3
					5년이상	65	26.7
					합계	243	100.0
연령	20세-30세	45	18.5	근무지역	일반주택가	153	63.0
	30세-40세	89	36.6		아파트	24	9.9
	40세-50세	66	27.2		유흥가	7	2.9
	50세 이상	41	16.9		상가	33	13.6
	합계	243	100.0		역터미날	5	2.1
					영세민주거	8	3.3
					농어촌지대	2	0.8
					공장지대	2	0.8
					기타	1	0.4
					합계	297	99.7

Ⅳ. 지역경찰활동에 있어서 주민에 대한 신뢰와 지역사회경찰활동 수용도와의 관계분석

1. 주민신뢰 및 수용도 실태분석

1)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수용도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개념적으로 크게 4가지 차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치안서비스 지향적 활동, 경찰분권화이다. 지역경찰이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철학과 이념을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응답자들의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수용도는 5점 척도로 평균값이 3.51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지역사회경찰활동에 경찰관의 인식분석

	지역사회경찰활동	경찰분권화	협력예방	치안서비스
N(인원수)	243	243	243	243
평균	3.51	3.98	3.72	2.71

2) 주민에 대한 신뢰도

경찰관의 주민에 대한 신뢰는 평균 3.0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경찰활동을 수행하는 경찰관의 주민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역경찰활동에 있어서 협력치안의 중요한 위협요소라고 알 수 있다.

<표 123> 경찰관의 주민에 대한 신뢰도

변수	문항내용	N	평균	표준편차
X13	대체로 관내 주민들을 믿기 때문에 주민들과 거리낌 없이 업무이야기를 한다.	243	2.48	1.034
X14	우리 관내 주민들은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243	3.00	.841
X15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불신감을 느껴 본 적이 많다.	243	2.68	.911

2. 협력예방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협력예방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투입된 변수 중 주민에 대한 신뢰, 목표내면화, 및 자아효능감이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r2가 .406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24> 협력예방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에 대한 95.0% 신뢰구간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하한	상한	공차	VIF
1	(상수)	.847	.262		3.229	.001	.330	1.363		
	주민에대한신뢰	.239	.067	.222	3.545	**.000**	.106	.371	.641	1.560
	사회적지지	.074	.067	.073	1.093	.276	-.059	.206	.561	1.783
	범죄발생도	.051	.056	.049	.912	.362	-.059	.160	.887	1.127
	동네결속력	-.003	.066	-.003	-.045	.964	-.132	.126	.548	1.825
	목표내면화	.235	.063	.248	3.709	**.000**	.110	.359	.562	1.780
	자아효능감	.275	.067	.264	4.130	**.000**	.144	.406	.615	1.626
a. 종속변수: 협력예방 F=26.931 유의확률.000 R2=.406										

Ⅴ. 결 론

우리나라 지역경찰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철학과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프로그램을 오래 전부터 도입·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수용도는 평균 3.5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경찰관의 주민에 대한 신뢰가 수용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주민에 대한 신뢰는 평균값이 3.0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주민들 간의 신뢰관계 제고방안을 포함하여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 Abstract 】

Effect of Police Officers' Citizen Trust on the Acceptance of Community Policing in Local Policing of Korea

Huh, Yong-Hoon(Pukyung National University)
Moon, Yu-Seok(Kyung Sung University)

Community policing is a collabo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the community that identifies and solves community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e officers' attitudes toward community policing, and the effect of police officers' citizen trust on the acceptance of community policing in local policing of Korea, and to provide the strategie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community policing in Korea, through literature reviews and interviews with police officers of community.

南北/北美 頂上會談의 意味와 向後 課題

朱鳳浩(東義大學校)

Ⅰ. 緖論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휴(정)전 상태를 종전 및 평화체제로 만들고, 20여 년 이상 끌어오던 핵 문제를 '완전한 비핵화'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남북의 군사충돌을 예방하고 경제 사회 문화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자는 합의를 담았다.

이어서 분단과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 동안 적대관계를 유지해 왔던 북한과 미국이 처음으로 역사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개최된 6월 12일의 싱가포르 북 미정상회담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합의한 짧고 추상적인 공동성명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공동성명에서 북 미는 새로운 북 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고, 북한은 판문점 회담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평가가 대두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북한과 미국 정상간의 첫 만남이라는 점과 북·미관계 및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향후 후속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질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경제발전노선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북제재 해소가 필수적이며, 비핵화조치도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금년 11월 중간선거 및 2020년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도 북핵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 비핵화의 진행과 더불어 북한체제보장을 포함하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프로세스 역시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에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 미정상회담의 의미를 고찰하고 향후 과제를 성찰하고자 한다.

Ⅱ. 南北頂上會談의 意味

우선 북 미정상회담의 전초전 격인 남북정상회담을 간단히 평가해 보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 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첫째, 상호 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둘째,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 셋째,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 넷째, 남북정상회담 정례화가 그것이다.[1] 즉 다시 말해서 1) 남북관계 개선 2) 군사적

긴장완화 3) 평화체제 구축 4)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내용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다.[2)]

판문점 선언의 구조 및 각 조항의 내용들을 둘러싸고 다양한 지지와 반대의 의견이 국내에서 개진되고 있고, 대부분 일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요한 점은 남북정상회담은 북핵 문제, 그리고 그 근원이 되는 북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입구 중의 입구이므로, 이후에 펼쳐질 일련의 교섭 및 변화와 함께 하나의 패키지 속에서 그 의미와 성패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이다. 남북한은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과거 합의에 기초한, 그리고 민족적 열망에 기초한 교류 및 협력 사업들을 열거했고, 통상전력 군축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했지만, 향후 남북 경제협력이 유의미한 단계에 이르고 통상전력 군축이 전반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두 북핵 문제를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북핵 문제는 단계적으로 미국과 이후 중국, 동북아 국가들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하나씩 통과해야 온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주요 합의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판문점 선언'은 비핵화의 진전과 연동되어 생명력을 갖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비핵화 진전은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토대 가운데 하나인 교류협력의 본격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북핵 문제가 전면화된 상황에서 이와 무관하게 남북관계 발전, 나아가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물론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되지 않은 조건에서는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 교류가 추진될 수도 있지만 이는 일시적, 잠정적으로 가능할 뿐이다. 무엇보다 북한 핵보유에 따른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는 북한과의 인도적 차원의 교류협력마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국 남북관계와 북핵문제가 상호 선순환적으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교류협력 재개 문제도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3)] 국제사회의 공고한 합의에 기초한 강도 높은 경제제재를 경험한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이 북핵의 완전한 폐기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원회의의 결정을 핵·미사일 동결을 넘어 과거와 현재의 핵 폐기까지 포함하는 경제건설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만족하고 자신의 지배연합 구성원을 설득해 낼 수 있는 체제보장의 물리적 담보를 그 대가로 얻어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전까지 북한은 과거와 현재의 핵을 유지하면서 비핵안보와 경제발전의 새로운 병진이 정말 가능할지 극도의 조심성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다. 북한의 전략적 변화는 미래를 향해 열려 있고 남북정상회담은 모두가 원하는 길로 북한을 이끌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Ⅲ. 北美頂上會談의 意味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상 첫 북 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북 미가 공동성명을 통해 합의한 사항은 첫째, 새로운 북 미 관계 수립,

1) 이상현,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북미정상회담 전망,"『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5월호, p.37.; 최영윤·한별이, "제1-3차 남북정상회담 주요 내용,"『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5월호, p.75.
2) 이승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전망,"『이슈와 논점』, 제1463호 (2018.5.8), pp.1-2.
3) 임을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조건: '4.27 판문점 선언'을 중심으로,"『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pp.9-10.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셋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넷째, 미군 유해 송환 등 4개 항이다.[4]

일반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내외 대북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동인이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된 새로운 배경으로 보고 있다.[5] 첫째는 핵무력과 운반수단을 완성하게 된 김정은 정권의 나름의 자신감을 갖고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핵 협상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둘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가 고수한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에 중국이 적극 협력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구조적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북한당국이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셋째는 미국의 강력한 군사옵션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지도부는 핵과 미사일 개발만을 지속하게 된다면 퇴로가 없다는 자각 속에 협상에 임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 탈퇴 이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집권 후 가장 큰 정치적 성과를 내게 될 열망에 부풀어 있어 북 미간 완전한 비핵화를 둘러싼 원칙적 합의가 도출될 동기가 더욱 강해졌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열망에 못지않게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북한의 대미 불신과 위협감을 이해하고, 북한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감을 보이면서 반대급부인 체제보장의 담보를 물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물리적 담보수준은 북 미간 신뢰 정도와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외교적, 경제적 부가 수단과 함께 결정될 것이다.

비핵화 협상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 양국 간에 이루어지는 협상이다. 그리고 양국이 아직까지 적대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과 대결적 상태가 지속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리 핵포기의 전략적 결단을 했다하더라도 이를 북한 국내에서 실행에 옮길 명분과 설득논리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적대적 상태가 종식되고 미국, 그리고 남한과의 정상적인 국가관계가 성립된다는 확실한 신뢰가 있어야 북한이 핵심전력인 핵을 포기할 명분이 생긴다.[6]
반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국내적으로 이미 악마화되어 있는 북한에 선뜻 '종전'이라는 선물을 주기가 어려울 것이다. 종전을 선언했는데 북한이 비핵화를 질질 끌면서 제재의 완화만을 노린다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북한에 이용당했다는 모양이 된다. 거기다가 북한의 술수에 말려들 수 있다는 생각에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과 남한의 국내적 반발이 있을 수 있다.
현재 미국 내 전략가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정서적 대립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함께 갖고 있어 북 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흐름이 매우 강하다. 그러므로 미국은 대북 압박을 최대화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비핵화의 기준과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압박뿐 아니라 미국 자신의 협상 입지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 요구들을 충족시키면서 안보 논리상 유의미한 북 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7]

기존의 비핵화 협상은 실무진이 디테일을 협상하고 일이 잘 진행되면 궁극적으로 정상회담을 통하여 협상을 마무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면, 이번 비핵화 협상은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이 큰 틀에서 합의하고, 실무진은 그 합의 내용을 꼼꼼하게 이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기존의 정상회담과는 매우 상이한 일종의 역순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형

4) 이용인·노지원, "북·미, 4가지 합의 이행 기싸움...핵심은 비핵화 접점 찾기,"『한겨레』(2018.7.13.).
5) 이동민, "김정은 3회 연속 중국방문과 북중관계의 변화,"『안보현안분석』, Vol.145 (2018.7.20), p.2.
6) 이근, "'종전의 시작'을 선언하자,"『경향신문』(2018.7.26).
7) 하영선·전재성, "북미정상회담이 남긴 숙제 제대로 풀기,"『EAI 논평』(2018.6.21), pp.2-3.

식의 차이는 합의 이행이라는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져오게 되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장점으로 작용한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합의 이행과정에서 실무진 사이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행 속도가 늦어지면 정상들이 개입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최종단계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8)]

따라서 이번에는 정상들이 합의만 한다면 비핵화의 과정이 예상외로 빨리, 그리고 끝까지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많은 국내정치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합의 사항을 실천해 낼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최고지도자에 못지않게 미국의 최고지도자에게도 의구심을 갖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고, 미국의 몫이기도 하다.

Ⅳ. 向後 課題

1. 非核化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완전한 체제보장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려면 오랜 기간 동안 적대관계를 유지했던 북 미간에 상당한 수준의 신뢰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따라서 북 미간에 핵군축의 첫 단계인 신뢰구축 조치가 단계적으로 또 동시적으로 진행된다면 북한은 다음 단계로 최소한의 억지를 위해 핵 능력을 제외한 핵시설과 핵물질 등에 대한 국제 신고, 검증, 비가역 조치를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을 보이는 한편, 미국이 약속한 새로운 북 미관계의 수립, 평화체제 정착, 대북 경제제재 조치 해제 등을 본격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핵군축의 1단계로 진행될 북한의 신뢰구축 조치는 일방적으로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2단계로 최소한의 핵억지 능력을 제외한 비핵화 과정은 완전한 체제보장의 새로운 북 미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및 경제 지원의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서 눈에 띄게 완화된 속도로 추진될 것이다. 더구나 마지막 3단계로서 북한이 국제사회가 만족할 수 있는 완전한 비핵화를 외부의 검증 및 비가역 조치와 함께 완성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신뢰구축 위에 새로운 전략적 결단을 필요로 한다.

2. 終戰宣言과 平和協定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종전선언을 시발점으로 평화협정 체결, 국제 보장, 그리고 동북아 안보협력 구도의 형성 등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핵심은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간의 종전선언을 시발점으로 북 미평화협정과 남북기본협정의 체결을 통해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국제보장과 동북아 안보협력 구도를 형성하는 발상이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입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평화협정체결 시점까지의 기간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종전선언은 그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종전선언은 일정한 구속력을 담보하는 공동성명 내지는 합의문 형태로 도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9)]

---

8) 이근, “북미관계 새로운 시대 열리나?,”『한반도평화포럼 5월 월례토론회』(한반도평화포럼, 2018.5.24), pp.5-6.

9) 조한범,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제언,”『안보현안분석』, Vol.145 (2018.7.20), p.6.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참여자는 전쟁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중국의 4자가 바람직하다. 다만 종전선언의 경우 북 미 정상회담 장소에 따라 편의적으로 남 북 미 3자 사이에 추진될 수 있다. 평화협정의 경우는 4자의 포괄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의제별로 남북, 북 미, 남 북 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별도의 의정서를 맺을 수도 있다.[10]

3. 北 美 修交

북 미 수교의 가능성은 비핵화 협상 합의가 최종적인 단계까지 무난하게 잘 갈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과 같다. 지금 가장 현실적이고 상상 가능한 비핵화의 로드맵은 북의 비핵화 최종단계와 북 미 수교를 교환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 미 수교 가능성은 최종단계까지의 장애물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지와 함수관계에 있다.
북한의 비핵화에 이르는 가장 큰 원칙은 적대관계의 비가역적인 청산이다. 따라서 문서상의 합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국가간의 변화와 상호 정체성의 변화이다. 물론 수교는 그러한 구조적 변화와 정체성 변화를 시작하는 입구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 수교가 통상관계의 확대, 인적 교류의 확대, 상호 주권의 존중, 그리고 공동이익의 확대를 가져와야만 비가역적인 적대관계의 청산이 가능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을 북 미수교와 함께 보편적인 국제질서로 편입시키고, 다자주의 통상질서에서 번영의 길로 이끄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11]

4. 國際協調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체제보장 문제는 단순히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아 태 지역의 평화체제 문제이다. 핵무기 국가 북한은 아 태질서에서 핵확산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며, 북한체제의 불안정은 아 태질서를 주도하려는 미국과 중국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한반도 평화체제와 아 태평화체제를 동시에 모색하는 복합적 노력이 중요하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는 국제적 경제지원이 필수적이며, 북한의 완전한 체제보장도 미국, 중국, 한국과 같은 양자, 6자회담과 같은 다자, 유엔과 같은 지구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5. 韓半島 經濟共同體

경제가 핵심적 관건인 만큼 이것을 어떻게 다른 의제들, 비핵화와 평화체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축과 연결시킬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다. 따라서 경제적 관계의 확대가 민간의 자율성과 시장의 유연성에 기초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또한 종합적 조율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관건이다. 그리고 남북한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있고 이것이 가져올 사회정치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개성공단의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포함한 남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장차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가능케 하는데 필수적인 철도연결망 등 대형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남북한 시장통합을 추동할 수 있는 중장기적이고 제도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스스로의 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지식협력 사업

---

10) 김연철, “한반도 평화체제: 어떤 시퀀스가 현실적일까,”『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96호, (2018.5. 15), p.2.
11) 이근, “북미관계 새로운 시대 열리나?,” p.6.

을 구상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과 함께 접경지대의 경제특구 조성과 남북경제협력지대의 창설과 같은 지역거점을 마련하는 것도 구상할 수 있다.[12] 물론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미국의 양자제재가 해제 및 유예될 때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Ⅴ. 結論

'판문점 선언'의 핵심 골자는,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교류협력 증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같이 비핵화, 평화체제, 분단국관계 제도화와 민간의 교류협력 등은 한반도 평화를 항구적으로 자리잡게 하는데 필수적인 과제들이다. 이들은 서로 밀접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추진 주체와 동력의 기반이 각기 다르다. 따라서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선순환적으로 연결되어 총체적인 평화구축의 시너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제재가 완화 또는 해제될 수 있고, 남북경협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나 남한 정부 및 기업이 기대하는 수준의 경제교류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사업과 같이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을 재개하는 것조차도 201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잇달아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상당부분 완화되거나 해제되어야 가능하다. 기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완화·해제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가 필요하다.

결국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그 단계에 도달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한국의 역할이 점차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한 미관계뿐만 아니라, 북 중관계 강화에 대응하여 한 중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략적인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다각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러시아와 일본도 마찬가지다.

참고문헌

김연철, "한반도 평화체제: 어떤 시퀀스가 현실적일까,"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96호 (2018.5.15).

박명규,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전망과 과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한반도평화포럼, 2018.5.23).

이 근, "'종전의 시작'을 선언하자," 『경향신문』, 2018.7.26.

이 근, "북미관계 새로운 시대 열리나?," 『한반도평화포럼 5월 월례토론회』 (한반도평화포럼, 2018.5.24).

이동민, "김정은 3회 연속 중국방문과 북중관계의 변화," 『안보현안분석』, Vol.145 (2018.7.20).

12) 박명규,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전망과 과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한반도평화포럼, 2018.5.23), pp.30-31.

이상현,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북미정상회담 전망,”『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5월호.
이승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전망,”『이슈와 논점』, 제1463호 (2018.5.8).
이용인 노지원, “북 미, 4가지 합의 이행 기싸움...핵심은 비핵화 접점 찾기,” 『한겨레』 (2018.7.13).
임을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조건: ‘4.27 판문점 선언’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전재성, “판문점 선언 이후 새로운 도전들,”『EAI 논평』(2018.5.10).
조한범,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제언,”『안보현안분석』, Vol.145 (2018.7.20).
하영선 전재성, “북미정상회담이 남긴 숙제 제대로 풀기,”『EAI 논평』(2018.6.21).

【 Abstract 】

The Meaning and Future Tasks of the Inter-Korean/ North Korea-U.S. Summit

Joo, Bong-Ho(Dong-eui University)

The Panmunjom Declaration adopted at the South-North summit on April 27, 2018 promised to make the state of truce in the Korean peninsula into the end of the war and a peace regime,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nuclear issue that had taken more than 20 years, and to strengthe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economic and social cultures.

The key points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can be summarized a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transition to the peace regime of the armistice system, and the alleviation of militar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motion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The denuclearization, the peace regim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divided countries and the exchange of the private sector are essential tasks for permanently establish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eld the historical summit for the first time since then, which had maintained hostile relations for 70 years since the Korean War. The June 12 meeting of the NK-US summit in Singapore concluded with a brief, abstract joint statement agreed upon through twists and turns. In the joint statement, North Korea and the US will work together to establish a permanent and solidified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establish a new North Korea-US relationship, and North Korea will reaffirm the Panmunjom talks and make efforts to denuclearize of the Korean peninsula. Although the results of the talks are somewhat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y are generally regarded as the first meeting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and will be a significant turning point in establishing a bilateral peace order. Therefore, much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the concrete and clear agreement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subsequent talks.

In the end, the basic agreement on 'complete denuclearization' was reached at the North Korea-US summit but it seems that it will take a long time to reach that stage. Therefore, Korea's role in the denuclearization and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this article, I will examine the meanings of the inter-Korean summit and the North Korea-US summit, and reflect the future challenges.

제주도 방문 베트남 관광객의 개인가치와 관광지 선택속성만족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설훈구(부경대학교)

1. 서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관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광에 대한 수요의 확산에 따라 수요시장에서의 유치경쟁은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관광사업자 및 관광 관련기관들은 수요시장의 주체인 관광자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광산업은 일반적으로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에 따라 관광 의사결정 과정에서 물리적인 변수보다는 다른 차원의 심리적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해지는 관광 의사결정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 관광자의 내면의 의해서 관광행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는 한류 열풍과 더불어 한국 관광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베트남은 중국, 인도 등과 더불어 2008년에서 2017년 사이 관광 소비에 있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전망되고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2011, 이하 WTTC) 있어 해외여행시장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는 베트남 직항 노선을 임시로 취항하여 (제주일보, 2011) 베트남 관광객의 한국 방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베트남인 에게는 한국 비자를 받기가 매우 까다로워 이에 발맞춰 나온 “제주5박, 비자면제” 라는 상품이 최근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비자가 있어야 관광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베트남 관광객이 특히 많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제주도에 방문한 베트남관광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만8천명대에서 2015년과 2017년도에는 3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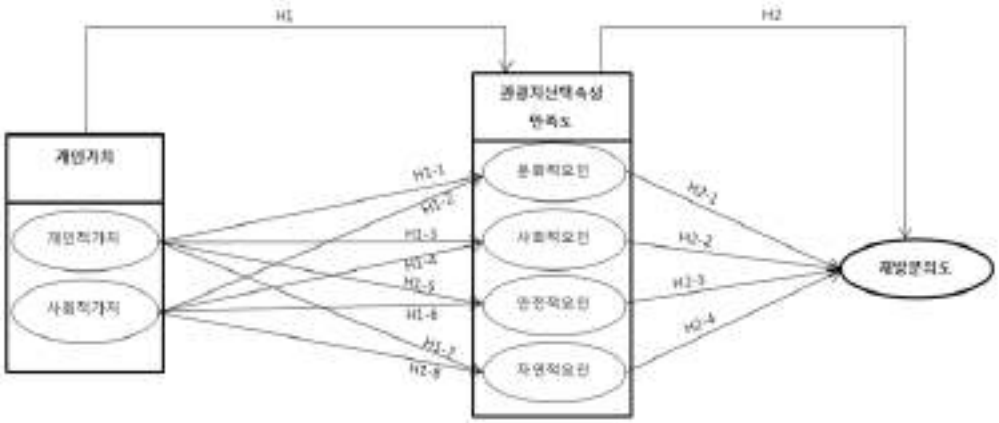
최근 한국을 찾는 베트남 관광객의 소비는 국내 관광산업 매출 증대 및 고용 창출과 국제 관광수지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베트남 관광객의 관광 및 여행 형태나 특성을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방한 외래 관광객의 연구는 대부분 일본, 중국 등 방한 외래객 수가 많은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나 신생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 그중 베트남 시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방한 베트남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객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관광객 자체의 행동 심리적 요소와 관광지가 가지고 있는 매력속성, 만족도 및 사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한 편이다.
보편적으로 관광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크게 관광자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요인과 관광지가 가지고 있는 요인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방한 베트남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여 관광자의 심리변수 중에 하나인 관광자의 가치가 관광지 선택속

성 만족도,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베트남관광객 유치를 위해 실증적 연구로써 관광지 선택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베트남방문객의 개인가치, 관광지 선택속성 만족 간의 영향을 밝혀 베트남인 관광객의 효율적인 유치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베트남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베트남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는데 본 연구가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개인가치가 관광지 선택속성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관광지 선택속성 만족은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개념과 변수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 결과

한국을 찾은 베트남인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중에서 베트남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많이 찾아온다. 본 연구는 관광지 선택속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개인가치와 관광지 선택속성 만족, 재방문의도 간의 관계에 대해 측정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에게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론적 근거와 실증연구를 위한 설문항목을 도출하였다. 실증연구에게는 베트남인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만들어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실증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작성한 설문지를 가지고 한국 제주도의 유명한 관광지에서 직접 배부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한 베트남 관광객의 개인가치와 관광지선택속성의 만족도와의 영향관계에서는 개인가치의 모든 요인이 관광지 선택속성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관광지선택속성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요인 순으로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Abstract 】

An Impact of Personal Value of Vietnamese Tourists Visting Jeju Island on Tourist Destination Selection Attribute Satisfaction and Revisit Intention

Sul, Hoon-Ku(Pukyong National University)

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relationships among tourist's personal values, tourist's satisfaction and destination selection attributes and how tourist's personal values and tourist's satisfaction destination selection attributes are organized as subset concepts, based on the perceptions of Vietnamese visiting Jeju Island area.

The personal values are considered as personal and social value. The satisfaction in destination selection attributes are explained as cultural, social, safety, and natural attributes. Methodology in this study is based on empirical research of previous studies, the survey design, and 240 samples of Vietnamese visitors returning home after visiting Jeju Island. The empirical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all the factors of the personal values of Vietnamese tourists positively impact the satisfaction of tourist destination selection attributes.

The results are significantly indicating the followings. Vietnamese tourists' personal values impact on the most of the satisfaction of the tourist destination selection in Jeju Island. However, interestingly enough, only natural satisfaction factor perceived by Vietnamese tourists visiting Jeju island. This extends that the major reason that many inbound tourists visit Jeju is natural attraction..

한국과 일본 아동보육시설의 리스크매니지먼트에 관한 연구

김경민(대구한의대학교)

1. 서론

아동보육시설에 있어서의 리스크매니지먼트는 위험관리, 위험교육 및 리스크의 예방 또는 안전의 용어를 사용하여 안전관리 · 교육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리스크매니지먼트는 경영 및 이 · 공학계열의 리스크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피해최소화 및 피해에 대한 회복을 위해 널리 쓰여지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이후 의료 · 간호에의 영향으로 사회복지 및 아동보육관련 분야에서도 적용되어 실천 · 교육되어 지고 있는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보육시설의 리스크매니지먼트에 대해 대상자의 관점에서는 아동을 중심으로 학부모, 보육시설 원장 및 직원, 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 환경적인 리스크를 포함하고자 한다. 아동보육현장에 있어서의 아동 자체의 리스크 부분과 아동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의 생태학적인 측면의 아동과 아동의 가족 그리고 아동보육시설과의 관계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불가항력적인 화재 및 자연재해 등도 리스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아동보육시설은 양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충족되어 지고 있고, 아동보육시설내의 질적인 즉 서비스 질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아동보육의 기초적인 아동을 보호자 대신 맡아서 돌보는 탁아 및 보호 역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과 아동 및 가족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역할까지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아동보육시설의 서비스질의 확충을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적인 서비스 제공 보다는 아동의 입장을 고려한 서비스의 제공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공급자적 서비스제공은 아동보육시설의 집단적인 성격을 고려해 본다면 아동의 안전 및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 아동의 활동을 제한적 · 규제적 보호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동중심적인 측면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아동의 개인의 독창성 및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활동 및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는 아동보육시설 내 · 외에서의 리스크 요인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보육시설에서는 아동들의 리스크에 대한 위험행동 및 위험요인에 대해 대처 및 개선노력을 하고 있으며, 아동의 학부모와의 상담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아동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의 보육시설 내 · 외의 물적 인프라 및 인적 인프라의 위험요인을 감소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에 둘러 쌓여있는 아동보육시설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표적으로는 아동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 문제이며, 안전사고 및 급식문제, 화재문제 등을 들 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확충을 통한 리스크매니지먼트 구축을 위해 보육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아동의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한 리스크와 서비

스 질 확충에 저해요소인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고, 불가항력적인 리스크에 대해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한국보다 빠르게 저출산(소자화)의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과 비교고찰을 통해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론

아동보육시설의 리스크매니지먼트를 알아보기 위해 리스크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자 한다. 먼저 아동보육서비스를 제공에 있어서의 리스크이다. 아동보육시설 내·외에서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제공 상의 리스크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아동보육시설의 원장 및 직원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적인 리스크이다. 예를 들자면, 아동처벌이나 아동학대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불가항력적인 리스크이다. 화재 및 자연재해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은 아동보육시설의 세 가지 리스크를 중심으로 리스크매니지먼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째, 아동보육서비스 제공 상의 리스크이다. 보육교사의 영유아문제행동에 대한 인식 중 '공격적·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문제행동의 인식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감정적·의존적 행동'에 대한 문제행동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생활을 하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어린이집의 특성으로 다른 영유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보육교사들은 가장 문제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홍성호외,2016:192-193).

아동의 행동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재활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보육교사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장애유형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이었으며,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장애유형은 '정서·행동장애'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리고 발달영역 중에서 '사회·정서 발달'이 가장 필요하였다(조재규,2016:318). 아동보육시설에서의 기본적인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도로 횡단시 안전, 미아방지, 보행시 교통안전, 위험한 장소에서의 안전 등이며 주로 교통안전에 대한 내용과 실외놀이 영역의 안전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하영례외.2007:51) 반면,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내용으로 사건 발생 시 법적 책임문제, 동물로부터의 안전, 납중독·살충제 중독 예방,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이영애외,1997:238). 이를 위해서는 아동을 둘러싼 보육서비스 제공 상의 리스크는 아동, 아동의 가족, 보육교사, 보육시설을 포함한 생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정서·행동적인 문제 및 욕구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면 보육교사의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및 예방을 위해서는 가족과의 연계를 통한 아동의 보육환경과 지역사회 및 외부의 지원 또는 행정적인 지원 등의 다양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안전교육에 관한 종래의 연구들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 또는 성인이 아동의 안전을 관리, 교육하는 것과 같은 아동을 둘러싼 환경이나 성인의 원조의 자세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많았다. 그러나 주체에 있는 아동의 안전에 대한 인식, 아동이 갖은 위험회피능력, 긴급 시에 있어서의 아동의 인지, 행동의 특징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없는 실정이다(松田廣則他,2009:28). 근래에는 아동의 정신적 문제의 요인을 보면, 아동자신의 요인, 부모의 요인, 보육·교육의 요인, 사회요인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것의 해결은 의료·교육·복지영역 등이 연계해 가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는 장애를 포함한 아프거나, 부적응상황, 일시적인 발달상의 문제에 대한 이

해, 지원이 가능한 인재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을 둘러싼 가족, 교사 등에 대해서도 역동적인 이해를 포함하여 이해하고, 지원 가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尾久裕紀,2012:98). 또한 보육서비스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히야리햇토 사례에서 원인을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리스크 및 사고에 집중으로 아동 발달 및 존엄성을 저해하는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은지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長谷川万由美他,2013:3). 田村惠一(2015:1)는 보육교사가 일상의 어린이 중에서 항상 아이의 움직임에 대해서 눈으로 관찰, 상황 파악하는 힘을 기르고, 사고의 예지와 예견 능력을 키우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며, 아동 자신의 위험 감수성을 높이는 활동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기타 아동보육시설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동들의 집단급식에서의 식품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보육시설에 식품 알레르기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함과 식품 알레르기 관련 예방 관리 지침을 제정해야 함이 우선하며, 응급상황 시 대비 계획 등 보육시설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서원희외,2011:36) 이를 구체화하여, 고위험 식재료에 대해서는 납품업체 선정 및 검수 기준 마련과 지도가 필요하다(설혜린외,2009:260). 일본의 田中惠子他(2012:19,2016:49)는 사회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한 불안의 정도, 아동의 식품 안전에 관한 문제 인식, 음식 알레르기에 대한 지식 레벨 및 평소의 보육 활동으로 의식하는 식품 안전 문제의 기술 내용에서, 먹거리 교육 담당자인 교사 및 보육 양성 과정 학생이 스스로 식품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인 시점을 익히기 위한 교육 및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체계적인 아동보육시설의 리스크매니지먼트를 위해 박승기(2013:202-3)는 보육사업 안내와 각종 법률 및 지침 등에 의한 수동적인 안전관리가 아닌 전 직원이 서비스 질 향상활동에 참여하여 위험인식·확인, 위험대응처리 방법선택·수행, 위험 재평가·재발방지, 위험분석·평가를 하는 위험관리 과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위험관리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시설 내 위험관리 위원회를 설치하며 위험관리 매니저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한다. 또한 정기적인 교육 및 사례발표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여 위험관리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시스템이 최종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일본의 교육·보육시설 등의 사고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사고 발생 방지(예방)를 위해 안전 교육·보육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배려사항 등, 직원의 자질 향상, 비상대응체제의 확인, 학부모와 지역 주민 등 관계 기관과의 제휴, 어린이 및 보호자에 대한 안전 교육, 시설 등의 안전 확보에 관한 체크리스트,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체제 정비,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조하였다(教育·保育施設等の事故防止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等に關する調査研究事業檢討委員會:2018:1-11). 아동보육서비스상의 리스크매니지먼트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 또는 매뉴얼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동들의 위험 및 안전의 요인을 예방·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하며,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례를 논의 할 수 있는 아동보육시설 구성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또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아동보육시설 원장 및 직원에 의한 인위적인 리스크이다. 아동의 학부모는 교사와 원장에 비해 아동학대를 더욱 위험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처벌 및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주로 요구하고 있다면, 보육교사는 근무환경 개선을 주로 요구하고 있었고, 원장은 주로 교사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같은 보육교사의 능력을 개선하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강신해외,2017:340). 아동보육시설내의 아동학대의 감소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첫째, 지속적으로 부적응 행동을 하는 유아에 대한

보육 방법에 대한 단계별로 세밀한 통일된 지침이 만들어야 이러한 유아를 보육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논란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체교사에 대한 보장이 되어야 한다. 셋째,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규정 엄수, 넷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한 기능인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의 활용, 다섯째,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여섯째,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명시, 일곱째, 보호자가 영상정보 열람요청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 및 공적인 소통 시스템 마련, 마지막은 3년 마다 보육 실태 조사의 「보육교직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 내용에 포함 및 개선책 제시이다(차선자,2016:570-1). 그리고 조윤정 외(2013:233)은 아동학대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자체 보다는 스스로 신고를 결정하고 신고 후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다룰 수 있다는 태도와 신고 후 관리자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예측이 신고 행동에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다양한 이유로 아동 학대의 상담건수 및 보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는 것에 대해 아동보육의 실천적 측면에서의 조사 및 학대를 발견ㆍ예방할 수 있는 툴을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학대를 받은 아동과 학대를 한 부모에 대한 상담과 치료 방법의 확립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三島亞紀子,2007:189-190).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아동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의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학부모 및 사회적인 인식을 고려해야한다. 또한 아동보육현장에서의 근로환경 및 보육교사의 역량강화 등의 노력도 해야 된다.

셋째, 아동보육시설의 불가항력적인 리스크이다. 대표적인 불가항력적 리스크에는 화재 및 재해를 들 수 있다. 박재성(2009:102)는 보육시설의 피난안전에 대해 첫째, 보육시설의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 규정이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법 내에 산재되어 있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의 틀 속에서 시설안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둘째, 비상재해대비시설로 비상계단과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세부적인 설치기준이 없어 피난에 활용할 수 없는 형태로 설치되는 시설이 많다고 하였다. 셋째, 보육시설은 영유아 등 절대적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 재해약자가 거주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에 의해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 설비를 설치하기 때문에 소규모 건물에 설치되는 보육시설의 입주특성상 스프링클러와 같은 효과적인 소방 설비가 설치제외 되고 있다. 또한 화재 시 피난형태 및 물리적 위험요인에 대해 첫 번째는 화재 시 피난자의 피난의 동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홀, 유희실 중심형 평면보다 선형 평면 형태에서 가능한 피난자의 동선이 분산될 수 있도록 피난로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보육시설에서 화재 시 어느 것보다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비상대피시설 중 한명씩 이용할 수 있는 대피용 미끄럼틀 보다 다수의 피난자가 동시에 이동이 가능하여 피난에 유리한 옥외직통계단 설치를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는 영유아 보행속도로 인해 발생하는 보육실 출입구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하면 보육실에 출입구를 2곳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1층 외부연결 출입문은 미닫이문보다 1.5m 이상의 출구 확보가 가능한 여닫이문으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한기성외,2017:140). 일본에서는 불가항력 리스크에 대해 불가시의 리스크, 책임을 묻지 못하는 위험, 보상할 수 없는 리스크 등으로 불리우며, 온난화 등 지구 환경의 이변에 따른 재해 위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小笠原文孝他,2010:135). 구체적으로 經濟産業省(2013:2-4)의『保育施設のための防災ハンドブック』에 대해 고찰해 보면, 아이들을 지킬 힘 세가지를 구분하였다. 지역의 상황과 환경을 생각해 보고, 방재훈련용 대응 사례집에서 시뮬레이션을 시행해보고, 지역사회와 보호자와 협력관계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고 있

다. 또한 재해 상황에서는 과거의 경험 법칙에 근거 규정 준수 및 행정지도가 전혀 통용되지 않는 위험이 표면화되기 때문에 자연재해와 음식, 감염을 중심으로 한 아동보육의 위험을 위해 리스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崎村英樹他,2012:42). 아동보육시설의 리스크매니지먼트에는 예방의 측면에서의 관련법들 간의 연계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시설내의 구조적인 측면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인적인프라 구축도 동시에 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및 훈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결론

아동보육시설의 리크스매니지먼트를 알아보기 위해 보육서비스 제공 상의 리스크, 인위적인 리스크, 불가항력적인 리스크로 구분해 보았다. 먼저, 아동보육시설의 리스크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들의 위험 및 안전의 요인을 예측, 분석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된다. 매뉴얼, 위원회, 외부자문 등이 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사고 및 리스크 재발방지의 노력이다. 사고 및 리스크를 없애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 및 현황파악을 통해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 또한 사고 및 리스크에 대한 피해최소화의 노력이다. 현재에는 상해보험 등의 민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을 받고 있지만, 피해에 대한 최소화를 위해 빠른 대처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회복이다. 아동보육시설이 피해 또는 가해가 되었을 때 그 대상자를 빠르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및 노력을 해야 한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Risk Management of Child Care Centers in Korea and Japan

Kim, Kyoung-Min(Daegu Haany University)

By conducting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 and Japan,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risks and management regarding children receiving nursery services, with a view to building a better risk management system and higher-quality nursery facilities. The risks are broken down into three categories: risks inherent in nursery service, risks made by men, and risks beyond control (or systemic risks).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summed up as follows: First, Committees, systems and manuals dedicated to preventing and reducing risks in child-caring facilities should be designed, created and put into practice. Second, while the priority should be given to precaution, post-facto analysis and follow-up measures are necessary to prevent similar incidents. Third, it is imperative to buy insurance and build emergency response network in order to minimize damage in case of accident. Last but not least, support measures for damage recovery should be complemented and strengthened.